발 간 등 록 번 호
52-6260000-000301-10

부산구술문화총서 15

부산의 설화와 민요

보유 편

박경수·황경숙 편저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2022

발 간 등 록 번 호
52-6260000-000301-10

사람과 기술 문화로 융성하는 부산

부산구술문화총서 15

부산의 설화와 민요

- 보유편

박경수 · 황경숙 편저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2022

일러두기

1. 구성과 체제

(1) 이 책은 부산구술문화총서의 일환으로 간행되는 것이다. 부산광역시를 동부산 문화권·서부산 문화권·중부산 문화권으로 구분하여 각 권역별로 설화 자료와 민요 자료를 집대성한다. 단, 이들 총서에서 빠진 설화와 민요 자료는 보유편으로 별도 간행한다.

(2) 이 책은 부산구술문화총서 제15권『부산의 설화와 민요 - 보유편』으로 부산광역시의 설화와 민요 자료 중 기존 총서에서 빠진 자료를 모아서 엮은 것이다.

(3) 이 책은 총 4부로 구성되었다. Ⅰ. 기존 현장조사 설화, Ⅱ. 문헌 소재 설화, Ⅲ. 기존 현장조사 민요, Ⅳ. 문헌 소재 민요로 편성했다. Ⅰ, Ⅲ의 기존 현장조사 설화와 민요는 조사지역(구, 동, 마을), 조사일, 제보자의 가나다 순으로 정리하여 수록하였으며, Ⅱ, Ⅳ의 문헌 소재 설화와 민요는 조사지역(구별) 다음에 제목과 내용을 고려하되, 문헌 소재의 발간 시기 순으로 정리하였다.

(4) Ⅰ, Ⅲ부는 부산광역시 외에 타 기관의 지원을 받아서 현장 조사를 했거나 개인적으로 현장 조사를 하여 출판된 설화 자료를 모아서 엮은 것이다. 각 자료의 끝에 출처를 밝혀 두었다.

(5) Ⅱ, Ⅳ부는 기존에 발행된 문헌 수록 설화로서 현장조사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자료를 엮은 것이다. 동일한 설화의 경우 먼저 출판된 자료를 저본으로 수록했다. 다만, 동일한 내용의 설화라도 세부적인 표현에서 차이가 있으면 별도의 자료로 보았다. 각 설화의 출처는 자료 끝에 밝혀 각 자료에 대한 정보를 알게 했으며, 기본적으로 동일한 설화이되 미세한 표현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각주에서 이를 밝혀 알 수 있도록 하였다.

(6) 이 책의 끝에 구술 자료의 제목, 구술자(제보자) 등 주요 사항에 대한 색인을 붙여 자료를 쉽게 활용하도록 하였다.

2. 표기 원칙

(1) 모든 자료는 한글 표기를 원칙으로 하였다.

① 현장조사 자료의 경우, 지역 방언을 살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방언에 대한 표준어나 뜻풀이는 소괄호( ) 안에 넣어 표기하였다. 뜻풀이가 길거나 별도의 주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각주로 처리하였다.

② 한자, 외국어, 숫자 등을 별도로 밝히는 경우에도 소괄호( ) 안에 넣어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2) 책 이름은 겹낫표『 』, 작품명은 낫표「 」, 설화에서 혼잣말은 홑따옴표‘ ’, 대화는 겹따옴표“ ”로 표시하였다.

(3) Ⅰ부 기존 현장조사 설화의 경우, 조사자와 청중의 개입 부분과 제보자의 구술 특징이나 구술 시 행위 등은 대괄호[ ]에 넣어서 제보자의 구술 내용과 구분되도록 했다. Ⅲ부 기존 현장조사 민요의 경우, 제보자의 말이나 제보자, 조사자, 청중 사이의 대화 부분은 괄호( )를 사용하여 제보자가 가창한 민요와 구분되도록 표기했다. 단, 민요의 가창 상황이나 특징, 제보자, 조사자, 청중의 참여 행동 등은 대괄호[ ]에 넣어서 간략하게 표시했다.

(4) Ⅱ, Ⅳ부 문헌 소재 설화와 민요의 경우, 원전 표기를 가능한 충실하게 따르되, 현행 한글맞춤법에 어긋난 어휘 표현만 수정하였다.

• • • • •

각권별편제

제 1 권 동부산 문화권 설화(Ⅰ) - 기장군 편 - [2012년 발간]
제 2 권 동부산 문화권 설화(Ⅱ) - 남구·수영구·해운대구 편 - [2013년 발간]
제 3 권 동부산 문화권 민요(Ⅰ) - 기장군·남구·수영구·해운대구 편 - [2014년 발간]
제 4 권 동부산 문화권 민요(Ⅱ) - 기장군·남구·수영구·해운대구 편 - [2015년 발간]
제 5 권 서부산 문화권 설화(Ⅰ) - 강서구 편 - [2016년 발간]
제 6 권 서부산 문화권 설화(Ⅱ) - 북구·사상구·사하구 편 - [2017년 발간]
제 7 권 서부산 문화권 민요(Ⅰ) - 강서구 편 - [2017년 발간]
제 8 권 서부산 문화권 민요(Ⅱ) - 북구·사상구·사하구 편 - [2018년 발간]
제 9 권 중부산 문화권 설화(Ⅰ) - 금정구·동래구 편 - [2018년 발간]
제10권 중부산 문화권 설화(Ⅱ) - 연제구·부산진구 편 - [2019년 발간]
제11권 중부산 문화권 설화(Ⅲ) - 동구·서구·영도구·중구 편 - [2020년 발간]
제12권 중부산 문화권 민요(Ⅰ) - 금정구·동래구 편 - [2021년 발간]
제13권 중부산 문화권 민요(Ⅱ) - 연제구·부산진구 편 - [2021년 발간]
제14권 중부산 문화권 민요(Ⅲ) - 동구·서구·영도구·중구 편 - [2021년 발간]
제15권 부산의 설화와 민요 - 보유편 - [2022년 발간]

목 차

일러두기 ····· i

Ⅰ. 기존 현장조사 설화 ····· 1

1. 임석재의 현장조사 설화 ····· 3
2. 황경숙의 현장조사 설화 ····· 77

Ⅱ. 문헌 소재 설화 ····· 191

1. 동부산 문화권 설화 ····· 193
2. 서부산 문화권 설화 ····· 279
3. 중부산 문화권 설화 ····· 313
4. 지역 미상 설화 ····· 380

Ⅲ. 기존 현장조사 민요 ····· 393

1. 황경숙의 현장조사 민요 ····· 395

Ⅳ. 문헌 소재 민요 ····· 443

1. 동부산 문화권 민요 ····· 445
2. 서부산 문화권 민요 ····· 452
3. 중부산 문화권 민요 ····· 457
4. 지역 미상 민요 ····· 473

※ 참고문헌 ····· 524
※ 제보자 색인 ····· 526
※ 제목 색인 ····· 528

I

기존 현장조사 설화

1. 임석재의 현장조사 설화
2. 황경숙의 현장조사 설화

1. 임석재의 현장조사 설화

1) 동부산 문화권 설화

가. 기장군 설화

[기장군 설화 1]

누에가 된 男子

옛남[1] 드메산골에 총각 하나가 살고 있는디 이 총각은 팔밧을[2] 쪼아묵고 사는디 하리는 팔밧을 쫌서 이 팔밧을 쪼아서 누랑 나랑 묵고 사노 카이 어데서 나랑 니랑 묵고 살지 하는 소리가 났다. 그 소리를 듣고 총각은 누가 그러나 카고 사방을 살피봤는디 아무리 살피바도 아무도 엄고 고동[3] 하니백이 엄섰다. 그 고동을 주어서 저그 집 장농에다 넣어 놨다. 그랬더이 그후부터는 밧이서 일하고 돌아와보문 아조 기가 마키게 잘 차린 밥상이 놓여 있었다. 그 이튼날로 밲이 나가서 일하고 돌아오문 어지와 같이 걸기 채린 밥상이 노여 있었다. 그 다음날도 그렇고 그 다음날도 그랬다. 히한한 일도 다 있다 카고 하리는 치[4] 밑이 숨어서 보느께네 밥때가 되이께네 장농 안에 두었던 고동이서 아아주 이뿐 새각시가 나와서 금방 살로 싰고 반찬을 하고 상을 채리놓고 농 안으로 들어갈라 캤다. 총각은 이거로 보고 얼릉 뛰어가서 새각시 치매자락을 붙잡고 나캉 살자 하이 새각지는 이라문 않댄다. 삼 년만 참으라 캤다. 그래도 총각은 안된다 카고 지금 바로 살자 캤다. 새각시는 할 수 엄서 살기로 했다. 고동에서 나온 새각시는 총각하고 사는디 총각은 밖이 나가서 팔밧을 쪼는디 날마다 점심밥을 해서 이고 날러다 주는디 하리는 점심바을 이고 가는디 어사 출도라 캄서 이야처라 저야처라 카는 소리가 나서 이 새각시는 당황해서 논두럭 밑이 풀포기 속에 쪼그리고 있었다. 어사가 가다보이 논두럭 밑이 풀포기서 서가가 훤하기 올라오고 있어서 가보이께네 절세미인이 있어서 데리고 가서 살었다.

총각은 각시가 엄서지이께네 싫어서 울다가 울다가 죽어서 새가 대서 어사으 집에 있는 낢에 가서 머라고 머라고 재잘거렜다. 각시는 방문을 열고 바느질함서 새가 재잘거리는 거로 듣고 있었다. 새는 착고 재잘거리다가 죽어서 땅으로 떨어젔다. 색시는 이 죽은 새로 집어다가 지 속적삼에 싸서 두었다. 그랬더이 속적심에 싸인 새에서 벌레가 나왔다. 이 벌레에서 묵을 거로 주었는디 아무것도 안 묵고 뽕잎만은 묵었다. 그런 뽕잎을 믹이서 키우는디 이거이 누에란기다. 그라이 누에란기 총각이 죽은 혼이 댄기라 칸다.

— 1979年 3月 東萊郡 機張面 大羅里 吳기선(56세, 女)

*임석재, 『한국구전설화 –경상남도 편 Ⅰ』, 평민사, 1993, 165~166쪽.

---

1) '옛날'의 오식으로 보임(편자 주).
2) 잡초가 우거진 개간이 안 된 밭.
3) 우렁이.
4) 키, 곡식 같은 것을 까부는 도구.

나. 수영구 설화

[수영구 설화 1]

成三問이 詩로 大國學者를 쫓아보내다

이전에 대국으 학자가 우리 조선에 와서 조선 학자캉 학문 잘하는 내기로 할라 캤다. 조선 왕이 이 말로 듣고 걱정이 대서 우찌야 몬 오게 막을가 카고 주야로 고심했다. 成三問이라 카는 신하가 이것을 보고 자기가 대국학자 몬 오게 막어 보갰다고 鴨綠江꺼지 가게 해돌라 캤다. 왕이 그래 보라고 허락을 해서 成三問이은 鴨綠江에 가서 뱃사공 노릇을 하고 있었다.

대국학자는 조선에 건너올라꼬 배를 탓넌데 사공을 보이 눈 하나가 없었다. 그리서 鳥啄沙工目-새가 沙工에 눈을 쪼아 묵었구나-카고 글을 지어 읊었다. 成三問은 대국학자으 코가 비틀어져 있는 것을 보고 風吹學士鼻-바람이 學士의 코로 불어서 비틀어 놨구나-카고 글을 지어 읊었다. 대국학자가 沙工으 글솜씨를 듣고 조선에는 천한 사공까지도 이같이 글을 잘하넌디 조정에 가면 글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갓노 카고 조선 조정에 가바야 웃세만 당하갰다꼬, 도로 돌아서서 저그 나라로 가버렀다 칸다.

-1927年 2月 東萊郡 水營公立普通學校 金在禧

*임석재, 『한국구전설화 -경상남도 편 I』, 평민사, 1993, 67쪽.

[수영구 설화 2]

金剛山 구경 간 사람

이전에 한 사램이 金剛山으로 金剛山귀겡하로 가넌디 가다가 어떤 술집이서 술을 사 묵고 있잉깨 술집쥔이 이 사람으 상을 보디마는 당신 이제 金剛山에 가문 金剛山에서는 지금 너구리캉 야시캉 한참 싸우고 있넌디 둘이 서로 이기지도 몬하고 지지고 앙코 해서 그라이 거그 갔다가는 야단나이깨 가지말고 돌아가소 카미 金剛山기겡 가넌 것을 말맀다.

이 사람은 술집 쥔 말을 듣고도 일없다 나는 가볼란다 카미 金剛山으로 드갔다.

가다가 한 곳에 이르이깨네 한 노인하고 젊은 사람하고 서로 다투고 있었다. 우찌서 다투냐꼬 물으니깨네 노인이 낙근 괴기로 젊으이는 아홉 돈 주마 카이 노인은 한 냥 내라 카이 하느라고 다툰다 캤다. 이 사람은 괴기 값 가주고 늙으이캉 젊으니캉 다투넌 것을 보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다투고 있다 카미 기양 지나갈라 캤다. 그런디 거그 가는 이요 거그 가는 이요 카는 소리가 났다. 누가 날로 부르나 카고 뒤돌아 봐도 노인캉 젊으이밖이 아무도 없었다. 그래 다부[5] 갈라

5) 다시.

카이 또 거그 가는 이요 거그 가는 이요 하미 부르는 소리가 났다. 이 사람은 노인하고 젊으이 있넌 디로 가서 봤더이[6] 노인 다랙기 안에서 낙근 괴기가 입을 빠금빠금함서 그리 부르고 있었다. 이 사람은 이걸 보고 이상한 일도 있다 카고 그 괴기로 두 냥 주고 샀다. 그러고 가다가 못둑이 있어서 그 못둑이다 괴기로 너 주었다.

이 사람은 金剛山에 들어가서 여그저그 기겡하다가 너구리 집에 찾아갔다. 너구리는 이 사람을 보고 당신 올 줄 알았다 카미 나는 여그 사넌 야시하고 멧날메칠을 사우고 있넌디 나는 이기지 몬하고 있이이 당신이 한 분 그 야시캉 사와 보소 캤다.

이 사람은 심이 씬 사람이라 이 말로 듣고 야시한테 찾어가서 삼을 해 봤다. 그런디 야시가 하도 심이 쎄서 이길 수가 엄섰다. 그리서 이 사람은 너구리한티 와서 그 야시를 이길 수가 엄다 캤다. 너구리는 그런가 카더이 당신 무신 좋은 일한 것 있소 카미 물었다. 이 사람은 좋은 일이라꼬는 이제까지 한 것이 업넌디 오다가 괴기를 다부 뭇둑에 넣어서 살리준 일이 생각나서 괴기를 살리준 것도 좋은 일이냐꼬 물었다. 너구리는 그 말로 듣고 그것도 좋은 일 한기다 그러민 됐다 카고 그 못둑에 가서 못둑을 치며 자꾸 울어바라 그러면 물 속에서 사람이 나올테니 그 사람을 따라가서 재주로 배와각고 나와서 삼해 보라꼬 말했다.

이 사람은 너구리 말로 듣고 괴기를 넣어준 못둑에 가서 못둑을 치며 자꾸 울어쌌다. 그릿더니 사람 하나가 물 속에서 나와서 우째 그리 우나꼬 물었다. 이 사람은 金剛山에 가서 야시캉 삼을 하넌디 야시를 이길 수가 엄서서 야시 이길 재주로 배울라고 운다 캤다. 물 속에서 나온 사람은 이 사람보고 지 등에 업히라 캤다. 이 사람이 업히이깨네 물 속에서 나온 사람은 이 사람을 업고 물 속에 드가서 용궁으로 갔다.

물에서 나온 사람은 누군고 하이 용왕으 아덜이라. 용왕으 아덜이 사람 사넌 시상을 기겡하고 싶어서 나왔다가 고만 낙시군으 낙시에 걸려서 죽게 됐넌디 이 사람이 살리준기라. 그라이 이 사람은 용왕 아들을 살리준 은인인기라. 용왕으 아덜은 이 사람을 용왕 앞에 딨고 가서 이 사람은 자기 죽을 목심을 살리준 은인이이께네 이 사람으 소원을 들어주어 은혜로 갚자꼬 용왕한티 말했다. 용왕은 아들 말로 듣고 그러자 캤다. 용왕은 이 사람으 소원을 듣고 야시를 이길 재주로 여러 가지 갈치줬다.

이 사람은 재주로 여러 가지 배워각고 다부 금강산에 가서 야시캉 사왔다. 그런데 야시가 사우는 재주가 비상해서 이 사람은 지고 말았다. 너구리는 이 사람보고 다부 용왕한티 가서 재주로 배와오라 캤다. 그리서 이 사람은 그 못둑에 가서 못둑을 치면서 자구 울었다. 물 속에서 사람이 나와서 이 사람을 등에 업고서 용왕한티 갔다. 용왕보고 야시캉 삼하다가 젔다는 말로 하고 이길 재주로 다부 갈치돌라 캤다. 용왕은 제 재주로는 야시를 이길 재주가 업다 카고 이 사람을 하늘로 딨고 가서 거기서 재주로 배우게 했다.

이 사람은 하늘서 여러 가지 재주로 배워각고 다부 금강산으로 내리왔다. 그리고 야시하고 사울라꼬 야시한티 갔다. 야시는 니가 하늘에까지 가서 재주로 배와왔이이 나는 젔다 카미 지

6) 보았더니.

발 내 목심만 살리 돌아 카미 빌었다. 그런디 그때 각중에 하늘이 누렇게 되고 뇌성이 요란하게 나더니 벼락이 내리와서 야시를 처직있다.

—1927年 1月 東萊郡 水營公立普通學校 宋重熙

*임석재, 『한국구전설화 –경상남도 편 I 』, 평민사, 1993, 156~158쪽.

[수영구 설화 3]

妖術濫用을 警戒함

옛날에 妖術을 잘하는 사램이 있는디 이 사램이 하리는 짚은 산중에 가이께네 거그 한 노인이 여러 지자[7]를 데리고 글을 갈치고 있었다. 이 사람은 지 요술 잘하는 재주로 지랑하고 짚어서 지자 한 사람보고 물 한 사발을 떠다돌라 캤다. 떠다 주이께네 이 사람은 바늘로 낙시를 맨들어 물 사발에 넣서 잉어 한 마리로 나가서 줌서 이거로 회로 처서 선생한되 디리라 카고 나갔다. 지자는 그 잉어로 회로 처서 선생한티 디리이께네 선생은 이거 우짠 잉어회냐꼬 물었다. 지자는 이러이러한 잉어회라꼬 말했다. 그라이 선생은 종이에다 무신 글로 써서 그 사람이 가는 디라 던젔다. 지자가 나가보이께네 그 사람은 시부구딩이에[8] 빠저서 허부적거리다가 건건히[9] 나왔다. 그리고 선생보고 잘 몬했입이더 잘 몬했입이더 카고 빌었다. 선생은 그런 요술을 가젔다고 아이덜한티 보여서는 안된다꼬 겡게했다.

—1927年 2月 東萊郡 水營公立普通學校 鄭奉律

*임석재, 『한국구전설화 –경상남도 편 I 』, 평민사, 1993, 183쪽.

[수영구 설화 4]

孝子

이전에 한 사램이 있는디 늙은 부모로 모시고 지극히 정성을 다하였다. 그런디 아를 하나 노았는디 이 아가 밤낮 울기만 해서 부모를 괴롭했다. 아가 늙은 부모로 괴롭이이께네 부모한티 不孝하는 것같었다. 그리서 이 사람은 저그 마누래보고 저 아 땜시로 부모가 괴롭어 하이 저 아로 엄새자 캤다. 마누래도 부모는 한 분 죽으문 영영 몬 보지마는 자숙은 또 노문 자숙은 있이이 저 아로 갖다 묻어 삐리자 캤다. 이 사람도 마누래 말이 옳다 카고 아로 묻어 삐릴라고 업고 뒷산

7) 제자.
8) 시궁창에.
9) 겨우겨우해서.

에 갔다. 가서는 한 곳을 파이라이께네 이상한 돌이 나왔다. 그 돌을 꼬챙이로 뚜디리이 고분 소리가 나고 그 소리로 듣고 아들은 울음도 끝히고 그 돌을 좋와함서 뚜디림서 놀았다. 이 사람 내우는 이거로 보고 아덜을 묻지앙고 돌을 가지고 집이로 왔다.

장 울던 얼라가 땅에 묻텬던 이상한 돌을 얻어서 그거로 두디림서 좋와한다는 말이 퍼저서 王으 귀에까지 들리게 댔다. 이 돌은 돌북인디 이 돌북은 천하를 태펭하게 하는 보물인디 어느 날리에 王은 이거로 땅에 파묻고 피란갔었는디 펭난이 되여 이 돌북을 챚었는디 그거로 묻은 디를 몰라서 몬 챚고 있던 거이다. 王은 그런 소문을 듣고 이 사람집에 와 보이 챚일라꼬 애씨던 돌북이 있어서 좋와라고 했다. 그리고 들으이이 부모를 잘 모실라고 장 우는 아로 묻을라다가 얻었다캐서 그 孝誠에 감복하고 마는 산굼을 주서서 부모를 잘 모시라고 했다 칸다.

—1927年 2月 東萊郡 水營公立普通學校 朴根五

*임석재, 『한국구전설화 –경상남도 편 Ⅰ』, 평민사, 1993, 191쪽.

[수영구 설화 5]

精誠 있는 孝子

이전에 한 사램이 있는디 어무이로 모시고 사는디 집이 가난해서 어무이한티 잘 공겡 몬하는 거로 장 걱정했다. 그러던중이 어무이가 빙이 들어서 이런 약 저런 약을 써바도 도무지 아무 소험이 엄섰다. 어떤 곳에 빙이란 빙은 무신 빙이던지 잘 나순다는 밍이가 있단 말로 듣고 그 밍이한티 가서 짐맥을 했더이 밍이는 한 분 보고 그 빙은 구하기 어려분 약이여야 낫우는 빙이다. 그런 구하기 어려분 약은 도저히 몬 구하이 몬 고친다 가라 캤다. 이 사람은 할수엄서 어무이로 지고 고향으로 돌아오는디 한 곳에 오이 개가 닥이 마이 노는 디로 가서 닥 마리로 물어 직있다. 이 사람은 그 닥을 뺏서서 삶어서 어무이에게 믹있다. 그리고 어무이로 지고 가는디 어떤 산에 올라가이란께네는 어무이는 목이 말라서 물을 묵고짚다 캤다. 이 사람은 물을 여그저그 챚어보는디 물이 엄섰다. 산골잭이로 내리가이 새미도 엄고 골잭이 물도 엄섰다. 한쪽 방이 밑이 가이께네 쬐매한 쪽박에 이끼가 잔득 찐 거이 있는디 그 쪼박에 물이 있어서 그 물로 갖다가 어무이에 믹있다. 어무이는 그 물로 마시고 그만 빙이 낫었다. 이 사람은 퍽이나 기뻐서 고향으로 모서 왔다. 그런디 그 밍이라는 이원이 이렇게 낫우는 빙을 약을 구하기가 에럽다고 한 것이 미분 생객이 나서 그 이원을 욕 좀 해줄라꼬 밍이란 사람으 집을 챚어갔다. 챚어가보이께네 이원은 간 곳이 엄고 그 사람 방에는 千年人頭에 兩龍淚요 十九鷄中에 一鳳雛라는 글이 써 붙여 있섰다. 이 밍이도 빙 낫우는 약은 알고 있었지마는 그런 약을 구하기가 에레버서 몬 고찬다 칸는가 보다.

—1927年 2月 東萊郡 水營公立普通學校 崔寅植

*임석재, 『한국구전설화 –경상남도 편 Ⅰ』, 평민사, 1993, 195쪽.

[수영구 설화 6]

아들을 삶어서 어머니病을 낫게한 孝子

엿날에 어떤 곳에 내우가 사는디 이 내우는 부모에 대해서 극진히 소성[10]을 다 했다. 그런디 늙은 어무니가 벵에 걸려서 약을 여러 가지로 써서 낫울라고 하는디 이약 저약 벨아벨 약을 써 보도 이원[11]이란 이월을 다 데레다 뵈여도 아무 소용이 엄섰다. 그리서 이 소자[12]는 몸을 깨긋이 싯고 짚은 산에 드가서 어무이 벵이 낫게 히돌라고 정셩으로 빌었다. 그리고 산에서 네리와서 집이로 들어갈라 카는디 웬 중이 와서 동양을 돌라꼬 했다. 이 사람은 동양을 후히 주고 우리 어무이가 벵이 들어서 오만가지 약을 씨고 이원이라는 이원을 다 데레다 뵈였는디 나치앙고 이제는 죽기 되였는디 무신 좋은 약이 엄겠냐꼬 물었다. 중은 그 말을 듣고 어무이 맥이나 한 보자고 했다. 그리고 맥을 보고나서 이 벵은 중벵이라 여간 약으로는 낫우기가 에럽다. 약은 있기는 있지마는 씨기가 에럽다 캤다. 이 사람은 "그 벵에 약이 엄다민 몰라도 있다민 갈치주이소. 무신 수로 써서라도 구해 씨겠소" 캤다. 중은 그 벵에는 어린 아로 삶어서 그 국물로 믹이야 낫는 빙이다 카고 그리고 가뻐렀다.

이 사람은 중이 어무이으 重病에는 에린 아를 삶아서 그 국물을 믹인는다는 말로 듣고 내우가 서로 이논히각고 저그 아덜을 삶어 믹이기로 했다. 그때는 마침 아덜이 서제서 돌아와서 암말 앙코 아덜을 잡어서 솥이다 집어넣고 불을 땠다. 그랫더이 얼매 안대서 아덜이 들어왔다. 내우는 깜작 놀래서 니는 누구냐 니는 父母한티 웬수갚으로 왔는 구신이냐 캤다. 그라이 서제서 돌아오는 질이요 와 그러시능기요 캤다. 이 사람 내우는 실퍼서 눈물로 흘림서 이 일이 우짠 일이꼬 하고 솥떠껑을 열아봤다. 그랬더이 솥 안에는 무시[13]만한 큰 산삼이 있었다. 아까 왔던 중은 도싱인 모양이다. 이 사람이 소성이 지극해서 山蔘을 아덜모양으로 해서 보내 준 거이다. 이 사람은 그 산삼 삶은 국물을 늙은 어무이한티 들여믹있더이 빙은 깨긋시 낫었다.

—1927年 2月 東萊郡 水營公立普通學校 吳相鳳

*임석재, 『한국구전설화 –경상남도 편 I 』, 평민사, 1993, 196~197쪽.

10) 孝誠.
11) 醫員, 醫師.
12) 孝子.
13) 무.

[수영구 설화 7]

處女의 智略

옛적에 한 남자가 질을 가이라꼬 산고개로 넘어가는디 한 여자가 달려옴서러 내 뒤에 나뿐 넘이 나로 직일라꼬 쫓아오이 나 좀 살려도라꼬 함서 그넘이 나로 직이문 나 직인거로 본 당신도 직일끼다 캤다. 이 사람은 그 말로 듣고 그러겄다 카고 그 여자로 끌고 고개로 니리가서 주막집이로 드가서 주막 쥔보고 저 뒤서 나뿐넘이 우리로 직일라꼬 쫓아오이 우리 좀 살리도라 캤다. 쥔은 그렇가라 카고 저기 쌓어 놓은 나무동가리 속이가 숨으라 캤다. 그런디 옆에 있던 쥔 딸이—나이 열서너덧 살 되는 여자아가 "아부지 그래서는 하[14]로 몬 피합이더. 이렇기 해야 합이다" 캤다. 그라이 아부지는 우찌 해야 하이께레 여자는 정지 안에 드가서 솥에 물을 뎊이서 그 물로 산발하고 머리로 감게하고 男子는 나랑 항기 저 아랫방이서 점심상을 묵게하문 된다 캤다. 주막 쥔은 이 딸 말대로 그렇기 했다.

조금 있이이 한 남자가 칼로 빼들고 쫓아와서 지금 방금 이 집이로 여자하고 남자하고 드왔는디 그 여자 남지 어디 있냐 갈치도 안갈치이 칼로 니로 직인다 캤다. 주막 쥔은 그 여자 남자는 저 아랫방이서 점심상을 받고 있다 캤다. 그 남자는 그 아랫방에 가서 점심밥상을 들고 있는 여자 남자로 보이 저년 모르는 사램이라 이 남자는 내가 챚는 남자 여지가 이이다 캄서 저리 갔다. 이래서 여자도 살고 남자도 살었다 칸다.

—1927年 2月 東萊郡 水營公立普通學校 白今順

*임석재, 『한국구전설화 –경상남도 편 Ⅰ』, 평민사, 1993, 222~223쪽.

[수영구 설화 8]

明堂을 씨고

이전에 한 사램이 있는디 아덜을 놓고 마누래가 죽어서 이 사람은 거그서 살수엄다꼬 집을 폴고 애기로 안고 朝鮮八道로 돌아댕김서 객지생활을 했다. 및 년을 이러고 돌아댕겐는디 오래 댕깅께 고장생각[15]이 나서 고장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고장으로 돌아오는디 고장이서 한 五里쯤 대는 디 정자낡이 밑이서 쉬고 갈라꼬 쉬는디 가분작이 이 사람은 엎어저서 죽었다. 아덜은 놀래서 아부지로 일바실라고[16] 하는디 시체는 땅에 딱 붙어서 일바실 수가 엄섰다. 그리서 이 아는 울고 있잉께네 나무꾼덜이 지내가다가 보고 매장해 주었다. 이 아는 그 마실으 이집

14) 禍.
15) 고향생각.
16) 일으켜 세우려고.

저집 돌아댕김서 얻어묵고 사는디 마실 한 사램이 저그 집이 데레다가 저그 아덜캉 항기 키움서 서제에 보내서 공부도 시키주었다. 그런디 이 집이는 이 아가 들어온 후로는 일어나서 부자가 댔다.

이 아는 차차 커서 장개갈 나이가 댓다. 그리서 어떤 집이 디릴사우가 댔다. 그런디 그집도 잘대서 큰 부자가 댔다.

이 아는 부자가 댕께네 저가부지 밋자리를 새로 이장해서 씰라 캤다. 그런디 하리는 이 집에 과객이 한 사람 왔다. 밤에 잠서 이런 말 저런 말 해보이께네 그 과객은 풍수였다. 이 아는 기뻐서 저가부지 밋을 이장하고잖단 말하고 좋은 밋자리 하나 잡어돌라 캤다.

날이 새서 다음날 이 아는 風水를 데리고 저가부지 묻힌 디로 갔다. 풍수는 그 밋을 보디이마는 이 밋자리는 참 좋은 밋자리이이 이장하지말고 거그에 비석이나 해 세우라. 그라문 三兄弟를 두개 되고 이 三兄弟는 진사급제해서 집안이 잘 댈기라 캤다. 이 사람은 풍수 말을 듣고 아부지를 이장하지 않고 그 밋 앞이 비석을 해 세웠다. 그랫더이 아덜을 三兄弟 두게 대고 그 아덜 三兄弟는 모다 과거에 급제해서 진사가 대고 집은 불꼿같이 일어나서 잘살기 댔다 칸다.

—1927年 2月 東萊郡 水營公立普通學校 朱吉龍

*임석재, 『한국구전설화 –경상남도 편 I 』, 평민사, 1993, 225~226쪽.

[수영구 설화 9]

重屋의 뜻

이전에 부재 하나가 있었넌디 이 부재는 양반에다 충신으 집인고로 노비도 십여 밍이나 두고 살었다. 그런디 무단히 살림이 패해서 더 살 수가 없기대서 하리는 노비를 마캐[17] 불러앉히고 너거덜은 각각 갈 디로 가서 살라꼬 하고 자기는 집을 떠나 정처업시 객지로 돌아다녔다.

및 해로 고생함시로 근근히 지내넌디 인펜에 드릉께 전에 노비 하나가 아무디서 잘산다캐서 거그 가민 괄시야 안할티지 카고 그곳으로 찾어갔다. 가보잉깨 과연 노비 하나가 큰 와가[18]에다 노비를 십여 밍이나 거느리고 살고 있었다. 그 노비는 전에 상전이 왔다꼬 첨에는 대접도 잘하고 하딩이 미칠 지내고 나이 직일라 캤다. 아 사람은 와 직일라카나 카이 당신이 이전 혼품[19]을 할가 염려가 대서 직일란다 캤다. 내사 그럴 이가 있갔나캐도 노비는 직이갰다고만 했다. 그렇다민 일가한티 핀지나 하나 부치고 죽갰다 하이 노비는 그리하라고 허락했다. 이 사람은 오늘 백미 수십석캉 금은 수백 냥을 얻어서 싣고 가이 마중나오라 카고 끝이다 「重屋」이라꼬 글

17) 모두다.
18) 기와집.
19) 해칠 일.

자 두 자로 써서 보냈다.

이 핀지로 받어본 일가 사람은 대신인디 이 핀지로 보고 기뻐했넌디 끝이 重屋이란 두 글자로 보고 이것이 무신 뜻인가 카고, 그 글자 뜻을 해득할라꼬 했다. 그런디 아무리 생각캐도 알 수가 업넌디 우짠 사람 하나가 이 글로 해덕하고 참 불상키 댔시이 빨리 구히와야 한다 캤다. 이 대신는 그 말로 듣고 곳 大兵을 이끌고 가서 노비가 전에 상전을 직일라카는 것을 밀망[20]시키고 이 사람을 구히냈다. 重屋이라카는 글자를 풀어보민 千里尸至가 댄다. 즉 千里에 와서 송장이 된다는 말로 멀리 와서 죽기 댔다는 뜻이 댄다는 것이다.

—1927年 2月 東萊郡 水營公立普通學校 金文基

*임석재, 『한국구전설화 –경상남도 편 Ⅰ』, 평민사, 1993, 277~278쪽.

[수영구 설화 10]

七難詩

이전에 어떤 골으 郡守가 그 골에서 받은 세금을 다 써버리고 이것을 갚지 몬했다. 그리서 나라서넌 이 군수를 잡어다가 직일라꼬 했다.

이 郡守한티는 일곱 살 난 아덜이 있었넌디 이 아덜은 저가부지가 죽기 돼서 나라임한티 가서 저가부가 죽기 되먼 저그 집이 어러웁기 되이 지발 살돌라꼬 애걸로 했다. 나라임이 이 어린 아으 말로 듣고너 어려운 難字를 일곱 번 써서 글을 지어보라 캤다. 그릿더니 이 아넌 곧 難之難而 大錢之難 難之難而 殺人之難 吾母靑孀寡婦之難 七歲産子 無父之難이라고 지었다. 나라임이 이것을 보고 크게 감탄하고 그 郡守를 살려주었다 칸다.

—1927年 2月 東萊郡 水營公立普通學校 李均秀

*임석재, 『한국구전설화 –경상남도 편 Ⅰ』, 평민사, 1993, 279쪽.

20) 滅亡.

2) 서부산 문화권 설화 : 강서구 설화

[강서구 설화 1]

서울이 될 뻔한 동네

잇날 이적에 그 이적에 어느날 아칙 새복[21]에 우리 동네 앞 들에 산이 떠 올라오고 있었다. 그 때 정지서 불로 땜서 밥을 하고 있던 여자가 이거로 보고 아이고 저그 산이 기올라칸다 캄시로 큰소리로 질렀다. 그랬더이 산은 더 기올라오지 앙코 그대로 있었다.

이 산이 더 기올라와서 큰 산이 되었더라민 우리 동네가 서울이 댔을긴디 고만 그 방정시린 여자땜서로 서울이 몬 댔다 칸다.

—1932年 8月 金海郡 大渚面 朴鍾順(14세, 女)

*임석재, 『한국구전설화 –경상남도 편 I 』, 평민사, 1993, 23쪽.

[강서구 설화 2]

甘露寺가 亡한 理由

金海郡 上東面 柳次里라 카는 마실에 엣날에는 甘露寺라 카는 큰 절이 있었다 칸다. 이 절터에는 將流水라는 물이 흘르고 있었다. 이 물을 마시문 심이 세여저서 장사가 되는 물이였다. 그리서 이 절으 중은 이런 물을 날마중 마시여서 마카 심이 세었다. 이 물은 洛東江으로 흘러 드가고 서울에까지 흘러갔다는 말이 있었다. 이 절으 중들은 심이 세서 장사이기 때문에 절 근처에 사는 백성들이 지여논 농사물을 거저 뺏어가고 부자집 재산을 마구 털어가기도 하고 절 앞으로 지내가는 新婚한 新行하는 新婦를 붙잡으다가 욕보이기도 했다. 그리고 이 절에는 많은 손들이 챗어와서 이 손들을 接待하이라고 매우 번거러워서 애를 먹기도 했다. 그리서 일반 사람들이 이 절이 망하기를 바라고 이 절이서 손임덜은 통 챗어오지 안했으문 願했다.

그러던 중 어느날 한 도사중이 왔다. 이 절으 주지중은 이 도사중하고 이야기 저 이야기하다가 절에 손임이 마이 챗어서 와서 번거러워서 몬전디이 사람이 안오게 할 方法이 없는가 물었다. 절이나 私家나 손임이 마이 와야 그 절이나 私家나 잘되는 법인디 사람이 안 챗어오는 거로 바래는 거는 안되는 일이라 도사중은 절에 사람이 안 챗어오게 하는 方法은 쉬웁다. 人夫 三十名만 돌라캤다. 도사중은 人夫 三十名을 데리고 그 근방으 연꽃밧을 다 메꾸었다. 그랬더이 다음날로부터 절에 사람이 안 오게 됐다. 그리고 절에는 빈대가 마구 들끌어 중들이 살 수가 없어

21) 새벽.

마카 다른 디로 가서 그리서 절은 亡하고 말었다.

—1932年 12月 金海郡 大渚面 朴敬贊(30세, 男)

*임석재, 『한국구전설화 –경상남도 편 Ⅰ』, 평민사, 1993, 27~28쪽.

[강서구 설화 3]

東萊 鄭氏 墓

東萊鄭氏는 오늘날에는 오늘날 朝鮮의 名門이라고 兩班으로 되여 있지만 그 祖上은 東萊으 이전이였다 칸다.

한분은[22] 어떤 사램이[23] 돈내부사가 돼가와서 저가부지 미[24]로 씰라꼬 여기저기 구산하로[25] 댕기다가 한 군대[26]를 구해놓고 鄭통인[27] 한티 게란 시 낱[28]을 주민서 요거로 아무디다 묻으라 캤다. 정토인은 게란 두 낱을 삶아서 묻었다. 그런디 부사가 구산한 디서 아무 일도 엄서서 부사는 내가 잘몬 본 거다 카고 그 자리다 저가부지 미로 안썼다.

그 뒤로 정토인으 아부지가 죽어서 토인은 부사보고 그 자리에 저가부지 미로 씨겠다카이 씨라캐서 거기다가 미로 썼다. 그런디 그 미터가 시놔서 상놈이 써노이 밤을 새고나문 미가 파허처지고 관이 밖에 나와 있었다. 관을 도로 묻고 미로 써 노문 밤만 새문 미가 파헤처지고 관이 나와 있었다. 토인이 이 미터가 세서 그런가 부다 카고 부사으 관복을 뚱치다가[29] 저가부지 시체다가 입히서 미로 썼더이 그 담부터는 미가 파헤처 지지앙코 그대로 있었다. 그리고 그후로는 돈내정씨 집은 베실하는 사람도 마이 생기고 동내부사된 사람도 나왔다. 그리고 그 자손이 모다 잘살게 됐다. 그런디 한 사람만이 몬살었다 이 몬사는 사램이 하리는 할배 밋에 가서 "할배요 오만 자손은 다 잘살게 하고 와 지 하나만 몬살게 함니껴?" 이러캄서 점두룩 구들구들 구부렀다. 그리다가 잠이 들었다. 허연[30] 노인이 나타나서 이무데 가라, 가문 좋은 일이 생긴다 캤다. 잠을 깨고보이 꿈이였다. 이 사람은 꿈에 노인이 말한 대로 갔다. 가니꺼니 큰 덩구남구가 있어서 이 사람은 덩구남구 밑이 쇠고[31]있는디 어떤 여자가 큰 보따리를 가지고 와서 이 사람

22) 한번은.
23) 사람이.
24) 墓.
25) 明堂자리를 구하러, 求山.
26) 한 곳을.
27) 부사 밑에서 일하는 통인, 통인은 아전 출신의 천인이다.
28) 개(個).
29) 훔쳐서.
30) 하얀.
31) 쉬고.

옆에 앉었다. 둘이서는 서로 이바구하다가 그만 둘이는 내우가 됐다. 이 女子 보따리 안에는 금은보아[32]가 마이 들어 있어서 그거로 잘살었다.

鄭東萊 鄭氏는 그리서 그 자손이 다 잘살고 몬사는 사람은 엄다 카네요.

—1931年 12月 金海郡 大渚面 朴敬贊(30세, 男)

*임석재, 『한국구전설화 –경상남도 편 I 』, 평민사, 1993, 47~48쪽.

[강서구 설화 4]

李退溪

이전에 어떤 재상이 나이 만어서[33] 재생을 퇴임하고 낙행[34]해서 서재로 열고 그 마실 아그덜을 글로 갈치는디 그 아그덜에 한 아가 재주가 만어 글도 잘 배우고 행실도 얌전했다. 그 아으 집은 가난해서 수수끼[35] 오두막 집에 기들고[36] 기나가는 이런 집에 살었다. 저거매[37]는 방아품을 들어가지고 책도 사주고 종이도 베루 묵[38]도 사주고 했다.

이 아는 그 서재서 수녁을 공부해 나이가 열댓 살 되었는디 그때 이 재상은 큰손녀가 치울 때가[39] 되었는디 그 집이서는 이 손녀로 치울라꼬 재상보고 이논했다. 그런디 "치아야지 내가 마치논 실랑감이 있다. 내 메칠날로 날로 받어놨구마. 메칠날로 자치할 준비나 하라."

그리노이 집안에서는 어런으 밍[40]이라 잔치할 준비를 하고 실랑을 맞어들이기로 하고 있었다. 행례날이 되이 일가 친척이랑 동네 사람이 구름겉이 모여들어 재상으 집잉게네[41] 사램이 꽉 들어찼다. 실랑이라꼬 떠억 들어오는디 보이께네 누구냐 카문 아주 거거 아주 몬사는 참 수수끼 오두막 집에 기드가고 기나오는 헹펜엄는 집 아덜이거덩. 도저히 안 맞는기라. 그래노이 사람들이 우째 저런 거로 사우로 보능고 전시[42] 쑥덕거리고 있었다. 그러나 집안 어른이 한 일이라 우짤 도리도 엄는기라.

인자는 지차[43] 손녀로 치우게 되었는디 재상으 아덜은 지차 딸로 누구에게 치아야 되겠냐고

32) 金銀寶貨.
33) 나이 많아서.
34) 落鄕.
35) 수수깡.
36) 기어들고.
37) 그 아이의 어머니.
38) 떡, 墨.
39) 시집보낼 나이가.
40) 명령.
41) 집이니까.
42) 모두 다.
43) 다음.

물으이 재상은 인제는 나는 모리겠이이 니 맘대로 골라서 하라 캤다. 그리서 재상으 아덜은 여러모로 사우감을 구해서 임금님 아덜 태자[44]한티 지차 딸로 치우게 댔다. 지차 딸으 실랑이 임금님 아덜이 대노이 집안이 들석들석했다.

재상은 큰손녀 사우로 불러가지고 인자는 니가 일로 해야데겠다 캤다. "지가 무신 일로 함니껴?" 카이 베루로 내 놓고 묵을 쑥쑥 갈디마는 "내가 그것도 모리고 니로 사우 보아겠나. 어서 조치로 하라. 어서 하지 않으문 우리 집이 망한다." "처 할배가 하이소," "내가 할 거 같으문 니 같은 아로 사우 삼아겠나."

사우는 종이다가 글 및 자 썼다. 글 씬 거로 지차 손녀으 사우한티로 보냈다. 자차 손녀 사우-임금으 아덜 태자가 받아 보디이마는 여태꺼지 끄덕거리고 안하무인격으로 호기있게 놀던 놈이 대번에 맥을 몬추고 기가 폭 죽고 눈물를 줄줄 흘리고 살살 기었다. 그리고 재상이 있는 사랑으 청에 갔다. 큰손녀 사우는 이놈을 보고 "니 본색을 나타내라. 안 나타내문 너로 직인다!" 이렇기 호령했다. 그라이 두째 손녀 사우란 놈이 마당으로 네레가서 범사[45]를 시 분 넘더이 흰 백야시[46]가 대서 꽁지를 질질 끌고 닷장을 넘어서 도망감서러 내가 금강산에서 천 년을 살민서 요분에 인도환생할라 캤는디 실패했다고 괌을[47] 질음서 멀리 멀리 도망갔다.

재상은 민첩하고 영리하고 날샌 종을 하나 불러서 금강산 아무 골작으 덤풀 밑에 벌거벗고 있는 초립쟁이를 딨고 오라캤다. 종은 정싱으 밍을 받고 곳 금강산 아무 골에 가서 덤풀 밑이 있는 초립쟁이로 딨고 왔다. 이 초립쟁이는 진자 태자인디 이 태자가 장개질로 채리서 오는디 천 년 묵은 야시가 이 태자으 옷을 베께입고 태자초를 해각고 태자는 금강산 아무 골작으 덤풀 밑이다 버려 처박아넣고 재상으 집이로 드가서 행레를 치루었다. 재상은 그거로 알고 큰손녀 사우보고 태자로 둔갑한 천 년 묵은 야시로 몰아내라 캤다.

종이 금강산에 가서 진자 태자로 구해 가지고 와서 다부 행레를 치루었다.

하리는 어떤 초립쟁이 재상으 서재로 공부하러 왔는디 이 초립쟁이는 책을 페놓고 있이민서도 글로 일지 안했다. 큰손녀 사우 니는 우째서 글로 일지 않느냐고 물으이께네 초립쟁이는 지는 사램이 아이라 캤다. 사램이 아이문 미냐 카이께네 금강산 어느 곳에 있는 못에 사는 용이라 캤다. 용이 우째 여기 왔냐 카이 금강산에 천 년 묵은 야시하고 하늘 올라가는 삼을 하는디 내 심이 좀 모지라서 선생임 심을 좀 도움받어서 먼저 올라갈라꼬 왔다 캤다. 그리서 큰손녀 사우는 금강산에 가서 용을 도와서 야시보다 먼저 하늘로 득천하게 해 주었다. 그라이 야시는 실피 움서로 "아이 금강산이서 천 년이나 살어서 이제 득천할라 카는디 선생님땜시로 득천 몬 하게 댔다. 이제 또 천 년을 우찌 살꼬"이라더이 어떠론가 가삐렀다.

하늘에 득천한 용은 큰손녀 사우에 보답해서 온공을 갚을라꼬 큰사우 사는 데에 비를 내리여 큰 시내물이 내려가게 했다. 그리서 이 사람 집 앞에는 시내물이 줄줄 내리갔는디 이 사람으 어

44) 太子.
45) 재주.
46) 백여우.
47) 큰소리, 高喊.

머이는 시내물 소리로 싫어했다. 그리서 이 사람은 시내물 소리가 안 들리는 곳으로 이사했다. 이 사람은 號을 지었는지 물러갈 퇴(退)자하고 시내 게(溪)자하고 너서 退溪라 캤다. 이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李退溪선생이다.

—1931年 12月 金海郡 大渚面 朴敬贊(30세, 男)

*임석재, 『한국구전설화 –경상남도 편 I 』, 평민사, 1993, 71~73쪽.

[강서구 설화 5]

朴文秀 御史 逸話

옛날에 朴文秀 朴御史라 카는 어사가 있는디 어사라 카는 사람은 떨어진 옷을 입고 떨어진 페립[48]을 씨고 짝지[49]로 집고 껄뱅이[50] 초롬 하고 돌아댕기는 긴디 이 朴御史도 껄뱅이초름 채리고 댕겼다.

하리는 어떤 시골질을 가고 있이랑개 초립쟁이[51]가 하나 달려와서 나 좀 살려주시요 뒤에서 나뿐 놈이 칼을 들고 나로 직일라칸다 캤다. 朴어사는 그 말로 듣고 옆에 있는 밀밭이 들어가서 숨으라 캤다. 초립쟁이가 밀밭에 드가서 숨었는디 얼매 안 가서 어떤 놈이 칼로 빼들고 달려오더이 朴어사보고 이리 초립쟁이가 갔는디 워대로 가더냐꼬 물었다. 모른다카이 그놈은 칼로 박어사 목에다 갖다 대고 안 갈치주문 이 칼로 찔러 직이겠다 캤다. 朴어사는 할 수 엄시 저기 저 밀밭에 숨어있다 캤다.

그놈은 밀밭에 가서 초립쟁이를 칼로 찔러 직있다. 이놈은 초립쟁이 집으 종인디 초립쟁이 집안 사람을 다 직이고 그 집 재산을 다 뺐고 이 초립쨍이가 도망처서 그리서 이 초립쟁이로 마저 직일라꼬 뒤쫓아온 기라. 朴어사는 죄엄는 초립쟁이가 나뿐 놈한티 죽는 것을 보고 어사된 몸으로 이 죄엄는 초립쟁이를 몬 살려 준 거이 마음에 걸렸다.

朴어사는 거기서 떠나서 가다가 날이 저물어 마을에 있는 서재[52]에 드가서 하리밤을 재낼라캤다. 서재에는 선생은 엄고 서재 아덜만 있었다. 선생이 엄시이께네 서재아덜은 우리 어사놀이로 하자 캄서 어사놀이를 했다. 한 아가 어사가 되고 다른 아덜은 원 역졸 멋멋이 되었다. 이렇게 소임을 정하고 놀다가 어사가 암행어사 출도야 카고 어사출도로 부쳤다. 그라이 모든 아덜은 모두 업디리서 떨고 있었다.

朴어서 방 구석에 쪼그리고 앉어서 물그러미 보고 있었다. 그러고 있는디 어사된 아가 "여봐

48) 破笠.
49) 지팡이.
50) 거지, 乞人.
51) 草笠童.
52) 書齋, 書堂.

라, 암행어사 하문 山川草木도 마카 떤다는디 저기 저 방구석에 있는 저놈은 어떤 놈이기에 머리도 굽히지 않고 있다. 저놈을 잡어 들이라!"꼬 호령했다. 그라이 여러 역졸이 우루루 달라들어 朴어사를 잡어다가 어사-어사가 된 아-앞에다 무릅을 꿇어 앉혔다.

"니 이놈! 니는 어떤 놈이기에 어사출도로 불러도 도도히 보고만 있능고. 저놈 마구 매우 처라!"

역졸덜이 달라들어 朴어사로 매우 첬다.

朴어사가 가만이 생각하이 아그덜 장난이라 캐도 매우 진지하거던. 그리서 여그꺼지 오는 도중에 당한 일로 해결책을 들어볼라꼬 했다.

"어사또임 지가 잘몬했입이다. 그런디 지가 여그 오는 도중에 한 초립쟁이가 두따라오디이 날 직일라꼬 쫓어오넌 놈이 있이이 날로 좀 숨기 주소 캐서 옆에 있는 밀밭에 가 숨으라 캤입니더. 그리 가서 숨었는디 쬐깨 있이이 한 놈이 칼을 빼들고 달려오디이 초립쟁이 몬 봤나 캐서 몬 봤다 카이 칼을 지 목에다 갖다대고 바른 대로 대주지 않으문 직인다 캐서 할 수 엄서 대주었더이 그놈은 초립쟁이로 잡어각고 목을 처서 직있입이다. 이거 지가 원통이 생각합이다. 이때 우찌해야 초립쟁이로 안 직이게 할 수 있입이껴?"

"흥, 얻어묵고 댕기는 니 처지에 무신 큰 이견[53]이 나오겠노. 니 오는 거로 보이 짝지로 짚고 오든구나. 짝지로 짚었이문 눈을 감고 봉사[54]행세로 했이문 초립쟁을 몬 봐서 모리겠다 캈이문 그 초립쟁이로 살릴 거이 아이가."

朴어사는 에린 아가 이런 묘한 이견을 낸 것에 감탁하고 서울로 딨고 가서 봉부로 잘 시켜 큰 인물로 만들었다 칸다.

—1931年 12月 金海郡 大渚面 朴敬贊(30세, 男)

*임석재, 『한국구전설화 –경상남도 편 Ⅰ』, 평민사, 1993, 75~76쪽.

[강서구 설화 6]

朴御史 逸話

朴文秀 朴御史 이바구로 또 하나 하겠다. 어떤 마실에 영감 할마씨가 사는디 할마씨는 질삼을 해서 베로 짜고 영감은 신을 삼었다. 할마씨 짠 베로 풀고 영감이 삼은 신을 폴아서 그리서 살었다. 그런디 이 영감은 술백기는 모르는 기라. 지가 삼은 신을 폴아서 술 사묵은 것은 물론이지만 할마씨가 짠 베도 폴문 술 사묵어.

하리는 할마씨가 짠 베로 줌서로 "오늘은 이 베로 풀어서 돈 다 가저 와야 한다. 술 절대로 사

53) 意見.
54) 장님.

묵지말고 똑 그대로 다 가저와야 한다.”

“하모[55] 오늘은 내 절대로 술 안 묵고 똑 그대로 다 가 오끼마.”

참 큰맘묵고 자[56]이 가서 베로 폴어가이고 집으로 올라카는디 아는 친구로 떡 만난기라. “아이 이 사람 얼마만인가. 우리 오래간만에 만났이이 술 한잔 하자.”

이래 가지고 친구랑 술집이 가서 술묵는디 베 폰 돈 몽땅 다 써삐린기라. 그래 할마씨한티 가서 할 말이 엄기 된 기라. 집에 가이께네 할마씨가 돈 똑 고대로 다 가왔능가고 문능기라. “하이 돈 안 씰라캤다마는 할 수 엄시 안 되겠더라.” “와 그렁꼬?” “하이구 내 오는디 조카 朴文秀가 서울 과게하러 간다고 올라가는디 그냥 보고 있일 수가 있나. 과개 잘 보고 오라 카고 돈 다 주삐릿다.” “그래요. 하이구 영감 참 잘 했구마. 그런 일은 해야지.”

그런 말을 들은 후로는 할마씨는 장독대에 칠성단을 모아놓고 밤낮으로 우리 조카 박문수 암행어사 하라꼬 비는 기라. 한 십 년 비는 기라.

朴文秀는 八道암행어사가 돼 가지고 朝鮮八道로 민정시찰하니라꼬 여그저그 돌아다이다가 이 영갬이 사는 마실에 와각고 날이 저무이께네 이 영감 할마씨네 집이서 하리밤을 자게 댔다. 저녁밥을 묵고 잘라꼬 하는디 뒷문 밖에서 곤기랑곤기랑 요래 해싼는기라. 가마이 들어봉께네 우리 조카 박문수 어째던지 서울 올라가서 암행어사 해 가지고 옵소서 캄서 빌고 있는 소리라. 박어사는 영감보고 할마씨가 우째서 저리 비는가 물었다. “그렁게 아이라. 내가 술로 조와해서 할마씨가 짜 준 베로 폴아서 그 돈으로 오래만에 만난 친구하고 술 사묵고 그 돈을 몽땅 써삐리고 할 말이 엄서서 우리 조카 박문수 과개하러 서울 가는디 다 주었다꼬 거짓말했는디 할마씨가 그 말로 곧이 듣고 그래 조카 朴文秀 암행어사 되라고 저리 밤낮 빌어서 십 년째 정성것 빌고 있다고 말했다.

박어사는 이 말로 듣고 지가 어사가 된 것은 저 할마씨가 저리 십년이나 정성것 빌어준 덕이라고 생각했다.

朴文秀 朴御史는 다음날 골에 나가서 암행어사출도를 부치고 그 골에 있는 부자란 부자를 마카 잡어다가 옥에다 가두었다. 부자의 가족들은 집안어른이 풀러나게 하느라고 야단법석이였다. 어사으 삼촌이란 사람이 어무디 산다는 말을 들은 부자으 가족들은 이 집으로 돈을 싸들고 가서 청들였다. 영감은 돈을 받고 어사에게 말하면 부자는 풀려났다.

朴御史는 이렇기 해서 영감 할마씨 집에 돈을 많이 벌게 해서 일펜생 잘살게 해 주었다 칸다.

—1931年 12月 金海郡 大渚面 朴敬贊(30세, 男)

*임석재, 『한국구전설화 –경상남도 편 I 』, 평민사, 1993, 78~79쪽.

55) 아무렴, 勿論.
56) 장터, 市場.

[강서구 설화 7]

호랑이와 토끼

옛날에 토깽이가 어디 간다고 가는디 호랭이를 만났다. 이 호랭이는 토깽이로 보고 잡어묵을라꼬 달라들어서러 토깽이는 "호랭이 아저씨 날로 잡어묵어야 나겉이 쬐건한 거 묵어도 양도 안찹이다. 날로 안 잡어묵으문 내가 배부르게 해 주것소." "니가 우찌 배부르게 해주겠다카노?" "저어기 텀풀[57]에 새가 마이 있지 안능기요. 내가 저 새로 마카 호랭이 아저씨 입으로 몰아 돌아 드가게 하겠구마." "그리 하라." "그러문 아저씨는 눈을 딱 감고 입을 크게 벌리고 여기 앉어 있으이소. 내가 저 새로 후차 아저씨 입으로 마카 드가게 하겠구마."

호랭이는 토깽이 말로 듣고 토깽이가 시키는 대로 눈을 딱 감고 입을 크게 벌리고 거기 앉어 있었다.

토깽이는 호랭이 앉인 자리으 사방에 불을 지르고 우여우여 하고 소리로 질렀다. 불이 타는 소리가 훌훌하고 풀이 타서 재가 날러서 호랭이 얼굴이 다이께네 호랭이는 새가 날르느라고 알고 더욱 눈을 딱 감고 입을 더욱 크게 벌리고 있었다. 그런디 불은 차꼬 타 드와서 그만 호랭이는 타 죽고 말었다.

—1932年 8月 金海郡 大渚面 朴鍾順(14세, 女)

*임석재, 『한국구전설화 –경상남도 편 Ⅰ』, 평민사, 1993, 89~90쪽.

[강서구 설화 8]

꿩과 메추리와 쥐

옛날에 어떤 곳에 꿩캉 매추리캉 쥐가 있었다.

어느 해 저을에 눈이 와서 온 천지가 눈으로 깍 덥헤서 묵고 살 수가 엄기 댔다.

꿩은 자슥이 많고 부모도 있고 한디 가만히 생각하여 봉게네 이러다가는 다 굶어죽기 싶었다. 그리서 꿩은 저 건너 마실에 사는 쥐한티로 가서 사정하기로 했다. 쥐는 양석도 많고 잘 사이께네 거기 가서 양석을 좀 꾸어 오기로 했다.

"이창 저창 건너창에 주지한림창에 오랑말리 파충지리[58] 지시오?"

그때 왕쥐는 메밀꼭자[59]로 탕건 해 씨고 보리 꺼실[60]로 장죽[61]해 물고 나락 왕저[62]로 백대

57) 덤불.
58) 본뜻은 알 수 없으나 쥐를 높여 부르는 말이다.
59) 메밀껍데기.
60) 보리알 붙은 껄끄러운 수염(원문에는 방언이 '꺼끄러운'이라 되어 있으나 표준어로 바로 잡아 표기함 -편자

기[63] 해 신고 아덜 손자 미니리 모아놓고 양반행세로 하고 있었다. 그린디 밖이서 이러구로 지를 높히서 챗는 소리가 나이 왕쥐는 누가 와서 챚는가 나가보라 캤다. 생쥐가 나가보고 와서 저 건너 장꾕이 와서 챚더라 캤다.

"그 손님 이리 드시라 캐라." 드가이 왕쥐는 어찌 왔능가 물었다. "내가 부모하고 어린 자슥하고 이 눈 속에 양석엄시 지내이 묵을 거이 엄서서 성님한티 장리[64] 얻으리 왔소" 캤다.

왕쥐는 꾕이 이렇기 존대말로 하이께네 맘이 조와서 생쥐로 불러서 보리 한 섬 살 한 섬 콩 한 섬 녹디[65] 한 섬 갖다가 주라 캤다.

꾕은 쥐한티서 양석을 마이 꾸어서 설한풍에 잘 묵고 잘 지냈다.

이웃집에 사는 메초리[66]가 와서 이 설한풍에 우찌해서 잘 지내능가 물었다. 꾕은 저 건너 쥐한티서 마는 양석을 꾸어다가 잘 지낸다꼬 말했다. 그라이 매초리도 쥐한티 양석을 꾸어 오겠다 카고 왕쥐네 집이로 쫓아가서 "개밥 주거래기 있나?"꼬 챚었다.

이때 왕쥐는 모밀깍더리로 탕건 해 씨고 보리 거시락으로 장죽 해물고 나락 완저로 백대기 해 신고 아덜 손지 미니리 앞이서 양반초롬 거드렁거리고 있는디 개밥 쭈지레거 있느냐 카고 아조 욕하는 말소리로 챚이잉게네 보골[67]이 대기[68] 나서 생쥐덜보고 나가서 알아보라[69]캤다. 생쥐들은 문 밖이 쫓아나가서 매초리 삐끼[70]는 놈 꼬랭이 삐끼는 놈 날개로 삐끼는 놈 매신 신발[71]로 삐끼서 쫓이 내뿌렀다.

—1932年 8月 金海郡 大渚面 朴鍾順(14세, 女)

*임석재, 『한국구전설화 –경상남도 편 I 』, 평민사, 1993, 99~100쪽.

[강서구 설화 9]

아버지를 잡아먹은 호랑이를 죽인 砲手의 아들

옛날에 총 잘쏘는 포수가 있었는디 하리는 호랭이로 잡으로 간다카고 집을 나갔는디 그후로

주).
61) 長竹, 긴 담뱃대.
62) 벼의 왕겨.
63) 하얀 가죽신.
64) 빌려먹는 양식.
65) 녹두.
66) 메추리.
67) 화.
68) 몹시.
69) 욕보이라.
70) 벗기는.
71) 짚신.

는 영영 소식이 엄었다. 이 포수한티는 아덜이 있었는디 이 아덜이 서재에 댕기는디 서재에 가문 서재 아덜덜이 니 아비 엄는 호로자석이다 캄서러 자양[72] 놀렸다. 이 아는 처음에는 멋도 모리고 기양 지냈는디 자양 이런 말로 들으이 지로 놀리는 거 같어서 하리는 지 어무이한티 물었다.

"나는 우찌서 아부지가 엄는기요? 서재 아덜덜이 자앙 날로 아비엄는 호리자석이라꼬 놀리싸이 분해 죽겠다." 그라이 어매는 와 너거 아부지가 엇겠노. 너도 아부지가 있다. 너가부지는 참 총 잘쏘는 포수다. 그런디 호랭이 잡으로 나갔다가 호랭이한티 잽히묵힌는지 돌아오지 안는다꼬 말했다. 이 말로 듣고 야는 서재에 가는 일도 그만두고 맨날 총 쏘기 연십을 했다.

얼매로 연십해서 인제는 총 쏘기가 잘 대서 하리는 어무이보고 아부지 잡어묵은 호랭이 원수 갚으로 가갰다꼬 말했다. 어무이는 "야야 니가 어린아가 워데 호랭이 잡으로 가겠다 카노. 너가부지는 십리 밖에 있는 나무닢을 쏘아서 떨어트리는 재주[73]가 있어서도 호랭이한티 잽히믹혔는디 니가 우찌 호랭이로 잡어직이겠다 카노 안된다 캤다.

"나도 십 리 밖에 있는 나무 닢파리로 쏘아서 떨어트릴 수 있다" 그리고서러 십 리 밖이 나부닢파리로 쏘아서 떨어트렷다." 야야 너가부지는 내가 십 리 밖이서 물을 질로오넌디 물동이에 바가지로 엎어 놓고 바가지에 바늘을 꼽고 오는디 그 바늘을 총으로 쏘아서 바늘만 마치는 재주가 있었다. 그런디도 호랭이한티 잽히 믹힜다. "나도 그만한 총 쏘는 재주가 있다"이라고서 오마이가 십 리 밖이서 물을 질러 물동이 안에 바가지로 엎어놓고 바늘로 꼽아논 거로 총으로 바늘만 쏘어서 맞었다. 어무이는 이런 말 저런 말 해서 아덜을 호랭이 잡으로 몬가게 말렸는디 총 쏘는 재주가 비상해서 더 말럴 수가 엄서서 할 수 엄시 그럼 가라 캤다.

이 아는 찰밥누렁지를 여러 말 해서 짊어지고 짚은 산중으로 드갔다. 한 등 넘고 두 둥 넘고 첩첩 산중으로 드가이 인가도 엄고 사람이라고는 그림재도 엄섰다. 그래도 차꼬 드가이 어떤 방구 밑이 쬐매한 오두막집이 있었다. 그리 가서 쥔을 챚이이 머리가 허연 노구할마이가 나왔다. 야로 보디이마는 니 어린 아가 여기 와 왔노 카고 물었다. 우리 아부지 잡어묵은 호랭이로 잡어서 아부지 원수로 갚을라꼬 왔다 캤다.

"나는 여기 오래 살고 있는디 이 산중에는 사나운 호랭이가 개 끓듯기 덕실거려서 사람을 잡어묵는다. 이 산중에 드간 포수는 마이 봤지만 살어 나오는 포수는 하나또 몬 봤다. 니같은 어린 아가 우찌 호랭이로 잡겠노. 니 드가지 말고 다부 집이로 가라!" "글시다. 나는 죽어도 부모 원수로 갚고 죽을티이이께네 염려 마이소." "니 소원이 그렇거덩 니 소원대로 드가라."

이카고 할마이는 어디론가 사라젔다. 사라지고 나이 집도 암것도 엄서젔다. 이 할마이는 아매도 이 산으 산신령이가 보다.

이 아는 산 속으로 드가이 사람이 있었다. 이런 곳에 사람이 우찌 있일가 저거는 아매도 호랭이가 둔갑한 것가 보다 카고 총을 한 방 쏘았더이 천근대호가[74] 죽어나바젔다. 또 쬐금 드가이

72) 늘, 언제나.
73) 技能.
74) 아주 큰 호랑이.

께네 천근대호가 날뛰디이마는 니가 내 영감을 쏘아직이시이 니는 나한티 죽어야 한다캄서 잡어묵을라꼬 달라들었다. 이 아는 그 호랭이로 쏘아서 직이고 또 앞으로 더 가이께네 녹 씬 총이 있었다. 이 총이 아부지 총인가보다 카고 아부지 카고 부르이 총이 와 하고 대답했다.

이 아는 아부지 잡어묵은 호랭이로 이렇기 해서 쏘아 직이서 아버지 원수로 갚고 아버지 뼤도 찾어서 잘 묻고 총을 집이로 가지고 와서 어무이하고 잘살었다 칸다.

—1932年 8月 金海郡 大渚面 朴鍾順(14세, 女)

*임석재, 『한국구전설화 –경상남도 편 I 』, 평민사, 1993, 103~105쪽.

[강서구 설화 10]

부작 방망이

옛날에 어떤 곳에 성지[75]가 사는디 세이[76]는 잘살고 동상[77]은 몬살었다. 동상은 아이덜도 많고 부모꺼지 모시고 살어서 그리서 살기가 고생시렀다. 그리서 하리[78]는 살애기[79]라도 쪼개[80] 얻어오겠다고 서으 집에 가서 자석덜하고 양석엄시 지낼 수가 엄시이 살애기나 딩게나 좀 주이소 갰다. 서이는 "야 살애기는 닥[81] 주야하고 딩게는 소 줄긴디 니 줄거 엄다"캤다. 그라이 정지[82]에 드가서 성수[83]보고 "성수님 살애기나 딩게나 좀 주이소" 카이게네 성수는 밥을 푸다가 밥 푸던 주것으로 머라카노 캄서 빰을 펀덕 볼데기로 때맀다. 동상은 볼태기에 묻은 밥티기로 뜯어묵고 성수님 이짝에도 때리 주이소 캄서 다른 쪽 볼태기로 내밀었다. 성수는 주걱을 물로 싯고 때렜다.

집이 돌아와서 낭그나 해다가 폴아서[84] 묵을 양석[85]이나 폴으야겠다 카고 뒷산으 올라갔다.

올라가이 펀펀한 큰 방구[86]가 있어서 그 방구에 올라앉어서 구야구야 지리 지리산 갈가마구야 어데로 가노. 어떤 사람 팔자 좋아 고대 광실 높은 집에 노적성을 재어 놓고 그리 잘사노…… 이캄서러 어산령 노래를 불음서로 신세타령을 했다. 그리고 앞을 보이께네 깨금낭구가 있는디

75) 兄弟.
76) 兄.
77) 동생, 弟.
78) 하루.
79) 싸라기(원문에는 방언인 '싸래기'로 되어 있으나 표준어로 바로 잡아 표기함 -편자 주).
80) 조금.
81) 닭.
82) 부엌.
83) 형수.
84) 팔아서.
85) 양식.
86) 바위.

깨금이 마이 열려 있었다. 그 깨금낭구서 깨금이 한낱 떨어젔다. 동상은 깨금을 줏어각고 이거는 어머이 주고 캄서 줌치[87]다가 넜다. 또 떨어저서 이거는 마누래 주고 캄서 줏어서 줌치에다 넜다. 또 하나 떨어저서 이거는 아그덜 주고 캄서 줌치다 줏어넜다. 또 하나 떨어저서 이거는 나 묵고 캄서 줌치다 넜다. 그러그르 있는디 방구 밑이서 떡 나온너라 뚝딱 밥 나온라 뚝딱 떠드는 소리가 났다. 내리다 보이께네 토깨비[88]들이 오만가지 거를 내각고 묵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고 있었다. 동상은 토깨비들이 묵고 마시고 하느 거로 보고 배 고픈 생각이 나서 깨금을 하나 내서 입에다 넣고 깨버렀다. 딱하는 소리가 나이께네 토깨비덜은 방구가 무너진다 캄서 마카[89] 도망갔다.

동상은 방구 밑이 네리가서 거기 있는 떡이야 밥이야 묵고 방맹이로 줏어각고 집이로 왔다. 와서러 밥 나온너라 뚤딱 떡 나온너라 뚝딱 돈 나온너라 뚤딱 카고 뚜디리이 멋이던지 원하는 것이 다 나왔다. 그리서 동상은 대분에 부자가 댔다.

하리는 세이 동상으 집이 챚어와서 동상이 잘사는 거로 보고 "니 우째가 그리 부재가 됐노?" 캤다. "예 이러고 저러고 해서 뒷산에 가서 나무하다가 토깨비 방맹이로 얻어서 그리 됐입니더" 카고 토깨비 방망이 얻게 된 내력을 일일히 말했다. 세이는 이 말로 듣고 지[90]도 토깨비 방맹이 얻어서 부자가 되고 짚어서 뒷산에 올라갔다. 펑펑한 방구에 올라앉아서 그 앞에 있는 깨금낭구서 깨금이 떨어지이 그거로 줏어서 아 이거 나 묵고 카고 줌치다가 넜다. 또 떨어지이 이것도 나 묵고 카고 줌치다가 넜다. 또 떨어지이 이것도 나 묵고 카고 줌치다 넜다. 깨금이 떨어지는 거마둥 줏어서 이거도 나 묵고 캄서 줌치다가 넜다.

방구 밑이서 떡 나온나 뚝딱 밥 나온나 뚝딱하고 마시고 묵고 춤추며 떠들고 노는 소리가 나서 방구 밑이로 내리다 보이 토깨비들이 그러고 있어서 서이는 머이 묵을 생각이 나서 깨금을 하나 입에 넣고 빠작하고 깨미렀다. 그라이 토깨비덜은 "이거 아레 와서 우리 부작 방맹이 가저간 놈이 또 왔다" 캄서 방구우로 올라와서 세이로 붓잡고 "이놈 니 죽어보라" 캄서러 세이으 좃을 붓잡고 한 자 늘어나라 뚝딱 두 자 늘어나라 뚝딱하고 부작방망이로 뚜두렀다. 그라이 세이 좃은 자꾸 놀어나서 수십발이 뻗어났다.

세이는 길다라케 뻗은 좃을 끌고 제우 제우 집이 왔다. 집에 오이 마누라가 보고 큰일 났거덩. 시동상한티 쫓아가서 "시아주마요. 시아주마요 큰일났다." "머이 큰일 났다 카노?" "큰일 났다. 와서 보이소."

가보이 그 모양이라. 동상은 집이 가서 토깨비 방망이로 들고 가서 세이으 좃을 부뜰고 한 자 드가라 두 자 드가라 캄서 방맹이로 뚜디렀다. 그래서 보통 좃만큼 해놨다 칸다.

—1931年 12月 金海郡 大渚面 朴敬贊(30세, 男)

*임석재, 『한국구전설화 –경상남도 편 Ⅰ』, 평민사, 1993, 107~109쪽.

87) 주머니.
88) 도깨비.
89) 모두 다.
90) 자기.

[강서구 설화 11]

총각과 선녀

이전에 한 총객이 있었는디 이 총각은 집이 가난해서 넘으 집 머심살이로 살고 있어는디 하리는 산으로 나무하로 가서 나무하는디 심이 들어서 어떤 사람은 팔자가 좋아서 고대강실 높은 집에 살민서 좋은 이복[91] 입고 좋은 임석[92] 묵고 사는디 나는 무신 팔자가 이리 기박해서 이래 날마중[93] 나무나 하고 심들게 일만 하고 장개도 몬 가고 시능고 아이고 내 팔자야 캄서 청승스리 콧노래로 불렀다.

콧노래로 불으고 있는디 난디엄시 노리 한 바리가 헐떡헐떡 헐떡거림서 뛰어오디이 총각 총각 날로 종 심카돌라[94] 이라거덩. 그래 총각은 나무로 한짐 해 논 거이 있어서 그 나무단 밑이다가 노리로 심카주었다. 심커 주고 한참 있이이께네 포수가 총을 들고 쫓아와서 이리 노리 한 바리 가는 거 봤냐 캐서 총각은 나는 나무하이라꼬 정신엄서서 노리 가는지 멋 가는 통 몬 봤다 캤다. 이라이 포수는 고만 저쪽으로 가삐렀다.

포수가 간 담에 노리가 나무단 밑이서 나와각고 총각보고 나로 살려주어서 고맙다꼬 인사로 하고서는 나 시키는 대로 해서 장개가보라 캤다. 그럼서 요 산등 넘어 쩌쪽에 연못이 있는디 그 연못에는 하늘서 선녀 서이 내리와서 목욕을 하는디 거기 가서 선녀 옷 하나로 몰래 숭거두어라. 그러문 옷을 몬 입은 선녀는 하늘로 몬 올라가이게네 그 선녀한티 장개들어서 살으라. 그리고 장개들어서 얼라를 셋 놓기 전에는 옷을 절대로 주지 말라. 이렇기 말하고 가삐렀다.

총각은 노리가 갈치준 대로 등 넘어 가 보이께네 연못이 있고 연못에는 선녀 서이시 목욕을 하고 있었다. 총각은 살살 기어가서 연못가꺼정 가서 서녀가 벗어논 옷중으 한볼을 가만히 홈쳤다.

선녀는 목욕을 다 하고 나와서 옷을 입고 하늘로 올라갔는디 선녀 하나는 옷이 엄시니께네 옷을 몬 입고 하늘로 몬 올라가고 있었다. 총각은 선녀한티 가서 항게 살자 캤다. 선녀는 할 수 엄이니께네 총각하고 항게 살기로 했다.

총각은 선녀하고 항끼 사는디 및 해로 사는 동안에 아로 둘이나 노왔다. 선녀는 이만치 오래 살았이이 인제는 옷을 돌라꼬 했다. 옷을 돌라꼬 여러 분 졸라싸서 총각은 아로 둘이 노았이니 주어도 일엄게지 하고 옷을 내주었다. 그릿더이 옷을 입고 아로 양 어께밑이 하나씩 찌고 하늘로 올라가삐렀다. 그러이께 이제꺼정 살든 집도 엄서지고 총각은 산중에 혼자 남어있게 댔다. 총각은 각시도 잃고 아덜도 잃고 집도 엄서저서 기가 맥헤서 울고 있었다. 그기에 먼저 노리가 나타나서 아로 싯을 논 담에 옷을 주라꼬 했는디 웨 둘 놓고 주었냐꼬 함서로 선녀는 하늘로 올

91) 衣服, 옷.
92) 飮食.
93) 날마다, 매일.
94) 숨겨다오.

라가각고 인제는 이 땅으로 네레오지 앙고 지상으 물을 하늘로 질려올리각고 거그서 목욕한다. 그라이 하늘서 네레오는 타루박[95]에 올라타고 하늘에 올라가서 선녀랑 아덜이랑 만나볼 수밖이 엄다 캤다. 총각은 노리으 말로 듣고 하늘서 네레온 타루박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

하늘에 올라가이께네 아덜이 보고 지상으 아부지가 왔다꼬 조와라고 맞이하고 선녀한티 가서 말했다. 선녀는 이 총각을 맞이하고 항께 살었다. 그런디 선녀으 아부지는 지상으 사람이 어텋게 하늘서 살 수 있느냐꼬 하늘서 살라문 그만한 재주가 있이야 한다캄서로 어디 하늘서 살만한 재주가 있능가 엄능가 시험히 보야 한다꼬 하고서 나로 챚어 내보라 카고 지네가 돼서 대들보 우그로 실실 기어댕겠다. 선녀는 대들보에 기여댕기는 지내로 갈침서 저게 우리 아부지잉께 저기 가서 쟁인어른 어서 본모십으로 돌아가시기요 카라고 일러주었다. 총각은 선녀 말로 듣고 대들보에 가서 거그 기여 댕기는 지네보고 쟁인어른 어서 본 모십으로 돌아가시기요 캤다. 그라이 지네는 쟁인 모십이 대각고 니 그만하문 하늘서 살만한 재주가 있다 카고 하늘서 살게 허락했다.

이렇기 해서 총각은 하늘서 사는디 및십 년을 하늘서 사다 보이 저으 고향에 가보고 짚은 생각이 났다. 선녀는 가지 말라꼬 말렸는디 총각은 꼭 가보고 짚다꼬 해서 선녀는 할 수 엄시 가보라 캄서 지상에 네레가서는 암 거도 묵지말라꼬 타일렀다.

총각이 지하에 네레가이께네 이집저집 고향으 일가집이서 오랫만에 만난다꼬 반가워함서로 닥[96]을 잡어서 닥국을 낄이서[97] 묵으라 캤다. 총각은 선녀가 일러준 말이 있어서 안 묵을 카는디 일가집 사람은 오래만에 왔이이 어서 묵으라꼬 자꼬 권했다. 총각은 할 수 엄시 닥국을 묵고 하늘서 타고 네레온 타루박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는디 하늘서 아덜덜이 타루박 줄을 잡어끌어 올리다가 아버지한티서 지상에서 묵은 닥국으 느린내가 나이께네 아이구 누린내야 아이구 누린냐야 카고 타루박 줄을 탁 놔 삐렀다. 줄을 노이끼네 타루박은 고만 지상으로 떨어저서 대밭 우그로 떨어젔다. 총각은 대 비어낸 끌팅이에 찔려서 장닥이 대각고 고르르 소리냄서 울었다.

총각이 지상이서 닥국을 묵어서 하늘에 다부 올라가지 몬하고 울민 고르르 소리로 내고 운다 칸다.

—1931年 12月 金海郡 大渚面 朴鍾順(14세, 女)

*임석재, 『한국구전설화 –경상남도 편 Ⅰ』, 평민사, 1993, 119~121쪽.

95) 두레박.
96) 닭.
97) 끓여서.

[강서구 설화 12]

내 복으로 산다

옛날에 어떤 부자 영갬이 딸을 싯을 두었는디 하리는 이 딸 싯 불러 앉히놓고 "너거덜 누 덕에 잘묵고 잘입고 잘사느냐?"꼬 물었다. 큰딸은 아부지 덕이지 뭐 누 덕으로 잘살 수 있입임이껴 했다. 두찌 딸도 세이 말과 같이 아부이 덕으로 잘묵고 잘입고 잘삽이다 캤다. 그런디 싯째 딸은 "와 아부지 덕이나 내 덕에 잘묵고 잘입고 잘산다" 캤다. 이 말로 들은 아부지는 "이년 고약하다"캄서 보골이 대기 나서[98] 니 덕으로 살어보라고 후치냈다.[99]

시째 딸 이름은 복남인디 복남이는 후차나서 정처엄시 간다. 가다가다 가다가 어떤 산중에 들어갔는지 날은 저물어서 저쪽에 쬐매한 올막집이 있어서 그리 챚어가서 하리밤 재워돌라 캤다. 그리 하라 캐서 그 집에 드가서 자게 댔다.

그 집에는 늙은 할매씨하고 더벅머리 총각하고 둘이 살고 있었다. 총각은 숫을 꾸어서 풀어서 제우 살고 있었다.

복남은 그 집이서 하리밤을 잤는디 갈 디가 엄서서 그대로 머물러있임서 이일저일 거들어 주었다. 그리서 메칠을 지내는 동안에 친해저 가지고 낭중에는 총각캉 결혼해서 그 집이시 살기 댔다.

하리는 복냄이가 총객이 숫 꿈는 디로 가 봤다. 가 보이끼네 숫 꿈는 가매으 이매돌이 모도다 생금뎅이였다. 복냄이는 이 이매돌을 모도다 허물어서 집이로 가저가자 캤다. 그렁께네 총각은 숫 가매돌을 허물민 우리는 굶어죽는다 캄서 안된다 캤다. 그래도 복냄이는 우리가 더 잘살기 될팅게 염려말라 카고 이매돌을 다 허물어서 집이로 가저 가가지고 장날에는 이매돌을 하나식 장에 가지고 가서 폴라 캤다. 얼매를 받고 폴거냐 캐서 값진 대로만 받으라 캤다. 총각은 복냄이가- 색시가 시킨 대로 이매돌을 장으로 짊어지고 가서 폴기로 했다. 한 사람이 지나가다 보고 이거로 얼매로 포냐고 물었다. 값진 대로만 주시요 캤다. 암만에 폴라 캤다. 총각은 너머나 많은 값을 부르이께네 깜작 놀래이이 이 사람이 농담하는 줄 알고 값진 대로만 주시요 캤다. 그 사람은 값을 적게 부른 줄로 알고 더 많은 값을 불렀다. 총각은 더 놀래서 값진 대로 주시요 캤다. 그 사람은 더 많은 값을 부름서 폴라 캤다. 총각은 이렇기해서 많은 돈을 받어서 폴랐다.

총각은 집에 있는 생금을 장에 짊어지고 폴아서 많은 돈을 벌었다. 돈을 많이 벌어서 논 사고 밭 사고 청지아집을 짓고 열두 대문 달고 잘살었다. 그 집 대문은 열두 대문은 모두다 열 매나 닫을 때나 복남아 복남아 하는 소리가 났다.

복남으 본집은 복냄이로 후차낸 후로는 집안이 망해 가지고 영감 할배는 껄박씨[100]가 대서 이집저집 돌아댕김서러 밥을 얻어묵게 댔다.

---

98) 부아가 몹시 나서(원문에는 방언인 '부애'로 되어 있으나 표준어로 바로 잡아 표기함 -편자 주).
99) 쫓아냈다.
100) 거지.

하리는 이 영감 할매가 한 곳에 가잉께네 청지아집이 있고 열두 대문이 달린 집이 있어서 그 집에 밥을 얻어묵겄다꼬 그 집 대문을 여이께네 대문이서 복남아 소리가 났다. 닫어보이 또 복남아 소리가 났다. 영감 할매는 대문이 내는 소리를 듣고 후처낸 막내 딸 생각이 나서 대문짝을 안고 대성통곡을 했다. 이 집 종년이 나와보고 안으로 드가서 안주인보고 어떤 늙은 껄박씨 내우가 대문짝을 안고 통곡하고 있다꼬 말했다. 복냄이가 나와서 보이께네 늙은 껄박씨 내우가 저그 아부지 어매가 그러고 있어서 얼른 안으로 모서 들이고 좋은 옷을 갈어 입히고 좋은 음석을 해 디리고 거기서 펜안히 잘살게 해 줄었다.

복남이는 지 복으로 사는 기라요.

—1931年 12月 金海郡 大渚面 朴鍾順(14세, 女)

*임석재, 『한국구전설화 –경상남도 편 Ⅰ』, 평민사, 1993, 132~133쪽.

[강서구 설화 13]

감사 메누리가 된 처녀와 불범에 잡혀먹힌 중

옛날에 한 여자가 딸로 하나놓고 잘 키움서러 장[101] 공을 디리는기라. 장 뒷절에 가서 부처님 앞에 가서 우리 딸 우째던지 정상감사[102] 미니리 맨들어 되라꼬. 이래 공을 디리이께네 그 절 중이 하리[103]는 부처 뒤에 숨어각고 너거 딸로 이 절 중한티 주라 캤다. 이 여자는 그 말을 듣고 기가 찼다. 그러나 부처임으 말이라 중한티 주기로 핬다. 그리서 뒷절 중을 불러서 우리 딸로 디리가라 캤다. 뒷절 중은 좋와라고 그 여자으 딸을 딨고 갈라고 와서 처이[104]로 큰 궤에다 여서 짊어지고 절로 갔다. 가는디 가다가 정상감사 행차로 만났다. 중은 중넘이 처이로 딨고 간다꼬 매맞일가봐서 질가 언덩[105]에다가 궤로 내리놓고 저리 산 속으로 도망가서 숨었다.

감사는 가다가 질가 엉덩에 궤가 있었어서 무신 궨가 하고 열어보이뿐 처이가 들어 있어서 미니리 삼겄다꼬 디리가고 궤 안에는 가지고 가던 불범을 집어 옇고 갔다.

감사 행차가 지나간 후에 이 중넘은 산에서 나와서 보이 궤가 그대로 있어서 짊어지고 절로 갔다. 가서는 상좨[106]덜보고 내 바에[107] 오지도 말고 날이 새도 깨우지 말라꼬 하고 지 바로 들갔다. 드가서 궤로 열고 처이로 끄집어낼라고 하이께네 난디엄는 불범이 나와서 중을 잡어묵었다.

처이는 어무이가 부처에게 공디리서 감사 미니리되게 빌어서 감사 미니리가 됐는디 흑심묵

101) 늘, 항상.
102) 慶尙監司.
103) 하루는.
104) 處子, 즉 이 여자의 딸.
105) 언덕.
106) 상좌 중.
107) 방에.

고 처이를 탐낸 중은 불범한티 잽히믹히서[108] 벌받고 죽었다는 이바구[109]다.

—1931年 12月 金海郡 大渚面 朴敬贊(30세, 男)

*임석재, 『한국구전설화 –경상남도 편 I 』, 평민사, 1993, 135쪽.

[강서구 설화 14]

버리더기

옛날옛적 그대 그 시절에는 짐싱[110]도 말로 하고 새도 말로 하는 시절이였는디 외구대왕캉 왕후질대부인이 있었다. 외구대왕캉 질대부인 사이에는 아덜도 딸도 엄서서 밍산대천[111]에 챚어가서 백일기도로 들있더이 태기가 있어서 애기로 놓기 댔다. 애기로 노았는디 논 거이 딸이었다. 외구대왕캉 질대부인은 첫딸로 놓고는 우리도 이제는 애기로 놀 수 있다꼬 기뻐서 이 딸로 금지오엽으로 잘 키웠다. 다음에 또 잉태해서 애기로 노았는디 이분에도 딸을 노았다. 이 딸도 고이고이 키웠다. 또 잉태해서 애기로 노았는디 이분에도 딸을 노았다. 이 딸애기도 고이고이 잘 키웠다. 또 잉태해서 애기로 노았는디 또 딸을 노았다. 이 딸도 곱게 키웠다. 또 잉태해서 애기로 노았는디 이분에도 딸을 노았다. 이 딸도 곱게 키웠다. 또 잉태해서 애기로 노았는디 이 애기도 딸이였다.

딸애기로 연다라 여섯을 노아서 이분에는 태자로 놓게 해돌라꼬 절에 돈을 마이 바치고 공을 들여서 온갓 정성을 들여 빌었다. 질대부인이 꿈을 꾸이 하늘서 구실이 네레와서 질대부인 입으로 드갔다. 이분에는 꼭 태자로 놓겠다꼬 기뻐함서 지냈는디 열 달 후에 놓은 애기는 태자가 아이고 또 공주로 노았다. 외구대왕캉 질대부인은 낭망천만[112] 외구대왕은 화가 나고 부애가 났다.

"보기싫다. 듣기싫다. 이 애기는 나와는 웬수[113]다. 어서 배뻐[114]갖다버리라!" 천동같이 호령했다. 그래서 이 공주로 마구깐에다 갖다버렸다. 몰한티 봃헤 죽으라고 그랬는디 몰은 공주로 피해 다녀서 공주는 죽지않고 무사했다. 이분에는 소 외양깐에다 버렸는디 소는 뿔로 찔르지도 앙코 발로 봃지도 안해서 무사했다. 개집이다가 버렸더이 개도 물어직이지 앙코 젖을 믹있다. 바대다 버려서 괴기뱁이나 삼을라 카는디 괴기뱁이 되지 앙코 잘살었다. 짚은 산중에다 버렸더이 산짐싱이 잡어묵지도 앙코 하늘서 학이 네리와서 두 날개로 잘 보듬고 여러 가지 묵을 거로 물어다가 믹이서 키웠다. 이리서 일곱재 공주 버리데기는 잘 커서 나이가 열다섯 살이

108) 먹혀서.
109) 이야기.
110) 짐승.
111) 名山大川.
112) 落望千萬, 크게 실망해서.
113) 원수.
114) 바삐.

댔다.

이때에 외구대왕은 빙[115]이 났다. 이 약 저 약 오만 약을 마이 써 봐도 낳지 않고 백약이 무효였다. 이런 이원 저런 이원[116] 천하으 유밍한 이원이 다 와서 짐맥히봐도 외구대왕 방을 낫우지 몬했다. 그때 들리는 말에 외구대왕 빙에는 수천리 밖에 있는 시약산으 약수물을 묵어야 낫는 빙이라 캤다. 그래서 첫재 공주로 불러서 아버지 외구대왕으 빙을 낫우기 위해서 수천리 밖으 시약산 약수물로 질러오라 캤다.

첫재공주는 "저는 이제꺼지 궁궐 밖에 나가본 적도 엄는디 우찌 수천리 밖으 시약산을 챚어가서 약수물을 질러오겠입니껴 저는 몬 가겠십니더" 캤다. 둘째 공주로 불러서 아버지 외구대왕으 빙을 낫우기 위해서 시약산으 약수물로 질러오라 카이 "세이 몬 가는 시약산에 지가 우찌 가겠입니겨. 저는 몬 가겠입니더" 캤다. 시째 공주로 불러 아버도 몬 가겠다 카지 방을 낫우기 위해서 시약산 약수물로 질러오라 카이 세이덜이 몬 가는 디로 지가 우찌 가겠입니껴 캄서 안 간다 캤다. 닛째보고 가라 캐고 다서째보고 가라 캐도 몬 가겠다 카고 여섯째보고 가라 캐도 몬 가겠다 캈다. 그라이 이제는 일곱재 공주보고 가라칼 수 밖이 엄서서 일곱재 공주를 챚어보기로 캈다. 일곱재 공주 버리덱이 공주 버린 산중에 가서 이 골짝 저 골짝 돌아댕김서 던젔다 던진덱이 버렀다 버리덱이 이렇기 외침서 돌아댕김서 챚었다.

버리덱이야 너는 하늘서 네레온 아이도 아이다. 따에서 솟은 아이도 아이다. 너는 높은 부모도 있고 많은 성지도 있다. 너가부지는 외구대왕이다. 너거머이는 질대부인 왕후이시다 카는 소리가 버리덱이 귀에 들려왔다.

버리데기는 지한티는 부모도 엄고 성지도 엄는 줄로 알었는디 부모도 있고 성지도 있다는 말로 듣고 기뿌고 반갑와서 어서 빨리 만나보고 짚었다. 그리서 던젔다 던진딕이 버렀다 버리덱이라는 소리나는 디로 가서 질대부인을 만나고 둘이는 서로 보듬고 한참 울다가 궁궐로 가서 아부지 외구대왕도 만나고 성들도 만났다.

"버리덱이야 너가부지는 빙이 들어서 오만 약도 써보고 오만 이원도 뵈여 봤지만 낫지 않는다. 이 빙에는 수천리 수멀리 있는 시약산 약수물이야만 낫을 수 있다 칸다. 니는 그 약수물로 질러오겠나?" "나로 놓아주신 아부임을 위해서라문 철리[117]고 만리고 가서 약수물로 질러오겠입이더."

그리고 집을 나서각고 시약산을 챚어간다. 및날 및칠 산중으로 산중으로 갔다. 가다가다 가다가 빨래로 산덤이같이 쌓아놓고 빨래로 하는 할무이로 만났다. "할매요 할매요 시약산 약물터로 갈라문 워데로 가능기요?" 카고 물어도 할마이는 들은 치도 앙코 빨래만 씻고 있었다. "할매요 시약산 약수물 터로 워데로 가능기요?" 또 물었다. 그리도 들은 치도 안했다. 시약산 약수물 터로 워데로 가능기요 카고 및분 물어도 대답이 엄섰다. 버리데기는 소망을 걷어부치고 산덤이같이 쌓여있는 검은 빨래로 백옥같이 하얗게 다 씽가 주었다. 그랬더이 할마이는 저 산 등

115) 病, 병.
116) 醫員, 醫師.
117) 千里.

을 넘어가라 카고는 워데론가 사라지고 말었다.

버리데기는 할매가 일러준 대로 산 등을 넘어서 가는디 얼매로 가이까네 숯을 큰 바자기에 담어서 쑥쑥 씼고 있는 할매가 있었다. "할무이요 시약산 약수물 터로 갈라문 워데로 가야 합니껴?" "이 숯을 마카 하얗게 씻어 주문 갈치 준다."

버리데기는 소망[118]을 걷어부치고 숯을 씻겄다. 아무리 씻거도 숯은 히지 안했다. 할마이는 숯을 다 씻거나디이 니 정성이 지극하다 카고 저기 저 고개로 넘어가라고 카고 고만 간 곳 엄서 사라젔다.

버리데기는 고개로 넘어서 가이꺼네 염주밭 풀맴서 풀 한포기 뽑고 나무애미타불 하고 풀 한포기 뽑고 나무애미타불하고 있는 할매가 있었다. "보소. 할매요 시약산 약수물 터로 갈라문 워데로 가능기요?" 물었다. 그런디 할무이는 대답앙코 풀 한펴기 뽑고 나무애미타불 소리만 하고 있었다. 버리데기는 또 소망을 걷어부치고 풀 한포기 뽑고 나무애미에미타불 카고 염불 외고 풀로 뽑고 그 너른 밧으[119] 풀로 다 뽑아 놨다 그랬더이 할매는 니 정성이 지극하구나 캄서러 저 산을 넘어가라 캤다. 그리고 간 곳 엄시 엄서지고 말었다.

버리데기는 산을 넘어가이 늙은 노인 둘이 바둑을 뛰고 있었다. "어러신네요. 시약산 약수물 터로 갈라문 워데로 갑니껴?" 이렇기 물어도 두 노인은 처다보지도 앙코 바두만 뚜고 있었다. "보이소. 할배요. 시약산 약수물 터로 갈라문 워데로 가는기요?"

아무리 물어도 두 노인은 암말도 앙코 바둑만 뛰다가 차꼬 물으싸이 그제야 바둑 뛰는 거로 멈추고 육로로 철리 수로로 만리 날아가는 새도 몬 들어오는 이곳에 인간이 우찌해서 여기 드왔냐꼬 물었다. 버리데기는 지 아부지 외구대왕이 빙이 들어 위중한디 시약산 약수물을 묵으야 빙이 난는다 캐서 그 약수물로 질르로 가는 질이라꼬 말했다. 노인들은 니 정성이 지극하다 캄서 꼿[120] 시 송이로 줌서 가다가 위험한 일이 생기문 이 꼿 한 송이식 그 앞이다가 던지라 카고 이 산고개로 넘어가라카고 어디론가 사라젔다.

버리데기는 꼿 시 송이로 받어각고 노인덜이 일러준 대로 산을 넘어 앞으로 앞으로 가는디 얼매찜 가이 여러 산짐싱이 나타나서 으릉대고 잡어묵을라꼬 해서 꼿 한 송이로 그 앞에 내더지이 짐싱들이 고만 사라지고 말었다. 또 가이라이께네 구신들이 나타나 저리로 갈라카문 저리 막고 이리로 갈라카문 이리로 막고 캐서 꼿 한 송이로 그 앞이다가 더젔더이 구신덜은 간 곳 엄시 사라젔다. 또 앞으로 가이 큰 비암이 나와서 버리데기로 감어 직일라꼬 했다. 버리데기는 꼿 한 송이로 더지이 비암은 간 곳 엄시 사라지고 말었다.

또 한참 가이라께네 총각 하나가 나타났다. 이 총각은 빡빡 얽은 고동지[121]였다. "보소. 총각. 시약산 약수물 터로 갈라문 워데로 가능기요?" "시약산 약수물로 머 할라꼬 챚는기요?" "우리 아부지 빙황이 위중해서 그 약수물로 묵으민 난는다 캐서 그 약수물로 질어갈라꼬 그러요."

118) 소매.
119) 넓은 밭.
120) 花, 꽃.
121) 곰보, 천연두 후유증.

"나는 그 약수물으 감독이요 날 따라오오."

버리덱이는 기뻐서 총각을 따라가서 약수물 터꺼지 갔다. 총각은 약수물 값을 가저왔냐고 물었다. 몬 가저왔다 카이게네 총각은 나하고 결혼해서 아로 三兄弟 노아주어야 약수물을 질러갈 수 있다 캤다. 버리데기는 아부지로 위해서는 무신 짓을 몬 하겠냐 카고 그 총각과 백년해로 하고 살기로 했다. 그리고 삼 년 지내는 동안에 아덜 삼성지로 놓았다.

하리는 버리데기는 총각을 데리고 약수물 터로 가봤다. 가는 도중에 꼿밧이 있는디 이 꼿밧에는 오만 꼿이 만발하고 있었다. 그 중에 한 꼿이 이상해서 무신 꼿이냐꼬 물었다. 그 꼿은 죽은 사람한티 갖다 대고 문지르문 죽은 사람이 살어나는 꼿이라 캤다. 버리덱이는 그 꼿을 한 송이 꺾어 가젔다. 또 꼿 하나가 있어서 무신 꼿이냐꼬 물으이 그 꼿은 죽은 사람한티 갖다 대고 문지르문 피가 살어나는 피 살이 꼿이라 캤다. 버리데기는 그 꼿도 한 송이 꺾어 가젔다. 또 꼿이 있어서 이거는 무신 꼿이냐 카이 그 꼿은 숨 살이 꼿이라 캤다. 버리데기는 그 꼿도 한 송이 꺾어 가젔다.

약수물 터에 가봤더이 약수물은 거북이같이 생긴 방구으 입이서 한 방울식 한 방울식 떨어지고 있었다. 그것도 아칙에 한 방울 점심에 한 방울 저녁때에 한 방울 떨어젔다. 한 동우 다 차게 지를라문 밑날 밑칠 밑달이 걸렸다.

버리데기는 지우 해서 약수물로 한 빙 받어서 총가카 아덜 삼성지를 데리고 저그 집이로 왔다. 육로로 철리 수로로 철리 머나먼 질로 도술로 써서 순식간에 왔다. 총각캉 아덜을 도중에 숨겨놓고 가니라이꺼너 행상이 가고 있었다. 질 가는 사람보고 저 행상이 누구 행상이냐고 물으이 외구대왕으 행상이라 캄서 일곱째 공주가 외구대왕 살릴라는 사약산 약수물로 질르로 갔는디 및 십 년을 지달러도 안 와서 그리서 죽어서 이제 행상을 지낸다 캤다. 버리데기는 그 행상을 멈추게 하고 관 뚜껑을 열고 통곡했다.

"아부지 외구대왕 불효 자석 인재 왔입니더. 시간이 늦었입니더." 하이꺼네 여섯 성들이 "에이년아 아버지 빙 낫우겠다고 시약산 약수물로 질러온다꼬 가더이 어디 가서 서방질인지 남방질인지 하고 아도 싯이나 놓고 사다가 이제야 와서 무신 통곡이냐!"고 욕을 하민서 저 불효년을 직이삐리라고 하인들 보고 호령했다.

버리데기는 아버지 관 뚜껑을 열고 아부지 시체에다가 살 살이 꼿을 대고 문지르이 아부지 살이 돋아났다. 피 살이 꼿을 대고 살살 문지르이 피가 돌았다. 다음에 숨 살이 꼿을 대고 살살 씨다듬으이 숨을 쉬었다. 시약산 약수물을 믹이이 외구대왕은 일어나 앉이문서 "아이고 봄잠을 오래 잤구나!" 캄서 아조 살어났다.

죽으라고 던지고 버린 바리데기 딸은 이렇기해서 죽은 부모로 살려놋는 소도로 했다 카는 이바구가 있다.

—1932年 8月 金海郡 大渚面 朴鍾順(14세, 女)

*임석재, 『한국구전설화 –경상남도 편 Ⅰ』, 평민사, 1993, 137~142쪽.

[강서구 설화 15]

구렁덩덩 새선비

옛날에 한 정싱[122]이 있는디 이 정싱는 딸로 싯[123]을 두었다. 정싱으 앞집에는 이 정싱에 집에 일하는 할무이가 살고 있었다. 이 할무이가 하리는 아로 노았는디 구리[124]로 놓았다. 그리서 이 구리로 마리 밑이다가 두었다.

정싱으 큰딸이 앞집으 할무이가 아로 놋다 캐서 보로 갔다. "할무이요 할무이요 아로 놨다카더이 아은 워데 있는기요?" 카이 할무이는 마리 밑이 딜다 보라 캤다. 마리 밑이 딜다 보이께네 큰 먹구리가 있었다. "아이고 무시라[125] 먹 구리 노와났다" 캄서러 침을 탁 뱉었다. 구리는 쎄[126]로 니빌니빌[127]하민서 물라캤다. 둘째 딸이 와서 "할무이요 아로 노았다카더이 어데 있는기요?" "마리 밑이 디다보레이." 마리 밑에 디다보이 큰 먹구리가 있어서 "아이구 무사라. 승축한[128] 먹구리로 놓아 놨구만." 이람서 갈라카이 구리는 쎄로 니빌니빌함서 물라캤다. 싯째 딸이 와서 "할무이요 아로 놨다 카더이 어데 있는기요?" "마리 밑이 디다보레이." 마리 밑이 디다보이 큰 먹구리가 있었다. "아이구 동동 시선부로 노아놨구만." 구리는 이 말로 듣고 쎄로 니빌니빌함서 좋와했다.

세월이 얼매로 지냈는디 구리는 잘 컸다. 하리는 구리는 저거매보고 뒷집 정싱으 집으 딸한티로 장개가고 집다꼬 했다. "아이고 그게 무신 말이꼬. 뒷집은 정싱 집이라 지체도 높고 돈도 많은 부재다. 우리는 지체도 엄고 돈도 엄는 가난한 사램이다. 가난한 사램이 우찌 부자집에 장개 들겠노. 그런 말 두 분 하지 마라. 그리고 너는 사램이 아이고 구리다. 구리가 우찌 사람한티 장개 들겠노. 그런 말 다부 입 밖게 내지마라." "그렇지만 가서 말해 보이소." "난 몬하겄다." "어무이가 그리 하문 난 관솔가지에 불을 댕기고 손에 들고 나오던 궁기로 다부 들갈란다."

이라이 할무이는 무시버서 그 말 할라꼬 정싱네 집이 갔다. 그런디 그 말을 할 수가 엄섰다. 그 집 지동[129]나무만 안고 빙빙 돌았다. 앞집 할무이가 지동만 잡고 빙빙 돌아서 정싱이 보고서러 와 그리 지동만 안고 도는가 할 말이 있이문 하라 캤다. "예 죽을 죄로 지었입니더." "죽을 죄라이 무신 죄로 지었노?" "저 내가 구리로 노았는디 숭악한[130] 구리로 노있는디 이 구리가 정싱댁으 딸한티로 장개들겠다 캄니다. 가서 말하라 캄이다. 말이나 되는 말입니껴?"

정싱은 딸로 싯을 불러 누가 앞집으 구리한티 시집갈나는가 물었다. 큰딸은 아이구 더러라

122) 정승, 여기서는 마을의 유지를 뜻한.
123) 셋.
124) 구렁이.
125) 무서워라.
126) 혀.
127) 낼름낼름.
128) 흉측한.
129) 집의 기둥.
130) 흉악한.

거어 누가 시집가 난 안가요 캄서 나갔다. 둘째 딸도 서이와 마찬가지로 안간다 카고 나갔다. 망내딸한티 물어보이께네 아부지 시킨 대로 하겠다 캤다. 그래서 막내 딸하고 구리하고 혼사시키기로 했다.

혼사날을 택일해서 정해놧는디 혼사날이 되에깨네 구리는 진 간지깽이[131]로 담장 우에 걸처놓고 간지깽이로 타고 정싱으 집으로 가서 행레로 치렀다.

첫날밤을 치를 때 구리는 싯재 딸과 물었다. 묵은 지렁독[132]이 있느냐 밀가루 단지가 있느냐꼬. 장재네 집에[133] 무엇이 엄실까. 지렁독은 장광에 있고 밀가루 단지는 고방[134]에 있다 캤다. 구리는 밖에 나가서 지렁독에 풍덩 빠저 각고 나와서 밀가루 단지에 들어가서 두굴두굴 구불러 나와서 구리 허물을 벗고 머금에 삐친 신랑[135]이 되었다. 참 동동이 시섭부가 된 기라. 동동 시선부가 되이께네 세이들이 부러워하는기라.

구리가 동동시선부가 돼각고 과개보러 서울로 가겠다 캄서 구리 허물을 주민서 이거로 잘 간직하라. 이거로 잃어버리던지 태와엄새던지 하문 우리는 영영 만나지 몬한다 캤다. 신부는-싯째 딸은 그 구리 허물을 받아가지고 저고리 동정 안에다 여어서 잘 간직했다.

한 분은 머리로 감음서 저고리로 벗어놓고 머리로 감었다. 그때에 세이들이 와서 싯째가 벗어논 저고리 동정에서 구리 허물을 꺼내서 아이 더럽다 감서 화리다가 처넣어서 태워뿌맀다. 그 타는 내미가 온 집 안에 가득하고 그 내미가 서울꺼지 가서 동동시선부으 코에꺼지 닿었다. 동동 시선부는 지가 말한 대로 허물을 간직 몬하고 태웠다꼬 거그서 다른 여자와 결혼하고 돌아오지 안했다.

각시는 동동 시선부가 돌아오기로 지달는디 아무리 지달러도 돌아오지 안해서 동동 시선부로 챚이로 나섰다. 열두 폭 치매로 따서 한폭으로 짓고짓고 바랑 짔고 또 한폭 따서 짔고짔고 꼬깔 짔고 신중[136] 모양을 하고 나섰다. 치지엄시[137] 가는디 하리는 한군데 가이꺼네 한 아가 새로 후치는디[138] 후여후여 오늘만 까묵고 내일은 까묵지 마라. 내일은 동동 시선부 장개가는 디 기경[139]하러 가구로[140] 캤다. 이 각시는 이 말로 듣고 귀가 번적 띠었다.

"야야 그 소리 함[141] 더 해라." 카이 "우리 어매가 하리 한 번만 하라 카이 다부 할 수 엄다." 각시는 은가락지로 벗어 줌서 한 분 더 하라 캤다. "후여후여 오늘만 까묵고 내일은 까묵지 마라. 내일은 동동 시선부 장개가는 디 기경하러 가구로."

---

131) 장대.
132) 간장독.
133) 부잣집에(원문에는 '부자집'으로 되어 있으나 바로 잡아 표기함 -편자 주).
134) 倉庫, 도장.
135) 인물이 훤한 신랑.
136) 여자 중.
137) 정처 없이.
138) 쫓는데.
139) 구경.
140) 가겠다.
141) 한 번.

동동 시선부네 집이 워데냐꼬 물으이 저어기 저 건너 청지아집[142]이라 캤다. 각시는 그 집이 가서 대문에 드가서 동양왔입니다 캤다. 종이 나와서 좁살로 한되 주었다. 각시는 밑 터진 차대기에다 받었다. 받으이 좁살은 땅에 마카 쏟아졌다. 각시는 제가치[143]로 내각고 좁살을 한낱 한낱 집어 담었다. 그래가 있이라이 날이 저물었다. "날이 저물어시이 이 집이서 자고 감시더"카이 잘 디가 엄다. 우째겠노 캤다. "소깐[144]이나 여물깐에라도 좋다." "그라문 여물간에서 자라." 그래서 각시는 여물간에 드가서 잘라 캤다.

그날 밤은 달이 워낭청 볽었다.[145] 한밤중이 되이께네 신랑은 글을 일다가 다락에서 내리와서 마당서 달 기겡 함시로 "달도 달도 볽다. 저 달은 본댁이로 보련마는……" 캤다. 각시는 이 말로 듣고 "본댁이로 볼라거던 여물간에 드오시요" 캤다. 신랑은 여물간에 드가보이꺼네 저거 각시가 있는기라. 반갑아서 딨고 다락에 올라갔다.

신랑은 – 동동 시선부는 각시가 둘이 돼서 하나로 골라야 한 판이다. 그리서 동동 시선부는 각시 둘이에게 내기로 시키기로 했다. 각시들한티 십리 밖에 있는 새미에서 물을 질러오게 했다. 새각시는 꽃당기[146]를 신고 은동우를 이고 가서 물을 질러 이고 오는디 새각시는 빨리 오이라꼬 출랑출랑 해서 물이 다 쏟아지고 은동우도 노처서 깨뿌렀는디, 본각시는 굽높은 나묵신[147]을 신고 옹기동우를 이고 가서 물을 질러오는디 가만가만 와서 물 하나도 쏟지 않고 물동우도 깨지 안했다. 본댁이 진실하고 얌전하다고 보고 새각시는 진실치 몬하다고 보고 새각시로 버리고 본각시로 딨고 잘살었다 칸다,

—1932年 8月 金海郡 大渚面 朴鍾順(14세, 女)

*임석재, 『한국구전설화 –경상남도 편 I 』, 평민사, 1993, 145~148쪽.

[강서구 설화 16]

狐妹

이전에 어떤 집이서 아덜로 싯을 두고 딸이 엄서서 딸 하나 점지히 돌라고 늘 빌었다. 그리서 그랬던지 아로 배서 논거이 딸이였다. 이 집이서는 딸로 노았다꼬 좋와라 하고 이 딸로 금이야 옥이야 하고 키웠다.

그런디 이 딸로 논 후로는 우찌서 그런지 몰[148]이 밤중에 죽어넘어지고 그랬다. 이상하다 카

142) 청기와 집.
143) 젓가락.
144) 외양간.
145) 밝았다.
146) 꽃당혜.
147) 나막신.
148) 말이.

고 큰아덜보고 우찌서 몰이 죽어넘어지는가 징키보라[149] 캤다. 큰아덜은 마구깐으 한 구팅이에 숨어서 보고 있는디 한밤중찜 되이께네 온 시상이 고요하게 되이께네 큰 바 문이 열리더이 어끄적이 논 쬐매한 누이동생이 나오더이 마당으로 네리와 각고 마당이서 범사[150]로 휘떡휘떡 넘디마는 뱅야시[151]가 대각고 손을 둥둥 거지더이[152] 정지로 드가서 참지름[153]을 폴목[154]이다 발라각고 나와서 몰 똥구멍이다가 디리밀어서 간을 쑥 잡어빼각고 묵었다. 그라이 몰은 고만 씨러저 죽어삐렀다.

날이 새서 저가부지가 불러서 물어서 큰아덜은 어지 밤에 본 대로 말하고 몰이 죽은 거는 저번에 논 누이땜이라꼬 했다. 그라이 아부지는 화를 버럭 내각고 에렙게 논 누이도 몬바서[155] 저런 소리한다고 마구 때리고 내쫓았다. 다음날에는 두째 아덜보고 우째서 밤에 몰이 죽어넘어지는가 징키보라 캤다. 두째도 마구깐 한 구팅이에 숨어서 징키보고 있는디 한밤중찜 되이께네 큰방 문이 열리더이 쬐깐헌 누이가 나와서 마당으로 네레와서 마당이서 범사로 휘떡휘떡 시분 넘더이 뱅야시가 대 각고 정지로 드가서 폴목이다가 참지름을 볼라 각고 나와서 몰 밑구먹에 디리밀어서 몰으 간을 내 묵었다. 그라이 몰은 고만 죽어 넘어젔다. 날이 새서 다음날 아칙에 어지 밤에 온 거로 아부지 어무이한티 말했더이 아부지 어무이는 누이동생 하나 있는 거로 몬봐서 직일라꼬 저런 말 한다꼬 야단치고 때리고 내쫓았다. 그리고 다음에는 싯째 아덜로 불너서 우찌서 몰이 밤중에 죽어넘어지는가 징키보라 캤다.

싯째 아덜이 징키보이께네 성들이 말한 대로 쬐깐한 아레 난 누이 동생이 간을 뽑아묵어서 죽었다. 이 말로 하이께네 父母는 애무한 누이동생을 직일라고 저런 말한다꼬 욕하고 내쫓었다. 싯재는 집을 쪼게나서 한정엄서 갔다. 멀리멀리 가서 어떤 마실에 와서 그 마실서 결혼하고 살었다.

한 십 년 살었는디 고향 생각이 나고 父母가 우찌 댔는가 궁금해서 각시보고 고향에 가보고 짚다 캤다. 각시는 가 봐야 암것도 엄실팅게 가볼 필요가 엄다 캤다. 그래도 싯째는 꼭 가봐야 하겠다 카고 간다 캤다. 각시는 파란 빙 하얀 빙 빩안 빙 시 낱을 줌서 이거로 급한 때에 뒤로 더지라 캤다.

싯째는 고향에 와 보이 동네는 엄서지고 쑥대밭이 되어 있었다. 저 쪽에 누이동생이 있는디 이 누이동생이 쫓어와서 아이고 오래비 한때 몰 한때 험서 반가히 맞어줌서러 방으로 인도했다. 그리고 점심해 준다 캄서 오래비 허리에 노끈을 매고 한 끝은 지 폴목에 매고 정지에 드가서 점심한다 캄서 들락날락 캤다. 지가 엄는 동안에 오래비가 도망칠가 봐서 그러는기라. 오래비는 거기 오래 있다가는 암만해도 누이한티 잽히먹힐 거 같어서 지 몸에 맨 노끈을 풀어서 문꼬

149) 지켜보라고.
150) 땅재주.
151) 白狐, 백여우.
152) 걷어붙이더니(원문에는 '걷어부치더니'로 되어 있으나 바로 잡아 표기함 -편자 주).
153) 참기름.
154) 팥.
155) 못 봐서, 못마땅하게 여겨서.

리에 매고 벡을 뚫고 나와서 몰을 집어타고 마구 달아났다.

누이는 이거로 보고 범사로 시 분 벌떡벌떡 넘더이 백야시가 대각고 마구 뒤쫓아 옴서러 오래비 한때 몰 한때 오라비 한때 몰 한때 소리침서러 뒤쫓어 왔다. 그리고 거짐 다 따라잡을라꼬 몰꼬랭이로 잡을라캐서 싯째는 힌빙을 뒤로 내던젔다. 그라이 그기는 고만 가시밭이 댔다. 야시는 가시밭을 헤지느라꼬 애로 썼다. 그 동안에 오래비는 멀리 멀리 달아 뛰어갔다. 야시는 가시밭을 헤치고 또 달려왔는디 또 다 달려와서 몰 꼬랭이로 붙잡기 댔다. 오래비는 파란 빙을 뒤로 내던젔다. 그랬더이 거기는 새파란 큰 바대가 댔다. 야시는 바대 물에 빠저서 허부적부허부적캤다. 허부적거리다가 제우제우 바대물을 건너서 뒤쫓아오는디 또 인제 몰 꼬랭이로 붙잡기 댔다. 오래비는 뺡언 빙을 뒤로 내던젔다. 그랬더이 그 일대는 불바대가 댔다. 야시는 불바대에서 타도불을 헤치고 나와서 뒤쫓어와서 몰 꼬랭이로 붙잡기 댔다. 오래비는 옆이 있는 큰 둥구나무로 기어 올라가서 높은 디에 있었다. 야시는 높은 나무로 몬 올라가서 나무 뿌리로 퍽퍽 쫓었다. 그 나무가 거짐 넘어질라 카는디 쬐깬헌 강생이가 나와서 백야시로 물어직있다.

그리서 오래비는 살어서 각시하고 잘살었다.

—1932年 8月 金海郡 大渚面 朴鍾順(14세, 女)

*임석재, 『한국구전설화 –경상남도 편 I 』, 평민사, 1993, 154~156쪽.

[강서구 설화 17]

매미가 된 각시

옛날에 한 선부가 있는디 장 글만 일렀다.[156] 글만 일러서 집안일은 통 아무것도 안했다. 안달[157]은 만날[158] 벌판에 나가서 갱피로 훑어다가 묵고 살었다.

한 분은[159] 안들이 갱피로 마당에 덕석에다 늘어놓고 들판으로 갱피로 훑으로 나갔다. 그 사이에 소내기가 와서 마당에 늘어논 갱피가 다 떠내리갔다. 선부는 바이서 글만 일르느라꼬 갱피가 떠내리가는 것도 모르고 있었다. 안들이 와서 보이 이 지겡이라. 안들은 기가 차서 이러한 사람과 우찌 살고 하고 이 남펜을 버리고 딴 디로 가서 딴 남펜을 얻어서 살었다.

그런뒤 이 선부는 과개[160]에 급제해서 높은 베실을 했다. 그리서 호기있게 관행차로 채리서 가는디 가는 들판으 논에서 갱피로 훑던 여자가 보이께네 호기있게 채리고 가는 사람이 지 전 남펜이거던요. 여자는 쫓아가서 자기도 딧고가 돌라 캤다. 그런디 관행차는 본 치도 앙코[161] 그

156) 읽었다.
157) 마누라.
158) 늘.
159) 한 번은.
160) 과거.

냥 갔다. 이 여자는 전남펜을 따라갈라고 뛰어가다가 고마 엎어져서 죽었다. 엎어저서 죽어서 매미가 됐다. 매미가 돼가지고 장 갱피 흩는 소리로 불었다. 얌얌얌 정감감사 얌얌얌 얌얌얌

—1932年 8月 金海郡 大渚面 朴鐘順(14세, 女)

*임석재, 『한국구전설화 –경상남도 편 Ⅰ』, 평민사, 1993, 164~165쪽.

[강서구 설화 18]

뱀 각시

옛날에 한 사램이 있는디 하도하도 몬살어서 묵고 살 수가 엄어서 넘으 집을 살어봐도 않대고 품폴이로 해봐도 않대고 이래서 하다하다 할 수가 엄서가지고 에라이 어데로 가삐리야겠다 카고 궁구[162]한티 간다온다 소리도 엄시 정처엄시 집을 떠나서 갔다. 집을 떠나가뿟다 말이다. 정처엄시 가는디 어떤 산중턱찜 가이라이께네 청멩하고 좋던 날이 각중에 노성벽락 뚜드리고[163] 비가 막 내리찌었다. 그리서 가마이 본께네 저짝에 큰 방구가 있어서 그 방구 밑이로 드갔다. 드가서 가만히 있이이께네 시간이 지나서 어느새 해가 지고 뱀이 되었다.

뱀이 되어 얼매로 지내니께네 방구 백에 달덩이같은 처이가 와서 방구백에다 제물로 해 놓고 찌다라[164] 절로 하고 뭘 씨부러쌌다. 제를 다 지내고 나서는 방구 안을 딜다보더이 방구 안에 이 사램이 있이이께네 나와서 제물로 묵으라 캤다. 이 사람은 배가 고파서 그 제물을 묵었다. 묵고나이 체이는 그럭을 다 챙기서 이고 감서러 이 사람보고 지 따라오라 캤다. 따라가이께네 체이는 은들번들한 좋은 지아집으로 드갔다. 그리고 체이는 이 사람은 좋은 바이디 드앉히고 또 오만가지로 채린 큰상을 들고 와서 묵으라캤다. 이 사람은 그 엄식을 잘 묵고 잤다. 다음날 아직에 일직이 일어나서 갈라카이 처이는 가지말고 여기서 살라캤다.

이 사람은 지 집에 가봤자 헨펜엄고 갈 만한 곳도 엄고 그리서 거기에서 살기로 했다. 그러구로 세월이 흘러서 십 년으 햇수로 지냈다. 이 사람은 집 생각이 나서 집 궁구가 우찌 댔는가 궁금해서 또 아부지 입장일[165]도 닥처 오고 해서 입장보로 가야겠다 카이 처이는 잘 갔다오라 캤다. 그리서 지가 살던 마실에 와 보이 지가 살던 집은 엄고 은들번들한 지아집이 있었다. 마실 사람한티 물어보이 그 집주인이 나가더이 돈을 마이 벌어서 보내주어서 저렇기 좋은 지아집도 잘 짓고 잘살고 있다 캤다. 이 사람은 돈 한 잎도 보내준 일이 엄는디 이상하다꼬 생각했다. 그런디 실은 그 처이가 이 사람 집이로 억수만금을 실어 보내주어서 그리 잘살기 해 주었다.

161) 아니하고.
162) 식구, 가족.
163) 雷聲霹靂이 치고.
164) 많이, 여러 번.
165) 제삿날.

이 사람은 궁구도 만나보고 지 아부지 입장을 지내고 다부 그 처이 있는 디로 돌아가이라고 집을 떠나서 오는디 오는 도중에 백발 노인을 만났다. 이 노인은 이 사람보고 자네 이자 오나 캄서 인사로 했다. "어르신네는 누구십니껴?" "나는 자네 조부 친구네." 캄서 자네는 그 처이 집이 가문 죽느나 캤다. 그 처이는 사람이 아이고 구리다. 그 구리가 자네로 잘 믹있다가 나중에는 자네로 직인다. 그라이 자내가 먼저 그 처이로 직이뿌리라 캤다. 어텋기 그 처이를 직이냐 카이 이제 가문 처이가 밥상을 잘 채리다 줄티이이 첫밥숟깔을 묵지말고 그 처이으 볼때기로 때리문 죽는다 캤다.

이 사람으 말을 듣고 처이으 집에 와 보이 대문이 쟁기 있었다. 그리서 집 뒤로 가서 뒷문에 구멍을 뜰고 바 안을 들이다 보이 처이는 안 보이고 구리가 매방석맹이로 사리 가지고 있었다. 이 사람은 이거로 보고 앞으로 가서 마당이서 지침을 했더이 바에서 처이가 나와서 이자 오십이까 함서 바로 맞어드리고 밥상을 잘 채리다 주었다. 그리고 여그 올 적에 머리가 힌 노인을 만났냐고 물어서 만났다 카이께네 그 노인은 당신으 조부으 친구가 아이고 천 년 묵은 야시다. 천 년 묵은 야신디 우리 둘이는 누가 먼저 사람이 되냐꼬 저니하는[166] 사이다. 나로 직이고 지가 먼저 사람이 될라꼬 그리 말한기라 캤다. 이 사람은 처이으 말을 듣고도 이 처이가 말대로 구리라는 것을 봤기땜이로 직일라꼬 했이나 지로 십 년이나 잘 믹이 살리고 또 저으 집에 많은 돈을 보내서 지 궁구로 잘살게 해주어 그 은공을 생가해서 밥 묵을 적에 노인이 시킨 대로 밥 첫 수깔로 처이 볼태기로 때릴 수 엄어서 그냥 첫 밥수깔을 묵었다. 그랬더이 처이는 "인제는 나는 살었다. 내가 사람이 되어서 당신하고 부부가 대서 살라 캤더이 당신 내가 구리라는 것을 봤기 땜이로 나는 당신하고 부부가 되어 살 수 엄다. 나는 하늘로 득천해야겠다."

이러코로 말하이 각중에 노성벵낙이 뚜두리고 소내가 억수로 소다지더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 처이가 올라간 뒤 보이꺼이 은들번들하던 지아집은 엄서지고 큰 방구만 있었다.

이 사람은 저으 집에 돌아와서 잘살었다 칸다.

—1932年 8月 金海郡 大渚面 朴鐘順(14세, 女)

*임석재, 『한국구전설화 –경상남도 편 I 』, 평민사, 1993, 166~168쪽.

[강서구 설화 19]

개와 고양이의 報恩

옛날에 한 사램이 있는디 이 사람은 장 술이나 묵고 주막에 댕김서 노름이나 하고 했다. 이 사람으 각시는 넘으 집 방애품이나 폴이다가 제우제우 살림을 꾸러갔다.

하리는 이 사램이 주막에서 술을 묵고 집이로 가는디 어떤 사램이 개 한마리를 때리 직일라

166) 競合.

캐서 멬 푼 주고 사각고 집이로 왔다. 각시는 우리 살림이 어레분디 와 이런 개로 가저오냐고 불펭해서 어떤 사램이 이 개로 때리직일라꼬 해서 수밍이 불상해서 사가왔다 캤다. 각시도 할 수 엄시 그 개로 믹이 키웠다.

그 뒤에 이 사람은 고냥이로 한 바리 가저왔다. 무신 고냥이로 가저오냐 카이께네 질가에 죽어가는 고냥이가 있어서 수밍이 불상해서 줏어왔다 캤다. 그 뒤로 배미로 가저왔다. 무슨 배미냐고 물으이께네 어떤 사램이 이 배미로 직일라캐서 수밍이 불상해서 뺏어왔다 캤다.

이렇기해서 이 집이는 이 사람캉 각시캉 개캉 고냥이캉 배미캉 여럿이 살었다. 그런디 하리는 배미가 살살 기어나가서 이 사람은 이상해서 배미 뒤로 살살 따라갔다. 가이께네 배미는 바다가로 가디이마는 바다 속으로 드갔다. 이 사람은 배미가 바대 속에 드가서 바대가에 앉어서 울고 있었다. 그릤더이 바대서 허연 영갬이 나와서 와 우냐 캐서 내가 집에서 키우던 배미가 이리 와서 바대로 드가서 운다 캤다. 그랫더이 영감은 바대 속에 드갔다 나와서 구실 하나로 줌서 이거로 가지고 가서 니네 방문 앞으 신방들 밑이다 묻으라 캤다.

이 사람은 그 구실로 집이 가와서 방문 앞으 신방돌 밑이다가 묻었더이 그 뒤로는 큰 부자가 돼서 이 사람 내우는 잘묵고 잘입고 잘살고 개도 고냥이도 잘 믹이서 지름이 번질번질했다.

하리는 강 건너 사는 친구가 챚어와서 이 사람이 각중에 잘사는 것을 보고 니는 그렇고롬 몬살어 고생하더이 우째 각중에 이레 부자가 됐노 카이 물어서 사실이 이래이래 해서 그리 됐다꼬 전후사로 다 말했다.

그라이 친구가 "보소 우리가 친구간이 아이가. 친구간에 다 잘살문 않좋겠나. 그 구실 날 좀 주꼬마." "그 뭐 어렵지않지. 내 친구간에 않줄 수 있나" 캄서 그 구실로 덜렁 주었네.

친구는 그 구실로 갖다가 지 집 방문 앞으 신방돌 밑이다가 묻어놨다. 그라이 친구는 각중에 부자가 돼서 잘묵고 잘입고 잘살었다. 그런디 이 사람은 있는 살림이 대번에 망해뿠다. 친구한티 챚어가서 "보소 친구야 내 살림이 다 파해뿠다. 그 구실 돌려도고." 카이 친구는 "그 구실 니로 돌여주다이 그 무신 말이가 안된다. 니로 주민 나는 우짤끼라꼬." 이라이 뭐 구실 받을 도리가 엄지. 저놈은 잘살고 이 사람은 헹펜엄시 곤란하게 지내게 되었지.

이 사람 집이 살기가 곤란하게 되이께네 개캉 고냥이가 배가 고파서 전딜 수가 엄게 되었단 말이다. 그리서 고냥이가 "야야 개야. 이 집이 구실이 엄서서 살기가 곤란하기 돼서 우리꺼지 배가 고프게 됐이이께네 우리 강건너 사는 그 사람 집이 가서 그 구실로 째비다가[167] 이집 주인한티 주자" 카이 개도 그렇가자 캤다. 그리서 고냥이캉 개는 강거너 그 집이 가서 그 집이 도장에 살작 드가서 늙은 쥐로 불러서 너거 집 방문앞 신방돌 밑이 묻어논 구실을 파서 가오너라. 만일에 몬 가저오문 너거덜 마카 밀망[168]시키겠다 캤다. 그라이 늙은 쥐 생쥐 마카 가서 그 구실로 파 가저다 주었다.

고냥이캉 개는 그 구실로 가지고 오는디 오는 질에는 강이 있었다. 강을 건닐적에 개는 고냥

167) 훔쳐다가.
168) 滅亡.

이보고 그 구실을 지가 가지고 가겠으이 그 구실을 돌라캤다. 고냥이는 지가 가지고 가겠담서 안줄라캤다. 그라이 개는 그럼 너로 업어 건너 주지 않겠다 캤다. 그리서 고냥이는 할 수 엄서 구실을 개한티 주었다. 고냥이는 헤엄을 치지 몬하이께네.

개는 구실을 입에 물고 등 우에 고냥이를 태우고 강을 건넸다. 고냥이는 개가 구실을 물고 가는 것을 알어볼라꼬 구실 물고 있나 카고 물었다. 개는 물고 간다 캤다. 쬐매 가다가 고냥이는 구실 물고 있나 카고 물었다. 물고 간다 캤다. 쬐매 가다가 고냥이는 구실 물고 가나 캤다. 개는 물고 간다 캤다. 이렇고로 물고 가나 물고 간다. 물고 가나 물고 간다 캄서 가는디 강 한복판에 오느께네 커단 똥뎅이가 흘러내리왔다. 개는 이거로 보고 묵을라꼬 입을 크게 벌이다가 고만 구실을 빠트리서 구실은 강물 속으로 가라앉젔다.

개하고 고냥이는 강을 다 건너왔는디 구실을 강에 빠트러서 낙심해서 가도 몬하고 강가에 앉어서 강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다가 저어쪽을 바라보이 어떤 노인이 낚이질을 하고 있는디 괴기로 마이 낚고 있었다. 그리다가 큰 잉애[169]로 낚어가지고 다랙기 안에 넣다. 고냥이는 이거로 보고 살살 노인 옆으로 가더이 그 잉애로 씨비가지고 마구다리 뛰어서 집이로 왔다. 개도 뛰어서 갔다.

집이서는 개캉 고냥이가 나가서 엄서저서 이제는 집이 아조 망했다카고 있넌디 개캉 고냥이가 돌아와서 기뻐했다. 잉애로 큰 놈을 한 마리 물고 와서 이거로 묵을라고 배로 땄더이 뱃 속에서 그 구실이 나왔다. 강에 빠트렀던 그 구실이 나왔다. 잉애가 그 구실을 주 묵은기라. 그 구실을 방문 앞으 신방돌 밑이 묻었더이 다시 살람이 불겉이 일어나서 잘살기 되었다.

—1932年 8月 金海郡 大渚面 朴鐘順(14세, 女)

*임석재, 『한국구전설화 –경상남도 편 I 』, 평민사, 1993, 176~178쪽.

[강서구 설화 20]

기가 억센 처녀

엿날에 어느 마실에 처이 하나 있는디 이 처이가 어찌나 거시던지 이 처이하고 결혼할 총객이 엄섰다. 그런디 어떤 총객이 이 처이가 거시문 얼매나 거시겠노 내가 장게로 가서 풀이 직이서 살어보겠다 카고 그 처이한티로 장게들겠다 카고 장게로 들었다.

총각은 장게가는 날에 집이서 호박떡을 한 뭉팅이로 해각고 가서 첫날밤에 자는디 자다가 호박떡 한 뭉팅이로 각시 소꼿가랭이 밑이다가 살재기 넣어놓고 자다가 일어난치 하고 아이 쿠리 아이 쿠리 캄서 소리질렀다. 신부는 잠자다가 신랑이 아이 쿠리 아이 쿠리하고 소리지르는 소리로 듣고 잠을 깨 각고 일어나서이 보이 소꼿가랭이서 머이뚝 떨어젔다. 보이 똥댕이같은 거

169) 잉어.

이 떨어젔다. 그라이 새각시는 그만 남사시렀다. 첫날밤에 똥을 싸 놨이니 말이다. 그런데 신랑은 첫날밤으 똥은 복이라더라카고 신랑이 줏어 묵었다. 그래노이 신부는 더욱 남사시럽어서 고만 기가 꽉 죽어서 암소리도 몬하고 있었다.

그 후로는 이 처이는 시집와서 삼서 이 억신 성미도 내지 몬하고 살었다. 어찌다가 거신 일이 있어 화로 낼라가문 신랑이 아이 첫날밤에 …… 카는 말만 하문 고만 기가 죽어 암소리도 몬하고 가만이 있었다. 이러구로 이렇케 억센 성미도 페지 못하고 멘 년을 살었다. 그러다가 한 분은 남팬이 말했다. "당신이 기가 거시다 카서 암도 장개갈 총객이 엄다캐서 나는 당신 기로 꺾어서 살민 좋은 마누래로 삼을 수 있다꼬 생각하고 장개가는 날 호박떡을 똥땡이초롬 만들어각고 카서 첫날밤에 당신 소꼿가랭이 안이다 넣어두고 아이 쿠리 아이 쿠리하고 떠들었더이 당신이 일어나서 똥을 싼 걸로 알고 남사시럽어서 기가 꽉 죽어서 그 뒤로는 억센 성미로 부리지 몬하고 이제꺼지 무사히 살었다"고. 이랬더이 이 말로 듣고 예펜너는 "그러먼 그렇지 내가 우째 첫날밤에 똥을 쌌갰노. 내가 그런줄도 모리고 기를 죽이고 산 것이 분하다. 아이 분해 아이 분해!" 이캄서 영감한티 달라들어 귀통어리로 쌔림서 쉬미도 다 뽑아놨다 칸다.

—1932年 8月 金海郡 大渚面 朴鍾順(14세, 女)

*임석재, 『한국구전설화 –경상남도 편 Ⅰ』, 평민사, 1993, 244~245쪽.

[강서구 설화 21]

머리가 하루밤[170] 사이에 하얘진 사람

예전에 한 사램이 있는디 너무나 너무나 살임이 가난해서 살 수가 엄는디 설한풍이[171] 불어다차는 저을이 되문 이거 우찌 살어갈고 싶거덩. 나이 많은 부모랑 에린 자슥들은 무어 묵고 지내노 카고 생각해보이 참 굶어죽고 얼어죽겠단 말이다. 그래 워대 나가서 돈이나 벌어오겠다 카고 집을 나갔다. 갈 디라고 갈 곳이 있는가 아이고 그저 발 노인 데로 가는기라. 산 넘고 고개 넘고 가는디 저쪽에 불빛이 비처서 그리 가이께네 집이 한 채 있었다.

"주인장 지십니껴?" 카고 주인을 챚이이께네 젊은 여자가 나와서 둘오라 캄서러 친절이 맞어주었다. 저녁을 주어서 묵고 나이 여자는 오늘 우리 씨아바씨가 시상을 베리서 초상이 나서 남펜은 장으로 관을 사고 초상 치를 물것을 사로 갔는디 아직꺼지 오지않는다. 여기서 우리 씨아바씨 신체[172]로 지키보겠소 우리냄펜 마중을 가겟소 카고 물었다. 이 사램이 주인 여자으 말로 듣고 가마이 생각하이 이 산중에 혼자 죽은 신체로 지키는 것도 에립고 알지도 몬하는 산질

170) 원문에는 '하루밤'으로 되어 있으나 '하룻밤'으로 바로 잡아 표기함(편자 주).
171) 雪寒風이.
172) 屍體.

을 걸어서 이 여자으 냄펜을 맞이하는 것도 에리벗다. 그리서 이 사람은 여자보고 신체는 바에다 그대로 나 두고 둘이서 항께 냄펜 맞이로 가자 캤다. 그랬더이 여자도 그렇가자 하고 횃불로 써 들고 앞이 서서 갔다. 이 사람은 뒤에서 따라가는디 워데찜 강게네 큰 소낭기 밑이 큰 호랭이가 이 여자으 냄펜을 잡어묵고 두[173]만 냉기놓고 있었다. 그 옆에는 이 여자냄펜이 사가온 관[174]과 자리와 여러 가자 장사지낼 여러 가지 물건이 있었다. 여자는 홰불로 들고 호랭이 앞이 가서 화불로 호랭이로 확 확 지침어 날로 잡어묵으라 날로 잡어묵으라 카미 대드이 호랭이는 뒤로 물구중물구중 하더이마 확 후치는기라.[175] 여자는 "보소 보소 호랭이로 후치랑기요[176] 두하고 곽하고 자리하고 여러 가지로 짊어지고 갈랑기요?" 캤다. 이거 참 뜨겁단[177] 말이지요. "두하고 곽하고 짊어지고 가이소. 내 호랭이로 후치겠구마."

이러구로 집이 다 와서 바에 드가서 불을 씨고 보이 신체는 바 가운데에 서가 있었다. 이 사람은 서있는 신체으 다리를 들어 눕힐라카는디 신체는 눕히지 안했다. 온갓 심을 다해서 저우 눕힜더이 신체는 바로 다부 일어나 섰다. 또 심을 다해서 눕힜는디 또 일어섰다. 및 분이고 눕히는디 또 일어섰다. 여자는 구들 밑이 고냥이가 들어가 있어서 그러는기라캄서 나가서 청솔가지로 때보라 캤다. 이 사람은 여자으 말로 듣고 캉캄한 밤중에 밲에 나가서 청솔가지로 끈어다가 구들에 땠더이 고냥이가 튀어 나왔다. 그랬더이 신체는 바바닥에 넘어젔다.

날이 턱 새이께네 여자는 영장을 해돌라 캤다. 이 사람은 씨아바씨 시체도 묻어주고 여자냄펜 두도 묻어주었다. 영장을 다하고 이 사람은 갈란다꼬 하이께네 여자는 "이 짚은 산중에 서방도 엄시 나는 혼자 살 수 엄소. 그라이 당신은 여기 남어서 나캉 항께 삽시더" 캤다. 이 사람은 "나는 젊은 처자가 있고 어린 자슥도 있고 나 만은 부모도 있고 한디 당신하고 여기서 살문 처자랑 부모랑 우찌 대겠소?" 이라이 여자는 "그래요. 나도 넘으 지악하기[178] 싫소. 그럼 어서 가시요." 캄서로 가라 캤다. 이 사람은 거기서 떠나서 한참 가다가 뒤돌아다 보이께네 여자는 지붕우에 올라가서 집이다가 불을 지르고 타죽고 있었다.

이 사람은 하리밤 새에 어찌 무서분 일을 당했던지 고만 머리가 마카 쌔하게 되여젔다.

—1931年 12月 金海郡 大渚面 朴敬贊(30세, 男)

*임석재, 『한국구전설화 –경상남도 편 I 』, 평민사, 1993, 252~253쪽.

173) 頭, 머리.
174) 棹, 널.
175) 물러났다.
176) 쫓을랍니까.
177) 난감한.
178) 남에게 몹쓸 짓 하기.

[강서구 설화 22]

공당問答

옛날에 孟思誠이라는 카는 정싱이 있었다. 이 정싱은 정싱이라는 높은 베실자라에 있이문서도 비단옷을 입지않고 무멩옷을 입고 퍽 소박하게 살었다. 그러고 어디로 댕걸 적에는 하인도 딜고 댕기지 않고 혼자 댕김서 소를 타고 댕겠다. 父母한티 소성[179]이 지극해서 溫陽에 지시는[180] 어머님헌티 한 달에 한번식 네리가서 문안디리고 했다.

한 분은 溫陽에 지시는 늙은 어머니에게 문안디리고 서울로 가는 도중에 갑자기 소내기를 만나서 어떤 주막에 들어가서 비로 거실고 있었다. 그때 어떤 젊은 선부가 하인을 여럿 딨고 호기있게 채리각고 역시 비를 피허니라고 이 주막에 들어왔다. 딴 바이 엄서던지 孟 정신이 들어있는 바에서 같이 들기됐다. 孟思誠 정신은 그 선부보고 어디서 오냐꼬 물었다. 선부는 孟 정싱을 한참 살피보다가 정상도서 온당캤다. 선부 눈에는 孟 정싱이 무멩옷을 입고 초라해서 그 근방에 사는 촌 늙으이로 보였던 모양이다. 선부는 시골 늙으이한티 존대말을 씰 수가 엄고 그렇다고 下待말을 씰 수도 엄어서 이렇기 존대말도 아이고 下待말도 아인 말로 대담했다. 그 담에 孟 정싱은 어디 가는공? 카고 물었다. 선부는 서울 간당 캤다. 孟 정싱은 서울에 무신 일로 가는공 캤다. 선부는 베실하로 간당 캤다. 무신 베실하로 가는공? 카이 녹사 베실하로 간당 캤다. 그럼 내가 주선하겠공 캤다. 선부는 不當不當캤다.

선부는 서울에 가서 베실할 자리에 가서 보이께네 시관 자리에 시골 주막에서 만난 촌 늙으이가 앉어 있어서 저분을 그런 높은 어른인 줄도 모르고 존대말을 씨지않고 실수했다고 그만 기가 죽어 고개도 들지 몬하고 있었다. 孟 정싱은 그 젊은 시골 선부보고 "요새 어찌 지내는공?" 캤다. 이 선부는 "아이고 죽어지당" 캤다꼬 했다.

—1931年 12月 金海郡 大渚面 朴敬贊(30세, 男)

*임석재, 『한국구전설화 –경상남도 편 Ⅰ』, 평민사, 1993, 322~323쪽.

[강서구 설화 23]

젊어지는 샘물

어느 골에 영감 할마이가 살었는디 하리는 영갬이[181] 산에 나무하로 가서 나모로 하는디 새가 한 바리[182] 날라와서 영감 앞이서 짹짹짹 캤다. 영감은 이 새로 잡겠다고 쫓아가이 이 새는

179) 孝誠.
180) 계시는.
181) 영감이.

포르르 날어서 저만침 갔다. 영감은 새로 잡겠다꼬 또 가서 잡을라 카이 새는 또 포르르 날어서 저만침 가서 앉었다. 영감은 또 쫓아가서 잡을라카이 새는 날러서 저만침 가서 앉았다. 이리 새로 잡을라카문 날라서 가고 가고 해서 등넘어까지 갔다. 가다보이 그기 옹달샘이가 있었다. 숨도 차고 목이 말라서 그 샘이 물로 마섰다. 그랬더이 허리가 피지고 심이 생겠다. 또 물을 마섰더이 아조 심이 나고 젊어젔다. 총각같이 대어각고 집이 갔더이 할무이가 보고 이거 어떤 총객이냐 캤다. 영감은 "나야 나여. 내가 저쪽 등 넘에 옹달새미 물로 마섰더이 이렇기 젊어젔다" 캤다. 할멈은 이 말로 듣고 지도 젊어지고 짚어서 워데 그 새미물이 있냐카고 영감보고 물어서 그 옹달새미에 쫓아가서 그 새미 물로 마시고 젊은 새각시가 댔다.

이우지 사는 늙은 영감 할멈 내우가 있는디 이런 말로 듣고 저그덜도 젊어지겠다고 그 옹달쌔미에 가서 그 물로 자꼬 자꼬 마서서 너무 마이 마서서 이 늙은 영감 할멈은 얼라가 댔다 칸다.

—1932年 12月 金海郡 大渚面 朴鍾順(14세, 女)

*임석재, 『한국구전설화 –경상남도 편 I 』, 평민사, 1993, 325~326쪽.

[강서구 설화 24]

며느리들의 不平

옛날 어떤 곳에 어느날 아직에 어떤 집 담부[183] 옆에 동네 미니리들이 밋이[184] 모여각고 서로 말하고 있었는디 가마이 들어보이께네 참 들을만 했다.

한 미니리 하는 말로 들어보이 "나 이 참 어럽잖은 일로 후닥기[185] 나왔다." "니 머 한다꼬 이래 후닥기 나왔노?" "씨아부지가 불 떠가 오라 캐서 쳇 부쿠다 불 떠다 주었디이마는 고만 후닥기더라. 그리 나왔다." "니는 후닥기는 일로 해서 후작긴기라. 나는야 어접잖은 일로 후닥기 나왔다." "무신 일로 후닥긴노?" "칼 자리[186]가 빠저싸서 씨아부지 자는 디 가서 그 이마빽이다 대고 칼자리로 두드리 박았디이 고만 후닥기 나왔다." "나는야 머리에도 이가 많고 옷에도 이가 만어서 전딜 수가 있이야지. 그래서 옷으 이로 엄샐라고 옷을 밥솓에다 집어 넣어 삶어직일라꼬 했디이 고만 후닥기 나왔다.

—1932年 8月 金海郡 大渚面 朴鍾順(14세, 女)

*임석재, 『한국구전설화 –경상남도 편 I 』, 평민사, 1993, 331쪽.

182) 마리.
183) 담.
184) 몇이.
185) 쫓겨나왔다.
186) 자루.

[강서구 설화 25]

며느리의 방귀

이전에 한 사램이 미니리로 턱 보이이 미니라가 시집온 때는 복실복실 하이 상[187]이 조왔는디 시집을 사디마는 노란 땡땡이가[188] 되고 바늘을 찔러도 피도 않나오게 댔다. 시아바씨가 이거로 보고 "야야 미니라 니가 우째서 상이 그리 노랗고 땡떵이가 되고 철색이[189] 지노?" "예 아바지예 지가 친정에 있일 때는 방구로 맘되로 뀌었는디 시집와서 방구로 몬 뀌어 그렀입니더" 이렇게 말해서 시아버지는 "야야 염려 말고 방구로 뀌라" 캤다. "그래요 방구로 뀔기요." "오냐 맘놓고 뀌라" "끼깄입이더. 대름[190] 저거 저 모통이 지둥[191] 잡으이소. 아바임씨은 앞 지동 잡으이소. 오마이는 저기 뒷 지둥 잡으이소. 세이[192]는 저 지둥 잡으이소."이카고 방구로 한방 펑하고 뀌었다. 이 방구가 얼매나 써던지 집이 꺼떡하게 넘어저뿌렀다. 시아비지는 고만 보골이[193] 나가지고 "에라이 이 빌어묵을 이년 데리다 주야 되겠다." 이잔[194] 미니리로 친정에 보내겠다고 데리고 나갔다. 가다가 어떤 등을 넘게 댔는디 그 고개 만당[195]에 배낭구가 있는디 배가 짜다리[196] 열려 있었다. 시아버지가 이거로 보고 저 배 하나 따묵으시문 좋겠구나 캤다. 미니리가 이 말로 듣고 하 따묵을카문 따묵지요 캤다. "뭐 딸라 카이 딸 무엇이 있나." "저 방구 한 차레 터지문 다 떨어질끼요." "그러문 하나 터자 봐라."

미니리가 배낭구 밑이 가서 풍하고 뀌어꺼네 배가 마이 떨어젔다. 그리서 시아비지는 배로 실컨 묵었다. 시아바지가 가만 생각해보이 미니리 방구가 몬 씰 방구가 아이고 씨할 방구가 대서 미니리로 다부 집이고 딧고 왔다 칸다.

—1932年 8月 金海郡 大渚面 朴鍾順(14세, 女)

*임석재, 『한국구전설화 –경상남도 편 Ⅰ』, 평민사, 1993, 332~333쪽

187) 얼굴이.
188) 누렇고 볼품없이 되었다는 뜻.
189) 鐵色, 핏기가 없이 거무스름하게 되었다는 뜻.
190) 도련님, 나이 어린 시동생.
191) 기둥.
192) 시누이.
193) 화가.
194) 이제는.
195) 고갯마루.
196) 퍽 많이.

[강서구 설화 26]

내 울음이 참 울음이요

옛날에 한 사램이[197] 딸을 등[198] 넘에로 치았다.[199] 이 사람은 어덜이 엄서서 양자로 두고 이 양자로 장개보내서 저 먼 데에 살게 했다. 하리는 심심도 하고 딸도 보고 짚어서[200] 바람도 쐴 겸 딸에 집이로 갔다.

딸은 베로 짜니라꼬 베틀에 올리앉어 있었다. 친정아부지가 오는 것을 보고 베틀에 올라앉안 채 "아이고 아부지씨 오신기요" 캄서 인사하더이 "아부지 오시는디 점심을 해 디리야겠는디 이거 어쩌노" 이람서 베만 짜고 있었다. 이 사람은 딸이 하는 거로 보고 에라 요너러거 꽤씸하다카고 나와서 저거 집이로 오넌디 오다가 양아덜네 집에 들녔다. 양미니리는 마당에서 베로 늘어놓고 베로 메고 있었다. 양시아부지가 들어오이 "시아부님 오시는 기요. 어서 방으로 드가입시다"카고 방으로 안내하고 절을 나붓이 하고 나가서 전두폳밥[201]을 씨암탁을 잡어서[202] 국을 끓여서 잘 대접했다.

이 사람은 딸한티는 푸대접을 받고 양미니리한티는 잘 대접을 받었는디 미칠 지낸 후에 딸한티 죽었다꼬 부고를 보냈다. 딸은 부고로 받고 울문서 쫓아왔다. 그리고 아부지 시체 앞에 앉어서 "아이구 아이구 울아부지 알에 우리 집에 오섰일 제 베 짜다가 그만 두고 적두폳밥 잤고 씨암탁 잡어서 국 깛이서 들이더이 맛있게 자심서러 저 건너 개똥밭 서 마지기하고 동네 앞 논 닷 마지기하고 준다카더이 울 아바이 돌아가시다이 아이고 아이고 우리 아배야" 캄서 실피 울었다. 그라이 이 아버지는 뿔끈 일어나서 "예라이끼 이년 니가 원재 적두폳밥 해주고 씨암탁 국 낄이 줬노. 내가 죽었다 카이 정 죽었나!" 이카이 울고 있던 딸은 "아이구 아부지요. 내 울음이 청 울음인기요"캄서 달어낫다 칸다.

—1931年 12月 金海郡 大渚面 朴敬贊(30세, 男)

*임석재, 『한국구전설화 –경상남도 편 I 』, 평민사, 1993, 337~338쪽.

197) 사람이.
198) 산 고개.
199) 시집보냈다.
200) 싶어서.
201) 赤豆팥밥, 빨간 팥밥은 밥을 맛있게 하는 밥이다.
202) 귀한 손님을 대접하는 모양.

[강서구 설화 27]

그것이 둘 있는 사람

옛날에 어떤 사램이 있는디 이 사람은 몬살어서 넘으 집을 사는디 수 년을 살어도 나이 설은[203]이 넘어도 장개도 몬 가고 늙은 총각으로 지냈다. 어느 가실에 밭이서 콩을 걷어가지고 한 짐 잔득 지고 집이로 가는디 가는 질에 시내가 있어서 콩집을 부려놓고 시내에 드가서 손도 싰고 세수도 하고 있는디 방망이만 한 외 가 떠네리왔다. 줏어보이께네 그 외가 그 그것과 같어서 내 것과 같은가 카고 지 것에다가 대보이께네 그만 거기 가서 딱 붙었다. 아 그리서 그거이 두 깨가 된 기라. 그거이 두 낱이 되이께네 댕기기도 불펜하고 넘한티 남사러버서[204] 뵈일 수도 엄고 말할 수도 참 안되었단 말이라.

등 넘에 부자집이 있는기라. 천석하는 부자라. 그 집으 딸이 있는디 이 딸이 그거이 둘이라. 그리서 이 처이가 시집도 몬 가고 늙는기라. 이 부자집이서 소문을 들으이께네 등 넘어 넘으 집 사는 노총각이 그거이 두 낱이라 캐서 중매로 노아서 그 총각과 저그 딸과 결혼을 시킨기라. 서른이 넘도록 장개도 몬 가던 총각이 부자집 처이와 결혼해노이 참 잘살기 되었거덩.

이 머심에 친구에 장개도 몬 간 노총각이 있었다. 이 친구가 이 머심보고 니는 우째서 몬살어 고생하디이마는 부재집 딸한티 장개들어 잘살기 되었냐꼬 물었다. "그런기 아이고 가실에 콩밭이서 콩을 한짐 비어각고 집이로 가다가 시내물이 있어서 시내물에 드가서 손도 싰고 시수도 하는디 외가 떠내리와서 줏어보이 이거이 내 그것과 같어서 내 것과 대보이라고 것다 대 봤더이 그것이 거기가 딱 붙어서 그거이 두 낱이 댔다. 등 넘에 천석군하는 집에 딸이 있는디 그 딸이 그거이 둘이라 늙도록 시집 못갔는디 내가 그거이 두 낱이란 소문을 듣고 나랑 겔혼해서 그리서 잘살기 댔다."

이 말로 들은 친구 머심은 저도 그리 보겠다 카고 콩밭에 가서 콩을 비어서 한짐 지고 가다가 시내가 있어서 시내에 드가서 손도 싰고 시수도 하고 있는디 외가 떠내리 왔다. 집어 보이 외가 물에 팅팅 불어서 흐느적흐느적 했다. 이거 상했나 싶어서 코에다 대고 내미를 맡아봤다. 맡아보이께네 외는 코에 가 딱 붙었다. 코에 가 그거만한 외가 붙어서 남사러버서 다른 사람 있는 디 나댕기지도 몬하고 집이만 들어빽께 있다가 고만 굶어주었다 칸다.

—1931年 12月 金海郡 大渚面 朴敬贊(30세, 男)

*임석재, 『한국구전설화 –경상남도 편 Ⅰ』, 평민사, 1993, 351~352쪽.

203) 三十, 서른.
204) 부끄러워서.

[강서구 설화 28]

나 병 다 낫었다

어떤 사램이 아들 삼성지로 두었는디 모두다 소자[205]라. 아덜이 장성해서 싯 다 여웠는디 얻어온 미느리도 다 잘 얻어서 소부[206]라. 이래서 집안이 화목하게 잘사는디 어쩌다가 시어무이가 빙이 들었다. 아덜 심 성지는 약을 이 약 저 약 지어다가 대려 믹이는디ㅡ아무 소용엄서 빙이 낫지 안했다. 영갬이 용한 이원한티 가서 물어보이 그 빙에는 남자으 불알을 대리믹이면 약이 된다 캤다.

영갬이 집이 돌아와서 그 말로 하고 불알을 워데 가서 구하노 캄서 걱정했다. 큰아덜이 이 말을 듣고 지 거로 비여서 대리믹입시다 캤다. 그라이 큰미니리가 옆이서 듣고 있다가 "아이고 아부지씨 저이는 딸은 둘이나 두었입니다마는 아덜을 몬 두었입니다. 아덜을 노아서 이 집 대로 이여야 할텐디 그라문 대가 끊김이다. 그래가 되겠입니껴?" "니 말이 옳다. 니는 안되겠다. 니가 그래야 씨겠노" 그라이 둘째 아덜이 말했다. "아부지 세이가 그러문 내 거로 짤라서 어무이 대리묵게 하입시더"캤다. 그라이 둘째 미니리가 "저그는 제우 딸 하나 두고 아덜을 몬 논는디 이제부터 아덜을 노아야 하지 않겠입니껴." "니 말도 옳다. 가운데 아덜도 안되겠다" 이라이 끝이 아덜이 "아부지요. 세이덜 거이 아이되는 기고하이 지 거로 잘라서 대리믹입시더." 끝이 미니리가 이 말로 듣고 "하필 젊은 사람 것만 되겠입니껴 저그는 결혼한 지 얼매 안되였입니더. 아도 몬 놓고 있입니더. 아부지는 아도 마이 노았이이 아부임 거로 잘라서 믹이는 것이 어떴입니껴?" "오냐 니 말이 옳다. 그럼 내 거로 잘라서 믹이야 하겠다. 칼 가저오라" 이라이 할망이가 이 말을 듣고 "아이고 영감 나 빙 디 났다. 비지 마이소" 캄서 빙석에서 일어났다 칸다.

ㅡ1931年 12月 金海郡 大渚面 朴敬贊(30세, 男)

*임석재, 『한국구전설화 –경상남도 편 I 』, 평민사, 1993, 359~360쪽.

[강서구 설화 29]

청어 사기

산중으 한 마실에 청애장시[207]가 오가지고[208] 청애 사소 청애 사소 이래 사이께네 한 여자가 청애는 묵고집고 돈은 엄고 이라이 떡 나서서 청애장시한티로 가서 청애 얼매요 캤다. 청애장

205) 孝子.
206) 孝婦.
207) 청어장수.
208) 와서.

시 이넘이 심상시렁이하이라꼬. "허이 앞궁에[209] 주문 우까지[210] 주고 뒤궁기 주문 이까지[211] 준다" 이카거던.

가마이 생각하이 앞궁기 주고 청애 한 두름 얻어묵으야 짚어서 앞궁기 주고 그래 마 청애 한 두름 얻었다. 집이 와서 청애로 찌지놓고 있이이 나매이[212] 나무로 해 가이고 왔다. 예펜네가 찌지논 청애로 주이께 묵어보이 맛이 아조 히한[213]한 기라. "보소 집에는 돈도 한닢도 엄는디 웬 청애로 찌지놨소?" "하이고 마 청애는 묵고짚고 하는디 청애장시가 앞궁기 주문 우끼찌 주고 뒷궁기 주문 밑기지 준다 개서 앞궁기 주고 웃기지 않받었능기요." "하 잘했다 잘했다 잘했다이!"

이넘이 가미이 생각하이 좋은 수가 생각났다. 그리고 예펜네 차고 있는 보신[214]을 디다 보고서리 "보신님 보신님 四月初八日날 아부지 집 장날인디[215] 대우[216]는 보신님한티 밑겠십니더 예."

—1931年 12月 金海郡 大渚面 朴敬贊(30세, 男)

*임석재, 『한국구전설화 –경상남도 편Ⅰ』, 평민사, 1993, 360~361쪽.

[강서구 설화 30]

그것 없으면 소용있나

옛적에 한 사램이 대들보 헐만한 材木을 빌라고 소로 끌고 산으로 갔다. 대들보 헐만한 나무를 비어내문 이것을 소에다 실을라문 심도 들고 애도 묵을 것 같어서 나무가 씨러지문 바로 소 등에 실어지게 할라꼬 나무 밑이다가 소를 매놓고 나무로 찍었다. 나무가 씨러짐서 소 등에 언쳤는디 소는 고만 나무에 눌려서 죽어삐맀다. 이 사람은 소가 죽었이이 나무로 실고 올 수가 엄서서 도치[217]만 메고 집이로 왔다. 오다 보이 연못에 오리가 있어서 오리나 잡어각고 갈라꼬 오리한티 도치로 내던젔다. 그랬더이 오리는 맞지앙코 날라가고 도치는 연못 물 속으로 가라앉었다. 이 사람은 도치로 건지겠다고 저구리 중우를 다 벗고 연못가에 놓고 연못에 들어가서 도치로 챚었는디 도치로 챚일 수가 엄섰다. 연못에서 나와서 옷을 입을라 카는디 어떤 놈이 가저

209) 구멍, 여기서는 여자의 생식기를 말함.
210) 두름을 말함.
211) 낱개를 말함.
212) 男便.
213) 아주 좋더라.
214) 여자의 생식기.
215) 제삿날인데.
216) 큰 물고기.
217) 도끼.

갔는지 옷이 엄섰다. 삘기벗고[218] 갈 수가 엄서 그 옆으 잡목 밑이 숨어있다가 해가 저서 어둑어둑하게 대서 연못에 있는 잡목가지로 꺾어서 몸을 개리고[219] 집이로 왔다. 와 보이 대문은 쟁게 있어서[220] 들어갈 수가 엄서서 담장을 뛰어넘어서 들어가는디 그 밑에 있는 장독에 네레저서 장독을 깨 삐리고 장이 흘러나가서 온 천지가 장 바대가 되었다. 방에 드가는디 문 잎에 얼라가 누어 자는디 그거로 봃어서[221] 얼라는 양티[222]가 터저서 죽어삐렸다. 배가 고파서 정지[223]에 드가서 머 묵을 거 엄나 카고 살강을 더듬더듬 더듬는디 칼이 넬짐서 그거로 딱 끊어뿌렸다. 그리서 바이[224] 드가서 이불로 덮어씨고 꿍꿍거리고 있었다.

쬐매 있이이 안두이가[225] 드와서 우째 그리 누어서 꿍꿍거리냐꼬 물었다 이 사람은 야 큰일 났다 캤다. "무엇이 큰일 났노?" "나 材木비로 갔다가 소로 직이뿌릿다." "소 그가짓 거 하나 사문 안되겠노." "연못에 오리가 있어서 그거로 잡을라꼬 도치로 더젔더이 오리는 안 잽히고 도치만 물 속에 잊어 뿌렸다." "도치는 그가짓 거 또 하나 사문 그만 아이가." "장독을 쌔리뿌서[226] 장이 다 흘러뿌따.[227]" "장은 또 당그문[228] 안되것나." "바이 드가다가 얼라로 봃아서 양티로 터저놓고 직이뿌렸다." "얼라로 또 하나 놓문 되지 안능가." "또 있다." "또 있다이 또 머꼬?" "배가 고파서 살강에 머이 엄나카고 더듬다가 칼이 널쩌서 내 그거로 끊어뿌따." "그거로 끊어뿌따? 그거 임시문니 무신 소용있나 니 나가라!"

안들은 男子로 후차뿌렸다[229] 칸다.

—1931年 8月 金海郡 大渚面 朴敬贊(30세, 男)

*임석재, 『한국구전설화 –경상남도 편 I 』, 평민사, 1993, 362~363쪽.

218) 발가벗고.
219) 몸을 가리고(원문에는 '가리우고'로 되어 있으나 바로 잡아 표기함 -편자 주)..
220) 잠겨 있어서.
221) 밟아서.
222) 창자.
223) 부엌.
224) 방에.
225) 마누라가.
226) 깨트려버려서.
227) 흘러버렸다.
228) 담으면.
229) 내쫓아버렸다.

3) 중부산 문화권 설화

가. 동구 설화

[동구 설화 1]

通度寺의 금개구리

梁山으 通度寺는 新羅으 慈藏法師가 지은 절이라 캄이더. 慈藏法師는 훌융한 道士였임이더. 慈藏法師가 通度寺이서 修身함서 떠다 묵는 샘에는 개구리가 있는디 이 샘물을 꾸정물로 만들고 만들고 해서 慈藏法師는 이 개구리를 잡어서 그 옆에 있는 방구에 손구락으로 궁기를 뚫고 그 궁기 안에 집어 넣어 가두었임이더. 개구리는 궁기 안에 기처 있었는디 밪매 우에 보이 그 개구리는 금빛나는 금개구리가 댔임이다. 그리서 이 개구리를 금개구리라고 했임이더. 이 금개구리는 봄에는 나부[230]가 되고 여름에는 금개구리가 되고 가을에는 벌이 되고 했임이더.

어느 여름날 목수가 이 절에서 일하다가 보이 금개구리가 있었어 이거를 잡어서 지 점심 묵던 도시락 밥그럭에 여서 짐이 와서 열어보이 틀립없이 너서 가지고 온 개구리가 업었임이더. 목수는 안날 通度寺에 가보이께네 금개구리는 방구 구멍 안에 들어가 있었더랍니다.

—1962年 7月 25日 釜山市 水晶洞 金泰豪

*임석재, 『한국구전설화 –경상남도 편 Ⅰ』, 평민사, 1993, 46쪽.

[동구 설화 2]

智略 있는 少年

옛날 新羅時代에 金楨이란 사람캉 李楨이란 사람캉 두 양반이 살었는디 이 두 사람은 친성지초롬 친하기 지냈다. 李楨은 아덜을 닛이나 두었는디 金楨은 나이 사십이 넘어도 아덜이 하나도 엄섰다. 그리서 金楨은 아덜이 엄어서 시상 사는 재미도 엄었어 장 아덜 두기가 소원이였다. 그러던중 金楨은 종은 생각이 떠올라서 지 마누래보고 우리 친하기 지내는 李楨이보고 아덜 하니 놓기 해돌라꼬 해보자 캤다. 마누래도 그리 보자 캐서 하리는 李楨을 저그 집이로 불러서 종은 엄석을 잘 믹이고 술도 마이 믹이고 골아 떨어지게 하고 그 마누래를 李楨이하고 동품하게 했다. 마누래는 열달 후에 아덜을 노았다. 이 아덜은 참 총밍해서 하나로 배우문 열을 아는 아이가 댔다. 그리서 열시살찜댕께 四書三經을 배우기 댔다.

그런디 李楨은 재산도 엄서지게 대고 아덜 사성지도 시상을 비리서 李楨은 자손이 엄게 댔

230) 나비, 蝶.

다. 그라이 李楨은 金楨을 챚어가서 자네 아덜이란 거는 실상은 내 아덜아이 그 아로 나한티 돌려주게 했다. 金楨은 이거로 워찌 하노 카고 걱정이 대서 밥도 몬 묵고 있었다. 아덜이 이거로 보고 워찌서 그리 걱정하십이껴 카고 물었다. 金楨는 니 알기 아이다 캄서 통 말하지 안했다. 그래도 아덜은 차고차고 및 번이나 물어싸서 金楨은 이러이러해서 그런다꼬 사정 이바구로 다 했다. 아덜은 아부지 말로 듣고 좋은 방도가 엄겠능가 카고 여러 가지로 생각했다. 그리다가 무신 좋은 생각이 났던지 하리는 엄석을 잘 작만해서 마실 사람을 불러서 잘 대접하자 캤다. 부모는 아덜이 시킨 대로 엄석을 채리서 마실 사람들을 불러서 질 믹있다. 그리고 아덜은 여리 사람 앞이 나서서 "여러 어런들이요. 지기 어러분 문지가 생깄입이더. 여러 어런끼서 이 어려분 문지로 풀어 주이소. 어러분 문지란기 이렀입이다. 어떤 부자가 모로 심그는디 논에 다 심고 나서 남은 모로 논두렁이나 내삐렀입이더. 그런디 가난하기 사는 사램이 그 내삐린 모로 줏어다가 지 논에다 심었입이다. 그런디 부자집 논에는 물이 쩌서 농사가 통 되지 안했입이더. 그런디 부자가 버린 모로 갖다가 심은 가난한 집에서 농사가 잘 대서 마는 곡식을 거드어 디렀임이더. 그러이께네 부자가 와서 니는 내 모로 농사지었이이 그 농사진 거는 내거이다. 그럼서 가난한 사람보고 그 나락을 돌라 캤임이더. 가난한 사람은 부자가 말한 대로 그 나락을 부자한티 주어야 함이께 안 주어도 되는기요?" 캤다.

이 말로 듣고 있던 마실 사람덜은 마카 그 나락은 줄 필요가 엄다 캤다. 그라이 아덜은 지 사정 이바구를 하고 李楨이가 하는 짓이 옳으냐꼬 물었다. 사람덜은 李楨이 하는 짓은 안될 짓이다 캤다. 이래서 이 아덜은 李楨이한티 가지않고 金楨으 아덜 노릇을 했다 칸다.

—1927年 2月 釜山府 水晶町 朴末奉

*임석재, 『한국구전설화 –경상남도 편 I 』, 평민사, 1993, 218~219쪽.

[동구 설화 3]

名藥

이전에 어떤 가난한 사램이 있넌디 이 사람으 아덜이 빙이 났넌디 이 빙을 고칠라꼬 일만 가지 약을 썼넌디 오만 약을 마이 썼지만 났지앙코 꼬챙이같이 빼빼 말라각고 큰 엄지손가락 같이 댔다.

그때 華佗라카는 유밍한 이운이 있었넌디 이 이운이 여행하다가 이 집이 와서 자기 댔다. 華佗는 잠서 방천장을 보이깨네 쬐매한 봉지에 멋을 넣고 봉지에 華佗라 써서 달아논 것이 있었다. 봉지에 멋을 넣고 우째서 내 이름을 써 놨능꼬 카고 궁금해서 저게 머냐꼬 쥐인보고 물었다. 주인은 지 자식이 빙이 들어서 일만 가지 약을 써도 도모지 낫지앙코 꼬챙이같이 말러서 천하멩이 華佗나 만나문 나실가 하고 華佗로 만나도 우리같이 가난한 사람은 보일 수도 업서서 만 가지 약초로 너두고 華佗라 써서 놓았다가 대리믹이먼 나실가 싶어서 그리 해 논거라꼬 말했다.

華佗는 이 말로 듣고 그와같이 자기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그 사램이 가난해서 이운을 불러서 고치지 몬한 것이 불상해서 내가 華佗라고 말했다. 그러이깨 이 집 사람은 뜻밖이 멩이운 華佗가 저그 집이 와서 반가바서 우리 아덜 빙을 꼭 낫아돌라고 간절이 빌었다.

華佗는 아덜 빙을 낫아주갰다 카고 빙자으 빙을 보고 한달만에 낫아보갰다 캤다. 이 말로 들은 메니리는 꼭 낫아주이소 만일 몬 낫아주민 내 칼에 죽을 줄 아이소 캤다.

華佗는 빙자에 방에 들어가서 빙을 고친다고 하넌디 빙자으 마누래는 그 방문 앞에 지키앉아서 잠도 안자고 있었다. 華佗는 여러 가지 약을 써서 빙을 고치는디 도무지 낫지않아 무신 빙인지 알 수가 업섰다. 여러 가지 방법을 써 봤는 디도 자기 이술로는 고치지 몬한 것같어서 도망가기라도 해야갰다고 생각했다. 그런디 방문 앞이는 메누리가 지키고 앉어서 도망가지도 몬하고 있었다.

하리밤은 그 여자가 잠들고 있었다. 華佗는 이 짬에 도망가자 카고 벡을 뚫고 달아났다. 여자는 잠을 깨각고 華佗가 도망간 것을 알고 칼로 들고 뒤쫓아갔다. 그리서 거짐 다 따라잡게 되니개 華佗는 급해서 그 빙에는 사람 괴기로 다리믹일 수밖이 없다 카미 기양 달아났다.

이 여자는 그 말로 듣고 집이 돌아와서 지 허벅다리 살로 베서 다리먹있다. 그랬더니 빙은 다 나샀다.

그뒤로 및 해가 지나서 華佗는 그 빙자가 우째 됐나 카고 그 집이 찾아갔다. 그 집 사람들은 반갑기 맞이함서 당신 덕분에 몬나실 빙이 다 나샀다 카미 여자 허벅다리 살 베낸 상처는 무신 약이 있소 캤다. 華佗는 쇠괴기로 부치먼 났는다 캤다. 여자는 곧 쇠괴기를 부첬더니 다 나샀다.

華佗는 용한 이운이지만 사람괴기로 낫우는 것까지는 배우지 못했다. 이 사람으 빙은 사람괴기로 낫우는 빙이라 여러 가지 약을 써도 안나샀다. 華佗는 지 이술로는 도저히 나술 수 없잉개 도망쳤는디 여자가 죽이겠다고 쫓아와서 급해서 사람괴기밖에 업다꼬 헛말로 했다. 그런디 그 헛말이 멩약이 댔다 칸다.

—1927年 2月 釜山府 凡一町 李仁好

*임석재, 『한국구전설화 –경상남도 편 Ⅰ』, 평민사, 1993, 249~250쪽.

[동구 설화 4]

三娶姑從

肅宗大王 때 시골 어떤 서재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두 학생이 있었다. 이 두 학생은 십 년을 기한으로 공부를 했넌디 십 년이 마저 가는날 밤에 두 학생은 이제 글도 다 읽었고 이제 헤어지문 언제 또 만날지 모리이 우리 십 년동안 같이 공부하고 끝나는 날에 서로 정토[231]나 해보자 카고 둘이다 그러기로 했다. 그리서 한 학생이 먼저 말했다.

"내가 취처[232]를 세 번 한 이바구나 하겠다. 내가 첫번 장개로 갔더이 신부가 수심이 가덕해서 이상타 카고 잠자는치하고 살피봉깨로 신부는 나로 자조 돌아보고 돌아보고 하디이마는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지 않겠나. 그래 이상타카고 신부 몰래 뒤로 살살 따러갔더이 신부는 한 일리쬠 떨어진 서재로 가더이 거기서 공부하는 총각을 불러내각고 나는 몬살갰다 내사 그놈하고 몬살갰다. 이라이 그 총각은 오늘밤이 어떤 밤이라꼬 여기 왔노. 참 잘왔다 카미 둘이 손을 잡고 히히낙낙 캤다. 나는 이거로 보고 분이 나서 그 집으 식칼을 가주고가서 그 여자으 목을 비어버리고 그 질로 와삐리지 안했나.

그후 또 장개로 갔제. 첫날밤에 보이개 신부가 수심이 있어. 와 그라노 카미 자는 치하고 눈감고 누버 있잉개 신부가 일어나디이만 열쇠로 궤를 열라꼬 해서 이심이 나서 몸부림치는 치하고 발로 신부를 자빠처 놨제. 신부는 넘어저 각고 한참 가만히 있더이 또 궤로 열라꼬 하길레 벌떡 일어나서 와 궤로 열라꼬 하나꼬 물었더이 신부는 얼굴이 빨개각고 암말 몬해. 그리서 주인과 하인을 불러서 그 궤를 내다가 불태우라 캤제. 그라이 주인은 겁을 묵고 태우갰다고 궤로 내가는디 각중에 궤 속에서 사람 살리소 카는 소리가 나고 뛰는 소리가 나지 앙캤나. 그래 나는 집이로 돌아오고 말었제.

그 뒤 또 장개로 갔넌데 이번에는 신부가 첫날밤에 아로 노왔다. 나는 어이가 업었넌디 한참 생각하다가 그 아로 헌옷과 솜을 마이 가지고 싸서 품에 안고 나와서 장개오던 질으 다리 밑이다 놓고 돌아와서 신부방에 들어가서 헛배로 아프라꼬 소리소리 질렀더이 빙부빙모가 쫓아와서 들올라카는 것을 문을 몬 열게 하고 나는 복통에는 미역국을 두 그럭과 밥 두 그럭 묵어야 낫는다 빨리 갔다주이소 캤지. 그랬더이 미역국과 밥을 갖다주어서 신부한티 국과 밥을 믹이고 다음날 신행을 채리돌라각고 집이로 오다가 얼나로 놔 두었던 다리 있는 데 와서 조군꾼[233]보고 다리 아래서 얼나 우는 소리가 난다 가보라 캤더이 조군꾼이 얼나가 있더라 카미 아로 줏어왔어. 이 얼나로 가매에 태워서 집이로 와 각고 아 없는 우리 고모가 게시는디 이 고모한티 다리 밑이서 얻은 아라꼬 하미 들였더이 고모는 좋다 카미 잘 키왔넌데 그 아로 나으 고종사촌이 댔다."

두 학생이 이로코 이바구하고 있는디 그때 肅宗大王은 야행하다가 이 이바구로 첨부터 끝까지 다 듣고 행객모양을 하고 두 학생이 있는 방으로 들어갔다. 서로 인사로 나누고 글이야기 이런 말 저런 말 하다 초삼일에 가개보인단 말 아냐꼬 물었다. 그러고 둘이도 가개보라꼬 말했다. 두 학생은 그런 말은 금시초문이라 카미 가개보로 가갰다 캤다. 肅宗大王은 그럼 가개날 다시 만나게 되겠다 카고 갔다.

가개보이는 날 두 학생이 가개마당에 드가서 글제로 보잉개 「三娶姑從」이라꼬 내 있었다. 수만은 사람은 그 글제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 서로 바라보고 글도 짓지 못하는디 이 두 학생은 그 사연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일필휘지[234]하여 일천[235]에 바쳤다. 그랬더니 懸題板에 이 두 학

231) 마음에 있는 일을 숨김없이 말하자.
232) 아내를 맞이한 것.
233) 轎軍꾼, 가마를 메고가는 사람.

생의 성멩이 나붙었고 직시 입시하라고 했다. 두 학생이 입시하여 상감을 대하고 보니 저번날 밤에 행객차림으로 와서 이바구하던 사람이였다. 두 학생은 송구해서 어쩔 줄 모리는디 한 학생은 慶尙監司로 除授되고 또 한 학생은 全羅監司로 除授되었다 칸다.

—1927年 2月 釜山府 水晶町 林鍾湣

*임석재, 『한국구전설화 –경상남도 편 Ⅰ』, 평민사, 1993, 267~268쪽.

[동구 설화 5]

글을 잘 지어서 죄를 면하다

엣날 慶州으 陽洞 李氏집으 한 나이 어린 少年하나가 공부하느라고 열심히 글을 일고 있었다. 그대 정상감사[236]가 지방을 巡回하다가 陽洞에 왔다. 陽洞사람들은 감사가 오이께네 마카 일어서서 감사로 맞이하고 절로 했다. 그런디 이 李少年만은 꿈적도 앙고 앉어서 글만 일고 있었다. 감사가 이거로 보고 니는 감사가 왔는디도 관장한티 일어서서 맞이도 앙코 절도 엉코 꼼작앙코 있이이 방자하기 짝이 엄구나 카미 책망했다. 그라이 李少年는 글 일느라고 정신이 폴려서 관장이 오신 것도 몰라서 예로 드리지 몬했입이더 카고 사죄했다. 감사는 그 말로 듣고 더 책망하지 안했다.

감사는 그 집이서 하리 밤을 유하기 댔다. 그 집이서는 白雲, 紅蓮, 小舟라 카는 지상[237] 싯으로 데리다가 감사로 모시게 했다. 李少年은 질 잘생긴 紅蓮한티 맘이 끌려 밤 三更찜 대서 紅蓮한티로 가는디 잘 몬해서 小舟으 腹운 봂아서 小舟는 깜작 놀래서 큰소리로 질렀다. 그라이 모두 잠을 깨고 감사도 잠을 깨고 해서 감사는 李少年이 그런 거로 보고 나무랬다.

"니는 오늘 낮이도 관장한티 대하는 예절도 가추지도 몬한 者인디 그런디 이분에 또 이런 無禮로 저지르이 이는 용서 못하깠다. 니 죄는 죽어야 마땅하다!" "예에 지당한 말심이옵이다. 그런디 죽기 전에 글이나 짓고 죽기 해주이소" 이랬다. 그라이 감사는 내 韻字를 내줄티이이 그 韻字에 마추어서 글을 지어보라 카고 먼저 行자로 韻字로 내주었다. 李少年은 바로 狂蝶探花夜半行카고 지었다. 다음에 情字로 韻字를 내주이 白雲深處小無情이라꼬 지었다. 驚字로 내주이 欲採紅蓮南浦去에 洞庭風海小舟驚이라꼬 지었다. 감사는 李少年으 글재주가 뛰어난 거로 보고 죄로 더 묻지앙고 도로히 감탄하고 칭찬했다 칸다.

—1927年 2月 釜山府 水晶町 林鍾湣

*임석재, 『한국구전설화 –경상남도 편 Ⅰ』, 평민사, 1993, 278~279쪽.

---

234) 一筆揮之, 단숨에 쉬지 않고 빨리 쓴다는 뜻.
235) 一天, 제일 먼저.
236) 慶尙監司.
237) 妓生.

나. 동래구 설화

[동래구 설화 1]

崔致遠의 慧智

崔致遠은 新羅때 사람인디 지혜도 많고 仙術도 잘 아넌 사램이라 칸다.

한 분은 당나라서 朝鮮 사람 지혀로 알아볼 양으로 玉函속에다 멋얼 여서 보냄서 이 玉函 속에 멋이 들어 있는가 알아맞이 보라꼬 朝鮮王한티 보냈다.

王은 그 玉函을 받아보고 멋이 들어 있는가 알아볼라캐도 도무지 알 수가 업넌기라. 그러던 참에 어떤 사람 하나가 그것은 崔致遠이란 사람밖에는 알아낼 사램이 없일기라 그카이 王은 바로 崔致遠이로 불러다가 멋이 들어 있나 알아보라 캤다. 崔致遠은 그 玉函을 자세히 보디이마는 종우 한장 돌라캤다. 종우로 주니깨네

團團玉函裡-둥근 玉函 속에는

半白半黃金-절반은 하얗고 절반은 누런 것이다.

夜夜知時鳥-밤마다 때를 알리는 새가

含精未吐音-새가 될 기운을 내지 못하고 소리도 내지 못했다.

이렇게 썼다.

王은 그 글을 당나라로 보냈다. 唐나라서는 鷄卵을 넣어둔 것이라 첨 두 구만 써도 맞는 것인대 다음 두 구가 더 있는 것은 머꼬 하고 玉函을 열어 보이깨 게란은 어리어서 병아리가 되어각고 고만 죽어 있었다. 이것을 보고 당나라 사람은 朝鮮에도 지혜가 많은 사람이 있다고 감탄했다 칸다.

-1927年 2月 東萊公立普通學校 尹達鶴

*임석재, 『한국구전설화 -경상남도 편 I 』, 평민사, 1993, 56~57쪽.

[동래구 설화 2]

이야기

이 바금지가 저 바금지로 지고 베랑박[238]이 올라가다가 포리[239] 딧다리[240]에 채이서 널지 뿌리드란다.

238) 벽, 壁.
239) 파리.
240) 뒷다리.

－1933年 1月 東萊邑 張成基

*임석재, 『한국구전설화 –경상남도 편 Ⅰ』, 평민사, 1993, 83쪽.

[동래구 설화 3]

옛날 옛적

옛날엣적 간날갓적 나무접시 소년 쩍에 툭수바리 영감 쩍이 무자수 골농 쩍에 너불미가 사뚜 쩍이 아아 어른 쩍에 어른 아이쩍이 그럴 쩍이 한 사램이 있었거던.

－1933年 1月 東萊邑 張成基

*임석재, 『한국구전설화 –경상남도 편 Ⅰ』, 평민사, 1993, 83쪽.

[동래구 설화 4]

이박 저박

이박 저박 깐치박 덤풀 밑이 꼬드박 이웃 영감 두룸박

－1927年 2月 東萊公立普通學校 朴英日

*임석재, 『한국구전설화 –경상남도 편 Ⅰ』, 평민사, 1993, 84쪽.

[동래구 설화 5]

덕시 진 놈

덕시 진 넘 허리넝청 한 자리 담배 꼭지 진 넘 궁기 빠꼼 한 자리 똥 장군 진 넘 꾸리꾸리 한 자리 움섬 진 넘 비걱비걱 한 자리

－1933年 1月 東萊邑 張成基

*임석재, 『한국구전설화 –경상남도 편 Ⅰ』, 평민사, 1993, 86쪽.

[동래구 설화 6]

꼬부랑 할머니

꼬꾸랑 할매가 꼬꾸랑 짝지로 짚고 꼬꾸랑 꼬꾸랑 질로 가다가 꼬꾸랑 산에 올라가서 꼬꾸랑 똥을 누이 꼬꾸랑 강생이가 와서 꼬꾸랑 똥을 묵으이 꼬꼬랑 짝지로 꼬꾸랑 할매가 때리이 꼬꾸랑 깽깽 꼬꾸랑 깽깽

—1933年 1月 東萊邑 張成基

*임석재, 『한국구전설화 –경상남도 편 I 』, 평민사, 1993, 87쪽.

[동래구 설화 7]

호랑이 잡은 아이

이전에 한 아가 있었는데 공부로 잘 해서 서울로 가개 보러 갔다. 가다가 날이 저물어서 어떤 부자집에 하리밤을 자게 됐는데, 그날 밤에 도적이 마이 들어서 이 아는 마구간에 들어가서 숨어 있었다. 그러다가 거기에 몰 한 바리로 붙잡고 그걸 타고 떠날라카넌데 이 아가 탄 몰은 몰이 아이고 몰로 잡아 묵겠다고 들어온 호랭이었다.

호랭이는 각중에[241] 자기 등거리에 뭣이 올라 타니께, 깜짝 놀라서 마구 뛰었다.

얼마를 뛰어 가다가 날이 희부시[242] 샜다. 보이께네 타고 있넌 것은 몰이 아이고 호랭이가 돼서 이 아는 고만 혼이 나서 그 호랭이한테서 뛰어내렸다.

호랭이는 제 등에 탄 것이 뛰어 내리이이깨 이거 무서운 것이 올라탔다가 떨어졌다고 그것이 다부[243] 뛰어 올라타지 않게 허이라꼬 자꾸 자꾸 뛰어 달아갔다. 뛰어가는데 퇴깽이가 나와서 이거로 보고 "호랭이 아저씨 왜 그리 뛰어가는기요?" 카고 물었다. 호랭이는 "야! 그 무섭운 것이 나 등우에 올라탔다가 이제 막 떨어졌다. 그래서 다부 그 무섭운 것이 올라타지 몬하게 하이라꼬 이리 뛴다" 캤다. 퇴깽이는 "그게 무신 무서분 거요? 사람이요!"

그러이께네 호랭이는 "아이다. 무서분거다." "아인입더 사람입이더. 우리 함께 가서 그 사람 잡아 묵자!" 캤다. 호랭이는 "안된다" 카넌디 그 퇴깽이는 자꾸자꾸 "일 없다. 얼른 가서 잡아 묵자" 캤다. 그리민서 퇴깽이는 호랭이로 끌고 그 사람 있는 데로 갔다.

이 아는 호랭이에서 뛰어내려가주고 절에 있는 큰 고목낢이로 올라갔다. 그리고 그 고목낢이 궁기가 있는 안으로 들어가서 숨어 있었다.

241) 갑자기.
242) 환하게.
243) 다시.

퇴깽이는 호랭이캉 항께 와서 보고, 고목낡이 궁기 안에 들어있는 사람을 잡아 묵것다카고 퇴깽이는 낡이로 올라가서 그 우에 있는 궁기를 막고 호랭이보고는 그 밑이서 궁기를 뜰어서 사람을 꺼내라 캤다.

이 아는 고만 죽게 됐는데 어떻게 하문은 살까하고 있넌데 우구를 보이께네 퇴깽이 불알이 축 늘어져 있었어. 이 아는 칼로 그 불알을 싹 비었다. 그러이깨 퇴깽이는 "아이고!"함서 소리 지르고 죽었다. 호랭이는 고만 놀래서 달아났다.

이 아는 고목낡이 궁기서 나와가주고 또 있으니께 다른 호랭이가 와서 이 아로 잡았다. 호랭이는 이 아로 잡아 묵겄다고 외치는데, 호랭이 잡아 외칠 적에 왼쪽으로 누으면 안 죽는다 카는 말을 들은 것이 있어서 이 아는 호랭이가 메칠 때마다 왼쪽으로 눕었다. 그러니깨 나중에는 호랭이가 지쳐서 고만 더 메치지 몬하고 거기서 자불고[244] 있었다.

이 아는 살[245] 일어나서 호랭이 불알캉 대가리로 묶어서 젙에 있는 낭구에다가 매놓고 마실로 내려가서 사람을 사서 그 호랭이를 산 채로 잡아서 그래가주고 서울로 가서 임금님한테 갖다 바쳤다.

임금님은 산 범을 잡았다꼬 칭찬하고 상금을 많이 주었다. 이 아는 그 상금을 가주고 종우전에 가서 종우를 샀다.

종우포 사람은 사람이 이 아로 보고, "너는 오분에[246] 가개에 꼭 우등으로 급제하겠다"캤다.

이 아는 가개를 봤더니 그 종우 장시 말데로 진사급제가 되서 집에 와서 부모를 모시고 소자노릇[247]을 하민서 잘 살았다 칸다.

—1927年 2月 東萊公立普通學校 朴祐永

*임석재, 『한국구전설화 –경상남도 편 Ⅰ』, 평민사, 1993, 100~101쪽.

[동래구 설화 8]

해와 달이 된 男妹

이전에 어떤 산골에 한 여자가 살고 있었넌디 이 여자는 집이 가난해서 부재집이 가서 방애품도 폴고 베도 매주고 일도 해주고 이렇게 품을 폴아서 근근히 살고 있었다. 하리는 아그덜을 집이 두고 고개넘어 부재집이 가서 방애품을 폴고 개떡을 얻어각고 밤 늦기 집이로 돌아오넌디 한 고개로 넘으닝게 호랭이가 앞을 딱 막고 떡을 주먼 안 잡어묵겄다 캤다. 이 여자는 할 수 엄시 떡을 주었더이 호랭이넌 그 떡을 묵고 어디론가 가뻐렀다. 이 여자넌 또 고개로 넘어가이 아까 그 호랭이가 나

244) 졸고.
245) 가만히, 살며시.
246) 이번에.
247) 孝子노릇.

타나서 질로 막고 저구리로 벗어주민 안 잡어묵갔다 캤다. 이 안당네[248]는 할 수 엄시 저구리로 벗어주었다. 호랭이는 그것을 각고 가뻐렀다. 이 안당네가 또 고개로 넘어가잉개로 또 아까 그 호랭이가 나와서 치매로 벗어주문 안 잡어묵갔다 캤다. 그리서 치매로 벗어주이 호랭이는 치매로 각고 갔다. 이 여자는 고개로 또 넘어가이 또 그 호랭이가 나와서 속곳을 벗어주문 안 잡아묵갔다캐서 속곳을 벗어중개 속곳을 각고 갔다. 이 여자가 고개로 또 넘으이 호랭이가 또 나와서 폴[249]을 띠주문 안 잡어묵갔다 캤다. 그리서 폴을 띠주이개 그것을 각고 갔다. 이 여자가 고개로 또 넘어가이 호랭이가 또 나와서 다리로 띠주문 안 잡아묵갔다 캐서 다리로 띠줫다.

호랭이가 갔넌데 고개로 또 넘으이 호랭이가 나와서 이 여자로 잡어 묵었다.

호랭이는 이 여자에 옷을 다 입고 그 집이 가서 아가야 너거매 왔다이 파딱 문 열라꼬 쉰 목소리로 했다. 아그덜이 이 소리로 듣고 우리 오매 목소리는 쉬지 안했다이 하이까이 호랭이는 내가 먼 질로 오이라꼬 바람을 쐬어서 목이 쉬어서 그렇다이 캤다. 그래도 이상히서 아그덜은 우리 오매 손인가 몬자 보게 문구멍으로 딜이밀어 보라이 하이깨 호랭이는 손을 디밀어 보였다. 아그덜이 몬자보고 오매 손이 우째 꺼글꺼글 하노 카이 호랭이는 부재집이서 베 매 주니라꼬 풀을 묻혀서 그렇다이 캤다. 아그덜은 그 말로 듣고 문을 열어 주었다.

호랭이는 얼라 젖 먹이갔다 카고 얼라를 보듬고 웃묵에 앉아서 젖 먹이넌척 함서 얼라로 잡어묵넌데 뻬로 깨밀어묵니라꼬 오독오독 소리로 냈다. 아그덜이 이 소리로 듣고 엄매야 멀 묵노 날 좀 돌라 캤다. 호랭이는 묵던 얼라 손구락을 데저 줬다. 아그덜이 이것을 줏어보이 얼라 손구락이여서 이거 오매가 아니고 호랭이다 카고 도망칠라꼬 오매 나 똥 매립다 캤다. 거그서 누라. 여기서 누먼 쿠린내가 나서 안 된다. 그럼 문 열고 마루서 누라. 마루서 누먼 나오다가 봅으이께 안 된다. 그럼 칙간에 가서 누라. 이래서 아그덜은 칙간에 가넌 칙하고 나와서 멀리 도망가서 샘이 있는디 노송나무에 올라가서 있었다.

아그덜이 뒤보로 간다꼬 나가더이 아무리 지달러도 오지 안헝깨 호랭이는 아그덜 찾이로 이리저리 돌아댕기다가 샘이에 와서 샘 속을 딜다 봤다. 아그덜이 샘 속에 있어서 야덜아 이리 나오라 이리 나오라 캤다. 호랭이가 하는 짓이 하도 우스워서 아그덜이 히히 하고 웃었다. 그러이개 그 웃임소리를 듣고 호랭이는 우를 처다 보고 나무 우에 아그덜이 있잉개로 너그덜 어떻게 해서 올라갔노 캤다. 머심아가 앞집이서 지름 얻어다 발르고 올라왔다 카이. 호랭이는 앞집이 가서 지름을 얻어각고 와서 지름을 발르고 올라갈라카이 미끄러서 올라갈 수가 엄섰다. 야덜아 어떻게 해서 올라갔노 하니개 어린 지짐아가 옆집이 가서 도치로 얻어다가 찠고 올라왔다 캤다. 호랭이는 이 말로 듣고 옆집이 가서 도치로 얻어각고 와서 나무로 찍음서 올라왔다. 호랭이가 올라와서 거짐 이 아그덜 있넌 디까지 올라오기 댔다. 아그덜은 큰일나서 하늘에다 대고 빌었다. "하누임 우리로 살릴라문 새 동아줄에 새 두렁박을 달어서 내리주고 직일라문 헌 줄에 헌 두렁박을 내리보내 주소."

248) 아낙네.
249) 팔.

이렇게 비니깨 하늘서 새 줄에 새 두렁박이 내리왔다. 아그덜은 그 두렁박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

호랭이가 나무에 올라와 보이 아그덜은 두렁박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고 있어서 호랭이도 빌었다. "하누임이요 날로 살리라카문 새 줄과 새 두렁박을 낼리고 직일라문 헌 줄캉 헌 두렁박을 내리주이소."

그랫더이 헌 줄캉 헌 두렁박이 내리왔다. 호랭이넌 이거로 타고 하늘로 올라가넌디 고만 줄이 끊어저서 밑이로 떨어젔다. 밑이는 수수대를 비어낸 수수대 끌컹이가 있었넌디 호랑이는 여그에 떨어저서 수수대 끌컹이에 찔러서 피를 흘리고 죽었다. 지금 수수때에 피 겉은 것이 묻어 있넌 것은 그때 호랭이가 흘린 피가 묻어서 그라넌기래요.

아그덜은 하늘에 올라가서 머심아는 달이 되고 지집아는 해가 댔다 칸다.

—1927年 2月 東萊公立普通學校 金順德

*임석재, 『한국구전설화 –경상남도 편 Ⅰ』, 평민사, 1993, 117~119쪽.

[동래구 설화 9]

孝子試驗

이전에 한 사람이 金鐘을 가지고 있었다. 이 사람한티는 아덜이 싯이 있었는디 지가 죽은 후에는 이 금종을 어떤 아덜을 줄가 하고 여러 가지로 생각하다 질 소성이 지극한 아덜한티 주어야겠다 카고 어떤 아덜이 소성이 지극한가 알어볼라고 마실 앞에 있는 山에 古木낚이 그 밑이다가 금종을 묻어놓고 하리는 아덜 삼성지를 불어서 앞이 앉이놓고 말했다. 먼저 큰아덜 보고 "내가 나이 마너서 밤을 잘 묵을 수 엄다. 그라이 니 아덜을 저 앞산 큰 고목낚이 밑이다가 묻고 그 아가 묵던 젖을 내가 묵기 하문 어떠나?" 캤다. 그라이 큰아덜은 아부지가 망녕이 들어서 말 같이 않는 말을 다 카고 불쾌한 동작을 함서러 문을 탁 닫고 나갔다. 둘째 어덜을 불러서 그런 말로 하이 둘째도 빌 말을 다한다 카고 나가 삐렀다. 시째 아들을 불러서 그런 말을 했더이 싯째 아덜은 그리 하겠입이더 캤다. 그라이 아부지는 내일 열두시에 앞산으 고목낚이로 가서 니 아로 묻으라 캤다.

싯째 아덜은 아부지가 말한 대로 지 아로 앞산 고목낚이로 데리고 가서 파묻을라꼬 땅을 팠다. 그때에 아부지가 와서

"내가 너그덜 맘을 알어 볼라고 그런 말을 한 기다. 아를 묻을기 엄다. 그 아레에는 내가 가지고 있든 금종이 묻혀있다. 그 금종은 니 가지라"캄서 그 금종을 막내 아덜에게 주었다 칸다.

—1927年 2月 東萊郡 東萊公立普通學校 黃月穹

*임석재, 『한국구전설화 –경상남도 편 Ⅰ』, 평민사, 1993, 202~203쪽.

[동래구 설화 10]

뱀의 報恩

이전에 한 곳에 한 아가 있는디 이 아는 집이서 십 리나 떨어진 먼 서재에 댕깄다. 서재에 갈적 을적 장[250] 팽송이[251]로 굴임서 댕깄다. 하리는 팽송이로 굴임서 가는디 이 팽송이가 젙이 있는 개처으로 굴러 떨어젔다. 야는 팽송이로 건질라고 개천에 손을 넣더이 팽송이는 손에 안 잽히고 쬐만헌 실배미가 잽히 나왔다. 야는 그 실배미로 땅에 놓고 가지고 가던 점심밥을 줬다. 실뱀이는 그 밥을 묵고 이제부터는 여그서 만나자 카고 어데로 가삐렀다. 그런디 그후부터는 그 실배미가 야가 서재로 갈적 마중 실배미는 거그 나와서 지달코 있었다. 그때마다 야는 가지고 가던 점심밥을 주어서 믹있다. 이러구로 한 오 녕 지냈더이 뱀은 몸집이 한 두어서너 살 되는 아만치 굴거지고 컸다. 배미는 이 아보고 성임이라고 부르기 댔다.

야는 인제는 장개가기 댔다. 그리서 실배미보고 그 말로 하이께네 그럼 지는 가매 밑이 붙어서 따라가겠다 캤다. 이 아는 그렇가라 카고 실배미는 가매 밑이 붙어서 대리고 갔는디 혼인레로 치루고 첫날밤을 지내게 댔는디 실배미는 야보고 누버도 잠은 자지말라 캤다. 야는 실배미 말대로 누버서도 자지 않고 자는 치하고 있는디 한밤중찜 되이 어떵 중겉은 키 큰 놈이 쑥 뛰어드오디이 신랑을 깨움서 너는 우리 둘이 손에 죽을 것이다. 그리 알고 있거라 그런디 죽기 전에 우리 서이서 한잔하자 캤다. 그리고 신랑 신부 중 이렇기 술을 묵고 있는디 방문을 열고 실배미가 들어오디이 중넘을 껑 물어서 묵어삐렀다. 신부는 이거로 보고 밖으로 내어뛰었다. 실배미는 이렇기 해서 실랑을 중한티 죽는 거로 민하게 했다. 신랑은 저그 집이로 와서 다른 처이한티로 장개들었다.

그후 얼매로 지나서 실배미는 이 아로 보고 성임 날로 이렇기 키워 주었는디 나는 성임한티 아무 공도 몬갚고 있소. 이제 나는 성임한티 은공을 갚을라 캄이다함서 이제 漢江에 가서 龍이 대각고 오는 배 가는 배로 들처묵고 사람을 몬 살게 야단을 칠김이다. 나라서는 漢江이서 가는 배 오는 배로 들처묵고 사람을 몬 살게 야단을 치는 용을 잡어 엄새는 사람에게는 萬金을 준다고 할끼입이다 캤다. 그런 후에 漢江이서는 가는 배 오는 배를 들처묵는 용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몬살게 했다. 이 龍을 잡어엄샐라고 수수천밍이나 용을 잡어죽일라 캐도 아무도 몬 잡어직 있다. 그리서 나라서는 이 나뿐 龍을 잡어직인 자한티는 萬金을 상으로 주겠다꼬 방을 내걸었다. 이 아는 그 방을 보고 漢江에 가서 배로 타고 한강 가운데에 가서 龍아 나 왔다. 龍아 나 왔다 카고 및 분 부르이께네 龍이 –실배미가 된 거이– 나왔다. 이 아는 용하고 서로 부등키 안고 눈물을 흘렀다. 그리고 내중에 용을 잡어서 시 토막을 내서 나라임한티 갖다 바쳤다. 나라임은 漢江으 나뿐 용을 잡어직있다 카고 萬金을 賞金으로 내리주었다. 야는 그 상금으로 잘살었는디 실뱀이는 이렇기 은공을 갚었다 칸다.

250) 늘.
251) 팽이.

—1927年 2月 東萊郡 東萊公立普通學校 金少順

*임석재, 『한국구전설화 –경상남도 편 Ⅰ』, 평민사, 1993, 207~208쪽.

[동래구 설화 11]

딸의 智略

잇날에 어떤 골에 새 사또가 내리왔다. 이 사또는 이 골에 이건[252]있는 아전이 있는가 알고 짚어서 이방을 불러서 돌로 배로 모아서 들이라 캤다. 이방은 이 말로 듣고 기가 차서 우찌 돌로 배로 모노 카고 엄석[253]을 전피하고 들어누버서 꿍꿍 앓고 있었다. 딸이 이거로 보고 우찌서 그림니껴 카고 물었다. 이방은 새로 네레온 사또가 돌로 배로 맨들어 오라 카이 이거 우짜야 할지 몰라서 그른다 캤다. 딸은 그거는 아무것도 아입이더. 사또보고 돌로 배로 다 맨들어 놨이이 몰개[254]로 뱃줄을 꼬이 주시문 끌고 오겠심니더 카이소 카라 캤다. 이방이 그렇고 사또한티 말하이 사또는 이 골에도 이건있는 사람이 있구나 캤다 칸다.

—1927年 2月 東萊郡 東萊公立普通學校 朴明順

*임석재, 『한국구전설화 –경상남도 편 Ⅰ』, 평민사, 1993, 222쪽.

[동래구 설화 12]

名占

이전에 한 사램이 있는디 살림이 구차해서 돈이나 벌어보겠다고 집을 떠나서 멀리 갔다. 그리서 및 해를 지냄서 돈 二百냥을 벌어각고 집이로 돌아오는디 오다가 어떤 곳에 오이께네 거그서 봉사가 占을 치고 있었다. 봉사한티 가서 복채가 얼매냐꼬 물응께네 점 한 분 보는디 이백냥이라 캤다. 이 사람은 이백 냥을 다 내놓고 점을 첬더이 봉사는 성 나거던 참어라 무섭운 디 가서는 웃어라. 바람불거던 배 타지마라 이 시 가지만 말하고 더 말하지 안했다. 이백이 더 말하지 않해서 점이 하도 싱거워서 이백 냥이나 내논거이 아까밨지 마는 할수엄시 나와서 저그 집이로 갔다. 집이로 갈나문 배로 타 배있는 디로 가서 배로 탈라고 하는디 바람이 불어서 점이 생각이 나서 배 타는 거로 그만두었다. 그런디 배는 가다가 풍파가 일어나서 중간에 배가 엎어저서 배

252) 理見, 재주 있는, 智慧 있는.
253) 飮食.
254) 모래.

탄 사램이 마카 다 몰살했다. 그리서 점친 거로 잘했다 캣다. 거기서 가는디 사람 잡어묵는 사자가 나타났다. 이 사람은 사자로 보고 무서벘는디 점 생각이 나서 웃임서 사자 앞이로 갔다. 사지는 이거로 보고 다른 사람덜은 저로 보문 겁을 내고 도망가는디 저 사람은 웃임서 오이 저 사람은 필시 날로 해꼬지할라꼬 오능기 아이라꼬 가마이 있었다. 그 사람은 사자한티 가까이 가서 사자로 직이고 거그 있는 돈이며 보물을 마카 싯고 집이로 행해서 갔다. 집이로 와 보이 지 마누래는 어떤 총각을 안고 누버 있었다. 그만 화가 나서 년놈을 직이야겠다 카고 칼로 빼어들고 방 안으로 드갈라 카다가 성 나거던 참어라카는 점꽤가 생각이 나서 그양 방이 드가서 지 마누래 보고 저 총각은 웬 총각이냐꼬 물었다. 저 총각은 다른 총객이 아이라 당신 아덜이다. 당신 나간 뒤로 커서 저만치 큰 총객이 댔다 캤다. 이 사람은 마누래 말로 듣고 이백 냥 돈주고 점친 거이 모두 잘했다 캤다. 이 사람은 돈 이백 냥 주고 점을 처서 잘살기 댔다 칸다.

—1927年 2月 東萊郡 東萊公立普通學校 李萬壽

*임석재, 『한국구전설화 –경상남도 편 I 』, 평민사, 1993, 229~230쪽.

[동래구 설화 13]

활달한 處子

이전에 어떤 골으 사또가 아덜을 장개보낼라꼬 하인들을 여기 저기 내보내서 신부될 만한 처이로 보고 오라캤다.

하인 하나가 한 군데 가봉깨네 처이 하나가 방애로 찌고 있어서 가까히 젙이 가서 구바다 봤다. 처이는 이 사램이 선 보로 온 사람인가 싶어서 방애 찠다 말고 저구리를 벗고 젖통을 내뵈었다. 하인은 이런 처이는 사또 메누리 감이 몬 되갔다 카고 돌아왔다.

사또는 하인을 모아놓고 어떤 처이로 봤나 카이 그 하인은 "아모데 가이께네 처이 하나가 방애찠다가 저구리로 벗고 젖통을 내보이는 처이가 있입이더" 캤다. 사또는 이 말로 듣고 속히 그 처이한테 가서 혼인을 정하고 오라캤다.

처이 집이서는 선 보러 온 사람 앞에서 저구리로 벗고 젖통을 뵈넌년이 어데 있노 카미 꾸짖었다. 그렁깨 처이는 얼굴은 누구나 다 보이넌데 젖통을 뵈지않는 데라 뵈였소 캤다. 그라구 있넌데 사또한테서 혼인 정하자는 기벨이 와서 혼인하기로 했다.

이 처이는 이로코 맘이 활달한 처이라 아덜도 활달한 아로 놓고 훌륭한 사람이 댔다 칸다.

—1927年 2月 東萊邑 東萊公立普通學校 韓負守

*임석재, 『한국구전설화 –경상남도 편 I 』, 평민사, 1993, 243~244쪽.

[동래구 설화 14]

이상한 화로

이전에 한 사램이 어떤 사램이던지 장시로 잘하는 사램이문 사우로 삼겄다꼬 했더이 온갖 사램이 다 모여와서 지가 장시하넌 이바구를 했다. 그런데 그 이바구하넌 것을 들어보이 모두 신통치 안어서 다 내보냈다.

그런 후 어느날 한 사램이 와서 장시 잘하는 말로 해서 들어보이 참 그럴 듯해서 이 집 쥔은 그 사람을 사우삼고 장시미천으로 돈 千兩을 주었다. 이 사우는 돈 千兩을 받어각고 장시하로 간다 카미 그 집을 나와각고 各地로 돌라댕이민서 구차한 사람한티 돈을 나눠주기도 하고 옷도 사 주기도 하고 밥도 사 믹이기도 하고 그 돈을 다 써버맀다. 그러고 쟁인한티 가서 장시미천이 모지라이 돈을 千兩만 더 돌라 캤다. 쟁인은 사우가 장시로 크기 시작했나 싶어서 돈 千兩을 줬다. 사우는 그 돈을 각고 또 各處로 돌아댕이민서 업는 사람을 구조해줬다.

한 날은 어떤 집에 가서 밥 한상 차리돌라카이 쥔은 살이[255] 업서서 밥도 몬한다 캤다. 이 사람은 돈 열 냥을 내주고 파딱 살로 폴아오라 캤다. 쥔은 그 돈을 받어각고 살 폴로 나갔다. 이 사람은 쥔이 나간 사이에 담배로 피울라꼬 쥔이 갖다 논 화리에 불로 부치고 담배재로 털었넌디 그 화리에 담배재가 하나 가득 됐다. 이 사람은 이상타 카고 화리다 돈 한 푼을 너봤다. 그랬딩 이 돈이 화리에 하나 가득됐다.

밥이 다 돼서 이 사람은 밥을 묵고 떠날라 카이깨 쥔은 한때 더 묵고 가라캤다. 이 사람은 가갰다고 하이께 쥔은 未安타 카미 내 집에 있넌 것 멋이던지 하나 가저가라 캤다. 이 사람은 정 그리 말하이 저 화리나 돌라 캤다. 쥔은 앞山에 밭 내로 갔다 줏어온 아모것도 아인 것을 돌란다카이 선선히 내주었다.

사우는 집이로 그 화리를 각고 와서 돈을 넣서 많은 돈을 얻어각고 부재가 됐다. 그런데 이웃에 사는 일가집 사램이 이 화리를 빌려가더이 통 돌려주지 않했다. 이 집이서는 맨날 화리 걱정을 했다. 이 집에는 고낭이하고 개하고를 믹이고 있었넌데 이 고낭이하고 개가 쥔네가 맨날 화리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을 듣고 그 집이로 갔다. 괭이가 그 집 도장에 드가서 쥐를 보고 너덜 이 집에 있는 화리로 갖다주민 몰라도 앙가주고 오민 너덜 모다 다 잡아묵갰다 캤다. 쥐덜은 가저오갰십니더 카고 나가더이 화리를 가저왔다. 고낭이와 개가 그 화리를 짊어지고 집이로 와서 쥔한테 주었다. 쥔은 조와라 카고 그 화리 가주고 잘살게 댔다.

이 사람은 이 화리를 前主人한테 돌려줘야 갰다 카고 그 화리를 가주고 그 집에 갔다. 그런데 그 집에는 그 화리와 똑같은 화리가 있었다. 우짠 화리가 또 있능가 카이 쥔은 山에 밭 내러갔더이 이것이 또 있어서 줏어왔다 캤다. 이 사람은 이 화리는 이러이러한 이상한 화리라고 말하고 쓰는 방법을 갈치줬다. 그래서 이 쥔은 돈을 많이 얻어각고 부재가 됐다 칸다.

255) 쌀이.

—1927年 2月 東萊公立普通學校 朴祐永

*임석재, 『한국구전설화 –경상남도 편 I 』, 평민사, 1993, 251~252쪽.

[동래구 설화 15]

무 잎만 가져간 곰

한옛적이 한 사램이 밧[256]이서 일로 하고 있는디 산이서 곰 한 바리가 니리와서 니로 잡어묵을란다 캤다. 이 사람은 나는 지금 무꾸[257]로 심고 있다. 잘 키워서 가실에 거둘 때 잘 댄 잎파리로 너로 주고 나는 밑이 뿌러기만 가지겠다. 그라이 나로 잡어묵지 마라. 이래 말하이 곰은 그리 하겠다 카고 산으로 올라갔다.

가실이 대서 무꾸로 거둘 때가 대이께네 곰은 산이서 니리와서 이 사람한티 와서 니가 약속한 거로 가지로 왔다 캤다. 이 사람은 잘왔다 캄서 무꾸 잎파리로 한 무끔 주이께네 곰은 좋타고 짊어지고 산으로 올라갔다.

—1927年 2月 東萊公立普通學校 崔福守

*임석재, 『한국구전설화 –경상남도 편 I 』, 평민사, 1993, 285~286쪽.

[동래구 설화 16]

나쁜 後妻

이전에 石福이라 카는 아가 있었다. 이 아으 어매는 야가 어리서 죽고 아버지는 다신어매로 얻어왔다.

하리는 石福이가 서재에서 점심 묵으로 집이 와서 밥 돌라카이 다신어매는 니 밥은 니가 채리묵으라 캤다. 그리서 石福이는 정지에 가서 밥을 채리고 짐치독에 가서 짐치로 꺼낼라꼬 했다. 그런대 짐치독은 짚고 몸은 쬐매해서 짐치를 꺼내다 고만에 짐치독 안에 빠젔다. 다신어매는 이것로 보고 쫓아와서 짐치독 뚜껑을 덮었다. 그라이 石福이는 독 속에서 죽었다. 다신어매는 石福이 죽은 시체로 잿섬에다 넣서 갖다 내다가 암도 모리게 파묻었다.

石福이 아버지는 밖에 나갔다가 돌아와서 石福이가 뵈지 않해서 이웃으로 서재로 챚어 돌아댕기 봤넌디 아무 디도 엄서서 사십 리나 먼디 떨어진 외가집에까지 가서 챚어봤넌디 없었다.

256) 밭.
257) 무.

혹시 후처가 어찌 했일까 카고 그 거동을 살피봤넌디 아무 형적도 없었다.

하리는 이 집에 어짠 손님이 와서 사랑에서 자게 댔다. 이 손님이 방에 한차 앉어있넌데 쬐매한 아가 문새로 들어와서 절로 하고 그 앞에 꿇어앉었다. 손님은 이것을 보고 어짠 아이기로 문새로 들어오냐꼬 물었다. "예에 나는 이 집 아덜이올시더" 캤다. 무신 일로 왔냐 카이 그 아는 자기가 죽기된 말로 하고 자기 시체는 잿섬에 있이이 그 사살을 저으 아버지한테 말해 돌라고 하미 그렇기 하민 그 은혜는 잊지앙코 갑겠다 카고 업서지고 말었다. 좀 있다가 주인이 드와서 손님은 조금 전에 본 일을 말했다. 주인은 잿섬에 가서 파보이 아들 시체가 나왔다. 石福이 아버지는 후처로 저이고 직도 자살했다.

이 손님은 그후 石福이 혼이 따라 다이며 모든 일을 도와 주어서 잘살게 댔다 칸다.

—1927年 2月 東萊公立普通學校 朴今壽

*임석재, 『한국구전설화 –경상남도 편 Ⅰ』, 평민사, 1993, 295~296쪽.

[동래구 설화 17]

혹 떼러 갔다가 혹 부친 이야기

옛날엣적 간날갓적에 투수바리 소년적에 한 사램이 질로 가다가 해가 저서 질가에 있는 장성 밑이 누버서 자는디 한심 자고 일어났더이 이짝 장성이 저짝 장성을 불러서 우리 집에 손임이 와있이 우리 헝송공부나 하자 캤다. 그라이 저짝 장성이 우리 그러자 캤다. 그러더이 이짝 장성캉 저짝 장성이 항께 헝송헝송캤다. 이 사람은 이 헝송소리하는 거로 듣고 있다가 재미가 나서 저도 같이 헝송헝송했다.

아칙이 되이께네 이짝 장성이 저짝 장성보고 우리 집이 오신 손임이 우리 헝송공부를 항께 잘 따러했이이 손님을 거저 보낼 수가 엄다. 멋이던지 공을 해 딜이자 하더이 손임이 혹부리가 있어서 고생하고 있이이 그 혹부리로 띠어주자 캤다. 그러자 하더이 혹부리로 띠어주었다. 이 사람은 뜻밖이 귀찬헌 혹부리가 엄서지이 좋아서 집이로 갔다.

그 마실에 혹부리가 달린 영갬이 있었다. 이 사램이 혹부리가 엄서진 거로 보고 우찌서 혹부리가 엄서젔느냐꼬 물었다. 이러고 이러고 해서 엄서젔 카이 이 영감은 지 혹부리도 엄서지게 할라꼬 그 장성한티 갔다. 찾어가서는 해가 지기로 지달러 가지고 그 장성 밑이서 잤다. 한숨 자고 일어낭께네 이짝 장성이 저짝 장성을 불렀다. 우리 집이 손임이 오섰이이 우리 헝송공부나 하자 캤다. 저짝 장성이 그러자 하고 둘이이서 헝송헝송하고 헝송소리로 했다. 영감은 그 소리로 듣고 우스바서 웃이개 삼어 헝송헝송했다.

날이 새서 이튼날 아칙이 댔다. 이짝 장성이 저짝 장성을 부르디마는 "우리 집이 온 손임이 우리 헝송공부하는디 방해만 했다. 그라이 우리 손임한티 연검을 믹이자[258]" 하이까이 저짝 장성도 거 좋다 캤다. 그리고 어지 띠어나 두었던 혹부리로 이 영감으 불티기에 붙어 주었다.

—1927年 2月 東萊郡 東萊公立普通學校 李貞淑

*임석재, 『한국구전설화 –경상남도 편 I 』, 평민사, 1993, 323~324쪽.

다. 부산진구 설화

[부산진구 설화 1]

李成桂의 幼詩

全州라 카넌 마실이서 남으로 한십 리찜 가먼 南固山이라 카넌 山이 있고 그 밑이넌 虎遇石이라 카넌 큰 방구가 있입니더. 한 五百年 前에 李成桂라 카넌 이가 있었넌디 그 아가 나이 열 두 셋 났일 때 동네 아덜 대 여섯이 항께 南固山으로 놀로가서 방구 우게서 놀고 있었넌대 그때 방구 아래서 왕 하넌 소리가 났입니더. 모다 깜작 놀래서 벌벌 떨고 있었넌대 李成桂만 떨지앙꼬 저것이 머꼬 가보자 캤다. 다른 아덜도 할 수 없이 李成桂 뒤로 따라서 갔넌디 가보잉까네 뜻박이도 큰 호랭이가 무서분 눈을 뜨고 아덜 젙이로 왔입니더. 李成桂는 이것을 보고 우리 중에 호랭이 뱁이 될 아가 있나보다. 우리 모다 적삼을 벗어서 호랭이 앞에 던저서 물어가넌 적삼의 임자가 호랭 앞으로 가서 호랭이 뱁이 되자 캤읍니더. 다른 아덜도 그러카자 카고 모다 적삼을 벗어서 호랭이 앞이다 던젔입니더. 그런데 다른 아으 적삼은 물어가지 앙코 李成桂 적삼만 물어갔입니더. 그래서 李成桂는 호랭이 앞에로 갔입니더.

그런데 각중에 天地가 진동하는 듯한 큰소리가 났입니더. 호랭이는 그 소리로 듣고 달아났입니더.

쪼매 있다가 李成桂는 뒤로 돌아봤더이 다른 아덜은 방구 밑이 치어서 다 죽어 있었입니더. 李成桂는 커서 나중에 李朝의 始祖가 댔다 캅니다.

李成桂가 놀던 방구는 거기서 호랭이를 만났다 캐서 그 방구로 虎遇石이라 칸답니더.

—1927年 2月 釜山府 釜山鎭公立普通學校 鄭億守

*임석재, 『한국구전설화 –경상남도 편 I 』, 평민사, 1993, 61쪽.

[부산진구 설화 2]

길로 길로 가다가

질로 질로 가다가 돈을 한 푼 주았네. 주은 돈을 버릴까 그 돈 한 푼 가지고 떡을 하나 사가지

258) 여기서는 혼내 주자의 뜻.

고 묵고나이 똥이네. 돌아보이 친구네. 끼고 보이 방구네

—1927年 2月 釜山府 釜山鎭公立普通學校 郭化台

*임석재, 『한국구전설화 –경상남도 편 Ⅰ』, 평민사, 1993, 85쪽.

[부산진구 설화 3]

길로 길로 가다가

질로 질로 가다가 돈 한 푼 주어서 떡전으로 드갔네. 접처보이 두 귀요, 페 보이 니 귀요, 묵어보이 요구요, 돌아보이 친구요, 뀌고 보이 방구라.

—1927年 2月 釜山府 釜山鎭公立普通學校 金用來

*임석재, 『한국구전설화 –경상남도 편 Ⅰ』, 평민사, 1993, 85~86쪽.

[부산진구 설화 4]

꽁지 따기

아이고 배야 무신 배 자래배 무신 자래 갑자래 무신 갑 연지 갑 무신 연지 갑 무신 연지 호랑 연지 무신 호랑 꺼치 호랑 무신 꺼치 하도 꺼치 무신 하도 들 하도 무신 들내 아들

—1927年 2月 釜山府 釜山鎭公立普通學校 高三孫

*임석재, 『한국구전설화 –경상남도 편 Ⅰ』, 평민사, 1993, 87쪽.

[부산진구 설화 5]

女子의 一念

이전에 어떤 마실에 한 사램이 있는디 하리는 처가집이 갈 일이 생겼다. 그리서 늙은 어무이랑 자숙이랑 마누래랑 다 항게 가는디 가는 도중에 큰 강이 있어서 이 강을 건느기 댔다. 그런디 이 사람 마누래는 기운이 장사라 강을 건느는디 남펜이랑 시어무이랑 아덜이랑 다 업고 강을 건는디 강에 한가운데 강게네 강이 짚어서 물이 목에꺼지 차게 댔다. 싯을 업고 가기가 에럽기 대서 하나는 버려야 할 헹펜이였다. 이 女子는 누구를 버려야 할지 생각해봤다. 시어무이를 버

릴수 업고 자숙을 버릴수도 엄섰다. 그리서 지 남펜을 버리기로 하고 강을 건너서 무사히 처갓집이- 이 여자로 바서는 친정이지- 친정이 갔다. 친정집이 시어무이랑 자숙을 매끼놓고 이 여자는 그 강에 가서 남펜을 네레놔서 강에서 죽은 자리에 빠저서 죽었다 칸다.

—1927年 2月 釜山府 釜山鎭公立普通學校 金在鎬

*임석재, 『한국구전설화 –경상남도 편 I 』, 평민사, 1993, 178쪽.

[부산진구 설화 6]

기구한 男妹

이전에 한 사람이 있넌대 이 사람이 客地에 나갔다가 죽어서 이 사람으 마누래는 젊은 몸으로 한차 살 수가 업서서 어린 딸하고 아덜로 나 두고 밤중에 살재기 어디로 도망처삐렀다. 그래서 어린 男妹는 저거매로 찾일라꼬 집을 떠나서 여그저그 돌아댕기넌디 한 분은 한 군디 가이깨 여러 女子들이 모여서 서답하넌 디가 있어서 거그 저그매가 있나카고 가봤다. 누님은 남동생보고 저그 어매 있잉이 가서 어매 카고 불르라 캤다. 동셍이 가서 어매 카고 불으이 대답이 없었다. 또 어매 카고 불으이 내가 무신 너거매꼬 하미 서답방맹이로 때릿다. 야는 울고 누님헌디 와서 우럼매 아닝갑다 캤다. 두 男妹는 할 수 업시 거그서 떠나서 정처업시 갔다.

가다가 어떤 富者집에 가서 밥을 얻어묵을라 카이 그 집 사람이 보고 이 아덜이 잘생기고 이뿌게 생깄이이 집도 주고 양석도 주고 옷도 주민서 여그서 살라 캤다. 그래서 두 男妹는 그 마실서 살기 됐다.

男동생은 공부로 하고 싶어서 서재로 댕기는디 그 서재 선생이 이 아으 누님이 욕심이 나서 이 동생을 업새고 빼일 작정을 했다. 그래서 어느날 선생은 국수와 떡을 해서 독약을 너서 이 아에게 믹이서 죽였다. 누님은 동생이 죽은 것을 보고 동생아 동생아 하미 부뜰고 해도 살아나지 안했다. 동생으 시체로 부뜰고 울어도 살아나지 안했다. 누이는 동생으 시체로 멩지에 싸서 방안에 잘 눕히 놓고 울다가 잠이 들었다. 자고 있넌디 꿈에 아부지가 나타나서 니 동생은 서재선생이 국수에다 독약을 여서 믹이서 쥑엤다. 그러고 너로 빼어갈라꼬 너그 집이로 오넌 것을 내가 샘에 빠저 죽게 했다. 그 샘이 물로 묵지 말라 카고 사라젔다.

누이는 깜작 놀라 깨각고 동생으 옷과 바꽈 입고 그 집을 떠나서 정처업시 갔다. 가다가 가다가 한 곳을 당도하이 부자집이 있어서 그 집이로 가서 밥 좀 돌라 캤다. 그 집 주인이 나와보고 이 남자가 인물이 잘나서 지 딸과 혼인시킬 맴이 났다. 그리서 누이보고 얻어묵으로 돌아댕기지 말고 우리 집이서 살으라 캤다. 그리 하갔다 하이 이 집이서는 조와라 카고 다음날 혼인시킸다.

이 누이는 이 집이 사우가 대각고 사넌디 하리는 또 밤에 꿈에 이 누이 아부지가 나타나서 아무날 아칙에 이른 새벅에 일어나서 앞문을 열고 동쪽을 볼 것같으머 무궁화 꼿이 피어 있일팅

개 가만히 가서 그 꼿잎새 시 낱만 따가주고 니 동생한티 가서 동생 얼굴에 부치라 그러문 니 동생이 살아날기다 카고 사라젔다.

이 누이는 꿈에 아버지 말대로 그 날이 돼서 일직 일어나 문을 열고 동쪽을 바라다 보이 전에 몬 보던 꼿이 피어 있었다. 그래서 그 꼿으 꼿잎새로 시 낱 따가주고 품안에 고히 품고 부자집 사람보고 고향에서는 일 년에 한번식 모이는 큰 지사가 있이이 거그 좀 갔다 오갰다 캤다. 그라이 장인 장모는 인삼캉 몰로 주민서 잘 갔다오라 캤다.

이 누이는 옛집에 돌아와서 보이 동생은 썩지앙코 자는 듯이 누버 있었다. 가주고 간 꼿잎새 시 낱을 동생 얼굴에 부치니개 바로 살아서 일어났다. 누님은 기뻐서 인삼을 대리 믹이고 지 대신 그 부자집이로 보내서 부자 딸하고 살게 했다.

그 후 이 누이는 선녀가 댔다.

및해가 지나서 선녀는 동생한티 아무날 아무시에 아무데로 와서 만나자. 만일 그날 그 시에 안 오먼 우리는 영영 하직이라고[259] 선몽했다. 동생은 이런 선몽을 꾸고 그날 오기만 지달렀다. 그 날이 와서 동생은 누님 만나로 갈라꼬 했넌디 너무 일직 일어나서 다부 잤다. 그런디 누님이 와서 동생을 불런넌디 대답이 업섰다. 동생아 동생아 카고 시 분불넌디도 대답이 업서서 하늘로 올라갔다. 동생은 늦잠을 자고 있었는디 잠결에 동생아 동생아 카고 지[260] 부르는 소리가 어림풋이 들여서 미처 대답 몬하고 쫓아나갔다. 쫓아나가 보이 누님은 벌서 하눌로 올라가고 업섰다.

누님을 몬 만난 동생은 실푼 맘으로 나날이 지내는디 어느날 또 누님이 선몽했다. 아무날 아무 산에 오문 소내기가 쏟아지고 뇌송[261] 번개가 번적번적 할티이 무서버 하지말고 그대로 참고 올라오라. 그러문 우리는 만나볼 수 있다꼬.

그날이 대서 동생은 그 산으로 올라갔다. 비가 오고 뇌송 번개가 나서 무서벴지만 참고 올라갔더이 동생 왔나 카는 소리가 났다. 공중을 처다보이 누님이 있었다. 잠간 만나보고 누님은 하눌 높이 올라가 버렀다.

—1927年 2月 釜山府 釜山鎭公立普通學校 姜末石

*임석재, 『한국구전설화 –경상남도 편 Ⅰ』, 평민사, 1993, 179~181쪽.

[부산진구 설화 7]

뱀의 報恩

이전에 江原道 金剛山 밑에 큰 배미가 살었는디 이 배미는 아조 마이 커서 용이 대서 하늘로

259) 여기서는 이별의 뜻이다.
260) 자기를.
261) 雷聲.

등천할 때가 댔는디 등처 못하고 있었다. 누구던지 용이라꼬 불러주문 등천하겠는디 아무도 용이라고 불러주지 안했다. 그리서 이 배미는 용이란 말로 듣고 짚어서 하리는 사램이 마이 다이는 질가에 가서 누버 있었다. 그런디도 그 질로 가는 사람은 아무도 용이라꼬 하지않고 아이고 큰 배미가 있다 캄서 갔다.

하리는 어떤 과부가 한 서너 살 묵은 얼라로 등에 엄고 그 질로 갈라카는디 질에 큰 배미가 누버있어서 이 배미로 보고 에구 큰 배미가 누버있다 이리 몬가겠다 캄서 오던 질로 다부 돌아갈라꼬 했다. 그런디 등에 업힌 얼라가 뱀이라 카지말고 용이라 불러보라 캤다. 과부는 그 말로 듣고 그리보자 카고 용이 누버있다 카고 불러 주었더이 배미는 질로 비키줘서 그리 지나갔다.

과부는 가다가 날이 저물어서 어떤 언덕 밑이서 자기 댔다. 자고 있는디 꿈에 용이 나타나서 나는 아까 낮에 질가에 누부있는 큰 배미다. 니 얼라가 날로 보고 용이라고 불러줘서 용이 대서 등천하기 댔다. 그 은공으로 나는 공을 갚깄다. 나 누벘던 자리에다 및 백만 핑 되는 田畓을 맨들어 놨이이 그거로 가지고 잘살어라 캤다. 눈을 떠보이 꿈이였다. 안날[262] 그곳에 가보이께네 과연 田畓이 및 百萬坪 있었다. 이 과부는 얼라땜시로 그 넓은 田畓을 얻게 대서 잘살기 댔다 칸다.

—1927年 2月 釜山府 釜山鎭公立普通學校 徐福茁

*임석재, 『한국구전설화 –경상남도 편 I 』, 평민사, 1993, 209쪽.

[부산진구 설화 8]

智略있는 아이

이전에 어떤 山村에 한 부자가 살었는디 이집에 하리는 얻어묵는 껄뱅이가 아덜 하나로 데리고 밥을 얻어묵으로 왔다. 보이께네 껄뱅이 아덜이 잘생기고 똑똑하기 생겨서 부자는 껄빵이 보고 그렇기 사방으로 빌어묵으로 댕기지말고 우리 집이서 살라 캤다. 껄뱅이는 그리 하겄다 카고 그 집에 살기로 했다. 부자는 껄뱅이 아덜을 지 아덜캉 같이 키우는디 껄뱅이 아덜은 쥐인으 아덜보다 한 살 덜 묵어서 조근 아덜로 삼었다.

두 아는 사이좋기 커서 나이 장개갈 나이가 댔다. 그래 한목에 장개보내기로 했다. 두 아덜은 혼레식을 올리기 전에 신부될 처이가 어떤 처이인가 알아볼라고 서로 나누어서 신부될 집이로 가 보기로 했다. 부자 집 아덜은 껄뱅이 아덜인 동생으 신부감으 처이네 집이 가봤다. 그 처이는 아무 일엄시 잘 지내고 있었다. 껄뱅이 아덜 – 동생으로 삼은 아가 성으 신부 집이 가서 보이께네 이상한 일이 있었다. 밤이 대서 야는 청밑이가 가만히 숨어 있잉게네 처이 방이서 무신 말소리가 났다. 가만히 들어보이 남자 목소리가 났는디 니는 시집가서 좋겠다마는 나는 우찌란 말

262) 다음날.

이란 말이냐 카는 소리가 났다. 그라이 나는 그 집이로 시집가도 신랑을 직이고 올기다. 그때는 우리 둘이 도망가서 같이 살자 카는 처이 말소리가 들여 나왔다. 이런 말소리로 듣고 동생은 문구멍을 뚫고 방 안을 딜다보이 처이는 중넘하고 둘이 앉어서 말하고 있었다. 그러더이 처이는 중넘을 커단 농 속에 넣고 쇠로 채워 놨다. 동생은 이런 거로 다 보고 집이 돌아와서 성보고 신행질로 채리올 직에 신부 방에 있는 큰 농을 꼭 가지고 오라꼬 일렀다. 성은 동생 말을 듣고 그 말대로 신행질에 농을 가지고 갈라 캤다. 신부는 몬 가지고 가게 했다. 신랑은 신부 말을 듣지앙고 동생 말대리 농을 가지고 갔다. 어디만침 오이께네 동생이 나타나서 그 농은 내가 짊어지고 가야겠다 카고 짊어지고 가다가 어떤 회목진디[263] 와서는 농을 니리 놓고 농문을 열고 농 안에 있는 중넘을 직이고 농만 지고 갔다.

신부는 시집에 와서 농문을 열어보이 농 안에는 중넘이 엄고 아무것도 엄서서 당황했다. 동생은 이런 말을 집안 사람한티 말하문 시끄러울 것같어서 아무 말도 안했다. 이렇기 해서 신부도 무사히 재내게 하고 부자집도 아무일 엄시 지나기 했다.

ㅡ1927年 2月 釜山府 釜山鎭公立普通學校 李鍾贊

*임석재, 『한국구전설화 –경상남도 편 Ⅰ』, 평민사, 1993, 217~218쪽.

[부산진구 설화 9]

名判定

옛날에 어떤 곳에 숲가 성을 가진 少年하고 李가 성을 가진 少年하고 에릴적부터 한 마실서 삼서 한 서재로 댕김서 공부로 같이 하고 친하기 지냈다. 한 분은 점쟁이가 이 두 少年을 보디이마는 金少年보고는 니는 부자가 된다 카고 李少年보고는 니는 껄박씨가 된다 캤다. 李少年는 이 말로 듣고 심애[264]가 대서 밥도 안묵고 죽을거 같이 댔다. 金少年은 걱정마라. 니가 그렇기 되문 내가 니로 잘 보살피 주겠다 캤다. 이 少年들이 커서 장개도 들고 해서 살어가는디 점쟁이가 말한 대로 金少年는 큰 부자가 대고 李少年는 가난하고 내중에는 껄뱅이가 댔다. 그래서 金少年은 전에 한 말이 있어서 李少年을 저그 집에 데레다 살게 했다. 그러이께네 金少年으 일가사람들은 느그 일가 가운데에 몬사는 사람도 있는디 그런 일가도 아인 아로 구해주지앙코 딴 넘을 데레다 사이 그럴 수가 있나 캄서 나무랬다. 金少年는 일가덜이 그렇기 말하는 것도 그렇것다 카고 李少年에게 돈 백 냥을 줌서 어디 장사라도 해서 돈을 벌어서 살어보라 캤다. 李少年은 金少年이 그렇기 도와주어서 고맙다고 인사로 하고 장사를 했는디 그만 잘몬 대서 돈을 다 써뻐리서 암도 만나지도 앙고 집 안에 들어누벘다. 金少年는 李少年한티 챚어가서 위로하고

263) 외진 곳, 사람이 다니지 않는 곳.
264) 心火, 낙담, 걱정.

이분에는 돈 천냥을 줌서 이거로 장사해보라 캤다. 李少年는 너무나 고마워서 절로 수백 분하고 그리고 서울로 올라갔다. 서울가서 장사했더이 이분에는 잘 대서 한 삼 년 지내서 삼천석하는 부자가 댔다. 그런디 金少年는 우찌서 그랬는지 치패[265]가 대서 아조 망하기 댔다. 그리서 金少年은 화빙이 나서 앓다가 시상을 베렀다. 그런디 장시치를 돈도 엄섰다. 金少年한티는 열시 살찜 된 아덜이 있었는디 아부지으 친구인 李少年이 서울가서 삼천석하는 큰 부자가 댔다는 말로 듣고 서울에 가서 李少年보고 저그 집안 헹펜을 말하고 좀 도아달라 캤다. 李少年는 나는 그런 친구도 엄고 그런 사람 일지도 몬한다고 딱 잡어띠었다.

金少年으 아덜은 집이 와서 생각해보이 李少年이 한 짓이 하도 원망시럽어서 감사한티 챚어가서 지 사정을 다 말고 잘 처리해돌라고 호소했다. 감사는 야 말을 다 듣고 "니 사정은 잘 알었다마는 징서도 엄고 징거도 엄시이 우찌 할 방법이 엄다." 캤다. 그리도 이 아는 분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엄섰다. 그때 權長用이라 카는 재주가 마는 사램이 있었는디 金少年으 사정을 알고 그 아으 분을 풀어줄 생익이 났다. 그리서 감사한티 챚어가서 -그때 火賊때 도적을 집어다 가두어논 거이 있어서- 자기는 화적 떼를 닥달해보고 짚으이 그렇기 하게 허락해 주이소 캤다. 감사는 그렇게 하라고 허락해서 권장용이는 감옥 안에 드가서 화적떠덜보고 너그덜을 내가 너그럴 죄목을 닥달할틴디 그때 너그 괴수는 누구냐커던 서울에 사는 李少年이라만 하라꼬 엄밍했다. 그리고 그 이튼날 화적떼를 옥에서 끌어내어 죄목을 닥달함서 너그덜 괴수가 누구냐꼬 물었다. 화적떠덜은 마카 서울에 있는 李少年이라 캤다. 그러서 서울서 李少年을 잡어다가 니가 화적떼으 괴수라지 하고 문초했다. 李少年은 그렇지 않다 캤다. 그러문 우찌 가분재기 二三年내에 三千石이나 하는 부자가 댔냐 캤다. "그렁거이 아이라 金少年이 천 냥을 주어서 그거로 밑천삼어 三千石 부자가 댔입이더." "그렇다문 어찌서 金少年 아덜한티는 金少年는 모르는 사람이다 친구도 아이다 캤노. 니 三千石재산은 金少年 돈을 밑천으로 늘군 재산이다. 그 재산은 金少年으 아덜한티 다 주어라."

이렇기 말하고 李少年으 재산을 마카 金少年으 아들한티 주었다 칸다.

-1927年 2月 釜山府 釜山鎭公立普通學校 鄭道燁

*임석재, 『한국구전설화 -경상남도 편 I 』, 평민사, 1993, 275~277쪽.

[부산진구 설화 10]

게의 꾀

두께비가 게로 잡어다 놓고 발모가지[266]로 끊으라카이 게는 개복 개복[267] 좋지롱 캤다. 그래

265) 治敗, 집안이 망해서.
266) 足, 발.

서 불이다 널라 카이 따근 따근 좋지롱 캤다. 지렁[268]이다가 널라카이 씨리 씨리 좋지롱 캤다. 물에다 너 삐릴라 카이 죽어 죽어 나는 싫어 캤다. 그리서 두께비는 물이다 게로 넜터이 게는 살었다 카고 좋아험서 저 멀리 달아났다. 두께비는 이거로 보고 눈만 끔적끔적했다 칸다.

—1927年 2月 釜山府 釜山鎭 朴日英

*임석재, 『한국구전설화 –경상남도 편 Ⅰ』, 평민사, 1993, 283쪽.

[부산진구 설화 11]

착실한 하인의 正體

이전에 한 곳에 큰 부재가 살고 있었넌디 하리는 한 사람이 와서 하인노릇을 하갰다꼬 해서 이 사람을 하인으로 두었더이 이 하인은 참 부지런하고 일도 잘하고 마음도 착실했다. 그리서 주인은 그 하인을 사랑하고 믿고 모든 것을 맥끼고 했다. 그런디 이 하인이 주인한티 한마디 말도 업시 집을 나갔다. 그러더이 한 삼 년 후에 돌아와서 주인이 어데 갔다 왔나꼬 물으니까내 淸道地方에 갔다왔다카메 거기는 겡치도 좋고 사람살기가 좋더라꼬 말했다. 그러더이 메칠 있다가 또 암말않고 가삐렀다. 그런 뒤로 이 년 후에 이 주인은 노비로 많이 가주고 그 하인이 좋다카는 淸道地方을 찾어갔다. 찾아가이까내 어떤 집이서 그 하인이 나오더니 주인을 보고 반가이 맞아들이고 우리 집으로 가이십더 캤다. 그리서 부재는 그 하인을 따라서 갔넌디 자꾸 짚은 산중으로 들어갔다. 한참 가더이 큰 굴이 나서니 하인은 각중에 칼을 빼들고 니 가진 돈과 옷을 다 내놓고 이 굴로 들어가라. 만일에 안 들어가민 이 칼로 직인다 캤다. 주인은 할 수 업시 돈과 옷을 다 내주고 굴로 들어갔다. 그렀더이 하인은 큰 돌로 굴문을 막고 어디로 갔삐렀다.

부자는 굴 속에 갇히게 댔넌디 어디 나갈 궁기가 업갰나 카고 여그저그 찾고 있넌디 어디서 여자 목소리로 당신도 그놈한티 쏙았능기요? 우리 남펜도 쏙아서 이 굴에 갇혀 있다가 죽었소. 당신은 우째서던지 여그서 빠저나가서 아무 곳에 가서 우리 아덜보고 말 좀 해 주이소 카는 말소리가 들였다.

부자는 이 말소리로 듣고 더욱더 열심히 빠저나갈 궁기를 찾어봤넌디 이튼날 아침에야 제우 찾어내서 근근히 그 굴로 빠저나와 저으 집이로 돌아왔다. 와보이 그 하인놈은 먼저 와서 저으 안들보고 주인임이 돈이 업어저서 고생을 하고 있넌디 집이 가서 집캉 전답캉 다 폴아서 돈을 가주고 오라꼬 나를 보내서 왔십니더 카고 있었다. 부자는 이것을 보고 착실한 하인인 줄 알었더이 시상에 흉악한 나뿐 놈이다 카고 그 놈을 붙잡어 직이뿌렀다. 이놈은 부자집만 찾어가서 한 삼 년 착실한 하인노릇을 하다가 돈을 빼실라고 주인을 淸道地方으 어떤 산중 굴로 가두었

267) 가벼워서.
268) 간장.

다는디 그 굴은 지금도 淸道에 있다 칸다.

—1927年 2月 釜山府 釜山鎭公立普通學校 宋祥求

*임석재, 『한국구전설화 –경상남도 편 I 』, 평민사, 1993, 307~308쪽.

[부산진구 설화 12]

잊음이 심한 사람

담배신동 조못똥인동 홍대산동 시동애빈동 이런 말이 있넌디 여그 대해서 이런 이바구가 있다.

이전에 한 대사가 질로 가넌디 뒤서 우짼 사램이 따라오디이만, "대사는 어디까지 가능고?" 물었다. "예에 소싱[269]은 합천 햄인사[270]꺼지 갑이더" 캤다. 그 사람은 그럼 나하꼬 동행하자 카미 대사 성밍이 머꼬 물었다. "예에 소싱 성은 洪갭니더[271]" 캤다. 이 사람은 나는 시동애비라 칸다 카고 지 성을 갈치주었다. 그리고 같이 가넌디 얼매깐 가다가 이 사람은 중보고 대사 어데꺼지 가노 성은 멋잉고 물었다. 중은 합천 햄인사꺼지 감니다. 소싱 성은 洪개닙이다고 또 갈치줬다. 이 사람은 나는 시동애비라꼬 다부 말했다. 그리고 가는디 또 대사 어데꺼지 가능가 성은 멋인가 또 물었다. 중은 이 사람 정신업는 사램이구나 캄서도 갈치주고 갔다.

가다가 정지나무[272]가 있어서 그 나무 밑이 같이 앉어서 쉬넌디 쉬다가 둘이는 잠이 들었다. 얼매를 자다가 중이 잠을 깨각고 바랑에서 삭도[273]를 내서 이 사람 머리를 깎어놓고 중 옷을 입히고 바랑을 지우고 송낙 씨우고 自己는 이 사람 이관을 입고 씨고 그만 어디로 가뻐렀다.

이 사람은 시끈[274] 자고 일어나서 "아 洪大師는 여그 있넌디 시동애비 나는 어디 있노?" 카미 시동애비로 찾았다. 지나가는 사람보고 당신이 낸기요? 물으이 그 사람은 아니다 캤다. 그래노이 이 사람은 홍대산동 시동애빈동 담배신동 조못똥인동 알 수 업다카미 중얼그렀다 칸다.

—1927年 2月 釜山府 釜山鎭公立普通學校 金四珉

*임석재, 『한국구전설화 –경상남도 편 I 』, 평민사, 1993, 320~321쪽.

269) 小僧, 중이 자기를 낮추어 하는 말.
270) 海印寺의 訛音.
271) 洪가입니다.
272) 정자나무, 동구 앞에 있는 큰 나무.
273) 削刀, 머리깎는 조그마한 칼.
274) 실컷.

2. 황경숙의 현장조사 설화

[강서구 설화 1]

바다에서 걸어 나온 귀신

허금자(여, 1938년생) 구술
2021년 2월 5일 채록
[가덕도동(눌차동) 외눌마을]

여 바다에 도깨비불은 못 보고, 저 건너 저게가 생지동('생교동'을 말함.)이라고 우리 친정이거든. 저 짝(저 쪽) 동네 하얀 집 저거 건물이 저게 우리 친정집인데, 생지동 친정집인데, 전엔 쪼깨난 오두막집이었는데, 지금은 인제 조카가 동생이 지어가지고. 그래 그때는 저 집이 아니고 쪼끄만한 집 초가집이었는데, 요게서로 우리 친정집에 갔다가. 우리 딸아가 지금 지금 그러니께네 우리 딸아가 지금 오십 다섯 살인가 됐을 적에, 얼라 쩍에(아기 때에) 남편이 아를 업고 나는 뒤에 따라오는데 저서로(저기에서) 오는데 땅거미가 졌어. 땅거미가, 약간 어두무리한 땅거미 졌는데, 이래 오는데 내가 올 때 다와가는데 요래 오면 요래 요래가 기역자로 돌아오거든. 근데 저 바다에서로 새카만 사람이, 키가 저 정도 저래 된 거, 새까만 크게 이래가 새까만 사램이(사람이) 걸어 나오는 기라. 문에서. 그래서로 내가 인자 우리 남편을 보고,

"아이구! 무시라(무서워라) 저 아부지요, 저기서 바다에서 사람이 걸어 나온다."

그땐 헛것인줄 몰랐지.

"걸어 나온다."

이러니께네, 남편이 얼라(아기) 업고 오다가,

"아구! 맞네. 걸어나오네."

이러 커고(이렇게 하고), 얼쭈(어림잡아. 여기서는 '거의'라는 의미.) 이리 오는데, 요래 물에서 딱 요래 와가 한 발 두 발 딱 때니까네 고만 사람이 없어. 그래 헛것인줄 몰랐지. 내가 봤지. 남편도 보고 나도 보고. 새까만 사람이 근데 물에서 걸어 나와. 걸어가 나와. 지금 와가(와서) 생각하면 그기 해끼(헛것)라. 그때는 해끼라고 생각도 안 하고. 집에 와서는 그래 보니까네 해끼더라고.

그래 그런 거는 함 봤지. [조사자: 해꼬지는 안 했던가봐예?] 해꼬지는 안 하고. 거리가 거리가 저 빨간 저거 있는 쪽, 그쯤 될 끼다. 바다에서. 그래가 살- 한 발 두 발 이리 뛰니까는 고만 없어져삐대. 그래 집에 와서 그때까지는 해낀(헛것인) 줄을 모르고.

*김승유 외, 『가덕도의 민속문화1 –눌차동』, 국립민속박물관, 2021, 190~191쪽.

[강서구 설화 2]

천성고갯길에서 만난 도깨비

허금자(여, 1938년생) 구술
2021년 2월 5일 채록
[가덕도동(눌차동) 외눌마을]

우리 아부지가, 친정 아부지가 저녁에 천성에, 천성에 있을 짝에 산년에(살아생전에), 우리 큰집이 천성이거든. 천성에서 내가 크고 우리 아부지가 천성이었거든. 그래가 우리 아부지가 비가 부실부실 왔는데, 비가 부실부실 왔는데 우리 아부지가 인자 우리 집은 저긴데 큰집에 갔다가 우리 아부지 그때 밤으로 잘 다녔어요. 그래 큰집에 갔다가 집에 온다고 우리집에 온다고 오는데, 비가 약간 귀신불처럼 오고 안개가 이래 쪘는데 오다가 인자 저 천성에서 쫌 올라오면 탱자 묏거리라고, 탱자 묏거리라고, '탱자 묏거리' '탱자 묏덩이' 이랬거든. 탱자 묏덩이 이랬는데, 산소가 묏덩이(묏등) 컸어요. 산소가 컸는데. [조사자: 그 주위에 탱자가 있었던 가배?] 그 탱자나무가 있었는가? 그거는 모르겠고.

그래가 우리 아부지는 그서 오다가 담배를 한 대 풀라꼬(피우려고) 오는데, 돌이 이래 있는데 돌에 이래 앉아가지고 담배로 풀라꼬 라이터를 탁 꺼내가지고 담배를 이리 댕기니까네 앞에 사람이 서더랍니다. 우리 아부지가 한 사람이 그렇게 서더랍니다. 섰으면 이래 쳐다보니께네 약간 이 수염이 이래이래 났는데 남자는 젊더랍니다. 수염이 있는데 그러고 우리 아부지가 사람가? 구신가(귀신인가)? 이라면서 라이터를 이래 켜고 보이, 이래이래 되이 이 한 발 두 발 이래 보면서로 우리 아부지 그때 해낀 줄 알았어. 그래가 딱 끄고,

"니는 어데 가노? 나는 우리 집에 가는데 니는 어데 가노?"

카니께네, 오늘 저녁에, 천성에서 요 저 보이는 저 동네가 가덕이거든요. 가덕. 그래,

"내가 오늘날 저녁에 가덕에 내 제산데 우리 집에 갑니다."

이러더랍니다. 우리 아부지가 우리 앉혀놓고 그런 말을 해요. 그래 구신이,

"우리 집에 갑니다."

이랬어. 그래가 아부지가,

"그라면 니가 앞에 서거라."

그래 구신을 앞에 세워놓고 우리 아부지가 인자 따라오다가 그서 쪼금만 올라오면 평지가 있습니다. 평지가 있는데 딱 이래 건너면 물이 쫌 내려오는데 딱 건니는 데라. 그래 거기 딱 세워가 그 사람은 건널라 카고 우리 아부지는 이래 서가이고(서서) '아! 이래가 안 되겠구나. 내가 이 사람 따라가서 안 되겠다.' 싶어서,

"그러면 나는 다부 천성을 갈란다. 니는 가거라."

이라이,

"그라면 나도 따라 갈랍니다."

카면서, 앞으로 돌아서.

"그럼 니가 앞장서라."

이래. 그래 앞장을 세워가, 앞에다 돌려 세워놓고, 요래 거서 길이 기역자로 탁 돌면 안 보이는 데가 있어. 앞에 가도, 우리 아부지가 그때만 해도 젊었어. 빨리 가도 고만(그만큼만) 가고 천천히 가도 거리가 고만 가고 그래서 곧장 집으로 오다가 우리 아부지가 딱- 보니까, 기역자로 꺾이는 그길로 돌아가뿌이까네 그 사람이 그만 없더랍니다.

그래 그 뒤로 우리 아부지가 천성 가는 데만 땀을 전부 다 홀리가 큰집을 다부 들어갔는 기라. 그라고부터 우리 아부지는 밤에 밤길로 안 걷는다고 그런 말을 들었어.

*김승유 외, 『가덕도의 민속문화1 –눌차동』, 국립민속박물관, 2021, 192~194쪽.

[강서구 설화 3]

자기 제사에 가는 귀신

정복경(여, 1953년생) 구술
2020년 11월 6일 채록
[가덕도동(눌차동) 정거마을]

택시를, 예-쁜 새내기가 한복을 해서 입고 택시를 탔는데 그래.

"어느 집을 가자."

하더래. 그래서 기사가 그 사람을 따라갔대. 따라갔는데 그 집이 인자 그 사람을 내라줬는지, 자기 내려달라 하는데 내라줬는데. 차비를 안 주더래. 그래 귀신이 돼논께 차비를 안 줬겠지. 그래 갖고 택시 기사가 뒷날 아침에 가니까 제사더랍니다. 그래 그 귀신이 그 집에 밥 묵으러 온 기라. 그래 그런 말도 있대. 그래가 인자 그 집 가서 밥 묵고 왔다 하는 그런 말은 있대. 제사라서.

*김승유 외, 『가덕도의 민속문화1 –눌차동』, 국립민속박물관, 2021, 201~202쪽.

[강서구 설화 4]

제삿날 보이는 귀신의 혼적

정복경(여, 1953년생) 구술
2020년 11월 6일 채록
[가덕도동(눌차동) 정거마을]

아니 전에 우리 아부지 제일 첫 제산데. 진짜 뭐가 있는 갑더라. [청중: 있어.] 아지매, 와 요런 데는 우리는 그리 안 해. 쌀로 방에 다 떠다놓고 안 해. 우리 큰집이 이우제가(이웃에) 있었는데, 쌀을 이 양재기에다가 맵쌀을 한 되 가져와가지고 우리 엄마도 별도로 인제 떠갖고 두 개를 다 별도로 이렇게 방에다 갖다놨어.

제삿날 저녁에, 초저녁에 방에다 떠다놨어. 떠다놨는데 내가 인자 그 밥을 할라고, 밥할 때가 돼서 그 밥을 할라고 그 쌀을 가질러 갔어. 두 개 다 이래 쌀을 들었어. 들고, 쌀로 들고 나오면서 쳐다본께 우리 큰집 쌀에는 아무치도(아무렇지도) 안 해. 아무치도 안 하는데 우리 엄마 쌀 떠 놓은 양재기 쌀이 발도 억수로 커. 이렇게 큰- 기 가운데 이래가 탁- 찍히가 있대. 발자국이. 아니, 우리 아부지는 내가 첫 제삿날 그랬다니까. 뭐 있는 갑더라. [청중: 나는 그 소리 듣고 이랬다. 제사 때 쌀로 봐서는 몰라보겠는데, 밀가루를 갖다놔야 되겠다 싶더라니까. 밀가루를 갖다 놔야 확실하게 찍혀.] 뭐 확실히 있어. 우리는 쌀에 딱 그렇더라니까.

*김승유 외, 『가덕도의 민속문화1 –눌차동』, 국립민속박물관, 2021, 202쪽.

[강서구 설화 5]

단칸방에서 몰래 사랑을 나누는 부부

정복경(여, 1953년생) 구술
2020년 11월 6일 채록
[가덕도동(눌차동) 정거마을]

아니 아지매, 나는 딴 사람 소리는 몬 들었고, 내가 누구한테 들은고? 하여튼 들은 소리라. 이 소리는. 호재 저거 엄마하고 호재 저거 아부지하고 둘이가 앵겨(엉켜) 붙어가 있는데 저녁에. 그 집에 둘째 딸이 정난이가.

아빠 뭐 하노?"

그라더라네. 그란께,

편지 쓴다." [웃음]

편지 쓴다 그랬다 캐. [청중: 편지 쓴다고.] 우리 동네 사람한테 직접 그 말은 내가 들었어. 이제 그 우에 업디리가(엎드려) 있으니까 인자 아가,

"뭐 하노?"

이러니까, 저거 아부지가,

"편지 쓴다."

그러더라 캐. [웃음]

*김승유 외, 『가덕도의 민속문화1 –눌차동』, 국립민속박물관, 2021, 205쪽.

[강서구 설화 6]

단칸방에서 몰래 사랑을 나누는 부부

정복경(여, 1953년생 구술
2020년 11월 6일 채록
[가덕도동(눌차동) 정거마을]

남석이 딸은 또, 남석이하고 남석이 마누라하고 확 들켜뻤어. 들키니까 이 딸내미가 돌아댕기면서,

"우리는요. 방이 좁아서요. 우리 아부지는 우리 엄마 배 위에서 자요." [일동 웃음]

그래가 동네사람들이 남석이 딸로 보면.

"어젯밤에도 너거 아부지 배에서 자더나?" [일동 웃음]

*김승유 외, 『가덕도의 민속문화1 –눌차동』, 국립민속박물관, 2021, 205쪽.

[강서구 설화 7]

받침을 잘못 써 우습게 된 편지

정복경(여, 1953년생) 구술
2020년 11월 6일 채록
[가덕도동(눌차동) 정거마을]

그 소리 들으니 생각난다. 우리 사촌 오빠가 저저 학벌이 좀 짧았어. 초등학교 이리 나와노니까. 군대를 갔어. 군대를 갔는데 인자 우리 아부지한테, 작은 아버지한테 편지를 썼어. 근데 인자 우리 아부지한테 쓴 긴가? 우리 사촌 오빠가 조카라면 눌로(누구를) 보고 조카라 하니? [청중: 동생 아들이나 고모 아들이나.] 그래갖고 우리 오빠가 글로 쓴 기 편지가 왔는데, 조카 '카' 자를 못 써가지고 '조까'로 [일동 웃음] 그 소리가 생각난다. 발음이 안 돼갖고 그렇게 썼더라니까. [청중: 아니 글을 '카'자로 써야 되는데 '까'자로 썼어.] 응. 맞아 맞아. [청중: 그래놓이께는 '좇 까'라고 읽었지.]

*김승유 외, 『가덕도의 민속문화1 –눌차동』, 국립민속박물관, 2021, 206쪽.

[강서구 설화 8]

밤으로 귀신이 놀았던 항월마을 귀신바위

차춘순(여, 1947년생) 구술
2020년 11월 6일 채록
[가덕도동(눌차동) 정거마을]

내나 여기서도 그랬다 하대. 하동이 할매가 그러대. 시아부지가 안 와서 저 항월 쯤에 가니까 개가 막 죽어라 도망가더란다. 저거 집으로. 그런께 하동이 할매도 머리가 거꾸로 서더라 카대. 저거가 귀신 있다 캐. 무덤 있는 데가. [청중: 우리 이사 올 때 그런 말이 있대예.] 그러고 성당에 댕기는 할매가 나 보고서는,

"니, 밤에 여 가나?"

이러대. 항월에 살 때.

"아니."

"가지 마라."

이래.

"너는 놀랜다. 가지 마라."

"와예?"

그런께. 그 바다 넓은 바위 있지? [청중: 예.] 거기서 노래를 하고 난리가 난다네. [조사자: 그 바위 이름이 뭔데예?] 바우? 내나 바우, 바닷가에 바우. 요 가면. 좀 많이 파묻혔지. 도로 만들면서. [청중: 지금은 마이 안 나왔지.] 반밖에 안 나왔어. 거기서 막 귀신들이 놀고 난리를 한단다. [조사자: 그게 보이는가예?] 보이는 사람은 보인다요. 우리는 안 보여. [조사자: 사람한테 해코지는 안 하고?] 해꼬지는 안 하고. [조사자: 지금은 어떤 데요?] 지금은 뭐 가로등이 있지. 뭐 차들이 있지 한께. 지금은 안 보이지.

*김승유 외, 『가덕도의 민속문화1 –눌차동』, 국립민속박물관, 2021, 186~187쪽.

[강서구 설화 9]

바가지를 빌려달라는 터럭손이

차춘순(여, 1947년생) 구술
2020년 11월 6일 채록
[가덕도동(눌차동) 정거마을]

처음에 저기 용원에 살았는데 배천수 아저씨가 나 보고서는,
"오늘밤에 저 바다에 고기 잡으러 가는데 따라가나요?"
해서,
"예, 갑니다."
이런께 인자,
"그러면 배에 가다가 누가 바가지 달라면 주지 마소."
이래께서는
"와예?"
이런께,
"하여튼 주지 마소."
이래. 그래서,
"왜요?"
"귀신이 달라 합니다."
이래. 그러면서는 그 바가지를 주면 막- 배에다 물을 퍼붓는 대. 그럼 물에 가라앉는 대. 그러니까 바가지를 줄라면 배섬에다 딱 때리갖고 깨서 줘라 하는 기라. 깨트려갖고 주래. 난 그게 진짠 줄 알았어. [청중: 거짓말이다.]

그날 저녁에 용원에 사는 데 젊은 사람이 떡 오니께, 인제 그때 왜 경운기 이거 이게 쓰내기(선외기)가 아니고 이래 치잡고 있는 거 있잖아. [청중: 그래 그래. 목선 경운기.] 젊은 사람이 온께, 보니까 머리를 요렇게 딱 때리는 기라. 대가리를. 그래서 나는 귀신이 그러는 줄 알고. [웃음] 깜짝 놀랬어. 깜짝 놀랬더만, 그 저 수하식이 그기 있었다 아이가? 우리 아범이 배질을 잘못해갖고 [웃음] 그 수하식으로 들어가니까 지가 떡 올라갔다 떡 널찐께(떨어지니까), 그놈이 대가리를 때려버렸는 기라. 그러고 나 진짜 귀신인 줄 알고 얼마나 놀랐는고.

*김승유 외, 『가덕도의 민속문화1 –눌차동』, 국립민속박물관, 2021, 188~189쪽.

[강서구 설화 10]

바다에서 만난 유령섬

차춘순(여, 1947년생) 구술
2020년 11월 6일 채록
[가덕도동(눌차동) 정거마을]

[조사자: 바다에 나가면 헛배도 있다던데, 유령선처럼 온다던데.] 그래. 큰 바다에 나가면, 옛날에 우다시 탈 때 많이 봤다. [조사자: 우다시가 뭔데예?] 큰 배. 돛 달고 큰 배. 이거보다는 두

배, 세 배 큰 배 있어요. 그 우다시 탈 때는, 그 배가 없어 지금은. 우다시라 하는 게 그 배 탈 때는, 젊었을 때 많이 탔다. 이런 기둥을 두 개를 달고 돛을 달아. 그러고 인제 그때는 기계가 지금보다 약했겠지. 그러니까 바람으로 많이 갔지.

그러면은 진짜 앞에 보면 섬덩어리 같은 게 보인다 캐. 그런데 가보면 아무것도 없다 캐. 그럼 또 어느 때는 뭣이 나타나고. 진짜 바가지를 줄라 하는 것도 있고, 우-뚝하니 배가 산 위에가 서 있고 이런다 캐. 그 배천수 아저씨도 배를 탔는데 몇 번 놀랬다 캐. 진짜 보인다 캐. 자기 눈에는 헛것이 이래 보인다 캐.

근데 안개가 많이 꼈는데, 우리 용원에서는 요기 인자 어장을 보고서는 올라가는데, 안개가 너무 많이 껴서 길을 못 찾겠는 기라. 근데 보니까 저가 뭐 섬이 커-다란 게 하나 있는 기라 내 눈에. 그래서는,

"우리 저 섬에 가서는 이 배 묶어놓고서 안개 벗어진 다음에 가자."

그래가 그리 찾아갔더만은 몰껀지가 요-만한데 그게 섬으로 보이더라니까. [조사자: 몰껀지가 뭔데예?] 풀이. 바다풀이 모여 둥둥 떠가는데 그게 섬으로 보이더라고. 엄청 크게 보이더라고. 안개가 끼이까. 내 그때 한 번 속았다. 진짜 섬인 줄 알았어. 엄청 커 보여. 그래가 인제 우리 덕구 저거 아부지 보고,

"아유, 안개 끼갖고 이렇게 해서는 길을 못 찾아요. 저 섬에 가서."

[청중: 절대 안개 끼면 길 못 찾아예.]

"길을 못 찾으니까 저 섬에 가서 배를 묶어놓고 좀 안개 벗어지도록 있읍시다."

이러니께, 이 사람이 뭐라 카냐면,

"안개 벗어지도록 있으면서 바람이 불으면 죽는다."

이기라. 길을 못 찾으니까. 바람이 불면 더 무섭다 카네. 그 소리를 들으니까 또 무섭는 기야. 그래서,

"그럼 저 섬으로 가자."

이래고서는 걸로(거기로) 찾아갔어. 아이구 저 텔레비전 반만 해. 몰껀지가, 바다풀이 뭉쳐있는 게. 근데 내 눈에는 그게 산으로 보여. 그때는 한 번 속았어. 항시 그래 안개 끼는 날은 작은 물체들이 크게 보인께 그거 따라가지 말라고.

저 우다시('목선'을 말함.) 타고 나가면은 새벽녘이나 되고 이라면은 이런 헛게(헛것) 보인단다.

"너무 피곤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하이까네,

"아이다(아니다)."

캐.

*김승유 외, 『가덕도의 민속문화1 –눌차동』, 국립민속박물관, 2021, 189~190쪽.

[강서구 설화 11]

진우도의 애기 귀신

차춘순(여, 1947년생) 구술
2020년 11월 6일 채록
[가덕도동(눌차동) 정거마을]

저저 복성이 할매. 복성이 할매가 앉으면 그런 얘기 잘해줘. 옛날에는 여가 도깨비불이 쩍- 갔다. 쩍- 왔다. 이래 했다.

그러고 인자 그 고아원이 하나 있었거든요. [조사자: 어데예?] 진우도. [청중: 진우도. 진우도.] 그 무슨 태풍? [조사자: 사하라 태풍(사라호 태풍을 잘못 말함.)] 응. 사하라 태풍. 사하라 태풍 때 고가(그곳에) 고아원이 있었어. 근데 고아원에서. [청중: 우리 갔을 때는 고아원. 아지매, 그때 다 뜯기고 고아원은 없었어. 이층 건물 집 있고, 또 요쪽에는 밑에 조금 소 키우는 집 있고. 우리가 그 2년 살았거든요. 우리 딸이 지금 사십 다섯인데 우리 딸이 돌 안 지내서 그 해 가서 우리가 살았었어요. 진우도.]

근데 그 진우도에서는 사하라 태풍이 와갖고 그 고아원 애들이 다 죽고 둘인가 살았다 캐. 근데 그 아저씨 하나는 저 진우도에 살대. 몇 년 전에 가서 그 아저씨 하나가 살았다 하더라고. 근데 그 아저씨가 그 당시 나이가 오십 몇 살이더라고. 그랬는데 그 고아원 아이들이 다 죽고난께, 난 복성이 할매한테 들었어. 그- 저녁마다 애들이 운다 캐. [조사자: 그 섬에서?] 응. 인제 그 애들 넋이, 귀신이 울었겠지. [청중: 몰라. 옛날에는 그랬는가 몰라도 우리가 살 때는 그런 거 없었어예.] 사하라 태풍 나갖고. [청중: 그때는 그래 했는가 몰라도 우리 살 때는 그런 일이 없었어.] 그래 그래갖고서는 인제 이래 앉아 있으면 복성이 할매가,

"옛날에는 저 모래밭에 불이 도깨비불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비만 올라치면 애기들 그 울음소리가 어-찌 시끄럽게 나던지 잠이 안 들어갖고."

어쩌고 어쩌고 이래 샀대.

*김승유 외, 『가덕도의 민속문화1 –눌차동』, 국립민속박물관, 2021, 194쪽.

[강서구 설화 12]

도깨비가 된 몽당 빗자루

차춘순(여, 1947년생) 구술
2020년 11월 6일 채록
[가덕도동(눌차동) 정거마을]

옛날에는 우리 클 때만 해도 맨스할 때는 빗자루도 못 깔고 앉으라 카고, 빗자루에 피 묻으면 아궁이에 떼라 카고. 마 이랬지. [청중: 전에 나(나이) 많은 사람들이 빗자루 몬 깔고 앉으라 하대.] 피 묻으면 도깨비 돼서는 돌아댕긴다고.

그래 실컷, 오던 데서(어느 곳에서) 키가 커-다란 놈이 나와서 씨름하자 해서 씨름해갖고 이기갖고서(이겨서) 허리띠 끌러갖고 나무에다 묶어놓고 그 뒷날 가보니께 빗자루라 안 하더나?

*김승유 외, 『가덕도의 민속문화1 –눌차동』, 국립민속박물관, 2021, 198쪽.

[강서구 설화 13]

도깨비불이 나는 참나무

차춘순(여, 1947년생) 구술
2020년 11월 6일 채록
[가덕도동(눌차동) 정거마을]

참나무도 오래되니까 불을, 시-퍼렇게 불이 오더랍니다. [조사자: 참나무?] 참나무 덩쿨. 그 죽은 나무 잘라다가 우리 친정에 인제 나무를 팼다던데. 아버지가 나무를 패갖고서 장작을 여기다 수북이 쌓아놨는데, 우리 엄마가 밤에 늦게 나와서 보니께, 대문 앞에 시퍼런 게 있더라 캐. 놀-래갖고서는 인제 그대로 뛰어들어갔겠지 인자. 아침에 나와보니 나무가 그렇더라 캐. 그래 불을 키고 있더란다. 참나무도 오래되면 불 온다더라. 시-퍼러진다 캐. 그런께 우리 엄마는 도깨비불이라고 놀래갖고 뛰들어왔지.

*김승유 외, 『가덕도의 민속문화1 –눌차동』, 국립민속박물관, 2021, 198쪽.

[강서구 설화 14]

나락을 대신 찧어주는 도깨비

차춘순(여, 1947년생) 구술
2020년 11월 6일 채록
[가덕도동(눌차동) 정거마을]

나는 어려서 안 봤지만은. 어른들 말이 그러는데, 우리 그 동네 입구에 저 탁군수라고 있어. 군수 노릇 해. 충남 군수 집인데 대나무가 억-수로 많애. 근께 인제 이 집이 여기 대나무 많고 여

가 우리 집인데, 이 뿌리가 이리 밭으로 해서 우리 집에까지 건너왔어. 근께 우리 집도 대나무가 많애. 근데 이 집은 말-도 못하게 많애. 근데 밤 되면 막,

"꿍. 꿍."

한단다. [웃음] 여기서. 이 대나무 군수 집에서,

"꿍, 꿍."

한다 캐. 그래서 하-도 자다 시끄러워서는 군수 할매가,

"아이구! 와 이리 시끄럽노?"

이러고서 쫓아나오면은, 여기 절구통에다가 나락을 담아놓으면 나락을 깨끗이 찍어놓는다 캐. [조사자: 도깨비가?] 응. 이거 찍는다고, 그래 저녁 내-,

"꿍. 꿍.'

댄다 캐.

*김승유 외, 『가덕도의 민속문화1 –눌차동』, 국립민속박물관, 2021, 198쪽.

[강서구 설화 15]

솥뚜껑을 솥 안에 넣어 장난치는 도깨비

차춘순(여, 1947년생) 구술
2020년 11월 6일 채록
[가덕도동(눌차동) 정거마을]

그러고 어느 때는 보면 솥. 동네 어른들이 그라더라,

"아-무리 재주 좋은 사람이라도 솥뚜껑을 솥 안에 우그러 넣어려고 해도 몬 한다."

이거여. 어느 때는 그게 들어가 있다 캐. 솥 안에 솥뚜껑이. 근데 아침이 되면 솥뚜껑이 솥 안에서 나와가지고 또 고대로 있다 캐. [웃음] 진짜 옛날 도깨비 있었어. 근데 지금은 세상에 불도 많고, 사람도 많고, 차도 많고 한께 도깨비 설 자리가 없는 거여.

*김승유 외, 『가덕도의 민속문화1 –눌차동』, 국립민속박물관, 2021, 199쪽.

[강서구 설화 16]

도깨비 떼는 이야기

차춘순(여, 1947년생) 구술

2020년 11월 6일 채록
[가덕도동(눌차동) 정거마을]

이 집이 하-도 못 살으니까, 도깨비들이 안됐는가? 그 집을 도와준다고 인자 뭐 같은 거 이런 께 도깨비가 들락날락하이 그 집이 부자가 되더라네. 그래가 그 집에서 인자 논을 샀어. [웃음] 논을 샀는데 인제 귀찮다 말이다. 인제 살만하니께 도깨비 와서 해작질하는 것도 귀찮고. 이러니까 도깨비를 못 오게시리, 도깨비를 못 오게 할라면, '닭을 잡아갖고 닭 피를 뿌리면은 도깨비가 안 온다.' 이러더라 캐.

근께 이 아저씨가 인자 얘기니까 그렇지. 실제 그렇다면 나쁜 놈이지. 참 닭을 잡아갖고 피를 뿌리니께, [웃음] 한날은 어디서 난리 났어. 꿍꿍되고 [웃음] 난리가 나서 가보니께, 도깨비가 논 네 구탱이에다(모서리에) 말뚝을 박아놓고 논 떼간다고. [웃음] 그 얘기 진짜겠나? 이 네 구탱이(네 구석에) 말뚝을 박아가지고 논 떼 갈 끼라고 난리를 하더라네. 이 땅이 쳐들리나? 안 쳐들리지. 근께 얘기니까 그렇지. [청중: 얘기니까 그렇지.] 실지 그렇겠습니까?

*김승유 외, 『가덕도의 민속문화1 –눌차동』, 국립민속박물관, 2021, 199쪽.

[강서구 설화 17]

복을 타고난 사람

차춘순(여, 1947년생) 구술
2020년 11월 6일 채록
[가덕도동(눌차동) 정거마을]

용강상회 시누. [청중: 예.] 큰 시누이 있거든. 큰 시누이가 있는데, 그 할마이가 태어나니까 집안에 공장이 잘- 돌아가더라 캐. 공장이 잘 돌아가는데, 이제 시집 갈 나이가 되니까 점쟁이가 오더만,

"옷을 한 벌 입혀갖고 베껴놓고(벗겨놓고) 시집을 보내라."

하더라 캐. 근데 인자 이 아버지가 인자 그걸 안 믿었어. 안 믿고서 그 언니를 시집을 보내니까마 그 뒤로 집이 망해버리더란다. 그 질로(길로) 망해뻤다(망해버렸다.) 캐. 친정이. 근데 이 사람이 또 시집 온 집은 잘 살아 또. [조사자: 그 사람이 인업이다 그지예?] 응.

*김승유 외, 『가덕도의 민속문화1 –눌차동』, 국립민속박물관, 2021, 199쪽.

[강서구 설화 18]

자기 제사에 가는 귀신

차춘순(여, 1947년생) 구술
2020년 11월 6일 채록
[가덕도동(눌차동) 정거마을]

용원에 그 저 니 꼼보 아나? 꼼보 아줌마. [청중: 꼼보 아지매? 모르겠는데.] 그 아줌마가 신랑이 저기 대통령 별장에, 저돈가(저도인가)? 대통령 별장에 그 근처에 가 고기를 잡았어. 고데구리(형망을 말함)를 타고서는. 우리 희란이 아부지도 그 고데구리 타갖고 그 가 잡았는데 고기가 그-래 많더란다.

근데 저 희란이 아부지는 마 도망을 왔는 기라. 넘의(남의) 배를 탈 때. 그 당시 고데구리 탈 때. 군인들이 끝까지 따라오더라 캐. 그래갖고서는 군인들 못 따라오게시리 딱줄을 막 바다에 던졌다 캐. 그럼 물에 인제 이 줄이 헝클어지갖고 있으니께 뒤에 따라오는 배가 걸리면 못 따라온다고 인자 딱줄을 막 던지고서는 용원 방파제까지 도망을 왔는데, 그만 태극기를 떼야 될 낀데 태극기를 안 떼뻤어.

근께 그 뒷날에 분명 용원에 섰다는 걸 알고 이 군인들이 잤뻤는 기라. 가갖고서는 그 뒷날 와갖고서는 그 배를 잡았뻤는 기라. 그때 누구 배인가 하면은. [청중: 아- 태국기가 있으놓으니께.] 누구 배냐? 하면은 옥이 배다. 옥이 배. 그래 인자 벌금 좀 냈을 끼다. 그날 잽히면 그게서 맞아 죽는다 캐. 마 뒤지게 맞는다 캐.

그랬는데 저 꼼보 신랑하고 인자 몇이는 고데구리를 탔는데 처음에는 나가라고 스피커로 방송을 하더라 캐. 나가라 나가라 하더라 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안 나갔어. 고기가 많으니께. 나중에 공포탄을 쏘더라 카대. 공포탄을 쏘아도 놔면 그대로 잡으면서 도망나왔겠지. 실렁실렁 나왔겠지. 긍깨 그 총에 맞아 죽어버렸는 기라. 꼼보 신랑이. 그기는 맞아도 아무것도 없어. 정부에서 하는 거니께. 그래갖고서는 보상도 없어. 개죽음이지. 그래가 인제 저기 저 진해 넘어가는데 그 화장막 있잖아? 거기서 거기다가 화장을 시켰다 아이가.

화장을 시킸는데, 아이! 저 저 첫 제사 때 마누라는 인자 그때 애들 째깐했었다(작았었다). 초등학교도 미쳐 못 댕겼을 끼다. 그러고는 둘 데리고 엄마가 혼자됐는데, 제사음식을 하는데 인제 그 여동생이 저 개가동 저기서 용원에 나올라면 그 화장막 하나 있잖아? 그짝쯤에(그 근처에) 오는데 옆에 있는 할매가 옆에 있는 그 처제를 보고서는,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러고서 기사 보고,

"차 좀 세워주소. 차 좀 세워주소."

이러더라 캐. 그 할매가. 근께 기사는 뭣도 모르고 차를 세웠는 거여. 근께 이 앉아있는 아를 일바시더라(일어나게 하더라) 캐. 그랬더만 그 아줌마가,

"이리 앉으소."
이러더라 캐. 우리 이런 사람 눈에는 아무도 안 보이는 거여. 근데 그 할매는 보여. 근데 그게 누구냐 하면 곰보 신랑이 화장마을에서 나오더라 캐. 인제 제삿밥 먹으러 오는 거겠지. 그래갖고서는 용원 다 와갔고서는, 이 할매가 어찌 알고서는,
"지금 집에 갈라고 하니께 잘 모시고 가라."
하더라 카네. 그러면서 집에 가면서.
"언니야, 형부 왔다."
이렇게 말하라 하더라 캐. 그래가고서는 그게 한- 참 용원에 소문났었다. 첫 제사 때 신랑 왔다고. 실지 영혼이 있는 갑더라.

*김승유 외, 『가덕도의 민속문화1 –눌차동』, 국립민속박물관, 2021, 200~201쪽.

[강서구 설화 19]

자기 제사에 가는 귀신

차춘순(여, 1947년생) 구술
2020년 11월 6일 채록
[가덕도동(눌차동) 정거마을]

귀신이 인자,
"택시비는 요 집 보고 달라 해라."
이래 하니까. [청중: 몰라. 그 소리는 못 들었어. 나는.] 기사가 인자 뒷날 가서는 어제. [청중: 그래 가기는 갔다 캐. 뒷날.]
"어제 젊은 사람이 택시를 타고 와서 여기서 내리갖고는 요 집이 주인한테 택시비 받아라 해서 택시비 받으러 왔다."
이러니까,
"아, 우리 딸이 왔다 갔는 가배."
이러더라대. [청중: 그래. 제사라서 딸이 밥 묵으러 왔는 가배. 구신이 오기는 오는가봐.]
"죽은 딸이 왔다갔는 가배."
[청중: 그래. 구신이 오긴 오는가봐.]

*김승유 외, 『가덕도의 민속문화1 –눌차동』, 국립민속박물관, 2021, 201~202쪽.

[강서구 설화 20]

제삿날 보이는 귀신의 흔적

차춘순(여, 1947년생) 구술
2020년 11월 6일 채록
[가덕도동(눌차동) 정거마을]

우리 시아부지 지사(제사) 때 쌀을 여기다 우리 시어머이가 떠다 놓대. 그러고 요는 상판이라. 그랬는데 전라도 사람은 제사도 이상하게 지내. 우리하고 틀려. 떡을 먼저 지내. 떡을 먼저 갖다놔. 밥은 난중에 하라 캐. 그러면 실컷 쌀 갖다놓고 요기 떡 올려놓고서는 한 시간 가까이된 께.

"야, 야. 이 쌀 좀 꺼내봐라."

이래. 그래 꺼냈어.

"살- 꺼내라."

캐서, 살- 꺼냈어. 식구들이 앉아갖고서 보더만은,

"새 발짝(발자국)이다. 새 발짝이다."

이래. 나는 본 게 새 발짝인가? 개 발짝인가? 몰라. [웃음] [청중: 진짜 우리 아부지는, 진짜 커다랗더라니까 그 발자국이.] 보이도 안 했어. 내가 하는 말이.

"어머니, 어머니 그럼 다음부터 밀가루를 한 번 떠다놓읍시다. 밀가루는 확실하니께. 내 눈으로 봐서는 안 보입니다."

한께,

"그렇게 몰라보느냐?"

고. 자기네들은 알아보는데 나만 몰라보는 거요. 나는 그런 거는 자세히 안 봐서 모르는데, 하여튼 그런 걸 할라면 밀가루를 떠놔야 돼. 근데 인제 그 쌀을 가져가서 이래 두어 번 이래 문지르는데, 인제 쌀 뜨고 쌀을 씻으면서 요 물로 떠가면서 문지르는데 어떻게 하니까 뭐가 씩- 지나가는 기라. 그때부터 무섬증이 나는데요. 못 있겠어. 부엌에도 못 있겠고, 마당에도 못 있겠어. 무서워서. 그래 내 우리 동시(동서) 보고 음식은 다 해났지만은,

"야, 이리 좀 와봐라. 뭣이야 송주야 이리 좀 와봐라."

안 나와 이놈의 여편네가. 나는 무서워서 나오라고 억지로 시키는 거요. 뭣도 좀 가져와라. 뭣도 좀 가져와라. 이러면은 고거만 갖다놓고 쏙 들어가고, 쏙 들어가고. 그래 내 뒷날 아침에,

"아-유! 내 어제 무서워서 죽을 뻔했습니다."

한께,

"뭣이가 무서워?"

"쌀 씻는데예, 내 눈에 뭔가 하얀 게 홱- 지나가던데 그 질로(길로) 그래 무섭데요."

그런께,

"너의 시아부지가 밥 얻어먹으러 왔는갑다."
이래.
[청중: 그래 없지는 않은가봐. 표시를 하니까.]

*김승유 외, 『가덕도의 민속문화1 –눌차동』, 국립민속박물관, 2021, 202~203쪽.

[강서구 설화 21]

정성을 들여야 하는 제사

차춘순(여, 1947년생) 구술
2020년 11월 6일 채록
[가덕도동(눌차동) 정거마을]

옛날에 어떤 사람이 공동묘지에서 술이 취해갖고 집에 가다가, 공동묘지에서 자면은 푸근하다 캐. 이런 데 자는 것보다. 그래 잠을 자고 있는데 어느 정도 술이 깨서 일어났겠지. 그러니까 막 그러더라 캐. 자기 귀에,
"오늘 내 생일인데 가서 밥 좀 먹으러 가자."
하더라 캐. 그래 눈을 떠보니까 아무도 없어. 소리만 들리고. 그러니 이 사람이 술에 너무 취해니까 거기서 또 잤는가봐. 그러니까,
"에이, 가니까 밥상에 구랭이가(구렁이가) 올라앉아갖고서는 밥도 못 먹고 오고."
막- 이래 군담을 하더라 카네. 그래서 뒤에 인제 그 술이 깨갖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 동네를 가니까 제삿밥에 머리카락이 들어갔더라 캐. 그런께 저 밥에, 귀신들이 이걸 보고 구랭이라 한다 캐요. 그런께, '제삿밥에 머리카락 안 들어가게 조심해라.' [청중: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어.] '나물에 머리카락 안 들어가게 조심해라.' 안 하던 가배? 그래 못 먹고 오지. 제사 간 사람이 못 먹고 오지. 제삿밥에 구렁이가 들어있으니까.

*김승유 외, 『가덕도의 민속문화1 –눌차동』, 국립민속박물관, 2021, 203~204쪽.

[강서구 설화 22]

단칸방에서 몰래 사랑을 나누는 부부

차춘순(여, 1947년생) 구술
2020년 11월 6일 채록
[가덕도동(눌차동) 정거마을]

애들이 뭐 다섯인가 여섯인가 쭉- 나낳고. [청중: 옛날에는 다 그래 한 방에서 잤잖아요?] 어머이를 건들라하니까 자리가 없는 기라. 근께 아부지가.

"내 오늘 사랑방에 갔다 온다. 몇 시쯤에서 올테니까."

이래 인제 하루 종일 놀자 이래 했던가봐. 근데 애들이 안 자는 기야. 그래,

"자라. 자라."

해갖고 애들이 자는 것만치로(것처럼) 가만히 있어. 그런께 인제 마누라를 데리고 나가뻤어. 여기서는 못하니끼, 애들이 깰까봐 몬 하니까. 마누라가 문 열고서 나가니께 하나가 나가면서,

"삐약, 삐약."

한께, 뒤에 다섯 여섯 명이 일어나서,

"삐약, 삐약."

하고. [일동 웃음] 다 따라가더라 캐. [청중: 참 옛날이야기다.] 그래서 아들로(아이들을) 병아리라 해.

*김승유 외, 『가덕도의 민속문화1 –눌차동』, 국립민속박물관, 2021, 205~206쪽.

[강서구 설화 23]

사람 혼이 변한 흰 생쥐

차춘순(여, 1947년생 구술
2020년 11월 6일 채록
[가덕도동(눌차동) 정거마을]

등잔불을 켜놓고 마누라가 바느질을 하는데, 신랑이 옆에서 자는데 신랑 콧구녕(콧구멍)에서 하-얀 생쥐가 한 마리 씩- 나오더만 썩- 나가더란다. 인제 자기가 잘못 봤는가? 어떻는가? 마누라 신경을 안 썼겠지. 그런데 한-참 바느질을 하고난께 부르더라 캐. 그러더만 다시 또 콧구녕으로 쏙 들어가더라 캐. 그러더만 신랑이 기지개를 푹- 키면서,

"한잠 잘- 잤다."

이러더라 카네. 그러면서,

"내가 꿈을 꿨는데 어디 어디 공동묘지에 뭐 뭐 옛날에 할아버지면 할아버지 이런 공동묘지까지 갔다 왔다."

하더라 캐. 그래갖고 아는 건데, 그게 혼이더라. 우리 영혼이 잠자면 덩치만 남아있고 영혼은 막 사방팔방 돌아댕기는 가봐. 그래갖고서 그게 잘 때 얼굴에 그리면 안 된다고 해. 그런께 잘 때는 얼굴에 뭐 그리지 말라 하잖아.

그래 인자 우리들, 옛날에 애기들 장난쳤다 아이가? 애기들 자면은. 할머니들이 되게 야단해.

그런께 그 혼이 나갔다가 들어오면은 이마 여가 그려지고 마 이상하면은 '내 집이 아니네.' 이러고 안 들어온대. 그러면 그 아는 죽는 거래. 혼이 영 나가버려서. 옛날에 할머니들한테 들었지. 이런 얘기는.

*김승유 외, 『가덕도의 민속문화1 –눌차동』, 국립민속박물관, 2021, 206~207쪽.

[강서구 설화 24]

주인을 살린 동물

차춘순(여, 1947년생) 구술
2020년 11월 6일 채록
[가덕도동(눌차동) 정거마을]

옛날에는 인제 불을 떼서 밥을 하면 솥을 열었다 닫았다 이러고 저기는 거시기잖아? 뭐 나무 엮어갖고 그러고서는 흙발로 갖고서는 이렇게 이렇게 한 집인데, 그 밥을 열으라 카면은 개라고 했나? 하여튼, 뭣이 마 그 솥 언저리 가서 귀찮게 하는 거요. 그런께 주인이 귀찮게 한다고 마 밀어내고 밀어내고 했는데 끝까지 이게 안 도망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 그날은 애가 왜 그러는가? 싶어가 가만히 있으니께, 애가 거기다 대고 입을 딱- 벌리고, 천장에다가 입을 딱- 벌리고 있더라 캐. 갠가 뭣인가? 그건 모르겠다. 갠가 고양인가? 입을 딱- 벌리고 있으니까, 이 밥 짐(김)하고 요 짐승 독하고. 보니까 지네가 엄-청 크게 있더라 카네. 근께 밥 짐하고 짐승 짐하고 저 지네를 막 쏘는 거요. 사람도 극단에 올라서 사람을 물면 빨리 안 낫아요. 독이 있어갖고. 그러니까 지네가 못 이겨갖고 지네가 푹- 밥솥으로 떨어지는데 지네가 그래 크더라 안 하데요? 그래 그 주인을 살린 거요.

*김승유 외, 『가덕도의 민속문화1 –눌차동』, 국립민속박물관, 2021, 207쪽.

[강서구 설화 25]

주인을 살린 개

차춘순(여, 1947년생) 구술
2020년 11월 6일 채록
[가덕도동(눌차동) 정거마을]

강원도에서는 개를 아줌마도 싫어하고 아저씨도 싫어하는데 이 개가 도망을 안 가고 자-꾸 이 집에 살아. 사는데 아줌마는 그 동네에서 식당을 하고, 아저씨는 좀 떨어진 데서 혼자 자고 이러는데, 아이고 이 개가 막- 난리가 났더라 캐. 그래갖고서는 아저씨가 무시를 해뻤는 기라. 그랬는데도 이 개가 마 난리를 하고 막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아저씨 가랑이를 물어뜯고 왔다 갔다 하는데, 저는 흙더미에 깔려버렸어. 아저씨는 도망 나오고. 개를 보고,

"애가 왜이래?"

하고, 나오는 찰나에 무너져뻤어. 그래가 그 아저씨가 개를 꺼내갖고 지금은 신주단지 모시듯이 그 주인아줌마하고 둘이 그렇게 개한테 잘한대.

*김승유 외, 『가덕도의 민속문화1 –눌차동』, 국립민속박물관, 2021, 207쪽.

[강서구 설화 26]

죽어 뱀이 된 어머니

차춘순(여, 1947년생) 구술
2020년 11월 6일 채록
[가덕도동(눌차동) 정거마을]

이 할머니가 지독-하게, 참 지독하게 살았어. 자식 키운다고. 지금 말하면 여행도 한 번 몬(못) 가보고. 그라는데 인자 오로지 방, 일, 방, 일 이것만 하고 살다가 돌아가싰는데, 옛날엔 삼년 제상을 모아 모셔놨다 아이가? 근데 할머니 돌아가시고서는 얼마 안 있은께 큰- 능글이(구렁이)가 만날 이 밥상에, 여 제상에 올라. 제청이라 하나? 그걸 보고. [조사자: 빈소예?] 응. 거기 올라 앉아 있는 기라. 그 아무래도 자식이, 아들이 생각해도 이상하고, 뱀이를 끌어다 저 내비려 놓으면 또 요 상에 올라앉아 있고, 올라앉아 있고. 이래갖고서는 저저 며칠 걸렸겠지.

그런데 아들 꿈속에서 어머니가 세상 구경을 몬 해서 저승에서, '이접때까지(이때까지) 뭐하고 살았느냐?'고, '세상 구경도 몬 하고 뭐하고 살았냐?'고 '내려가서 세상 구경하고 오라.'고 그래 보냈다 캐. 뱀으로다가. 근께 아들이 망탱이에다가 울러메고 콱- 마마 오만 때만 데 다 돌아댕기갖고 여어다(여기다) 딱 갖다놓은께로 스르륵 갔삐더란다(가버리더라). 그런께 여행도 가야 되고, 잘 먹어야 되고. 그런 말이 있었어.

*김승유 외, 『가덕도의 민속문화1 –눌차동』, 국립민속박물관, 2021, 207~208쪽.

[강서구 설화 27]

욕심이 많아 뱀으로 환생한 어머니

차춘순(여, 1947년생) 구술
2020년 11월 6일 채록
[가덕도동(눌차동) 정거마을]

할매가 또 마 욕심도 많고 마 이래갖고, 참 마 어떻게 살만하게 해갖고서는 이 집 저 집 돈을 빌려줬는데, 지금 말하면 이자겠지? 없는 사람들 빌려주고, 있는 사람도 빌려주고. 근데 할매가 갑자기 죽어난께 누구네 돈 빌려준 걸 모르잖아? [청중: 모르지. 그래 죽어뿌면. 갑자기 죽어삐면.] 근데 뱀이가 되갖고 그 집에만 나타나는 거여. [조사자: 빌려준 돈 받으려고?] 지 돈 쓰고 안 준 집만 나타나는 거여. 근께 생각지도 않은 돈이 집에 들어와. 그 낸중에(나중에) 알고본께 저거 엄마가 뱀이가 되갖고서 자-꾸 찾아가. 근께 그 집에서 안 되겠으니께 돈을 갖다주고, 갖다주고.

옛날에는, 지금은 어른들이 그러잖아. 지금은 뭐뭐 참 불도 밝고, 차도 많고, 사람도 많고 한께 그게 없어져서 그렇지. 옛날에는 진짜 흔했다 카더라.

*김승유 외, 『가덕도의 민속문화1 –눌차동』, 국립민속박물관, 2021, 208쪽.

[강서구 설화 28]

오는 손님 못 오게 해 망한 집

차춘순(여, 1947년생) 구술
2020년 11월 6일 채록
[가덕도동(눌차동) 정거마을]

하도 손님이, 가정집에 손님이 많이 오니까 며느리가 밥 해주기도 귀찮고, 마 손님 대접하기가 귀찮은 기야. 그런께 스님이 시주를 왔더라 캐.

"스님, 스님. 우리 집에는 사람이 너무 와서 내가 힘이 들어서 못 살겠다."

고,

"손님 안 오는 방도를 알으켜(가르쳐) 주세요."

이런께, 아침에 밥할 때 쌀 이는 거, 지금은 쌀을 안 일잖아? 옛날에는 이래 일었잖아? 그 일은 찌꺼기를, '쌀낱을 아궁이다 부어라.' 하더라 캐. 불 떼는 아궁이로. 그런데 스님이 시키는 대로 계속 불을 떼니까, 그 집이 폭-삭 망하니께 손님이 안 오더래.

[조사자: 그 쌀알을 원래 아궁에 넣으면 안 되는 갑다. 그지예?] 근께 말하자면 힘들게 농사지은 거 함부로 한다 해서 그러겠지. 그게 인제 어른들은 우리 젊은이들 보고 아껴 먹고 버리지 말란 소리겠지.

*김승유 외, 『가덕도의 민속문화1 –눌차동』, 국립민속박물관, 2021, 208쪽.

[강서구 설화 29]

고려장이 없어진 내력

차춘순(여, 1947년생) 구술
2020년 11월 6일 채록
[가덕도동(눌차동) 정거마을]

아들이,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옛날에는 지금같이 이래 초상을 안 치르고 옛날에는 지게에, 산에 지고 가서 묻었대요. 묻었는데 인자 손자가 따라갔는 갑지. 그래가 손자가 따라갔는데, 저거 인자 할머니를 인자 묻고. [청중: 살았어.] [조사자: 살았다고요?] [청중: 살았어.] 그런께 살았던가? 말던가? 하여튼 그 아들이 저거 엄마를 산에 묻고 지게로 버리고 오니까, 손자가,

"아버지, 왜 지게로 버리고 갑니꺼?"

인자 저거 아부지를 보고 그랬대. 그런께,

"아부지, 있다가 저거 지고 가서 [웃음] 내삐리야 되는데, 왜 내삐리고 가냐?"

그러더라대. [청중: 맞아.] 내 그 소리가 기억이 난다.

[청중: 아부지, 왜 그 지게 버리고 갑니까? 나두 아부지.] 그래. 그래. [청중: 할머니만 지고. 나이가 들면 져다 내삐리야 되는데.] 그래. [웃음] [청중: 나도 아부지 거기 여다 고려장 시키야 되는데 왜 지게를 버리고 갑니까?" 그래 아들이 주워갖고 와갖고 그때부터 고려장이 없어졌다 카대.] [웃음]

*김승유 외, 『가덕도의 민속문화1 –눌차동』, 국립민속박물관, 2021, 208~209쪽.

[강서구 설화 30]

아이를 넣어 만든 에밀레종

차춘순(여, 1947년생) 구술
2020년 11월 6일 채록
[가덕도동(눌차동) 정거마을]

그 뭐 땜에 에밀레종이 나왔는가 몰라. 그래갖고서는 여기서 종 만들어도 소리가 안 나고 저기서도 종 만들어도 소리가 안 나는데, 저 그 애기를 갖다가, 어느 스님이 그 애기를 갖다가 이래 '쇳물 녹히는 데다 애기를 넣으면 소리가 난다.' 이래갖고서는 참 그 집에서는 뭐 땜에 그 애기를 거기를 봉양을 했는가봐. 그러니께 그 종을 만드는데 거기서,

"에밀레-, 에밀레-."

인제 말하자면 옛날 말로 그 애가 애미를 원망한다는 뜻에서,

"에밀레-, 에밀레-."

했다 캐.

*김승유 외, 『가덕도의 민속문화1 –눌차동』, 국립민속박물관, 2021, 210쪽.

[강서구 설화 31]

밤길을 밝혀 준 호랑이

차춘순(여, 1947년생) 구술
2020년 11월 6일 채록
[가덕도동(눌차동) 정거마을]

친구가 호랑이를 만났는데,

"앙-."

하고. 이북에서 건너온 저 우리 친구 걔도 내보다 1년 학교, 그 아 6학년 때 내 5학년이었거든. 근데 그 아부지는 농방을 했어. 근데 그 엄마는 요-만한 박스에다 이고 댕기면서 도부장사를 하는 거야. 실, 비누, 검은 비누 있잖아? [청중: 예.] 그런 거 갖고 댕기면서 팔고. 촌에서 쌀 한 되배기씩 주면 그거 받아다 놓고 이랬는데.

우리 동네 그거 저 소라실이라고, 이름이 소라실이라고 있어. 근데 거가(그곳이) 이렇게 산길인데,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내려와. 근데 거기 사람들이.

"여 하룻밤 여기서 자고 가요."

이러니까. 저 안 된다고.

"집에 애기가 있어서 안 된다 가야된다."

이랬다 캐. 캄-캄한데 이상하게 훤하더란다 길이. 길이 훤해서 뒤돌아본께 후라쉬만치로 이런 것이 두 개가 길을 밝혀주더라 캐. [청중: 호랑이가 길을 밝혀줬는 갑다.] 응. 호랑이가 밝혀 줬어. 그러니께 이 엄마가 얼마나 무섭겠니? 실지라 해. 그래가지고서는,

"나는 죄 지은 것도 없고. 죄 지은 거라고는 북한에서 넘어와서 없이 사는 죄밖에 없고, 못 먹고 살아서 이 장사 댕기면서 새끼하고 먹고 사는 죄밖에 없다."

고, 막- 입에서 궁실궁실 하면서 왔던 모양이라. 동네 앞에 오니까네 그게 없어지더래. 실지래. 진짜 겪어 봤다 캐. [청중: 도와줬는 갑다. 저저 호랑이가 불을 켜갖고.]

*김승유 외, 『가덕도의 민속문화1 –눌차동』, 국립민속박물관, 2021, 210~211쪽.

[강서구 설화 32]

우렁각시

차춘순(여, 1947년생) 구술
2020년 11월 6일 채록
[가덕도동(눌차동) 정거마을]

우렁각시 그거 저, 우렁을 갖다 놨다. 큰 고동을 갖다 놨다 하지요? 그랬다 하지요? 근데 큰 우렁을 한 마리 잡아다가 안방에다 갖다 놨는데, 아 남자가 일하고 오면은 밥이 돼있고 밥이 돼있고 이래. 그래서 인제 주는 대로 잘 먹었어. '누가 와서 해 논다. 해 논다.'고 잘 먹었는데 난중에는(나중에는) 이 남자가 지켜봤어. 숨어갖서는. 그런께 그 우렁에서 여자가 슬- 나와서 밥 해놓고 다시 들어가고 이러더라 캐. 그래 난중에는 콱 잡았다 카대. 잡아갖고 결혼해서 잘 살았다 카는 그게 바로 우렁각시라. 그러니까 우리 넘 모르게 음식 갖다 놓으면 '우렁각시가 갖다놨는 갑다.' 이러잖아.

*김승유 외, 『가덕도의 민속문화1 –눌차동』, 국립민속박물관, 2021, 211쪽.

[강서구 설화 33]

언젠가는 복이 온다

차춘순(여, 1947년생) 구술
2020년 11월 6일 채록
[가덕도동(눌차동) 정거마을]

옛날에 하-도 없이 사는 사람이, 아들이 몇이 되는데 나가면 빈손으로 오는 거여. 아버지가 보니까. 그래 아부지가,

"나가면 이놈아 돌떵이(돌덩어리)라도 하나 주워다가(주워서) 마당에 모아놔라."

이래 됐는 기라. 그런께 한참 교육을 그래 시켰겠지. 근께 아들들이 나가면 무조건 돌맹이 한 개

씩 주어다 저기다 쌓아놔. 집에다 쌓놨는데 그 속에 금덩어리가 들었더라 안 하대요? 저거가 볼 때는 돌떵이라. 근데 넘이(남이) 보면 그게 금떵이요. 근께 '언젠가는 복이 온다.' 이 소리라.

*김승유 외, 『가덕도의 민속문화1 –눌차동』, 국립민속박물관, 2021, 211쪽.

[강서구 설화 34]

호식 당한 아기

차춘순(여, 1947년생) 구술
2020년 11월 6일 채록
[가덕도동(눌차동) 정거마을]

어디서 어디까지 버스를 타고 오는데, 호랑이 앞을 가로막고 [청중: 아줌마 잘하네.] 길을 안 비켜. 나 들은 얘기요. 사랑방이라 안 하나 우리 집이. [청중: 그런께. 그래도 들어도 기억을 잘 한다고.] 그래갖고서는 호랑이가 버스 앞에 앉아서 길을 안 비켜주고 있으니까, 차가 오도가도 못 했는데, 그 버스 탄 중에서는 어떤 할머니가,

"다 내리라. 호랑이가 누구, 여기 이 안에 누구가 지 밥이 하나 있는 갑다. 다 내리라. 다 내리라."

이라더라 캐. 차가 못 가니까, 가운데가 떡 버티고 앉았으니까. 그래가지고서 차 있는 사람이 싹 - 내렸는데 애기한테 가더라 캐. 호랑이가. 그래 애기 던져주니께 애기 데리고 가더라 캐. [청중: 우짜껬노.] 그래가 갔다 카대. 그 호랑이가. [청중: 해필 애기를 덱고(데리고) 갔나보네.] 근께 애기가 호랑이 밥이야.

*김승유 외, 『가덕도의 민속문화1 –눌차동』, 국립민속박물관, 2021, 211쪽.

[강서구 설화 35]

까치 머리가 벗겨진 이유

차춘순(여, 1947년생) 구술
2020년 11월 6일 채록
[가덕도동(눌차동) 정거마을]

견우와 직녀가 서로 만날라 하니까, 강이 가운데가 있으니까 못 만나는 거여. 근께 이쪽에서

쳐다보고 이쪽에서 쳐다본께 너무 애닯으니까 까치들이 저저 돌을 머리에다, 돌을 머리에다 이고서는 인자 오작교를, 다리를 놔주는 거요. 그런께 까치 몇 월 며칠 되면 까치 이게 벗어진다대. [조사자: 7월 7일.] 그래 칠석날에. 그래서는 까치 대가리가 그래서 벗어진다 캐. 이 다리 놔준다고 돌 실어 날라서.

[청중: 옛날에 까치가 진짜로 아지매 돌로 이고 댕깄겄나?] 근께 너는 저 가봤나? 견우 직녀 봤어? [웃음] 인제 그러니께 이렇게 지금은 우리 전기 때문에 안 보이지만, 촌에서 보면 별이 얼-마나 많대. 그러면 거기 하-얗게 줄이, 이렇게 띠가 있잖아? 그게 여 우리로 말하면 강이라 강. 근께(그러니까) 요짝에서 요짝에서 이것 땜에 못 건너가니까 까치가 다리를 놔주는 거여. 견우와 직녀가 만나게.

*김승유 외, 『가덕도의 민속문화1 –눌차동』, 국립민속박물관, 2021, 212쪽.

[강서구 설화 36]

수숫대가 빨간 이유

차춘순(여, 1947년생) 구술
2020년 11월 6일 채록
[가덕도동(눌차동) 정거마을]

어느 집에, 이 집이 하도 못 살으니까 어느 집에 일을 해주러 갔는 갑대. 갔는데 인제 이 형편이 어렵고 저 집은 좀 넉넉한 집안이고 이러니까 그날 떡을 해먹었든가 어쨌든가, 인자 집안의 애들 갖다 주라고 떡을 줬겠지. 그쟈? 그런께 산 넘어 오다가니 호랑이를 만나가지고 호랑이가,

"떡 한 개 주면 안 잡아먹지."

이런께,

"이 떡은 우리 애, 이만 이만한 애들 줄 낀데."

인자 자꾸 달라고 오면서, 쫓아오면서 '안 잡아먹지, 안 잡아먹지.' 하나씩 주고, 한 개 주고, 한 개 주고 한께 다 먹혀버렸어 호랑이한테.

그러고 인자 엄마는 엄마대로 잡아먹히고. 근데 인자 호랑이가, 인제 애기들이 이제 집에서 인제 여 집에서는 엄마를 기다리고 있는데.

"엄마 왔다."

하니까는, 목소리가 틀리거든. 근께(그러니까),

"우리 엄마 목소리 아니네."

이래 됐는 기라. 그런께 손을 보자 했는 기라 애들이. 그럼 손, 호랑이 손을 비이는데(보이는데),

"우리 엄마 손 아니네. 우리 엄마 손은 이런 손이 아니고 털손이 아닌데, 우리 엄마 손이 아니

네.”

그런께 저저 호랑이가 어찌 해갖고 이 문을, 뭐 하도 오래돼서 모르겠다. 그래가 하여튼 이 애기들이 인제 어떻게 호랑이한테 인제 잡혀먹힐 정도가 돼뻤어. 그런데 이 남매가 어디다 인자 기댈 데가 없잖아. 사람이 다급하면. 그러니께,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살려줄라면 새 동아줄을 내려주고, 우리를 죽여줄라면 헌 동아줄을 내려주고.”

이러니께, 새 동아줄이 스르르륵 내려오더라 캐. 그래 애들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을 거 아니가? 남매가. 그라고 호로록 올라가뻤는 기라. 그런께 호랑이가 이렇게 올려다보니까 애들이 그래 올라가는 기라. 그래 호랑이가,

“하나님, 하나님. 죽여줄라면 헌 동아줄 주고, 살려줄라면 새 동아 주라.”

하니까, 헌 동아줄을 내려주더라 캐. [웃음] 그런께 중간에 올라가다가 호랑이가 뚝 떨어졌어. 그런데 그 밑에가 어디냐면 수수밭이라. 수수, 이래 수수 비고(베고) 나면 이만치가 나무 꼬챙이 있잖아? 하필이면 호랑이가 거가 찍혀버렸어. 그래서 수수가, 이 수숫대가 빨갛잖아. [청중: 예.] 그게 호랑이 피래. [웃음] [청중: 아-! 참 이야기 순 공갈(거짓)이야기다.].

*김승유 외, 『가덕도의 민속문화1 –눌차동』, 국립민속박물관, 2021, 212~213쪽.

[강서구 설화 37]

나무꾼과 선녀

차춘순(여, 1947년생) 구술
2020년 11월 6일 채록
[가덕도동(눌차동) 정거마을]

나무꾼이 나무를 하러 갔는데 옹달 산고랑탱이(산골짜기)에 물이 졸졸 내려오는데 보니께 예쁜 여자들이 목욕을 하는 거야. 근께 말하자면 날개옷이라고 하잖아. 그 옷을 함부로 감챠뻤어(감췄어). 근데 다 올라갔는데 하나가 못 올라갔어. 근께 그 남자가 인자 장가를 못 가갖고 저 산꼬랑(산골짜기)에서 나무나 해 팔고 이러는 사람인데 거짓말로 인자 찾아간 거요 그 사람한테. 그래갖고서는 인자 그 옷 감췄다 소리를 안 하고서는 인제,

“지는 어디어디 사는 사람인데 이래이래 하니까네 같이 살자.”

이래가지고 같이 살았어. 살았는데, 그 꿈에 대해서 말하면 돼. 같이 살았는데 신령님이 나타나갖고,

“애기 서이 나면은 날개옷을 주되, 둘 나면 주지 마라.”

이래 됐는데, 이 남자가 방정을 지기. 둘 낳는데 주뻤어(줘버렸어). 그런께 양쪽에 안고 올라

갔다. 세 명 나아야 못 날라 가는데, 두 명 낳고서는 나무꾼이 옷을 내주니까 이래 아를 끌어안고 올라가뻤어(올라가버렸어).

*김승유 외, 『가덕도의 민속문화1 –눌차동』, 국립민속박물관, 2021, 213쪽.

[강서구 설화 38]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곶감

차춘순(여, 1947년생) 구술
2020년 11월 6일 채록
[가덕도동(눌차동) 정거마을]

할마이가 애를 보는데 애가 하-도 울더란다. 울으니까 인자 할매가 이걸 줘도 울고, 저걸 줘도 울고 이라니까, 인자 할매가 저 벽장에서 곶감을 하나 내갖고 오니까, 호랑이는 인제 마당에서, [웃음] 호랑이는 애를 주서 먹을라고(주워 먹으려고) 왔는가? 잡아먹을라고 왔는가? 하여튼 마당에 쪼글트려(쪼그려) 앉아있는데 할머니가,

"아나(이거) 곶감 줄게, 곶감 줄께."

한께, 아가 울음을 뚝 끈치더라(그치더라) 캐. 그런께 마당에 있는 호랑이가, '와이구, 내보다 더 무서운 놈 있는 갑다.'고, 도망가더라 캐.

*김승유 외, 『가덕도의 민속문화1 –눌차동』, 국립민속박물관, 2021, 213쪽.

[강서구 설화 39]

게에게 밑을 물린 며느리와 시아버지

차춘순(여, 1947년생) 구술
2020년 11월 6일 채록
[가덕도동(눌차동) 정거마을]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조밭을 매러 갔어. 조밭을 매러 갔는데, 며느리가 오줌이 마려운께 쌩-하게 가서 엉덩이를 까놓고 오줌을 눴는데, 아이고 육지 게, 빨간 게가 마 꽉- 물어뻤는 기라. 그런께 얼마나 아프겠노? 그기를 물어놨으니. 그런께 마 일어나가. [청중: 물어도 딴 데를 안 물고 밑에를 물었다 하대.] 응. 이러고 까고 앉아서 오줌을 싼께 거기를 물어뻤는 기라. 해필이

면 게 구녕(게 구멍)에 쌌는 갑지. [웃음] 이러니까 여기를 꽉 물어삐니까,

"아야! 아야!"

하고서는, 며느리가 죽는 소리할 꺼 아닌 가배. 그런께 시아버지가 달려오는 거요.

"와 그러노?"

한께,

"아부지, 여기 여기."

이러니께 아부지가 요러고(요렇게) 디다보니께 끼가 한쪽 다리는 며느리 보지 물고 있고, 한쪽 다리는 시아부지 입술을 꽉 물어뻤는 기라. [웃음] [조사자: 난감하다 그지예?] 얘기가 그렇지. 진짜는 아니겠지. 나도 들은 소리야.

그러니까 이놈의 게가, 양쪽 다리가 이래갖고 이 놈은 입술 물고, 이놈은 며느리 그걸 물고 있으니까 어떡할 거요? [조사자: 그래 어째 됐는데예?] 그래 지나가는 사람이 잡아줬다 안 하나 그걸.

*김승유 외, 『가덕도의 민속문화1 –눌차동』, 국립민속박물관, 2021, 213~214쪽.

[강서구 설화 40]

과부가 된 모녀와 장사꾼

차춘순(여, 1947년생) 구술
2020년 11월 6일 채록
[가덕도동(눌차동) 정거마을]

엄마도 과부, 큰딸도 과부, 작은딸도 과부, 과부가 서이가 사는데 장사가 하나 들어왔어. 말하자면 비단장사 왕서방만치로(왕서방처럼) 장사가 하나 들어왔는데, 인제 이 장사하는 사람이,

"내하고 이래이래 하는 사람은 하나 둘 시가면서(세어가면서) 하되, '억'을 시 번(세 번) 내면 지 물건 다 주겠다."

해. 지 지고 간 물건 다 주겠다 캐. 이 젊은 놈부터 순서대로 차례로 건드린께 '억' 소리가 안 나오는 기라. [웃음] 목소리가 안 나온께.

"에이, 니년은 재미없어."

"니년 재미없어."

다 마친께(마치니), 지 엄마한테 가뻤는 기라. 마지막으로. 지 엄마한테 가니까, 아이 이 놈이 들어가도 안 했는데 지 엄마가 '억' 해뻤는 기라. [웃음] 이 젊은 애들은 경험이 없고, 인자 [청중: 엄마는 좋다고 그 소리가 나왔다. 이 말인 거네.] 이 사람은 경험이 있으니께, 인제 오랜만에 하니까 좋다고 '억' 소리를 해뻤는 기라. [웃음] 그런께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야 이년아, 하나도 안 넘어갔는데, 무슨 '억'이고."
[웃음] 그 소리가 이때까지 안 잊혀져.

*김승유 외, 『가덕도의 민속문화1 –눌차동』, 국립민속박물관, 2021, 214쪽.

[강서구 설화 41]

어느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대화

차춘순(여, 1947년생) 구술
2020년 11월 6일 채록
[가덕도동(눌차동) 정거마을]

경상도 사람 며느리를 얻었는데, 시아버지가 저 건너에다 배를 대줘야 돼. 며느리가 어디 간다 한께,
"아버님예, 저 어디어디 갑니다. 배 좀 태워다 주세요."
그런께,
"오냐, 알았다. 요것아."
배를 통통 거리고 노를 저어서 가는 거야. '저쪽에 좀 대주세요.' 이 말을 갖다가 며느리가,
"아버지, 죠 끝트머리 대주세요." [일동 웃음]
한께네,
"오냐. 너 씹 끝트머리 대줄게." [일동 웃음]

*김승유 외, 『가덕도의 민속문화1 –눌차동』, 국립민속박물관, 2021, 214~215쪽.

[강서구 설화 42]

도깨비로 변하는 몽당 빗자루와 도깨비불

김갑년(여, 1940년생) 구술
2020년 11월 6일 채록
[가덕도동(눌차동) 항월마을]

옛날에는 호롱불 켜고 이래 불이 없으니까 구신이(귀신이) 났지. 옛날에는 귀신한테 홀리는 것도 옛날에 전기불이 없었잖아? 그러니께로 호롱불 쪼깨(조금) 이런 거 피우는 것도 있고 촛

불도 켜고 이랬지. 불이 없으니까네 귀신이 많이 나는 거라. 지금은 총총 전기가 있으니 뭐 구신이 날 일도 없고. 그래 주로 그런 소리는 하지.

빗자리, 그기 토채비가 그서 나는 거라. 그거를 해칭이라 하거든. 해칭이가 구신(귀신) 아이가? 그 빗자리 몽둥이에 피가 묻어가지고. 해칭이 그기 한마디로 하면 구신인 기라. 그기 인자 우리가 보면 보면은 번쩍번쩍하이 날라댕긴다 했거든. 그기 날라댕긴다고 우리가 "해칭이 났다." 하거든. 구신이 났다. 그라면 오늘은 비가 오겠다. 어쨌겠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지.

*김승유 외, 『가덕도의 민속문화1 –눌차동』, 국립민속박물관, 2021, 191쪽.

[강서구 설화 43]

지킴이가 떠난 뒤 망한 집

김갑년(여, 1940년생) 구술
2020년 11월 6일 채록
[가덕도동(눌차동) 항월마을]

우리 동네 그런 게 많이 있었어. [청중: 남해?] 남해. 집이 망할라 하면 찌끼미가 눈에 보인다. 남해에서 메르치(멸치) 잡았는데 잘 살았어. 우리하고 한 동갑이라. 가가(그 아이가) 딸이 서인가? 너인가? 이랬는데, 결혼하고 살고, 아들이 하나 현우라 카는데, 그 캤는데, 그래가 저 그 어매(어머니)하고 저 그 아배(아버지)하고. 저 그 애배가 술을 참 좋아하데. 우리 어매가 그 가서 멸치 말고 호래기하고 그 뭐라 하노? 미끄러운 고기 그거하고 발이 기단한(긴) 것. 그거 삶아 내어 놓으면 그거 개라주로(가려주고) 이래 하는데.

그래 고게 담에 거서 기이나오데. 우리 봤거든. 뱀이 크-데 누러이 해가지고 마 기 나와가(기어 나와서) 오데로(어디로) 가뿠는고 없대. 그래가 그질로(그길로) 홀딱 망해뿌고 멸치도 안 잡히고. 그래갖고 그 집이 홀딱 망해뿌대. 그래 어마이 아바이 죽어삐고, 머슴아도 마누래(마누라) 가삐고, 장애인 놓고 이라대. 우리 한동갑이 머슴아가.

*김승유 외, 『가덕도의 민속문화1 –눌차동』, 국립민속박물관, 2021, 200쪽.

[강서구 설화 44]

자기 제사에 가는 귀신

김갑년(여, 1940년생) 구술

2020년 11월 6일 채록
[가덕도동(눌차동) 항월마을]

옛날에 옛날에, 안골이라 카는(하는) 동네가 있었어. 요 안골이라 카는 동네가 있었는데, 진해 택시가 인자 밤 늦가에(늦게) 인자 영업을 하는데, 손님을 인자 끌고 차를 타고 인자 요래 용원 쪽으로 넘어오는데, 그 이야기는 내가 들었어.

넘어오는데 어느 누가 하내이(한 명이), 여자가 하내이 딱 실리더래. 그래가 딱 실맀는데(실었는데) 그래,

"안골로 가자."

카더라 이래. 그래가지고 안골로 갔는데, 그래 어느 집 앞에 딱 댔는데 차비도 주도 안 하고 그 사람은 흔적도 없고. 그래서로 '아차, 이상하다.' 싶어서로 택시서 기사가 내렸어. 내려가지고 불이 빤하이 켜지가 있는데 그래 들어가니까네, 그 여자가 지 차에 탄 여자 제산 거라. 지 죽은 날짜 제산 기라. 그런께 제사 물 먹으러, 밥 먹으러 왔는 기라. 밥 먹으러 왔는 기라. 그래서 인자 갔어. 가이께네 막 엄마캉(엄마와) 뭐 등등 그런께(그러니까) 그 애가 죽은 거겠지. 그쟈? 엄마캉 등등 그래. 그래서 '사실은 이렇다.' 이라니까네,

"우리 딸애다."

하더란다. 그러면서 차비를 인자 배를 얹어주더란다. 얹어주고 그 기사가 인자 왔는데, 저거 집을 갔는데 그 다음부터 너무너무 잘되더란다. 집이 너무너무 잘되더란다. 지 영업이 하는 일이고, 지 하는 일이고 그 인자 귀신이 인자 도와줐는 거라. 지 거부 안 하고 지 밥 얻을 묵을 장소까지 딱 실어다주고, 저거 부모한테 돈 받아가, 차비 받아가고. 그래갖고 너무너무 지도 잘되고 지 영업하는 데도 잘되고. 그 이야기는 한 번 들었어.

*김승유 외, 『가덕도의 민속문화1 –눌차동』, 국립민속박물관, 2021, 200쪽.

[강서구 설화 45]

정성을 들여야 하는 제사

김갑년(여, 1949년생) 구술
2020년 11월 6일 채록
[가덕도동(눌차동) 항월마을]

그 제삿밥에 머리카락 들어가면 구신(귀신) 눈에는 뱀이 들은 거로 보인다더라. 그래 샀더라. 그래갖고 제사할 때는 절대 머리카락 들어가면 안 된다고 많이 그걸 하지. 주위로(주위를) 많이 하고, 뭐를 딱 단속을 하고.

제삿밥에 머리카락이 들어가면 구신이 밥 안 먹었어. 구신이 응감을 안 한대. 머리카락이 들면은 그 밥을 안 먹는대. 구신이 먹는지 안 먹는지 우리가 그 저 뭣이고? 혼이, 날라댕기는(날아다니는) 혼니 내미를(냄새를), 내미를 안 맡나봐. 몰라, 그래 샀더라. 그런데 응감을 안 한대. 그 날은 그러니께 마이(많이) 그거를 하지. 정성 들여가 하지. 정성을 들여가.

*김승유 외, 『가덕도의 민속문화1 –눌차동』, 국립민속박물관, 2021, 203쪽.

[강서구 설화 46]

도깨비로 변하는 몽당 빗자루와 도깨비불

임승민(남, 1952년생) 구술
2020년 11월 6일 채록
[가덕도동(눌차동) 항월마을]

여 사람이 옛날에는 많이 죽었잖아. 그러니까 인이, 인자 피거든 피. 피가 인자 이런 비가 오던지. 날씨가 우기가 끼던지 하면 그게 불을 일으킨대. 그래 옛날에는 막 불떵거리가(불덩이가) 막 오고가고.

빗자리 몽댕이가 도깨비가 되는 거는, 보통 보면은 옛날에는 이런 의자가 없고 여자들이 빗자루 몽댕이 깔고 앉다 보면은 한 달에 한 번씩 그 비가 배여갖고 그기 이루어진 모양이야. 가만히 추측해 보면 이야기는 아무것도 없는데 빗자리가 귀신이 되는 거는 아이거든. 그런 이야기는 가끔가다 들어. 옛날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하지.

*김승유 외, 『가덕도의 민속문화1 –눌차동』, 국립민속박물관, 2021, 191쪽.

[강서구 설화 47]

진우도의 소리 내는 귀신 바가지

임승민(남, 1952년생) 구술
2020년 11월 6일 채록
[가덕도동(눌차동) 항월마을]

하얀 바가치가 옛날에 진우도. [조사자: 진우도?] 저게 옛날에 그 저 사람들이 많이 죽고 이랬거든. 옛날에 그 저 미국하고 일본하고 마 이래 싸움 붙어갖고, 이래갖고 사람들이 많이 죽게됐

거든. 그래갖고 그 당시 때 사람이 죽은 영장도 있었고, 태풍이 와갖고 사람도 많이 죽고 이랬거든.

근데 이게 인자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한 번씩 거기에 놀러가고 인자 이랬는데, 놀다 오기도 하고 이랬거든. 근데 옛날에 인자 할매들 이야기 함 들어보면, 할매들이 인자 그 저 진우도 가갖고, 아주 옛날에 하얀 바가치가(바가지) 옛날에는 이런 바가치가, 옛날에는 바가치가 이기 귀했거든. 그래 인자 하얀 바가치라고 가져와갖고 집에다 갖다놨어. 그래 인자 깨끗하고 인제 이래 해논께(하니까) 사람이 본래. [웃음]

그래갖고 인자 바가치라고, 하얀 바가치라고 갖다가 옛날에는 이래 선반이 있었어. 옛날에는 이래 뭐 물건도 놓고 뭐 그 한 것도 놓고 인제 이래 선반을 이리 놔놓고 이랬는데, 근데 선반에 놔놓고 봄이 되고 이라니께, 비도 부슬부슬 오고 이래 했는데, 방에서 자고 이래 했는데, [웃음] 그래 그기 인자 밤에, 인자 낮인데, 낮인데,

"씨코, 씨코."

해. 이래 하더라네. 그러면 무슨 그긴고? 그거는 모르고 인자. [청중: 바가지가 그라는데 그라면 어찌 뜻을 알 것고?] 잠결에 깨보니까 사람도 아무도 없는데, 사람도 아무도 없는데 이상하게. 또 우리가 매우면 또 '호-' 이렇게 하듯이 그랬던 모양이라. 그런데 인제 사람도 아무도 없는데, 그래서 인자 보니까 선반에 아무것도 없는데, 선반에 인자 나놨더만 하 조사를 하니까 그 인자 그 바가치 안에다가 꼬칫가리를(고춧가루를) 항거썩(가득) 담아놨더래. [웃음] 꼬칫가리를 담아놨더만 그 꼬칫가리 말고 다른 거는 아무것도 없는데 꼬칫가리밖에 없더라네.

그래 인자 언뜻 생각이 나서 하얀 바가치 그기다가 인제 했는데, 막 그게 시그리가 불이 부찍부찍 나잖아. 그러고나서 보니께, 어떤 데 보니께, 인제 생각에 그 인제 영장 그긴 줄 알고 그래 인자 그걸 빼가 없애뻤다네(없애버렸다네). 그러고 난 뒤에 아무 그게 없더라 카네. 그런 거 한 번 내 들었어. 그런 거를 들어보면은 사람이 구신이 없다고 볼 순 없는 모양이라. 그 실찌라(실제라).

*김승유 외, 『가덕도의 민속문화1 –눌차동』, 국립민속박물관, 2021, 194~195쪽.

[강서구 설화 48]

복숭아 동자 정도화

김두선(남, 1917년생) 구술
1991년 7월 14일 채록
[가덕도동(대항동) 대항마을]

고마 옛날에 옛날에 인자 메느리하고 시아바이하고 살았거든. 인자 외동아들로 결혼을 시켜

놔놓이까네, 이 외동아들로 영감 할마이 둘이 살면서 외동아들 하나 키아갖고 결혼시켜 놔놓이까네 아들 마 죽어뻤는 기라. 죽어삐니까네 아도 하나도 안 놓고 아도 하나도 안 놓고. 인자 젊은 메느리하고 시아바이하고 천상 살 수밖에 없는데, 이 어마이도 죽고 아들도 죽고 그래서 둘이서 사는데, 그래 인자 지녁만(저녁만) 되면 할배가, 시아바이가 고기를 낚으러 가는 기라. 망태를 메고. 망태를 메고 고기 낚으러 가더든, 그라면 꼭 고기 한 마리썩 낚아 오는 기라. 낚아가 와서로 시아바이한테 딱- 꾸가(구워서) 시아바이 판에 놔가(놓아) 며느리하고 시아바이하고 둘이 먹는 기라. 둘이 묵고(먹고) 이라는데.

아! 그 잊자뿠다. 가만 있거라. 둘이 그래 사는데 몬 살아가지고 저 부엌에 이런 이런 큰 기둥이 하나 있었는 기라. 부엌에 쪼그만한 오두막에 있었는데 그다 망태를 걸어놓고 낚싯대 들고 나가면 한 마리썩 딱 낚아오는 기라. 한 마리 이상은 몬 낚는 기라. 딱 한 마리 낚아가 오면 고 꾸가 시아바이하고 며느리하고 둘이 반찬을 하고 그래 낚아가 오면 며느린 다른 일로 하고 있는데, 기둥에다 못을 박아놓고 못에다 딱 망태, 고기 망태를 걸어놓는 기라. 요새 치면 고기 넣는 도구다. 예전에 망태라 하거든. 그래 걸어놓는데 메느리가 밥을 하러 나오면 거가 한 마리, 딱 들다보면 있는 기라. 그래가 인자 달아가 꾸갖고 인자 아바이하고 둘이서 반찬을 하고 매일 그라는 기라. 매일 그라는데 한 이삼년 그라고 나디만 하루는 고기 낚으러 가니까 아무 고기가 안 낚이는 기라. 안 낚이고 복숭, 복숭이 하나 금방 낭게서(나무에서) 딴 거 같은 복숭이 하나 물에 떴는 기라. 뜨디마는 탁 낚싯대를 떤지이 그게 딱 걸리 올라오는 기라. 그래가 그걸 낚아가지고 어찌 싱싱한 지 고마 망태 달아가 왔는 기라.

담아가 집에 와가지고 또 마 며느리한테, 나 그거 가왔다(가져왔다) 소리도 안 하고 망태 그 걸어놨는 기라.

인자 며느리가 지녁(저녁)에 밥을 할라꼬 떡 나와보이, 망태 열어보이 고기는 없고 복숭이 하나 있거든. 복숭이 어떻게 좋은지 고만 메느리가 시아바이한테 말도 안 하고 고마 지가 묵어뿠다. 지가 묵어뿠는데 그 묵은 후로부터는 마 배가 도닥도닥 불러오는 기라. 임신, 임신이 됐는 기라. 임신이 되가 배가 불러와. 그래 오니까네 인자 아무도 엄꼬(없고) 인자 메느리하고 시아바이하고 둘이 사는데 메느리가 배가 불러오이까네, 동네에서 보면 후쳐낼라까거든(쫓아내려 하거든). 나쁜 짓, 시아바이하고 나쁜 짓 해가 알라(아기) 가짔다고. 동네에서 들낼라카거든. 들낼라꼬 막 양 사방에서 쑥덕거리고 막 굉장하거든.

그래 해도 인자 마 차마 못 들내고 참 십 개월이 갔는 기라. 그래 가가지고 인자 배가 부른께 인자 마 알라를(아기를) 놓게 된다. 그래 인자 '아를 놓는다.' 이래 소문이 나니까. 온 동니(동네) 삽작꺼리 막 나서고 마당을 들오고 마 굉장하거든, 그래가지고 인자 아를 낳는데, 그 아(아이) 보이까네 아 등다리에(등에) '복숭아 도桃 자 꽃 화花 자, 성은 인자 꽃 화자 복숭아 도자 꽃 화자 니까네 인자 성은 정가고 정도화, 도화, 정도화, 복숭아에서 나왔다고, 복숭아에서 애기가 났는 기라. 정도화, 정도화라고. 그래 인자 이름이 석자가 딱 백히나오니까(박혀서 나오니까) 부락사람들이 진단을 하는 기라. 진단을 해서 그 인자 들어낼라 카는 그것도 면하고. 시아바이도 어 그래 알아가지고 얼라 안 뱄다 카는 게 확인이 됐지. 확인이 됐는 기라. 얘기 했는데 뒤에는 모리

겠다. 잊자삐리고 오래 돼놓이.

그래 옛날 아주 옛날 고려 때거든. 그러니까네 그 아가 인자 그래가 인제 정도하라고 이름이 백히(박혀) 났는데, 그 아가 커가지고 지하실로 뚫어놓고 연구를 하는 기라. 땅 밑에서 요새는 똑똑한 사람이 천지고. 옛날에는 좀 똑똑코(똑똑하고) 영리하다 카면 직이삐리는(죽여버리는) 기라. 고마 옛날에 장사로 다 나오면 직이 삐리거든, 직이 삐는 때문에 하나 똑똑한 사람이 옛날에는 없었고. 요새는 나는(태어나는) 족족 잘 키아가 공부를 시킨께 똑똑한 사람이 억수로(굉장히) 많다 아이가?

이래도 옛날에는 마 똑똑코 장사라 카면 직이삐는 기라. 이라니께 이 아가 인제 그 아가 인제 컸는데, 이 아가 커가지고 지가 연구를 하는 기라. 지하실로 파놓고 땅 밑에서 연구를 하는 기라. 연구를 해가지고 요새는 참 이 말이, 마 이 바로 말이 마 되가지고. 말 타고 전장도 하고 마 이라지. 옛날에는 말이 없었어. 하도 옛날 고려 때는 말이 없었어. 이 아가 연구를 해가 말로 만들었는 기라. 말로 다 만들어가지고 말이 뛰오르다가 고마 탄로가 나뿠는 기라. 인자 말 탈라고 딱 - 오르는데 탄로가 나뿠는 기라. 탄로가 나 성공을 못했지.

그걸로 끝이요. 고마 그 다 할라 카면 안 돼. 그걸로 끝이요, 마 끝내 삐소. 그래가 끝내 삐면 되지.

*김승유 외, 『가덕도의 민속문화2 –대항동』, 국립민속박물관, 2021, 241~242쪽.

[강서구 설화 49]

용이 승천했던 용심이골

김복의(여, 1936년생) 구술
2021년 3월 1일 채록
[가덕도동(대항동) 대항마을]

용심이골짝 물에 가면 내려가지고 개발하는데 있는데, 용심이골이라고 있어예. 물을 품고 이라는데 바다가 물을 치면 물을 담고 이라는데, 용심이골짝이라고 하대. 요기서 쪼끔 가면 등대에서 요리 쪼금 오면 요 가에, 산골짝인데 그렇게 생깄어예. 여기는 물이 치니까 용심이골짝이라 카고.

용심이는 연대산 밑에 있어예. 거는 물이 나오는 데라예. [조사자: 용심이가 용이 승천했던 곳이라 하던데예. 그런 이야기는 못 들어보셨어요?] 그런 이야기가 있대예. 우리 에릴 때보면 무당들이 정신 드리러 가대. 사종을[1] 즐기면 그런 기 었었어예. 옛날에 정월 초하루가 되면 복

1) 무속신앙과 민간신앙을 말함.

받을 라고 모두 굿을 했거든예. 무당들이 주로 거(그곳에) 가서 기도하고 그랬어예.

*김승유 외, 『가덕도의 민속문화2 –대항동』, 국립민속박물관, 2021, 219쪽.

[강서구 설화 50]

단칸방에서 나누는 사랑

김분선(여, 1936년생) 구술
2020년 10월 28일 채록
[가덕도동(대항동) 대항마을]

전에 여기 요 우리 남자친구가 요 사는데, 저 배로 갔다 왔는데 인자 아이들이 있었어. 아이들이 있었는데 인자 잠을 자야하는데, 아들이 있어서 잠을 못 자거든. 그러니께 뭐 사러 가는데 호각으로 '훅. 훅.' [웃음] [청중: 어데 가서 할라꼬?] 저거 집에서. 신랑 각시 누운 자리. 아들이 있어갖고 난리난 모양이라. 그래가 인제,

"뭐 사가 온나."

이랬어. 그래가,

"올 때는 휘파람 불가 오너라."

이래 했는 기라. 뭐 사러 보냈어. 아를 사러 보내갖고 보내 돈을 주면서,

"아나, 올 때는 호루래기를 불고 오이라(오너라)."

이랬어. 금방 갔는데 바로 쫓아와서,

"호! 호! 호!" [웃음]

[청중: 더 천천히 와야 될 낀대.] 천천히 와야 되는데. 그래놓고 얼마나 그 남자가 참 되나? 이래 뭣고? 똥개 저거 아부지. 얼마나 우습노? 이놈의 아가 말이제 돈을 주면은 천천히 올 낀데 금방 사가 와가지고.

"천천히 갔다가 천천히 온나."

이랬는데,

"뛰어오지 말라했지." [웃음]

*김승유 외, 『가덕도의 민속문화2 –대항동』, 국립민속박물관, 2021, 240쪽.

[강서구 설화 51]

가덕도에 산짐승이 없었던 이유

김상자(여, 1939년생) 구술
2021년 2월 4일 채록
[가덕도동(대항동) 대항마을]

연대산은 천성고개 가면 주차장 안 있더나? 그 위로 올라간다. 그 우에 길이 있어가, 배나무가 하나 있어가 배나무등이라 캤다. 올라가는 길에. 옛날에 우리도 그 길로 다녔다.

옛날에는 우리 요게 짐승도 없었다. 돼지도 없었고. [조사자: 왜요?] 산신이 밥을 안 주께네, 짐승들이 밥을 뭐야 묵고 살 것 아이가? 밥을 묵어야, 풀이파리(풀잎)도 뜯어 묵고 살 것 아이가? 옛날에는 요 연대봉 할배가, 산신이 너무 쎄서러 짐승들로 몬 들어구로 하더라 하대. 옛날에 이게 돼지고 노루고 마 호랑이고 뭐 이런 것들은 하나도 몬(못) 들어오구로 해. 몬 들어오구로 해서 이게 범접을 해가 몬 살더라 하대.

그랬는데 언자는(이제는) 인자 산에 가면 돼지가 뵈인다 아이가? 할배가 인자 뭐 세월 따라, 이래 산을 굴로 뚫고 빵구(구멍) 내고 하는데, 뭐 그러께네 인자 그것도 옛날이고.

*김승유 외, 『가덕도의 민속문화2 –대항동』, 국립민속박물관, 2021, 218~219쪽.

[강서구 설화 52]

소를 먹였던 소왕대

김상자(여, 1939년생) 구술
2021년 2월 4일 채록
[가덕도동(대항동) 대항마을]

저 넘어가면 소왕대라고 있다. 소왕대라 칸다. [조사자: 소왕대가 무슨 뜻인데예?] 그거는 모르지. 어른들이 소를 멕인다고(먹인다고) 소왕대라 카대. 옛날에는 그게 짠디가(잔디가) 마이(많이) 있고. 소, 그런 거 매놓고 그랬다. 요 산 뒤로 옆으로 요래 가면, 지금 거기 가면, 옛날로 놓고 보자 하면 요 전망대 있제? 전망대에서 쪼깨(조금) 가면 팔각정 안 있더나? 그 우로(위로) 올라가면 옛날에 질이(길이) 있었다. 산질(산길)이 있었는데, 여게서 소 믹이러 그 까지 가고. 천성서도 거게 와서 믹이고 그랬다.

*김승유 외, 『가덕도의 민속문화2 –대항동』, 국립민속박물관, 2021, 219쪽.

[강서구 설화 53]

만나면 3년 안에 죽는다는 낮귀신

김상자(여, 1939년생) 구술
2020년 10월 28일 채록
[가덕도동(대항동) 대항마을]

하는 말이 낮구신(낮귀신) 만나면, 낮구신 만나면은 3년을 못 넘긴다 하더라고. 그런 소리, 하는 소리는 들었어. 할매들한테.

언니야[2] 전에 수임이 세이(형), 저게 순복이 저거 집에, 저 허점자 집 모티(모퉁이) 거게. 언니야, 옛날에 그 사람 안동 김씨 살았다 아이가? 거게 화장실에서 수임이 언니가 낮구신 봤다 하대. [청중: 옛날에는 모티마정(모퉁이마다) 거게 구신 난다 카고 요 앞집에 요게도 구신 난다고. 막- 들고 뛰고. 우리가 저녁으로 놀다가 오면 막 들고뛰고 그래.] 그 할매들이 하는 소리만 듣고 아무나 휘감으면, '낮구신 난다. 밤구신 난다. 구신 난다.'하면 그래 그짝에 오면은 들고 뛰는 기라. 귀신인가? 헛거이. 헛거로 봐서 그러는가. 모르지 그거는.

*김승유 외, 『가덕도의 민속문화2 –대항동』, 국립민속박물관, 2021, 224~225쪽.

[강서구 설화 54]

저승에 다녀온 사람

김상자(여, 1939년생) 구술
2020년 10월 28일 채록
[가덕도동(대항동) 대항마을]

옛날에 저 우리 옆에 집 할머니가 손님을 했어. 손님을 해가지고 그래 인자 저승을 갔는 거라. [조사자: 마마.] 맞아. 마마. 할매가 저승에를 갔는 거라. 아들이 네 사람이, 아들 네이를(넷을) 나낳고 할매가 인자 꼼보 손님 내 해놔놓이께에 죽어뻤는 기야.

죽어나니께는(죽으니까) 아들 너이가 울어서러. 울고. 막내이는 그래 인자 할매가 저승을 가이께네, 저거 할매가, 저승 간 죽은 할매, 저거 할매가 거제 사람인데, 거제에 사는데, 할매가 인제 재혼을 해가 살았던 모양이지. 그래 요 할매는 재혼해간 할매 집 딸인 기라. 딸인께네(딸이니까) 저거는 양주장을 했어. 술장사를 하니께는 할매는 밑에 거서 쪼그만한 오두막살이에서 막

2) 자리에 함께 있었던 주영하 할머니를 지칭하는 것임.

걸리 장사를 하니까네, 할매 동우(동이), 물 일어 가는 동우 안 있아? 그게 다 떠가지고, 동우는 그때는 양치동우(‘양은동이’를 말함.)가 뭐 있었나? 사동우(‘옹기 항아리’를 말함.) 안 있었나? 그지? 그때 옛날 할매들은 사동우 거기다 술로 퍼가(부어) 가는 기라. 저거 아부지 모르게 퍼다가 할매를 주는 거라. 주면 할매는 그거를 팔고. 팔아가지고 할매 쓰고.

그래 죽었어. 그래가지고 저승 가니께는 그 할매가 우리 이 옆에 집 할매하고 딱 아달이가(‘마주쳤다’는 의미) 됐어. 그래가 할매가,

“니가 여기 뭐 하러 왔노? 자슥 아들로 놔놨고(놔두고) 니가 여기 뭐 하러 왔노? 니 올 때가 아닌데.”

카면서, 할매가 막- 야단을 치더래. 그래가.

“할매, 아부지는?”

카니께는,

“니 아부지 요 안에, 요 안에 있다. 너거 아부지는 사무 보고 있다.”

카더래.

“사무 보고 있다.”

그래서 가니께는, 저거 아부지가 야-단이 났는 기라.

“바삐 가라. 바삐. 바삐 나가라.”

고, 시간 없다고 바삐 가라고 아버지가 막 쫓더래. 아버지가 쫓가내서(쫓아서) 나오니께 이런 냇고랑에, 냇고랑인데 이리 돌들이 몽통몽통 이리 있는데,

“거리(그곳으로) 빨리 건니라.”

카는 기라. 할매도,

“빨리 건니가라.”

카는데, 아부지가 쌔리 쫓가놔놓니께는(때리며 쫓아내니까) 할매가 데부다(데려다) 도랑을 갈키(가르쳐) 주면서,

“가라.”

카는 기라.

“가라.”

카니께는 파래가 끼가. 그 뒤집어지가 이리 돌에 콕 찍으면 미끄러지뿐다 아이가? 그래가 할매가 막,

“바삐 가라.”

고, 막- 쫓으니께 그 돌로 집다가 쪼르륵 쫙- 미끄러졌어. 그래놓이께네 ‘콰다다닥’하고 깨뿠어. 그래가 다리 두 나(두 개), 팔 이거 다 들고 흔들어 나놓으니, 아들 너이가 놀래가지고 다 흩어져 도망을 나왔어. 큰아들은 지금 말하면 삽짝거리, 대문 밖에 나오고. 둘째 아들은 대문 안에 섰고. 셋째는 마당 복판에 서고, 넷째는 방문 뒤에 붙어가지고 가고오도 못하고. 나가(나이가) 어려 못 튀나갔어. 방문 앞에서 벌벌 떨어.

“전대야, 전대야.”

부르니께, 대답을 하니께는,

"어디 있노?"

하니께는,

"바깥에(밖에) 있다."

"와 바깥에 있노? 안 들어오노? 방에 들어가지."

하이, 아들이,

"엄마, 니가 죽어서로."

요게, 우리 요 촌에서는 애기 낳고 하면 받을 사람이 없고 그 받는 할매가 하나 있었어. 그 할매가 받아가지고 그래 하고 이라는데, 누 집에 손님 했다 하는데, 그때 옛날에는 정성을 내야 되는데,

"정성을 내러 가는데 초상집에 가면 안 된다."

고, 할매가 안 올라 카더라고. 그래 저거 엄마를 보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래. 엄마가 이제 깨놔 놓이께는. 그래 이야기를 하면서러,

"정숙이는 어데 갔노? 정철이는 어데 갔노? 정길이는 어데 갔노?"

하니께는,

"엄마 내 요 있다. 앞마당에 있다. 엄마 내 문 앞에 있다."

"그래 이리 들어온나."

"엄마 니가 죽어서로 우리가 갈 데가 없고, 할매 데불러(데리러) 가이께는 할매는 그렇다 하고. 이래서 갈 데가 없어 있는데, 엄마 니가 다리하고 손하고 하늘로 치켜들고 일어나는 바람에 놀래서 바깥에 있었다."

그런 이야기 하더란 소리, 그 아지매가 이야기 해줬어.

*김승유 외, 『가덕도의 민속문화2 –대항동』, 국립민속박물관, 2021, 230~232쪽.

[강서구 설화 55]

저승의 젖나무

김상자(여, 1939년생) 구술
2020년 10월 28일 채록
[가덕도동(대항동) 대항마을]

그래 저승 갔다 하는 그거는 우리 혜자도 안 그러더나? 언니야, 가이까네, 저승에 가니께는 가가(가서) 아파가지고. [청중: 빨리 나가라고 해서 고랑에 빠지고 마 이라면은 이승에 가뿌는 갑대.] 혜자라고 그 아도 옛날에, 지금은 그 해도. 열증, 지금 같으면 독감이라 하나? 언니야(청

중을 가리킴), 그 열증, 감기가 쎄가지고. 그리 해가지고 저승을 가니께는 나무가 하나 이-리 큰 나무가 있는데 그 밑에 아들이 오골오골오골 몰려 있더래. 그래서,

"저 아들이 와 저래가 있냐?"

고, 물어보니께는,

"저 나무가 젖나무다."

커더래.

"큰 나무가 이리 씨룸하니 늘어지가 누워있으니까네, 아들이 그 이파리(잎) 빨아먹는다고, 젖이라고 빨아먹는다. 저승에 가니께 그렇더라."

고 이라고. 밥 해 먹는 데가 없고, 부엌이 없고, 학교 같은 이런 교실 저런데다가. 그래 인자 지줌(제각기) 나(나이) 따라 가서 살겠지. 그래 그렇더라 하는 얘기.

*김승유 외, 『가덕도의 민속문화2 –대항동』, 국립민속박물관, 2021, 232쪽.

[강서구 설화 56]

강피만 훑을 팔자의 부인

김상자(여, 1939년생) 구술
2020년 10월 28일 채록
[가덕도동(대항동) 대항마을]

선배(선비)라 카나 뭐라 카노? [조사자: 선비. 책만 읽는.] 책만 읽고 있는데, 그래 할매가 못 살았어. 그 집에 여자는 몬(못) 사니께네 들에 일하러 갔던지 뭐든지, 갔다 오는데 나락 덕석이 비로 맞아 다 떠내려가도 책만 읽고 그리 있더래요. 그래서로 그 사람이 몬 살겠다고 할매가 딴 데로 갔다 하대.

그래 그 할매가 인자 몬 살겠다고 헤어지자 해서 할배를 내삐려두고 갔는 갑대. 갔는데 그기 인자 뭐라 카노? 언니야. 그것도 말 안되네. 내삐리고 가도, 도둑을 피해가면 강도를 막는다. 하는 식으로 그 남자 마 그렇게 그 한다고 버리고 가도, 딴 데 가도 별 수 없더래. 그래 그런 말을 하더라.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듣기만 들었지.

*김승유 외, 『가덕도의 민속문화2 –대항동』, 국립민속박물관, 2021, 234쪽.

[강서구 설화 57]

정성을 들여야 하는 제사

김상자(여, 1939년) 구술
2020년 10월 28일 채록
[가덕도동(대항동) 대항마을]

옛날 그 전에 한 사람이 엄마가 죽고 나서 하-도 인자 엄마를 애통하게 여기싸이께네(여겨), 가서 묏등에 그 가서 마 술 한 잔 자시고 가서 울고 그래 하다가 누워가지고 잠이 들어뻤던 모양이라. 그래가 그것도 구신의 이야기겠지. 그래가 묏등에서 누우자고 있으니까네.

"아무것이야, 아무것이야."

이름을 부르면서,

"온 지녁에(오늘 저녁에) 내 지산데(제사인데) 밥 묵으러 가자."

그라더래. 그래서,

"내는 안 갈래. 당신만 갔다 오소."

인제 이래 됐는 기라.

"당신만 갖다 오소. 난 안 갈라요."

좀 있으니께는 오더만은,

"제삿밥 잘 자시고 왔소?"

이라이께네.

"아이다. 제삿밥 묵으러 가이께네 뱀이로 잡아가지고 채리놨어러(차려놓아) 밥을 안 묵고 아로 마 부섴에다가(부엌에다) 밀어 옇어뿌고 왔다."

카더라네. 그래서 인자 그 아저씨도 인자 누우자고 내려와서 술이 깨고 그 안날 아침에 인제 그 집을 찾아갔어. 찾아가니께네 진짜로 아가 이래 불에 디이가지고(데여서) 그래가 있더래. 그래 그 사람이 이래 이래 이야기를 하더라.

"내가, 이래가 내가 봉묘산에 가서 그 모가(묘가) 그래 이 집 어르신이던 모양이지."

하고 가이까네, 떡에 그 밥을 디비이(뒤지니),

"뱀이를 채리놨더라."

해서, 그래 인제 떡을 팡 짱글고(자르고), 음슥을(음식을) 다 짱글라 채리놓은 거야. 음슥을 짜르니께네 머리카락이 들어가 있더래. 그래 하니께네 인자 머리, 제사 지낼 때는 머리카락 우짜든지 음식에 안 들어가라. 못 들어가라고 그래 하는 모양이지. 옛날에 머리가 지단-했다(길었다) 아이가? 그러니까 그래 하지.

*김승유 외, 『가덕도의 민속문화2 –대항동』, 국립민속박물관, 2021, 235쪽.

[강서구 설화 58]

한목의 지명 유래

김안배(남, 1964년생) 구술
2020년 10월 28일 채록
[가덕도동(대항동) 대항마을]

여기가예. 원래 한목입니다. 한 모간지('목'을 가리키는 속어)라고. 들어오면 앞뒤가 다 튀였다 아입니까? 대항이란 기. 막힌 데가 없다 아입니까? 사람 모간지처럼 쭉 뻗었는 기라예. 뭐 내나기 전에도 뭐 대항이라고 했는데. 어르신들 옛날 말이 이게 대항이 아니고 한목. 한모간지라고. 모르겠습니다. 어떤 모가지인지 정확히는 저도 몰라예. 모르는데 어르신 옛날 할매들이 하는 말이 하나의 모간지라고, 모간지가 하나라고 한목, 한목이라 하더라고예. 여게는 병이 없었어예. 확 티인 곳이라서 병이 없어예.

*김승유 외, 『가덕도의 민속문화2 –대항동』, 국립민속박물관, 2021, 211~212쪽.

[강서구 설화 59]

대항마을 입향조 김해 김씨

김안배(남, 1964년생) 구술
2020년 10월 28일 채록
[가덕도동(대항동) 대항마을]

여기 이 동네가 보면 우리 집안에서 최고 먼저 들어왔어예. 김해 김씨가. 저기 주차장이 우리 김해 김씨 선산이었어예. 언제 어떻게 대항에 들어왔는지는 모르고. 하여튼 옛날에 우리 요 시사를 지내면 그 두 줄 세 줄로 두루마리 입고 내 에릴(어릴) 때, 국민학교 때 기억에 절을 하는 기라예. 선산이 인자 저 있고 저 우에도 있어예.

*김승유 외, 『가덕도의 민속문화2 –대항동』, 국립민속박물관, 2021, 213쪽.

[강서구 설화 60]

가덕도에 산짐승이 없었던 이유

김안배(남, 1964년생) 구술
2020년 10월 28일 채록
[가덕도동(대항동) 대항마을]

연대산 산신이 쎄. 연대산 산신은 할배라. 옛날에는 요게 돼지고 노루고 그래 여기 산에 못 들어와. [조사자: 왜요?] 밥을 안 줬어. 할배가, 산신 할배가 밥을 안 줬어. 그리 몬(못) 들어온다 하대.

들어오면 사흘로 안 살고 쫓겨 나가는 거는 저거 밥이 없으니께, 묵을(먹을) 게 없으니께 나가는 거지. 그래 그리 하더란 소리만 우리도 할매들한테 들었지.

*김승유 외, 『가덕도의 민속문화2 –대항동』, 국립민속박물관, 2021, 218쪽.

[강서구 설화 61]

거제도 사람들을 바람나게 했던 코바위

김안배(남, 1964년생) 구술
2020년 10월 28일 채록
[가덕도동(대항동) 대항마을]

배옥개('백옥포'를 말함), 거제(거제도)서 보면 멋진 여자같이 뭐 보인다든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거제 저쪽에서 보는 사람들이 바람이 나. [조사자: 여자들이?] 여자들이고 남자들이고 간에 바람이 난답니다. 남자가 볼 때 여자같이 보이고, 여자가 볼 때 남자같이 보이는 갑지예. 그 옛날 말이 그렇대예.

그래갖고 옛날에 뭐 거제에서 그 우에서 요 바위로 갔다가 줄로 묶어가 끌어내랐다는 말도 있고. 그건요 그 옛날에 그런 말이 그리 내려오니까. 우에 어르신들이 옛날에 거제 사람들이 바람이 나갖고. 저거를 끌어앉찼다. 내려앉찼다. 그런 말도 있고.

*김승유 외, 『가덕도의 민속문화2 –대항동』, 국립민속박물관, 2021, 221쪽.

[강서구 설화 62]

고려장이 없어진 내력

윤정옥(여, 1939년생) 구술
2020년 10월 28일 채록

[가덕도동(대항동) 대항마을]

뭐 저거 엄마, 손주하고 할매하고 할매나 아버지나, 손자나 마 아부지나 이래 할아버지나 서이 살았겠지. 살았는데 인자 아버지가 인자 이 할아버지를 인자 팔십이 되서, 고려장이야기지. 고려장이라 카는. 그래가 지게에다 아버지를 갖다 내삐릴라고(내버리려고) 산에 올라가는데 손주도 따라 올라오는 거야.

"가라."

캐도, 자꾸 따라 올라오는 카는데 가가지고. [구술하다 잘못 말한 듯 여겨] 아이다. 아이다. 그게 아닌 갑다. [조사자: 맞습니다.] 아, 버리고, 지게까지 버리고, 손주를 위주로 하면 할아버지도 버리고 지게도 버렸는데 그래가,

"가자."

카면서,

"우리는 가자."

카면은, 아들로 손을 잡고 내려오니까 아들이 쫓아가가 지게를 지고 내려오는 거야.

"왜 그리 지게, 말라 그라노?(뭣 하려고 그렇게 하냐?) 내삐리고 가자."

이래가 하니까,

"아, 아입니더(아닙니다). 낸중에(나중에) 아버지도 나가(나이가) 많으면 내가 지게 지고 갖다 내삐릴라면 지게가 필요하기 땜에 내가 갖고 내려가야 되겠습니더."

이런 이야긴 갑대.

*김승유 외, 『가덕도의 민속문화2 –대항동』, 국립민속박물관, 2021, 233쪽.

[강서구 설화 63]

지렁이국을 끓여 시어머니를 봉양한 며느리

윤정옥(여, 1939년생) 구술
2020년 10월 28일 채록
[가덕도동(대항동) 대항마을]

어딜 갔든 어쨌든 집에는 할아버지 뭐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같이 살은 정돈데 묵을 게 없잖아? 옛날에는 묵을 게 없는데 뭐 고기반찬도 해줄 수가 없고 이러니까, 밭을 파니까 지렁이가 나오고 이러니까, 지렁이를 파다가 내도록 국도 끓여주고 뭐 요리할, 며느리가 할 수 있는 요리는 했겠지. 근데 볶아다 주고. 내 생각에는 뭐 볶아다 주고 국도 끓여주고 그랬겠지. 그래 엄청 맛이 있어. 그래가지고 인자 할머니가,

"이게 무슨 고긴고?"

무슨 고기라 카면서 줬는데, '이게 무슨 고긴고?' 싶어서 그거 하나를 건져가지고 옛날에는 온돌방에 이거 삿자리, 돗자리 같은 걸 깔아가지고 자지. 장판 같은 게 없었잖아? 그러니까 삿자리 밑에다 그런 거 옇어놓고 있다가, 있다가 있다가 인자 아들이 와서 어머니를 보니까네 해준 것도 없는데 어머니가 엄청 몸도 좋고 얼굴도 좋게 해서 어머이가 어째 이리, 참 아들이 좋아하면서 며느리가 잘해줘서, 죄송하네 앞뒤도 없이. 그래가 아들이 좋아서,

"어머니 무엇을 잡숬고 이리 얼굴이 좋고 풍채가 좋으냐?"

그래 감사하다.

"아이고! 야야, 니 댁이 이래 이래가 고깃국을 맨날(만날) 끓여주고 이래가 그거를 먹었더니 맛도 있고 그랬는 갑다."

이랬는데 이러면서,

"그 고기가 무슨 고긴데요?"

"내가 나가(나이가) 많아서 보이지도 않고 무슨 고긴 줄 알겄냐? 그런데 하나 껀지가(건져서) 요 밑에 옇어놨는데 한번 봐바라."

이러니까, 그러면서 할머니가 그걸 꺼내줬어. 꺼내주니 아들이 보니까 막 촌에 막 살이 찐 그런 지렁이겠지. 말라가지고 그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머이, 이거 지렁인데요."

이라니까, 그때는, 요새는, 그 당시에는 할머니가 나가 많아서 눈도 인자 안 밝으니까 지렁인가 그런 거는 몰랐고, 옛날에 자기가 그거 할 때는 지렁이가 밭에서 난다 카는 거는 알지. 나가 많으니까는 인자 눈도 어둡고 하니까 지렁인가 뭔가 모르고 옇어놘 거지. 지렁이가 징그럽다 카는 거는 아니까네. 놀래가지고,

"아이고, 거싱이(지렁이)냐? 그 지렁이냐?"

그라면서 놀래가 그 바람에 눈을 떴다 카는 설화가 있었어. 그러니까 효부가, 그 며느리가 그만큼 부모 공양을 잘하니까 인자 그 눈까지 뜨게 됐다. 눈이 밝아졌다 카는 그런 설화라.

*김승유 외, 『가덕도의 민속문화2 –대항동』, 국립민속박물관, 2021, 235~236쪽.

[강서구 설화 64]

아이를 넣어 만든 에밀레종

윤정옥(여, 1939년생) 구술
2020년 10월 28일 채록
[가덕도동(대항동) 대항마을]

그래 인자 봉덕사종이, 경주 옆 봉덕사종을 그걸 하는데 집집마다 그때는 불교가 우리가 많이 그거 불교 국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시주를 해가지고 쇠붙이 있는 사람은 쇠붙이 주고, 쌀 있는 사람은 쌀 주고 다 시주를 하는데 이 집에는 줄게 없어. 엄마가. 내가 지어가 한다.

애기를 하나 좋아서 인자 자기 아들 잡고 막 이래 어루고 이래 막 좋아하는데, 그 봉덕사 스님이 와가지고 그래 인자 그거 하라. 이래 이래가 종을 맨들라(만들려) 하니까 종이 안 되고 그라는데, 안 되고 하니까, 종을 맨들라 하니깐 여러 그기,

"공덕이 쌓아야 되는데 시주 좀 해 달라."

이러니까, 그래가,

"아이고, 우리 집에는 아무것도 없고."

우리 뭐라 캤어? 이름이 뭐라 캤어? [조사자: 봉덕이.] 응. 봉덕사절 봉덕이. [웃음] 봉덕사 스님이 아니겠지. 어느 스님이 와가 그랬는데 내중에(나중에) 봉덕사가 됐겠지. 그래,

"아이고, 우리 봉덕이나 주면 될까? 아무것도 줄 거 없다."

이러니까, 스님이,

"아이고, 그거는 안 되지. 아를 어째 종 맨드는데(만드는데), 아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인데 아를 가가겠나(가져가겠나)?"

중이 그냥 갔어. 갔는데 종을 쇠붙이로 녹하갖고(녹여서) 쇠로 아무리 종을 맨들어도 이 종이 형성이 안 되는 기라. 쇠가 녹히지지도 안 하고 자꾸 깨지고 깨지고 이래. 그래가 아무리 뭐 염불로 하고 그걸 해도 안 돼. 그러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 그 어느 동네 가니까네 그 봉덕이 엄마가 그 아를 줄까? 이러던데 그걸 함 어찌해볼까.' 그런 생각이 들은 거야 스님이. 그래가 다시 내려와갖고 인자 그 어머이한테,

"저번에, 옛날에 얼마 전에 내가 시주 왔을 때 줄 거는 없고 우리 봉덕이나 줄까? 카면서 그 아를 어루던 아가 이 안데(아이인데) 이 아를 내가 덱고(데리고) 가겠다. 시주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야를 덱고 가겠다."

이러니까, 엄마는 기겁을 하지. 뭐 장난삼아 애가 좋아서 건들고 그런 소린데 스님은 그걸 곧이듣고 갈라 카이 엄마가 기가 차지만, 스님은 꼭 덱고 가겠다 하이, 뺏들고 가다싶이 뺏들어 가고 엄마는 형편없이 됐겠지. 기가 찼지. 아 하나밲에(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가가니까.

그래 가가(가서) 쇠를 녹후는데 그 아를 옇어가지고 그 종을 맨드니까, 종이 완성이, 쇠붙이가 완성이 돼가 종이 됐어. 돼가지고 그걸 저기에다가 달아놓고 치니깐, 엄마를 원망하는 소리. '애미 땜에(엄마 때문에)' '애미 땜에' 이라는 게 '애미 땜-에' 이라니까,

"에밀레-, 애미 땜에-."

이래 나오는 모양이라. 그래가 그게 에밀레종이 됐고. 그 절 그 뭐야? 종을 위주로 해가 절을 지었는데 그게 봉덕사. 봉덕이가 그 핸 거다 하면서 봉덕사절로 명명이 됐는가 싶습니다. 그런 애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지.

*김승유 외, 『가덕도의 민속문화2 –대항동』, 국립민속박물관, 2021, 236~237쪽.

[강서구 설화 65]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곶감

윤정옥(여, 1939년생) 구술
2020년 10월 28일 채록
[가덕도동(대항동) 대항마을]

애들이, 애가 인자 그거 인자 호랑이가 내려, 산에서 내려 그때는 옛날에는 호랑이가 많으니까네 산에 묵을 게 없으니 내려오겠지. 동네에 내려와서 그래 어느 집에 가니까는 할머니하고 손주하고 있는데 도란도란 이야기했는데 손주가 막 울거든. 그러니까는,

"뭐 줄까? 뭐 온다. 뭐 온다. 뭐 어쩧다."

해도, 아가 안 그치는 게야.

"아이구, 저 뒷동산 호랑이가 내려온다. 내려왔다."

이래도 호랑이는 그 잡아묵을라고 인자 문 앞에 딱 앉아있는데,

"호랑이가 내려와서 잡아묵을라고 내려와가 있다."

이러니까, 그래도 아가 안 울고 호랑이는 막,

"엄마야, 할매가 어째 내가 온 줄 아는고?"

이라고, 기겁을 해가 요래가 있으이, 그라고 아가 자꾸 우이까네 할매가,

"아이고, 저 선반 위에 곶감 있다. 곶감 그거 내줄까?"

이라니까, 아가 뚝 끈치는(그치는) 거라. 그라니까 아가, 아이고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내가 제일 무서울 줄 알았는데 내보다 더 무서운 곶감이 어째 생겼는고? 곶감이라 카니까 아가 뚝 그치는 거 보니까 내보다 더 무서운 게 있는 갑다.' 그래가 도망갔다 카는 이야기.

*김승유 외, 『가덕도의 민속문화2 –대항동』, 국립민속박물관, 2021, 237~238쪽.

[강서구 설화 66]

꼬부랑 할머니

윤정옥(여, 1939년생) 구술
2020년 10월 28일 채록
[가덕도동(대항동) 대항마을]

꼬부랑 할머니가 꼬부랑 길을 가다 꼬부랑 똥이, 꼬부랑을 자꾸 인자. 꼬부랑 할머니가 꼬부랑 길로 가다 꼬부랑 똥이 마려워서 눴다카나? [조사자: 예.] 꼬부랑 똥을 누었는데 꼬부랑 개가

와서 꼬부랑 똥을 묵을라카니까, 꼬부랑 할머니가 꼬부랑 짝대기로 꼬부랑 개를 때리니까네, 개가 꼬부랑 깽깽 도망갔다.

*김승유 외, 『가덕도의 민속문화2 –대항동』, 국립민속박물관, 2021, 238쪽.

[강서구 설화 67]

죽어 용왕이 된 고상춘

이정렬(여, 1917년생) 구술
1991년 7월 14일 채록
[가덕도동(대항동) 대항마을]

이야기는 인자 이거는 가만 있거라. 인제 영감이 고상춘이라. 성은 고가고 이름은 상춘인데. 고상춘이, 할멈하고 영감이 사는데, 너무 너무 없어가지고 저 놘 다리에다, 풀숲에다 움막을 지었는 기라. 하나 지어가지고 그래 인자 놘 다리가 되니까 이리가고 저리가고 막 다리 길이만 삼 발리기 있거든. 있는데, 그래 인자 앉아가지고 염감은, 고상춘이는 신을 삼아가, 옛날에 짚신이거든. 짚신이기 때문에 쪼매 가면은 떨어지뻐. 그래서 그 신을, 전도록, 신을 삼아가 오는 사람 가는 사람 한 컬레썩 주는 기라. 그리고 할멈은 물로 한 그릇 딱 떠 맞춰 놓는 기라. 가는 사람 오는 사람 목이 마르면 물로 마시고 가는 기라.

먹고 나면 또 떠다놓고 또 떠나놓고. 이 사람은 가는 사람 보면, 신이 없으면 한 컬레,

"이거 신고 가라."

고, 주는 기라. 떨어진 거 벗어놓고 그리 신을 또 주고 그래가 3년을 했는 기라. 삼년을. 그러니까 오는 사람 가는 사람 날이 저물어 잘 때 없으면 재워 보내는 기라. 재워 보내고 그러니께네, 물은 삼아 삼 년, 시주 신을 삼아 삼 년, 시주 잠을 재와 삼 년, 시주 구 년 시주를 했거든. 구 년 시주를 영감 할멈 둘이서 했는데, 이 밑에 큰 마을이 있는데, 저거는 마 솔직히 움막 하나 쳐놓고 두 영감 할멈 둘이서 살았어. 그래 살다가 맹이(명이) 다 됐던가 고상춘이가 죽게 됐는 기라. 영감이 죽게 돼. 죽게 되니까 할멈을 보고 하는 말이,

"내 죽거들랑 이 밑에는 가면 사람이 많이 있고 부자도 많이 있고 하지만은 우리가 몬 산다고 해서 이 밑에 사람들이 초상을 안 치줄 끼다. 우리가 몬 사니께 안 쳐줄 끼니(것이니), 내가 죽거들랑 베개를 딱 베서 딱 바지만 입혀 줄라."

카거든. 할멈한테 부탁하기로. 그러니까네 둘이 살다가 영감이 죽으면 기가 안 막히겠나? 그래 놓디만 죽어뻤는 기라. 그래 베개를 베서 딱 반듯이 눕혀놨거든. 눕히놨는데 이 할마이가 노래라고 부르는 것이,

"물을 삼아 삼 년, 시주 신을 삼아 삼 년, 시주 잠을 재아 삼 년, 시주 구 년을 했는데, 춘아 춘아

고상춘아 니 가는데 나도 가자 내 덱고 가자.”
꼬, 저거 영감을 보고 ‘춘아 춘아 고상춘아 니 가는데 나도 가자.’ 이래 노래를 만날 부르는 기라. 한참 앉아서. 그러다가 할마이가 죽었는 기라. 죽었어.

그래 고상춘이가 죽어서 용왕이 됐는 기라. 고 요새 같으면 대통령이지. 옛날에 왕이거든. 왕이 됐어. 고상춘이가 왕이 돼서, 그 사람이 죽어서 인자 왕이 되는 기라. 왕이 됐는데 이 사람이 가면서 할멈 몰래 요기다가 고상춘이 할마이라고 딱 써놨는 기라. 할만 손바닥 안에 딱 석자를 맡기놓고 섬에 가도 할마이가 몰랐는 기라. 손에 그렇게 맡기논 줄 몰랐는 기라.

몰랐는데 그래가 죽어서 고상춘이 왕이 안 됐습니까? 왕이 됐는데 할마이가 혼차(혼자) 살다가 살다가 그래 영감은 혼차 옛날에 썪어삤지. 그래 할마이가 죽게 되니까이 누가 있나 지 혼자 죽었는 기라. 지 혼자 죽으면서 베개랄 딱 바르고 영감 곁에 다 썩어빠진 영감 곁에 와 죽었는 기라. 그래 둘이서 반듯이 누워 죽었는데, 그래 인자 이 죽어서 왕이 됐는데, 이 고상춘이 할멈은 또 죽어서 어찌 됐노? 하면 왕비가 됐는 기라. 그래 손에다 글로 베끼나 놓이까네 그게 딱 고상춘이 할멈이라 카는 기라. 딱 베끼놨는 기라. 그래가 저승 가서 만나가지고 왕이 되고 왕비가 돼 가지고 잘 살더라. 그런 이야기 있었어.

*김승유 외, 『가덕도의 민속문화2 –대항동』, 국립민속박물관, 2021, 242~243쪽.

[강서구 설화 68]

양포고개 귀신불

주영하(여, 1934년생) 구술
2020년 10월 28일 채록
[가덕도동(대항동) 대항마을]

양포고개,[3] 저게도 우리가 보면은 불이가 마 빨가이 해가(빨갛게 해서), 거게도 지나가면은 구신이(귀신이) 나가지고. 거기가 옛날에는 구신이 나가지고, [청중: 지금 터널이 돼가 있다.] 그때는 구신불 났다고 난리가 나고. 양포고개.

그게 마이 생깄어(생겼어). 나와가지고 마 불이 덩거리가 돼가지고 갔다가 왔다가 이랬다. 헛불이 나가지고 등을(덩어리를) 지아가지고 한 개가 나와가지고 나중에 보면은 쫙- 퍼지면 몇 개가 퍼지고 그랬다.

*김승유 외, 『가덕도의 민속문화2 –대항동』, 국립민속박물관, 2021, 226쪽.

3) 대항과 외양포 사이에 있는 고개.

[강서구 설화 69]

길을 인도했던 천성고개의 도깨비불

주영하(여, 1934년생) 구술
2020년 10월 28일 채록
[가덕도동(대항동) 대항마을]

옛날에 우리 아부지하고 저 검딩이 아저씨하고 둘이서 저 동사무소 가가지고 일로 보고 밤 12시나 돼서 천성고개로 해서 오이까네. 그 듬바우 안 있나? 그 큰- 바우. [조사자: 듬바우?] 응. 듬바우. 그 앞에 딱 오니까네 큰- 불떵어리가 하나 앞에 오더란다. 큰- 불이 한 개 왔어로,

"아! 저게 암만해도 우리 집에 저 며느리가 등을 잡고 오는 갑다."

그래서 둘이서 오는데, 그 아저씨는 그래도 그기 쎄놓이께네 앞에 걷고, 우리 아부지는 땅 밑에 기이나오더란다. 겁이 나서 불똥 그거를 보고. 그러다 여게 오니까네 그 불이 간데 온데 없더란다. 둘이서 오니까네. [청중: 그 불이 그래도 언니야 사람을 데불다(데려다) 주는 기다.] 옛날에는 구신불이 천지라.

옛날에는 불이 구신, 구신불이 뒤로 서면 해꼬지를 해도, 앞을 서가 가면 지를 데부다 준다 안 하나? 동네 앞에 오디마는(오더니) 없더란다. [청중: 데려다 주러 왔어.] 그래, 우리 아부지하고 둘이서 살살 내려 왔는 그 이야기를 그래 하더라고. [청중: 옛날에는 그런 헛구신이 많이 있었어.] 여기 옛날에는 저 동사무소 가가지고 일 보고 오면은 늦거든. 밤 12시나 돼서 오면 그래 그런 거를 잘 만나는 기라.

*김승유 외, 『가덕도의 민속문화2 –대항동』, 국립민속박물관, 2021, 228쪽.

[강서구 설화 70]

도깨비로 변한 몽당 빗자루

주영하(여, 1934년생) 구술
2020년 10월 28일 채록
[가덕도동(대항동) 대항마을]

또 한 모디(마디) 하까? [조사자: 예.] 옛날에 우리 할배가 가닥(가덕) 갔다가 밤중에 오니까네, 막 구신불이 나가지고 그거는 싸움을 했다 캐. 각중에 싸움을 하니까네, 싸움을 하니까네. 하다가 하다가 안돼서로 허리끈을 끌러가지고 기둥나무에다가 딱- 묶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내려왔어. 그 안날 아측에(아침에) 가이까네, 빗자루 몽딩이로 착- 착- 감아 묶아놨더라 안 하나.

[웃음] 옛날에 할배들이 그런 소리 해샀대.

옛날에는 우리 수시빗자리(수수빗자루) 아이가? 그래 옛날에 불 뗀다고 우리 촌에는 그리 말캉 깔고 앉아있으니께네 그거이(여성들의 생리 피를 말함) 묻어가지고 해칭이가(해치가) 나서 그래. [청중: 그래 하니께네 빗자루 깔고 앉지 마라 카고.] 우리 할배가 그라대,

"안날 아측에 가이까네 빗자루 몽딩이라."

안 카나.

*김승유 외, 『가덕도의 민속문화2 –대항동』, 국립민속박물관, 2021, 229쪽.

[강서구 설화 71]

고려장이 없어진 내력

주영하(여, 1934년생) 구술
2020년 10월 28일 채록
[가덕도동(대항동) 대항마을]

옛날에 짊어지고 방방곡곡이. [조사자: 처음부터 해주이소.] 그때는 옛날에 돌아가시몬(돌아가시면) 그런 사람들이 지게다 지고 가서 묏등에다 묻고 이래가 내려오고 이라는데, 그래 인자 그 아들이 인자 내려오면서 인자 지게로(지게를) 거게다(거기다) 내뻐리고 오이까네.

"와 내뻐리고 오느냐?"

고, 그 카이까네,

"우리도 나가(나이가) 많으면 자식이 지다 내삐릴(내버릴) 낀데."

옛날에 그런 말이 안 있더나? [청중: 고려장 할 때 그리 했었다. 70되면 고려장 한다. 고려장 한다. 우리도 그 소리만 들었지.]

지게로 저거 아버지를 지다가 묏등에다 갖다놓고 묵을(먹을) 거를 옇어놓고 그래 내려오다가 생각을 하니께네, '아이구! 우리도 나가 많으몬(많으면) 우리 아들이 지다 내삐리겠다.' 싶어서러 지게로 다부(도로) 갖다놓고 내려왔다 안 하나.

*김승유 외, 『가덕도의 민속문화2 –대항동』, 국립민속박물관, 2021, 233쪽.

[강서구 설화 72]

천자봉과 명나라 태조 주원장

허낙(남, 1917년생) 구술
1991년 7월 14일 채록
[가덕도동(대항동) 대항마을]

옛날에 우리 이태환이('이성계'를 잘못 말함.) 등공할 때 그때지 그때 인자 천자봉을 주름을 잡아서 내려오니께, 어느 냇가인지 모르지, 그 인자 내려오니까 바닷가라. 너른(넓은) 바다라. 물이라. 물인데 풍수가 돼나놓이께 그 밑에 물 밑에 그 명산이 있는 기야. 물밑에, 물밑에 명산이 있는데, 그러면 인자 도저히 물밑은 들어갈 수 없고, 들어갈 수 없고 그러니께, 그 해녀도 물에 들어가는 사람이 많애. 역시나 이 사람도 인자 저거 아버지 인자 묘로 쓸라꼬 총각이. 총각인데 그 사람을 쑤신 기라. 그래 인자 우찌 됐든 말든 인자 두頭 두 나를(두 개를) 끊어가지고 두 나를 가지고 오른손 왼손을 낀 기라.

[조사자: 뭘 두 나를 꺼내요?] 두로. 두로. 사람 두頭, 머리를 끊어가지고, 두 나를 맨들어 고리로 해가지고 두 나를 핸 기라. 두 나를 해가지고 그래 인자 앞에서 이래 거는 거 하고, 하나는 대육신이 날 끼고, 하나는 그 소육신이 날 낀데 앞에 갖다 이래 걸어라 칸 기라. 그래 인자 이 사람이 물밑을 들가서(들어가서) 역시나 보니께, 미륵이 앉았는데, 물밑은 들어왔는데 도저히 앞을 가늠할 수가 없는 기라. 그래서 [조사자: 물밑에 뭐가 있는데예?] 미륵이 앉아가 있어. 고거로 미륵 귀에다 걸어라 이래된 기라. 그래 인자 걸라 카이 앞은 가름할 수가 없고, 뒤로 가서 건거라. 거꾸로, 이래 반대로 이래 된 기지.

그래서 인자 저거 아버지 묘는 반대로 됐으니까네 인자 주씨는 천자 해뿌고, 중국으로 들가(들어가) 주천자 해뿌고, 한 사람은 소국천자 했고. 그런 말이 있지. 그런 전설이. [조사자: 그 땅이, 천자봉이 솟아올랐단 말입니까?] 아! 천자봉에서 인자 지리로 밟아 내려왔지. 내려오니까 그런 어떤 바닷가에 물밑에 명산이 들은 기라. 그래서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인자 그 두를 갖다가 그 뒤에 거꾸로 걸었기 때문에 주씨는 가가지고 저 중국자서 주천자를 했고, 한사람은 인자 소국천자를 했다는 이런 말이, 이런 설이 있지.

*김승유 외, 『가덕도의 민속문화2 –대항동』, 국립민속박물관, 2021, 243~244쪽.

[강서구 설화 73]

불국사의 쌀바위

허낙(남, 1917년생) 구술
1991년 7월 14일 채록
[가덕도동(대항동) 대항마을]

옛날에 경주 불국사서 그 자리에 보니까네, 그 자리에 물로 이래 받아놨대. 경주 불국사 들어

가는 입구에. 그 가서 물도 묵고 왔는데. 경주 불국사 들어가는 그 입구에 들어가면은 있는데 그 자리에 옛날에 쌀이 나왔어. 쌀이 나와가자고 서인분(삼인분), 세 사람의 몫아치가 나오는 기라. 나오는데, 그거를 인자 더 마이(많이) 나오도록 만들라꼬 그 구녕을(구멍을) 쑤신 모양이지. 쑤시니까 쌀이 안 나오고 지금 물이 나온다 캐가지고. 그래 이래 떠가지고 묵고(먹고) 이랬는데. 그래 경주 불국사에 그런 설이 있다는 이런 말이 있대.

*김승유 외, 『가덕도의 민속문화2 –대항동』, 국립민속박물관, 2021, 222쪽.

[강서구 설화 74]

개암나무가 된 주인 살리고 죽은 개

허낙(남, 1917년생) 구술
1991년 7월 14일 채록
[가덕도동(대항동) 대항마을]

그 전라남도 사람인데, 옛날에 김개인이라 카는 사람이 있었어. 이 사람이 개를 한 바리 키우는데 아주 개를 사랑했던 모냥이지. 그러니께 인자 어데 손이 되가(손님이 되어) 가면은 이 개가 따라당기는 기라.

그래 하루는 개가 따라갔어. 따라갔는데, 그래 인자 뭐 요정집에 가가지고 술이 아주 만취가 돼가지고 오다가 고기 잔 기라. 오다가 누우잤는데, 그때 해필 들판에서 불이 난 기라. 불이 났는데, 개가 보니까 불이 일났는데 그 사람이, 자기 주인이 타죽겠는 기라. 그래 내에 가가지고 얼마나 꼬리로 물로 묻혀가지고 불로 끝든가 말았든가. 다른 데는 다 탔는데, 자기 혼차만(혼자만) 안 타지고, 술이 깨서 보니까 안 타지고 이랬어.

보이 개가 죽어가 있는 기라. 그래 인자 개가 타 죽어가 있어서 그래 자지 생각에 '아차! 내가 술이 취해 누우잤는데 내가 죽을까 싶어서, 타 죽을까 싶어서 개가 꼬리로 물로 묻혀가지고 일로 꺼준 거 아이가?' 그래가지고 개로 무덤을 묻는 기라. 무덤을 묻어가 짝개로(작대기로) 이래 박아놓은께 거게서 인자 그 땅개가 살아나가지고. [조사자: 땅개가 태어났습니까?] 개 앞에다가 짝개를 박았는데 그 짝개가 살아나서 아주 고목이 돼가지고. 그래 옛날 사람들이 인자 지내댕기면서 하는 말이 옛날에 개무덤 앞에 포로(표시를) 해놨는데, 이 나무가 커서 아주 큰 고목이 됐다 이 말이야. 오수라 칭하더라고. 지나댕기던 사람이. [조사자: 오수? 그건 무슨 오잔고요?] 개암나무다 이래 캤는데, 개암나무다 이랬다.

*김승유 외, 『가덕도의 민속문화2 –대항동』, 국립민속박물관, 2021, 222~223쪽.

[강서구 설화 75]

바다에 사는 터럭손이

허원(남, 1920년생) 구술
1991년 1월 7일 채록
[가덕도동(대항동) 대항마을]

옛날에 우리 마을에 영구라는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그 할아버지가 100세 이상되어가지고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아주 장사라요. 힘이. 근데 지금 가덕도 등대 있는데 남단에 고기 잡으러 가면 터럭손이를 만났어요. 만나면, 사람을 헤칠라꼬 따라오면 그 할아버지가 힘이 좋으니까 나뭇가지로 잡아땅기가(잡아당겨) 뿌아가지고(부수어) 터럭손이를 막고, 자기가 말이지 입고 있던 옷이나 뭣이나 하나 벗어 주면은 그거를 터럭손이가 받아가지고 가고 사람을 헤치지 않다고 하는 그런 전설이 있어요.

[조사자: 바다에 있는 거지요?] 바다에 있는 거지. 터럭손이는 바다에 살아. [조사자: 생긴 모양은 이상하나요?] 온 몸이 뭐 글자 말 그대로 털이지. 인형모양으로 마 이렀는데 털로 둘러 쓴 모양이지요. [조사자: 여잡니까?] 남자, 여자 그거는 구별도 못하고.

*김승유 외, 『가덕도의 민속문화2 –대항동』, 국립민속박물관, 2021, 224쪽.

[강서구 설화 76]

공고지재에서 도깨비와 씨름한 사람

황다연(여, 1962년생) 구술
2020년 10월 28일 채록
[가덕도동(대항동) 대항마을]

공고지라고 있어예. 저 거제도라고 공고지라고 왜 수선화 많이 나는 동네 있지요? [조사자: 예. 거제도에.] 그게 옛날 그 우리, 그 지금 사는 사람이 우리 이모 집인데 그 집을 사가 들어왔어요. 그랬는데 그 큰오빠가 얼굴이 억수로 부리부리하고 키도 크고 이랬는데 저녁에 이제 그 공고지재를 넘는 거라예. 재를 넘으면 그 밤에 토깨비하고 밤새도록 씨름을 핸 거야. 그러니까 도깨비랑 싸운 거지. 그래 싸우고나서 인제 아침이 돼갖고 떡 깨가 보면은 빗자리하고 싸웠대요. 그 고개를 넘으려면. 공고지 고개라고. 공고지 알 껀데? 그기 뭐냐면? 수선화 지금 많이 나고 거게가(그곳이) 공고지라고 그래예. 거기, 거기 우리 수선화 그 터가 다 이모님 댁인데 이모님이 팔고 인제 저 서울로 가시면서 그 사람들이 사갖고 수선화를 키워갔고 공고지를 그렇게 유명하

게 만들었어요.

그랬는데 그 오빠가 공고지재를 넘을 때 한 몇 번을 그런 일을 했대요. 그런 일을 당했대요. 밤새도록. 이제 그 워낙 크고 장대하니까 옛날에 그때 지금 팔십이 넘은 사람인데 그때 대학 다니다 중퇴했으니까 제법 똑똑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그 밤새도록 그 토깨비랑 싸운 거지. 사람이라고 싸운 거지. 싸운 아침에 술이 깨가 봐도 술이 깨가 아침에 날이 새가 가보면 빗자리가 옆에 있더래요.

*김승유 외, 『가덕도의 민속문화2 –대항동』, 국립민속박물관, 2021, 230쪽.

[강서구 설화 77]

아이 잡아먹으러 온 호랑이

황다연(여, 1962년생) 구술
2020년 10월 28일 채록
[가덕도동(대항동) 대항마을]

그라대. 옛날에 뭐 그 산골짜기에 살았는데 그 엄마가 이제 장에 가면서 애들보고 문 열어주지 마라 했는데 그 엄마가 그날 따라서 늦까(늦게) 집을 못 오고 있는데 호랑이가, 그러니까 순지어낸 거지요. 호랑이가,

"문을 열어 달라."

해서,

"그럼 만져보자."

하니까, 호랑이가 털이 있으니까,

"아, 우리 엄마 아니다."

하면서, 안 하니까 안 열어주니까 다시 와갖고,

"좀 문 열어 달라."

고, 두드려주는데 그래서 이제 만져보자 그때 기름을 발라갔고 호랑이가 왔다는 그런 거짓말 같은 이야기.

*김승유 외, 『가덕도의 민속문화2 –대항동』, 국립민속박물관, 2021, 238쪽.

[강서구 설화 78]

대항마을에 큰 인물이 없었던 이유

황혜자(여, 1951년생) 구술
2020년 10월 28일 채록
[가덕도동(대항동) 대항마을]

여기는 확-티이기(트인) 때민에(때문에) 똑똑한 사람이 안 난다 카대. 똑똑한 사람이 이게 이게 딱 그게 해가지고, 만약에 그거 하면 복이 샌다 그기라. 그래가지고 여기는 똑똑한 사람이 안 난다. 이래 말이 들리. 우리 그때는, 지금은 모르지만은 옛날에는 그라대. 또 여기는 옛날에는 뭐 다 뭐 똑똑은 그렇지 뭐 국회의원 정도 나오는 이런 게 다였고. 마 쪼깨(조금) 똑똑한 사람은 있어도 큰 인물이 안 난다 하대.

*김승유 외, 『가덕도의 민속문화2 –대항동』, 국립민속박물관, 2021, 213쪽.

[강서구 설화 79]

대항마을의 도깨비불

황혜자(여, 1951년생) 구술
2020년 10월 28일 채록
[가덕도동(대항동) 대항마을]

옛날에는 여게 도깨비불이 많이 있었어예. 옛날에는 여기 진짜 날이 이래 비가 올라고 이러면은 겨우 저 건너서 산에서 도깨비불이 크-게 해가지고 우리는 많이 봤어예. 그기 모였다가 떼 나갔다가 이 저기서는 도깨비불이 나면은 뭐 내일은 무슨 바람 불겠다 뭐 이러거든. 날 궂겠다 이러거든. 도깨비 그때는 많이 있었어.

그게 날이 궂을라 하면은, 날이 비가 올라고 흐리고 하면은 그런 게 생긴대. 지금은 전기 때문에, 전깃불 이거 하고 나서는 도깨비불이 어디 있노? 옛날에는 천지로 있었지.

요게 우리 집에 요 앉아있으면은 보이거든. 저기 외양포 그기는 불이 떡 이리해가지고, 도깨비불이 마이 났어.

*김승유 외, 『가덕도의 민속문화2 –대항동』, 국립민속박물관, 2021, 226쪽.

[강서구 설화 80]

귀신으로 변하는 몽당 빗자루

황혜자(여, 1951년생) 구술
2020년 10월 28일 채록
[가덕도동(대항동) 대항마을]

여기에 귀신들이 많이 났어예. 왜 많이 났나 하면은? 전에는 요 뭐. 지금은 전깃불이 있고, 차가 다니고 이러이께는. 저 고개 너머에서로 밤 되면, 밤길을 걸어오면은 진짜 뭐뭐 나타나가지고 사람을 해꽂이로 하고. 요게 귀신이 나가지고 그게 인자 자고 나니께네 그 술이 돼가지고 술로 먹고 귀신 만났다고 그거 했는데, 그 자리에서 자고 나니께네 빗자루 몽딩이더랍니다. 그러면 사람이 인. 인 이게 전신에(모두) 귀신불이 되는 기라. 그러니께네 거기도 막 귀신불 났다 이래도, 사람이 집에 무슨 물건을 쥔 거를 버리면은 특히나 빗자루 저런 거는 마 그런 거라. 그래서로 마 귀신이 나서로, 난 게 아니고 사람이 인이 이게 참 무서운 기라.

*김승유 외, 『가덕도의 민속문화2 –대항동』, 국립민속박물관, 2021, 228~229쪽.

[강서구 설화 81]

고려장이 없어진 내력

황혜자(여, 1951년생) 구술
2020년 10월 28일 채록
[가덕도동(대항동) 대항마을]

이바구는 그리 나대. 뭐 옛날에, 뭐 옛날에는 칠십 그거 하면은 고려장 한다 이라거든. 옛날에 뭐 또 말이 나기로 뭐 할아버지가 뭐 저 뭣고? 할아버지가 할머니로, 자기 엄마로 뭐 지게다가 지고 가니께는 손자가 하는 말이,

"아버지도 인자 죽으면은 지고 간다."

고, 그 지게를 다부 갖고 간다고. 그 인자 우리는 말만 들었지. 우리가 직접 그거 핸 거는 모르거든.

*김승유 외, 『가덕도의 민속문화2 –대항동』, 국립민속박물관, 2021, 232쪽.

[강서구 설화 82]

세워 두면 도깨비로 변하는 몽당 빗자루

김광자(여, 1940년생) 구술
2021년 2월 4일 채록
[가덕도동(대항동) 외양포마을]

빗자루 몽디이(몽둥이)를 거꾸로 세워놓으면은 구신(귀신)이 난다고 카고. 그때 안 그랬나 그제? 빗자루 몽디이로 [청중: 빗자루 몽디이를 우리가 깔아 앉아가 불로 옇잖아? 그 빗자루 몽디이에서 도깨비 난다 했어.] 도깨비 난다 카고, 빗자리 몽디이로 꺼꾸론가(거꾸로) 요래 꼽아 놓으면 구신이 난다 카고, 그 구신 난다 카고 그런 소리도 있었고.

*김승유 외, 『가덕도의 민속문화2 –대항동』, 국립민속박물관, 2021, 229쪽.

[강서구 설화 83]

강피만 훑을 팔자의 부인

김광자(여, 1940년생) 구술
2021년 2월 4일 채록
[가덕도동(대항동) 외양포마을]

[조사자: 여자는 들에서 쟁피(강피) 훑고 남자는 책만 읽는다고 막.] 책만 읽는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저 뜯어가가지고, 훑어가가지고 그래 인자 솥에다가 덕석에다, 솥에다가 그를 해가지고 덖어가지고, 요래요래 그래 인자 비비가지고, 알맹이 그거로 옛날에 묵었다 카대. 그래도 그 신랑이라 카는 사람이 비가 와서 그 덕석이 다 떠내려가도 그거를 안 걷어가지고 그거가(그것이) 다 떠내려갔삐리더란다. [조사자: 그래갖고. 남자는 과거급제 안 했습니까?] 과거급제하고 여자는 도망가고. 그런 것도 있고. 우리 엄마 그런 거로 잘 알더로. 옛날에.

*김승유 외, 『가덕도의 민속문화2 –대항동』, 국립민속박물관, 2021, 233~234쪽.

[강서구 설화 84]

야시로 태어난 딸

김광자(여, 1940년생) 구술
2021년 2월 4일 채록
[가덕도동(대항동) 외양포마을]

옛날에 뭐 큰 정승한 집에, 옛날에 정승한 집에, 정승한 집에서 아들만 막- 놓다가, 아들만 어찌 낳아사서 딸 놓을라고 산지 불공을 드려가지고 인자 애가 딸로 낳았는데, 그 할매가, 삼신할매가 점지를 해주면서 순 야시로 해줐는 기라. 배이지가(배가) 불러놓이께네 아들로 못 올라서 불공을 드리지. 딸 못 낳아서 불공드린 적은, 옛날에는 부잣집에서. 인자 딸로 못 낳아서 인자 엄마는 딱 들은 이바구다. 그러니께네 그래가지고 삼신할매가 가만히 생각해보니 분이 나거든.

"너거 집구석을 망해 묵을라꼬 그래 딸 타령을 한다."

고. 그래 딸로 몬 낳아서 산신 불공을 해가 낳았더마는 딸로 낳았어. 흉측한 야시로 낳았어. 그래가 그 인자 딸이 커가지고 처이가(처녀가) 되가지고 그기 커지이(크니까) 한 밤 자고 나면 소가 한 마리 툭 꾸부려 있고. 또 한 밤 자고 나면 소가 탁 꼬부라져가 있고. 그거 이바구다.

그래가지고 인자 나중에는 그래 가마이(가만히) 아들이 보니께네 여동생 그기 그라더란다. 저거 식구한테 이야기해도 말로(말을) 안 듣는 기다. 그 말로. 그래가 나중에는 그 사람이, 딸이 완전 야시가 되가 고만 그 집을 완전 다 말아묵어뻤더라고. [조사자: 그래가 도사가 오빠한테 병을 줘가지고 그 야시를 물리치고 했다던데예.] 그래. 그래가지고 무슨 병을 주이께네, 한 군데 넘어가다 새파란 병 던지고, 쉽게 말해서 한 군데 넘어가면 흰 거를 또 떨어지고. 흰 거 던지니 가시밭이 되고. 마지막에는 빨간 거를 던지니께네 [청중: 불이 되고.] 불이 되가지고 그래 그 야시가 타지가지고(타서) 죽었다 하대.

*김승유 외, 『가덕도의 민속문화2 –대항동』, 국립민속박물관, 2021, 238~239쪽.

[강서구 설화 85]

애원 애기

김광자(여, 1940년생) 구술
2021년 2월 4일 채록
[가덕도동(대항동) 외양포마을]

옛날에 무슨 애기 뭐 동이라 하더나? 무슨 그것도 할매 그런 거 잘 알 끼다. [조사자: 애기동

이?] 그래가지고 옛날에 며느리가 저거 뭣고? 저승에서 그 며느리를 잡으러 왔어. 며느리를 잡으러 왔는데 엄마 잘하디라. '잠깐 기다리라.' 카면서 잠깐 기다리라 이 말은 요새 내 말이고 그래 오똑오똑 걷는 애기 밥을 줘가 달개고. 아장아장 걷는 애기. 뭐라 카더라? 뭣을 주고 달개고. 또 이래 하는 아는 젖을 주고 달개고. 그 며느리가, 할매가 시할매가 있었는데 그래 할매를 보고 자기는 아들이 많이 있으니께네, 인자 저승 갈라 카이께네 그 아들로 놔두고 몬 가고. 할매가 계셨어. 할매를 대리 가라. 하이, 애기 뭣이라고 무슨 말로 욕을 하면서로,

"니 갈 때는 니가 가지. 소뿔도 못 멕이고."

뭐 우리 엄마 참 잘 하디라. 못 멕인데(못 먹이는데),

"니 갈 때는 니가 가고, 내 갈 때는 내가 가지."

지줌(제각기) 갈 길 따로 있는데, 저거 그 애기 며느리로 손주며느리를.

그러니께네 그래서 이 저승이 이렇답니다. 옛날에 그 할매가 고마 그래서 바로 질대로(길대로, 나이 순서대로 라는 의미.) 갔으면 질대로 착착 갈 낀데.

"어라! 해나 물렀거라. 니 갈 때는 니가 가고, 내 갈 때는 내가 가지. 와 내가 니 대리로 가노?"

이래놓이깨네. 고만 거꿀이(거꾸로) 돼가 요래요래 탁 하디, 참 그런 이바구는 우리 엄마가 잘하디라. 이래 옛날에. [조사자: 할머니 그거 애원애기다. 그지예?] 응.

그 애기가 그래 며느리가 그래 인자 걷는 아도 있고, 기는 아도 있고, 뿔뿔 이라니께네 그래 인자 대리로 가라 카이께네, 며느리가 젖 주고 밥 주고 그 애들로 다 달가놓고(달래놓고), 그 인자 아들로 놔두고 갈라카이께네 며느리가 그렇다아이가? 손지가. 그래 할매로 그라이께네.

"에게 이년 물렀거라. 니 갈 때는 니가 가고, 소뿔도 못 멕이고."

뭐 또, 뭐 그 중간에 말이 또 한 마디 있더라. 있는데 그래,

"니 갈 때는 니가 가고, 내가 갈 때는 내가 가지."

카면서로, 할매가 대리로 가라 카이 안 갈라 카더란다. 그래가 이게 이기 꺼꾸리(거꾸로) 됐단다. [조사자: 할머니 그런 것도 있대예. 남편 보고 가라 해도 남편도 안 가고.] 남편은 안 가지 당연히. [웃음] [조사자: 그래 좋다 하더니 안 가고.] 그래 안 가지.

*김승유 외, 『가덕도의 민속문화2 –대항동』, 국립민속박물관, 2021, 239~240쪽.

[강서구 설화 86]

대홍수 때 물에 잠겼던 가덕도

허순옥(여, 1942년생) 구술
2021년 2월 4일 채록
[가덕도동(대항동) 외양포마을]

저 산꼭대기, 저- 높은 데 담치 껍데기 굴껍데기가 잔뜩 재이지가(쌓여져) 있거든. 저 마 높은 꼭대기에는 전신에 다 있어. 구시봉('국수봉'을 말함)에도 있고 저 연대산에도 있고. 높은 데 마장(마다) 다 그기 있어.

이상하게 그기, 물에 있는 담치껍질 굴껍질이 그 산꼭대기에 재이지(쟁여져)가 있노? 이래 했더니만, 그거로 그거 하이께네, 노아홍수 때 비가 그만치 몇 달로 그거 해가지고, 물이 산꼭대기까지 차가지고 물에 끼(물의 것, 해산물을 지칭함.) 밀리(밀려) 올라가가지고 재이진 기라 하네, 옛날 사람들이 그래 말 하대.

그래가지고 그 높은 연대산에도 가면 그기도 재이지가 있다. 요래 요만치나 재이지가 있다. [조사자: 국수봉에도예?] 응. 산꼭대기 마장(마다) 다 있어. 그래 그 이야기가, 노아홍수 때 그 이야기가 정말이라.

*김승유 외, 『가덕도의 민속문화2 –대항동』, 국립민속박물관, 2021, 211쪽.

[강서구 설화 87]

외양포와 양천 허씨

허순옥(여, 1942년생) 구술
2021년 2월 4일 채록
[가덕도동(대항동) 외양포마을]

양천 허씨들이 요 부락에 모-두 다 양천 허씨들이 살안(살았던) 동네라. [조사자: 할머니 여기 양천 허씨? 이 양천 허씨가 이 마을 처음 들어왔습니까?] 응. 그래가지고 양천 허씨들이 사는데 이 뒷산에 이게 전신에 묘가 양천 허씨들 묘라. 비도 크게 세워났거든. [조사자: 지금도 있습니까?] 산에 올라가면. 요 뒤에 뒤에. 밭간뒤라고 하거든. [조사자: 밭간뒤?] 응. 밭간뒤, 밭간뒤. 양천 허씨들 묘가 다 허씨네들 묘라. 전신에(전부) 허씨네들 묘. 비석도 그기 씨워놓고(세워놓고) 이랬는데. 그 인자 양천 허씨들이 이 구락에 사는데 그래가 일본 사람이 쳐들아와가지고 요게 인자 일본 사람 들어와보이께 그래 다 나갔어. 양천 허씨네들은 다 나가고, 그래 인제 일본 사람들이 진을 치고 요게 전-신에(전부) 진을 치고, 산꼭대기 전신에 포장질하고 전쟁 치를 준비 다 해났거든. 그래 포진지가 있고. 양천 허씨들은 나갔는데, 해방되고 일본 사람 가고 우리가 들어오고.

*김승유 외, 『가덕도의 민속문화2 –대항동』, 국립민속박물관, 2021, 217쪽.

[강서구 설화 88]

외양포마을의 일본군 귀신

허순옥(여, 1942년생) 구술
2021년 2월 4일 채록
[가덕도동(대항동) 외양포마을]

여게는(여기는) 일본 사람이 살다가 간 곳이라서, 처음 여게, 여 대항에서 여래(여기로) 넘어왔는데, 바다에서로 엄-청나게 어부들이 하는 식으로 소리가 나서러, 그런 소리를 듣고 그물에 고기를 마이(많이) 실고 그거 해가 왔는가 싶어서 차츰 차츰 가 봐도 사람도 없고, 배도 없고 그라더랍니다.

[조사자: 여기에?] 응. 소리가 났어러 그 옆에 가 봐도 아무것도 없고, 배도 없고 그러는데 해끼(헛것) 그리 마이 나더랍니다. 그래 '앗차!' 싶어서 되돌아오고.

그 보면 말 타고 댕기는 사람도 있고. 그래가지고 살고 자꾸 오래 되니까 그것도 없어지고. 지금은 없고. 그래 여게 일본 사람들이 살은(살았던) 그기 돼가지고 마 일본사람들이 말 타는 형상도 마이 해끼 나고.

*김승유 외, 『가덕도의 민속문화2 –대항동』, 국립민속박물관, 2021, 224쪽.

[강서구 설화 89]

외양포마을의 도깨비불

허순옥(여, 1942년생) 구술
2021년 2월 4일 채록
[가덕도동(대항동) 외양포마을]

여기서 보면은 옛날에 햇불 그거, 그기 저 불이 막 이래 그거 해가지고 쪼깨난 게 그거 하더마는, 이-래 커지가지고 그기 막- 날대. [조사자: 요게 산에?] 응. 밤에, 밤늦게. 처녀 때 친구들하고 놀러갔다가 그때가 밤늦었지. 밤늦어가 그래 가만히 보면 저기서 불이 쪼께난 기 그런 게, 조그만한 게 생기더마는 막 큰불이 막 날라댕기더라고. 그기 인자 바로 후라쉬도 아니고 그기 인자 해끼(헛것이)라.

*김승유 외, 『가덕도의 민속문화2 –대항동』, 국립민속박물관, 2021, 227쪽.

[강서구 설화 90]

동뫼산의 아기장수

김구길(남, 1939년생) 구술
2021년 2월 4일 채록
[가덕도동(동선동) 생교마을]

장수가, 옛날에 우리 이쪽에 많았는데, 여기 장수가 하나 나가지고, 장수가 나가지고 여게 인제 그게 있는데 옛날에는 장수 이래 나면 집안 안 좋다대. 그래가지고 장수를 누가 그 직있다 말이 이래 들리네요. 나라서 그랬는가? [조사자: 엄마가 죽인 게 아니고예?] 어어 그렇지. 그래가 나라서 죽였다 이런 소리 나더라고. [조사자: 그 지금도 말 발자국이 있다던데 그런 거는 못 들으셨고요?] 말 발자국은 저 산에 가면 있지. 저 산에 가면 말 발자국이 있지.

*김승유 외, 『가덕도의 민속문화3 –동선동』, 국립민속박물관, 2021, 168쪽.

[강서구 설화 91]

연대봉 기우제

김구길(남, 1939년) 구술
2021년 2월 4일 채록
[가덕도동(동선동) 생교마을]

옛날에 그 저 연대봉 있죠? 연대봉이라 카는 데 있죠? 면에 화장해가 누가 밤에 가가 묻어놓고 비가 안 온다 했어. 가덕도. 부산은 저런 데 다 비 다 와도 여기는 비 안 온다 했어. 그래서 농사 못 짓고 다 날이 가물어가지고 그랬거든. 그래 인자 풍물 치고 인자 파러 간다 아이가 동네 사람들. 파고 그랬다고. 파내고 [조사자: 그럼 비가 옵니까?] 그럼 비가 오지. 옛날에. 그 연대봉 밑에 중간에 가서 써놓으면 그랬어요.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뭐 그런 거를 우리 있을 때 동네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풍물치고 올라가고 그런 거는 나 알지.

*김승유 외, 『가덕도의 민속문화3 –동선동』, 국립민속박물관, 2021, 168~169쪽.

[강서구 설화 92]

우뚝 솟은 쉰길바위

김구길(남, 1939년생) 구술
2021년 2월 4일 채록
[가덕도동(동선동) 생교마을]

옛날에는 요 바우 있제? 꼭대기 그 가가지고. [조사자: 저 바위 이름이 뭔데예?] 쉰실바우. 쉰실바우는 쉰길바우라 카고. 높이가 사람 50명 키 높이라 해서 그래 부르는데, 그 쉰실바우 그 옛날에 공 드리러 가고 이랬다고. 공을 드리러 그 가면 촛불로 켜놓고 그랬다고 [조사자: 지금도 해요?] 지금은 안 해. 옛날에 그랬는데 요새 그런 사람은 어딨노. 있나? 세상이 달라져가는 세상인데 요새 그런 거 없다.

*김승유 외, 『가덕도의 민속문화3 –동선동』, 국립민속박물관, 2021, 169쪽.

[강서구 설화 93]

선창마을에서 많이 났던 도깨비 불

김구길(남, 1939년생) 구술
2020년 11월 13일 채록
[가덕도동(동선동) 생교마을]

여게 살면 저쪽 동네에서, 저 밑에 저 선창이라는 동네에서 그게 나무가 이렇게 많았거든. 그게 도깨비불이 나긴 났어요. 불이 환하이 해가지고. 가면, 요 동네가면 꺼지뿌고(꺼져버리고).

내 어릴 때 보이께네, 선창이 카는 동네 있어요. 선창. 요 동네 이래가지고 온데 나무가 많앴거든(많았거든). 거서 바다 쪽으로 불이, 이래 불이 벌-거이 해가지고 나타나고 나타나고. 가다가 꺼지뿌고(꺼져버리고). 저 가다가 꺼지뿌고 그랬어요.

*김승유 외, 『가덕도의 민속문화3 –동선동』, 국립민속박물관, 2021, 172쪽.

[강서구 설화 94]

동뫼산의 아기장수

김용인(남, 1966년생) 구술
2020년 11월 13일 채록
[가덕도동(동선동) 생교마을]

[조사자: 여기에 옛날에 이 마을에 아기장수가 났다던데.] 아기장수가 났는데, 옛날 들리는 이야기로, 들리는 이야기로, 그 내가 알기로는 우리 부친이 이야기를 하는데, 조그만한 애가, 그러니깐 어릴 때부터 뭐라 할까? 조금 덩치가 좋았겠지. 그래갖고 보니까, 밖에서 안에를 저거 엄마가 뭐하는가? 보니까 두 살인가 세 살배기가 일어나갖고, 갓난 애기가 일어나갖고 파리를 잡고 파리를 교육을 시키고 있었다고.

그래서 그 옛날에 그 '장수는 역적이 된다.' 이래갖고 그 '죽여야 된다.' 저거 신랑하고 뭐 이래 그거 해가 직여야 된다 해갖고 그 맷돌로 이래 한 개 얹어놓으니께 안 죽고. 그래서 맷돌을 두 개, 세 개 올리니까네 죽더라네. 그러니까네 그날 밤에 백마가 마 날라댕기고 뭐 그렇다대. [청중: 요 산이다. 백마산.] [조사자: 동뫼산을 백마산이라고도 하네예?] [청중: 백마산이다.] 백마가. 아기가 죽고나이께 백마가 뭐 이기 뛰어 댕기고, 저리 뛰어 댕기고, 하늘로 날라댕깄거든(날아다녔거든). 그런 전설이 있지. [청중: 옛날에 똑똑한 사람은 다 직이뻔다(죽여버린다) 아를.] 애들이 역적이 된다 캐서. 그래 죽인 기지. 저거 부모들이. [조사자: 아기장수가 죽고나서 백마가 뛰댕기고 했다고 그래서 동뫼산을 백마산이라고도 불렀다 그지예?] [청중: 그래 백마산이라.]

*김승유 외, 『가덕도의 민속문화3 –동선동』, 국립민속박물관, 2021, 168쪽.

[강서구 설화 95]

애장터가 된 천성진성

허영순(여, 1934년생) 구술
2020년 11월 13일 채록
[가덕도동(동선동) 동선마을]

애장터는 여기 없다. 애장터는 저 그게, 옛날에 내 아(아기) 적에 보면 천성에 성뚜레(성의 둘레) 그런데 아를 돌깨장[돌을 깨어 그 아래에 묻는 것을 말함]을 하대예. 아들로. 돌로 그래 구덩이 쪼금 파갖고 돌로 거기다가. 어데서 하는고 하이께네, 단지 같은데 그런데다가 아로(아이

를), 이레[4] 아래 아는 그 옇어가지고 돌깨장을 하대.

그런데 고거 핸데 젙에(곁에) 가면 냄이가(냄새가) 마이(많이) 난다. 밭 곁에 그런데. 그 천성에는 그 가면 그게 있다. 이리 뭣고? 옛날 저 성이 있거든. 성이 있는데 그런데 아들 애장터로 한다. 하나둘이 아이다. 표가 없어. 아들을 매장해 놓으면 표 없다.

성돌 그런데 해놓으면 냄이가 나. 여름 되면 냄이가 나면 '애장터 갑다.' 이래 하고 이 산에는, 이 산에 가면 애장터는 돌만 쪼까이(조금) 있는 게 그기라. 그기 지나가면 기분이 안 좋아. 어른 뫼 보다가 아들 애장은 참 기분 안 좋더라. 기분 안 좋대.

*김승유 외, 『가덕도의 민속문화3 –동선동』, 국립민속박물관, 2021, 170쪽.

[강서구 설화 96]

집지킴이

허영순(여, 1934년생) 구술
2020년 11월 13일 채록
[가덕도동(동선동) 동선마을]

찌끼미는(지킴이는) 그 집에 튀튀하면 찌끼미 나온다. 찌끼미가 나오더라고. 천성에, 요 이너머 동네 저기가 친정 동네라. 내 그 처녀 적에 거기 있으이께네 고 집이 인자 망할라 카이께네 찌끼미 나오는 기라. 그 집이 망할라하면 찌끼미 나온다. [조사자: 그래 그 집이 망했어요?] 그래 한 집에서 그 찌끼미가 나오더니만 그 집 망해뻤는 기라.

그래 그 사람들 다 죽었다. 다 죽고 없다. 그 사람들. 저거 그 집이 망한 사람 집은 다른 사람들이 집 지으면서 뜯어삐고(뜯어버리고) 그 사람들은 다 죽었다.

*김승유 외, 『가덕도의 민속문화3 –동선동』, 국립민속박물관, 2021, 170~171쪽.

[강서구 설화 97]

무당 옷을 버려 망한 집

허영순(여, 1934년생) 구술
2020년 11월 13일 채록
[가덕도동(동선동) 동선마을]

4) 출산 후 초이레를 말함.

이 동네에 저쪽 저 집들 뒤에, 요 말고 저기서 동네로 들어오는 데 저게가(저곳이) 터가 그리 세더라 하대. 그 터가. 동선에 들어오는 입구에. 옛날에 그 터가 그리 세더라 하대. 터가 거기 세가지고, 그래 지금도 터가 세다 카대.

셌는데 거기 무당집이라. 무당집인데 무당 옷함이 있어가지고 그래 옛날에 그 무당집에서 그래 옷함을 내삐렸는데(내버렸는데), 그라고나서 그 집 안 망해뻤나(망해버렸나). 모셨으면 자기가 살림이 일어났을 낀데(건데), 그걸로 마 함부로 내삐리가 망해뻤다 아이가.

*김승유 외, 『가덕도의 민속문화3 –동선동』, 국립민속박물관, 2021, 171쪽.

[강서구 설화 98]

귀신불과 낮귀신

허영순(여, 1934년생) 구술
2020년 11월 13일 채록
[가덕도동(동선동) 동선마을]

여게 옛날에 구신(귀신), 구신불 많이 나. 구신불 많이 났거든. 지금은 전깃불 켜고 나서는 귀신불 없어. 이거 전기 켜고 나서, 전기 오고 나서 구신불이 없어. 비 올라 카면 마 여기서 마 저기서 그 구신불이 막 이래. 이래 댕기고 이랬는데 인제는 구신불 없어.

구신불은 봐도 되는데, 낮구신 보면 저 사흘 만에 안 죽으면, 석 달 만에 안 죽으면 삼년 만에 죽는다 캤거든. 그 낮구신, 인제 낮구신도 없고, 이 전기불 있고 나서는 낮구신도 없어.

인제 우리 저 시숙모가 낮구신 만나가 안 죽었나. [조사자: 어디서?] 저-기 저 바닷가 개발이 가가지고, 개발이 하러 갔거든. 미역 캐러. [조사자: 예. 미역 캐러.] 미역 캐러 가서 낫으로 해가지 매- 캐니까네, 할매로 왔더라 해. 구신이. 그래 구신이 오더라 해. 와서 보이 할매라. 자기는 인자 그 할배가 당도할 줄 알았더만. 당도를 안 하는 기라. 그게 낮구신이라.

[조사자: 낮귀신 보고 어떻게 됐는데예?] 낮구신 보고는 오래 못 산다. 그래 그 시숙모가 삼년도 못 돼서 돌아갔다 아이가. 그 자기 눈에, 자기 눈에 나타났는 기라. 자기 눈에. 그 사람이 우리 이우제(이웃) 사람인데, 자기가 가서 미역을 캔다고 캐고 있는데, 저기 저 사람이, 아는 사람이 지한테로 오더래. 그기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고 낮구신이라. 그래가지고 삼 년도 못 되서 돌아갔을 끼다.

*김승유 외, 『가덕도의 민속문화3 –동선동』, 국립민속박물관, 2021, 172쪽.

[강서구 설화 99]

자식 훈육을 위해 나타난 귀신

허영순(여, 1934년생) 구술
2020년 11월 13일 채록
[가덕도동(동선동) 동선마을]

나는 이거 우리 집 일이지만은, 옛날에 저 우리 동생이, 바로 내 밑에 동생이 여기 있다가, 여기 밤에 있다가 저거 자형하고 뭐 말다툼하고 밤에 밤중이 되서 갔거든. 나갔는데, 우리 친정 엄마가 돌아가뻤거든(돌아가셨거든). 돌아가뻤는데, 딱 한 고개에 저게 딱 올라서이까네, 우리 남동생이 한 고개 딱 올라서이께네, 우리 친정에 돌아간 엄마가 지 눈에 비이더라(보이더라) 이거라. 전에, 상중에 입은 그 옷을 입고 그래 가면서로 탁 앞에 서더래. 지 앞에 서는데 똑 거리도 고만치만(만큼만) 남가놓고서는(남겨두고는) 지가 빨리 가면 우리 모친도 빨리 가고. 그래가지고 인자 뭐라 카는고(하는가) 하이께네,

"자형이, 자형이 부모 대신인데 뭐 할라꼬 말다툼을 했노?"

우리 모친이 그라던 가배. 그래가지고 인제 갔어.

그리 쪼께(조금) 겁이 나더래. 한 고개에서러. 그래서 인자 우리 모친은 앞에 가고. 우리 모친 앞에 절로(저기로) 또 질이(길이) 있거든. 걸로(그쪽으로) 내려가삐고 지는 어데로 갔는가 하면 절에, 사찰에 그래 거기로 가뻤어.

거기로 가이께네, 걸로 가이께네, 그 스님 있는 집에 가서,

"스님, 있으면 내 좀 자고 가자."

카이께네, 스님이 안 계시고 여자만 있더래. 보살만 있더래. 그래가지고 넘에(다른 사람) 여자 자는 집에 못 들어가고. 떠내려 그래가 천성 가는 길로 내려갔어. 가이께네 그게 또 기다리가 서가 있더래요. 그래 또 앞에 서더래. 앞에 섰어로(서있어서) 그래 간격도 또 고만치 해가. 그래가 동생이 쎄이가면[5] 우리 엄마도 쎄이가고, 우리 동생이 또 천천히 가면 우리 엄마도 천천히 가고. 그래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인자 욜로(여기로) 가도 우리 집에 가고, 친정으로 가고, 욜로 가도 친정에 가는데 우리 동생은 마 가까운데 욜로 가뻤어. 그래가지고 우리 모친은 절로(저기로) 돌아가뻤어.

그래가 집에 삽짝거리에 들어가가지고, 가가지고 마 우리 조캐(조카) 이름을 부르면서로 잿물을 흩이라 카던 가배. 그래가 잿물을 바가치에다 잿물을 부어가지고 흩이뻤는 기라. 그러고는 고마 집에도 안 들어오고 우리 엄마는 그냥 없어지더라 카대.

*김승유 외, 『가덕도의 민속문화3 –동선동』, 국립민속박물관, 2021, 172~173쪽.

5) 빠른 걸음으로 간다는 의미.

[강서구 설화 100]

귀신 이야기

허영순(여, 1934년생) 구술
2020년 11월 13일 채록
[가덕도동(동선동) 동선마을]

또 한 번은 우리 동생 저거 친구가 여잔데, 학교 댕깄는데 또 저 밑에 천성 구석에 가이께네 단발머리하고 우에는 흰 저고리고 까만 처마를(치마를) 입고 싹 지나가더라 캐. 그래 와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밤에 왔거든. 집에 와가지고 저거 친구가 선자거든.

"선자 저거 집에 있는가?"

이러이께네,

"와? 와 그라노?"

이라이,

"선자가 가덕 가는가? 옷을 까만 치매를 입고 흰 저고리 입고 가더라."

지 어깨를 탁 받챠주더라 캐. 그래 저거 집에 가가지고,

"선자야, 선자야."

부르니까네, 선자가 집에 있더란다. 그래 우리 남동생이 구신을 잘 만나.

*김승유 외, 『가덕도의 민속문화3 –동선동』, 국립민속박물관, 2021, 173쪽.

[강서구 설화 101]

정성을 들여야 하는 제사

허영순(여, 1934년생) 구술
2020년 11월 13일 채록
[가덕도동(동선동) 동선마을]

제가 모실 때 음슥에(음식에) 머리카락 들어가면 구신(귀신)이라 캤다. 그래 내내 그 조심스레 하거든. 제사 모실 일 있으면 조심스레 한다 아이가. 머리카락 들어가면. 구신이라 캤다.

아니다. 뭣이라 캤다나? 머리카락 들어가면 구렁이라 캤다. 맞다. 구렁이라 캤다. 구신 눈에는 그기 구렁이로 보인다 카대. 그라면 화를 입고 그란다. 그런께네 머리카락 안 들어가게 조심한다.

*김승유 외, 『가덕도의 민속문화3 –동선동』, 국립민속박물관, 2021, 176쪽.

[강서구 설화 102]

손자의 밑거름이 되는 할아버지

허영순(여, 1934년생) 구술
2020년 11월 13일 채록
[가덕도동(동선동) 동선마을]

옛날부터 할애비(할아버지) 어진 게 손주 거름이라 안 카나? 할애비, 할배 어진 기 손주 거름이라 안 카나. 할배가 어질고 잘 하면은 손주 때는 그냥 잘 되는 기라. 그러니까 옛날 말이 안 있나? '할배 어진 게 손주 거름이다.'고 그런 말이 있었다 아이가.

*김승유 외, 『가덕도의 민속문화3 –동선동』, 국립민속박물관, 2021, 176쪽.

[강서구 설화 103]

고려장 이야기

허영순(여, 1934년생) 구술
2020년 11월 13일 채록
[가덕도동(동선동) 동선마을]

고려장, 고려장 할매들. 옛날에 할매들이 칠십이 넘으면 고려장 했다 카대. 이전에 뭐 고려장이라고 오래 살면, 칠십 이상 넘어가면 갖다가 저 산 어데 갖다가 고려장을 한다 카대. 그랬다 캐. 그래 해가지고 뭐 쌀 가 가가지고 쪼금 넣어가지고 고려장을 해놓으면, 그기서 죽을 때까지 밥을 해 묵거든 혼챠서(혼자서).

그래 산에서 쌀 뜸물이 안 내려오면, 쌀 뜸물이 안 내려오면 '죽었는 갑다.' 이래 한다 카대. 그런 말은 들었어.

*김승유 외, 『가덕도의 민속문화3 –동선동』, 국립민속박물관, 2021, 176쪽.

[강서구 설화 104]

유명했던 가덕 탕건

김태수(남, 1939년생) 구술

2020년 11월 27일 채록
[가덕도동(성북동) 선창마을]

[조사자: 옛날에 가덕에서 탕근 만들었습니까?] 예. 탕근 만들았어예. 가덕에 그 5,6명 됐어예. 5,6명 됐는데, 그때 그 탕근을, 가덕도가 우리나라에서 여섯 번째 크다 카는 걸. 지금은 가덕도가 뭐 그러는데, 그 당시에는 뭐 1 제주, 2 거제, 3 남해, 4 진도, 뭐 울릉도 빠지고, 6 가덕 이랬거든예. 탕근을 해가지고 가덕도가 굉장히 크다 카는 것도 알았어예.

[조사자: 주로 어느 마을에서 탕근을 만들었습니까?] 우리 마을에서. 선창에서 그 할아버지가 말을 갖다가 콩키라 해. 콩키, 바로 우에 있어예. 그분하고 가덕에 몇 분하고 탕근을 만들어가지고 옛날에 서울 올라갔어예, 서울을. 서울을 올라가서 탕근을 그 팔고, 걸어 내리오고 이랬다가. 그 당시 탕근을 만들어가지고 지고 걸어서 서울 올라가고 걸어 내려오고 이랬다 카대. 우리 마을에 그 할아버지가 있었어예. 그라고 나서는 탕근을 안 만들었어예. 그래서 가덕도를 갖다가 6 가덕이라꼬. 탕근은 가덕이 유명했답니다. 그 당시에.

*김승유 외, 『가덕도의 민속문화4 –성북동)』, 국립민속박물관, 2021, 171쪽.

[강서구 설화 105]

연대봉과 조개껍데기

김태수(남, 1939년생) 구술
2020년 11월 27일 채록
[가덕도동(성북동) 선창마을]

연대봉 카면 옛날에 봉수대에 올라갑니다. 여서로 먼저, [조사자: 연대봉에서예?] 왜선이. 왜적선이 몇 대가 올라간다. 저 쪽으로 간다. 부산 동래 쪽으로 간다. 카면 불을 피아가지고, 불을 피아가지고 신호를 해.

옛날에 그 봉수대 거기 올라가면, 옛날에 지키는 사람들이 조개를 밑에서 많이 따가지고 묵고 삶아먹은 모양이라. 거 올라가면 조개껍질도 많고. 올라가면 다 저겁니다. 재가 많습니다. 불 올리는 재도 많고 그 당시 조개껍질도 많고. 거기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은 사람들이가 배가 고프니까 밑에 바닷가 내리가가지고(내려가서) 조개 따가와가지고(따와서) 조개를 삶아 먹고 구워먹고 그런 모양이지예.

*김승유 외, 『가덕도의 민속문화4 –성북동』, 국립민속박물관, 2021, 172쪽.

[강서구 설화 106]

연대산 기우제

김태수(남, 1939년생) 구술
2020년 11월 27일 채록
[가덕도동(성북동) 선창마을]

일본 사람은 집터고. 우리 한국 사람은 묘터 카거든요. 묘를 잘 쓰면 3대에 부자가 나고, 잘 못 쓰면 당대에 망한다 카는 거. 그래 보면 묘를 많이 옮긴 사람이 많아예. 묘를 많이 옮긴 사람이 많고.

또 비가 안 오면, 연대봉에 인자 거기는 그기 있답니다. 좋은 곳이 있답니다. 묘지가. 그래서로 옛날에는 그 살짝 몰래 뼈를 가지고 연대봉에 그 인자 좋은 곳에 묘를 썼답니다. 썼는데 비가 안 오면은, 비가 안 오면 '묘 파러 간다.' 해가지고 그때 막 동사무실 있는 거기서 동선, 성북, 선창까지 장구치고 북치고, 비가 안 오면은 그래 그 묘 파러 올라가예. 올라가가지고 묘를 판답니다. 어데 있답니다.

파고 오면은, 오면은 비가 와예. 요새 보면은, 뉴스 보면은 어떤 나라든가? 제를 지내니까, 한국맨키로(한국처럼) 묘로 판다던가, 뭐 한다던가 하니까, 내려오니까 비가 오더라고예. 요새 뉴스도 그게 나오더라꼬. 그기.

우리도 그때 굉장히 가물고 뭐 보통 뭐 석 달 열흘로 가문다 이랬거든. 그래 백일로 그랬거든. 뭐 나락겉은 거 벼같은 거 심어노면 다 빨갛게 깨이가지고 불을 지르면은 탔어예. 모가. 그렇게 가물 때에 뭐 하러 간다꼬. 그 장구 치고 북 치고 굉장했습니다. 우리 부락에도 올라가고, 갔다 오면 비가 와예. [웃음] 그거는 하나의 뭐 전설이고 이야기지만은 실질적으로 그래 했다고.

[조사자: 이 마을에서는 연대산에 쓴 묘를 판다, 그지예?] 예. 그러니까 그 명당자리가, 그 사람이 올라가면 따시고 표향이 바르고 오목한 곳에 그런데 명당을 보는 갑더라고. [조사자: 진짜 묘를 파는가예?] 그때 묘가 아이고. 뼈만 묻었어예. 묻어놓으면은 그 풀이 짙으니까 알거든예. 아니까 파가지고 인자 딴 데 버린다던가. 옛날에 그런 일이 많았어예. 연대봉에 묘를 씨면은(쓰면은) 자손들이 잘 된다꼬. 옛날에 그 하나의 미신이. 요새 같으면 미신이지.

*김승유 외, 『가덕도의 민속문화4 –성북동』, 국립민속박물관, 2021, 173쪽.

[강서구 설화 107]

코바위와 거제도 처녀

김태수(남, 1939년생) 구술

2020년 11월 27일 채록
[가덕도동(성북동) 선창마을]

옛날에는 배들이 전부 코바위, 인자 요 장항에, 장항 그 쪽에 보면 신항 방파제가 이래 나가 있습니다. 저 쪽에 연도, 연도서도 방파제 나가있고. 우리 가덕에서도 방파제 이래 있어예. 고 가면 코바위가 하나 있어예. [조사자: 지금도예?] 예. 지금도 그대로 있어예. 있는데, 옛날에는 왜 배가 전부 그 거제서 오든 어데서 오든 파도가 세면 코바위 이래 둘러가지고 등대로 가와가지고 가거든예.

그 거제 처녀들이, 거제 처녀들이 '코바위 고걸 보고 바람이 났다.'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코맨크로(코처럼) 이래 생겼어예. 바위가. 그 코바위가 지금 하나 있어예. 하나치(한 개) 있어예.

*김승유 외, 『가덕도의 민속문화4 –성북동』, 국립민속박물관, 2021, 177쪽.

[강서구 설화 108]

성북동 부자가 망하게 된 이유

김태수(남, 1939년생) 구술
2020년 11월 27일 채록
[가덕도동(성북동) 선창마을]

양면장 그 계실 때에, 가덕도 등대, 등대 거기에 끝에 그 묘를 썼답니다. 묘를 거기에. 그 명당자리. 그래서 그 묘를 썼는데 거기가 인자 너무 멀고 이래서 묘를 이장을 했는 모양이라. 그래 먼 데서 보니까 먹-, 그 안개가 끼고. [조사자: 묘를 딱 팔 때?] 예. 그 당시 묘를. 새 같은 게 이래 막 날라가더랍니다(날아가더랍니다). 예, 고게가(그곳이) 그 당시 좋은 명당자린데, 그걸 파다 보니까 그게 날라가더라. 그런 이야기.

*김승유 외, 『가덕도의 민속문화4 –성북동』, 국립민속박물관, 2021, 180쪽.

[강서구 설화 109]

헛배와 속신

김태수(남, 1939년생) 구술
2020년 11월 27일 채록
[가덕도동(성북동) 선창마을]

바다에 그 보면은 배가, 배는 밴데, 그기 도깨비배라. 배가 막 지나가뻐면은(지나가버리면) 바람이, 바람이 분다던가, 아니면 고기가 또 마이(많이) 든다든가. 그런 이야기는 들었어예.

*김승유 외, 『가덕도의 민속문화4 –성북동』, 국립민속박물관, 2021, 183쪽.

[강서구 설화 110]

동백골 해병대 초소가 폐쇄된 진짜 이유

김태수(남, 1939년생) 구술
2020년 11월 27일 채록
[가덕도동(성북동) 선창마을]

동백골, 동백이 많아서. 이 쭉- 가덕도에 가에로 마이 났어. 거기에 인자 해병대가, 초소가 있어요. 초소가 있는데, 그기 옛날에 그 항해를 하다가, 배가 인자 항해를 하다가 바다에 인제 시신을 나왔어요. 시체가 나와서 뱃사람들이 그 시신을 갖다가 가까운데 와가 동백골 거기 와가지고 묻었어에. 이래 묻었는데, 묻고부터는 어업을 참 잘했답니다. 재수가 있고. 몇 년 동안 참 잘 했어예.

잘했는데, 하루는 거게(그곳에) 해병대가 들어왔어예. 이렇게 중대가 있었어예. 빽- 돌아 초소가 있었어에. 거기 평평하니까 초소를 지은 기라. 사람 묻어놓은 우에다가 초소를 지었는 기라. 군인들이 몰랐지, 그게 뭐 평평하니까. 그거는 실젭니다. 실젠데, 초소를 지었는데 초소장이 하사라꼬. 그 이름이, 그 하사는 잘 알아예. 그 당시에. 그 자면은 밤에, 그때 겨울이 되니까, 불을 켜놓고 하는 거 아입니까. 군불을 옇으니까 자면 꿈에,

"아이! 뜨거라(뜨거워라). 아이! 뜨거라."

카면서, 꿈에 그렇더랍니다. 그래 하루는 초소에 애가, 자다가 보면은 아가 없어예. 사람이 이상하다. 그래 쫌 있으니까 또 들어오고. 그래 하루는 자다 보니까 애가 또 없어서로 이상하다 싶어서 따라갔어예. 자다가 인자 따라갔는데, 애가 어느 날, 거기 산이 있는데, 그 산에 올라가가지고 막- 아가 기도도 하고. 거서도 막 이래 웃고 이라더랍니다. 그 여잔 모양이지. 무덤 그기. 그래 막 웃고, 웃으면서 그래 마 장난도 하고 이라더랍니다. 그냥 지 혼자서로. 혼자서 인자 자기 마음속에 인자 귀신이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 보니까 이상하다 싶어서로 내려왔어예. 가는(그 아이는) 모르지예. 오니까 그 뱀이가 그 우물가에, 냇가에 큰 뱀이가 있어예. 그거를 총을 쏴가 죽이뻔 기라. 죽여가지고 세 사람인가 그래 해가지고 거기서 삶아 묵었어예. 뱀이가 약 아입니까? 뱀이가 그기 큰 건데. 그래서 며칠 있다가 초소에 인자, 그 외양포 거기서로 술집이 있는데 거서 술을 먹고. 초소 인원들인가

삼 명이가 술을 먹고 배치가 된 기라.

갔어예. 갔는데 초소 가야되는데 전화를 해도 안 받고. 안 받고 이상해서로 초소에 갔어예. 가니까 그서로 저거꺼정 싸워가지고 둘이가 죽고. 둘이가 죽고 하나가 그 우물가에 그냥 가가지고 인자 그서 술을 마이(많이) 먹고 저거꺼정(저희끼리) 술김에 싸워가지고 둘이가 죽고. 술을 마이 묵고 갸가 우물가에 늘어져있더랍니다.

그래서 비상이 걸리가지고, 그래서로 진해 통제부에서 와가지고 파악을 한 기라예. 파악을 하니까 꿈 이야기, 뱀이가 나타난 거, 그거 모든 걸 종합하니까, 아! 그래서 인자 배가 그 잘 되는 기, 어업이 잘 되던 기 어업이 안 되더랍니다. 그래서로 이상하다 싶어서로 오니까, 우에다가 초소를 지어 있더랍니다. 그래 말도 몬(못) 하고 가뻔(가버린) 기지. 파악을 하니까, 종합을 하니까 그 묘라 카는 기 그 우에. 뱀이를 잡아먹었다. 그래 그날 초소 인원들이가 술을 먹고 사고를 저질렀다 캐. 그래 그 초소를 폐쇄시켰습니다. 그때.

*김승유 외, 『가덕도의 민속문화4 –성북동』, 국립민속박물관, 2021, 185~186쪽.

[강서구 설화 111]

비가 오려면 나타났던 도깨비불

김태수(남, 1939년생) 구술
2020년 11월 27일 채록
[가덕도동(성북동) 선창마을]

도깨비, 옛날에는 그 저 저도, 옛날 6·25때에, 그때 6·25때니까 열 한 다섯 살 이래 묵었을 거야. 여 집이, 원 집이 있다가 여 옮깄는데, 우에 저 47번지 있다가. 그때 아버지가 계시고 할 때 제가 초소에, 그때는 6·25때니까 나뭇가지로 만들어가지고 초소에 있었어예.

밤에 비 올 때 되면 해치불이 이랬어예. 불이. 그기 옛날 사람들은 귀신불이라 하는데, 그 당시 반딧불 안 있습니까? 반딧불. 반딧불맨키로(반딧불처럼) 댕기더라고. [조사자: 그런 게 가덕도에도 있었다 그지예?] 그렇지. 귀신 왔다 카고. 귀신불이라 해. 비 올라 할 때에 이래 날라댕기더라고, 그거는 확실히 봤어예. 그건 확실히 보고.

*김승유 외, 『가덕도의 민속문화4 –성북동』, 국립민속박물관, 2021, 187~188쪽.

[강서구 설화 112]

천성고갯길에서 만난 도깨비

김태수(남, 1939년생) 구술
2020년 11월 27일 채록
[가덕도동(성북동) 선창마을]

그거는 천성에. 천성겉은 데. 옛날에 나만(나이 많은) 사람들 술을 먹고 밤길을 많이 걸었거든요. 왜냐면은 이 품삯, 이 처갓집이든 친척집에 일을 해주고 술을 먹고 만취돼가지고 이래 오다보면 그거는 해치라 카는데 불이 막-. 그 당시에 고게 오면 거기 묘가 있어예. 저 천성 우에(위에) 묘가 있었는데 그 '귀신 왔다.' 캐가지고 귀신하고 굉장히 싸웠다 카더라꼬. 그래 칼로 내가지고 그거 찔렀어예. 찔러가지고 그 안날 가니까 빗자루. 몽디 빗자리(몽당 빗자루). 가정에 쓰다버린 빗자리가 그 칼에 찔리가 있더랍니다. 그거는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예. 듣고.

그 당시에는 그런 거 하나의 미신이지만은, 사람들이, 요새는 사람들이 인원이 많고 이라기 때민에(때문에) 뭐 그런 거이(것이) 없는데.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참 귀하고. 그 산에 올라가면 애 우는 소리, 밤에 애 우는 소리, 뭐 이런 소리 많이 들었다 합디다. 많이 사람들이 듣고.

*김승유 외, 『가덕도의 민속문화4 –성북동』, 국립민속박물관, 2021, 188쪽.

[강서구 설화 113]

지게 끈을 도깨비로 착각한 사람

김태수(남, 1939년생) 구술
2020년 11월 27일 채록
[가덕도동(성북동) 선창마을]

우리 선밴데. 두 해 선밴데, 처갓집이 천성이라. 천성에 인자 일을 하고, 그 분도 술을 좋아해예. 술을 좋아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지금은 술을 먹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만 요 앞전만 해도 나가면 술집이고.

그분도 오래 됐어예. 그분이 처갓집에, 가을인데 가을 추수를 해주고 왔어예. 와서 저 빗자루하고 밤새도록 싸왔다더만은. 걸로(거기로) 왔어예. 그래 오는데 그리 올라오니까, 거게가 먼데 그 오는 길이 까막집니다. 경사져요. 까막지는데 뭣이 뒤에 까닥까닥 해서로 돌아봐도 없고. 사람이 가면은 졸졸졸 따라오고. 이상해서 뒤 돌아보면 [웃음] 없고.

그래서로 올라가서, 천성 그 우에가 집입니다. 고모 집. 걸로(거기로) 올라가는데, 이상하게

빨리 걸으면 빨리 졸졸졸 따라오고. 그래서 그서 보면 까막한[6] 내려오는 길이 있거든예. 그래 막 뛰었어요. 거기서로. 거 막 뒤에 졸졸졸 따라오고. 따라와. 그래서러 사람이 겁을 묵고 집에 와가지고 막 쓰러지는 거라예.

쓰러졌는데 그 안날 보니까 지게, 지게 줄 안 있습니까? [웃음] 줄 이게 끊어져가지고. [조사자: 아! 그게 다다다 소리가 났네예.] 어. 줄이 끊어져가지고. 지게 줄이 한 두 발 되거던예. 한 발 반이나 두 발 되거던예. 이기 빨리 걸으면은 밑에 뒤에 따라오고 빨리 졸졸졸 붙고. 늦가(늦게) 걸으면 또 천천히 따라오고. 겁을 내가지고 그냥 막 뛰었어예. 그러면 더 막 따라오네. [웃음] 그래서 겁을 디따(되게) 묵고, 아침에 인자 잠을 깨가지고 지게를 보니까, 지게 줄이 끊어져가 있더랍니다.

*김승유 외, 『가덕도의 민속문화4 –성북동』, 국립민속박물관, 2021, 188~189쪽.

[강서구 설화 114]

장항과 율리를 잇는 산길에서 만난 도깨비

김태수(남, 1939년생) 구술
2020년 11월 27일 채록
[가덕도동(성북동) 선창마을]

내 친구가 아주 친한 친군데예 죽었어예. 근데 그 사람이 율린데. 집이. 율린데 장에 갔다 오면서 그 사람도 술을 많이 했어예. 많이 했는데 그 분도 그 올라오면서로 귀신도 만났다 하더라고.

[조사자: 어디서예.] 천성. 장항에. 장항하고 율리하고 옛날에 산길이 있었어예. 산길이. 바다에서 한 육십 메타 높이의 길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거기로 전부 다 다녔어예. 그래 올라오니까 귀신이 앞에, 사람이 가더랍니다. 사람이 가서로, 뭐 일반 사람인줄 알고,

"같이 가자."

고, 그 뛰갔어예. 같이 가자꼬. 같이 가니까 자꾸자꾸 멀어지더랍니다. 그거는 친구가 나한테 직접 이야기 하더라꼬. 멀어지더랍니다. 그래서 마 같이 갈라꼬 뛰가니까 나무에 부닥친(부딪친) 거라예. 술은 취하고. 부닥치니까 뭐 얼굴에 피가 나고. 뭐 귀신은 온 데 간 데 없고. 자기만, 상처만 이 박았다 하더라고. 내가 친구한테 직접 이야기를 들었다고. 그 당시에. [조사자: 그래도 잘 박았다 그지예? 안 그랬으면 끝까지 홀려 갔을 건대.]

그 당시는 밤길을 많이 걸었거든예. 밤길을 많이 걷고. 그 당시는 사람들이 없었다 아입니까?

6) 까막지는. 길이 높았다 낮았다 한다는 의미.

외롭고 뭐 또 산이고. 요새는 길이 좋아가지고 그렇지만은 옛날에는 길이 그래가지고, 전부 오솔길이거든예. 오솔길을 전부 왔다 갔다 하고. 그 당시 내 친구가 그래 이야기를 하대.

"밤에 한 번 당했다."

꼬.

*김승유 외, 『가덕도의 민속문화4 –성북동』, 국립민속박물관, 2021, 189~190쪽.

[강서구 설화 115]

고려장이 없어진 내력

김태수(남, 1939년생) 구술
2020년 11월 17일 채록
[가덕도동(성북동) 선창마을]

칠십 고려장 카면, 칠십, 안 돌아갔어도 산에 갖다 버린다. 그란다 하더라고. 그거를 자식이, 아들이 지게에다가 자기 아버지를 갖다가 이래 지고 인제 산중에 나갔어예. 산중에 나갔는데, 그래 가면서 저거 아버지가 나무를 꺾었어예. 갈 때마다 나무를 이래 꺾더랍니다. 그래가 인자 아들이, 저거 아버지 모실 데 가가지고. 돌아올라 카니까,

"야야, 내가 올 때에 나무를 꺾어놨으니까 나무를 단디 찾아가라."

카더랍니다. 그래서 자식이 '아, 부모가 자식을 이래 생각한다.' 그래 다시 부모를 모시고 왔답니다.

손자가, 자기 할머니지. 자기 할머니를 그래 버리니까. 나도 아버지 컸을 때 나도 내비리야(내버려야) 된다고, 그래 부모가 다시 깨닫고.

*김승유 외, 『가덕도의 민속문화4 –성북동』, 국립민속박물관, 2021, 203쪽.

[강서구 설화 116]

선창마을에 집성촌을 일군 경산 전씨 옥산군파

전재웅(남, 1945년생) 구술
2020년 11월 27일 채록
[가덕도동(성북동) 선창마을]

우리는 온전 전씨. 옥산군판데, 우리 원 파는 관무공파, 옥산이 지금 경산이라. 330년 동안 거주했습니다. 지금은 11대 손이 나이가 서른 살입니다.

옥산군 아버지가 26대손인데 옥산으로 와가지고 벼슬을 했던 모양이지. 그래가지고 벼슬하니까, 옥산에 와가 사니까, 그때 옥산이 군이니까 옥산군파라 하고. 우리 원파는 옥산군 관무공파. 옥산은 옛날이름이고 지금은 경산이라. 그때는 옥산군이였던 모양이지.

그래 옥산군파 할아버지의 7대손이 밀양 남전에 옥산에서 내려와서 살 곳을 찾다가 밀양 남전에서 터를 잡았던 모양이지. 그래 잡았는데 그 할아버지가 자손이, 7대손 자손이 관무공파거든 7대손이거든. 입도 할아버지가 녹형[7]이라고 우리한테 9대입니다.

밀양에서도 살기가 어려웠던 모양이라. 밀양 남전에 가보면 지금도 보면 산골이라. 아주 교통이 안 좋아. 아주 촌이라. 아주 촌인데 그 가보면 전체 우리 전가들이 살더라고 그래서 그기서 우리 입도 할아버지가 형제간이 두 사람인데 둘이서, 우리 요서, 밀양 요서 살기가 힘드니까 다른 가서 살아보자. 같이 나왔던 모양이라. 그래가지고 형님 되는 분은 김해로 가고 우리 입도 할아버지는 가덕도로 왔어. 그래 가덕도에 와가지고 결국 선창에, 330년 전에 선창에 자리를 잡았지.

[조사자: 옛날에 여기 집성촌이었습니까?] 우리 마을에는 전가들이 많이 살았지요. 지금 여기 살고 있는 세대가 작은집 큰집 다 보태면 한 17집? 15세대는 넘을 끼다. 조사자: 입도할 때 다른 성씨도 있었습니까?] 마이 있었지. 정도 되는 갑다. 우리 가덕도에 제이 먼저 들어와 산 사람이 천 씨라 하더라고. 지금 천씨의 손들은 아무도 없어요. 제일 성받이가 빨리 들어와 산 성씨가 천 씨라는 말이 있더라고. [조사자: 천 씨가 언제 들어왔는지 이야기는 있습니까?] 그런 말은 모르고.

*김승유 외, 『가덕도의 민속문화4 –성북동』, 국립민속박물관, 2021, 170쪽.

[강서구 설화 117]

연대산 기우제

전재웅(남, 1945년생) 구술
2020년 11월 27일 채록
[가덕도동(성북동) 선창마을]

우리가 아주 어릴 때에 어른들이 하는 말이고 하는 건데, 들어보면 연대봉에 묘를 파러 간다 뭐 이런 얘기 들었어요. 왜 묘를 파러 가느냐 하는데 들으니까 그때 우리 아부지는 몸이 좀 안 좋

7) 전녹흥(全錄興).

아가지고 우리하고 대화가 잘 안 돼고. 엄마한테,

"왜 묘를 파러갑니까?"

물어보니까, 여름에 아주 가뭄이 심하면은 다른 데 예를 들어서 우리 가덕도만 빼놓고 뭐 예를 들어서 김해도 비가 부산도 비가 오니까 주위에는 비가 오는 거야. 비가 오는데 가덕도는 비가 안 오고 그냥 마 비가 와도 스쳐가는 모양이야. 그러니까 그해가(그렇게 해서) 아주 가물면은 그 우리 저 그 아부지대에 우리 윗대 사람들이 그럼 연대봉에 명산자리가 명산자린지 뭔지 모르니까 연대봉에 묘를 쓰면은 가덕도에 비가 안 오고 비가 피해간다 이런 옛날부터 전설이 있은 모양이야.

그래 그러니까 각 마을에서 몇 사람씩 차출을 하는 거야. 차출을 해가지고 그래 인제 연대봉에 그 묘를 인제 파러 가는데, 가면 이 묘를 봉분을 만들어 놓으면은 찾기가 쉬운데, 찾기가 쉬운데 인제 봉분을 안 만들고 그 묘를 쓰는 사람이 떼를 가 와가지고(가지고 와서) 이래 땅을 파고 묻으면 이래 잔디를 매끄럽게 이래. 봉분 없이 맨듯하게 이래 만든대요. 그러면은 묻혔는지 안 묻혔는지 모른대요.

그러면 여러 사람이 각 마을에서 뭐 몇 명씩 차출해가 올라가면 몇 십 명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자리 좋은 이런 데 뭐 요 정도 부위에 가서,

"누가 빼를(뼈를) 묻었노? 한 번 찾아봐라."

이래가지고 조사를 한다. 그럼 조사를 하면 우짜면 왜 그 못 찾고 오는 때도 있고, 우짜면은 그 거기에 묘를 뼈를 묻어난 떼가 있대요. 그러면은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모르지만, 그 뼈를 파내가지고 뭐 아무데나 집어던지고 온대요. 다른 데 묻어주지도 안 하고 괘씸하다 이래가지고 그럼 그래가지고 그 뼈를 그 묻으면 무덤이지. 지금 말하면.

"무덤을 파헤치고 나서 인제 마을로 내려오기 전에 뭐 비를 맞네, 비가 내리고 왔다."

그런 얘기를 이제 많이 하더라고. 그러면 아주 뭐 비가 이래 안 오고 가뭄 때는 그 뭐 종종 그렇게 했다네예. [조사자: 요새는 그렇게 안 하고 그지예?] 요새는 그런 게 없지. [조사자: 다른 방법으로는 안 하시고?] 그렇지.

요사이는 이제 농사를, 옛날에는 우리 가덕도가 산이 얕으니까 물이 귀한 거야. 그래 요사이 같이 지하수라도 개발을 해가지고, 지하수라도 파가지고 지하수 물로 쓰면 되는데 그때는 오로지 천수라. 하늘에서 내리는 비만 보고 농사를 지었던 거야. 그러니까 아주 물이 귀했어요. 물이 귀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뭐 행위도 했고.

그런 전설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조사자: 물이 흔하니까.] 물이 뭐 크게, 이 우리가 시내 상수도가 들어오기 전에도 농사를 벼농사를 많이 안 짓거든. 천수라고 전부 밭으로 개량이 돼뿌고. 그러니까 인제 벼농사를 안 지으니까 뭐 좀 여름에 가물면 '아! 가무는 갑다.' 뭐 그런 식이지. 뭐 크게 옛날 모양으로 모여가지고 뭐 그런 거는 안 하지.

연대봉에 뭐 지금도 그런 말을 해요. 밭농사가 있으니까 여름에 하도 비가 안 오고 이러면은, 김해나 양산이나 부산이나 마산이나 뭐 거제나 비가 많이 왔다는데 우리 가덕은 비가 안 오고 이러면, 한 3년 전에도 그랬어요. 우리끼리라도 뭐,

"연대봉에 또 누가 묘를 썼나? 와 그리(왜 그렇게) 비가 안 오노?"
이런, 지금도 그런 전설로(전설을) 이래 이야기는 해도 실제로 우리가 가서는 뭐 묘 파고 이러지는 안 했거든.

*김승유 외, 『가덕도의 민속문화4 –성북동』, 국립민속박물관, 2021, 173~174쪽.

[강서구 설화 118]

성북동 부자가 망하게 된 이유

전재웅(남, 1945년생) 구술
2020년 11월 27일 채록
[가덕도동(성북동) 선창마을]

옛날에 잘 살았는데 그 뭐 일시적으로 그 뭐 집안이 가더라고. 천성에도 보면은 천성에. 여기서는 양면장이 아니고. 천성에 인제 양면장이라는 분이 그 저 짝 천성동네에 있었어. 근데 그 집안도 그 뭐 옛날에 그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 저 양면장의 며느리가 그 저 짝 대항에서 시집 왔대요. 근데 그 양면장 며느리 되는 분이, 우리는 어느 분인지는 모르지만은 그분이 처녀 때 이래 해녀질을 했대요. 해녀질을 했는데 그 해녀를, 그 물질을 할라면 물때를 맞챠가(맞춰) 가야 하는 거라. 우리 요는(여기는) 물때라 하거든. 한물, 두물, 서물 뭐 이래 조금 뭐 이래.

그 인자 차라리 이 사람이 새벽 물때를 맞챠서로(맞춰) 인제 그 바다에 해녀질을 하러 갔던 모양이야. 하러 갔는데, 가덕도 연대봉 그 밑에 가서로 해녀질을 할라고 그래 거서 기다리는데, 그 밤에 산에서 닭이 울더래요. 닭이 울어싸서로, 그래서로 그 처녀가 닭 우는 자리를 인자 봐놨대요. 봐놔놓고 그래 거기 양면장 며느리 되는 분이 '틀림없이 이거 명산 자린데, 명산 자린데 자기 친정에 이제 부모들이 죽어서 모셔야 되느냐? 안 그러면 내가 시집을 가서 시집의 그 가족을 거기다 모셔야 되느냐?' 그래 자기가 많은 생각을 했다 하더라고. 하다보니까 그럼 친정에, 인제 친정 부모를 모시던가 이래하면은 결국은 자기 오빠들이 잘 되지. 자기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께 '내가 시집을 가가지고 시집 쪽에 인제 뭐 시부모나 이래 모시면은 자기가 잘 살아야 뭐 형제간도 도울 수 있고 친정도 도울 수 있다.' 이래가지고 자기 이제 그 시아부지 되는 사람이 죽었다든지, 할아버지가 죽었든지 거기다 모셨대요.

모셨는데 그런데 그게 명산 자리였던 모양이지. 그래가 거기서 뭐 아주 재산도 불 같이 일어나고 그 인자 결국 천성에 양면장이라는 면장도 하고 자손들이 그랬는데, 그만큼 집안이 흥하게 일어났는데, 또 그 뭐 안 될라니까 또 그 뭐 어데 가서 무당을 이래 대가지고 이래 한 번 물어봤던 모양이지. 물어보니까 그 무당이,

"그 묘가 잘못 써짔다."

이래 됐던 모양이라. 그래가지고,

"이장을 해야 되겠다."

"그 묘를 파지 말고 다부(도로) 묻어라. 정기가 빠지(빠져)나간다." 이래 해가지고, 결국 그 집안에서 의논을 해가지고, '그 나쁘다 하니까 인자 묘를 이장하자.' 이래가지고 이장을 하는데, 밑에서 인제 바다에서 고기 잡는 사람들이 이래 보니까, 그 묘를 갖다가 저 봉분을 이래 허물었겠지. 봉분을 허물고 보니까 그 밑에서 이래 고기 잡는 사람들이 그 묘에서로 팍- 김이 올라오더래. 김이 올라와가지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안 보이더래요. 그래서러 그래 밑에서 고기 잡던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그래가 결국 그 묘를 묻었는데, 다시 묻었는데 그 정기를 벌써 이미 다 날라가뿠는 기라. 그래 그라고 나서 그 천성에 양씨 집안이 싹 망했다 캐. 그래 그런 얘기는 들었어.

*김승유 외, 『가덕도의 민속문화4 –성북동』, 국립민속박물관, 2021, 180~181쪽.

[강서구 설화 119]

바가지를 빌려달라는 터럭손이

전재웅(남, 1945년생) 구술
2020년 11월 27일 채록
[가덕도동(성북동) 선창마을]

밤에 인자 뭐 배를 타고 갈 때 갈 때 낯선 배가,

"바가지를 좀 빌려주고(빌려다오)."

이러거든, 바가지를 그냥 주지 말고, 그냥 주지 말고 그 옛날에는 그 배에서 바가지를 푸는 거 나무로 만들었거든. 지금은 뭐 플라스틱도 나오고 이러지만 옛날에는 나무로 가갖고 이래 사각을 이래 짜가지고 만든다고. 그럼 그거로 이제 그 물 밑에 그 이제 흐르는, 제일 밑에 독이면 독 밑에. 바가지 밑에 그 부분을 빼고 주라. 빼고 줘야만이 이제 귀신이 바가지를 갖고 물로 내내 배에 못 떠 붇는다.

그럼 바가지 떠밀어 물이 빠지니까 그러니까,

"낯선 배가 와가지고 바가지로 좀 빌려두고 하면 그는 그런 거는 귀신 배니까 그 바가지로 줄 때 밑끄터미 빼고 주라."

그런 이야기는 이제 옛날에서부터 전해 내려오는, 내려오는 그 얘기는 내가 들었어.

*김승유 외, 『가덕도의 민속문화4 –성북동』, 국립민속박물관, 2021, 182~183쪽.

[강서구 설화 120]

시신이 선택하는 배

전재웅(남, 1945년생) 구술
2020년 11월 27일 채록
[가덕도동(성북동) 선창마을]

옛날에 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사하라 태풍이 왔는데, 그래가지고 그 앞에 지금 인자 신항, 그 저 섬 있는 거기, 거기가 옛날에 인자 섬이거든. 그래 거기가 그때 우리 동네 아저씨 한 사람하고 우리 부친하고 그래 내하고 인제 그 태풍이 오고 나니까 육지에서 막 그때 태풍이 심하게 인자 오다 보니까, 좋은 나무들이 막 떠내려 오고 이랬는 거야. 그래 그 섬에 인제 나무 주우러 간다고 그래 그때 풍선배지. 노를 저어가지고 갔는데 그래 우리 아부지가 그때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우리 아부지는 섬을 이제 걸어서 못 다니고 그래 인제 내가 노를 젓고 이래가지고 배를 살살 타고, 그 인제 같이 간 아저씨가 나무를 주워가지고 또 실어주고 이래 샀거든.

그래서 인제 그래 그때 사하라 태풍 때 그 사람이 죽어가지고 그 섬에 한 사람 떠내려 왔더라고. 떠내려 왔는데 그래 그 아저씨가,

"저 시체 하나 떠내려 왔다."

하면서로,

"가자."

이러면서 그러대. 그 시체는 우리 따라 안 오대. 그래가지고 우리는 보고 이랬는데 그래가지고 그때 섬을 돌아 나오니까, 하여튼 명지 쪽에서로 배를 타고 기계선이더라고. 그때 똑딱선을 타고,

"바다에 일하러 가가 한 사람이 죽었다."

고, 그래가지고 그 시신 찾으러 나왔는지 찾으러 왔어. 그래가지고 인제 그래,

"요 어데 가면은 요 섬 뒤에 어데 가면 시체가 하나 있으니까 가보라."

이라고 인자 왔거든. 그래 그 사람이 찾던 시신이 그 사람이 맞았던 맞던 모양이라. 그뒤에 가보니까 그 바로 위에다가 그 섬 바로 위에다가 인자 그분을 인제 모신 거라. 찾는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 배를 안 따라 온 건지도 모르지. 시신이 물에 불어있으면 무섭지. 혼자서는 못 해.

*김승유 외, 『가덕도의 민속문화4 –성북동』, 국립민속박물관, 2021, 183~184쪽.

[강서구 설화 121]

자기 제사에 가는 귀신을 배에 태워준 사람

전재웅(남, 1945년생) 구술

2020년 11월 27일 채록
[가덕도동(성북동) 선창마을]

인제 부자간에, 부자간에 바다에 그 뭐 고기 잡으러 나갔어. 나갔다 하더라고. 낙지 잡으러 가는데, 지금 현재 연도 앞에. 연도 앞에, 우리 우에 바로 요요요 진해 앞 바다에 요게, 신항 요게 연도라는데 있어요. 연도 수도 캐 샀거든.

그 연도라는 그 섬 앞에 수도라는 솔섬이라는 섬이 무인도가 있어요. 지나가면 섬이 있는데, 그래 그 섬에서로 사람이 이리 부르더랍니다. 그래 불러가지고 그래 그 사람이 와서 댔거든. '자기를 좀 태워다 줄라'고 이라더래요. 그래서 태워다 그 사람이 태워다주긴 줬대요. 태워다줬는데 그래 이 사람도 예상했던지 그래,

"어데 누구 집에 가느냐?"

물어보니까, 그 뭐 탄 귀신이지. 귀신이,

"누구 집에 간다."

이래 하더래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도 이상해서 그 다음날 그 집에 가서 물었대요. 그래,

"어젯밤에 누가 안 찾아왔더냐?"

이러니까, 아무도 안 찾아왔더래요. 그래 보니까 그 집에 제사더래. 제산데 그 조상 무덤이 그 섬에 묻힜던 모양이라. 그래서 인자 자기 제사라고 인제 제삿밥 먹으러 온다고 왔는지 그 뭐 태워줄래서 한 번 태워줬다 그런 얘기는 내가 한 번 들었어.

*김승유 외, 『가덕도의 민속문화4 –성북동』, 국립민속박물관, 2021, 187쪽.

[강서구 설화 122]

처녀 총각바위

김정순(여, 1916년생) 구술
1992년 8월 1일 채록
[가덕도동(성북동) 성북마을]

코바우라 카는 또 전설이 있고, 또 처녀 총각바우가 있고, 또 무당바우가 있고 그렇는데, 무당바우라 카는 바우는 요 넘에 요 산 넘에 가면 있어요. 인제 무당바우라 하는 놈은 무당이 큰머리 쓰고 있는 듯이 그렇고. 또 처녀 총각바우라 카는 거는 이 아주 이 산 밑에 전설이고.

인제 바우가 두낫이(두 개가) 한 그릿이 섰는 기라. 섰는데 그 바우가 총각이 나와서 손을 치면 저 거제 그기 거제도 처녀들이 그 총각을 보고 밤으로 만질러 마이 가. 그래가지고 거제 사람이 와서로 총각바우를 띠뿠는 기야. 줄로 매어가지고 마. 거죽 띠가와가지고 줄로 매가 마, 그거

해가지고 총각이 나와갖고 요케 손을 치면 거제처녀가 나간다 이래가지고 거제사람이 와가 줄로 매가 그 바우로 말끈 없애삐, 뿌라삤어. 그런 전설이 있고.

인자 코같이 이래 나와가지고 아주 어렵은데 가는 거는 코같은 게, 사람 코같이 생긴 코, 코바우가 이렇게 있어. 그 코바우라 카는 게 있고 그렇다 아이가? 그렇고.

"손을 치네, 손을 치네." 거제 처녀가 노래 부르기로 "손을 치네, 손을 치네, 날오라고 손을 치네, 가덕도 총각이 거제처녀 날오라고 손을치네." 그래. 우리 에릴적에(어릴때에) 노래도 부리고(부르고). 우리는 또 그런 거는 그런 기고.

*김승유 외, 『가덕도의 민속문화4 –성북동』, 국립민속박물관, 2021, 176~177쪽.

[강서구 설화 123]

연대산 산신

손종희(남, 1936년생) 구술
2020년 12월 4일 채록
[가덕도동(성북동) 성북마을]

옛날에 가덕도에는 호식 당하는 일이 없어요. 천가동 산신이 엉캉(워낙) 쎄서 그런 일이 없어요. 천가동 산신이 연대산 산신이라. 그 산신이 워낙 세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었어요. 연대산 산신이 있어서 그런 거는 없었어요.

*김승유 외, 『가덕도의 민속문화4 –성북동』, 국립민속박물관, 2021, 170~171쪽.

[강서구 설화 124]

연대산 기우제

손종희(남, 1936년생) 구술
2020년 12월 4일 채록
[가덕도동(성북동) 성북마을]

연대봉에 제로 지내요. 10월 4, 5일 돼서 이래 지냈는데. 절로(절을) 하고, 절로 하고 산신제로 지내듯이 그렇게 지내요.

[조사자: 옛날에는 무덤을 파기도 했다던데예?] 무덤은 비가 안 올 때. 그라면 그 명지('명당'을 말함)가 있거든. 명산이라 카는 명지가 있는데, 그 가서 또 모로(묘를) 써놨으면 그 파디비 내삐리고(파내어 버리고), 그 흩쳐 내삐리삐고, 그런 거는 내삐리삐고. 그 모로 써놨으면 그 주위에 딴 모가 들어갔는가 그걸 살피고 그래가 내려오고. 그라고나면 비가 또 올 때도 있고, 안 올 때도 있고 그래요.

*김승유 외, 『가덕도의 민속문화4 –성북동』, 국립민속박물관, 2021, 174쪽.

[강서구 설화 125]

성북마을 성주 이씨 가문의 아기장수

손종희(남, 1936년생) 구술
2020년 12월 4일 채록
[가덕도동(성북동) 성북마을]

우리 외갓집에서 장수가 하나 났어요. 장수가 하나 나왔는데, 그때는 장수가 나면 애를 죽이삐리오(죽여버려요). 와 그렇냐 카몬(왜 그런가 하면) 역적이 되니까.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애를 죽이삐리오. 죽고 난 뒤 가고 나몬(나면) 용마가 와서 울고 가고 그런 것도 있거든. 그런 전설이 있어요. 우리는 목격을 안 했지만은 그런 기 있어요.

우리 외갓집에 장수가 나가지고. 그래 뭐 옛날에는 장수가 나몬(나면) 그 집안이 역적이다 캐가지고(해서) 직이거든(죽이거든). 그러니까 이 뭐 장수가 난 걸 맷돌로 한 짝을 얹어놔놓이(얹어두니) 꾸물꾸물 하니께네 두 짝을 얹어가 직있다 카는 그런 거는 있어요.

[조사자: 그럼 외갓집은 어디에 있었는데예?] 여(여기) 성주 이씨. 요 성북. 여기가 성북부락이거든. [조사자: 그럼 외가도 여기 있었습니까?] 응. 외가도 여기에, 성북부락에.

그래 마 맷돌로 한 짝을 얹으니까, 숨을 쉬니까 널찌거든(떨어지거든). 둘째 꺼 얹어놓으니께네 꾸물꾸물 하이께네, 영감하고 할마이하고 깔고 앉아가 직있다 그런 것도 있어요. 그때 그 용마가 사흘 만에 와가지고, 그래 저 산 너머에 꼭대기 그 한 발짝 간 그 용마 발자국을 누가 파가 가뻤어. 우리는 목격을 안 했지만은 어른들 그거로 보면 저- 우에 산꼭대기에 가면. [조사자: 어느 산입니까?] 요 큰덩치산. [조사자: 큰덩치산?] 응. 그 가면 용마 발자죽이(발자국이) 있거든. 근데 그 용마 발자죽을 누가 파가 가뻤어요. 지금 흔적이 있어요.

*김승유 외, 『가덕도의 민속문화4 –성북동』, 국립민속박물관, 2021, 175~176쪽.

[강서구 설화 126]

코바위와 거제도 처녀

손종희(남, 1936년생) 구술
2020년 12월 4일 채록
[가덕도동(성북동) 성북마을]

코바우는, 여기 코바우 그 바위에서 총각이 노는 기라. 거제서 보면, 거제서 보면 총각이 노는 기라. 거제 여자가 환장을 하는 기라. 미치가(미쳐서). 그런 그게 전설이. 그 바우는 그대로 있어요.

그건 우리가 목격을 못했으니까. 옛날에 '바람이 나가지고 거제 처녀들이 거제를 나간다.' 이 소리라. 한마디로. 뭐 코바우는 우리가 목격을 안 했는데.

그 뭐 인자 코바우가 인자 날이 흐리거나 이라면 섬 놀듯이 노는 모양이라. [조사자: 섬 놀듯이예?] 섬 놀듯이. 섬이 놀아요. [조사자: 섬이 움직인다 말입니까?] 움직이는 형태로 하고 이래 하는데, 거기 대해서 인자 그 여자들이 각중에(느닷없이) 바람이 나가지고 그렇다 이기라.

*김승유 외, 『가덕도의 민속문화4 –성북동』, 국립민속박물관, 2021, 177쪽.

[강서구 설화 127]

아기장수가 사라진 이유

최정숙(여, 1937년생) 구술
2020년 11월 27일 채록
[가덕도동(성북동) 성북마을]

여게 장수가 많이 태어났는데, 일제시대에 일본 놈들이 와가지고 그 장수 태어나는 그 맥을 다 끊었기 따문에(때문에) 장수가 없어졌다. 요 말 하나는 내가 들었어. [조사자: 옛날에는 많이 태어났는데.] 예.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는 장수가 태어났다 캐도 과언이 아닌 갑다 싶어. 왜 그렇냐면 저 성 쌓는 저거예. 옛날에 지금처럼 포크레인이 있습니까? 중장비가 있습니까? 성이 얼마나 큽니꺼? 그걸 갖다가 성을 다 쌓은 거 보면은 장수가 있었다는 말은 진실인가 싶어예.

*김승유 외, 『가덕도의 민속문화4 –성북동』, 국립민속박물관, 2021, 176쪽.

[강서구 설화 128]

명당이었던 거북바위

정옥련(여, 1913년생) 구술
1992년 2월 26일 채록
[가덕도동(성북동) 장항마을]

요 산 넘에(넘어) 가면, 요래 나가는 요까이(여기까지) 내리오면(내려오면) 요래 나오고 하거든. 요래 나왔다 말이지. 여게 뚱그란 요래 요래 섬이 돼, 요래 돼가 있다꼬. 요게 인자 그 천성이라 카는 동네 김씨들이 그 산을 명산이라고.

지금 말하면 명산이라고 전설이 있는데, 그래 산이 거북산이라 캐가지고(해서), 거북바우라 캐가지고 그게 모를(묘를) 쓴 사람은 그 뭐 자손이 홍성하든지 부자가 되든지 그런 것도 있고. 그래 그 산에, 말은 그라는데 그래 해도 뭐 어떤지는 모르것고. 거북이라 카는 말은 뭐 인자 거북이라 카는 짐승은 보지도 못 했어. 그래서 인자 거북이라 카는 거는, 말하자면 그 재수가 있다. 이래가지고 그 산에 모를 써가지고 부자가 되고 말이지, 자손을 형성하고 인자 그런 기 있어. 그 뭐 보지는 못 해도 마 그 말로 그래 그거를 거북설이라 하는 모양이라.

*김승유 외, 『가덕도의 민속문화4 –성북동』, 국립민속박물관, 2021, 178쪽.

[강서구 설화 129]

어부들을 바다 속으로 끌고 갔던 터럭손이

정옥련(여, 1913년생) 구술
1992년 2월 26일 채록
[가덕도동(성북동) 장항마을]

옛말이 허깨비가, 아이고 물귀신에 관한 거라. 물귀신 그게 인제 허깨비거든. 그런 게 있는데, 그걸 밤에 그것도 일종의 물체는 안 보이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든지, 얄궂은 무신(무슨) 그런 불같은 그런 데 보이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동요시킨다든지, 그러는 에- 말하자면 아무 것도 안 보이는데 고함소리가 난다. 듣기면, 말소리가 듣기면 말소리를 듣고, 사람이라고 가보면 사람이 없고 그런 말소리 소리만 듣긴다 해. 그라면 여기 가면 소리가 나는데 저기 가보면 거는 안 나고, 돌아보면 뒤돌아서 거꾸로, 반대로 나는, 사람 소리가 나는 게 있어. 이런 것도 있고, 또 우리 여게서는 바다에서 배에 사람이 타고 잠을 잔다든지 이래 있으면은 바다에서 얄궂은 짐승이, 눈에 보이는 짐승이 올라와가지고 사람머리를 갖다가 거머쥐갖고, 더벅 거머쥐갖고, 거머

쥐고 잡아 땡기가 물에 들어가면 사람을 직이는 거지.

이래 되는데 거기 인자 한 가지 당시는 옛말에는 상투를 썼었어. 상투, 남자들 머리 요 이래가 지고 상투를 틀고 거기다 머리를 꼽아놓으니 동못이라 카는 거. 상투를 요래 머리를 요래 둥글 둥글 다다다 감아가 인자 고 우에(위에) 동못이라 카는, 이래 동못을 갖다 꼽아주거든. 여자들 비녀 꽂는 모양으로. 이라면 거 고거로, 쉽게 말하자면 금이라든지 은이라든지 아니면 보물 고런 거를 동못이라 해가 꼽으면 그 허깨비 귀신, 그 놈, 그 놈이 손이 오다가도 겁을, 겁을 내가 몬 잡아. 몬 잡고 바로 물로 내리(내려) 가는데 그런 거는 본 사람들이 있지. [청중: 터럭이다. 그거.] 터럭이 아이라도(아니라도) 그래. 먼데서 보면 사람 비슷하이 그 밤에 바다에서 뭐 그런 기, 얄궂은 거 틀어입고, 대가리도 뭐 형편없고, 사람겉이도 보이고 짐승겉이도 보이고, 이런 기 와가지고 뭐라 하면 겁을 안 낼 수 있나? 그런께네 가까이 못 가는 기라.

*김승유 외, 『가덕도의 민속문화4 –성북동』, 국립민속박물관, 2021, 181~182쪽.

[강서구 설화 130]

도깨비로 변하는 몽당 빗자루와 비를 부르는 귀신

김은영(여, 1938년생) 구술
2021년 2월 3일 채록
[가덕도동(천성동) 남중마을]

그래 날라댕긴다 하대. 도깨비불은 날라 댕긴다. 아무데나 내삐리지 말라고. [조사자: 빗자루를?] 응. 빗자루 태워삐지 쓰던 거는 놔놓으면은 날라댕기면서 그 구신 행사로(귀신 행색을). 불로 비쳐가 댕기니까. 그 사람 어디 갔다 오면 구신이라고, 그래 뭐 구신이 달라붙더라 카대. 사람한테. 그래갖고 옛날에 칼로 가지고 또 콕- 찔렀어. 자기한테 칼이 있어서 이래 찔렀어. 귀신이라고 내 아측에 올끼라고 논두럼에다 요래 실어다놨는데 그 안날 가서 보니께네, 빗자루 몽딩이로 요래 칼로 가지고 찔러났더라대. [청중: 인자 그 이야기 하니까 다 생각이 난다. 그래 빗자리는 닳으면 불에 태와삐라(태워버려라) 한다.] 빗자루를 그래 불에 태워뿌라(태워버리라) 하면서. 그라대.

*김승유 외, 『가덕도의 민속문화5 –성북동』, 국립민속박물관, 2021, 208쪽.

[강서구 설화 131]

가덕도에 산짐승이 없었던 이유

조일년(여, 1941년생) 구술
2021년 2월 3일 채록
[가덕도동(천성동) 남중마을]

엄합니다. 그 할배가 인자 안 보이지만은 우리들은 미신하는 사람들은 저게 가서 보면 성불한다대예. 연대산에는 짐승들이 없다 캤는데, 요즘은 산에 멧돼지들이 있어예. 왜 없었는 지 그거는 잘 몰라예. 옛날 어른들이 연대산 산신이 쎄서 그랬다 카대예. 지금은 멧돼지도 있어예. 산에 가면.

연대산 산신이 엄합니다.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멘스가 있으면은 그게 못 올라간다 했습니다. 옛날에. 평소에도. 지금은 안 개리고(가리고) 가지예. 옛날에는 어른들이 멘스 있는 사람들은 올라가지 마라 하더라고예. 저게도 지금은 안 개리고 그라지만, 안 좋으면은예 가다가 발을 다치고 그랍니다. 우리는 안 가보고 들은 이야기지만은.

*김승유 외, 『가덕도의 민속문화5 –성북동』, 국립민속박물관, 2021, 200쪽.

[강서구 설화 132]

거제도 남자를 바람나게 했던 코바위

조일년(여, 1941년생) 구술
2021년 2월 3일 채록
[가덕도동(천성동) 남중마을]

옛날에 저 산보이지예? 줄기 저넘어에, 저 건너 산에. [조사자: 무슨 산인데예?] 배옥개(백옥포)라 캐예. 장항 가는 곳인데, 배옥개라는 동네에 그 바위가 있었는데, 거제 사람들이 달밤에 아가씨들이 나오면은 저 바위가 우리 보는 눈에는 이쁜 아가씨로 보이는 기라. 그래가 남자들이 그거를 보고 나오다가 마 물에 빠졌고(빠지고) 이랬던 갑대.

그래서 저 바위를 깼다고 그 소리만 나 들었어에 그 바위 깨난 포가(표가) 있어예. 거기 가면은. [조사자: 지금도 그 흔적이 남아있습니까?] 예. 남아있어예. 저 쪽에서 배를 타고 가면 보입니다. 깬 자리가.

*김승유 외, 『가덕도의 민속문화5 –성북동』, 국립민속박물관, 2021, 202쪽.

[강서구 설화 133]

깊이를 알 수 없었던 용심이골

하정복(여, 1948년생) 구술
2021년 2월 3일 채록
[가덕도동(천성동) 남중마을]

저 위에 연대봉 밑에 가면 물 나는 데 있거든. 그 인자 뭐 샘이가 너-무 깊어서 명주실 한 타래가 엄-청 길다 카대. 그걸 다 넣어도 지금도 그 물이 나고 있는데. 지금은 내가 몇 년 전에 가봤는데, 그 연대봉 뒤로 가면 그 물이 나더라고. 물이 참. [조사자: 지금도 납니까?] 네. 지금도 나고 있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다 막히가, 이래 바위 밑에서 이렇게 나오는 물이 참 물이 좋아요. 근데 그 꼭대기에서 우에 산도 없는데 꼭대기에서 물이 나대.

근데 그 옛날에는 우리 이 지금 우리 이 동네 아저씨가 그때 얘기하는데, 그 아저씨 돌아가셨는데, 지금 살아계시면 백살 정도는 됐겠다. 백 살까지 가까이 됐겠네. 그 아저씨가 그라더라고. 저 명주실 한 타래가 큰 집채만 하더라고. 그기 다 들어가도 더 들어갈 수 있다대.

*김승유 외, 『가덕도의 민속문화5 –성북동』, 국립민속박물관, 2021, 201쪽.

[강서구 설화 134]

애장터가 되었던 천성진성

하정복(여, 1948년생) 구술
2021년 2월 3일 채록
[가덕도동(천성동) 남중마을]

요기에 여 성(城)이 있잖아요? 성이 있는데 내가 시집을 오니까, 시집을 와갖고 우리 형님이 내보다 애를 저거 한 8개월 일찍이 나았거든. 근데 내 시집오니까 우리 형님 애가 벌써 4명이더라고예. 그때는 내 시집올 때 요 못 살았어요. 전깃불도 없고 나는 전깃불 밑에 살다가 진-짜요 못 살겠대요.

그래갖고 오니까, 그 시절에만 해도 큰집은 뭐 이 동네에서 중층 정도는 사는 집이였어도 그 뭣고? 애가 4명이나 있어나노니까 애를 떨굴라고 이름 있는 산부인과 가서 안 하고 이 동네 돌팔이 의사가 있었어요. 그 돌팔이 의사가 이 애기 떨어지라고 그 시절은, 나는 안 해봤지마는 그

시절에 핸 사람들이 애는 자꾸 많이 생기지 그거 하지 이래나 놓으니까는, 애를 못 생기고로 그냥 그리 했으면 되는데 애가 일단 생기갖고 이거 하는데.

그 얘기를 들은, 우리 형님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솜에다 약을 뭉쳐가 여자들 자궁 안에다가 옇으면은 약이 들어가가. [조사자: 애가 죽는다고?] 응. 태가 그거 해가 아가 죽어갖고 나온다 하대. 그랬는데 그것도 일찍이 하면은 애가 핏덩거릴(핏덩이) 때 그냥 그거 하는데. 애가 몇 달 달수가 차가면은 그기 인자. [조사자: 위험하겠네.] 위험한데 그기 그거 해갖고 좀 재수가 좋을라면 애기가 태를 주루륵 놓고, 이 애를 낳다시피 해가 나와뻐리는데(나오는데) 우리 형님 경우는 이 애가 그 탯줄이 시- 뭐라더라? 8개월이나 돼갖고 그 아를 낳았다. 낳았는데 애가 울더라고. 나는 우는소리까지 다 들었어. 그래가 안 울대. 그랬더만 내가 오늘 와서 보고 그 다음날 와갖고,

"애 오늘은 안 우네예?"

이라니께,

"아 죽었다."

그것도 요새 세상 같으면 살리고도 남는데, 그땐 애들도 많고 그냥 죽으라고 그냥 놔 난거야(놔 둔거야). 그래갖고,

"그럼 그 아 어데다 갖다 묻었는데예?"

이라니께네, 우리 어머니 성격이 급하고 몸이 달랑달랑하이 빠르고 이라더라고. 성 뚜레다 갖다 버려. 엄마! 이 성 둘레에다가 여 성 둘레. 요 저 뭣고? 그 성 돌. [조사자: 성뚜레?] 요 성이 있잖아? 그래서 성 둘레에 갔다가 묻었을 끼다 라고. 내가 하는 말이,

"아무도 몰래 성둘레는 흙도 없는데 우째 아를 묻노?"

내가 이라니께네, 사람이나 짐승이 요렇게 죽으면은 죽어 썩어서 물이 잘 빠지라고 그런 게 더 좋다 카네.

그러니께네 애들이 나는 뭐 애가 죽으면은 이 단지 그릇 갖다 뿠아진(깨어진) 데 [조사자: 네 맞아요.] 그기다 담아갖고 아를 싸갖고 어데 수건 같은데 그때는 수건도 없었어요. 내 요 시집오니까 그래가 뭐 어디 큰 보자기다 싸갖고 갖다가 인자 그 돌멩이 밑에다 눌러놓는다 하대. 그래갖고 그래서 내가,

"엄마야! 성 둘레 젙에(옆에) 그거 하나? 내나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그래 합니까?"

하니까, 이 동네 다 그리 한다 하는 기라. 그 시절에만 해도 애들. [조사자: 그럼 그기 애장터다.] 애장턴데. 그래서 내가,

"엄마야! 내가 무서워서 그러면 이제 성 둘레 못 가겠네."

나는 모르고 댕겨. 우리도 밭이 그 성 안에 있었거든요. 그래,

"엄마야! 못 가겠네."

이라니께네,

"니 가지마라. 비 올라하면 아 우는 소리 난다."

이러는 기야. 그래가 그런는가 카고. 그기 했더만은 그 비만 올라하면 아들이 우는 소리 난다고

사람들이 그리하는데 난 잘 모르겠어.

그런데 나는 밤에 그 성 둘레 그냥 배추밭에 물 주고 그리 댕겨도 잘 모르겠더라구. 그랬는데 우리 형님은 무섭다고 잘 안 갈라 하대예. [조사자: 안 그래도 애장터가 어딨냐니까 모른다. 없다. 이라던데.] 애장터가요? 전부다 성 둘레를 써. 이 동네 사람은 그거 안 하면 몰라도.

나는 우리 형님이 인자 애를 그리해서 요는 애들 죽으면 그 갖다 다 한다. 그게 애장터지. 뭐. [조사자: 성 둘레가 뭔데예?] 상이 이렇게 성 둘이 이렇게 그걸 [조사자: 성 돌?] 성이 싸지가(쌓여) 있잖아요. 그러면 성이 대개 두껍거든. 만약에 이 길이 요렇다 하면 이 성은 이렇거든. 이래 싸(쌓아) 두껍게 싸지가 있거든. 그래 그 중간에 돌을 일베끼고(일으켜 세우고) 그 밑에다. 그래서 성 둘레라고. 여기 성 둘레. [조사자: 성 둘레?] 응. 성 둘인데, 성 둘이라 하는데 이 둘레 보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이 길을 보고 성 둘이라 하더라고 이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성 둘레. 성 둘레 안에 성 돌이 그게 애장터 아니가?"

이러더라고. 근데 지금 애들은 또 뼈도 약하고 이래니께는(이러니까) 다 그거 하고 없었겠지. 우리 형님이

"아무래도 세월이 많이 흘러나노이께 아마 그 성둘 뜯으면 애들 뼈대 같은 거 있을 거로마는."

그런 소리까지 다 해. 그땐 하던 시절이었어.

*김승유 외, 『가덕도의 민속문화5 –성북동』, 국립민속박물관, 2021, 202~203쪽.

[강서구 설화 135]

도깨비로 변하는 몽당 빗자루(1)

하정복(여, 1948년생) 구술
2021년 2월 3일 채록
[가덕도동(천성동) 남중마을]

누가 그 뭣고? 고개를 넘어 오다가 저거 뭐 그거 해서 귀신을 만냈는데, 씨름을 하다하다가 그거 해가 둘이서 싸우다가 나무 옆으로 끌고가가 나무 옆에다가 나무에다 꽁꽁 묶아놓고 내려와갖고, 그다음 날 가보니 빗자리 몽딩이(몽둥이)더라고. 그 얘기는 우리 들었다 아이가 그지? [청중: 들은 이야기다.] 그런께 빗자루 몽딩이는 쓰고 나면 불에 태워삐지(태워버리지) 놔놓지 말고, 세우도 놓지 말고 그래 했다 아이가.

*김승유 외, 『가덕도의 민속문화5 –성북동』, 국립민속박물관, 2021, 207쪽.

[강서구 설화 136]

도깨비로 변하는 몽당 빗자루(2)

하정복(여, 1948년생) 구술
2021년 2월 3일 채록
[가덕도동(천성동) 남중마을]

빗자루 몽딩이는 우리가 듣기로는 저 그거할 때 몬(못) 깔고 앉게 하대. [조사자: 와예?] 못 깔게 앉는 것보다도 그거를 세워놓지 말라 하더라고. 세워주면 닙히놓고(눕혀놓고) 이래 세워놓으면은 그기 귀신처럼 보인다고. 할매들이 전에 할머니들이 그라더라고. 그거 빗자리. [조사자: 월경이 있어도 깔고 앉아도 되는데.] 그거는 나는 못 들었고. [조사자: 아 세워놓지 마라?] 세워놓지 말고 빗자리는 어느 정도 닳으면은 불에다 태워삐라(태워버려라) 하대. [조사자: 그냥 버리면 안 되고?] 응. 그냥 이렇게 버리거나 이리 세워놓으면 그기 귀신같이 보인다고. 옛날 할매들 그런 얘기 들었어 우리가.

*김승유 외, 『가덕도의 민속문화5 –성북동』, 국립민속박물관, 2021, 207~208쪽.

[강서구 설화 137]

비를 부르는 귀신

하정복(여, 1948년생) 구술
2021년 2월 3일 채록
[가덕도동(천성동) 남중마을]

옛날에 우리 아부지가, 우리 친아부지가 우리 아부지가 술을 몹시 좋아했어요. 술을 되게 좋아해갖고, 그래 인제 우리 엄마가 우리 아부지 술만 자시고 나면은 저녁에는 아무 말도 안 했다가 새벽 늦게 되면 술만 깨면 우리 아부지를, 우리가 쪼께날 때 봐도 막- 진짜 깔치 뜯으듯이 막 사람한테 우리 아부지한테 달려들었어요. [조사자: 누가?] 우리 엄마가.

술을 잡숫고 갔을 때는 아무 말도 안 하다가 새벽만 되면 술 깨고 나면 화가 나잖아. 술 먹고 와서 핸 짓이. 그러니까 우리 아부지가 인제 그기 무서우니까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 옛날에 농사짓고 뭐 들일하러 가뻐려요(가버려요). 근데도 우리 아부지가 술만 저녁에 자싰다 하면 아침 일찍 일어나는데, 그날따라 일찍 일어나가 그때는 뭐 비료 거름이 없으니까 우리 화장실 그 다 퍼가 그거 갖다 밭에 갖다주가 채소 키워 묵고 그랬거든. 내 어렸을 때도.

그래 우리 아부지가 그때 술만 취하면 아침 일찍 일어나 할 일 없으면 내- 오줌 퍼다가 밭에

갖다주고 했는데 그 밭이 좀 멀어요. 멀고 그 밭에 갈라면 옛날에 도살장이 있거든. 우리 밭 옆에 거기가 나도 모르는 덴데 우리 엄마 아부지가 그기 도살장이었다 하대. [조사자: 옛날에?] 옛날에.

우리 엄마 아부지 어렸을 때가 그 도살장이. 그래서 그 우리 집 밭에 가면 무섭다고 해만 지면 우리 엄마가 빨리 오고 그래서 그랬는데, 우리 아부지는 남자니까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 이제 오줌을 짊어지고 가가(가서) 밭에 갔다 퉁기 주고 내리오니까, 우리 밭에 쪼끔만 내려오면 그 웅덩이 있어. 근데 아부지 새벽에 추워가 오는데 그 웅덩가에서 여자가 한 사람이 살뿟이(살며시) 나오더라네요. 그래가 아부지 앞을, 분명히 앞에 까지 갔는데 거기서 또 쪼금 동네 쪽으로 오면 또 웅덩이 있거든요. 그 웅덩에 오니까네 그 사람이 없어지더래요. 아부지가 찾아서, 막 이렇게 찾고 있는데 그때서부터 비가 그렇게 오더라네. 그래가 아부지가 놀래서,

"아, 그게 귀신이 비를 부른 귀신이다."

이래갖고 그 귀신 얘기는 들어봤지. 그래가 아부지가,

"귀신이 있다. 있다."

이러더라. 그런께 지금은 이제 개발이 돼가 그 산이 지금 없어졌는데 [조사자: 그 산 이름이 뭔데예?] 그 산이, 그땐 그 산 이름은 없었어요. 그 인자 전에 도살했다고. 큰 산도 아니고 욜로(여기로) 가면 길도 있고 또 욜로 가면 큰 송정고개. [조사자: 송정고개?] 응. 고갠데. 이 산도 아닌 쪼끄만한 길옆에, 이 산줄기가 쪼금 있는데 그 길이 되면서 이래 쪼끔 갈라진 데라. 거기 도살장이었다고 우리 엄마가 그래 하대.

"여 도살장이 무서운 데다. 구신 나는 데다."

이래 하더라구. 우리 어릴 적에.

*김승유 외, 『가덕도의 민속문화5 –성북동』, 국립민속박물관, 2021, 208~209쪽.

[강서구 설화 138]

가덕고개에 귀신이 나타났던 이유

하정복(여, 1948년생) 구술
2021년 2월 3일 채록
[가덕도동(천성동) 남중마을]

우리 외사촌이 저거 누나가 여게 시집을 와가 살았거든. 그래가 우리 외삼촌집 큰딸이 내나 춘학이, 내나 명학이 형부. 마누라가 우리 외사촌 언니 아니가. 그래 그 언니 그 외숙모가 일찍이 돌아가시고 그 언니가 제일 큰딸이었거든. 그러니까 막내동생이 저거 누나가 여 사니께네 인자 저거 누나 집에 온다고 가덕고개. 그거 뭣고? 그때는 옛날에는 가덕고개 걸어댕겼다 아이

가? [조사자: 가덕고개예?] 응. 가덕고개를 걸어오는데 가덕고개 올라서니께네, 군인들이 웅성웅성 하이. 가(그 사람) 만나가 직접 얘기를 들었거든. 내하고 나이가 비슷하다. 그래가 직접 얘기를 들었는데, 지가 내 보다 나이 한 살 많거든. 그러니께네 나는 지 보고 오빠라 소리 안 하면 지 보고 이름 부르고 이리 살았는데 옛날에. 그래가,

"가덕고개 딱 올라서니께네 마 군인들이 웅성웅성 하이 억수로 많더라."

이래서, 그래서 지가 그기 생시가 돼서 뭐 '군인들이 밤중에 여 만다고(뭐 한다고) 여기 있는고?.'하고. 그때 옛날에는 전기도 없고 그러면 해 지고 조금만 있으면 밤중인 줄 안다 아이가. 그래 가덕고개 딱 올라서니 밤이 어두운데 웅성웅성하이 그렇더라고. [청중: 가덕고개에 군인이 마이 있었다 아이가?] 그래서 군인 한 사람이 앞에서 딱 나서갖고,

"어데 가느냐?"

고, 물어봐서 그래가,

"우리 누나 집에 간다."

고,

"요 밑에 동네 우리 누나 사는 동네라."

카이께네. 자기가 길을 가르쳐준다고 뒤에 따라오라 하더라 카네. 그래 가다가 보니께네, 가이래 지가 조금 가다가, 지 말이 그렇다더라고. 지가 그라이(그렇게 하니) 알지. 이 지 길이 막 길 좋은 데로 안 가고 가시 길이 있고. [청중: 그거 귀신이지.] 어. 그래가 좀 가다가 '이거 이래갖고 안되겠다.' 싶어갖고 지금은 옛날에는 저수지 있다 아이가? 저수지 우에 가덕고개 쏟아지는 길 안 있습니까. 그걸로 막 지가 죽을똥 살똥 모르게 뛰어내려왔는데. 그 언니도 그라더라고. 아가 집에 왔는데 온 가시한테 긁히고 긍깨 구신한테 씨였던가. 군인들도 그 군인 구신 난다대. 옛날부터 그랬다 아이가? [청중: 그래. 그게 묻힜다 아이가?] 그기 군인들이 묻힜다 아이가. 그래서 그래가 군인들이 웅성웅성 있으니 그기 다 알고 봤더니 [청중: 그게 다 구신이네.] 지 말대로 한다면 다 귀신들이라.

그래가 군인 하나가 앞에 딱 나서면서,

"어데 가느냐?"

고 묻더라 카네. 그래 누나 집에 간다니께네 지 뒤에 따라오라 하더라네. 아 그래갖고 세상에. [청중: 뒤에 따라가는 구신은, 사람이 뒤에 따라오라 하는 구신은 그거는 해꼬지를 하는 사람이라.] 앞에 서는 사람은 괜찮다면서? [청중: 아니다. 사람이 앞에 서야 된단다. 사람이 앞에 가고 구신이 뒤에 오는 사람은 안 해치고, 구신이 앞에 가고 사람을 뒤에 오라 카는 사람은 해친단다.] 그래 우쨌던간에 자기 뒤에 서라 캐서 가는데 길도 아닌 데로 덱고(데리고) 가는 거라. 온 가시들이 근데 지가 정신이 바짝 들면서 '엄마야! 내가 이 사람 따라가다. 이 길도 아닌데 와 이리 덱고 가노?' 싶어갖고. 그래 몇 번 가보니 알아놓이께네 그 저수지 있는 길로 마 막바로 쏟아짔어. 그래가 저거 누나 집에 왔는데. 그 언니도 그러든데 아가 온 천지 긁히가(긁혀) 엉망을 해가 [청중: 안 그랬겠나? 땀도 흘리고 온 데 긁히고.] 그래갖고 우리 외사촌 이름이 만날 가덕고개 접고 군인들 구신 난다 그라더라. 그게 인자 군인들 공동묘지가 있거든. [청중: 공동묘지에 묻

히가 있거든.] 그러니까 그거 하지 [청중: 구신 난다 하지.]

*김승유 외, 『가덕도의 민속문화5 –성북동』, 국립민속박물관, 2021, 209~210쪽.

[강서구 설화 139]

교미하는 뱀을 죽여 우환을 당한 집

하정복(여, 1948년생) 구술
2021년 2월 3일 채록
[가덕도동(천성동) 남중마을]

우리 육촌 동시라고, 작년 1월 때 돌아가싰는데, 저 남중에 돌아가신지 1년 됐는데, 그 형님이 작은집에 양자로 갔는데, 양자, 부모가 자식이 없는 기라. 그래 그 얘기를, 그 형님이 우리 보고 얘기를 하더라고. 우리한테는 할아버지뻘 되지. 그 할아버지가 집 뒤론가? 어디론가 돌아가니까 뱀이가 교미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때려 죽여뻐렸어. 그래서 그 집에 자식이 없다 카대.

그래가 우리 형님이 그 집에 양자로 갔다 카대. 근데 집안은 거의 못살고 형님이 들어가 좀 일구어 살기는 살았는데, 그 형님이 그라더라고.

"자식이 없는 게 그 때문이다."

고,

"그 뱀이나 짐승들도 교미하는 거는 죽이면 안 된다."

고, 그 이야기를 그 형님이 몇 번이나 하더라고.

*김승유 외, 『가덕도의 민속문화5 –성북동』, 국립민속박물관, 2021, 212쪽.

[강서구 설화 140]

저승 갔다 온 사람

하정복(여, 1948년생) 구술
2021년 2월 3일 채록
[가덕도동(천성동) 남중마을]

저승 갔다 온 얘기는 요 밑에 할매한테 들었는데, 그 할매가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죽었다가 며칠만에 깨어났는데, 그라더라고. 이틀만인가 이래 깨어났는데, 내가 그때 똑 물어봤어.

"저승 갔다가 우째 깨어났습니까?"

이러니, 우리 아저씨하고 그 집 아들하고 친구였거든. 그래갖고 요 같이 이우제(이웃에) 살고 옛날에는 뭐 모여가 앉아서 잘 놀고 이라니께, 그라니까.

"아효! 내가 사람이 자는 것 같았는데 어째 잠이 들어갖고 이래 자는데 갈 때는 길이 억수로(굉장히) 너르고(넓고) 좋더라네. 걸어가는데 걸어가는데 길이 억수로 좋았는데, 한참 걸어가다가 보니께네 이런 큰 문 같은 게 있는데, 그 문 앞에서 어떤 사람이 지키고 이래 지키고 있더라."

하던가. 하여튼 그래 있으면서,

"어데 가느냐?"

고, 묻더라 하네. 그래서,

"그냥 놀러 나와서 우리 집 찾아간다."

하면서 그러니께, 그 문 앞에 서가 있던 사람이 하는 말이,

"할매는, 아직까지 아지매는 올 때가 안 돼서 빨리 집으로 돌아가고 일로 가지 말고."

그만 넘으면, 인자 지금 말하자면 저승이었던 모양이야. 그래,

"빨리 이모 그거 하지 말고 가라."

카면서, 밀어버렸는데 꿈에도 또 깜짝 놀래갖고 뒤를 돌아보니까, 꿈에도 결국 깜짝 놀래가 뒤로 돌아보니까 그렇게 길이 험하더라대 올 때는. 그래갖고 우째 우째 막 헤매고 해매고 와갖고 그래 자기는 깨어나니께네, 인제 막 몸부림을 치고 이랬던 모양이라. 그래갖고 깨어났는데 꼭 사람 자는 거 한 가지더라. 내가 잠들어가 자는 것처럼 그래갖고 잠들어가,

"내가 자면서 내가 막 어데라고 가는데 길이 억수로(굉장히) 좋은데 올 때는 그리 길이 험하더라."

하면서. 그런께 살아.

"그래갖고 내가 이틀만에 깨어났다."

고, 그 할매가 그라대. [조사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예. 그 할매 딸도 이 동네에 살고 있어. 이틀만에 깨어났다고 그라대. 그래 보더마는, 자기를 보더마는,

"아직 올 때가 멀었는데, 요 오면 안 된다."

하면서, 이리 큰 문 같은 게 있는데 앞에 서갖고,

"일로(여기로) 들어가면 안 된다고 가라."

고, 뒤로 밀어뿌리더라 하대. 밀어뿌는데, 꼬부라짔는데 우째 또 꿈에도 꿈같이 길이 험한 길을. [조사자: 그동안은 사람들은 그분이 돌아가신 줄 알았겠네예?] 그래. 돌아가신 줄 알지. 이틀 동안에 자기가. 초상 칠 준비를 했겠지. 젊었을 때 그래 했다 하대.

*김승유 외, 『가덕도의 민속문화5 –성북동』, 국립민속박물관, 2021, 212~213쪽.

[강서구 설화 141]

죽어 뱀으로 환생한 사람

하정복(여, 1948년생) 구술
2021년 2월 3일 채록
[가덕도동(천성동) 남중마을]

근데 사람이, 지금도 사람들 그래 쌌대(그렇게 말하대). 죽어갖고 구렁이로 태어나는 사람이 있다고.

요기 옛날에 몇 년 전에 돌아가신 사람은 분명히 그 사람이 구렁이가 됐을 끼다. 나쁜 구렁이가 아니고. 그 돌아가시고 난 뒤 그 혼백이, 누가 그 집에 가서 앉아 있는데, 잠깐 동안에 그 집 방문 밑에 문구멍 뚫어진 새로(사이로) 사르륵 뱀이 같이 기어 나오더라 하데.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죽어갖고 그 뱀이로 환생해가 나왔다."

이라대. 이 동네 옛날에 돌아가신 사람, 그 사람을 들먹이면서 그 사람이 죽고 난 뒤 그 집에 갔더니 자기가 얼른 이래 잠시 눈을 부칬는데(붙였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뱀으로 태어났는 갑다."

이래 하더라고. 내 그 소리 들은 적이 있어.

그 아지매가 지금 돌아가신 지가 한 3, 40년 됐다. 그래 우리도 그게 참말인가 거짓말인가 모르지만은 사람이 죽어갖고 막 그거로 태어난, 다시 태어나는 사람. 뭐 사람으로는 안 그거 하지만 뭐 이런 동물로 태어나고 그래 한다고 그래 쌌대. 사람들이. 그렇게 태어난 그걸 우리가 확실히 모르니까 그냥. [웃음]

*김승유 외, 『가덕도의 민속문화5 –성북동』, 국립민속박물관, 2021, 214쪽.

[강서구 설화 142]

여자 밑을 문 게를 떼어준 나발수

하정복(여, 1948년생) 구술
2021년 2월 3일 채록
[가덕도동(천성동) 남중마을]

김기일씨한테 들은 이야긴데, 그 뭣고? 옛날에는 베슬로(벼슬을) 하고 그거 오면은 막 그거로 불고 말로 타고 이리 온다 아이가? 그랬는데 그 어느 한 고을 사람이 뭐 벼슬해갖고 이래 막 나발로 불고 이래 오는데 어느 여자가 꼬쟁이(고갱이, 여자들이 단속곳 밑에 입는 속옷을 말

함.) 입고 그거 해가 오줌 누다가 옛날에는 산에도 보면 끼가(게가) 있다 아입니까? 그기 뭐 여자들이, 그거 우리 여자들 그거로 갖다가 꽉 물어띠뻐렀는 기라. 그러면 띠지도(떼지도) 못하고, 그것도 못하고 띨라 카면 더 물으띠고 이라니께네 이 여자가 볼일을 이래갖고 막 그것만 갖고 어찌할 줄도 모르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벼슬해가 가면서 막 이리 불고 오다가 그 장면을 보고 그 사람도 인자 넘의 여자를 손도 못 대잖아. 그래놓이 어찌할 줄은 몰라서 나팔로 대고 막 팍 - 불어삐리께는 여자 놀래가 [웃음] 그래갖고 그 불은 사람이,

"내가 이때까지 살아도 씹에 대고 나팔 불어보기는 처음이다."

[일동 웃음] 얼매나 웃어갖고. 그때 멀미가 다 도망가뿠어.

*김승유 외, 『가덕도의 민속문화5 –성북동』, 국립민속박물관, 2021, 214~215쪽.

[강서구 설화 143]

여자 밑을 조개로 착각한 까마귀

하정복(여, 1948년생) 구술
2021년 2월 3일 채록
[가덕도동(천성동) 남중마을]

옛날에는 이렇게 해갖고 바지 입었다 아이가? 그 아저씨한테 들었는데 그 아저씨가 그러는데 산골짜기 날이 따뜻한 봄날 산에 나물 뜯으러 간다고 가갖고 [웃음] 날이 따뜻하이 풀밭에 인자 이래 드러누웠어. 여자가 대개 젊은 사람인지, 나만(나이가 많은) 사람인지 그건 모르겠는데. 눕어가(누워) 있으니 이 꼬장주가 벌어져가 있었어. 이렇게 누워가 있으니께네, 날라가는 까마구가 [웃음] 여자들 조개화합 같이 생겼잖아. 그게 벌어져가 이래 딱 그 까마구로 조갠줄 알고 그거 쫏아먹을라고 뛰다 보이. [일동 웃음] [조사자: 그래가지고예?] 그래갖고 쫏을라고 꼭꼭 쫏았다 커던가? 뭐 쫏을라고 그랬다 하던가? 그랬는데 그 뭣고? 누워있던 사람이 깜짝 놀래갖고. 그래

"또 물래? 또 물래?"

이랬다 하대. 그 뭐 쫏으니까는 인자 무는 것처럼, 이래 딱 쫓을라카니깨 이 또 오므려질 거 아니가. 우리 살이 꼼짝 그래가. 그러니께네 까마귀가 디다보고(들여다보고) 쫏을라 카다가 또 물리는가 싶어서,

"또 물래?' '또 물래?"

카고, 디다보고(들여다보고) 있더라고. 그 애기. 그 애기하고 나서 이야기가 또 있었어.

*김승유 외, 『가덕도의 민속문화5 –성북동』, 국립민속박물관, 2021, 215쪽.

[강서구 설화 144]

정성을 들여야 하는 제사

하정복(여, 1948년생) 구술
2021년 2월 3일 채록
[가덕도동(천성동) 남중마을]

술을 되게 좋아하는, 옛날에 술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 술을 먹고. 옛날에는 집이 띄엄띄엄해. 촌에 시골이었다 아이가? 술로 취해갖고 가다가 그만 산길을 어디 무덤 옆에서 잠이 들어갖고 잤는데, 그 자는데 자다가 깨어보니까 무덤인데 꿈 같이 꾸면서 이래, 거기서 그래가 깨어보니까 꿈이더라 하더만. 고기서(그곳에서) 그 뭣고? 그 아들이, 꿈에 그 묘 임자가 그날 제사였어.

묘 옆에서 누워 잤는데 근데 그 할아버지가 와 그러냐 하면 할머니가 성이 나서 손주를 밀어뻐렸다 하네. 밀어갖고 그 할매 그 손주가 옛날에 화롯불 피워났잖아. 그게 손주가 넘어져가 손을 데었어. 그래갖고 그 할아버지 하는 말이,

"그러면은 그 손주 디인 약이라도 그럼 가르쳐줘야 되지 안 가르쳐 주고 그냥 왔나?"

하면서,

"그래서 내가 성이 나서 그냥 왔다. 오늘 내 제삿날인데 가니까 밥이라고 해난 게 개발로 삶아놓고 고사리나물로."

저 개발같이 생긴 그거 고사리 비슷한 게 있어요. 그거는 쓰면 안 돼. 제사에. [조사자: 그게 뭔고?] 그기 우린 요서 그걸 갖다가 고비나물이라 하는데 꼭 고사리 같이 생겼어. 그거는 개발같이 오글오글하이 요렇게 생긴 게 있어요. [조사자: 아! 그거 알 것 같아요. 고비라고 하네예. 그거는 쓰면 안 되네예.] 그거는 제사에 쓰면 안돼요. 그랬는데 그 사람 그걸 쓰고 밥에는 머리카락이 들어갔어. 그래 귀신 눈에는 그게 뱀으로 보인데요. 그러니께 제사 지낼 때 머리카락 들어간다고 조심하라고 막- 그래 하거든.

"밥을 보니까는 뱀이가, 밥이라고 보니께 뱀이가 있고 나물이라고 보니까는 개발로 삶아났더라. 그래서 성이 나서 나오다가, 밥도 안 먹고 나오다가 손주를 갖다가 밀어뿠더만 손주가 화로 이 불 옆에서 불로 짚어서 손이 디었는데."

"그라면 그 약이라도 그럼 가르쳐주고 오지."

그라니까,

"미워서 약도 안 가르쳐줬다."

하면서, 그래 저거끼리 묘에 그렇게 귀신이 나서 하는 소리를 그 사람은 누우자면서(누워 자면서) 들었는 기라. 그거를 옆에서. 그래가 그 사람이 인자 어느 마을로 찾아가,

"오늘 저녁에 제사가 누구 집 있었냐? 아가 디었느냐(데였느냐)?"

이래 물어보이. 그래.

"디인(데인) 사람 있다."

해서, 그 약을, 그 영감쟁이가 그 꿈에 들은, 아 그거는? 행주를 불에 태워가 그 재를 참기름하고 이래 해갖고 발라주면 낫는다 하는, 나는 모르지마는 그것도 약이 되는가 모르지마는. 그래서 그 아저씨가 찾아가갖고 그 얘기를 해줬다고. 오늘 내가 그래 잤다는 말 안 하고,

"그 애 손 디었거든(데였으면) 행주 태워가 참기름하고 애 발라주라."

그래 했다는 그 얘기 내가 들었지.

*김승유 외, 『가덕도의 민속문화5 –성북동』, 국립민속박물관, 2021, 216~217쪽.

[강서구 설화 145]

개로 환생한 모친을 업고 세상 구경 시켜준 아들

하정복(여, 1948년생) 구술
2021년 2월 3일 채록
[가덕도동(천성동) 남중마을]

저거 옛날에 몬(못) 살아갖고, 자기 엄마가 너무 몬 살아가 돌아갈 때 세상구경을 몬 시키드렸는데, 저거 엄마가 개로 태어나서 그 개를 지게에다 담아가 아들이 온 조선팔도를 업고 다녔다 하대.

[조사자: 그래가지고 엄마가 나중에 돌아갔는가예?] 하여튼 엄마가 돌아가시고 [조사자: 구경시켜준 다음에 어찌 됐는고?] 그거는 끈티는(끝은) 잘 모르겠는데, 아들이 자기 엄마가 돌아가시고 개로 태어나갖고 그 개를 지게에다 담아갖고 자기 엄마 그기라고 온 조선팔도를 구경시켜줬다. 그래 인자 개로 태어나서 아들한테 업히갖고 다니면서 원풀이를 했겠지. 구경 못하고 살안(살았던) 거를.

*김승유 외, 『가덕도의 민속문화5 –성북동』, 국립민속박물관, 2021, 218쪽.

[강서구 설화 146]

자기 제사에 가는 귀신

하정복(여, 1948년생) 구술
2021년 2월 3일 채록
[가덕도동(천성동) 남중마을]

아가씨가, 지금 말하면 처녀가 제삿날 어느 기사가 [조사자: 택시기사가예?] 응. 택시기사가 한쪽인가 어디 지나가니까 그 손을 들어서 태워가 저거 집에 태워가 줬더니 그래 하도 안 나와서 요금을 안 주고 그래서 그걸 기다리다가 찾아 들어보니까 그날 그 아가씨 제삿날인데 부모가 사진을 보이께네, 이 아가씨라 하니까, 아 이 아가씨가 오늘 제삿날이라고 그래 했다고 그 얘기를.

*김승유 외, 『가덕도의 민속문화5 –성북동』, 국립민속박물관, 2021, 218쪽.

[강서구 설화 147]

고려장이 없어진 내력

하정복(여, 1948년생) 구술
2021년 2월 3일 채록
[가덕도동(천성동) 남중마을]

가난한 집에서 그 뭣고? 저거 엄마를 갖다가 뭐 고려장 시켰다는, 우리 엄마가 전에 옛날 얘기를 하더라고. 나이가 그때 한 칠십, 그때는 일찍 다 돌아가싰다 아이가? 명이 짧아갖고 그때는 병도 많고 해가. 그래가 돌아가실 때 그래하더라고. 아들이 엄마를 갖다가 지게 담아지고 '어데 가자.' 하고 데리고 가갖고는 버리고 오는데, 저거 아들을 데리고 가갖고, 그러니까 손지지(손자지). 그래 엄마를 갖다 버리고 그 아들이 고 지게를 버리고 오니까,

"아부지, 저 지게 갖고 가자."

고, [웃음] 그러니까 저거 아부지가 지게 안 가갈라(안 가져가려고) 하니께 아들이 하는 말이.

"나도 이 다음에 아부지 갖다 버릴라면 지게가 있어야 된다."

고, 그래갖고 자기 엄마를 도로 모시고 왔다 하던가? 하여튼 오래돼갖고 잘 모르겠다. [웃음] 그러니께네 인자 그게 다 그래서 지금 세상에 고려장이 없어짔는가 모르지.

*김승유 외, 『가덕도의 민속문화5 –성북동』, 국립민속박물관, 2021, 218쪽.

[강서구 설화 148]

아이를 넣어 만든 에밀레종

하정복(여, 1948년생) 구술
2021년 2월 3일 채록

[가덕도동(천성동) 남중마을]

어느 스님이 동네에 들어가서 이 저 뭣고? 시주를 달래니까 어떤 아주머니가 애를 안고 얼리고 놀다가,

"아유! 저 뭐야 시주는 줄 거 없고 우리 봉덕이 줄까?"

그 인자 농담 삼아 그런 얘기를 했다는 그 얘기. [조사자: 그래갖고예?] 그래가 그 저 애기가 그거 종 만드는데 거기 들어갔다 안 합디까? 그래서 그거 뭐 '어매' 하는 소리로 갖다가,

"에밀레-."

그 에밀레 하는 소리로,

"어매-."

이래 했다고 뭐 그랬다고 전해내려오데예.

*김승유 외, 『가덕도의 민속문화5 –성북동』, 국립민속박물관, 2021, 218~219쪽.

[강서구 설화 149]

지렁이국으로 부모를 봉양한 며느리

하정복(여, 1948년생) 구술
2021년 2월 3일 채록
[가덕도동(천성동) 남중마을]

옛날에 집이 너무 가난해갖고 먹을 게 없어가 뭐 아들이 어디 갔다가 오니까 엄마한테도 어머니를 그거 해주고 어디 갔다 오니까 어머니가 통통하게 살이 쪄가 있었어. 그래,

"어머니 무엇을 그렇게 자시고 살이 찌느냐?"

고 물으니까, 어머니가 옛날에는 돗자리를 깔고 살았거든. 옛날 우리 어렸을 때도 못 살은 집 그래 했어요. 그 돗자리 밑에로 들면서 꺼내주는 게 지렁이더라 하대. 지렁이가 말라가(말려져),

"이 고기가 무슨 고긴지 그렇게 맛이 있더라."

고, 그랬다는 전핸 얘기. 뭐 그 예로 뭐 난. [조사자: 그러니깐요?] 그래갖고 살이 쪄서 효부상 받았다는 얘기. 먹을 게 없어가 지렁이라도 해갖고 그 시어머니를 그 공경해서 그 해갖고 그 시어머니도 살도 찌고 아들이 그해서 뭐 효부상 받았다는. 그 옛날부터 난 쪼깬 할 때 우리 이모한테 들었지.

*김승유 외, 『가덕도의 민속문화5 –성북동』, 국립민속박물관, 2021, 219쪽.

[강서구 설화 150]

수숫대가 붉은 이유

하정복(여, 1948년생) 구술
2021년 2월 3일 채록
[가덕도동(천성동) 남중마을]

엄마가 장사하러 갔다가 고개를 넘어서 이래 오는데 호랑이가 나와갖고 그 뭣고? 묵 팔러 가는데,

"묵 한 덩어리 주면 안 잡아먹지."

이래. 한 고개 넘어오면 또 그러고 또 그러고 묵을 다 주삐리고(줘버리고) 줄 게 없어갖고. 그래가 집에 돌아오니까 저거 뭣고? 호랑이가 저거 엄마까지 잡아먹고 호랑이 그 아들 집에 오니까 아들이 저거 엄마 목소리 아니라고 문을 안 열어줬어. 그러면은 그 자꾸 엄마라 하니까,

"엄마 같으면 이 문구멍으로 손 좀 옇어봐라."

하고 그랬는데, 손을 옇어보니까 이렇게 털이 나서 호랑이라고 안 열어줬는데 그래 호랑이가 뭐 들어와갖고 잡아먹을라 했는데 애들이 급해갖고 그 하늘을 쳐다보고,

"우리를 살려주고 싶으면은 줄을 내려달라."

했는데, 그 줄을 타고 인자 올라가다가 떨어지갖고(떨어져서), 수수밭에 떨어졌어. [조사자: 아들이?] 그 피가. 애들이 그 줄을 하늘에서 내려주는 줄을 내려와가주는 거를 잡고 올라가다가 떨어졌는데 하필이면 수수밭에 떨어졌어. 그 수숫대가 우리도 보면은 빨갛거든. 그뒤로 수숫대에 그 피가 묻어서 빨갛다고. 그 얘기를 했는데. [조사자: 저는 호랑이가 떨어져서 그런 줄 알았더니만, 애가 떨어졌구나.] 호랑이가 떨어졌는지? 지금 하도 오래돼갖고 나도 확실히 잘 모르겠어. 하여튼 올라가다가 떨어졌어. 떨어지갖고 그 수수밭에 떨어졌다 하대.

*김승유 외, 『가덕도의 민속문화5 –성북동』, 국립민속박물관, 2021, 219쪽.

[강서구 설화 151]

할미꽃 유래

하정복(여, 1948년생) 구술
2021년 2월 3일 채록
[가덕도동(천성동) 남중마을]

막내딸을 시집보내놓고, 막내딸이라 하나? 딸을 시집보내놓고 딸이 그리워서 친정 엄마가

지팽이 짚고, 옛날에는 다 걸어서 다니니까 저녁 때 돼가서 그 뭣고? 넘어가다가, 그 해가 인자 짧아서는, 겨울 되면 해도 짧다 아이가? 그런께는 가다가 그 고갯길에서 넘어져서 돌아가셨다 하던가? 그래서 그 할미꽃이 그래 등도 굽고, 그래 이리 굽었다고 그 얘기.

*김승유 외, 『가덕도의 민속문화5 –성북동』, 국립민속박물관, 2021, 220쪽.

[강서구 설화 152]

며느리 밥풀꽃 유래

하정복(여, 1948년생) 구술
2021년 2월 3일 채록
[가덕도동(천성동) 남중마을]

이 밥풀이 붙어갖고 뭐 어째가 죽어갖고 밥풀꽃이라고, 며느리 밥풀꽃이라고. [조사자: 시어머니 때문에 죽은 거 아닙니까?] 형님한테 한 번 들었는데 그거는. 인제 밥풀꽃은 생각나는데 잘 모르겠네. [조사자: 밥풀이 붙어가지고 며느리 밥풀꽃이라고.] 응. 며느리 밥풀꽃이라 하더라고.

근데 나는 며느리 밥풀꽃을 우리 형님이 무슨 말 끝에,

"이 꽃이 며느리 밥풀꽃이다."

이래. 그래서 내가,

"그게 왜? 만다고(뭐 한다고) 며느리 밥풀꽃인데?"

이라니께네, 요기 옆에 붙어 있는 게 며느리가 밥 떠묵다가, 시어마이 몰래 먹다가 들켰는데 밥풀 하나가 요래 붙어있어가, 시어마이한테 뭐 우째가 죽었다 카던가? 뭐 어째가 죽었어.

그기 그기 돼가 밥풀꽃이. 며느리 그기 입술 옆에 붙어갖고, 고 하얀 그거를 밥풀꽃이라 한다고 이라더라고. 하는 소리를 한 번 들었어.

*김승유 외, 『가덕도의 민속문화5 –성북동』, 국립민속박물관, 2021, 220쪽.

[강서구 설화 153]

곶감이 무서워 도망간 호랑이

하정복(여, 1948년생) 구술
2021년 2월 3일 채록

[가덕도동(천성동) 남중마을]

산골에서 산골이길래 그 호랑이 있었겠지예. 애가 울음을 안 그쳐서 저,
"곶감 줄께."
하니까, 울음을 그쳤다는 얘기. [조사자: 그래갖고 호랑이가 자기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있구나 하고 놀래서 도망갔다는 얘기.

*김승유 외, 『가덕도의 민속문화5 –성북동』, 국립민속박물관, 2021, 220쪽.

[강서구 설화 154]

선녀와 나무꾼

하정복(여, 1948년생) 구술
2021년 2월 3일 채록
[가덕도동(천성동) 남중마을]

나무꾼이 나무하러 갔다가 선녀가 내리와갖고 목욕하는데, 그 남의 옷을 훔쳐갖고 안 주고 선녀하고 살았다는 얘기. 애기를 셋 놓을 때까지 옷을 보여주지 마라 했는데, 둘 놓고 난 뒤 옷을 보여주갖고 선녀가 양쪽에 안고 옷을 입고 날라갔다는 얘기.

*김승유 외, 『가덕도의 민속문화5 –성북동』, 국립민속박물관, 2021, 220쪽.

[강서구 설화 155]

꼬부랑 할머니

하정복(여, 1948년생) 구술
2021년 2월 3일 채록
[가덕도동(천성동) 남중마을]

꼬부랑 짝대기 집고, 꼬부랑 할머니가 꼬부랑 짝대기를 집고 꼬부랑 고개길을 넘다가 꼬부랑 강아지를 때리니깐에 그 개가 꼬부랑 깽 꼬부랑 깽깽 한다대.

*김승유 외, 『가덕도의 민속문화5 –성북동』, 국립민속박물관, 2021, 220쪽.

[강서구 설화 156]

여자 밑이 무서워 도망간 호랑이

하정복(여, 1948년생) 구술
2021년 2월 3일 채록
[가덕도동(천성동) 남중마을]

어떤 할매가 산에 갔다가 내려오다가, 이 얘기를 [조사자가 유사한 이야기를 들려준 것을 말함.] 하니까 생각이 난다. 산에 갔다가 이래 내려오는데 호랑이가, 옛날에 호랑이가 산에 갔다가 내려오는데, 이 호랑이가 사람한테 치키갖고 이 아지매가 급해갖고 치마를 힐떡 올려뿌대.

옛날에는 뭐 꼬장주 입고 팬티 같은 거도 옳게 안 입고 이래 놓으이, 힐떡 올려가 있으놓이 나이 먹으면 이런 것도 꿈꿈하이 그렇다 아이가. 그래갖고 뻐끔한 구멍이 놀래갖고. [청중: 벨시런(별난) 이야기 다 나온다.] 여자들끼리 있으니까. 그래놔놓이께네,

"할매, 와 그랐는고(왜 그렇게 했나)?"

묻더래.

"구멍이 와 그리(왜 그렇게) 뻐끔하게 크느냐?"

고.

"내가 칠십 몇 살인데 칠십 몇 년 동안에 총을 맞아서 그렇다." [일동 웃음]

"저렇게 큰 총이 어딨노?"

놀래갖고 도망갔다는 그 얘기.

*김승유 외, 『가덕도의 민속문화5 –성북동』, 국립민속박물관, 2021, 221쪽.

[강서구 설화 157]

어민들을 해쳤던 바다 귀신

김상연(여, 1935년생) 구술
2021년 2월 5일 채록
[가덕도동(천성동) 서중마을]

저게 저게 쪼깨난 섬인데, 옛날에 저게 뭣고? 작업을 갔는데, 갔는데 그래가지고 이 우리는 안 갔지. 그때는 애려가지고(어려서) 안 갔는데 우리 집안 올케언닌데, 그래가지고 그 새이(형) 눈에 구신이(귀신이) 나타났는 기라. 구신이 나타나가지고 그래가지고 물에서 보이께네, 호메이가(호미가) 이래 있거든. 호메이를 가지고 막 때리고 때리고 막 이라더라 카는 기라.

그래가지고 난중에(나중에) 보니께는 사람이 정신이 나가갖고 귀신 만났다. 앞에 귀신 쌔리고(때리고) 쌔리고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배로 돌려가지고 사람을 실고 오는데 그래가지고,

"아이구! 저 쌔빠지게 따라온다."

하면서, 막 땡기고, 배고프다 하면서로 그거 점슴(점심) 가간 걸 막 죽 던져주고 물옷 입은 거 그거 춥다 캐서 옷 다 떤져주고, 그래 와가지고, 여게 와가지고 실고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굿하는, 무당 하는 사람 그런 사람 얻어가지고 막 뚜드리고 그랬다. 그래가지고 인자 그 사람들 그래 오더만 이 작업을 나뻤다(놓아버렸다). 무섭아가지고(무서워서).

*김승유 외, 『가덕도의 민속문화5 –성북동』, 국립민속박물관, 2021, 206쪽.

[강서구 설화 158]

고갯길에서 만나는 귀신

김상연(여, 1935년생) 구술
2021년 2월 5일 채록
[가덕도동(천성동) 서중마을]

술을 한 잔 잡숫고, 인자 밤중, 그때는 뭐 차도 없고 인자 산길을 걸어서 저 넘에도(너머로) 가고 저리도 가고. 그러니께네 밤이 인자 가는데 술 취해서 가면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인자 우리 고모 뭐 남편이라. 그래 집에 와가지고 처갓집에 라고 와가지고 이제 술을 한 잔 해가지고 옛날에는 뭐 그렇다 아이가? 그래 절대 자고 안 간다 카네. 그래 밤에 인자 가는 기라. 요 넘에, 산 넘에 있는데. 가는데, 그래가지고 가면 귀신이 딱 나타난다 카네. 멀기도 안 있고 가찹게도(가까이도) 안 있고 좀 떨어지가 요래 간다 카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간담이 세.

"같이 갑시더."

해도, 절대로 딱 그 조시('그 정도'라는 의미) 이상은 그 땡겨 오지도 안 하고 멀지도 안 하고 가는 기라. 그래가지고 우리 고모 집까지 데부다(데려다) 주는 기라. 전부다 주면 그래 우리 고모는 자는데 깨배가지고(깨워서) 그래가지고,

"손님 왔으니까 밥 채려주소."

하면서, 그래가지고 밥 채리가(차려서), 밥을, 있는 밥을 채려가지고, 거지밥을 삽짝거리에 채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묵고 가라."

고, 막 흩여주고, 나놨다 던져주고 이랬다 하대. 고모부가 이야기 잘 하대.

*김승유 외, 『가덕도의 민속문화5 –성북동』, 국립민속박물관, 2021, 211쪽.

[강서구 설화 159]

지킴이를 죽여 망한 집

김상연(여, 1935년생) 구술
2021년 2월 5일 채록
[가덕도동(천성동) 서중마을]

뱀이 그기, 귀 돋힌 뱀이. [조사자: 귀가 달렸다고요?] 귀 돋힜다. 뱀이. 우린 보지 않아도 옛날에 오래된 배암은(뱀은) 귀가 돋힜다 하대. 그런 배암을 찌끼미(지킴이)라 하대. [청중: 찌끼미라 쿠대.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다.] 그래가지고 직이면(죽이면) 안 좋는 기라. 내가 지금 이야기하께.

한 집에 저 우(위에) 살다가 여기 인자 지는 탑이 이리 있는데 거기 인자 뜯어가 집을 지었는 기라. 집을 지이께네. 귀 돋힌 배암이 나오더라 카는 기라. 그 집에서 그거 직이뻤는(죽인) 기라. 직이가지고(죽여서) 그 집을 지었는 기라. 그 자리를 지었는데. 그래가지고 그 집에 할배가 저게 뭣고? 의사맨치로(의사처럼), 피부, 아들(아이들) 헌디('종기'를 말함.) 난 것도 잘 따고, 뭐 다리나 폴도(팔도) 빠지면 잘 쭈물러주고 의사 한가지라. 옛날에.

그래가지고 뭐 의사가 있나? 뭣이 있나? 고통도 없애고 또 그 할배한테 가면 낫우고 마 이랬는 기래. 그 할배도 봉사가 돼삐고, 아들도 하나 있는 기 그 뭐 다치가지고(다쳐서) 다리를 절고, 또 큰딸은 죽고, 그 다음 딸은 또 몸에 병이 나가지고 죽었고 할매도 인자 돌아가시고.

그래 우리 어릴 때 보면, 여게서 보면 담 이래, 그 탑을 뜯어 난, 요 큰 담 돌도 아니고 작은 돌로 가 이래 있는데, 집 뒤로 배암이가 잔잔한 기 요래 이만한 기 막 뛰댕기거든. 저거 누나가, 인자 할배 딸이 인자 요거만 하게 해가지고 담벼락에 있는 것을 꺼내가지고 직이가지고(죽여) 저 성에 그 갖다 내삐리러(내버리려) 가면 우리 따라가고 그랬어. 그거는 내가 확신하거든. 우리도 봤고. 그 집에 들어간 사람마다 집이 안 돼. 모두 다.

*김승유 외, 『가덕도의 민속문화5 –성북동』, 국립민속박물관, 2021, 211~212쪽.

[강서구 설화 160]

저승 갔다 온 사람

김상연(여, 1935년생) 구술
2021년 2월 5일 채록
[가덕도동(천성동) 서중마을]

요게 딸이 인자 죽었는 기라. 딸이 죽고 신랑도 와가지고 있고 울며불며 해샀다가 인제 그래 해가지고 인자 딸로 인제 관에다 옇어놨는 기라. 내일 나갈라 카면. 옇어놨는데 그래 인자 가족들은 한쪽 방에 가서로 옹기종기, 관은 인자 한쪽에 옇어놔놓고 있고 있는데, 그래 보니께네, 앉아면 너희끼리 뭣이 투둑투둑 소리는 나거든. 들어가보이께네 염장 위에 관이 터덕터덕 하니께네, 소리가 나고 이래가지고 그래가 보니께네 사람이 살았어.

그래가 그 사람 난중 그런 얘기 인자 이야기를 하는데 보니께네, 딸이 인자 살아났으니까 이야기를 핸 거지. 실환가 아닌가는 그건 모르지마는 아마 실환 것 같더라 그거는. 그래가지고 저승 간다고 가니께네 그래 인자 사공이 노를 젓어로, 배도 크도 안 하고 이리 노로 저어 이리 가는데 저 섬 같은 섬이 있는데 가니께 얼추 자기 아버지가 나와가지고,

"이게 뭐하러 오노? 가거라. 어서 가거라. 어서 가거라. 뭐 하러 오노? 이게 올 자리가 아니다. 어서 가거라."

그래가지고 그 딸이 깨어나가 그 꿈 이야기를 했는 기라. 그래 살았다 하대. 그거는 실환갑더라. 그래 아부지가 인자,

"니 올 자리가 안 된다. 가거라. 가거라."

해가지고 그래 살았대.

*김승유 외, 『가덕도의 민속문화5 –성북동』, 국립민속박물관, 2021, 213쪽.

[강서구 설화 161]

혹부리 영감과 도깨비

김상연(여, 1935년생) 구술
2021년 2월 5일 채록
[가덕도동(천성동) 서중마을]

토깨비는 저 그거 하대. 옛날에 인자 해가 지면 토깨비 와서 살- 나온다 하대. 나오면 그래 혹 달린 할배가 톱질 하는데 가가지고 노래를 불렀는 갑네. 노래를 부르니까네,

"할배, 노래 어디서 나오느냐?"

고, 이라는 기라. 도깨비가. 그래,

"이 혹에서 나온다."

이래 됐는 기라. 그래,

"이 혹을 띠줄라(떼어서 달라)."

캤어. 그래 혹을 띠가(떼어) 토깨비한테 붙였더라는. 그래가지고 인제 그 소리 듣고 누가 갔어. 가니께네 그 할배가 간 게 아니라, 딴 사람이 갔는지 모르겠다. 그래 가니께는 혹 띠러 가 혹 자

꾸 붙였다 카는 기라. 그 혹, 띠는 혹으로 붙여가 노래가 잘 노올(나올) 줄 알았던 혹이 안 나오거든. 그래가지고 자꾸 그 사람들, 간 사람을 갖다가 다부 붙여줬다 카대. 혹을, 혹 띠러 가가 혹 자꾸 붙있다 칸다.

*김승유 외, 『가덕도의 민속문화5 –성북동』, 국립민속박물관, 2021, 221쪽.

[강서구 설화 162]

손에 털이 난 터럭신

박연이(여, 1925년생) 구술
1991년 10월 13일 채록
[가덕도동(천성동) 서중마을]

터럭신, 귀신 신이니까 신이지. 나도 터럭신이라는 이야기는 옛날 나만 어른들한테 들어봤는데, 옛날에 터럭신이라는 물귀신이 있었다 아이가? 물귀신. 물귀신이 있었는데, 여름에 그때 우리 이우제 사는 어떤 할아버지가 하는 이야긴데. 그 할아버자가 봤다 그래요. 확실히 봤다 그라는데, 그 물밑에서 손이 올라오더라 이깁니다.

물밑에서 타락을 잡고 손이 올라오는데, 손을 보이까네 온 손에 털이 나서, 털이 나서 있는 거를 그래 손을 털치뿠다 하대. 흔히 옛날에는 터럭신이가 있었다. 그 물체가 어떻게 생깄나 카몬, 확실한 물체는 모르고 터럭신이라 하는 말만하고. 손은 반드시 사람 손 같은데 온 데 털이 나가 터럭신이라 탄다. 확실한 물체는 아직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데, 온데 손에는 털이 나가지고 사람같이 손이 올라오더라. 그래서 그걸 갖다가 터럭신이라 칸다.

*김승유 외, 『가덕도의 민속문화5 –성북동』, 국립민속박물관, 2021, 206쪽.

[강서구 설화 163]

시신과 운우지정을 나누고 복 받은 사람

박연이(여, 1925년생) 구술
1991년 10월 13일 채록
[가덕도동(천성동) 서중마을]

어떤 사람이 하나 있더랍니다. 거제서 그 사람이 부자로 살고 있는데, 그 사람 배 호號도 있는

데 배 호까지도 이야기 하자 카면 그 사람이 인증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지금에 와서 어떻게 사는지, 자제분들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단 말입니다. 내가 그런 소리 해가지고 날로 찾아오면 내가 참 답할 말이 없으니까 배 호까지는 말을 몬 하겠고.

그래 모 씨가 거제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분이가 인어를 상대를 한 게 아니고 늘 그 분이가 젊을 때 바닷가를 좋아해요. 사는 게 구차하니까 바닷가에 떠밀리고 하면 나가고 나가고 했는데, 그래 하루아침에는 바닷가에 나가니까 큰 바위 위에 사람이 하나 누워가 있는데, 자기 눈에 아주 이쁜 여자 한 분이 누워가 있더란 말이요, 그래서 젊을 때고 하니까 그 여자와 분가를 같이 했던 모양이지. 하고 나서 보니까 살안(산) 사람하고 한 게 아니라 죽은 사람하고 했어요. 분명히 분가를 할 때는 산 사람이었는데, 하고나서 보니까 산 사람이 아니라 죽은 사람이요.

그래서 용케 썰물 때, 밀물 썰물 안합니까? 밀물 때 물이 떠오를 적에 떠내려와가지고 큰 바위 납닥한 바위가 있으니까 그 바위에 위에 얹혀가 있다가 물이 빠지니까 고대로 가만히 누우가 있었는 거라요. 그라니까, 물이 빠지고 나니까, 누워가 있으니까 자기 눈에는 산사람 같이 보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감기가, 가고 나서 만져보니까 몸이 찹고 그래서 그 질로 와가지고, 할 수 없어가지고 하룻밤을 자고가도 말 없으면 못 간다고 양지 바른 좋은 무덤에다 묻어줬던 모양이라. 묻어주고 나니 그 후부터는 어떻게 해라 해가지고 그 분이 어장을 해가지고 크게 부자가 되가 잘 살고 있는데, 그 사람 배 호도 있고 이름도 알고 있지만 그저 모 씨라는 말만 내가 들어봤습니다.

*김승유 외, 『가덕도의 민속문화5 –성북동』, 국립민속박물관, 2021, 207쪽.

Ⅱ

문헌 소재 설화

1. 동부산 문화권 설화
2. 서부산 문화권 설화
3. 중부산 문화권 설화
4. 지역 미상 설화

1. 동부산 문화권 설화

1) 기장군 설화

[기장군 설화 1]

일광산의 쌍바위[雙岩]

지금도 기장군 일광면에 있는 일광산(日光山) 중턱에는 서로 마주보고 서 있는 두 개의 큰 바위가 있습니다. 마치 젊은 남녀가 얼싸안을 듯 애틋한 모습을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 옛날 이루지 못한 짝사랑의 애절한 사연이 전해오고 있습니다.

옛날 쌍바위가 있는 남쪽 산기슭에는 큰 마을이 있었고, 마을은 토성(土城)으로 둘러져 있었습니다. 여러 마을을 다스리고 있는 족장(族長)의 집이 덩그러니 있었고, 무사(武士)들과 마을 사람들이 오순도순 토담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족장의 외동딸 달실은 그 몸맵시를 자랑하며 이곳저곳 쏘다니기를 좋아하였습니다. 그리고 쇠돌이는 먼발치에서 달실을 볼 때마다 그 아름다운 모습에 반하여 울렁거리는 가슴을 누르지 못하였습니다.

쇠돌이는 전쟁터에서 이곳 족장에게 사로잡혀 와 지금껏 종살이를 하고 있는 천더기 신세였습니다. 따라서 그에게는 어림없는 짝사랑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꿈속에서라도 그런 내색을 보였다가는 목이 댕그랑 하고 날아갈 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쇠돌이는 자나 깨나 달실아가씨 생각뿐이요, 꿈에라도 달실을 품에 안고 사랑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처럼 달실아가씨 생각에 미쳐 있는 쇠돌이가 어느 날 아가씨와 젊은 무사가 함께 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무사는 얼마 전 무술시합에서 이긴 그 씩씩한 무사였습니다.

쇠돌이는 짝사랑의 질투심이 부글부글 끓어올라서 당장이라도 달실아가씨를 빼앗아 달아나고 싶었지만, 그러나 그에게는 도무지 그럴 힘이 없었습니다. 쇠돌이는 숨 막히고 답답한 가슴을 풀 길이 없어 아무도 보지 않은 당산(堂山)[1]으로 올라갔습니다.

당산에는 이미 고목이 된 키 큰 소나무와 그 옆에 당집[2]이 하나 있었는데, 그 당집에는 이 마을을 지켜주고 있는 당산할매를 모셔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산할매는 젊은이들의 짝사랑을 잘 풀어 준다고 하였습니다.

쇠돌이는 당집 앞에 꿇어앉아 합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간절한 마음으로,

"한 번만이라도 달실아가씨를 품에 안고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밤낮으로 빌고 또 빌었습니다.

비는 데는 무쇠도 녹는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쇠돌이의 간절한 기원에 감복한 당산할매는

1) 마을의 수호신이 있다고 믿는 산.
2) 신을 모셔놓고 섬기는 집.

며칠이 못되어 마침내 쇠돌이 앞에 그 모습을 나타내었습니다.

당산할매는 쇠돌이를 어루만지며 한참 동안 알아들을 수 없는 주문(呪文)을 외웠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이르기를,

"해가 지고 달이 세 번 떠오를 때까지 달실아! 달실아! 달실아!를 외쳐보아라. 달실아가씨가 찾아오거든 내 말이 있을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꼼짝도 하지 말고 있거라."

하고, 당부하였습니다.

그러자 쇠돌이는

"달실아! 달실아! 달실아!"

하고, 사흘이나 쉬지 않고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산 아래를 살폈습니다.

그런데 정말 달빛을 타고 올라오는 듯 달실아가씨가 가까이로 올라오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숨가쁘게 달려오는 버들같은 몸매의 달실아가씨를 본 순간, 쇠돌이는 달실아! 하면서 두 팔을 벌려 반기려고 하였습니다.

아뿔사! 이를 어찌하리!

달빛은 번갯불이 되어 번쩍! 하면서 쇠돌이는 산마루까지 끌려 올라가 그만 커다란 돌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광경을 본 달실아가씨는 너무도 불쌍하여 그리로 달려가는데, 돌이 된 쇠돌이도 주춤주춤 걸어 내려와 산 중턱에서 두 사람은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서로 손을 잡으려고 하는 그 순간, 다시 번갯불이 번쩍! 하면서 달실아가씨도 돌로 변하여 두 바위가 마주 보고 나란히 서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서로 얼싸안고 반길 듯한 두 바위의 모습은 정녕 눈물겨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쇠돌이와 달실이의 화석이라 하여 처음에는 돌실바위라고 불렀는데, 후세에 와서 짝바위 또는 쌍바위라고 부르게 되었답니다.

지금도 근처 사람들은 짝이 없어 외로운 처녀 총각이 이 돌실바위에 와서 짝을 구해 달라고 소원을 빌면, 사흘 후에는 반드시 짝을 구하게 된다고 전합니다.

*곽정식, 『이야기에 비친 선인들의 삶 -우리 고장 부산의 전래 설화』, 경성대학교 출판부, 2000, 3~7쪽.

[기장군 설화 2]

원앙대(鴛鴦臺)의 용녀(龍女)

지금의 기장군 기장읍(機長邑) 시랑리(侍郎里), 용궁사(龍宮寺) 근처에 있는 원앙대(鴛鴦臺)에 얽힌 전설입니다.

옛날부터 원앙대는 기장의 제일경(第一景)으로 손꼽히는 절경이었습니다. 기장을 찾는 길

손들은 누구나 원앙대의 빼어난 경치에 감탄하였다고 합니다.

기장 현감(縣監)으로 있던 권적(權𥙷商)[3]이라는 사람도 처음 이 곳에 놀러와서 그 절경에 감탄하고 자주 와서 놀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앙대의 북쪽을 미랑대(尾郎臺)라고 부른다는 말을 듣고는 자기의 벼슬 이름과 비슷함을 알고 시랑(侍郎)을 붙여서 시랑대(侍郎臺)라고 개명(改名)하였다고 합니다.

옛날 어느 해 여름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날이 몹시 가물어서 마을 사람들은 원앙대 아래에 있는 바위(지금은 그 곳을 해룡단이라고 부름)에서 기우제(祈雨祭)를 올리고 대내마을로 흩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랑스님은 기우제가 끝나자 마을 사람들과 떨어져서 큰 방처럼 넓적하게 생긴 원앙대에 홀로 앉아 저 멀리 비오개의 넘실거리는 파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파도를 타고 비오리떼가 짝을 지어 노닐면서 찬란한 몸매를 뽐내고 있었습니다. 오른쪽 촉석(矗石)[4]은 긴 칼을 세운 듯 천길 벼랑을 이루었고, 다시 그 뒤쪽은 병풍을 둘러친 듯 암벽이 되어 있었습니다. 또 그 아래 있는 동굴에서 치솟는 물보라는 일곱 가지 빛깔의 무지개를 서리게 하고, 파도를 삼킨 동굴은 용울음을 치고 있었습니다.

해질 무렵이 되자 붉은 노을은 점차 사라지고, 어느덧 밝은 달빛이 파도에 잠겨 천 개의 달, 만 개의 달이 물 속에 비치는 듯하였습니다.

그때 용궁(龍宮)에서 동굴을 통하여 아름다운 용녀(龍女)가 나타났습니다. 동해 용왕(龍王)의 공주였습니다. 용녀 공주는 마침 원앙대에 올라 찬란하게 차려입은 자신의 옷들을 거침없이 벗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머리에 얹은 화려한 진주관(眞珠冠), 산호와 칠보로 된 목걸이, 귀고리를 벗어 던지고 달빛에 반짝이는 은빛 파도를 타면서 한껏 그 요염하고 아리따운 자태를 과시하였습니다.

이 요염한 용녀의 자태에 유혹된 미랑스님은 넋을 잃고 바라보다가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그만 용녀를 덮치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용녀와 미랑스님은 원앙떼들과 함께 바위 위에서 얼마 동안 밀월(蜜月)[5]을 즐겼습니다.

세월은 꿈처럼 흘러 용녀는 만삭(滿朔)이 되었습니다. 용녀는 용왕의 눈을 피해 원앙대에서 해산(解産)을 할 준비를 하였습니다. 탯줄을 끊을 가위와 상자를 준비해 놓고 자리를 펴고 진통으로 신음하면서 아무도 못 보게 하였습니다.

미랑스님은 용녀의 분부로 원앙대 병풍암 뒤에 숨어 있었으나 용녀의 신음소리에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

3) 1675(숙종 1)~1765(영조 31). 1713년 문과에 급제하여 검열(檢閱)·대교(待敎)·사서(司書)·수찬(修撰)을 역임한 후 1727년 대사간에 올랐으며, 이후 대사헌·호조참판·경기도관찰사·한성부판윤·형조판서·예조판서 등 요직을 지냈다. 효성이 지극하여 정문(旌門)이 세워졌다.

4) 우뚝 솟은 바위.

5) 결혼 초의 즐겁고 달콤한 시간.

동해 용왕은 용녀 공주가 인간과 불륜을 범하여 원앙대에서 출산의 산고(産苦)를 겪고 있다는 급한 전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크게 진노(嗔怒)한 왕은 가슴 속 가득히 치밀어 오른 화를 억제하지 못하고 산더미같은 파도를 일으켰습니다.

용녀는 막 순산(順産)하여 그 탯줄을 끊지도 못하고 성난 파도에 휩싸이게 되었고, 병풍암 뒤에 숨어 있던 미랑스님이 용녀를 구하려고 뛰어내렸으나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그러자 이 처절한 광경을 보고 있던 하늘나라의 옥황상제(玉皇上帝)가 재빨리 천마(天馬)를 내려보내 용녀와 애기를 하늘나라로 올라오게 하여 선녀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세 사람들이 이 용녀를 위해서 원앙대 아래 해룡단(海龍壇)을 세우고 그 넋을 위로했다고 하는데, 요즘도 원앙대의 동굴에 파도가 치면 애절한 용녀의 절규로 들려온다고 합니다.

지금도 원앙대에는 용녀가 낳은 애기의 탯줄이 붉은 줄로 길게 뚜렷이 새겨져 있으며, 탯줄을 끊은 가위와 네모진 상자도 그대로 돌바닥에 뚜렷이 박혀 있을 뿐 아니라, 미랑스님이 용녀를 구출하려고 뛰어 내렸던 곳에는 짚신 자국이 깊게 새겨져 있습니다.

세월이 오래 흐르는 동안, 원앙대는 그 음(音)이 차츰 변해서 언제부턴가 오랑대로 불려지게 되었고, 그 꼭대기에는 지금 용왕단(龍王壇)이 있어 기도하는 장소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곽정식, 『이야기에 비친 선인들의 삶 -우리 고장 부산의 전래 설화』, 경성대학교 출판부, 2000, 8~12쪽.

[기장군 설화 3]

소정마을의 매바위

기장읍 내리 소정마을의 산 중턱에 있는 매바위에 얽힌 이야기입니다.

옛날 이 마을에 효성이 지극한 며느리가 중병을 앓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며느리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 산 저 산 찾아다니면서 시어머니의 병에 좋다는 약은 모두 캐어다가 정성껏 달여서 올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문득 시어머니는 산 아래 깊은 계곡에 있는 가재가 먹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며느리는 서둘러 산 아래 깊은 계곡으로 내려갔고, 거기서 시어머니가 먹고 싶다던 가재를 많이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어서 집에 가서 이걸 어머님께 드려야지' 하는 생각에 정신없이 산을 올랐습니다.

그런데 매바위 근처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무서운 호랑이가 덤빌 듯이 으르렁거렸습니다.

이때 커다란 매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날렵하게 호랑이를 향해 덤벼들면서 날카로운 발톱으로 호랑이의 눈언저리를 할퀴는 것이었습니다. 호랑이는 그만 도망을 치고 말았습니다.

그제야 며느리는 정신을 차려서 사방을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채 기운을 잃고 바위 위에 앉아 있던 커다란 매가 며느리를 보고 말했습니다.

"너의 효심에 감복하여 목숨을 걸고 호랑이를 쫓았으니 나 걱정은 말고 빨리 시어머님께 그 가재를 갖다 드려라."

이렇게 해서 그 가재를 드시게 된 시어머니는 얼마 후 신통하게도 다시 건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너무도 신기하고 고마워서 그 매의 상처를 보살펴 주려고 그 바위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찾아보아도 그때 피투성이가 되어 기운을 잃고 있던 고마운 매는 어디로 갔는지 흔적도 없고, 다만 피투성이가 되어 앉아 있던 그 바위가 꼭 그 매를 닮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는 큰 바위로 변한 매의 넋을 위로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올렸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후로 이 바위에는 매가 둥지를 짓고 살았다고 하고, 또 마을 사람들이 해마다 제사를 올렸다고 하며, 이때부터 이 바위를 '매바위'로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소정마을 산 131-6의 산 중턱에는 매처럼 생긴 바위 하나가 있습니다.

*곽정식, 『이야기에 비친 선인들의 삶 -우리 고장 부산의 전래 설화』, 경성대학교 출판부, 2000, 58~60쪽.

[기장군 설화 4]

아홉 공주가 쌓은 왕릉

지금도 장안읍 기룡리 하근마을 기룡천 건너편의 송림 속에는 옛날 왕릉이 하나 있는데, 이 왕릉에 얽힌 이야기가 다음과 같이 전해오고 있습니다.

아주 옛날에는 큰 고을마다 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옛날, 지금의 울주군 웅촌면 검단리에도 '우시산국'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왕국이 있었는데, 신라국에 정복되어 왕과 왕자는 포로가 되어 잡혀가고 왕비는 아홉 공주를 데리고 산속으로 피난을 하였습니다. 아홉 공주를 데리고 산속을 헤매다가 왕비는 마침내 이곳, 지금의 기룡리 근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왕비와 아홉 공주는 신분을 숨기고 평민으로 가장하여 농사꾼으로 품팔이를 하면서 겨우 보리죽으로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신라국의 병사들은 이곳까지 와서 왕비와 공주들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곳도 얼마 전까지 '거칠산국'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왕국으로 있다가 '우시산국'과 마찬가지로 신라국에 정복되고 말았기 때문에, 왕비와 공주들을 감춰 주고 보살펴 줄 수 있는 안전한 곳이 못 되었습니다. 왕비와 공주들은 넝마옷을 입고 농사꾼 노릇도 하였지만 먹을 것이 없어 걸식을 하면서 움막집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포로가 되어 끌려간 왕과 왕자들은 생사조차 알 길이 없었습니다. 왕비와 아홉 공주는 날마다 화철령 고개를 넘어가 왕과 왕자들을 기다렸지만 아무런 소식도 없었습니다.

왕비는 근심과 걱정이 쌓이고, 몸에 익지 못한 농사꾼 일에 지쳐 끝내 병을 얻어 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아홉 공주는 어머니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아무런 일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슬프게, 슬프게 울기만 하였습니다.

아홉 공주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어머니의 시신을 마당 한 가운데에 묻었습니다. 그리고는 제각기 이웃 마을에 뿔뿔이 흩어져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해마다 철쭉꽃이 붉게 필 무렵, 달 밝은 보름날이면 아홉 공주가 어머니의 무덤가에서 만났습니다.

이곳에서 만난 아홉 공주는 왕비였던 어머니의 무덤을 왕릉답게 만들기 위해서 밤을 꼬박 새워가며 치마폭에 흙을 담아 봉분(封墳)을 쌓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각자가 장만해 온 화전(花煎)[6]과 음식을 차려 놓고, 제문(祭文)을 지어 어머니의 넋을 위로하였습니다.

해마다 이처럼 치마폭에 흙을 담아 쌓은 봉분은 세월이 지남에 따라 차츰차츰 커져서 마침내 큰 왕릉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홉 공주의 변함없는 효심과 자매들의 깊은 우애가 어느새 사방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아홉 공주가 살고 있던 아홉 마을의 부녀자들도 해마다 그날이 되면 모두 이곳 무덤가에 모여서 아홉 공주의 아름다운 행실을 기리며 한마당 축제를 열었다고 하는데, 이 아름다운 풍습이 천오백 년이나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불과 몇 십 년 전까지만 해도 해마다 음력 삼월 보름날이면 인근 마을 부녀자들이 이곳 무덤가에 모여서, 화전놀이를 벌이고 즐겁게 놀면서 시집살이의 고달픈 사연을 하소연하기도 하고, 백일장(白日場)을 열어 시상(施賞)을 하기도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곽정식, 『이야기에 비친 선인들의 삶 -우리 고장 부산의 전래 설화』, 경성대학교 출판부, 2000, 61~64쪽.

[기장군 설화 5]

장군대와 진계등

옛날, 아주 오랜 옛날, 지금의 기장군 일광면에 있는 달음산 동쪽 기슭에 이씨 부부가 작은 움막을 지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씨 부부는 나이가 쉰 살이 넘도록 대를 이을 자식이 없어 걱정을 태산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달 밝은 밤이면 장사바위에 정화수를 받쳐놓고 신령님께 아들 하나를 갖게 해달라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얼마 후 이씨 부인은 잉태하게 되었고, 역시 사내아이를 낳았습니다.

갓난아기는 태어나자 이레만에 말을 하기 시작하였고, 일곱 살이 되자 어느새 구척장신(九尺長身)이 되어 장사바위를 두 손으로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손으로 바위를 누르면 손자국이 생기고, 맨발로 바위를 밟으면 발자국이 생겼습니다.

6) 꽃에 찹쌀가루를 발라서 기름에 띄워 지진 떡.

그리하여 장사바위골에서 아기장사가 났다는 소문이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적군의 첩자들이 아기장사를 해치려고 하였습니다.

아기장사는 자객(刺客)[7]을 피해 뒷산 너머 치마산 등성이에 있는 운장대 아래에 숨었습니다. 이곳은 낙락절벽(落落絶壁)으로 커다란 바위들이 층을 이루면서 중첩하여 구름 속에 잠겨 있는 까닭에 운장대라고 부르게 되었는데, 운장대에서 동해를 바라보면 수평선 너머로 대마도가 보이고, 북쪽으로는 넓은 산야가 훤히 바라보여서 조물주의 신비에 쌓인 절경으로 숨어 살기에 아주 좋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산기슭의 계곡을 끼고 기다랗게 둔덕이 뻗어 있는 진계등은 말을 타고 달리는 말놀이에 적합하였습니다.

장사가 나면 명마(名馬)가 난다는 말처럼, 아기장사가 치마산에 숨어든 지 얼마 안 되어 하늘을 달린다는 천마(天馬)가 장군대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아기장사는 이 천마를 타고 진계등을 비호처럼 달리며 말놀이를 하면서 놀았습니다.

이 무렵 진계등의 텃골에는 고씨댁 따님이 자라고 있었는데, 태어나자 이레만에 큰방 대들보에 매달려서 놀거나, 대문을 넘기도 하고, 일곱 살이 되자 뒷뜰 대밭에서 왕대를 휘어잡고 대밭 위를 날아다니기도 하였습니다. 또 댓잎을 한 움큼 따서 입김으로 불면 모든 댓잎이 신병(神兵)이 되어 아가씨를 호위하였습니다.

이 두 사람, 아기장사와 고씨댁 따님은 어린 나이에 진계등에서 만나게 되었고, 서로 의좋게 지내면서 힘과 기를 겨루기도 하였고, 성장해서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장사부부는 변경의 적병들이 노략질 하는 것을 막기 위해 북쪽 큰 고개 너머에다 흙으로 작은 성을 쌓았습니다. 장사부부의 이 일이 알려지자 인근 마을의 젊은 장정들이 너도나도 반월성에 모여들었습니다.

장사부부는 장정들을 조련하여 군사로 삼고 장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적병들은 밤낮으로 너른 들판에서 말놀이나 하면서 놀고 있을 뿐 전혀 침공할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장수 또한 할 일이 없어 술이나 마시면서 놀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술에 만취된 이장수는 문득 한 가지 내기를 해보고 싶어졌습니다. 자신이 쏜 화살과 자신이 타고 달리는 천마가 어느 쪽이 빠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장수는 천마를 타고 반월성에서 진계등까지 달려 와서는 운장대 큰 바위를 겨냥하여 활을 쏘고, 즉시 천마로 달렸습니다. 운장대에 달려와 보니 화살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장수는 천마가 화살보다 늦게 달려왔다고 분개하여 단칼에 천마를 베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이장수는 화살이 바위에 꽂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장수는 억울하게 죽은 천마를 화장하여 잿들(灰坪)에 뿌려 주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적병들은 장수 없는 반월성을 급습하여 점령하였습니다. 이장수는 반월성을 탈출한 군사들을 모아 진퇴고개(鎭退嶺)에서 다시 진을 치고 대치하였으나, 중과부적(衆寡不敵)[8]으로 진계등까지 후퇴하게 되었습니다.

---

7) 정치적 목적 따위로 사람을 몰래 찔러 죽이는 사람.

이장수는 진계등(陣界嶝)을 경계로 하여 천마산 쪽에 진영을 갖추고, 적병은 진계등의 서쪽에 포진하였습니다. 적병의 장수는 신라의 거도(居道)[9]장군이었습니다. 그는 지략이 뛰어난 장수였습니다. 이장수의 군사는 순전히 보병(步兵)이었고, 신라의 거도장군이 거느리는 군사는 기마병(騎馬兵)이었습니다.

이장수의 부인 고씨는 만삭이 되어 댓잎으로 신병(神兵)을 부리는 신통력은 없어졌지만, 신라의 기마병은 숲이 무성한 여름에는 기동력이 없어진다는 사실을 간파하고, 이장수에게 집 뒤에 있는 왕대밭에서 동이〔桶〕만큼 큰 죽순이 솟아날 때까지 지구전(持久戰)을 펴는 것이 상책이라고 일러주었습니다.

신라의 거도장군은 마술놀이를 잘하는 군사를 뽑아서 말등에 달라붙게 하여 달리게 하였습니다. 이 광경을 본 이장수는 군졸들에게 달려오는 빈말들을 잡아오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군졸들은 활과 창을 놓아둔 채 새끼줄을 들고 빈말을 잡으려고 뛰어나갔습니다.

그러자 이를 노리고 있던 신라의 거도장군은 일제히 함성을 지르면서 이장수의 어지러운 진영을 여지없이 박살을 내고 말았습니다.

천하의 이장수도 온몸에 화살을 맞고 고슴도치처럼 되어 싸우다가 전사하였습니다.

한편 남편의 전사 소식을 들은 고씨부인은 진계등을 빠져나와 운장대 큰 바위틈에 올라가서 순산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씨부인은 구름 속에 높이 솟아 있는 운장대(雲壯臺)의 층암까지 추격한 적병들에게 그만 발각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제 막 출산한 핏덩어리를 안은 채, 탯줄을 움켜잡고 피를 흘리면서 피신하려고 하였으나 고씨부인은 비오 듯 날아드는 화살을 맞고 애기와 함께 죽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그 탯줄이 길게 화석으로 남아 있고, 핏자국 또한 뚜렷이 남아 있어 그 옛날의 처절한 광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부터 이장군이 어릴 때 놀았던 바위를 장사바위라고 하고, 치마산에서 천마가 나타났다 하여 치마산을 천마산이라 부르게 되었으며, 운장대를 장군대, 죽은 천마를 화장하여 그 재를 뿌린 곳을 잿들, 고씨댁이 있던 곳을 텃골이라 부르게 되었는데, 오랫동안 텃골에는 왕대가 자생하였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계등(陣界嶝)은 적군과 아군의 진영(陣營) 사이에 그 경계(境界)를 이루었던 둔덕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고, 진퇴령(陣退嶺)은 반월성에서 고개 너머로 진(陣)을 후퇴(後退)시킨 고개라 하여 그렇게 불렀다고 하며, 이장수가 쌓은 성은 언덕배기를 이용하여 반달처럼 토성을 쌓은 것이므로 아반월성(阿半月城)이라 하였고, 성이 있는 마을을 아월(阿月)이라 약칭하였는데, 지금의 월평리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곽정식, 『이야기에 비친 선인들의 삶 -우리 고장 부산의 전래 설화』, 경성대학교 출판부, 2000, 71~77쪽.

8) 적은 수의 사람으로 많은 수의 사람을 이기지 못함.
9) 삼국사기 열전에 의하면, 거도는 탈해이사금에게 벼슬하여 간(干)이 되었다고 하며, 때에 군사를 일으켜 우시산국(于尸山國), 거칠산국(居柒山國)을 합병하였다고 한다.

[기장군 설화 6]

판자를 던져 중국 스님 천 명을 구하다

대안대사(大安大師)의 "남으로 가라"고 하신 말씀에 따라 원효대사는 신라의 서울 경주를 떠나 남으로, 지금의 울산시 온양면(蔚山市 溫陽面) 대운산(大雲山)에 와서 수도하여 도를 통했다고 한다. 그래서 대운산 동쪽 골짜기를 지금도 '도통골(道通谷)'이라 한다.

그 뒤 대사께서 대운산의 산줄기를 타고 내려 불광산 산정에 암자를 짓고 불도에 정진하고 있을 때의 일이다.

불광산 꼭대기는 암석으로 되어 있는데, 편편한 자리가 있다. 거기서 대사가 수도를 하다가 도안(道眼)으로 바라보니, 바다 건너 멀리 당나라 서울인 장안(長安)의 맞은편 안산(案山)이 되는 종남산(終南山)의 운제사(雲際寺) (일설에는 談雲寺라고도 한다.) 법당 안에서 설법을 듣고 있던 천 명의 대중(大衆)이 큰 변을 당하게 되어 있음을 직감하였다.

사태가 다급하나 알려서 구할 방도가 없었다. 대사가 급한 결에 암자의 부엌 문짝을 떼어 서쪽 하늘로 던져서 날리었다. 그래서 이곳 암자의 이름을, 나무판자를 던진 암자라는 뜻인 '척판암(擲板庵)'이라 부르게 되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운제사의 한 스님이 휘파람 비슷한 이상한 소리가 나는 하늘을 바라보니, 큰 널빤지 하나가 공중을 날며 절 위에 돌고 있는 게 아닌가? 참으로 신기한 일이었다. 그 스님이 하도 기이하여 법당 안에 있는 천 명의 대중에게 소리를 질렀다.

"아, 여기 나와서 저것 보시오. 판자가 허공을 날면서 이상한 소리를 내고 있어요."

그 스님의 외침 소리를 듣고 법당 안의 천명 대중이 우르르 법당 밖으로 나왔다. 바로 그 때에 법당의 대들보가 와지끈 내려앉으며 집이 무너졌다. (일설에는 뒷산이 무너져 법당을 덮쳤다고도 한다.) 어느덧 널빤지도 땅에 떨어졌다.

스님들이 달려가 땅에 떨어진 부엌 문짝을 보았더니, 「해동사미원효천승구제(海東沙彌元曉千僧救濟), 신라의 승려 원효가 천 명의 스님을 구제하다)」라는 글귀가 쓰여 있었다.

원효대사가 도술을 부려서 자기들을 구한 것임을 알았다. 당나라 천 명의 스님들이 동쪽을 보고 해동의 원효를 향해 우러러 예배하였다.

"거룩하신 원효대성을 찾아뵈올지이다."

이렇게 발원한 천 명 대중은 수륙 만리해동의 나라 신라를 찾아 길을 나섰다. 이리하여 신라에 이른 천 명의 스님이 이상한 북소리가 나는 곳으로 발길을 옮겨 지금의 양산시 내원사(內院寺)로 가서 원효대사를 뵙고 몸을 땅에 던져 백배사례를 하였다. 이에 원효대사는 빙그레 웃으면서 말했다.

"오실 줄 알았소. 먼길에 오시느라 수고하셨소."

대사는 미리 알고 천 명 대중을 위한 처소와 음식을 마련해 두고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은 또 한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참으로 하는 일이 모두 거리낌이 없는 각덕(覺德)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닌가?

그 천 명 대중은 모두 원효대사의 제자 되기를 간청하였다. 이에 원효대사는 천 명 대중을 이끌고 내원사 뒷산에 올라가서 자리를 잡아 화엄경(華嚴經)을 강설하였다. 이리하여 천 명 대중이 모두 도를 깨쳤으므로, 그 산 이름을 천명의 성인이 나왔다는 뜻으로 오늘날까지 '천성산(千聖山)'이라 불려지고 있다.

그리고 천성산 산정 가까이에 넓은 평지가 있는데, 이 자리에서 원효대사가 화엄경을 설했다고 하여 '화엄벌'이라 하고, 화엄경을 놓았던 자리를 '화엄경상(華嚴經床)'이라 하였는데, 아무리 눈이 많이 내려도 그 자리에는 눈이 쌓이지 않는다고 한다.

내원사 뒤 천성산과 정족산(鼎足山) 사이에 조계암(曹溪庵)이라는 암자에서 1km 거리에 마주 보이는 산봉우리가 있다. 당나라 천 명 대중이 이상한 북소리를 듣고 찾아온 것은, 이 봉우리에서 원효대사가 볏짚으로 북을 만들어 그것을 쳐서 신기한 북소리를 내었기 때문이라 하여 봉우리 이름을 오늘날까지 '짚북봉'이라 한다.

*정상박, 『전설의 사회사』, 민속원, 2000, 137~141쪽.

[기장군 설화 7]

장산국의 왕비릉

- 아홉 공주 효심으로 쌓은 엄마의 무덤

- 장소 :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기룡리

해운대에서 울산으로 가는 14호 국도를 타고 오른쪽으로 장안사 입구에 이르다 보면 하근마을이 나온다. 장안초등학교를 지나 기룡천 다리를 건너면 국도변 장안배 집하장 및 판매장 앞에 소나무 숲이 있는 작은 동산에 왕비릉이 있다.

먼 옛날 왕비의 무덤이라고 전하는 곳으로, 다섯 무덤 중 입구의 첫 무덤이 왕비릉이다. 여기에는 망국으로 인한 왕족의 비극과 왕비릉을 아홉 공주가 쌓았다고 하는 아름다운 효행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다.

때는 부족국가시대 말엽인 5세기경 장산에 '우시산국'이라 불린 작은 부족국가인 장산국이 있었으나 신라의 침략으로 멸망하게 되었다. 왕과 왕자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왕비만 아홉 명의 공주를 데리고 장산에서 북쪽 산속으로 탈출하여 지금의 기룡리 근처에 이르게 됐다. 그러나 여기에도 이미 신라의 손길이 뻗쳐 왕비와 아홉 공주는 어쩔 수 없이 신분을 숨기고, 평민으로 가장하여 농사꾼으로 품팔이를 하면서 보리죽으로 겨우 연명했다.

신라의 병사들은 이곳까지 와서 왕비와 공주들을 찾고 있었다. 왕비와 공주들은 넝마옷을 입고 농사꾼 노릇도 했지만, 먹을 것이 없어 걸식을 하면서 움막집에서 살아야 했다.

그러기를 몇 달, 포로가 되어 끌려간 왕과 왕자들은 생사조차 알 길이 없었다. 왕비와 아홉 공주는 날마다 화철령 고개를 넘어가 왕과 왕자들을 기다렸지만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왕비는 왕과 왕자들에 대한 근심이 쌓이고, 몸에 익지도 않은 농사일에 지쳐 병을 얻어 숨지고 말았다.

아홉 공주는 어머니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슬피 울 뿐 어쩔 줄을 몰랐다. 놀람과 슬픔에 어찌할 줄 모르던 아홉 공주들은 겨우 정신을 차리고 어머니의 시신을 마당 한가운데 묻었다. 그리고는 제각기 이웃 마을에 뿔뿔이 흩어져서 살게 되었다.

그러면서 해마다 철쭉꽃이 붉게 필 무렵인 매년 음력 3월, 달 밝은 보름날이면 아홉 공주가 어머니의 무덤가에서 만났다. 이곳에서 만난 아홉 공주는 어머니의 무덤이 초라해 자신들의 손으로 무덤을 왕비릉답게 만들기 위해서 만날 때마다 밤을 꼬박 새워가며 치마폭에 흙을 담아 봉분을 쌓았다.

그리고 나서 각자가 장만해 온 화전(花煎·꽃에 찹쌀가루를 발라서 기름에 띄워 지진 떡)과 음식을 차려 놓고, 제문(祭文)을 읽고 어머니의 넋을 위로하는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

해마다 이처럼 치마폭에 흙을 담아 쌓은 봉분은 세월이 지남에 따라 차츰 커져서 마침내 큰 왕비릉이 되었다. 그러자 아홉 공주가 살고 있던 아홉 마을의 부녀자들도 해마다 그날이 오면 모두 이곳 무덤가에 모여서 아홉 공주의 아름다운 효심을 기리며 한마당 축제를 열었다. 이 아름다운 풍습이 1500년이나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고 한다.

기룡마을의 주민들은 왕비릉을 '딸 아이 무덤'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불과 수십 년 전까지도 해마다 음력 3월 보름날이면 마을 부녀자들이 무덤가에 모여서 아홉 공주의 효행을 기리는 잔치를 벌였다고 한다. 화전놀이로 시집살이의 고달픈 사연을 하소연하기도 하고 백일장을 열어 시상을 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주영택, 『부산의 전설 보따리』, 가마골향토역사연구원, 2013, 13~15쪽.

[기장군 설화 8]

웅천마을의 범바위굴

- 범이 된 남편 한번 보고 싶어 눈 뜨자 …

- 장소 : 부산시 기장군 철마면 웅천리

기장 철마면 웅천리 서쪽에 있는 거문산(543.4m) 기슭에 범바위굴이 있다.

옛날 이 마을에 젊은 부부가 와병 중에 있는 부친을 극진히 봉양하고 있었다. 낮에는 온갖 약초를 캐어 복용하게 하고, 밤이면 이 곳 바위굴에 가서 정성껏 신령님께 쾌차를 기도하는데, 부부에게 늑대와 여우들이 으르렁거리고 달려들어 부부는 신령님께 짐승들의 범접도 막아 달라고 아울러 기도하였다.

어느 날 신령님이 나타나서 "너희들이 지극한 마음으로 신령님을 세 번 불러라. 그러면 남편은 범으로 변한다. 치성이 끝나거든 다시 신령님을 세 번 불러라. 그러면 다시 사람으로 되돌아온다. 그러나 부인은 그동안 눈을 감고 범이 된 남편을 보아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하기를 백일 동안 기도하면 영험이 있으리라"고 하였다.

젊은 부부는 신령님의 분부대로 매일 밤 기도를 올렸다. 짐승들은 범이 된 남편을 보고는 범접도 못하고 도망쳤으며, 아버지의 병도 쾌차를 보이고 백일이 가까워졌다.

젊은 부인은 범 모습을 한 남편을 한 번 보고 싶은 호기심을 억제하기 어려웠다. 백일기도의 마지막 밤은 보름달이 밝고 고생도 끝나는 날이고, 범 모습을 한 남편을 이때 못 보면 영영 못 보게 되는 지라, 범 모습에서 사람으로 변하기 위해 부부가 마지막 신령님을 세 번 부를 때 부인은 살짝 반눈을 뜨고 남편을 보았다.

이게 웬 일인가? 신령님을 세 번 불러도 범이 된 남편은 다시 사람으로 되돌아오지 못하고, 굴속으로 들어가서 나오지 아니하였다. 부인은 자기의 잘못으로 인하여 범이 되었으므로, 그 죄책감으로 범이 된 남편과 함께 이 굴속에서 살았다고 한다.

범바위굴에는 이런 이야기도 전해오고 있다.

옛날 철마면 웅천리에 한 효자가 살았는데, 부친의 병을 고치고자 온갖 약을 구해 썼으나 효험이 없어 범바위굴에 가서 백일기도를 하니, 백일이 되던 날 밤에 비몽사몽간에 한 노인이 나타나 현몽하기를 "너의 효성이 지극하니 내 너를 위하여 영약을 가르쳐 주겠노라. 개 천 마리를 먹으면 부친의 병이 쾌차할 것이니라."하고는 사라졌다.

효자는 개 천 마리를 구할 방도가 없어 그날부터 다시 기도를 드렸더니, 전번에 나타난 노인이 다시 현몽하기를 "내가 너에게 범가죽을 줄 터이니 이 가죽을 입으면 범으로 화신할 것이다. 잊어서는 안 될 것은 이 자물쇠를 절대 신임할 수 있는 자에게만 맡겨두고 밤에는 범가죽을 입고 자물쇠를 잠그고, 새벽에는 이 자물쇠로 잠근 것을 풀고 범가죽을 벗어라"라 하고 사라졌다. 문득 깨어보니 범가죽과 자물쇠가 옆에 있었다.

효자는 신령님의 고마움에 감사하고, 그날부터 자물쇠를 자기 부인에게 맡기고 그날부터 범가죽을 써 범으로 변신하여 개를 잡아 물고 와 부친 병을 구완하였는데, 부친이 구백여 마리의 개를 먹자 병이 나았는데도, 효자가 노인의 말대로 천 마리를 채우기 위해 계속 범으로 변신하여 나가자 아내가 개고기 만지는 것에 신물이 나 그만 자물쇠를 없애버렸다.

결국 효자는 사람으로 변신하지 못하고 범이 되어 범바위굴에 들어가 일생을 마쳤다고 한다.

*주영택, 『부산의 전설 보따리』, 가마골향토역사연구원, 2013, 16~18쪽.

[기장군 설화 9]

효자로 이어진 김씨 4효묘(四孝廟)

- 하늘이 내리고 나라가 인정한 효자 3세에 걸친 4효(四孝)

- 장소 : 부산시 기장군 철마면 임기리

김순적은 조선 중엽에 기장 철마면 임기마을에 살았다.

기골이 장대하고 담력이 센 그는 겨우 13세 되던 해 대낮에 호랑이가 마을로 내려와 그의 모친을 물고 가는 것을 보고 달려가서 한 손으로 호랑이의 꼬리를 잡고, 또 한 손으로 모친의 발목을 힘껏 잡아 당겼다. 호랑이는 순적에게 꼬리를 잡힌 채 모친을 물고 산속으로 달아나는 것이었다. 호랑이의 꼬리를 잡고, 또 한 손으로 모친의 발목을 힘껏 잡아 당겼다. 호랑이는 순적에게 꼬리를 잡힌 채 모친을 물고 산속으로 달아나는 것이었다.

호랑이의 꼬리에 매달려가던 순적은 큰 소나무를 보자 기지를 발휘하여 호랑이의 꼬리를 나무에 감고 늘어지자 호랑이는 그만 물고 있던 모친을 놓고 달려드는데, 큰 돌을 주워 내리치자 산속으로 달아났다. 순적은 호식당할 뻔한 모친을 업고 집으로 돌아왔다.

이 효행을 나라에서 듣고 큰 상과 함께 나라에 바치는 조세와 부역을 면제해 주었다.

임기마을의 김해 김씨 청유공파 임기종문회 가문에는 3세 4효을 모신 4효모(四孝廟) 사당(철마면 임기리 470)이 있어 효자 마을이다. 효자 김련(1688~1754)의 처는 효부 강씨(1685~1716)이다.

강씨는 결혼한 이듬해 초여름부터 시아버지가 쇠약한 체질에 이질이 걸려 병석에 드러눕고 급기야 죽기에 이르자 자기의 손가락을 깨물어 생혈을 먹이니 시부의 병이 나았다.

김련의 부친이 이질로부터 살아난 그해 겨울에 심한 천식과 함께 몸이 극도로 쇠약하여 어떤 약을 써도 낫지 않았다. 그런데 향의가 겨울철에 생당귀가 있어야 군제(처방에서 제일 중요한 약)로 처방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 말을 들은 김련은 무작정하고 이산 저산을 헤매며 생당귀를 구했으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눈 오는 산속에서 길을 잃고 큰바위 밑에 웅크리고 앉아 있다가 날이 새 밝아오자 바위 앞 양지 바른 곳에 생당귀가 파랗게 자생하고 있어 두 손 모아 하느님과 산신님께 감사를 올리고 생당귀를 구해 첩약으로 지어 부친에게 복약케 하니 병환이 나았다.

김련의 손자 상제(1847~?)는 그의 부친인 봉의가 겨울에 중병에 걸려 신음하면서 잉어를 먹고 싶다 하자 얼음이 언 강가에 가서 눈물로 신령님께 호소하니 얼음 위로 큰 잉어가 뛰어올랐다. 이를 가져다 삶아 부친에게 드렸더니 병이 나았다. 그 뒤 부친이 몇 년 동안 병석에 누워 있을 때 항상 부친의 대변을 맛보고 병의 차도를 짐작하였으며 부친이 임종할 때는 손가락을 끊어 생혈을 드리니 잠깐 소생하였다가 사망하였다.

국상이 있으면 3년간 상복을 입고 고기를 먹지 않았다. 나라에서 이들에게 포상하고 조세와

부역을 면제해 주었다고 한다.

임기 김해 김씨 가문은 효자 김련(참봉공 청유의 11세 손)→효부 강씨(김련의 부인)→김봉의(김련의 아들)→김상제(김련의 손자) 등 3세로 이어져 사효묘에서 매년 2월과 8월말 정일에 제사를 올리고 있다.

*주영택, 『부산의 전설 보따리』, 가마골향토역사연구원, 2013, 19~21쪽.

[기장군 설화 10]

장군대와 진계등

- 섣불리 천마 죽인 장수 기동력 잃고 최후

- 장소 : 부산시 기장군 정관면 월평리

옛날 기장군 달음산 동쪽 기슭에 쉰 살이 넘은 이 씨 부부가 살고 있었다. 대(代)를 이을 자식이 없어 달 밝은 밤이면 장사바위에 정화수를 올려놓고 산신령님께 소원을 빌었다. 그러자 부인은 잉태하여 사내아이를 낳았다.

이 아이는 이레 만에 말을 하였고, 일곱 살이 되자 키가 9척이나 되어 장사바위를 두 손으로 번쩍 들었다. 손으로 바위를 누르면 손자국이 생기고, 맨발로 바위 위를 걸어도 발자국이 생겼다.

장사바위골에서 아기장사가 났다는 소문이 널리 퍼지자 이웃 부족 적국의 첩자들이 아기장사를 해치려고 하였다. 부모는 자객을 피해 치마산 등성이에 있는 운장대에 아기장사를 숨겼다.

낙락절벽으로 바위가 겹겹이 싸여 구름 속에 잠겨 있다 하여 명명된 운장대(雲裝臺). 이곳에서는 동해의 수평선 너머 대마도가 보이고, 북쪽의 산야가 훤히 바라보여 천혜의 신비에 싸인 절경으로 숨어 살기에 좋았다. 아기장사는 산기슭의 계곡을 끼고 기다랗게 둔덕이 뻗어 있는 진계등(陳界嶝)에 난데없이 천마가 나타나면 그 말을 타고 말놀이를 하면서 놀았다.

이 무렵 진계등의 텃골에는 고씨 댁 딸이 있었다. 태어나자 이레 만에 큰방 대들보에 매달려서 노는가 하면 대문을 넘기도 하고, 일곱 살이 되자 뒤뜰 대밭에서 왕대를 휘어잡고 대밭 위를 날기도 하였다. 또 댓잎을 한 움큼 따서 입김으로 불면 댓잎이 신병이 되어 아가씨를 호위하였다.

아기장사와 고 씨 아씨는 진계등에서 의좋게 놀면서 힘과 기(技)를 겨루며 성장하여 마침내 부부가 되었다. 장사 부부는 변경 적병들의 노략질을 막기 위해 북쪽 큰 고개 너머에 흙으로 작은 성인 반월성을 쌓았다. 장사부부의 풍문이 퍼지자 고을 젊은 장정들은 너도나도 반월성에 모여들었다.

아기장사는 장정들을 조련하여 군사로 삼고 장수가 되었다. 어느 날 이 장수는 천마를 타고 반월성에서 진계등까지 달려 장군대(운장대)의 장수바위를 겨냥, 활을 쏜 후 천마를 타고 달렸

다. 장수바위에 달려와 보니 화살이 보이지 않았다. 이 장수는 천마가 화살보다 늦게 달려왔다고 분개하여 단칼에 천마를 베었다. 그런데 그때서야 화살이 바위에 꽂히는 것을 본 이 장수는 억울하게 죽은 천마를 화장하여 잿들(灰坪)에 뿌려 주었다.

비통에 빠진 장수는 한동안 실의에 빠져 반월성을 비우고 배회했다. 이 소식을 들은 적병들은 장수 없는 반월성을 급습, 손쉽게 점령했다. 이에 장수는 반월성을 탈출한 군사들을 모아 진퇴고개에서 진을 치고 대치했지만, 수적으로 턱없이 적은 장수군은 진계등까지 후퇴했다.

장수는 진계등을 경계로 하여 천마산 쪽에 진영을 갖추고, 적병은 진계등의 서쪽에 포진하였다. 적병의 장수는 신라의 거도장군이었다. 장수의 군사는 말이 없는 보병이고, 신라군은 기마병들이었다.

한편 장수의 부인은 만삭이 되어 댓잎으로 신병을 부리는 신통력이 없어졌지만, 신라 기마병은 숲이 무성한 여름에는 기동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남편인 장수에게 집 뒤 왕대밭에서 죽순이 솟아날 때까지 지구전을 펴는 것이 상책이라고 일렀다.

거도장군은 마술놀이를 잘하는 군사를 뽑아서 말등 뒤에 달라붙게 하여 달리게 하였다. 이 광경을 본 장수는 군졸들에게 달려오는 빈 말을 잡아오라고 명령하였다. 군졸들은 무기를 놓아둔 채 새끼줄을 들고 빈 말을 잡으려고 뛰어나갔다. 이때 신라군은 함성을 지르면서 장수의 진영을 여지없이 사살하였다. 천하의 이 장수도 온몸에 화살을 맞고 고슴도치처럼 되어 싸우다가 전사하였다.

남편의 전사 소식을 들은 고 씨 부인도 장군대에서 아기와 함께 죽었다.

*주영택, 『부산의 전설 보따리』, 가마골향토역사연구원, 2013, 41~43쪽.

[기장군 설화 11]

옥녀와 선비의 사랑

- 옥녀를 그리던 선비, 매남바위서 몸을 던지다.

- 장소 : 부산시 기장군 정관면 매학리

옛날 물래(勿來)라는 젊은 선비가 충청도를 떠나 영남에서 제일 명당에다 경치가 아름다운 매남산(521.7m) 제석천 옆에 산막을 치고서 역학공부를 하고 있었다.

선비는 낮에는 공부와 밭을 일구고 밤이면 퉁소를 갖고 개울가 옆 바위에 앉아 세상사를 탄식하는 슬픈 곡을 울리곤 하였다.

달 밝은 밤이면 빠짐없이 인간세상에서 하늘로 울려 퍼지는 이 퉁소 소리를 듣던 하늘의 옥녀는 그만 이 소리에 반해 옥황상제의 허락을 받고 인간세상으로 이날 밤 내려와 제석천 옆에 이르렀다. 지극이 눈을 감고 꺼질 듯 이어질 듯 탄식하듯 옥이 굴러가듯이 퉁소를 불고 있던 선

비는 개울가에 선 옥녀를 뒤늦게 보게 되었다. 잠깐 소리를 멈춘 그는 건너편 개울가에 서 있는 옥녀가 하늘의 선녀임을 알고 운을 떼었다.

"천상의 옥녀가 제석천에 서니 물고기가 떼 지어 인사를 하네. 만약 옥황상제의 노여움이 없다면 그대와 함께 이 밤을 즐겁게 보내고 싶건만……."

그러자 옥녀 또한 화답했다. "인간세상이 어지럽다 하여 올까 말까 망설였으나 내 마음 앗아간 퉁소 소리의 임자를 어찌 만나지 않으리오."

이렇게 하여 이 둘은 하늘나라와 이 세상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밤을 지새웠다. 옥녀는 옥황상제와의 약속도 잊어버리고 선비와 함께 산막 안에서 살고 말았다. 이들은 매남바위를 거쳐 옥녀봉까지 놀러 다니곤 하였다.

어느 날 선비가 들일을 나간 사이 옥황상제가 딸을 기다리다 지쳐 세상을 내려다 보게 되었다. 어찌된 일인지 옥녀가 산막에서 고생을 하면서 살고 있지 않는가. 옥황상제는 옥녀에게 지체없이 하늘로 올라오라는 불호령을 내렸다. 누구의 엄명이라 거스르랴? 즉각 옥녀는 승천 옷으로 갈아 입고 하늘나라로 올라가고 말았다.

들일을 마치고 산막에 들어온 선비는 옥녀가 없어 깜짝 놀랐다. 몇 날 며칠을 두고 기다렸으나 끝내 옥녀의 소식을 알 길이 없었다. 기다리다 지친 선비는 이 세상을 하직하고 하늘나라로 가면 옥녀를 만날 수 있으리라 마음먹고 매남바위에 올라 하늘을 쳐다보며 옥녀를 몇 번 부르다 백 척이나 넘는 바위 아래로 몸을 던졌다.

이 사실을 모르는 옥녀는 선비에 대한 그리움을 억제하지 못해 옥황상제께 한 번만 더 인간세상으로 가겠다고 매달려 허락을 받았다.

인간이 사는 세상으로 다시 내려온 옥녀는 산막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하지만 선비가 안 보여 주변을 찾아보니 인근 매남바위 위에 짚신만 있고 시신은 찾을 수가 없었다.

옥녀는 선비의 혼과 살 것을 다짐하고 제석천 위 베틀바위 안에서 베를 짜면서 쓸쓸히 보냈다. 이후 선비는 학이 되어 매남바위에 둥지를 틀고 살았다. 어느 날 베틀바위 앞 계곡에서 먹이를 찾다 옥녀를 발견하곤 얼마나 좋았는지 너울너울 춤을 추었다.

선비학은 날이 새면 매남바위에서 베틀바위를 찾아 베를 짜는 옥녀 옆에서 마냥 즐겁게 놀다 저녁이면 둥지로 돌아가곤 했다.

옥황상제는 옥녀가 사는 것을 보고 너무나 애처로워 학이 된 선비를 다시 사람으로 환생시켜 옥녀와 함께 승천하라고 하였다.

옥녀는 매남바위로 단숨에 달려가 선비학을 타고 흰 구름이 아름답게 수놓은 산등선을 넘어 유유히 하늘나라로 올라갔다. 이후 옥녀와 선비는 행복하게 살았다고 전해온다.

*주영택, 『부산의 전설 보따리』, 가마골향토역사연구원, 2013, 47~49쪽.

[기장군 설화 12]

개좌고개의 의로운 누렁이

- 효자 주인 지켜준 견공의 살신성인

- 장소 : 부산시 기장군 철마면 연구리

예로부터 개는 주인에 대한 충성심과 의리가 강해 인간과 가장 친근한 동물로 알려져 있다.

개는 인간이 가축화한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으로, 전염병과 도깨비 잡귀를 물리치는 능력이 있어 사악한 것을 막는 역할뿐 아니라 집안에 좋은 일을 있게 하고 풍년과 다산 보신으로 약효도 좋다고 한다.

신작로가 뚫리기 전 개좌고개(犬座谷)는 기장군 철마에서 부산 금정구로 통하는 유일한 통행로였다. 이 개좌고개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연구리에 서홍인(徐弘仁)이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다.

7년간의 임진왜란이 끝나자 서홍인은 부산진성에 있는 입방군(入防軍)으로 복무하게 됐다. 노부모가 계신지라 입번(入番)을 마치면 집에 돌아와 노부모를 모셔야만 하는 딱한 처지였다. 서홍인은 날이 밝기 전에 노부모가 드실 조반을 챙겨 놓고 연구리에서 험한 개좌고개를 넘어 부산진성까지 가서 입번을 마치고 다시 밤늦게 집에 돌아오곤 했다. 매일 이렇게 60리가 넘는 험한 먼 길을 통근했다. 그러자니 오가는 산길 120리를 혼자 다니기가 외롭고 위험해 집에 기르던 개 한 마리를 길동무로 삼아 데리고 다녔다.

어느 해 이른 봄, 서홍인은 입번을 마치고 여느 때와 같이 개를 데리고 개좌고개까지 와서 잠깐 쉬었다. 밤길을 60리나 걸어왔고 봄철이라 노곤하여 깜박 잠이 들었다. 그 사이에 바위 너설에 걸어둔 횃불이 풀숲에 번져 불이 났다. 이를 본 개는 멍멍 짖으며 주인의 옷자락을 물고 끌어당겼으나 잠에 곯아떨어진 주인은 깨어나지 아니하였다.

그러자 충성스러운 개는 산 밑에 있는 계곡까지 급히 내려가 온몸에 물을 적셔 달려와서는 주인이 잠든 자리 주변을 뒹굴었다. 이렇게 마른 풀숲에 물을 적셔 주인의 주위에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여러 번 되풀이하였던 개는 지칠 대로 지쳐 더는 움직일 수가 없게 되었고 결국 불에 타 죽고 말았다.

한참 뒤 잠에서 깨어난 서홍인은 반이나 불에 그을려 죽어 있는 개를 보고 깜짝 놀랐다. 그는 개가 제 목숨을 바쳐 자신을 살려준 사실을 알게 됐다. 그는 그 자리에 개의 시체를 매장하고 통곡했다. 이 충성스러운 개의 희생을 마을 사람들이 전해 듣고 이 고개를 개가 생명을 보살펴 준 고개라 하여 개좌(한실·大谷)고개라고 불렀다고 한다.

‘기장현 읍지’의 효자 서홍인의 전기에 따르면 부산첨사는 서홍인의 효성을 가상히 여겨 그의 군역을 면제해 노부모를 부양하도록 특별히 은전을 베풀었다고 한다. 서홍인의 효행심과 누렁이의 이날 밤 일들이 기장현내로 소문이 퍼져 현감은 상부에 보고, 이 같은 전설적인 이야

기는 정려각(철마면 연구리 579)이 세워져 지금까지 전해져 오고 있다.

2003년 철마면문화유산보존위원회에서는 개좌고개의 누렁이 무덤자리에 둥근 석판을 만들어 '개좌산전설비'를 세웠다. 이 '전설비'는 차를 타고 지나가다 볼 수 있다.

*주영택, 『부산의 전설 보따리』, 가마골향토역사연구원, 2013, 50~52쪽.

[기장군 설화 13]

원앙대의 용녀와 미랑스님

- 너럭바위에 새겨진 용녀의 붉은 탯줄

- 장소 :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시랑리

송정에서 용궁사로 가는 도로를 따라가다 보면 용궁사 대웅전 남쪽 바위해안에 기암괴석으로 이뤄져 절정인 원앙대가 있다.

기장 현감으로 있던 권적이 이곳에 놀러와서 절경에 감탄한 후 자주 찾았다고 한다. 그는 원앙대의 북쪽의 미랑대(尾郞臺)로 불린다는 말을 듣고 이곳을 자신의 벼슬 이름 시랑을 붙여 시랑대(侍郞臺)라고도 명명했다.

옛날 어느 여름, 가뭄이 몹시 심해 공수마을 사람들이 미랑스님을 모셔와 바닷가 넓은 바위에서 기우제를 지냈다. 기우제를 지낸 뒤 스님은 저녁 한가한 때 시랑대 위에 앉아 달빛에 어린 바다 풍광을 완상하고 있었다. 같은 시각 시랑대 밑의 동굴을 통해 용궁의 용녀가 나와 역시 바다 달빛을 감상하다 그만 눈이 맞아 사랑을 맺게 되었다.

이후 용녀는 아기를 배었고, 용왕의 눈을 피해 원앙대에서 해산할 준비를 하였다. 배내옷을 만들어 상자 안에 넣어놓고 탯줄을 끊을 가위를 곁에 둔 채 진통으로 신음하면서 아무도 못 보게 하였다. 미랑스님은 용녀의 분부로 원앙대 병풍암 뒤에 숨어 용녀의 신음소리에 어쩔 줄을 몰랐다.

한편 동해 용왕은 용녀 공주가 인간과 불륜을 범해 원앙대에서 출산의 노고를 겪고 있다는 급한 전갈을 받았다. 진노한 용왕은 산더미 같은 노도를 일으켰다.

용녀는 막 순산하여 그 탯줄을 끊지도 못한 채 성난 파도에 휩싸이게 되었다. 이 처절한 광경을 하늘에서 보고 있던 옥황상제가 불쌍하게 여겨 재빨리 천마를 내려 보내 용녀를 하늘나라로 데리고 왔다. 거기서 용녀는 옥황상제의 배려로 천상의 옥녀가 되었다.

지금도 그 너럭바위에는 용녀의 탯줄이 붉은 줄로 길게 뚜렷이 박혀 남아 있고, 탯줄을 끊은 가위는 그대로 돌바닥에 새겨져 있다. 가마솥을 걸었던 바위도 둥글게 남아 있다. 배내옷을 넣어둔 상자의 자리에는 바위 위에 깊고 뚜렷이 그 자국이 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젊은 미랑스님이 용녀를 구출하려고 뛰어내렸던 곳에는 짚신자국이 깊게 남아 있다.

후세 사람들이 이 용녀를 위해 기우제를 지냈던 바위에 해룡단을 세웠다고 전해온다.

원앙대에는 또 다른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다. 옛날 젊은 장사가 원앙대 동굴에 살면서 잡은 고기가 모자라면 용굴에 들어가서 독룡이 잡아놓은 큰 고기를 빼앗아 먹었다.

어느 날 장사는 미역을 따고 있는 마을의 아름다운 처녀의 자태에 매혹돼 동굴로 납치한 후 용굴에서 훔쳐온 산호와 칠보를 선사하고 극진히 대접했다. 이후 처녀는 아기를 배어 출산하기에 이르렀다. 장사는 처녀 어머니를 모시러 마을로 내려갔다.

장사에게 복수할 기회만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던 독룡은 해산 후 탯줄도 끊기 전에 그 처녀와 갓 낳은 아기를 한입에 삼켜 버렸다.

장사와 처녀의 어머니와 왔을 땐 이미 늦어 처절한 핏자국만 남아 있었다. 분노한 장사는 용굴에 들어가 숨어있는 독룡을 잡아 죽였지만, 장사 또한 큰 상처를 입고 죽었다.

원앙대에는 당시 바다 밑에 잠겨버린 동굴이 그대로 있고, 이 동굴의 길이는 무려 10리(약 4km)가 된다고 한다. 지금도 원앙대의 동굴에 파도가 치면 애절한 용녀와 처녀의 울음소리가 들려온다고 한다.

*주영택, 『부산의 전설 보따리』, 가마골향토역사연구원, 2013, 65~67쪽.

[기장군 설화 14]

일광산의 쌍바위

- 슬픈 바위가 돼서야 사랑 이룬 수돌이 총각

- 장소 :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만화리

옛날 기장 땅 만화리 두화마을에 가난한 집의 유복자로 태어나 홀어미를 모시고 사는 수돌이라는 총각이 있었다. 그는 사또집의 노복(奴僕)이었고, 사또에게는 무남독녀인 아리따운 딸 영실이가 있었다.

수돌이는 영실을 짝사랑했고, 영실은 보름 뒤면 시집을 가게 되었다. 수돌이는 타는 가슴을 짓누르며 기장의 주산인 일광산(315m)에 올라 산신령께 빌었다. "산신령님, 영험하신 산신령님! 미천한 이놈의 몸 바쳐 비옵니다. 아씨가 시집가기 전 하루만이라도 같이 있게 해 주옵소서. 애당초 어울릴 사람이 못 되는 줄 잘 알고 있지만 막상 아씨를 다시는 못 볼 것을 생각하니 저의 온몸에 피가 마르는 듯하옵니다. 산신령님! 저의 평생소원을 풀어주시면 죽어도 여한이 없겠습니다. 굽어 살펴주옵소서."

한 나절을 이렇게 정성스럽게 기도하자 갑자기 하늘에서 우레 같은 소리가 들리더니 산신령이 나타났다. 산신령은 "너의 정성이 하도 지극하기에 사또의 딸과 만날 수 있는 비방을 일러주겠다. 너는 지금 당장 마을 뒷산의 저 높은 산꼭대기로 올라가 벼랑에 핀 이상한 꽃 한 송이를

꺾어 방 안에 꽂아두고 사흘 낮 사흘 밤 동안 경을 외라. 주의할 점은 그 기간 동안 누구와 만나지도 말고 어떤 말을 주고받아서는 안 된다. 만약 이 말을 어기면 너는 결코 살아남지를 못하리라. 알겠는가? 명심하거라."고 말한 후 일순간 사라졌다.

수돌이는 '영실 아씨를 만날 수만 있다면 산신령님의 지시를 반드시 이행하리라'고 마음먹고 그날부터 골방에서 경을 외었다. 마지막 날 저녁, 동료 노복이 찾아와 "사또가 너를 불러오라 하니 냉큼 일어나 가자."고 하니 어쩔 수 없이 사또 앞에 무릎을 꿇었다. 별안간 사또가 "이놈 네 죄를 네가 알렸다."라고 호통을 치는 바람에 수돌이는 엉겁결에 "네"하고 입을 열었다.

그 순간 변괴가 일어났다. 한바탕 회오리바람이 일어나더니 수돌이는 회오리바람에 휘감겨 하늘 높이 둥실둥실 떠올라 갔다. 뿐만 아니라 안채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던 아씨도 수돌이처럼 바람에 휩싸여 어디론가 날아가 버렸다.

수돌이는 그제야 자기 잘못을 깨닫고 "아씨, 영실 아씨!"라고 불러 보았지만 입 밖으로 말이 나오지 않았다. 순간 천둥이 치고 번개가 번쩍이며 심한 비바람이 몰아치다 새벽녘에 비바람이 몰아치다 새벽녘에 비바람이 멎고 하늘이 맑아졌다. 두 남녀는 마주 보는 산꼭대기 위에 선 채 다리부터 돌로 변해 결국 선돌이 되었다. 이후 수돌바위는 눈물을 줄줄 흘리며 언제나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수년 뒤 새로 부임한 사또가 이 슬픈 사연을 듣고 두 바위에 각각 제사를 지냈다. 제사가 끝나자 수돌바위는 눈물을 그치고 뒤로 넘어지더니 산꼭대기에서 산 밑까지 데굴데굴 굴러와, 다시 영실바위 방향으로 올라가다 마침내 그 옆에 서는 것이 아닌가.

두 바위는 마치 다정한 연인처럼 나란히 서 있는 모습 같기도 하고 애타게 기다리던 임을 만나 그 품 안에 안겨 이제는 다시 떨어지지 않기로 작정한 듯한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바위를 두 사람의 이름 끝자를 따 '돌실바위'라 불렀다. 후세 사람들은 그저 '쌍바위(일광산 7 부능선)'라 부르고 있다.

지금도 일광산 아래 사람들은 짝이 없어 외로운 처녀 총각이 '돌실바위'에 와서 짝을 구해 달라고 빌면 사흘 후에는 반드시 짝을 구하게 된다고 믿고 있다.

*주영택, 『부산의 전설 보따리』, 가마골향토역사연구원, 2013, 76~78쪽.

[기장군 설화 15]

암행어사 이도재와 어사암

- 관아 가혹행위 시달린 백성 구한 어사

- 장소 :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죽성리

기장군 기장읍 죽성리 두호마을의 북쪽에는 학처럼 생긴 큰 바위가, 남쪽에는 매처럼 생긴

큰 바위가, 죽성천 해변에는 용머리처럼 생긴 큰 바위산이 있어, 마을 사람들은 이들을 각각 학바위(황학대·黃鶴臺), 매바위(어사암), 용머리(용두대·龍頭臺)라고 불렀다.

어느 날 시주를 다니는 스님은 사방을 살펴보고 이렇게 말하고는 일순간 사라져 버렸다. "용머리는 매를 노리고, 매는 학을 노리는 형국이니 학이 꼼짝 못하고 기가 죽어 있다. 이 때문에 학바위가 누렇게 터실거리고 미역이 잘 붙지 않게 되었으니 매바위의 매 두 눈을 찍어 부숴버리면 학바위에도 미역이 많이 붙게 될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단숨에 매바위의 매 두 눈을 호미로 찍어 없애 버리자 학바위에도 미역이 많이 붙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다.

매바위에 관한 전설이 또 있다. 조선 고종 20년인 1883년 기장현 독이방(禿伊坊·지금의 문동리)에 있는 조창에서 양곡을 가득 실은 조운선이 부산포로 가다가 이곳 앞바다에서 풍랑을 만나 매바위에 부딪쳐 바위 위에 반쯤 얹혀 있었다.

조운선의 곡식을 본 어민들은 굶주림에 지친 나머지 관아에 신고도 하지 않고 저마다 곡식을 훔쳐 집집마다 숨겼다. 이 일이 화근이 돼 어민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기장 관아에 끌려가 구금됐고 훔친 곡식은 모두 압수됐다.

뇌옥에 갇힌 어민들은 형틀에 매달려 매질을 당하고, 피가 튀고 살이 떨어져 그 자리에서 죽은 사람도 생겨났다. 다리가 부러진 자도 있었고, 장형을 심하게 당해 장독에 고통을 받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

조정에서는 이 도난과 가혹한 고문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1883년 이도재(李道宰·1848~1909)를 암행어사로 기장현에 파견했다.

어사가 진상조사에 착수하자 어촌 주민들은 기장 관기로 있는 월매를 시켜 어민들의 어려운 사정을 얘기하고 관아의 가혹행위가 심했고, 도난량도 보고된 것처럼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사실을 진정하게 하였다. 월매는 어민편을 들어 애교로써 어사 이도재가 어민 편을 들도록 간청했다.

현장조사를 하러 이곳 매바위에 온 어사에게 월매는 미색으로 온갖 아양을 부리면서 춤과 노래로 어사를 즐겁게 하였다.

이곳 매바위의 절경과 월매의 아양에 흥겨워진 어사는 그 자리에서 "하늘이 텅 비었으니 보이는 것이 없고, 사나운 바다는 시객을 위해 춤을 추는데, 저 멀리 돛단배는 언제 무사히 돌아오려나."라는 오언절구시를 짓고 '어사암'(御史岩)이라는 글자를 매바위에 새겼다. 이로 인해 매바위는 '어사암'이라 불리게 되었으며, 그 덕택으로 어민들은 관아로부터 형벌과 조사를 면하게 되었다.

두호마을 어민들은 어사 이도재의 후덕한 인품과 공덕을 잊지 못해 1883년 '수사이공도재생사단'(繡史李公道宰生祀壇) 비석과 사당을 지어 그의 생일 때마다 제사를 지냈다.

지금 선정의 상징인 생사단비는 동부리 기장초등학교 앞 비석군에 이전됐다. 이 비석은 36기의 비석 중 세 번째 열 왼쪽에서 네 번째에 자리 잡고 있다.

세월이 흘러 '어사암'이라 새겨진 글자가 마모되자 이곳 어민들은 어사 이도재의 은공과 월

매의 공로를 못 잊어 매바위의 '이도재'와 '기월매'라는 글자를 새겼다. 그 글자는 매바위에 지금도 남아 있다.

*주영택, 『부산의 전설 보따리』, 가마골향토역사연구원, 2013, 86~89쪽.

[기장군 설화 16]

용천산과 사기점골

- 왜군 노략질 막으려고 솟아난 용천산

- 장소 : 부산시 기장군 정관면 두명리

옛날 지금의 정관면 백운산(白雲山·520m) 기슭에 아월이라는 효성이 지극한 처녀가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었다. 아버지는 그릇을 만드는 도공으로 몇 사람의 인부를 거느렸고, 딸은 집안일을 도왔다.

그런데 수년 전부터 도공의 집에는 인부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감쪽같이 실종되는가 하면 만들어 둔 사기그릇이 자꾸 줄어드는 해괴망측한 일이 일어났다. 인부를 구해 놓으면 밤중에 없어지고, 사기그릇도 없어지는 일이 한동안 계속되자 아월이는 산신령님께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매일같이 뒷산에 올라가 빌었다.

산신령께 기도를 드린 지 백일째 되던 날 밤, 꿈에 흰 도복을 입은 백발노인이 나타났다. 노인은 "너희 집에 있는 인부는 밤중에 화장실에 갔다 올 때면 왜적들이 숨어 있다가 납치해가며, 많은 그릇이 없어지는 것 또한 그들의 소행이다"고 일러주었다.

아월이는 이에 대해 예방책을 물었다. 산신령은 "너의 집에서 일할 때 나오는 연기를 멀리서 보이지 않게끔 동쪽에 산을 하나 만들고, 또 어떤 소리도 멀리서 들리지 않게끔 해주겠노라"고 했다. 그러면서 뒷날 대(大)씨란 총각이 일하려고 찾아오거든 서슴지 말고 신랑으로 맞이하라고 덧붙였다. 잠에서 깨어난 아월이는 이상한 꿈도 있구나 하면서 집안일에 더욱 힘을 쏟았다.

아월이는 꿈을 꾼 뒤 한두 달이 가는 동안 이상한 일이 또 생겨났다. 새벽이면 어김없이 일어나던 자신과 도공들이 자꾸만 늦잠 아닌 늦잠을 자는 바람에 작업시간에도 지장이 있는가 하면 노(爐)에 이상이 생겨 그릇을 못 쓰게 되는 일이 허다해 졌기 때문이다. 왜 새벽이 늦게 올까. 그 이유를 알아본 결과 놀라운 일이 발생하고 있었다. 어찌 된 일인지 집 동쪽에 커다란 산이 생긴 것을 그때야 뒤늦게 발견하게 되었다. 문제는 이 산이 날이 갈수록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이었다. 아월 처녀는 산을 찾아 다시 기도를 올렸다. 그러면서 부지깽이로 산을 두드렸다 '그만 솟아올라라. 그만하면 됐다' 하면서 애원했다.

기도발이 먹혀 그날 이후 산은 더는 높아지지 않았으며, 사람들은 그 산을 용천산(湧天山·솟음산)이라 불렀다.

아월의 집에 얼마 후 산신령의 계시대로 대씨 성을 가진 건장한 총각이 일하러 찾아왔다. 그의 성실한 품행을 칭찬하던 아월의 아버지는 이내 그를 사위로 삼았다. 하지만 사위는 흙일 하는 것보다 쇠를 만지기를 좋아했다. 장인은 그래서 사위에게 칼과 창, 호미, 괭이 등 무기류와 농기구 만드는 일을 시켰다. 대 서방이 만드는 무기류 가운데 방패는 천하일품이었다.

어느 해 가을 이웃 서창 농촌에서 벼를 훔쳐가던 왜적이 달아나다 길을 잃어 도공의 집 앞에 머물게 되었다.

왜적 일단 10여 명은 도공의 집에 침입, 눈이 부시게 만들어져 있는 그릇들을 보고 그만 탄복해 말에 싣기 시작했다.

마침 창을 다듬고 있던 대 서방이 이를 보고 방패와 창을 들고 왜적과 싸워 순식간에 그들을 물리쳤다.

이후부터 쇠를 달구고 두드려 농기구를 만드는 곳을 대장간이라 부르게 되었고, 도자기를 만들었던 그곳을 현지 주민들은 사기점골(沙器店谷, 용천산 서쪽 기슭, 도자기를 굽던 골짜기로 지금의 용주암 일대)이라 불렀다. 사기점골(옹기골)이라 불리는 이곳에서 밭을 파다 보면 지금도 깨진 사기그릇이 군데군데 나온다고 전해온다.

*주영택, 『부산의 전설 보따리』, 가마골향토역사연구원, 2013, 93~96쪽.

[기장군 설화 17]

호랑이의 보은과 최개동 장군

- 호랑이가 지킨 아기, 커서 왜병 무찌른 장수

- 장소 :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내리

옛날 기장군 앵림산(안적사 뒷산) 아홉골 하류 내리 입구 오신마을에 젊은 최씨 부부가 홀아비를 지극 정성을 다해 모시고 살았다. 남편은 땅을 개간해 농사를 짓고, 부인은 집안일을 하며 틈틈이 산에 가서 나물을 뜯어 장에 팔아 생계를 도왔다.

어느 해 봄날 큰비가 내리는데 산골짜기에서 호랑이의 슬픈 울음소리가 간간이 들려왔다. 큰비 다음 날 부인이 봄나물을 뜯으러 개울을 건너려고 하는데 새끼호랑이가 물에 흠뻑 젖어 징검다리에 걸려 떨고 있었다.

부인은 새끼호랑이를 불쌍히 여겨 치마폭에 싸서 물을 닦아내고 간밤에 호랑이의 울음소리를 들었는지라 범굴을 찾아 새끼를 두고 나오니 멀리서 어미 호랑이가 보고 있었다.

부인은 혹 자신을 해치지 않을까 두려워 서둘러 산을 내려왔다. 이후 나물을 뜯으러 산에 올라 몇 차례 어미호랑이와 새끼호랑이를 마주쳤으나 화를 입지 않았다.

이듬해 여름 초저녁 시아버지가 저녁을 먹고 갑자기 복통을 일으켰다. 남편이 귀가하지 않

아 만삭인 부인이 십리나 떨어진 기장읍내의 약방에 복통약을 지으러 갔다. 약을 짓고 집으로 돌아오는 중 소나기가 내리면서 몸에 출산기가 있어 인근 범부골의 범굴에 가서 사내아기를 해산했다.

한편 남편은 농사일을 마치고 집에 오니 아버지가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남편은 만삭인 부인을 찾고자 산길을 나섰다가 큰 호랑이를 만났다. 하지만 호랑이는 덤벼들지 않고 자기를 따라오라는 시늉을 하는 것이 아닌가. 남편이 호랑이의 뒤를 따라 범굴에 도착하자 순간 호랑이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출산한 부인과 갓난아이가 있었다.

그 갓난아이가 커서 임란창의공신(壬亂倡義功臣)이 된 최개동(崔介同)장군이다.

최개동은 체구가 크고 용맹스러워 아무도 당할 자가 없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 왜적들이 근처 마을을 급습, 노략질을 하고 겁탈을 서슴지 않자 그는 격분해 닥치는 대로 왜적들을 때려죽였다. 이후 그는 기장읍 내리마을 뒤 앵림산에 들어가서 토막집을 짓고 살았다. 이 지역 주민들도 왜적을 피해 이 산속에 숨어 살았다. 이후 왜적들은 이 깊은 산속까지 쳐들어와 주민들을 닥치는 대로 죽이고 유린하며 만행을 부렸다.

이 처참한 광경을 본 최개동은 왜적들을 활로 쏴 수십 명을 죽였다. 이후 왜적들은 이 무서운 장사에게 지레 겁을 먹고 그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았다.

기회를 노리던 왜적들은 어느 날 수많은 동료를 앗아간 분풀이를 하려고 수십 명이 떼를 지어 최개동 장군이 살고 있는 토막집을 급습했다. 자다가 기습을 당한 최개동은 미처 활과 칼을 찾을 겨를을 놓치자 집 안에 있는 몽둥이를 들고 나와 우레 같은 고함을 치면서 닥치는 대로 왜적들을 죽였다. 내리마을의 많은 피란민들은 최개동 장군에게 의지해 임진왜란이 끝날 때까지 안전하게 살았다고 한다.

이 소문이 조정에까지 퍼지자 왕은 그의 창의(倡義)의 공로를 높이 사 공신록에 등재했다. 정무공최개동장군묘는 오신마을 뒷산 돌사곡(돌을 쌓아 골짜기·기장읍 내리 산 27의 9)에 있으며, 부산 주례동의 최씨 문중에서 매년 10월에 묘사를 올리고 있다.

*주영택, 『부산의 전설 보따리』, 가마골향토역사연구원, 2013, 100~102쪽.

[기장군 설화 18]

백석사와 선바위 그리고 거북바위의 인연

- 임란때 의병 지켜준 바위와 쌀 쏟아지는 절

- 장소 : 부산시 기장군 철마면 임기리

기장군 철마면 임기마을에서 임기천을 따라 상곡마을로 향하다 보면 지장암 남쪽 산기슭 선바위골에 선바위가 있다.

임기천 돌매암골에서 150m 절벽 위에 마치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놓은 비석처럼 생긴 이 거대한 바위(높이 4m, 폭 1.5m)는 사람이 서 있는 모습을 닮아 선바위(立岩)라 불렀다.

이처럼 절벽 위에 우뚝 솟아 서 있는 바위 앞에 사람들은 저절로 두 손 모아 절을 한다. 이 선바위는 경건한 마음을 갖게 하는 신비한 영혼이 감돌고 있다. 사람들은 이 선바위를 절을 하게 하는 돌이라 해서 배석(拜石)이라 부르기도 했다.

예부터 이 지방의 지세가 배(船)의 형국인데 이를 지관들은 배설(船穴)이라 하였다. 그 배설의 중심지가 되는 곳에 배의 돛대가 되도록 선바위를 돛대처럼 높게 세웠다. 마을 사람들은 선바위가 의연하게 우뚝 솟아있는 한 이 마을은 순풍에 돛단 듯이 순조로워질 것이라 굳게 믿었다.

선바위골 아래 돌매암골(돌바위가 많은 골짜기)의 하천 한가운데에는 거북바위가 있다. 거북처럼 생긴 이 큰 바위는 예부터 선바위의 신령을 지켜주는 거북이라는 것이다.

선바위에서 임기천을 따라 상류로 거슬러 가면 상곡마을을 만난다. 상곡마을은 백운산 줄기가 뻗어내린 산기슭에 터를 잡고 있고, 그 앞은 철마산의 거봉이 앞을 막고 있다.

상곡마을 앞 철마산 기슭에는 배석사(拜石寺)라는 큰 절이 있었다. 임진왜란 당시 배석사에는 선여(仙如)라는 여승이 주지를 하고 있었다.

황산도 소산전투(김정서 의병장이 소산고개에서 유격전술로 전공을 세운 전투)에서 부상병들이 왜적의 추격을 피해 깊은 계곡인 임기천 상류 쪽에 위치한 배석사에 모였다.

부상병을 추격하던 왜병들은 돌매암골 선바위 앞까지 와서는 그 거대한 바위에 머리를 숙이고 이곳이 임기천 계곡의 끝인 줄 알고 되돌아갔다. 선바위에서 얼핏 보면 지금의 지장암이 있는 곳에서 철마산의 실개천이 끝난 것처럼 보여 상곡마을 쪽 계곡은 산에 감추어져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부상병들은 선바위의 위력 때문에 모두 무사히 배석사로 피신할 수 있었던 것이다.

배석사의 주지 선여 스님은 그 많은 부상병들에게 식량을 제공하기가 어려웠다. 하지만 밀교(密敎, 스승과 제자 사이에만 비밀스런 가르침) 스님이었던지라 비밀진언을 염송해 절에 있는 샘물에서 필요한 만큼의 쌀이 흘러나오게 하였다.

배석사는 백운산 산정 바로 옆에 있었던 선여사(船餘寺)의 말사였다.

임진왜란이 끝나자 배석사에 어느 탐욕 많은 한 스님이 주석했다. 하지만 본사인 통도사와 선여사에서 간섭이 많고 객승이 많이 찾아와 괴롭히는 것이 싫었다.

해서, 못된 술객(術客)의 말을 듣고 통도사의 세력을 억제하기 위해 돌매암골의 거북바위를 통도사로 향하게 돌려놓고, 객승들이 잠을 못 자도록 요사채에 빈대를 많이 넣어두었다. 쌀이 흘러나오는 샘물구멍은 넓게 하여 쌀이 많이 흘러나오도록 욕심을 부렸다.

이런 일이 있은 후 샘물에서는 쌀이 흘러나오지 않게 되고 빈대를 들끓어 객승들이 머물지 못하게 되자 통도사와 선여사는 배석사를 돌보지 않게 돼 배석사는 빈대만 득실거리게 돼 폐사되었다고 한다.

*주영택, 『부산의 전설 보따리』, 가마골향토역사연구원, 2013, 110~112쪽.

[기장군 설화 19]

철마산의 쇠말

- 백성 구한 용마장군 '쇠말'로 굳어버려

- 장소 : 부산시 기장군 철마면 임기리

기장군 철마산(鐵馬山·604m)의 쇠말(鐵馬)은 철마면의 상징으로 철마산에서 유래됐다. 그 사연은 이렇다.

옛날 큰 홍수로 산사태가 생겨 철마면의 장전천(長田川) 하류가 막혀 인근 웅천마을에서 철마산 정상까지 물바다가 됐다. 장전천은 선동천(仙洞川)으로 흐르는, 지금의 수영강의 상류이다. 이로 인해 철마산 정상은 소머리만큼 물 위에 보였으며, 인근 거문산(543m) 정상은 겨우 곰의 짧은 꼬리만큼 물 위에 솟아 있었다.

이를 본 옥황상제는 어진 사람들이 일시에 집과 논밭을 잃고 방황하는 딱한 실정을 보고 불쌍히 여겨 동해 용왕에게 구출해 주라고 부탁을 했다.

용왕은 용마장군에게 거북부대를 이끌고 출동하라고 명령했다. 용마장군은 거북부대를 이끌고 용궁에서 미역덤 아래 용굴을 통해 산사태 현장에 도달했다. 거북부대는 즉시 장전천 하류를 막아 버린 산사태를 깨끗이 치우고 막혔던 물을 빠지게 하였다. 이후 미역바위(藿岩) 아래 용굴로 철수하려는데 물이 너무 빨리 빠져버려 용굴에 물이 없어 용궁과 통할 수가 없게 돼 버렸다.

거북부대는 어쩔 수 없이 그대로 굳어 바위가 돼 버렸다. 구림마을 사람들은 그 거북이가 굳었지만 살아있었다 하여 생거북바위라 불렀다. 이 중 대장 거북은 철마산을 넘어 임기천(林基川) 선바위 아래에서 큰 거북바위로 굳어 버렸고 용마장군은 철마산 정상까지 올라갔으나 물이 없어 몸이 점차 굳어져 쇠말처럼 변해 그곳에 남게 되었다. 쇠말은 철마산 정상 서쪽 동굴 밑 파인 큰 바위 위에 자리잡고 있었다. 후세 사람들은 이를 기리기 위하여 철마가 있는 곳에서 사당을 세우고 쇠신당(鐵神堂)이라 하였다.

쇠말은 높이가 1자, 길이는 1자 2치 정도로, 왼쪽 앞발을 치켜들고 꼬리를 뻗어 마치 하늘을 향해 나는 모습이었다. 철마는 검은 흑갈색의 청동이고 15cm 높이의 청동좌대에 고정돼 있었다.

쇠말을 참배하는 사람들은 공양미나 엽전을 놓고 그렇지 못하면 세 가지 종류의 풀을 놓고 기도를 올렸다. 이 진귀한 쇠말은 1930년까지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그 쇠말을 본 일본인들은 모두 경탄하고 탐을 냈다.

임기 마을의 한 일꾼이 이를 훔쳐 일본인에게 넘겨주고 거액을 받았다. 그는 그 돈으로 논밭을 사 일백석 부자가 되었지만 이상하게도 장성한 네 아들이 잇따라 급사를 하자 쇠말을 훔친 벌을 받았다고 뉘우치게 되었다. 해서, 그는 새로 주철로 망아지만한 조잡한 쇠말을 만들어 쇠

신당에 안치했지만 인근 주민들은 가짜 쇠말을 애써 외면했다.

1940년 태평양전쟁 때 주철이 귀하게 되자 한 엿장수가 가짜 쇠말을 훔쳐갔다. 쇠말이 없어진 것을 안타깝게 여긴 어느 주민이 다시 쇠말을 만들어 세웠으나 지금은 없어졌다.

철마산 기슭의 지장암에는 사라진 쇠말을 불교의 신앙적 세존관의 보살정신을 기리기 위해 2006년 자연석 좌대(가로 1m 50cm, 세로 2m) 위에 쇠말(키 30cm, 길이 40cm, 몸통 둘레 38cm)상을 흑갈색 청동으로 조성해 제막식을 가졌다. 쇠말은 머리를 들어 철마산을 보고 양다리를 들고 꼬리를 내려 하늘로 비상하는 모습이다. 지장암은 앞으로 철마산 쇠말 기원제(산신제)를 열 계획이다.

*주영택, 『부산의 전설 보따리』, 가마골향토역사연구원, 2013, 116~118쪽.

[기장군 설화 20]

달음산의 산삼

- 아들의 욕심에 산삼은 온데간데 없어져

- 장소 : 부산시 기장군 정관면 좌천리

달음산(達陰山·587.5m)은 정관면의 동쪽에서 동해를 굽어보고 새벽의 첫 줄기 햇살을 맨 먼저 온몸으로 받는 산세가 아름다운 명당지의 명산이다. 해서, 왜놈들이 이 산 아래 굴을 뚫고 길을 내자 달음산 정기가 떠나버렸다고 한다.

달음산에 인공의 손길이 뻗치지 않았을 옛날 이 산에는 큰 산삼이 있었다고 전해온다. 평소 '우'하는 소리가 자주 들리던 달음산에는 팔월과 섣달 대목 장날마다 꼭 일 년에 두 번 장날이 되면 산삼이 백발 노인으로 변해 장으로 내려와 요기를 하고 달음산으로 돌아간다는 소문이 전해져 내려왔다.

산 아랫마을 정관이라 불리는 노인은 이처럼 기이한 소문을 확인하기 위해 섣달 그믐 장날 이른 새벽 장에 와서 파할 때까지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녔다. 해 질 무렵 정관 노인 쪽으로 한 백발의 노인이 걸어오고 있었다. 마침 행선지가 달음산 방향이어서 두 노인은 길동무가 되었다.

정관 노인은 집 근처에 와서 "저기가 우리 집."이라고 하자 백발노인은 "낮에 시장에서 요기를 했는데 지금 배가 고프다."고 말했다.

정관 노인은 "오늘 동행한 것도 인연인데 우리 집에 가서 식사를 하고 가시지요."라고 하니 백발노인이 "고맙다."며 정관 노인을 따라갔다.

마침 그날은 섣달그믐의 추운 겨울이라 정관 노인의 집에서는 팥죽을 쑤어 놓았다. 정관 노인의 며느리는 시아버지가 모셔온 백발노인께 정중히 인사하고 팥죽 한 상을 극진히 대접했다.

백발노인은 "잘 먹고 간다."고 하직 인사를 하니, 정관 노인이 따라 나와 "살펴 가십시오."라

고 인사를 했다. 백발노인이 두 자쯤 가다 돌아서며 "살림살이도 넉넉지 못해 생계가 딱한 모양."이라 말한 후 달음산을 가리키면서 "내일 저 산 뒤 평지로 가면 너른 잔디밭에 무밭이 있다. 거기서 제일 한복판의 큰 무를 뽑지 말고 그 주위에 난 무를 뽑아다 장에 파시오. 그래 가면 알 거다."고 돌아서니 온 데 간 데 없이 사라져 버렸다.

정관 노인은 '산삼의 위치를 알려준 것일 게다'라고 생각한 후 아들에게 자세한 내용을 설명했다.

"달음산 뒤 너른 잔디밭이 있느냐"는 아버지의 물음에 아들은 "나무하러 다니다가 보니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답했다.

아버지는 "그곳에 가면 무밭이 있는데 한복판에 있는 제일 큰 것은 뽑지 말고 반드시 주변의 것을 뽑아 장에 나가서 팔거라."고 단단히 일렀다.

다음 날 아침, 아들은 달음산을 향해 한참을 우회해 올라가니 아버지의 말씀대로 무밭이 있었다. 어림잡아도 몇 천 평은 돼 보였다.

자세히 보니 주변에는 무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었는데, 한복판에 있는 것은 우뚝하게 서 있는 완전하게 자란 큰 무였다. 처음에는 아버지의 지시대로 작은 것을 뽑다가 차츰 욕심이 생겨 한복판에 있는 굵은 무를 뽑고 싶은 충동이 생겼다,

'뽑자' '뽑으면 안 된다'라는 내적 갈등을 겪던 아들은 결국 큰 무를 뽑기로 하고 당겼다. 하지만 워낙 크다 보니 안 뽑혔다. 이후 억지로 당기니 부러지며 거기서 팥죽이 나오며 동시에 산삼은 온 데 간 데 없어졌다.

아들은 한참 동안 혼자 잔디밭에 멍하니 서 있다가 귀가해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아버지인 정관 노인은 "왜 지시한 대로 안 했느냐. 때를 놓쳤구나!" 하고 한탄을 하였다.

정관 노인이 그만큼 정성을 기울여 산삼을 찾으러 다니다 백발노인을 만나 산삼을 구하는가 했지만 결국 아들의 욕심 때문에 기회를 놓쳤다는 안타까운 이야기가 달음산에 여태까지 전해오고 있다.

*주영택, 『부산의 전설 보따리』, 가마골향토역사연구원, 2013, 141~143쪽.

[기장군 설화 21]

척판암에서 던진 판자

- 신통력으로 중국 운제사 승려 1000명 구한 원효대사

- 장소 :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장안리

불광산 토굴에서 가부좌를 튼 채 좌선에 들었던 원효 대사(617~686)는 갑자기 혀를 차며 걱정스러운 음성으로 "이것 참 큰일 났는 걸, 어서 서둘러야지. 그렇지 않으면 많은 사람이 다치

겠구나.”라고 혼잣말로 되뇌었다. 원효는 고개를 들어 천안통(天眼通·중생의 생사고락과 세간 일체의 일을 자유자재로 뚫어볼 수 있는 신통력)으로 북녘 하늘을 보니 중국 종남산 운제사(雲際寺)에서 승려 1000명이 예불을 드리고 있는 대웅전의 대들보가 썩어 무너지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절체절명의 사태를 빨리 알리기 위해 원효는 옆에 놓여 있던 판자에다 ‘해동원효척반구중(海東元曉擲盤救衆)’이라는 여덟 글자를 적어 북녘 하늘로 힘껏 내던졌다. 판자는 곧장 종남산 운제사로 날아가 대웅전 앞뜰 위에서 윙윙거리며 공중에 맴돌았다.

막 예불을 마친 승려들은 신기한 이 광경을 구경하려고 모두가 재빨리 대웅전 앞뜰로 나왔다. 그 순간 ‘우르릉 쾅’하는 큰 소리와 함께 대웅전이 폭삭 무너지고 공중을 윙윙거리며 맴돌던 판자도 땅에 떨어졌다.

‘해동에 있는 원효가 판자를 던져서 대중을 구하노라’라고 씌어진 여덟 글자를 읽은 운제사 승려들은 자신들의 생명을 구해준 은인이 부처님같이 대단하신 성인인 신라의 원효 대사임을 알게 되었다.

장안성 내 있던 1000명의 승려들은 회의 끝에 신라의 원효 대사를 찾아뵙기로 했다. 그들은 육로와 해로를 거쳐 천신만고 끝에 신라에 도착해 작은 토굴에서 원효 대사를 만나뵙게 되었다.

1000명의 스님들은 이곳에서 원효 대사의 오묘한 법문과 가르침을 받고서 모두 성인(聖人)이 되었으며, 이들은 고국으로 끝내 돌아가지 않고 이곳에서 열반(涅槃)했다. 열반에 이른 스님의 육신들은 저절로 바위가 되었다고 전해온다.

이후 사람들은 이 산을 1000명의 성인들이 나왔다는 의미에서 천성산(千聖山)이라고 불렀으며, 천성산의 바위들은 모두가 그 성인들의 변신이라고 믿게 됐다.

원효 대사가 판자를 던져서 중국 종남산 운제사의 1000명의 승려들을 구한 장소는 ‘던질 척(擲)’ 자, ‘널빤지 판(板)’ 자를 써 암자 이름을 척판암(擲板菴, 기장군 장안읍 장안리 587)이라 하였다.

척판암은 지극한 원력으로 기도를 드리면 불보살(부처와 보살)과 원효대사의 가피력(加被力)을 입고 소원 성취가 이뤄진다고 널리 알려져 전국에서 적지 않은 신도들이 찾고 있다.

이 전설은 원효 대사의 화쟁사상이 중국이나 일본의 불교계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원효 화쟁사상의 총서 격인 ‘십문화쟁론’(十門和諍論)이 인도로 전해져 진나계에 의해 범어로 번역되기도 한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여 당나라 수도 장안에서 1000명의 승려들이 원효 대사의 가르침을 받고자 찾아왔다는 이야기가 첨가되면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었다.

천성산과 원효의 전설이 또 하나 전해온다. 어느 날 제자들이 밤길을 걷다가 칡넝쿨에 걸려 넘어져 발목을 삐고 무릎을 다쳤다. 원효 대사는 이 산의 신령께 부탁을 했다. “산신령님, 제자들이 산길을 걷다 칡넝쿨에 걸려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선처를 바랍니다.” 그 뒤부터 천성산의 칡넝쿨은 옆으로 뻗지 않고 위로만 꼿꼿하게 자란다고 전해온다.

*주영택, 『부산의 전설 보따리』, 가마골향토역사연구원, 2013, 198~200쪽.

[기장군 설화 22]

장안사와 청룡등의 독룡

- 혜통국사 독룡 퇴치 위해 산기슭 헐어

- 장소 :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장안리

신라시대 효소왕(재위 : 692~702) 때 불광산에 숨어 있던 독룡이 곰으로 변해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 있었다. 당시 혜통국사(惠通國師)는 친히 독룡을 퇴치하기 위해 불광산 장안사(長安寺·기장군 장안읍 장안로 482)에 왔다.

혜통 국사는 독룡이 청룡등(靑龍嶝)에 숨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주밀법(呪密法)을 사용해 독룡을 말로 타일렀다. 그러면서 독룡이 다치지 않고 도망갈 수 있도록 청룡등의 기슭을 헐어 주었다. 하지만 독룡은 또 다시 불광산의 한 바위굴에 곰으로 변해 숨었다. 이에 혜통 국사는 곰에게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불살생계(不殺生戒)를 받게 하여 웅신(熊神)의 해독을 끊었다고 한다.

혜통 국사가 청룡등의 기슭을 헐어버리자 기존의 두 갈래 계곡이 하나의 계곡으로 변했다. 신라 문무왕 13년인 673년 원효 대사에 의해 창건된 쌍계사는 이로 인해 장안사로 이름이 바뀌게 되고, 여기에 독룡의 피해까지 벗어나게 되자 동해 용왕의 가호를 받아 번성의 일로에 들어섰다.

이후 신라 애장왕(재위 : 800~809)이 신하들과 다녀간 이후 장안사는 사세(寺勢)가 흥기하여 전국에서 일 년 내내 많은 보살들이 밀려들었다. 이에 주지는 절을 찾는 손님들의 접대에 말할 수 없는 고초를 겪던 나머지 보살들이 적게 찾아오게 하는 방도는 없을까 고심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 했던가. 어느 날 늙은 과객이 장안사를 찾았다. 외상은 비루했지만 눈빛이 비범해보여 주지는 노과객에게 현재 처한 장안사의 처지를 설명하고 방도를 물었다. 노과객은 주지에게 소원이라면 일러주겠으나 후회하지 않기로 다짐을 받은 뒤 "절 앞을 감돌아 흐르는 냇물을 똑바로 흐르게 하면 된다. 즉 청룡동의 남은 끝자락을 잘라버리면 된다."고 일러주었다.

이 말을 들은 주지는 즉시 노과객이 시키는 대로 하였더니 파헤친 능선 끝자락에서 시뻘건 피가 터져 나오고 황금송아지 한 마리가 뛰쳐나와 슬픈 울부짖음을 세 번 하고는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다. 이후부터 장안사에는 찾아오는 보살이 현저히 줄었다고 한다.

장안사를 원효 대사가 창건했다는 사실은 원효의 정토신앙이 이 지역까지 전파되어 불교의 대중화에 크게 기여했음을 알 수 있다.

삼국통일 이후 장안사에는 민간의 토속 신앙과 결합된 밀교가 한때 민중적 호응을 얻게 되어 성행했다. 밀교는 비밀스러운 가르침으로 진언(眞言)이나 관상(觀想) 등 신비적 수행을 통해 신앙적인 깨달음 뿐 아니라 재앙의 소멸이나 기타의 세속적인 욕구까지도 충족시키고자 하는 대중적인데 있다. 혜통 국사의 혜통밀교의 주 기능은 병을 고치는데 주안점을 두어 제병밀교(除病密敎)로 알려져 이 지역 불교의 교의는 법신불(法身佛)인 비로자나 부처님을 본존으로 모

시며 수행에 의한 즉신성불(卽身成佛)을 최고의 목표로 한때 자리를 잡기도 했다. 혜통 국사가 독룡을 천도하여 곰으로 바꾼 항룡사상도 밀교에서 기인한 것이다.

임진왜란 때 불에 탄 장안사는 1657년(효종 8) 원정(元正) 스님이 대웅전을 중건했다. 정면 3칸, 측면 3칸의 겹처마 팔작지붕의 다포양식인 대웅전 지붕 밑에서 2009년 중수 연도가 적힌 상량문이 발견됐다. 지금까지 부산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진 범어사 대웅전보다 20년 정도 앞선 것이 확인된 셈이다. 상량문에는 건물을 지은 연도부터 시주를 한 사람 이름까지 좁은 나무기둥에 1200여 자가 빼곡히 적혀 있다.

7m가 넘는 높은 천장과 해안 특유의 경사가 심한 지붕과 건축사적이나 학술적으로 독특해 명작으로 꼽혀 대웅전은 2012년 5월 보물 제 1771호로 지정됐다.

*주영택, 『부산의 전설 보따리』, 가마골향토역사연구원, 2013, 204~206쪽.

[기장군 설화 23]

일광의 보름새

일광에서 태어난 보름새는 뛰어난 임기응변술과 처세술을 지니고 있었다. 성도 이름도, 언제 어디서 죽었는지도 아는 이가 없으며 전설적인 인물로만 전해진다. 그의 묘는 이동마을 '구구지 모티'에 있었으며 그를 아는 사람은 그의 묘소에서 쉬어 갔다고 전해진다.

성도 이름도 모른다. 단지 일광 지역이 낳은 전설적인 인물로만 전해져 올 뿐이다. 그는 약 150여 년 전, 곽전(藿田: 미역밭)이 있는 일광 지역의 한 갯가에서 태어났으며 글을 배우지 않았어도 임기응변술과 처세술에 남달랐다. 모르는 게 없었고 그가 나서기만 하면 안 되는 일이 없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천부적인 재주에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세상 사람들이 그를 보름새라 불렀던 것은 한 달의 반은 이천리, 반은 칠암리에서 지내면서 새처럼 민첩하고 거침없이 다녔기 때문이다.

그가 사는 마을의 미역밭은 그가 관리하다시피 하였다. 당시 이천마을과 칠암곽암행사권의 경계는 현 동백리의 끝이었고 육동(陸洞)인 동백은 곽암행사권이 없었다. 보름새가 동백마을 앞의 미역밭을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도 이 때문이며 그러다 보니 미역밭을 두고 어느 누구도 그에게 나서거나 토를 다는 사람이 없었다.

어느 날 보름새 집에 양식이 떨어졌다. 마을 사람들이 알면 십시일반으로 도움을 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보름새는 무슨 생각을 했던지 살림이 넉넉한 정관의 김한림(한림학사)의 집을 찾아갔다.

"자네! 또 어인 일인가!"

그러자 보름새는

"서울에 올라갈 일이 생겼습니다."

하고 능청을 부렸다. 전에도 비슷한 일로 찾아온 일이 있었기에 보름새의 속내를 아고 있는 김한림은 순간 집히는 게 있었다. 김한림이 벼슬을 하기 위해 언젠가 서울로 이사 갈 무렵, 자기가 사는 마을에 역적이 난다 하여 못을 파헤친 일이 있었다. 그리고 서울의 일이 여의치 못해 고향에 돌아와서는 못을 파헤친 자리에 집을 지어 늘 마음이 편치 않았다.

지레 겁을 먹은 김한림은 보름새의 늠름한 무언의 으름장에 알겠다는 대답을 한 후 돌려보냈다. 그리고 즉시 하인을 시켜 소달구지에다 곡식과 나무를 잔득 싣고 보름새 집에 갖다 주었다. 그는 천민의 신분이면서도 양반을 골탕 먹이는 일에 남다른 기질이 있었던 것이다.

세월이 흘러 나이가 든 보름새는 칠암마을의 책임자가 되어 면임(面任: 면장격임)이 소집하는 회의에 참석하게 되었다.

"자넨 왜 지각했는가?"

하고 다그치자 보름새는 늙어 몸을 제대로 가눌 수가 없었다고 아뢰면서,

"정신마저 없어 공문을 손에 들고 다니면 잃어버릴 것 같으니 문서를 넣고 다닐 조그마한 홍태기를 한 쪽 소매 끝에 달도록 허락해주셨으면 합니다."

하고 간청하였다. 면임은 보름새의 사정을 듣고는 홍태기를 달도록 허락해 주었다.

며칠이 지나고 면 회의가 있었다. 보름새는 이 날도 예외 없이 지각하였다. 면임이 보름새의 처지를 아는지라 나무라지는 않았다. 하지만 비뚤어진 자세로 들어오는 보름새의 모습을 보고는

"여보게! 한쪽 어깨가 왜 삐딱한가?"

하고 나무랐다. 보름새는 하도 잊는 일이 많아 홍태기에 공문이라는 공문은 다 넣고 다니다 보니 몸의 균형을 잃어버렸다고 변명을 늘어놓았다. 면임은 보름새의 말을 듣고는 공문을 똑같이 넣을 수 있도록 한쪽 소매에도 홍태기를 달게끔 특별히 허락하였다. 고의든 아니든 양족에다 홍태기를 달게 됨으로써 보름새는 양반처럼 도포(두루마기)를 입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당시 천민으로서 양반 행세를 할 수 있었던 사람은 보름새밖에 없었다.

성도, 이름도, 태어난 곳도 모르듯이 그가 언제 어디서 죽었는지 아무도 아는 이가 없다. 보름새의 묘는 이동마을 '구구지 모티'에 있었으며 보름새를 아는 사람은 간혹 그의 묘소에서 쉬어 갔다고 구전되어 오고 있다.

*주영택, 『부산, 전승 설화를 찾아서』, BNK부산은행, 2015, 259~262쪽.

[기장군 설화 24]

용천강에서 황룡이 등천한 돌용골

용천 깊은 물에 살고 있던 황룡이 여의주를 얻어 하늘로 등천할 때, 천년 묵은 여우 매구와 싸우다 여의주를 강에 빠뜨려 등천하지 못하고 다시 돌아오게 됐다. 황룡이 살고 있던 강을 용천강이라 하고, 등천하던 용이 되돌아 온 곳을 돌용골이라 불렀다.

저녁부터 내리던 여름비가 밤이 되자 뇌성벽력을 치면서 천지가 무너지듯 으르렁거렸다. 큰 강물이 하늘로 솟아오르면서 예부터 용천 깊은 물에 살고 있던 용이 여의주를 얻어 하늘로 등천하기 시작하였다. 마을 사람들은 물기둥 속에서 황룡이 꼬리를 치며 하늘로 치솟아 오르는 놀라운 광경을 번쩍이는 번갯불 사이로 보고 있었다.

모두 겁에 질려 문을 잠그고 꼼짝하지도 못하였다. 때마침 매구가 무덤을 파서 송장의 옷을 벗겨서는 용천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다. 매구는 황룡이 등천하는 것을 보고 빨래 방망이로 황룡을 겨누면서

"노란 구렁이가 지랄하네."

라고 조롱하였다.

매구는 천년 묵은 여우가 여자로 둔갑한 것으로 온갖 못된 짓을 해왔다. 이 날도 촌장의 외동딸을 묻은 무덤을 파서 그 시신을 먹고 수의를 벗겨 빨래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등천하던 황룡은 매구의 말에 화가 나서 두 발로 매구를 움켜잡다가 그만 여의주를 용천강의 탁류 속에 빠뜨려 등천하지 못하였다.

화가 치민 황룡이 큰 꼬리로 용천강을 내리치자 용천 강물은 강변의 큰 마을과 이웃마을에 범람하여 논밭은 유실되고 마을은 폐허가 되었다. 황룡이 매구를 죽여 여우의 환란은 없어졌으나 황룡과 매구의 싸움 때문에 잃은 논밭을 복구하지는 못하였다.

용천 큰 마을과 이웃마을 사람들은 용천강에 모여 제수를 차려놓고 황룡에게 고사를 올렸다. 그날 밤, 황룡은 마을 사람들의 정성으로 여의주를 찾아서 등천하면서 번갯불과 비바람으로 용천강의 범람을 막는 강둑을 만들고, 마을은 강물로 인한 피해에서 벗어나게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황룡이 살고 있던 강을 용천강이라 하고 강변마을을 용천동이라 한다. 등천하던 용이 되돌아 온 곳은 돌용골이라 하여 회룡마을(부산시 기장군 일광면 용천리)이 되었다고 한다.

*주영택, 『부산, 전승 설화를 찾아서』, BNK부산은행, 2015, 263~264쪽.

[기장군 설화 25]

학리마을의 학송

겨울이면 학리마을의 남쪽 소나무에는 어디서 오는 지도 모르는 수백 마리의 학이 떼를 지어 날아 왔다. 학의 무리가 많은 해는 풍년이 들고 고기를 많이 잡은데 반해 학이 찾아오지 않을 때는 흉년이 들어, 마을 사람들은 해마다 할매·할배 당산나무 아래에서 풍어를 기원하는 제사를 올렸다.

일광해수욕장 진입도로에 들어서기만 하면 시원스레 펼쳐진 동해가 눈앞에 와 닿는다. 해안선을 따라 펼쳐진 2차선 도로를 끝없이 달려야 할 것 같은 충동을 느끼지만, 멈춰야 하는 곳은

학리마을(부산시 기장군 일광면 학리)이다.

1970년대 전국 방방곡곡에서 새마을 사업이 한창일 무렵, 이 마을 역시 그 흐름에 다라 좁다란 골목길이 리어카 길로 바뀌었으나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마을에 들어서면 건너편 바다 너머로 거물산 자락이 펼쳐지고 일광의 기상을 상징하는 일광산(양)과 달음산(음)이 자태를 뽐냈다. 동녘엔 무한히 펼쳐진 바다가 답답함을 일시에 거두어 간다. 마을의 남과 서에 높지 않게 병풍처럼 마을을 감싸며 그 사이로 드리운 산세 또한 보는 이의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 누가 보아도 따스하게 느껴지는 마을임에는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 마을엔 언제부턴가 마을과 잇닿은 남녘에, 바다 가운데의 섬 하나를 육지에 옮겨놓은 듯한 해송들로 무성한 산 하나가 마을을 감싸고 있다. 그 산 북녘 끝자락에 있는 바닷가 언덕배기 아래로는 언제나 마을을 돌봐주는 골매기할매 제당이 자리하고 있다.

이 신령스런 곳을 보호하고 있는 고목인, 아름드리 소나무 한 그루는 지금도 염분 섞인 바닷바람과 모진 풍상을 겪은 시련의 흔적과 함께 300여 년의 세월 동안 자리하고 있다.

전해져 오는 속설로는 마을의 이름을 지금과 같이 학리마을이라 부르기 이전부터 학이 서식하였다는 당산나무에 겨울이면 어디서 오는 지도 모르는 수십 마리의 학이 떼를 지어 이 나무에 날아와 둥지를 치고 서식하였다고 한다. 학의 무리가 많을 때는 이 소나무에 앉지를 못해 모두 메짠데기산(해송이 우거진 산)에 날아가 서식하였는데, 학의 무리가 한꺼번에 날아오르는 광경은 한 폭의 그림처럼 그야말로 장관이었다고 구전되어 오고 있다.

이렇듯 학의 무리가 해마다 찾아오자 마을 사람들은 새롭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한다. 학의 무리가 많은 해에는 풍년이 들고 고기를 많이 잡아 마을이 풍요로웠다는 것이다. 반대로 학이 찾아오지 않거나 무리 수가 적을 때는 재해로 흉년이 들고 심한 풍랑으로 고기를 잡지 못해 궁핍한 생활을 면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마을에서는 뒷산 하단 산자락에 터를 잡아 할아버지를 모신 제당을 짓고 해마다 많은 학이 마을을 찾아와 풍년이 들도록 치성을 다해 제사를 지냈다. 학의 무리가 서식하는 당산나무 아래 할머니 제당에서는 풍어를 기원하는 제사를 올렸다는 이야기가 우리들의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의 할머니, 할아버지로부터 전해져 오고 있다.

길조의 상징인 학의 무리가 마을에 찾아온 것에 연유하여 마을의 이름을 학리(鶴里)라 부르게 되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이 고장의 전설이라 하겠다.

*주영택, 『부산, 전승 설화를 찾아서』, BNK부산은행, 2015, 267~268쪽.

[기장군 설화 26]

암행어사 이도재와 어사암

기장군 기장읍 죽성리 두호마을 바다를 지나던 조운선이 풍랑으로 침몰하자, 어민들이 조운선의 곡식을

훔쳐 숨겼다. 이 일로 관아에서 주민들을 고문했고, 어사 이도재가 진상조사를 하기 위해 파견됐다. 현장을 조사한 이도재는 관기 월매에게 어민들의 어려운 사정을 듣고 형벌을 멈추게 했고, 매바위의 절경을 보면서 오언절구시를 짓고는 '어사암(御使岩)'이라는 글자를 매바위에 새겼다.

기장군 기장읍 죽성리 두호마을의 북쪽에는 학처럼 생긴 큰 바위가, 남쪽에는 매처럼 생긴 큰 바위가, 죽성천 해변에는 용머리처럼 생긴 큰 바위산이 있어, 마을 사람들은 이들을 각각 학바위(황학대·黃鶴臺), 매바위(어사암·御使岩), 용머리(용두대·龍頭臺)라고 불렀다.

어느 날 시주를 다니는 스님은 사방을 살펴보고 이렇게 말하고는 일순간 사라져 버렸다.

"용머리는 매를 노리고, 매는 학을 노리는 형국이니 학이 꼼짝 못하고 기가 죽어 있다. 이 때문에 학바위가 누렇게 터실거리고 미역이 잘 붙지 않게 되었으니 매바위의 매 두 눈을 찍어 부숴버리면 학바위에도 미역이 많이 붙게 될 것이다."

마을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단숨에 매바위의 두 눈을 호미로 찍어 없애 버리자 학바위에도 미역이 많이 붙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다.

매바위에 관한 전설은 또 있다. 1883년(고종 20) 기장현 독이방(禿伊坊: 지금의 문동리)에 있는 조창에서 양곡을 가득 실은 조운선이 부산포로 가다가 이곳 앞바다에서 풍랑을 만나 매바위에 부딪쳐 바위 위에 반쯤 얹혀 있었다.

조운선의 곡식을 본 어민들은 굶주림에 지친 나머지 관아에 신고도 하지 않고 저마다 곡식을 훔쳐 집집마다 숨겼다. 이 일이 화근이 돼 어민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기장 관아에 끌려가 구금됐고 훔친 곡식은 모두 압수됐다.

감옥에 갇힌 어민들은 형틀에 매달려 매질을 당해 피가 튀고 살이 떨어졌고, 그 자리에서 죽은 사람도 생겨났다. 다리가 부러진 자도 있었고, 장형을 심하게 당해 장독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

조정에서는 이 도난과 가혹한 고문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1883년 이도재(李道宰·1848~1909)를 암행어사로 기장현에 파견했다. 어사가 진상조사에 착수하자 어촌 주민들은 기장 관기로 있는 월매를 시켜 어민들의 어려운 사정을 얘기했다. 관아의 가혹행위가 심했고, 도난량도 보고된 것처럼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사실을 진정하게 하였다. 월매는 어민 편을 들어 애교로써 어사 이도재가 어민 편을 들도록 간청했다. 현장조사를 하러 매바위에 온 어사에게 미색으로 온갖 아양을 부리면서 춤과 노래로 어사를 즐겁게 한 것이다.

이곳 매바위의 절경과 월매의 아양에 홍겨워진 어사는 그 자리에서 '하늘이 텅 비었으니 보이는 것이 없고, 사나운 바다는 시객을 위해 춤을 추는데, 저 멀리 돛단배는 언제 무사히 돌아오려나,'라는 오언절구시를 짓고 '어사암(御使岩)'이라는 글자를 매바위에 새겼다. 이로 인해 매바위는 '어사암'이라 불리게 되었으며, 그 덕택에 어민들은 관아로부터 형벌과 조사를 면하게 되었다.

두호마을 어민들은 어사 이도재의 후덕한 인품과 공덕을 잊지 못해 1883년 '수사이공도재생사단(水使李公道宰生祀壇)' 비석과 사당을 지어 그의 생일 때마다 제사를 지냈다.

지금 선정의 상징인 생사단비는 동부리 기장초등학교 앞 비석군에 이전됐다. 이 비석은 36

기의 비석 중 세 번째 열 왼쪽에서 네 번째에 자리 잡고 있다.

세월이 흘러 '어사암'이라 새겨진 글자가 마모되자 이곳 어민들은 어사 이도재의 은공과 월매의 공로를 못 잊어 매바위에 '이도재'와 '기월매'라는 글자를 새겼다. 그 글자는 매바위에 지금도 남아 있다.

*주영택, 『부산, 전승 설화를 찾아서』, BNK부산은행, 2015, 269~271쪽.

[기장군 설화 27]

월평의 반월성

삼국시대 초기 이곳은 거칠산국이라는 나라를 이루고 있었는데 신라와 전쟁이 잦았다. 신라가 침범할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한 이곳 성주는 선수를 쳐서 신라를 정벌하려 했다. 신통술을 부리는 여동생이 때를 기다리라고 조언했지만 성주는 오히려 격노해 여동생의 신단을 부수었다. 혼절한 여동생은 그로 인해 죽었고 성주는 신라군에게 패전하게 되었다.

반월성(부산시 기장군 정관면 월평리)은 신라시대의 토성으로 월평리 근처에 있다.

삼국 초기 이곳은 갑화양곡(甲化良谷: 우리말을 한자음으로 적은 이두식 표기로 '첫째 마을'을 의미한다. 바다에서 육지에 처음 닿는 마을이라는 의미도 포함된다)이라 하여 동래의 대중현과 함께 거칠산국이라는 나라를 이루고 있었는데, 신라와 국경을 접하고 있었기 때문에 두 나라 사이에 전쟁이 자주 발생했다.

신라의 탈해이사금(脫解尼師今) 때 거도장군(居道將軍)은 정병(精兵: 우수하고 강한 군사) 천(千)으로써 이곳 변경을 정벌하게 되었다. 이런 일을 알게 된 성주는 오히려 선수를 쳐서 신라를 정벌한 계획을 하였다.

그리하여 근처에 있는 진계등(陳界嶝)에서 맹렬한 군사훈련을 시키고, 병마를 모집하여 군세를 증강하는데 전력을 다하였다.

그런데 성주에게는 신통술을 부리는 여동생이 있었다. 신단을 차려 놓고 주문을 외면 신병이 나타나고, 병법에도 달통하였을 뿐만 아니라 점술에도 능하여 앞날을 훤하게 아는 사람이었다. 성주가 전쟁 준비를 끝내고 곧 정벌군을 출동시키려고 할 때였다.

여동생이 성주에게

"아직 때가 오지 않았으니 성 뒤에 있는 대밭에 동이만한 죽순이 올라오거든 출병하세요."

라며 극구 만류하였다. 그러나 성주는 나라의 운명을 걸고 출전하는 대출병에 요사스러운 점술로써 군사의 사기를 떨어지게 한다고 신단을 부숴버렸다. 그러자 동생은 비명을 지르면서 혼절하여 그대로 죽어버렸다.

성주는 그 길로 출정하여 신라군과 싸웠으나 여동생의 예언대로 패전하여 나라는 정복되고 말았다. 또한 그로부터 몇 년 후에 대밭에 동이만큼 큰 죽순이 솟아올라 왔다고 전해오고 있었

다. 이는 이 지방의 고대에 한 부족이 나라를 세워 성읍국으로 있었다는 사실을 시사하는 중요한 설화로 짐작된다.

반월성은 정관면 월평리 큰 도로변 마을 뒷산에 있다. 꼭 경주 반월성과 비슷하게 생긴 토축성이다. 토축성은 반달 같은 반원형이고 둘레는 800척(0.25km), 높이는 12척(3.6m) 정도이다. 원형은 많이 훼손되었으나 형태는 뚜렷이 남아 있다.

하지만 반월성에 대하여는 《기장현읍지》에도 아무런 기록이 없고 구전되어 오는 전설만이 있다. 옛날 어떤 이우로 지었는지는 전혀 알 길이 없다. 단지 '차성가'에 '반월성 돌아드니-입석에 말을 메고- 우리 벗님 보내는데 그 아니 송정가자-'라는 기록이 있을 뿐이다.

이곳은 예부터 기장과 울산의 경계지점이었고, 신라와 거칠산국의 국경지대였으며 두 나라가 대치하고 있었을 때는 전략적 요충지였다. 거칠산국이 이곳을 수비하지 못하면 동쪽으로는 지금의 정관면·장안읍 일대가 위험하고 이곳 월평을 비롯하여 영천강변의 임기, 입석, 송정 등지는 물론 본거지인 동래까지도 위험하게 된다. 신라가 거칠산국을 정복한 후라면 이곳은 군사적으로 성을 쌓을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주영택, 『부산, 전승 설화를 찾아서』, BNK부산은행, 2015, 273~274쪽.

[기장군 설화 28]

애기 장수가 휘갈긴 금수동 명필

신라 초기, 골격이 장대하고 안광이 빛났으며 양쪽 겨드랑이에 작은 날개가 난 아이가 태어났다. 부모는 불광산의 장안사 계곡에 아이를 버렸다. 하늘의 도움으로 힘세고 날쌘 장수로 자란 아이는 비단결 같은 물이 흐르는 골짜기라는 의미의 '금수동(錦水洞)'이라는 세 글자를 손가락으로 바위에 갈기고 하늘로 날아갔다.

신라 초기, 오랫동안 슬하에 자식이 없던 가정이 있었다. 갖은 정성을 다 들인 끝에 아들 하나를 얻었는데, 평범한 아이가 아니었다. 골격이 장대하고 안광은 빛났으며 양쪽 겨드랑이에 아주 작은 날개가 나 있었다.

부부는 아들을 낳았다는 기쁨보다 두려움이 앞섰다. 이 아이에 대한 것이 주위에 알려질 경우 무슨 화가 닥칠지 겁이 났던 것이다.

49일이 지나자 아기는 빠른 속도로 자랐다. 발로 걷기 시작하였고, 겨드랑이의 날개도 눈에 띄게 자라났다. 차일피일 머뭇거리기만 하는 동안 아이의 성장은 몰라보게 빨랐다.

부부는 남몰래 아이를 멀리 갖다 버리기로 하고, 야밤에 아이를 데리고 남쪽으로 갔다. 숲이 우거지고 냇물이 말게 흐르는 곁에 평평한 큰 바위를 발견한 부부는 아이를 버리고 돌아왔다.

홀로 버려진 아이는 하늘의 도움으로 무럭무럭 자라나서 힘세고 날쌘 장수가 되었는데, 무예도 출중한 데다 겨드랑이의 날개도 웬만큼 자라서 높은 곳에도 날아오를 수 있었다.

장수는 매일같이 심신을 단련하고 무예도 닦아 일당백의 경지에 도달하였다. 드디어 날개가 모두 자랐을 때, 그는 불광산 꼭대기에 있는 바위까지 거뜬히 날아올랐다 뛰어내렸다 하는 경지에 이르렀다.

장수는 이제 이곳에 머무를 이유가 없어졌는지 어느 날 하늘로 날아가 버렸는데, 정들었던 계곡을 떠나면서 '금수동(錦水洞)'이라는 세 글자를 손가락으로 바위에 갈겼다고 한다. '금수동'은 비단결 같은 물이 흐르는 골짜기란 뜻으로, 글자가 새겨진 곳은 불광산의 장안사 계곡이다.

불광산(324.5m)에는 장안사와 척판암이 있어 예로부터 단풍 명소로 유명하였고, 특히 장안사 계곡인 금수동은 숲이 울창하고 물이 맑아 찾아오는 풍류객으로 붐볐다.

장안사 아래 상장안마을 버스 종점에서 장안사 계곡을 끼고 오른편 산자락이 불쑥 튀어나온 커브길을 돌아가면 이 금수동 바위가 서 있다. 금수동 바위는 높이가 약 10m, 폭이 약 8m쯤 되는데, 금방이라도 떨어져 덮칠 듯 위태롭게 버티며 산자락을 꽉 잡고 있다.

이 바위 면에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은 필체로 '錦水洞'이라는 세 글자가 초서체(草書體: 곡선 위주의 흘림체로 된 한자 서체의 하나)로 새겨져 있다. 이 글자의 크기는 자그마치 세로가 약 96cm, 가로가 80cm이다. 글자 획의 굵기도 10cm는 너끈할 정도로 굵다.

이곳이 기장 8경 중 4경인 '금수동 계곡'이다. 굽이굽이 휘돌아 흘러가는 골짜기 물에 반사된 글씨에선 글자마다 물소리가 귓전에 울리고, 사람의 힘으로 올라갈 수 없는 높은 바위에 있어 신비로움을 더하고 있다.

*주영택, 『부산, 전승 설화를 찾아서』, BNK부산은행, 2015, 275~276쪽,

[기장군 설화 29]

앵림산 안적사의 창건

앵림산 안적사에는 661년(신라 문무왕 원년)에 원효스님과 의상스님이 명산을 순방하며 정진에 열중하던 중 장산을 지날 때 꾀꼬리 떼들이 모여들어 두 스님의 어깨와 팔에 안긴 것을 상서로이 여겨, 원효스님이 창건하였다고 전해진다.

안적사(安寂寺)는 661년(신라 문무왕 원년)에 원효대사가 창건하였다.

원효대사와 의상대사는 화엄일진법계설(華嚴一眞法界說)을 후학에게 설파하고 지도하며 화엄사상을 역설, 구국정신을 고취시킨 신라 당대 고승이었다.

사기(寺記)에 따르면 이 두 스님이 형제의를 맺고 함께 구도의 길을 찾아 명산을 두루 순방하며 정진에 열중하던 젊은 시절, 안적사의 창건 유래가 있다고 전해진다.

두 스님은 함께 정진하여 성불할 것을 약속하고 명산을 찾아다니던 중 장산기슭을 지나게 되

었다. 장산은 금정산과 마주보고 있는 산으로 산수가 화려하고 멀리 오륙도 앞바다가 한 눈에 들어오는 절경을 갖추고 있었다.

그런데 이 숲 속에서 난데없이 꾀꼬리 떼들이 모여들어 길을 지나는 두 스님의 앞을 가로 막았다. 두 스님은 수많은 꾀꼬리들이 평화롭게 두 스님의 어깨와 팔에 안기는 것은 필경 상서로운 기운이 이 산에 깃들어 있기 때문이라 여겼다. 그래서 이곳에 주석(主席[10]: 주가 되는 자리)에 정하여 정진키로 하고 토굴을 지어 의상스님을 살게 했다. 원효스님은 지금의 안적사가 있는 자리에 토굴을 지어 수도키로 했다.

각자 피나는 정진으로 세월을 보내던 어느 날부터 의상스님은 날마다 선녀의 천공(天供)을 받게 됐다. 의상스님은 이를 자랑하기 위해 원효스님을 청했다. 오랜만에 사형사제(師兄師弟)가 자리를 같이 하며 그간의 도화(道話: 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정작 나타나야할 선녀는 시간이 지나도 모습을 보이지 않아 의상스님의 애를 태웠다. 이미 그 속을 짐작한 원효스님이 자신의 토굴로 돌아간 후에서야 선녀가 천공을 갖고 나타나자 의상스님은 몹시 화를 내며 늦은 연유를 물었다. 그러자 선녀는 천공을 가져 오다가 스님의 토굴 주위에 불빛이 가득 차올라 무서워서 이제야 들어 왔노라고 말했다.

의상스님은 그제서야 원효스님이 신통으로 금강삼매화(金剛三昧火)를 놓으심을 알고 교만심을 버리고 원효스님을 사형(師兄)뿐만 아니라 조사임(祖師任: 큰 깨달음을 얻은 한 종파를 이루는 웃어른을 지칭)으로 존경하고 정중히 모시게 되었다 한다. 이후 의상스님은 서로의 정진력 수양이 성불의 길임을 알고 후학 지도를 위해 이곳에 수선실(修禪室: 정신을 수양하고 진리를 생각하는 곳)을 넓혀 큰 가람(伽藍: 승려가 불도를 닦는 곳)을 신축했다. 그리고 금강삼매론경등일심법계(金剛三昧論經等一心法界)의 진리를 후학에게 설파, 지도하셨으며 신라의 온 국민에게 화엄사상을 역설하시어 구국정신을 고취시켜 삼국통일의 근간을 이루었다.

산중에 들어올 때 꾀꼬리 떼들이 모여들어 길을 막았다 해서 이 산을 앵림산(鶯林山)이라 부르게 되었으며, 이곳에서 정진하여 안심입명(安心立命: 자신의 불성을 깨닫고 삶과 죽음을 초월함으로써 마음의 편안함을 얻는 것을 이르는 말)의 경지를 통달하여 적멸상(寂滅相: 세계를 벗어나는 경지)을 통관했다 하여 사명(寺名)을 안적사(安寂寺)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그 후 전국에서 수선납자(修禪衲子: 낡은 헝겊을 기워 회색물을 들인 승복을 입고 참선하는 스님)들이 구름 모이듯 하여 남방수선제일도량(南方修禪第一道場: 남쪽 지방에서 참선하는 으뜸 절)으로 그 이름을 사해(四海: 온 세상)에 높여 온 것이다.

*주영택, 『부산, 전승 설화를 찾아서』, BNK부산은행, 2015, 279~282쪽.

10) 원문에 '住錫'으로 잘못 표기되어 바로 잡았다(편자 주).

[기장군 설화 30]

송정마을의 송정자

송정마을은 기장, 동래, 양산 고을의 경계지점에 있고, 이 세 고을을 통하는 큰 길목에 있어 정든 사람이나 친한 벗을 떠나보낼 때 송별하는 장소가 되었다. 이같이 송별하는 정자가 있는 곳이라 하여 마을 이름을 '송정(送亭)'이라 부르게 되었다.

송정(送亭)마을(부산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은 울산으로 가는 교통의 오충지로서 각 고을에서 지나가는 과객들이 쉬어가는 곳이었다. 수려한 철마산의 서남기슭에 자리 잡고 있는 송정리의 넓은 들녘에는 맑은 계곡물이 흐르고 있다. 그리고 그 옆으로는 큰 소나무와 포구나무, 팽나무가 우람한 가지를 펴고 있어서 여름철 과객들에게는 훌륭한 정자목이 되었다.

이곳은 기장, 동래, 양산 고을의 경계지점에 있고, 이 세 고을을 통하는 큰 길목에 있기 때문에 사통팔달(四通八達: 통신이나 교통망이 발달된 곳)의 중심지가 된 것이다. 그래서 정든 사람이나 친한 벗님들을 떠나보낼 때에는 이곳까지 따라왔다. 그리고 이곳 정자나무 밑에서 마지막 석별의 술잔을 나누고 떠나는 사람을 송별하였다. 세 고을의 관원들도 새로 부임하거나 임지를 떠날 때도 이곳까지 와서 송별을 하였다.

이같이 송별하는 정자가 있는 곳이라 하여 마을 이름을 송정(送亭)이라 속칭하였다. 옛날에 말밭이라 하여 말전동(末田洞)이라는 공식명은 송정이라는 속명에 밀려 잊혀지고 끝내 송정동(送亭洞)이 되었다고 한다.

지금도 그때의 소나무와 포구나무가 그대로 우람하게 가지를 펴고 있다. 그리고 그때의 주막은 홍법사 영내로 편입되었고 옆으로 옛길이 지나가고 있다. 오가는 나그네들을 상대로 벌였던 정자 시장은 아직도 5일장으로 남아 있다.

*주영택, 『부산, 전승 설화를 찾아서』, BNK부산은행, 2015, 285쪽.

[기장군 설화 31]

칠암마을의 범난골

기장군 일광면 동백리에는 호랑이가 나타나 사람을 잡아먹는다 하여 범난골이라 불리는 고개가 있다. 이 길 옆으로는 공동묘지가 있으며, 이 칠암공동묘지에는 현재도 약 570여 기의 무덤이 존재하고 있다.

일광로(日光路)를 따라 칠암마을로 들어가면 왼쪽으로 박영준길(동래 출신으로 기장 지역에서 독립운동을 주도한 박영준 의사를 기념하기 위해 지정한 도로명)이 나온다. 이 길로 0.6km쯤 더 걸으면 자동차길은 끝이 나고, 논두렁길이 시작된다. 이 옆으로 나 있는 고개를 오

르면 오른쪽에 위치하는 것이 바로 칠암공동묘지(지금도 570여 기 무덤이 있음)다. 이 길은 일광초등학교로 다니는 동학길이기도 했다. 그래서 학교를 가야 했던 아이들은 이 공동묘지 근처에 다다르면 무서워서는 걸음이 빨라졌다고 한다.

또한 호랑이가 나타나 사람들을 잡아먹는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어 칠암마을 사람들은 이곳을 범난골(虎出谷, 부산시 기장군 일광면 동백리 산 7번지)이라 불렀다.

이 마을에는 힘이 센 장사가 있었는데, 그는 매일 산에서 나무를 해다 팔아 생활하는 나무꾼이었다.

어느 쾌청한 날 장사는 평소와 마찬가지로 지게에다 나무를 가득 얹고 땀을 흘리며 집으로 내려오고 있었다. 마침 길을 지나가던 두 사람이 있었다. 이들은 기장고을의 사령(使令: 관아의 심부름꾼)들이었으나 장사는 나무만 하던 사람이라 사령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지나쳤다.

두 사람은 장사에게 다가서더니 무조건

"지게를 내려놓으라."

고 윽박질렀다.

장사가

"왜 그러느냐?"

고 하자, 사령들은

"보면 모르겠는가?"

하며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장사의 멱살을 잡고 늘어졌다.

한참 실랑이가 계속되면서 밀고 당기는 통에 장사는 지게와 함께 넘어졌고, 두 사람도 나무에 깔리고 말았다. 화가 머리끝까지 오른 장사는 일어나자마자

"너 이놈들 어디 맛 좀 보라."

고하면서 양손으로 두 사람의 상투를 잡아 묶더니 나뭇가지에 매달았다. 두 사람은,

"고을의 관리들을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제발 살려 달라."

고 하였으나, 장사는 오히려

"탐관오리 같은 새끼들 잘 걸렸다."

고 하면서 지게에다 흩어진 나무들을 대충 챙기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대로 마을로 내려와 버렸다.

그 다음날 장사는 나무를 하러 가면서 어제 있었던 그 장소로 가 보고는 깜짝 놀라고 말았다. 두 사람의 하반신은 온데간데없고 두 눈만 부릅뜬 채 자기를 노려보고 있는 게 아닌가!

장사는 이 일이 있고 난 다음부터 나무를 하지 않았다고 전해지며, 마을 사람들은 이 곳을 범난골이라 불렀다고 한다.

*주영택, 『부산, 전승 설화를 찾아서』, BNK부산은행, 2015, 289~292쪽.

[기장군 설화 32]

달음산의 용신

신라의 혜통 화상이 무외삼장으로부터 신모한 비법을 배운 뒤, 귀신 들린 당나라 공주의 병을 고치고, 곰으로 변한 교룡에게는 자비를 설법하여 교화시켰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이 이야기의 배경은 기장군 일광면의 달음산으로 추정되고 있다.

신라의 혜통화상(惠通和尙)은 본가가 경주 남산 서쪽, 은천동구였다. 그는 어렸을 때 우연히 동쪽 냇가에서 놀다가 한 마리의 수달을 발견하였다. 그가 버둥거리는 수달을 잡아 가죽을 벗기고 그 몸뚱이는 밭에 버렸다.

그런데 이튿날 아침에 가서 보니 그 수달의 몸뚱이가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었다. 혜통은 매우 이상하게 여겨 핏방울이 떨어진 자국을 따라 찾아가봤다. 그러자 죽은 줄로만 알았던 수달이 나무에 뚫린 구멍에서 새끼 다섯 마리를 품에 안고 앙상하게 쪼그리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것을 본 혜통은 깜짝 놀라서 도망치고 말았다. 그리고 살생의 불가함을 깊이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이 무서운 죄를 씻으려면 중이 되어 그 영혼을 천도하여 주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본국에서 불교를 연구한 다음 당나라로 들어가서 진언밀교(眞言密敎: 해석하거나 설명할 수 없는 경전, 주문 등을 이르는 말)의 거장인 무외삼장(無畏三藏)을 찾았다. 그리고는 진언밀교의 구전심수(口傳心授: 말과 마음으로 전하여 가르침)을 간청하였으나 박대와 천대만 받았다. 혜통은 너무나 분하고 야속하여 마침내 죽기를 결심하였다.

어느 날 삼장과 같이 앉아 있다가, 그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 미라 준비하였던 이글거리는 불이 담긴 화로를 머리에 이고 조용히 방 앞에 서 있었다.

갑자기 벼락 치는 소리가 요란히 들렸다. 무외삼장이 깜짝 놀라 뛰어나와 보니 머리가 깨어진 채 혜통이 그 자리에 죽어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닌가. 삼장이 급히 손으로 갈라진 머리를 어루만지면서 주문을 외니 머리가 합해지며 상처는 씻은 듯이 나았다. 다만 화상으로 왕(王) 자가 이마에 뚜렷이 남았을 뿐이다.

이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를 왕(王)화상이라 불렀다. 무외삼장도 그때부터 그를 큰 법기(法器: 불도를 수행할 수 있는 소질을 갖춘 사람)로 알고 자기가 깨쳐 가지고 있는 진언밀교의 깊은 뜻과 신통변화의 묘술을 남김없이 가르쳐 전수하였다.

때마침 당나라 고종의 딸인 공주가 병이 들었는데 그녀의 병에는 백약이 무효했다. 혜통은 공주의 병은 무서운 귀신이 침범한 병임을 알았다. 그가 흰 팥, 검은 팥 한 말을 은그릇에 담아 주문을 외웠더니, 팥은 백갑신병(白甲神兵)과 흑갑신병(黑甲神兵)으로 변하여 악귀가 된 교룡(蛟龍: 뿔이 없고 비늘이 있는 용)을 쫓아 버렸다. 쫓겨난 교룡은 혜통의 본국인 신라국의 문잉림(文仍林)에 숨어서 사람을 함부로 해치며 많은 피해를 끼쳤다. 때마침 신라의 정공(鄭恭)이 사신으로 와서 혜통에게 이 사실을 전하자, 혜통은 신라로 돌아와서 교룡을 쫓아 버렸다. 교룡은 정공의 집 문 앞에서 버드나무로 변신하였다.

정공은 이 버드나무를 생명처럼 아끼고 사랑하였다. 그때는 신문왕(681~691)이 죽고 효소왕(692~701)이 즉위한 때로, 효소왕은 선왕(先王)의 능을 만들기 위하여 길을 넓히는데 이 버드나무가 방해가 되므로 유사(有司: 사무를 맡아보던 사람을 일컫는 말)가 이 버드나무를 베려 하였다. 정공은 차라리 내 머리를 끊어 갈지언정 이 나무는 베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유사는 이 말을 왕에게 고하였는 바 효소왕은 크게 노하여 정공이 혜통법사의 힘을 믿고 방자하니 정공을 죽이고, 혜통법사도 죽이려 하였다. 혜통법사는 망덕사(望德寺)에서 신통을 부려 병사들을 쫓아 버렸다. 때마침 효소왕의 달인 공주가 병이 위독한지라 혜통법사가 독경을 하여 완쾌되었다. 혜통법사는 효소왕에게 정공은 교룡이 버드나무로 변하여 그 독룡의 음해를 입어 억울하게 처형된 것을 아뢰었다. 왕은 크게 뉘우치고 정공의 처자를 사면하고, 혜통을 국사(國師: 왕의 스승이자 나라의 스승으로, 조정에서 내린 승려의 최고 법계)로 봉하였다.

한편 독룡은 정공에게 원수를 갚은 뒤에 멀리 남쪽으로 도망하여 기장산(機場山)에 깊숙이 들어가서 용신(龍神)이 되었다. 용신이 된 독룡은 기장 일대의 주민들에게 온갖 해를 입힘으로써 그 피해가 막심하였다. 혜통국사는 마침내 이 독룡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해 기장으로 와서 독룡을 찾았다.

바위굴에 숨어 있던 독룡은 곰으로 변해 있었다. 혜통국사는 곰으로 변한 독룡에게 자비를 설법하고 불살계로 단속하였다. 그 후부터는 독룡으로 인한 피해는 없어졌다고 한다.

기장산은 어느 산인지 알 수 없으나 아마 지금의 달음산(撻陰山)이 아닐까 생각된다. 달음산 옥녀봉 동쪽에는 용굴이 있다.

*주영택, 『부산, 전승 설화를 찾아서』, BNK부산은행, 2015, 293~297쪽.

[기장군 설화 33]

길흉사를 점지해준 여우

학리마을에는 여우가 마을 앞의 메짠데기산에서 울면 3일 내에 마을에 초상이 나고, 할아버지제당이 있는 마을 뒤편 망곡산에서 울면 고기를 많이 잡는다는 소문이 있다.

학리마을은 육지 중의 섬이라는 비유 못지않게 점점 더 오지로 변해가고 있는 전형적인 어촌마을이다. 마을의 진입로에 수산물 수송을 위한 해안도로를 개설하였으나 더 나아갈 길이 없다보니 왔던 길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다. 없던 길은 새로 뚫고, 좁은 길은 넓히는 것이 기본인데도 학리마을만은 그렇지 못하여 반세기 이전부터 이용하던 길마저도 통행이 금지되었다. 도로가 차단되고 교통의 불편이 가중될 뿐 아니라 미래가 보장되지 않을 만큼 낙후한 마을로 변모해가고 있음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수 백 년 전에 마을의 시조가 이 마을에 정착했을 때에도 어업은 생업이었을 것이다. 그도 그

럴 것이 아무리 둘러봐도 마을 내에 농사를 지을만한 변변한 농토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곳 사람들은 오직 어업에만 의존해야 했다. 어민들의 생활상은 1960년대 이전만 해도 궁핍 그 자체였다. 잡아온 고기를 한 짐 무겁게 머리에 이고 3~40리 길을 걸어 시장이나 마을로 다니며 팔아도, 돌아올 댄 고작 쌀 한 되 손에 들고 돌아오는 것이 전부였다고 한다.

생활고에 쫓기다 보니 자녀들의 교육에는 더더욱 소홀하게 되어 미취학, 중도 퇴교 등으로 문맹자도 많았다. 소형 무동력선으로 무리한 조업길에 나섰던 어부들이 갑작스런 기상 변화로 조난을 당하기도 해 홀로 된 부녀자의 아픔을 지켜만 보던 시절도 더러 있었다. 그 후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으로 어선의 대형화와 함께 동력선으로 대체되고, 소득 향상으로 이웃 마을의 농지를 취득하여 식량의 자족화를 이루는 듯했다. 그러나 고기의 남획으로 바다의 어자원이 고갈되고, 시온합섬 등의 공장 설립과 택지 조성 등으로 인해 농지를 처분하고 새로운 생존경쟁의 길에 나서야 하는 기로에 서기도 하였다.

학리마을은 지형상 임해 지역으로서 북동쪽을 정면으로 하고 있으며 동쪽·서쪽·남쪽의 낮은 산봉우리들이 마을을 에워싸 가끔 동물들의 울음소리를 가까이에서 들을 수 있다.

광복이 되던 해로부터 새마을운동이 시작되던 1970년대까지 학리마을 주민들의 생활상을 보면 대다수 주민들은 수산업에 조사하며 생계를 유지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 당시 마을의 대다수 가구들은 타 소득원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수산업 협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고 미역 곽전의 행사로 연간 일정액의 소득을 얻을 수 있었다. 어선마다 소형 무동력이 대부분이라 바람이 불지 않을 때에는 노를 젓는 미개한 방법으로 조업을 하다 보니, 때로는 바다에 생명을 담보해야 하는 아둔함에도 아랑곳없이 오직 가족의 생계를 위해 조업에 임해야 했던 처지였다. 특히 어업에 종사하는 자나 그 가족 중에는 기후의 변화를 천체의 변화(해, 달, 별, 구름)에 의존하거나 신체구조의 느낌, 동물들의 행동 등에서 찾으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가 하면 마을의 제당을 찾아가 정성을 다하여 치성을 올리기도 하였다.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앞산과 뒷산에는 그리 크지 않은 어린 소나무가 주종을 이루며 자라고 있었으므로, 동물들의 활동 영역으로서는 매우 적합하여 여우, 고라니, 노루, 멧돼지, 토끼, 오소리, 살쾡이 등 제법 다양한 종류의 동물들이 살고 있었다. 여우는 매우 영악한 동물이라는 정평 그대로 여우의 식성을 보면 육식동물이면서도 살아있는 동물은 먹지 아니하고 죽은 동물만을 먹이로 한다고 한다.

여우의 울음소리는 고라니의 울음과 밤하늘을 나는 기러기의 울음소리와 매우 흡사하여 혼란스러울 정도의 느낌이 들기도 하나 자세히 들어보면 분별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하여도 여우의 울음소리를 종종 들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학리마을에는 언제부터인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여우가 마을 앞산(메짠데기산)에서 울면 3일 이내에 마을에 초상이 나고, 할아버지 제당이 있는 뒷산(망곡산)에서 울면 고기를 많이 잡아온다고 소문이 일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산 사람의 입을 통하여 전하여진 것이 아니라 말없이 함께 지켜보았던 여러 사람들을 통하여 서로가 확인하려 했는지도 모른다. 여우의 울음소리가 사라지기 시작한 1970년대 초반까지도 여우가 울 때마다 할머니들의 손가락은 무엇을 헤아리

는 지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었는데, 마을에서 연로한 분부터 손가락을 꼽는 것 같았다. 그리고는 그 다음 날에 하는 말이

"그 사람은 나이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어디 아픈 데가……."

하며 말끝을 흐린 적도 있었다.

또 어느 날은

"뉘 집 배가 고기를 많이 잡았다지! 그저께 밤에 뒷산에서 야시가 울더니."

하고는

"역시 야시가 영물이야."

하며 말문을 흐리던 경우가 가끔 있었다. 여우가 제 아무리 후각이 발달하고 영물이라 하여도 정확히 맞출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어째서 앞산, 뒷산을 오가며 울음소리를 내는 것인지 믿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았다. 그 후 여우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 또한 알 수 없다.

그러나 한 가지 사실만은 부정할 수 없다. 군항지 불발탄 처리장에서 불발탄을 폭파시킬 때 발생하는 폭음과 화약 냄새는 여우의 생존환경에 치명적이었을 것이며, 또한 1970년 초부터 마을 뒷산 너머에 신앙촌이 공장을 건립하고 산 속에 길을 내면서 여우가 서식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학이 서식하던 평화로운 학리마을, 그 시절이 다시 돌아오기는 어렵지만 사람들은 지금도 그때를 잊지 못한다. 이는 마을 사람들이 간직해 온 사람의 애환을 쉽게 떨쳐버릴 수가 없기 때문이다.

*주영택, 『부산, 전승 설화를 찾아서』, BNK부산은행, 2015, 299~301쪽.

[기장군 설화 34]

무곡마을의 약물샘

피부병을 앓고 있는 어머니를 모시는 처녀에게 신령이 굼에 나타났다. 그리고는 무곡마을 입구 웅동이에서 붕어를 잡아 졸여 드리고, 웅덩이 물로 목욕을 시켜드리면 병이 나을 것이라고 했다. 신령이 시키는 대로 한 후 처녀의 어머니는 말끔히 낳을 수 있었다. 소문을 듣고 이 웅덩이를 찾은 주민들 역시 병이 치유되었다. 이후 이 웅덩이는 '약물샘'이라 불리고 있다.

무곡마을(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청강리) 입구에 있는 작은 웅덩이를 '약물샘'이라 부르고 있다. 옛날 이 마을에 효성이 지극한 처녀가 피부병을 앓고 있는 홀어머니를 간호하고 있었다. 처녀는 때마다 정성들여 밥을 마련하였지만 어머니는 엉뚱스럽게도 붕어가 먹고 싶다고 투정질을 하며 밥 먹기를 거절하였다.

추운 겨울에 붕어를 잡는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이었다. 처녀는 여기저기 찾아다녔으나

붕어를 잡지 못했다. 추운 겨울 날씨로 인해 몸이 얼고, 피곤에 지친 처녀가 약물샘에 와서는 그만 깜빡 졸고 말았다. 그때 꿈인지 생시인지 신령님이 나타나서는

"너의 지극한 효성에 감동되어 일러주노라. 잠에서 깨어 웅덩이 속을 살펴보면 큰 붕어 한 마리가 있을 것이니 잡아서 졸여 드리고, 이 웅덩이 물로 목욕을 시켜드리면 병이 씻은 듯 나아질 것이라."

고 하였다.

처녀가 정신을 차려 웅덩이 속을 보니 과연 큰 붕어 한 마리가 얼음 위로 치솟아 땅에 떨어져 발아래에서 파닥거리고 있었다. 처녀는 신령님이 시키는 대로 어머니에게 그 붕어를 졸여 드렸다. 그리고 웅덩이 물로 어머니를 깨끗하게 목욕시켰다. 그러자 어머니의 온 몸에 솟아 있던 종기가 씻은 듯이 없어지고 원기 또한 회복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 효행이 널리 알려지자 피부병이 있는 인근 주민들이 이 웅덩이 물로 목욕을 하고는 모두 병이 나았다. 그 후로 이 웅덩이를 '약물샘'이라 불렀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마을 사람뿐만 아니라, 장안, 일광, 철마 등지에서 피부병 환자들이 찾아와 물을 가져갔다고 한다. 그런데 약물샘에 돈을 넣으면 그 효험이 더욱 뚜렷하다고 전해진다.

*주영택, 『부산, 전승 설화를 찾아서』, BNK부산은행, 2015, 303쪽.

[기장군 설화 35]

효암천의 오룡과 다섯마을

옛날 대룡마을 앞을 흐르는 효암천의 용소에는 다섯 용이 살고 있었는데, 웅덩이가 비좁아 자식들이 하나 둘 떠났다. 엄마용은 자식들이 그리워 눈물을 흘리다 지쳐 잠이 들었고 그 모습 그대로 바위로 변했다. 엄마용은 큰 바위로 변해 대암용이 되었고, 다섯용이 살던 곳은 용(龍) 자를 붙여 용소마을, 반룡마을, 대룡마을 등으로 부르고 있다.

옛날 대룡마을(부산시 기장읍 장안읍 오리) 앞을 굽이굽이 흐르는 효암천이 있었다. 이 하천을 따라 내려가면, 한 가운데 용소(龍沼, 장안읍 오리 212번지, 명주실 한 타래를 풀어도 끝이 닿지 않는 깊은 물웅덩이)가 있고 그 뒤에는 용바위(용이 물에서 나와 몸을 말렸다는 바위, 2015년 하천 정비 공사 때 이 바위를 깨어버렸음)가 있었다.

용소에는 용바위 언저리에서 용 가족(엄마 용, 아들 용 둘, 딸 용 둘) 다섯 용이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

어느 해 천지가 개벽하더니 큰 비가 내렸다. 빗물은 온 천지를 휩쓸고 내려간 뒤 물웅덩이를 반쯤 메워 버렸다. 그러니 다섯 용이 사는 물웅덩이는 턱없이 비좁았다. 아들 용이 고개를 돌리

면 엄마 용 꼬리에 부딪혔고, 엄마 용이 얼굴을 들면, 딸 용의 목을 감았다. 막내딸 용은 숨도 쉬기 힘들었다.

힘든 날을 보내던 가족은 용바위에 올라 얘기를 나누었다.

"여기서는 못 살겠다."

고 말했다.

다섯 용 중 첫째 아들 용은 여기서 멀지 않은 산 너머 계곡인 용소가 있는 용소골로 날아 떠났는데, 하늘로 날아갔으니 등천용(登天龍)이라 불렀다.

그러자 둘째 아들 용은 그 너머 반룡 웅덩이로 가 버렸다. 이 용은 등천하려고 몸을 서리고 있는 반룡(盤龍)이다.

셋째 딸 용이 물었다.

"저는 어디서 살까요?"

"날 따라 오너라. 바로 위에 기룡골 웅덩이가 있더구나."

엄마 용이 대답했다. 이 용은 하천을 기어다니고 있으니 복룡(伏龍)이다.

이렇게 자식 용 셋은 각각 용소, 반룡, 기룡의 물웅덩이로 떠나 가 버렸다. 그러나 막내 딸 용은

"엄마 부근에 살겠어요. 하천 아래쪽 개천(開川)바닥에 누워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하천을 따라 스르르 미끄러져 내려갔다. 이 용은 사람들에게 들킬까봐 하천 속에 누워 있으니 와룡(臥龍)이라 불렀다.

아들, 딸을 모두 떠나보낸 엄마 용은 자식들이 그리워, 날마다 언덕에 올라 하늘을 보며, 아들과 딸의 이름을 한없이 불렀다. 눈물을 흘리다 밤이 되면, 그 자리에 지쳐 잠이 들었다.

엄마 용은 그 모습 그대로 바위로 변해 버렸다. 엄마 용이 살던 물웅덩이는 농사짓는 물을 모아 놓은 보(洑)로 남았고 엄마 용이 변한 용바위는 지금은 없어졌다. 이 용은 큰 바위로 변하여 대암용(大岩龍)이 되었다.

옛날 장안읍에 다섯 용이 살던 곳은 마을 이름도 용(龍) 자 이름을 붙여서 오룡(五龍)이라 하였다. 그 마을 이름은 용소마을(첫째 아들 용), 반룡마을(둘째 아들 용), 기룡마을(셋째 딸 용), 개천마을(막내딸 용), 대룡마을(엄마 용) 등으로 부르고 있다.

옛날 다섯 용이 살던 대룡마을은 물 좋고 땅이 기름져 대대로 풍요롭게 사는 전통 마을이었다. 신라시대부터 사람이 살았던 명당지로 2009년에 '살기 좋은 마을'로 선정되어 '마을 복합전시관'과 '역사박물관' 그리고 살아온 삶의 마을 축제 행사로 한국 전통 마을 모습을 세계에 알리고 있다.

*주영택, 『부산, 전승 설화를 찾아서』, BNK부산은행, 2015, 305~306쪽.

[기장군 설화 36]

용소바위와 장사

매일 밤 자식을 갖게 해달라며 소원을 빌던 부부에게 2년 만에 아들이 태어난다. 하지만 두 돌이 지난 후부터 아이의 겨드랑이에서는 날개가 치솟는다. 역적으로 몰려 삼족이 망하게 될까봐 두려운 부모는 차마 아이를 죽이지는 못하고 버리게 된다. 애기 장수를 버린 곳이라 하여 이곳은 '애기소'라고 불리게 된다.

기장의 용소계곡(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서부리)은 옛날 신라의 갑화양곡현(505년)에서 기장현으로 개명되던(757년) 이전부터 우리 조상들이 넘나들던 유서 깊은 관문이다.

이 고갯길은 기장으로 부임해 왔다가 떠나가는 많은 현감과 군수, 그리고 관찰사와 어사 등의 사연이 얽힌 고갯길이기도 하다. 이 용소계곡에 얽힌 전설과 애환이 담긴 사연들은 계곡의 물처럼 변함없이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고 있다.

옛날 기장현에 살고 있던 한 농부 내외는 자식이 없어, 홀로 계시는 어머님 보기가 민망스럽기 짝이 없었다. 그래서 부부는 신의 힘을 빌리기 위해 용소계곡의 성산(성황대) 아래에 있는 참샘을 찾아 공을 드리게 되었다.

매일 밤 개울에서 목욕을 하고 소원을 빌던 이들 부부는 2년 뒤, 신의 계시를 받고 옥동자를 얻게 되었다. 가뜩이나 손자를 기다리던 노모의 기쁨은 어디에도 비교할 수 없이 기뻤다.

금자동아 은자동아 나라에 충성동아
부모한테 효자동아 동네방네 소문동아
어느 날로 너를 키워 자찬 옷을 입혀보며
대찬밥을 먹여 볼거나
얼씨구 절씨구 지화자 좋네

이렇듯 밤낮으로 손자를 어르는 노모의 즐거움은 이웃을 감동시키고도 남았다. 효심이 강했던 농부 내외는 이에 힘입어 열심히 일했다. 노모는 손자를 돌보며 가정을 도왔다.

마냥 즐겁고 행복한 이 가정에 불운이 닥친 것은 어린 아이가 두 돌이 지난 무렵이었다. 호사다마(好事多魔: 좋은 일에는 탈이 많다)란 말이 있듯이 방긋방긋 재롱을 피우면서 기어 다니던 어린아이의 겨드랑이에서 날개가 치솟고 있는 것이 아닌가. 사람의 겨드랑이에서 새처럼 날개가 나는 것은 기이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이 일은 이웃에서 이웃으로 번지기 시작했고, 촌노들은 이 사실을 나라에서 알면 삼족을 멸할 것이라고 했다. 그것은 이 아이가 자라 큰 장수가 되어 임금에게 도전하는 역적이 된다는 말이었다.

농부 내외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다고 천신만고 끝에 얻은 자식을 죽일 수도 없었다. 그것은 천륜을 어기는 죄악이었다. 하지만 그냥 있다가 나라에서 알게 되는 날엔 친족은 물론, 외족, 처족의 식구들 모두가 멸족의 화를 면할 수 없지 않은가. 자기들에게는 귀중한 자식이

지만, 이 때문에 많은 사람이 희생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었다. 생각다 못한 농부 내외는 자식을 버리기로 결정한다.

검은 구름이 하늘을 가득 덮고 있던 한여름 밤중이었다. 노모가 잠든 틈을 이용해 농부는 아들을 안고 용소계곡에 올랐다. 뒤따라 나와 몸부림치며 통곡하는 아내를 뒤로하고, 농부는 계곡 위로 올라가 웅덩이 옆의 큰 바위에 아들을 내려놓았다. 새근새근 잠들어 있는 어린 자식을 두고 돌아서는 농부의 발길은 쉽사리 떨어지지 않았다. 그것도 산골 깊숙한 계곡, 뭇 짐승들이 설치는 곳에 단 하나뿐인 혈육을 버리고 뒤돌아서 내려오는 농부의 심정은 인간으로서 본의를 완전히 잃고 있었다. 흐르는 눈물을 닦고 휘적거리면서 계곡 길을 따라 내려오고 있었다.

얼마나 왔을까. 자식을 얻으려고 오색 헝겊을 걸어두고 밤마다 산신령님께 기원하던 참샘이 떠올랐다. 농부는 참샘을 찾아 하소연했다.

"산신령님 왜 이렇게 저에게 엄청난 시련을 주시나이까. 하필이면 삼족을 멸한다는 자식을 주셨나이까. 산신령님이 주신 아이를 오늘 본의 아니게 용소골에 버리고 가오니 산신령님께서 거둬 주시기를 두 손 모아 비나이다."

농부의 말이 떨어지자 갑자기 시퍼런 번갯불이 온 계곡을 환하게 비춤과 동시에 하늘이 찢어지는 천둥소리가 온 천지를 울리면서 장대 같은 소나기가 마구 쏟아지기 시작했다. 농부는 참샘을 떠나 개울에 있는 징검다리로 향했다. 몇 개나 건넜을까. 그 순간 '아버지!'하는 소리가 하늘에서 들렸다. 농부는 징검다리 위에서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쳐다보았다. 거기에는 그의 아들이 양 날개를 펄럭이며 하늘로 올라가고 있지 않은가.

농부는 두 팔을 벌려 빗속으로 사라져가는 아들의 이름을 마구 부르다 개울에서 실신해 넘어졌다. 그 순간, 큰 굉음은 성산정에 있는 큰 바위를 때려 산산이 부수었다.

그런데 옛 기장군지에 다음과 같은 글이 있어 흥미롭다.

기장의 우백호산(右白虎山)은 성산인데 이 산 위에 큰 바위가 마을 쪽을 내려다보고 있어 사람들은 언제 바위가 굴러 내려올지 몰라 성산에 사는 것을 거리며, 다른 곳으로 이사하기 일쑤였다. 그런데 어느 날 밤, 번개가 치고 큰 비가 쏟아질 때 이 높다란 바위는 번개에 맞아 산산이 부서져 벼락바위골(용소골 왼쪽 계곡)로 떨어져 돌더미를 이루게 되었다.

어쩌면 앞선 전설을 뒷받침이라도 하는 것 같다. 그 후 농부가 아이를 갖다 버린 웅덩이를 애기소(沼)라 부르고 있다.

*주영택, 『부산, 전승 설화를 찾아서』, BNK부산은행, 2015, 307~311쪽.

2) 남구 설화

[남구 설화 1]

무혼굿을 담은 이기대

임진왜란 때, 기시와 고이소는 남이와 경아 자매를 포함한 조선 기생들과 주색을 즐겼다. 왜군들이 육욕에 빠진 틈에 자매는 기시, 고이소와 함께 바다에 뛰어들었다. 주민들은 그녀들의 시신을 수습해 무덤을 만들었고, 이후 그들을 추모하는 무혼굿을 했던 곳을 이기대라 부르게 됐다.

조선 중기 선조 때, 남이와 경아라는 기생 자매가 있었다. 두 기생은 용호동의 주민들에게 철따라 농사짓는 법, 홍수와 가뭄을 대비하여 관개시설을 만드는 법을 가르쳐서 해마다 풍년이 들게 했다. 농번기가 끝나면 물때를 정확히 맞추어 바다에 나가 그물을 치게 하여, 주민들은 바다에 나가면 언제나 만선으로 돌아 왔다. 그리고 해풍에 약발이 오른 초목으로 병든 마을 사람들을 치유하기도 하였다. 또한 밤이면 마을 사람을 모아 글을 가르치니, 두 기생은 마을의 촌장이자 의사이며, 신처럼 여겨졌다.

그녀들은 임진왜란 첫날인 1592년 4월 13일 밤, 동산에서 목숨을 걸고 왜구를 정탐하고자 했다. 그런데 개의 울음소리에 왜병들이 산 위까지 올라오자, 그들은 숨을 곳을 찾아 해맸다. 그렇지만 추격자는 발 빠른 일본 병사들이었다. 그녀들은 비탈길 옆 작은 석굴을 발견하고 숨어들었다.

왜병들의 움직임에 개는 석굴 앞에서 계속 짖었다. 왜병들은 동굴을 향해 여러 번 무어라 고래고래 고함을 내질렀다. 왜병이 가까이 올라오자 누렁이가 달려들며 달빛에 하얀 이빨을 빛냈지만, 총소리만 공허하게 메아리쳤다. 이후 더 이상 누렁이의 짖는 소리를 들을 수 없었다. 왜병들은 낄낄대며 동산말 아래로 내려갔다.

남이와 경이 자매는 서로를 꼭 껴안은 채 적막에 잠긴 석굴에서 기어 나와 목숨을 구했다. 이 석굴을 각시당이라 한다. 4월 13일에 제를 올리고 주민들이 배를 진수하면, 오방색과 흰 소복을 만들어 각시당에 바치며 바다에서의 무사를 빌었다.

왜군은 단숨에 부산진성을 점령하고 왜관의 도움으로 별 어려움 없이 수영성까지 닿았고, 수영성을 함락시킨 후 군을 재정비하였다. 전투부대는 북진하였다. 수영성에서 점령지를 관할하는 기시(岸) 대장과 고이소(小磯) 부대장은 성격이 포악하고 주색을 즐기는 이들이었는데, 침략군에 빌붙는 몇몇 관리들은 이들에게 아부하기에 바빴다.

점령지가 평정되고 주민들도 생업을 위해 돌아가자 고이소는 왜관 통역관과 조선 관료 몇몇을 불러들여 경치 좋은 곳을 물었다. 통역관은 금정산을 추천하였으나, 의심이 많은 기시는 산보다 툭 트인 바닷가를 선호하였다. 결국 일본을 바라볼 수 있는 장자산 해안가를 추천하였다.

기시와 고이소는 부관과 오장 등 몇 명을 대동하고 조선 기생 5명과 악기를 다루는 일본 기생 3명과 배를 타고 장자산 해안 장바위에 정박하였다. 장바위에서 백여 보 떨어진 넓은 반석에 자

리를 마련하여 여흥을 즐기던 왜병들은 취기가 오르자 짐승 같은 짓을 서슴없이 저질렀다.

조선 기생들이 이렇게 무례한 일을 처음 당해보는지라, 왜병의 행동에 모멸감을 느껴 치를 떨었다. 기생들이 반항할수록 술에 취한 왜병들은 미쳐 날뛰며 욕구를 충족하려 하였다. 경치 좋은 이곳에서 성전의 축하 잔치가 무르익을수록 더욱 집요하게 왜병들은 기생을 껴안고 바위틈으로 숨어들었다.

기시 대장과 고이소 부대장은 신라의 안압지처럼 공룡(恐龍)의 발자국에 바닷물을 넘치게 하여 술잔을 띄우며 즐겼다. 두 기생이 주는 대로 마시다 보니, 두 사람은 기생의 부축이 있어야만 간신히 걸을 수 있을 정도로 대취하였다.

기시와 고이소는 남이와 경아 자매 기생의 부축을 받아 동해 바다를 바라보며 오줌을 누었다. 그들이 한참 볼일을 보고 있을 때 두 기생은 치마를 풀어 왜장의 얼굴을 감싸고 그들과 함께 바닷물 속으로 뛰어들었다. 한 조선 기생이 오장 요나이(米內)에게 추행당하면서 이 광경을 보았다. 두 기생이 왜장과 함께 빠졌던 바다에는 파도소리만 들렸다.

*주영택, 『부산, 전승설화를 찾아서』, BNK부산은행, 2015, 129~130쪽.

[남구 설화 2]

신선대와 뒷집 꼬맹이과부보살

신선대는 산봉우리 무제등의 큰 바위에 신선의 발자국과 신선이 탄 백마의 발자취가 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최치원은 이곳의 아름다운 경치에 반해 '신선대'라는 각자를 무제등에 남겼다고 한다. 이곳 신선대에는 신선이 된 어느 노인에 대한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

신선대(神仙臺, 부산시 지정 기념물 제29호)는 부산 남구 용당 해안의 맹물(물 흐름이 빠른 곳) 끝에서 옛 동명목재와 솔밭이 자리했던 현 신선대 부두까지의 해안 절벽과 대붕산 정상 일대를 말한다.

신선대란 이름은 이곳 산봉우리 무제등의 큰 바위에 신선의 발자국과 신선이 탄 백마의 발자취가 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최치원이 해운대에서 신선대로 가 보니 이곳 경치가 너무 아름다워 발걸음을 멈춰 '신선대(神仙臺)'라는 각자(刻字 : 새긴 글자)를 무제등에 남겼다고 한다.

신선대에는 희귀목인 보리수나무가 자생했다. 보리수나무의 열매가 익는 7월경이면 나무를 하러 가서, 신선이 감흥에 젖을 만큼 알이 크고 단 보리밥 열매를 따 먹었다고 한다.

이러한 신선대에 얽힌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대연동 지역에 전해지고 있다.

경상도의 어느 강가 마을에 아내와 사별한 홀아비가 아들 부부와 함께 살았다. 그는 품성이 착한 호인이었으나 야간 어수룩하였다. 그는 가난하였지만, 열심히 일을 하여 아들을 장가보냈다.

그런데, 며느리는 영악했다. 그녀는 반푼 같고 밥만 축을 내는 시아버지가 보기 싫어, 시아버지를 집에서 내보낼 생각을 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인생무상을 느낀 시아버지는 며느리에게

"얘야, 내가 글을 모르니, 네가 알고 있는 염불을 가르쳐 줄 수 없겠니?"

라고 말하였다.

며느리는

"저도 염불을 아는 것이 없으니, 절에 가서 스님께 배워서 가르쳐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마침 뒷집에 살고 있었던 땅꼬마 과부가 담 너머 보이기에 무릎을 치며 시아버지에게 달려가서 '뒷집꼬맹이과부보살'이라는 염불을 외게 하였다.

그는 염주를 하나 만들어 돌리며 '뒷집꼬맹이과부보살'하며 하루 종일 염불을 외웠다. 그러자 며느리는 그의 남편에게

"여보! 요즘 아버님이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뒷집꼬맹이과부보살'이라는 염불만 외고 있으니 남세스러워서 살 수가 없어요."

라며 불평을 하였다. 이것도 한두 번도 아니라 매일 잔소리처럼 하자, 아들은 할 수 없이 고려장을 하지 않고 작은 배를 만들어 늙은 아버지를 양식과 함께 싣고 강물에 띄웠다.

작은 배는 며칠 동안이나 강을 타고 내려와 바다를 건너 신선대에 닿았다. 혼자가 된 아버지는 신선대 근처의 동굴에 살며 해산물과 산에서 나는 나물과 열매 등을 채취하여 생활하였다. 그리고 새벽부터 해가 기울 때까지 신선대의 무제등에서 망망대해를 바라보며 며느리가 가르쳐준 염불인 '뒷집꼬맹이과부보살'을 종일 외웠다.

지성이면 감천이라 했던가. 하늘이 그의 지극한 정성을 알고, 그에게 만물을 통달하는 지혜를 주었다. 그는 새들이나 동물들과 이야기까지 나누게 된 도인이 되었다.

어느 날 나무를 하러 온 사람이, 까마귀 두 마리가 음식을 물어다가 도인에게 가져다주고 도인은 자기에게 다가온 다른 동물에게 나누어 주고 마지막 남은 한 점을 자신이 먹는 것을 보았다. 나무꾼이 그에게 다가가서 이야기를 나눠보니, 세상의 이치를 모르는 것이 없고, 천상의 이야기까지 해주니 예사 노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 사람은 이내 그가 도인이나 신선이라고 여겼다.

그는 마을에 내려와

"신선이 나타났는데, 세상의 이치를 모르는 바가 없고 병도 고쳐준다고 하더라."

라는 소문을 냈다. 많은 사람들은 신선이 된 노인을 보려고 신선대에 몰려왔다.

이 소문이 멀리까지 퍼져 결국 노인의 고향 마을까지 전해졌다. 아들과 며느리도 이 이야기를 듣고 퍽 흥미를 느껴 신선을 보려고 몇 날 며칠을 걸어 그곳에 당도했다. 그들이 신선대에 닿아 도인을 자세히 보니, 한때 자기들이 모자라는 사람이라고 괄시하여 배를 띄워 내다버린 자기의 아버지가 아닌가? 그들은 아버지에게 무릎을 꿇고 엎드려 불효한 죄를 용서해달라고 빌고 그의 제자가 되었다.

어느 날, 하늘의 천제(天帝)가 하늘 잔치를 열고 신선대의 도인을 데려가기 위해 천마(天馬)를

내려 보냈다. 신선대 하늘 위에서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들리더니 하늘에서 천마가 내려왔다.

지상에서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도인의 얼굴에서 갑자기 광채가 났다. 말을 타려고 발을 내디딘 바위에 발자국이 새겨졌고, 백마가 울부짖으며 그를 태워 하늘을 날 때의 발자국도 함께 바위에 남게 되었다. 그는 신선이 되어 하늘로 올라갔다. 그런 일이 있은 후, 어느 때부터 신선이 염불을 외며 도를 닦았던 대붕산(大鵬山) 일대가 신선대라고 불리게 되었다.

또한, 신선대의 서쪽 해상에는 자그마한 탕건바위가 있는데, 백마를 타고 옷자락을 휘날리며 하늘로 올라가던 신선의 머리에 쓰고 있던 탕건이 벗겨져 태종대 앞바다에 떨어지면서 돌덩이로 변해 탕건바위가 되었다고 전해진다.

*주영택, 『부산, 전승설화를 찾아서』, BNK부산은행, 2015, 133~136쪽.

[남구 설화 3]

부산 밀면

피난민의 향수를 자극하는 고향 음식으로 전해지는 밀면은 어느새 부산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맛본 음식이 되었다. 배고픈 사람의 배를 채워주고, 가격 또한 저렴했던 밀면은 부산을 떠나도 반드시 생각나는 음식으로 우리 곁에 자리 잡았다.

부산항의 끝머리 부분에 해당하는 7·8부두 뒤편으로 부산 남구 우암동이 있다. 우암포구에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소처럼 생긴 바위가 마을을 지키며 서 있어서 우암(牛岩)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전해진다.

일제강점기 때 이곳은 '아카사키(적기)'로 불렸는데, 소들을 검역하고 일본으로 연 4만 마리, 조선소 80%를 반출하는 검역소와 소막사 40동이 있었다.

1945년 광복 후 일본에서 돌아온 귀환 동포들이 살 곳이 없자 임시로 소막을 주택으로 개조하여 생활하고 있었다.

1950년 6·25전쟁으로 피난민들이 우암동에 몰려들면서 인구가 급증하기 시작했다. 피난민들은 소막을 개조하거나 판잣집을 지어 살았으며, 공동묘지가 있는 산으로까지 주거하였다.

피난민 중 여성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주로 행상을 하였는데, 시장 좌판이나 노점에서 먹거리 장사를 하기도 하고, 먹거리를 만들어 피난민 수용소나 군부대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팔기도 하였다.

북쪽의 피난민을 대상으로 장사하기에는 북쪽의 음식이었던 냉면이 제격이었지만, 냉면은 부산 토박이들에게는 어울리지 않았다. 그러던 와중 함경도 홍남 내호에서 냉면집을 하던 친정 어머니와 함께 피난 온 정한금 씨가 1952년 우암동에 '내호냉면' 가게를 열면서 부산의 밀면이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내호냉면의 정한금 씨도 홍남에서 했던 냉면 장사를 시작했다. 변변치 않아 식탁이 있을 리 없었으니 나무로 된 박스를 엎어서 사용하였고, 사기 대접 몇 개를 얻어서 냉면을 말아서 팔았다. 그러나 생각한 만큼 냉면이 잘 팔리지가 않았다. 피난민들은 제외하고서라도 부산 토박이들이 냉면을 잘 먹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생각한 꾀는 냉면과 국수 장사를 같이 하는 것. 냉면은 피난민에게, 국수는 경상도 사람에게 파는 두 가지 방식을 취하였다.

이 때, 적기의 피난민들에게 구호 식량으로 밀가루가 배급되었다.

미국은 전쟁 기간 동안 한국인의 식량난을 해소하고, 사회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 농산물을 원조하였는데 대표적인 원조식량이 밀이었다. 이러한 원조는 미국 잉여 농산물의 재고량을 줄이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 굶주림에 지친 피난민들에게 식량 원조는 그 자체로 희소식이었지만, 막상 밀가루를 받고 보면 북한 사람의 음식 재료로는 맞지 않았다.

정한금 씨도 밀가루를 받았지만 북쪽에서는 수제비를 잘 먹지 않았던 탓에 별로 쓸모가 없었다고 한다. 그렇다고 아까운 식량을 버릴 수도 없는 일. 거기다 냉면에 들어가는 전분은 비싸거니와 구하기도 쉽지 않았으므로 밀가루를 섞어서 냉면을 만들어 보기로 했다.

밀가루만으로 냉면을 만들었더니 면발에 힘이 없고 뚝뚝 끊어졌다. 수차례 실험을 한 끝에 밀가루와 전분을 3:1의 비율로 혼합해보았다. 쫄깃하면서 고소한 맛이 나는 것이 진미였다. 내친 김에 정한금 씨는 이 새로운 냉면을 손님들에게 팔기 시작했는데, 이를 먹어 본 사람들은 누구나 좋아했다.

원래 정한금 씨는 이 냉면을 밀가루가 들어간 냉면이라 해서 '밀냉면'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그러나 성질이 급한 부산 사람들은 '밀냉면'을 줄여서 '밀면'으로 불렀다. 이처럼 밀가루와 전분이 적당히 섞인 밀면의 탄생은 시대가 만들어낸 사회상과 사람들의 입맛과 선택이 버무려진 결과의 산물이다.

6·25 전쟁 통에 생긴 '짝퉁 냉면'인 '밀면'은 부드럽고, 배고픈 사람의 배를 채워주고, 가격은 저렴했으며(1952년 당시 10~20원), 맵고 새콤한 향토 음식으로 부산 사람의 성향을 닮아 인기가 많았다고 한다.

밀면은 피난민의 향수 어린 고향 음식으로부터 전해져 왔지만 이제는 밀면을 맛보지 못한 부산 사람이 드물 정도로 부산을 대표하는 음식이 되었다.

2013년, 부산 밀면집은 340여 곳이며, 냉면집은 80여 곳이나 된다.

*주영택, 『부산, 전승설화를 찾아서』, BNK부산은행, 2015, 141~143쪽.

[남구 설화 4]

부산 유엔묘지의 탄생

유엔묘지에는 6·25전쟁 참전 전시자들이 잠들어 있다. 스물 살을 밑도는 젊은이들, 꽃다운 나이에 부모 슬

하를 떠나 한국을 지켜주던 그들의 넋이 잠들어 있는 곳이 바로 유엔묘지다. 이곳은 유엔 평화 문화 특구로 2010년 지정되었으며, 세계 평화를 염원하는 곳으로 많은 이들이 찾고 있다.

6·25전쟁(1950년)의 낙동강 방어 전선은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져 일진일퇴(一進一退 : 나아갔다가 물러섬)가 여러 번 거듭되었다.

소나기처럼 퍼붓는 포화 속에서 미군 부상병은 후방 육군병원으로 호송되었다. 치열한 공방전에서 전사자가 생기면 가매장한 후 그 자리를 자세하게 표시한 도면을 후방 제8군 직속 영현중대에 보냈다. 미군 장병들이 목에 걸고 다니는 독택(개패, 이름과 군번이 찍힌 알루미늄제)의 군번만 확인되면 군적부(軍籍簿)는 완벽했다. 거기에는 피부, 머리, 눈동자 색깔 등 수십 가지 개인 특징과 함께 이빨자국까지 뚜렷하게 새겨져 있었다.

낙동강 진선 현장에서 공산군 시체는 개, 돼지처럼 들판과 산에 내팽개쳐져 파리 목숨이었다. 이들 시체더미 속에서 차마 눈뜨고 바라볼 수 없는 처참한 죽음들이 있었다. 미군을 겨냥해서 고정시켜 놓은 기관총좌에 쇠사슬로 두 발목이 묶여 있는 나이 어린 공산군 병사의 죽음들이었다.

창녕군 남지읍 낙동강변 모래밭에는 총을 거머쥔 채 수십 명 소녀들이 붉은 머리를 동여매고 죽어 있다. 이들의 광경은 '인민해방' 어쩌고 하는 알량한 구호로 까탈을 부린 천인공노(天人共怒)할 연출 현장이었다.

1950년 10월 중곤군이 6·25전쟁에 개입하고 유엔군이 다시 서울을 포기하는 1·4후퇴를 하자, 유엔군 사령부는 한반도를 포기하고 제주도에 자리를 잡는 시나리오를 고려하여 부산 유엔묘지를 조성하기 시작하였다. 미군 1개 중대 150명, 한국인 통역 20명과 근로자 300명, 북한군 포로가 매일 400명씩 투입되어 대연동 언덕바지 논밭에 성스러운 유엔묘지가 만들어졌다.

1951년 1월 개성, 인천, 대전, 대구, 밀양, 마산 등지에 있었던 6개소의 묘지로부터 유해를 부산 유엔묘지로 이장해 공원을 조성하였다.

오늘날 지구상에서 하나뿐인 부산 유엔묘지에는 6·25전쟁에 참전한 21개국 나라의 국기가 유엔 깃발과 함께 휘날리고 있다. 유엔묘지 안 각국의 깃발 밑에는 나라별로 6·25전쟁 참전 전사자들이 고이 잠들어 있다.

전사자 묘비를 살펴보면 스무 살을 밑도는 젊은이들, 꽃다운 나이에 부모의 슬하를 떠나 한국을 지켜주다 피를 흘리며 쓰러져 간 젊은 넋들이라 눈시울이 절로 뜨거워진다.

어느날 소복한 부인 일행이 정비 작업이 한창인 유엔묘지를 찾아왔다.

"남편의 전사통지를 받기는 했으나 유골은 받지 못했다. 내 남편의 유골은 어디 있느냐"

하고 울먹이며 육군 본부를 찾았으나 시원한 답이 있을 수 없었다.

당시 유엔묘지를 조성할 때 현장지휘자를 맡았던 손점룡이란 자가 태극기가 나부끼는 묘역을 훑어 나갔다. 그러던 중 한 묘비 앞에 멈춰섰다. 동시에 입에서는 환성이 터져 나왔다.

"아주머니! 여기 있습니다."

"네."

그 부인은 넋 나간 사람처럼 묘비를 뚫어지게 노려보다가 풀썩 자리에 주저앉더니 서럽게 통곡했다. 이제는 한국군도 영현의 관리가 철저해서 전사하더라도 지뢰나 폭탄으로 산산조각이 나지 않는 한 유해는 온전히 모셔지게 되어 있다.

1952년 12월 유엔묘지 단장 공사 입찰이 있었다. 묘지 단장 공사에서는 한 겨울에 파란 잔디를 깔아줄 것을 요구했다. 대부분의 건설회사는

"한 겨울에 잔디를 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라며 공사를 포기했다. 그때 현대건설 정주영은 미군 장교에게 왜 파란 잔디를 주문하는거냐고 물었다. 이에 미군 장교는 유엔군으로 참전한 각 국의 사절단이 내한하여 참배할 계획이라며,

"자유와 평화를 위해 목숨을 바친 자국의 병사들의 유해가 흙바닥에 그대로 묻혀 있는 모습을 본다면 각국 사절단의 실망이 얼마나 크겠는가."

라고 말했다. 그 길로 정주영은 사방에서 트럭 30대를 모아 낙동강 인근 보리밭을 통째로 사서 파란 보리 포기를 옮겨 유엔묘지에 심었다.

미군 관계자들은 한 겨울 녹화에 성공한 유엔묘지를 보고 '원더풀'이란 표현을 연발했다. 이를 계기로 정주영은 유엔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쉽게 수주할 수 있었고, 오늘날 현대그룹 발전의 밑거름이 되었다.

오늘날 세계 유일의 성소(聖所)인 유엔기념공원(유엔묘지)은 유엔 평화 문화 특구로 지정(2010년 정부 지정)되어 대연동에 세계 평화를 염원하는 씨앗의 싹을 틔웠다.

유엔기념공원 언덕에 자리 잡은 유엔평화기념관에는 상설전시관, 기획전시관, 유엔평화센터, 다목적컨벤션홀 등이 갖춰져 있다. 이곳은 전쟁의 참상을 알리고 평화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국제적은 복합문화센터로 많은 이들이 찾고 있다.

*주영택, 『부산, 전승설화를 찾아서』, BNK부산은행, 2015, 145~147쪽.

3) 수영구 설화

[수영구 설화 1]

수영 무민사와 선서바위

- 최영장군 넋 기린 곳서 25의용 결사항전 결의

- 장소 : 부산시 수영구 수영동

고려 말 삼남지방에 왜구의 침입이 잦아 약탈 행위가 극에 달했다. 이때 왜구 섬멸에 큰 공을 세운 이가 바로 최영(1316~1388, 시호 무민·武愍)장군이다.

최영 장군은 1359년(공민왕 8) 양광전라도왜구체복사(楊廣全羅道倭寇體覆使)가 되어 왜선 400여 척을 격파했다. 1376년(우왕 2)에는 노구를 이끌고 홍산(지금의 부여군)에서, 이듬해엔 도통사가 되어 평주에서, 다음 해에는 해풍에서 왜구를 무찔러 서·남해안에 침범한 왜구를 사정없이 격파했다.

부산에는 그의 진충보국(盡忠報國) 정신을 귀감으로 삼기 위해 세운 무민사(武愍祠)나 당제의 주신으로 모시는 곳이 몇 곳 있다. 수영동과 감만동(무민사), 범일동 자성대(사당), 기장읍 석산마을(당산) 등이 그것이다. 제의 날짜는 각기 다르지만 한결같이 왜구의 침탈을 경계하는 마음과 풍어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제의를 엄숙하게 치르고 있다. 참고로 남해 금산에도 무민사가 있다. 전설에 따르면 최영 장군을 살해할 때 목을 쳤더니 그 목이 어딘가로 날아가 버렸는데 그 종착지가 지금의 자리여서 그곳에 사당을 짓고 제사를 받들고 있다고 한다.

무민사는 삼남지방을 노략질하던 왜구를 섬멸한 최영 장군에 대한 당시 주민들의 감사와 존경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는 하나의 징표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좌수영성에 침입한 왜군은 약탈과 살육을 감행했다. 왜군에 맞서 좌수영 수군과 성민 중 25명은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기를 결의했다.

향토 의병결사대인 25의용이 고장을 지키기를 맹세하고 적지가 되어버린 좌수영에서 왜적과 싸울 작전 계획을 세운 곳이 무민사(수영구 수영동 507-9) 뒷벽이고, 이들이 뒷벽 인근 바위에서 죽음을 선서했기 때문에 이 바위는 선서바위로 불린다.

무민사 뒤쪽에 있는 바위(높이 5m·가로 6m·세로 3m) 앞에 모인 25의용은 "싸우면 이겨서 살 것이요, 싸우지 않으면 망하리로다. 나라의 존망이 경각에 있거늘 어찌 삶을 위해 산야로 달아날 것인가. 단 한 번의 죽음으로 나라에 보답하리라"라는 피의 맹세를 선서바위에 한 후 바다와 육지에서 왜적을 상대로 유격전을 펼쳤다.

사람들은 선서바위에 기대며 살고 있는 느티나무를 가림나무로 불렀다. 이 이름은 25의용이 바위에서 맹세하고 왜적과 싸울 작전을 세우는 모임자리를 왜적에게 들키지 않게 가려주어서 이렇게 명명됐다고 전해온다. 지금은 느티나무가 없고 바위 위에 대나무가 무성하다. 일제강

점기 때 가림나무의 벗이 되게 주민들이 소나무를 몇 차례 심어 보았으나 번번이 말라 죽었다고 한다.

수영사적공원에 있는 25의용사(義勇詞·부산시 지정 기념물 제12호·수영구 수영동 366)는 7년 동안 유격전으로 대항한 25의용을 기리기 위해 세운 것이다.

이들 25명의 사적이 세상에 알려진 것은 1609년 (광해군 1) 동래부사 이안눌이 주민의 청원에 따라 25명의 사적을 수집, 정방록에 싣고 그 집 대문에 '의용(義勇)'이라 붙인 데서 비롯됐다. 이후 순조 때 동래부사 오한원(재임 : 1806~1809)은 후손들에게 부역 의무를 면제시켜 주고 글을 지어 포장(褒奬)했다. 1853년(철종 4)에는 경상좌수사 장인식이 수영사적공원에 비를 세워 의용단이라 이름하고 재실을 지어 봄 가을 두 차례에 걸쳐 제향을 봉행했다.

임진왜란 당시 좌수영 선인들은 목숨을 바쳐 내 고장을 지켰다. 왜구를 무찌른 최영 장군의 사당인 무민사를 향해 죽음을 맹세한 25의용을 가려 준 가림나무와 25의용의 충절을 입증하고 있는 선서바위는 그들의 유산으로 살아 숨 쉬며 그날을 대변하고 있다.

*주영택, 『부산의 전설 보따리』, 가마골향토역사연구원, 2013, 165~168쪽.

[수영구 설화 2]

울릉도를 수탐(搜探)한 안용복 장군

- 죽음 무릅쓰고 일본에 '조선땅' 확인받아

- 장소 : 부산시 수영구 수영동

안용복(安龍福)은 조선 숙종(재위 : 1675~1720) 때 수영사람으로 편모슬하에서 자란 서민 출신이나 재주가 뛰어났다. 초량왜관에 다니면서 일본말을 배웠고 경상좌수영 수군이었을 땐 노를 잘 저어 노군총관이 되었다.

1693년(숙종 19) 봄 안용복은 동래·울산 어민 40명과 함께 울릉도 부근으로 고기잡이를 나섰다가 그곳에서 호키슈 오타니 가문의 어부들과 만나 울릉도 영유권을 놓고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동료 박어둔과 함께 인질로 잡혀가 "울릉도는 우리 영토다. 너희들이 함부로 고기잡이하는 것을 묵과할 수 없다"고 호기슈 태수에게 목숨을 걸고 항변했다. 에도막부로 이양돼 갔을 때도 비슷한 항의로 막부로부터 울릉도가 조선 영토임을 승인하는 외교문서를 받아냈다.

하지만 귀환 길에 안용복은 대마도주에게 외교문서를 빼앗기고 50여 일을 갇혔다가 초량왜관으로 이관돼 40여 일 더 구금됐다. 이후 동래부사에게 인도된 뒤에도 치사는커녕 승인 없이 월경했다 하여 되레 형벌을 받았다.

안용복은 1696년 봄 이인성 등 10명과 함께 두 번째로 울릉도로 갔다가 도둑질하는 일본 어선을 추격하다 옥기도로 자진해 들어갔다. 그는 옥기도주를 만나 울릉도와 독도의 감세장(監

稅將)이라 속이고 "왜인들이 다시 울릉도 근처에서 조업을 하면 가차 없이 죽이겠다."고 경고했다. 이후 호키슈 태수와 담판을 벌인 후 이인성으로 하여금 막부에 상소를 올리게 해 마침내 다시는 침범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받았다.

강원감사 심평은 양양으로 돌아온 안용복 일행을 국경을 넘은 죄로 체포, 서울로 압송했다. 조정에서는 울릉도를 골칫거리로 만들었다 하여 사형하려 했으나 영의정 남구만 등의 변호로 안용복은 겨우 목숨만 면하고 귀양을 가게 됐다. 이듬해인 1697년 대마도주는 자신들의 잘못을 사과하고 울릉도를 조선 땅으로 확인한다는 막부의 통지를 보냈으나 안용복의 죄는 풀리지 않았다.

하지만 안용복에 대한 평가는 여러 곳에서 확인된다. 영조 때 대학자 성호 이익은 저서 '상호사설'에서 "안용복은 참 영웅이다. 한 천한 군졸이 죽음을 무릅쓰고 국가를 위해 강한 적과 싸워 나라를 지켰건만 조정은 큰 상을 주지 않고 도리어 죄를 주어 귀양을 보냈으니 참으로 애달픈 일이 아니겠는가."라고 한탄했다. 정조 때 편찬된 '증보문헌비고'에는 '왜국이 울릉도의 섬들을 자기네 땅이라고 두 번 다시 말하지 않게 된 것은 오로지 안용복의 공이다'라고 적고 있다.

한편 조정에서는 안용복 사건 이후 영토수호 차원에서 울릉도를 관리해야 할 필요성을 느껴 1694년부터 삼척첨사 장한상을 울릉도 수토사(搜討使·수색하고 토벌하고 종4품 벼슬)로 파견, 3년마다 정기적으로 섬을 관리하게 했다. 이는 1884년까지 70회 정도 수토했다고 추정된다.

권력도 금력도 없었으나 단지 국토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일본으로 뛰어들어 영유권을 확인하는 유공자인 안용복. 상 대신 벌을 웃으며 받아들인 안용복 덕분으로 오늘날 울릉도와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로 건재하고 있는 것이다.

안용복은 느닷없이 장군이 됐다. 이는 1954년 부산의 대동문교회(안용복기념사업회의 전신)가 홀로 울릉도와 독도를 지켜냈다고 해서 '독전왕(獨戰王) 안용복 장군'으로 불렀기 때문이다. 그들은 부산시민의 뜻을 모아 수영사적공원에 수강사(守疆祠)를 건립하고 동상과 충혼탑을 세워 매년 4월 18일 제사를 지내고 있다.

울릉도 수토사와 관련한 기이한 수토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다.

울릉첨사는 강원도 울진 평해군수 또는 월송(평해읍 월송2리)만호가 겸임하여 수토사로 매 3년에 한 번씩 토벌하러 갈 때에는 위의(威儀)를 갖추어 구산동사(邱山洞舍)에서 바람을 기다려 동북간을 향하여 출발, 순풍을 만나면 2일 후면 다다를 수 있었다.

한 때 평해군수가 수탐하기 위해 울릉도에 들어갔다가 수토를 끝마치고 다시 배를 타고 섬을 떠나려고 하는데, 담뱃대를 숙소에 두고 온 것을 알았다. 군수는 사환을 시켜 숙소에 있는 담뱃대를 찾아오게 하였더니, 오랜 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아 사방으로 찾아도 행적을 알 수 없었다. 군수는 어쩔 수 없이 담뱃대를 찾지 못하고 배를 타고 돌아갔다.

3년 후에 군수가 다시 울릉도로 수토하러 갔더니 담뱃대를 주는 것이었다. 군수는 잃어버렸다고 생각한 담뱃대를 찾아 기쁘기도 하지만 놀랍기도 하였다. 군수는 사환에게 그 동안의 일을 물어 보았다. 사환은 군수가 놓고 간 담뱃대를 찾아 가지고 성황사가 있는 길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한 소녀가 나타나서 사환의 허리를 안고 놓아주지 않더라는 것이었다.

결국 그 소녀와 함께 동거한 지가 3년이 되었다고 했다. 그 사환은 수국이 대륙보다 생활하기 편하다고 하며 담뱃대를 돌려주고는 갑자기 사라져버렸다. 군수는 정신이 어질어질하여 사람인지 귀신이지 분별할 수 없었다.

*주영택, 『부산의 전설 보따리』, 가마골향토역사연구원, 2013, 183~187쪽.

[수영구 설화 3]

효자 며느리와 은혜 깊은 호랑이

어느 착한 며느리가 눈 먼 시아버지를 살고 있었다. 며느리는 우연히 호랑이의 목구멍에 끼어 있던 짐승의 뼈를 뽑아주었고 그것이 인연이 되어 호랑이의 도움을 받았다. 후에 호랑이가 사람들이 파 놓은 함정에 빠졌는데, 그들의 따듯한 우정을 알게 된 사또는 후한 상금을 내리고 사람들이 호랑이를 잡지 못하도록 했다고 한다.

옛날 수영구에 마음씨 착한 처녀가 살고 있었다. 나이가 차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시집을 가보니 시아버지는 앞을 못 보는 맹인이었고, 일찍이 시어머니와 사별한 후 외아들과 함께 겨우 끼니를 이으며 어렵게 살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가난한 집의 며느리가 되어 시아버지를 봉양하고 남편을 보필하며 가정을 꾸려나가야 했다.

가난한 생활이었지만 며느리는 지극한 노력으로 남의 집 일도 해주고, 남편도 품팔이를 하여 그런대로 행복한 생활을 해 나갈 수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산에 나무하러 가서 발을 헛디뎌 깊은 계곡에 빠져 저 세상으로 가고 말았다. 그러고 보니 이제 앞 못 보는 시아버지와 며느리, 이렇게 가난한 두 식구만이 오막살이에서 어려운 생활을 해야 하는 형편이었다.

이 소식을 들은 친정에서는 딸에게 몇 차례나 회유를 하였다. 남편도 죽고 없는데, 홀아비 시아버지를 모시고 가난하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개가를 하여 새로운 삶을 찾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것이었다. 그러나 아무리 가난하게 살지만 한 번 시집을 갔으니 이 집의 식구가 된 것이고, 비록 어려운 살림이지만 눈 먼 시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것이 자기에게 주어진 가장 큰 일이라고 생각하고 며느리는 딴 마음을 먹지 않았다.

여러 번 권고를 해도 마음을 고쳐먹지 않자, 친정에서는 어렵게 살면서 고생하는 딸의 처지를 더는 두고 볼 수가 없어 강제로 개가시키기로 결정을 하고 그녀를 불러 설득하기로 했다. 그래서 어느 날 친정아버지가 위독하다고 거짓으로 전갈을 보냈다. 이 소식을 들은 며느리는 자기가 없는 며칠 간 시아버지가 먹을 음식이며 옷가지를 장만하여 두고 시아버지께 친정에 다녀오겠다는 말을 하고 집을 나섰다.

친정은 높은 산을 서너 차례 넘어가야 하는 제법 먼 곳이었다. 한 고개를 넘으려니 어느덧 날이 저물어 길을 가기가 어려운 처지가 되었는데, 어디서 '어흥'하면서 호랑이 한 마리가 나타났다. '이제 죽었구나'하고 체념하고 있는데, 의외로 호랑이는 사납지 않았다. 그리고 며느리한테

다가와서 입을 벌리며 끙끙대는 것이었다. 며느리가 자세히 보니 호랑이의 목구멍에 짐승의 뼈가 끼어 있었다. 그래서 호랑이가 고통스러워한 것이었다. 목에 낀 뼈를 뽑아주자 호랑이는 매우 좋아했다. 그리고 등을 돌려대며 타라는 시늉을 하는 것이었다. 먼 길을 가야하기 때문에 며느리는 호랑이의 등에 올라탔다. 그랬더니 얼마 있지 않아 친정집 문 앞에 내려다주는 것이었다.

친정집에 들어가 보니 친정 식구들 모두 그녀를 대단히 반겨 주었다. 음식을 먹은 후에 아니나 다를까 친정 부모들은 그녀에게 좋은 혼처 자리에 개가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했다. 그러나 그녀는 조금의 흔들림 없이 혼자 두고 온 시아버지만 걱정을 했다. 그리고 나서 친정 식구들이 잠이 든 사이에 살그머니 빠져나와 혼자 계시는 시아버지가 계신 시댁으로 돌아가려 했다. 그런데 밖에 나오니 아까 그 호랑이가 다시 나타나서 등을 갖다 대는 것이었다. 며느리가 호랑이의 등에 올라앉았더니 호랑이는 눈 깜빡할 사이에 시댁의 문 앞에 내려다 주었다.

돌아온 며느리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시아버지를 잘 봉양하고 전처럼 남의 집 일을 해주러 다녔다. 그래야 시아버지를 굶기지 않고 잘 봉양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친정에서도 하는 수 없다고 여기고 그녀의 개가를 포기하고 말았다. 좋은 혼처 자리도 없었던 일로 하기로 한 것이다. 그 후로도 호랑이는 며느리의 집에 와서 자주 자고 가곤 했다 한다.

며칠이 지나 어느 날, 읍내의 한 공터에 호랑이 한 마리가 함정에 빠져 죽게 되었다는 소문이 떠돌았다. 아니나 다를까 이 며느리가 어느 날 밤에 꿈을 꾸니, 그때 자기를 태워준 그 호랑이가 나타나서 자기가 사람들이 파 놓은 함정에 빠져 죽게 되었으니 살려달라고 했다. 며느리는 곧장 읍내로 달려갔고, 과연 호랑이가 함정에 빠져 있었는데 아직 죽지 않았으므로 겁이 난 사람들은 그 호랑이에게 접근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그 며느리가 나타나서 모인 사람들에게 여기 빠진 호랑이는 자기가 키우던 것인데, 자기가 건져서 데리고 가겠다고 말하고는 그녀가 함정에 들어가 호랑이를 구출하여 나왔다. 이를 본 사람들은 너무나 신기하여 겁을 내면서도 호랑이 가까이로 다가가 여인과 호랑이를 이리저리 쳐다보았다.

이 소문을 들은 그 고을 사또는 이를 이상하다고 여기고 부하들을 시켜 며느리와 호랑이를 불렀다. 그리고 어찌된 영문인지를 물으매 며느리는 자초지종을 이야기해 주었다. 이는 며느리의 도움에 감사하는 것도 있지만, 맹인 시아버지를 모시는 그녀의 효성에 감동한 호랑이가 그녀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었기 때문에 맺어진 따뜻한 우정이었다. 그래서 사또는 며느리에게 후한 상금을 내리고 사람들이 그 호랑이를 잡지 않도록 명을 내렸다고 한다.

집으로 돌아온 며느리는 그 상금으로 눈 먼 시아버지를 잘 모시며 행복하게 살았다.

*주영택, 『부산, 전승설화를 찾아서』, BNK부산은행, 2015, 151~153쪽.

[수영구 설화 4]

민락동의 장두바위

부산 수영구 수영강의 민락동으로 들어가는 어귀에 서 있던 장두바위는 마을의 안강(安康 : 평안과 건강)과 주민의 소망을 기원하던 석신이었지만, 근대화의 물결에 밀려 지금은 자취를 감추었다.

부산 수영구 수영강의 민락동으로 들어가는 어귀에 서 있던 장두바위, 이 바위는 민락동을 수호하는 여러 신(神)들이 모이는 장소인 거릿대 신역(神域) 옆에 꿋꿋이 서 있으면서 주민들의 안강(安康 : 평안과 건강)을 도맡아 주던 바위였는데, 지금은 그 자취를 감추어 버렸다.

근대화의 물결은 우리 조선(祖先 : 조상)들이 지녔던 꿈과 정서를 깡그리 황폐화시켰다. 장두바위도 그 중의 하나다. 이 장두바위는 일 년 중 정월 보름과 시월 보름에 마을 주민들이 정성들여 올리는 골매기 당산제 때, 잡신(雜神)들과 함께 물밥을 얻어먹고는 마을의 안강과 주민의 소망을 기원하던 석신(石神)이었다. 이 석신이 민락동 주민들의 돈독한 신앙의 대상이 된 내력은 이러하다.

옛날 이 마을에 남편 없이 어린 외동아들만 데리고 사는 여인이 있었다. 그런데 어느 하룻날 이 마을에 시주승이 와서 시주를 얻어 가면서 이 외동아들을 보고 수명이 짧을 것이라 했다. 이 말을 들은 여인은 그날부터 마을 앞 바닷가에 있는 골매기 할매당(姑堂)에 가서 정화수를 떠놓고 아들의 장수를 기원했다.

기도드린 지 백일 되던 밤 여인의 꿈에 백발의 노파가 나타나

"나는 이 마을을 지키는 골매기 할매인데, 네 정성이 지극함을 보고 네 아들을 오래 살게 하는 방도를 알려주러 왔다. 그러니 잘 듣고 시키는 대로 꼭 실행하라. 저 마을 입구 모래밭에 가면 두건 형상의 바위가 있을 것이다. 그 바위에 나의 당산제를 지낼 때마다 제물을 올리고 잘 모시면 네 아들은 오래 살게 될 것이다. 그 바위는 내 남편의 두건이다. 내 남편이 산신령의 명을 받고 바다 속 용궁의 용왕을 뵈러 갔다가 어찌된 영문인지는 몰라도 돌아오지 않고 그가 쓰고 간 두건만이 바다에서 솟아올라 바위로 변했다. 그래서 그 바위를 내 남편의 분신으로 생각하고 있으니, 그렇게 알고 그 바위를 잘 삼겨라. 그러면 내가 너의 소원을 꼭 이뤄주마."

라고 하였다.

이때부터 장두바위는 이 마을 사람들의 신앙 대상물이 되었다. 몇 년 만에 한 번씩 풍어(豊漁)를 위해 베푸는 별신굿 때나 가내의 안강을 비는 용왕제를 올릴 때 무당은 이 바위에 가서 꼭 치제(致祭 : 제사를 지냄)하였다.

또, 마을의 여인들도 아들의 점지(點指)나 아들의 장수를 빌 때, 이 바위 앞에 촛불을 켜고 정화수를 떠놓고 빌었다. 이리하여, 장두바위는 민락동 주민들과 생태적 연대감(連帶感)을 형성하고 마을 어귀에 굳건히 서 있게 되었다.

그런데, 이 바위의 생김새가 두건 형상이라고 일반적으로 말하고 있으나, 어찌보면 남근(男根 : 남자의 성기)처럼 보이기도 하였다. 이 점을 고려하면 장두바위를 신성시하게 된 동기는

위와 같은 전설보다는 오히려 성신(性神) 숭배 신앙에서 유래한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성신 숭배 신앙은 범세계적이요, 우리의 조선들도 성(性)을 성(聖)스러운 것으로 생각하면서 성신을 통해 다산(多産)과 풍요(豊饒), 질병 퇴치를 기원하였다.

《삼국지위지동이전》 고구려조를 보면, '10월에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데, 이때가 되면 나라 안에 국민이 단합대회를 열어 동맹(東盟)이라' 했다. 이 동맹 축제 때 나라 동쪽에 있는 큰 굴인 수혈에 온 나라 사람이 모여서 수혈신을 맞고 나라 동쪽 물 위로 돌아가 제사를 지낸다. 이때 나무로 만든 신좌 위에 수혈신을 맞이하여 거행하는 놀이는 성(性)의 종교성에 바탕을 둔 놀이이다. 곧 수혈은 대지모신(坤地母神 : 대지, 생명력 등을 상징하는 여신)의 옥문(玉門)이요, 물은 여성 원리에 속하기 때문에 수혈에서 남근신을 모셔와 물에서 노는 것은 남신과 여신의 교구제의(交構祭儀)를 통한 천신(天神 : 성신)에게 추수 감사와 함께 이듬해의 풍요를 기원하는 온 나라의 제의인 것이다.

이런 성신(性神)에 대한 신앙의 유흔이 곧 장두바위에 대한 신앙으로 남아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 원초적이며 소박한 민간 신앙도 근대화의 물결에 밀려 사라져 버렸으니,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하다.

*주영택, 『부산, 전승설화를 찾아서』, BNK부산은행, 2015, 155~156쪽.

[수영구 설화 5]

도깨비 이야기

부산 수영 지역에는 도깨비에 관한 세 가지 이야기가 전해 오고 있다. 도깨비와 씨름을 하고, 도깨비를 묶어 놓았는데 다음날 확인하니 빗자루나 전봇대가 되어 있었다는 이야기. 도깨비가 방망이질을 흉내 내어 김씨 노인을 홀렸다는 이야기 등이다.

부산 수영지역에는 도깨비에 관한 세 가지 이야기가 전해 오고 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옛날 어느 곳에 한 사람이 장날에 친구들과 술을 먹고 늦게 집으로 돌아오면서 시작된다. 고개를 넘어 내려오려니까 시꺼먼 사람이 뒤를 따라왔다. 겁이 나서 빨리 걸으면 뒤에 따라오는 사람도 빨리 따라오고, 천천히 걸으면 뒤에 따라오는 사람도 천천히 걸었다. 그 사람은 자신을 따라오는 것이 혹시 도깨비가 아닌가 싶어 걱정이 되었지만, 술에 취해 정신이 없고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옛 사람들의 말에 도깨비는 겁이 많아 기침을 하고 담배를 피워 물면 겁을 먹고 도망간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 가던 길에 멈춰서 기침을 크게 하고 담배를 피워 물었다. 그러자 시꺼먼 형상을 한 그 사람이 다가오더니 담뱃불을 빌려 이 사람이 담배를 피우면 따라서 피우고, 이 사람이 기침을 하면 저도 따라서 기침을 했다. 또 이 사람이 앉으면 저도 따라서 앉고, 이 사람

이 서면 자기도 따라 섰다.

그러다가 마침내 그 시꺼먼 사람은 이 사람에게 다가오더니 씨름을 하자고 제안했다. 그런데 시꺼먼 사람의 힘이 어찌나 세던지 씨름은 좀처럼 끝나지 않았다. 동녘이 밝아오자 이러다가는 힘이 빠져 죽게 될지도 모르겠다 싶어 호주머니에 있던 작은 칼을 몰래 꺼내어 상대방을 찌르고 그를 옆에 있는 버드나무에 묶어 두었다.

그리고 혼비백산(魂飛魄散 : 몹시 놀라 혼백이 흩어짐)하여 집에 도착하니 아침이 되었다. 가족들은 아버지가 사람을 찌르고 나무에 묶어 두었다는 말을 듣고 그곳에 가 보았다. 버드나무에 몽당 빗자루가 하나 묶여 있고, 빗자루의 한가운데에 칼이 꽂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붉은 피가 조금 묻어 있었다고 한다. 사람들은 그것이 도깨비의 시체라고 했다 한다.

두 번째 이야기는 술을 무척 좋아하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다. 어느 날 그가 술을 잔뜩 먹고 부슬비를 맞으며 혼자 집으로 돌아오는데, 팔대장승 같은 거인이 나타나 자꾸만 가는 길을 막고 시비를 거는 것이었다. 이 사람은 술김에 그 놈을 도깨비라 생각하고 용기를 내어 씨름을 제안했다. 그랬더니 그 놈도 그러자 하고 덤벼들었다. 그래서 밤새도록 그 팔대장승과 씨름을 하다가 새벽이 되어서야 간신히 그를 떼어 놓고 도망쳐서 집으로 왔다.

날이 새자 아들이 아버지가 씨름을 했다는 동구 앞 삼거리에 나가 보니 아무런 흔적은 없고 키가 큰 전봇대가 하나 서 있었는데, 그 전봇대의 아랫도리에 피가 좀 묻어 있었다고 한다. 사람들은 이 사람이 밤중에 도깨비를 마나 그와 함께 밤새도록 씨름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세 번째 이야기는 수영성 뒤쪽 시냇가에 있는 '서답 바위'에 관한 이야기다. 옛날 그곳은 낮에 동네 여인들이 모여 빨래를 하고 방망이질을 하던 장소였다. 김씨 노인은 밤에 논에 물을 대러 자주 그곳을 지나다녔다.

비가 내리는 어느 밤이었다. 어디서 빨래 두드리는 소리가 나서 이 밤에 누가 여기서 빨래를 하는가 하고 그곳에 가보면 사람은 보이지 않고, 또 저쪽에서 방망이질 소리가 나서 다시 그곳으로 가 보면 또 이쪽에서 소리가 나고는 했다. 김씨 노인의 말로는 아마 밤에 도깨비가 나타나서 낮에 여인들이 하던 방망이질을 흉내 낸 것이 아닌가 생각했다고 한다.

*주영택, 『부산, 전승설화를 찾아서』, BNK부산은행, 2015, 157~158쪽.

4) 해운대구 설화

[해운대구 설화 1]

仁智庵

盤如洞 中里 뒷산 約5里 東邊에 俗稱 절터라는 곳이 있는데 至今도 瓦片이 散在하여 있고 山林의 茂盛하다. 至今에 와서도 夏節이 되면 바위 기와 틈에서 빈대가 기어 나오는데 新羅때 이 寺刹은 빈대로 말미암아 亡하였다고 傳해진다. 確實한 것은 모르나 中 程度의 寺刹이었을 것이라고 짐작된다. 빈대는 千年이나 굶어도 죽지 않는다고 한다.

*김의환, 『부산의 고적과 유물』, 아성출판사, 1969, 167쪽.

[해운대구 설화 2]

과객이 사례로 준 금침

- 후한 인심 덕에 사람 살리는 비법 전수받아

- 장소 : 부산시 해운대구 중1동

해운대 오산(梧山)마을은 옛날에는 중동의 본거지였다. 옛날 이 마을 가옥은 기와집이 없고 토담으로 된 초가뿐이었다. '이곳에 기와집을 지으면 집이 허물어진다.'는 말이 전해 오는데, 이것은 기와에 오동잎이 떨어지면 쉬이 낡아 허물어지기 때문이다.

조선시대 말엽에 어느 과객이 오산마을을 지나던 중 날이 저물어 하룻밤을 이곳에서 묵어야 했다. 그러나 흉년 탓인지 인심이 좋지 못해 그런지 여러 집을 둘러 하룻밤 묵고가기를 청했으나 연거푸 거절만 당했다.

갈 곳 없어 헤매다가 마지막으로 배 씨라는 성을 가진 집을 찾아 하룻밤만 묵고가기를 청하니 쾌히 승낙을 하였다. 과객은 노천(露天)의 밤을 면했을 뿐만 아니라 식사 대접도 잘 받았다.

이튿날 과객은 배 씨 집을 떠나면서 배 씨의 후덕한 인심에 대한 보답으로 커다란 금침(金針)과 함께 독특한 약초의 처방으로 독사에 물린 사람을 살려내는 비법을 가르쳐 주고 떠났다.

당시 오산마을은 대밭이 많아 독사가 우글거려 독사에 물리는 사람이 많았다. 독사에게 물린 사람에게 금침을 백회혈(百會穴·정수리의 숫구멍 자리)에 꽂아 독혈을 뽑아내고서 개구리를 생채로 먹이고 특이한 약초로 다스리는 이 가전(家傳) 비방으로 많은 사람을 고쳐주었다.

하지만 과객의 당부가 있어 일절 치료비를 돈으로 받지 않았고 쌀이나 보리쌀 몇 되를 받는 게 고작이었으며, 타인에게 비방을 가르쳐주지는 않았다. 독사에 물린 지 48시간 이내면 모두

살려냈다고 한다.

1937년께 배일도(배종만 조부) 씨가 치료를 할 때 개구리를 잡아가면 개구리 1마리당 1전 아니면 왕사탕 2개를 주었다고 촌로는 말하였다.

어느 날 모 병원에서 배씨 집으로 전화가 왔다. 어디서 소문을 들었는지 독사에 물린 위독한 사람이 있으니 치료를 좀 해달라는 것이었다. 병원에서 치료를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을 기적같이 말끔히 고쳐 버리니 의사들이 야단법석이었다.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 '비방을 가르쳐 달라'는 부탁이 쇄도해 그 뒤 친척 세 사람에게 이 비방을 가르쳐주었으나 별 효험을 보지 못했다고 한다.

배 씨의 적선(積善)으로 이루어진 비방이라서 다른 사람이 그 시술을 사용하여도 효과는 없다는 것이다.

지금은 배종만 씨의 부인 박명자 씨가 전수자가 되어 아들에게 전수를 시키고 있다. 독사에 물려 장님이 되거나, 정신 이상자가 되거나, 또 죽어가는 사람을 여름 한철 수명씩 치료하고 있다.

*주영택, 『부산의 전설 보따리』, 가마골향토역사연구원, 2013, 36~37쪽.

[해운대구 설화 3]

와우산 송아지에 얽힌 사랑

- 송아지가 이어준 청춘 남녀의 사랑

- 장소 : 부산시 해운대구 중2동

청사포와 미포 사이에 위치한 산은 소가 누워 있는 형상이라 하여 누울 와(臥)자, 소 우(牛)자를 써 와우산(臥牛山·182m)이라 불린다. 청사포 뒤 형제봉인 대봉과 소봉의 두 봉은 소의 귀, 얼굴은 장산을 바라보고 있으며 청사포에서 고두말로 누워 소꼬리 부분에 위치한 곳이 미포(尾浦)이다.

미포에서 와우산 중턱 고개를 오르면 해운대에서 저녁달 조망으로 유명한, '대한 팔경'의 1경인 달맞이언덕에 닿는다. 이곳 언덕 끝자락에는 현재 정월 대보름달을 가장 잘 감상할 수 있는 해월정이 자리 잡고 있다.

이곳 해월정에는 보름달이 바다 저 멀리 수평선 위로 뜨면 온 바다를 분홍색으로 수놓으며 이글거리는 보름달에 두 손 모아 기도한 처녀 총각의 사랑이야기가 전해온다.

옛날 와우산 동쪽 기슭 청사포에 살던 처녀가 화창한 봄날 와우산으로 나물을 캐러 갔다. 나물에 정신이 팔려 처녀는 와우산 등성이를 넘어 오산마을 쪽까지 갔다. 해가 기우는 것도 모른 채 나물을 캐는데 갑자기 송아지 한 마리가 처녀 주위를 빙빙 돌았다. 처녀가 나물바구니를 끼

고 돌아오려니 그 송아지가 따라 오는 것이었다.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처녀는 집으로 송아지를 데리고 와서 하룻밤을 재웠다.

하지만 처녀는 잃어버린 송아지 주인 때문에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다. 이튿날 처녀는 혹시 몰라 그 송아지를 데리고 어제처럼 나물을 캐러가 오산마을 쪽으로 넘었다.

비슷한 시각, 오산마을에서도 양반집 도령과 꼴머슴이 전날 송아지를 놓친 지점을 찾았다. 양반집 도령은 전날 공부를 하다가 갑갑함을 이기지 못해 꼴머슴을 따라 와우산으로 왔다가 꼴머슴과 함께 양반 상놈의 구별 없이 장난질로 봄을 만끽하는 사이 송아지의 행방을 놓친 것이었다. 이 때문에 꼴머슴은 귀가 후 주인에게서 꾸지람을 크게 들었다. 도령은 꼴머슴이 꾸지람을 들은 것이 자기 때문이란 자격지심으로 이튿날 꼴머슴과 함께 송아지를 찾으러 나섰던 것이다.

그런데 전날 그 자리에 오니 놓쳐버렸던 송아지와 함께 달덩이같이 고운 처녀가 나물을 캐고 있지 않은가. 도련님은 잠시 넋을 잃고 처녀를 황홀하게 바라볼 뿐이었다. 고개를 든 처녀는 불시에 나타난 도령에 놀라면서 그 준수함에 가슴속 깊이 울려드는 사랑을 느꼈다. 송아지를 사이에 두고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처녀가 수줍음을 안고 비껴갈 때 도령은 명년 정월 대보름달이 뜰 때 저 언덕에서 다시 만나자고 약속을 했다.

도령은 처녀와 헤어진 후 일심정성으로 공부해 그해 가을에 있었던 과거에 급제했다. 이후 정월 대보름을 기다렸다가 약속한 와우산 달맞이 언덕으로 올라갔다.

때마침 수평선 너머에서 쟁반 같은 대보름달이 온 세상을 밝히며 떠오르고 있었다. 도령은 자신도 모르게 달을 향해 그날의 처녀를 만나게 해달라고 소원을 빌며 두 손을 모았다. 그 무렵 처녀도 달맞이언덕 해월정에 이르렀다. 처녀도 온 바다를 분홍색으로 물들이며 떠오르는 달을 향해 소망의 손을 모았다. 떠오르는 달은 두 남녀에게 축복을 내리려는 듯 환한 빛을 선사했다.

이후 두 남녀가 사랑의 결실을 맺은 사연이 주위로 전해지자 정월 대보름달이 뜰 무렵이면 오산마을과 청사포마을의 처녀 총각도 좋은 배필을 맞게 해달라고 그 언덕에 올랐다. 그리하여 그 달맞이 언덕은 청춘 남녀의 배필을 맺는 사랑의 명소가 되었다고 한다.

*주영택, 『부산의 전설 보따리』, 가마골향토역사연구원, 2013, 44~46쪽.

[해운대구 설화 4]

황옥공주와 동백섬 인어상

- 동백섬 왕과 대마도 공주가 결혼하니…

- 장소 : 부산시 해운대구 우1동

먼 옛날 어느 날 한 어부가 고기잡이를 나갔다가 강풍에 그만 행방불명이 되었다. 아내는 다

리미산 꼭대기에서 남편을 기다리다 죽었고, 그 시신이 묻힌 자리에는 동백나무가 자라 동백꽃이 피었다. 이후 섬은 동백나무 숲을 이뤄 동백섬이라 불렸다. 이 섬에는 아름다운 인어의 이야기가 전해져 온다.

하늘이 열리고, 땅이 굳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아득한 옛날 동백섬에 무궁나라가 있었다. 원래 이 나라에는 다스릴 임금이 없었지만 하늘에서 특별히 보내준 금상자 속에 황금알을 깨고 나온 어린아이가 있었다. 이 아이가 10여 일 만에 성인으로 자라 왕위에 올라 국명을 '무궁'이라 지었다. 하늘의 은혜로 왕이 되었다 하여 '은혜왕'이라 불리면서 이 나라는 날로 번창해 나갔다.

그러나 임금에겐 마땅히 왕비가 없었다. 신하들은 결혼할 것을 원했으나 은혜왕은 이를 사양하고 하늘이 보내줄 왕비만을 기다렸다.

당시 바다 건너 대마도에는 나란다나라가 있었다. 이 나라는 바닷속에 있었던 수정나라와 부자(父子)와 같은 나라였고, 이곳 사람들의 몸 끝에는 고기 지느러미가 옷 속에 감추어져 있었다고 한다.

나란다의 임금과 왕비 사이에 첫 딸이 태어나자 선례에 따라 공주의 이름은 부모의 나라인 수정나라에 가서 지어 와야 했다. 공주를 모시는 특사는 거북이가 맡았다. 그 거북이는 옛날 용왕의 병을 낳게 하기 위해 토끼를 잡아갔다가 놓쳐버린 바로 그 거북이로 이후 수정나라에서 쫓겨난 상태였다.

수정나라의 대왕대비는 나란다나라의 공주 이름을 '황옥(黃玉)'이라 지었다. 황옥공주는 선녀처럼 아름답게 자랐으며, 나란다나라 임금과 왕비는 시집 보낼 신랑감을 찾고 있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 했던가. 어느 날 나란다나라 임금과 왕비의 꿈속에 신령이 나타나 바다 건너 무궁나라의 은혜왕에게 시집을 보내라고 했다. 이렇게 해서 무궁나라의 은혜왕과 나란다나라의 황옥공주가 결혼해 부부가 되었으니, 황옥왕비가 머문 곳의 궁궐이 바로 동백꽃이 활짝 피는 동백섬이었다.

황옥왕비는 무궁나라 동백섬에 와서 수정나라 대왕대비인 할머니가 일러준 대로 겹겹이 겹쳐 입은 옷 중 제일 깊은 속치마를 벗어 산신령께 바치니, 저녁 노을빛에 반짝이는 속치마는 바람에 나부끼며 하늘 멀리 날아가고 갑자기 발이 갖추어진 완전한 사람이 되었다.

세월이 흘러 황옥왕비는 수정나라를 매우 그리워했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쭉 옆에서 황옥왕비를 모시고 있던 거북이는 황옥의 할머니가 선물한 황옥구슬을 황옥왕비에게 드리며 매월 보름달이 뜨면 이 구슬을 꺼내 달을 비춰보라고 일러주었다.

황옥왕비는 거북이 시킨 대로 황옥구슬로 달을 비춰보니 일순간 눈앞에는 꿈속에서도 잊지 못하던 수정나라와 나란다나라의 아름다운 달밤이 나타났다. 그날 밤 황옥왕비는 고국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바로 그때 황옥왕비에게 큰 변화가 나타났다. 황옥왕비가 갑자기 시집오기 전 공주의 모습으로 변해 바다 속을 마음대로 헤엄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을 가끔 목격한 사람들 사이에서 동백섬 앞바다에는 '인어'가 있다는 풍문이 퍼져 오늘날까지도 전해져 오고 있다.

웨스틴조선호텔 옆 해운만 바닷가에 위치한 인어상은 나란다나라 출신으로 무궁나라로 시

집온 황옥의 전설을 상징하고 있다. 동시에 황옥공주를 모시던 거북이는 아직도 살아남아 황옥왕비를 그리며 동백섬을 떠돈다고 전해온다.

*주영택, 『부산의 전설 보따리』, 가마골향토역사연구원, 2013, 62~64쪽.

[해운대구 설화 5]

망부송에 얽힌 부부사랑

- 소나무 심고 남편 기다리다 뱀과 사라져

- 장소 : 부산시 해운대구 중2동

청사포마을의 해변길 왼쪽에는 마을 수호신처럼 눈길을 끄는 400년쯤된 아름드리 큰 소나무(해운대 중2동 594) 두 그루가 있다. 그 아래에는 청사포 당산이 자리잡고 있다.

옛날 청사포마을에 금실이 좋은 부부가 자식 없이 어업에 종사하며 살았다. 어느 날 남편이 배를 타고 먼 바다로 고기를 잡으러 나갔다가 풍랑을 만나 배가 뒤집혀 그만 죽고 말았다.

남편이 죽은 줄도 모르는 아내는 매일 바닷가 바위 위에 올라 남편의 배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다. 그러나 남편의 배는 돌아오지 않았고, 그 여인은 기다림의 지루함을 달래기 위해 바닷가 바위 옆에 소나무 한 그루를 심어 놓고 남편과 만나기만을 기다렸다.

여인이 끼니도 제때 챙겨 먹지 않고 남편을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다는 소문이 용왕 귀에까지 들렸다. 이를 안타깝게 여기던 용왕은 자신을 대신해서 푸른 뱀을 여인에게 보냈다.

여인은 푸른 뱀을 타고 용궁으로 들어가 그토록 기다렸던 남편을 만나게 되었지만 그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몸이 돼버렸다.

마을사람들에게 이 기구한 사연이 알려지면서 그 여인이 살던 마을은 청사포(靑蛇浦), 여인이 심은 소나무는 망부송(望夫松), 여인이 남편 돌아오기만을 빌며 기다리던 바위는 망부석(望夫石)이라 불리게 되었다.

이후 청사포(靑蛇浦)는 해변에 푸른 자갈이 많다 하여 청사포(靑沙浦)로 개명됐고, 죽은 그 여인이 김해 김씨임이 알려져 그 정절의 넋을 기리기 위해 당산을 조성해 '골목할매'의 위패를 모셨다.

망부송은 오랜 세월 소금기를 머금은 세찬 해풍과 파도가 그침없이 몰아쳐도 꿋꿋하게 살아가는 게 신기할 뿐더러 소나무 뿌리가 바닷물 속으로 수없이 뻗어나갔을 텐데도 죽지 않은 것은 용왕님의 보살핌 때문이라고 주민들은 말하고 있다.

망부송과 관련된 알려지지 않은 에피소드 하나. 어느 날 망부송이 서 있는 곳과 바로 이웃한 집의 방밑 구들장을 뚫고 망부송 뿌리가 올라왔다. 고민 끝에 주인은 망부송의 뿌리를 잘라 버렸다. 그 다음날 뿌리를 자른 주인이 눈이 멀고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 버렸다고 전해온다.

소금기를 대량 섭취하고도 시들지 않는 강인함을 갖춘 망부송은 서로 마주보고 있다. 바다를 향한 망부송의 가지들은 남편을 잃은 아내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아 애절하기 그지없다.

망부송 아래 위치한 당산에는 '골목할매'를 모셔 마을 수호신으로 삼고 있는 주민들은 해마다 세 번씩 '맑은 사람'을 제주로 하여 마을의 안녕을 위해 제를 올리고 있다.

지금도 청사포마을 주민들은 조그마한 불행이 닥쳐도 이곳을 찾아 '골목할매께 빌고 나면 일이 저절로 풀린다.'고 자신 있게 얘기한다.

이 마을의 한 주민은 아들이 없어 애태우다가 5년간 당산에서 정성껏 공을 들여 삼형제를 줄줄이 낳은 행운도 얻었다고 말한다.

오늘도 영험한 망부송 아래 멋쟁이 할머니 '골목할매' 당산에는 소원성취를 위해 공을 들이는 아낙네들이 촛불과 향을 피우고 용왕님께 치성을 드리고 있다.

*주영택, 『부산의 전설 보따리』, 가마골향토역사연구원, 2013, 128~130쪽.

[해운대구 설화 6]

해운대를 품었던 최치원

- 봄내(春川) 따라 동백섬 온 멧돼지의 자식?

- 장소 : 부산시 해운대구 우1동

문창후 해운 최치원(857~?)은 신라 헌강왕 1년인 857년 지금의 경주 사량부에서 육두품 관료 최견일의 아들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경문왕(재위 : 861~875)에게 학문적 재능을 인정받아 12세의 어린 나이에 당으로 유학을 떠났다. 떠날 때 아버지는 "10년 안에 과거에 급제하지 못하면 내 아들이 아니니 힘써 노력하라"고 엄명을 내렸다. 당의 국자감에 입학한 최치원은 각고의 노력 끝에 마침내 18세에 빈공과(賓貢科)에 장원 급제, 879년 지금의 남경 근처인 율수현에서 현위로 관료 생활을 시작했다.

881년 황소의 난 땐 그 유명한 '격황소서(激黃巢書)'로 반란군 진압에 크게 이바지했다. 황소는 '천하의 사람들이 이미 너를 죽이고자 하거니와, 지하의 귀신들도 함께 너를 죽이고자 의논하였노라'라는 구절을 읽고는 섬뜩하여 침상에서 떨어졌다고 전해온다.

885년 당에서 귀국한 최치원은 시독 겸 한림학사 수병부시랑 지서서감사로서 일을 시작했다. 주로 왕실과 관련된 대선사(大禪師)를 기리는 글과 외교 문서등을 작성했다. 이듬해엔 '계원필경집' '시부' 등 28권을 편찬해 헌강왕에게 올렸다.

894년 최치원은 신라 개혁을 위해 '시무십여조(時務十餘條)'를 진성여왕에게 올렸지만 진골세력의 반발로 실현되지 못했다. 이를 계기로 최치원은 43세 때부터 명산대천을 돌며 풍류생활을 시작했다.

경주 남산을 떠나 가야산 입산 길에 그는 지금의 해운대 동백섬 등대 광장 남단을 지나다 경관이 무척 아름다워 발걸음을 멈추었다. 바다 구름 달 그리고 파도소리를 음미하며 그는 바위에 자신이 아호인 해운(海雲)을 따 '海雲臺'(가로 2m, 세로 3m)라고 새겼다. 이것이 지금의 해운대석각(부산시 지정 기념물 제45호)이다. '해운대'는 최치원으로 인해 그 이름을 얻었고, 동백섬은 그가 세상의 시비영욕을 벗어나 새로운 추억을 만들었던 장소였던 셈이다. 지금 동백섬 정상에는 최치원 동상(1971년)과 해운유적비(1965년), 해운정(1973년)이 조성돼 있다.

해운 최치원 향사봉헌식(4월 17일)은 경주 최씨 종친회에서, 최치원 추념다례제(10월 10일)는 해운대문화예술원에서 주관해 많은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매년 제사를 올리고 있다.

해운대에서의 최치원과 관련된 전설도 빼놓을 수 없다. 옛날 장산의 멧돼지가 홍수로 인해 봄내(春川)를 따라 동백섬으로 헤엄을 쳐왔다. 멧돼지는 썰물로 바닷물이 빠져나간 사이 뻘에서 고둥과 낙지 등 해산물을 잡고 있던 최치원의 어머니를 납치해 지금의 해운대석각 인근 놀이청바위 밑에서 함께 지냈다. 열 달이 지나 동지섣달 어머니가 아들을 낳았으니, 그가 바로 최치원이었다. 최치원은 멧돼지의 자식인 셈이다.

최치원은 자라면서 머리가 아주 좋았다. 어떤 백발노인이 막대기로 모래밭에서 치원에게 '하늘 천(天)'자라고 하면 '땅 지(地)'자라 할 정도로 짧은 시간에 많은 글을 다 익혔다. 대학자가 된 최치원은 아쉽게도 돌아가신 흔적을 그 어디서도 찾을 길이 없다. 어떤 이는 가야산에 들어가 신선이 되어 하늘로 올라갔다고 한다.

해운대에 머문 최치원이 이후 글씨를 새기고 시문을 남긴 명소를 따라가 보면 부산 용당동 신선대→양산 임경대→진해 청룡대→마산 월영대→하동 쌍계사→합천 해인사와 가야산 홍류동천 코스가 그려진다. 해인사 대적광전 주변의 학사대 인근의 천년 고목 전나무는 당시 최치원이 짚고 다닌 지팡이를 거꾸로 꽂은 것이라 전해온다. 학사대 전나무는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제514호로 지정(2012.11.13.)됐다.

*주영택, 『부산의 전설 보따리』, 가마골향토역사연구원, 2013, 194~197쪽.

[해운대구 설화 7]

운봉산의 효녀 김씨

1491년(성종 22), 왕은 효녀 김씨를 위해 충신, 효자, 열녀 등 모범이 되는 사람이 사는 마을 입구나 집 문 앞에 세우는 붉은 문인 정여문(旌閭門)을 세우게 했다. 그리고 효녀의 묘는 부동 20리 운봉산 아래에 마련되었는데, 1592년 임진왜란 때 왜적에 의해 파헤쳐졌다.

만호(萬戶) 김보문(金宝文)의 딸 김씨는 천성이 지극히 효성스러웠다. 그녀가 아버지가 병에 걸리자 하늘에 맹세하여 말하기를

"만약 하늘이 돌보지 않아 아버지가 돌아가신다면 저는 마땅히 목숨을 끊겠습니다."

하더니,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아우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아서 어머니를 모셔라. 나는 죽어서 아버지를 섬기겠다."

하고 스스로 목을 매어 죽었다.

1491년(성종 22), 왕은 충신이나 효자, 열녀 등 모범이 되는 사람이 사는 마을 입구나 집 문 앞에 세우는 붉은 문인 정여문(旌閭門)을 세워 주었다. 그리고 효녀의 묘는 부동 20리 운봉산 아래에 마련되었다. 그 후,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 왜적은 운봉산 아래에 있는 효녀 김씨의 묘를 파헤쳐 놓았다.

임진왜란이 끝난 후 어느 날 밤 수사(水使: 조선시대의 각 도에서 수군을 감독하던 무관)의 꿈에 효녀가 나타나 말하기를,

"저는 김보문이라는 자의 여식 김씨인데 불행히도 묘가 왜적에게 파헤쳐져 해골이 드러난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원컨대 무덤을 거두어 주십시오."

라고 했다.

깜짝 놀란 수사가 다음날 아침,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과연 효녀 김씨의 묘가 운봉산 자락에 있다고 하였다. 사람들로 하여금 가서 보게 한즉 무덤이 파헤쳐져 있었다. 수사는 해골을 거두어 옛 구덩이에 묻고, 무덤을 만들어 제사를 지내고 돌아왔다.

그러자 그날 밤 김씨가 수사의 꿈에 나타나 감사하다고 하였다.

효녀 김씨의 무덤은 현재도 그 자리에 있다고 한다.

*주영택, 『부산, 전승 설화를 찾아서』, BNK부산은행, 2015, 211쪽.

[해운대구 설화 8]

동백섬의 동박새

> 임금의 명에 다라 자기 자식을 죽일 수 없었던 임금의 동생은 두 아들 대신 자신의 가슴을 찔렀다. 그가 피를 흘리며 죽어간 자리에서는 붉은 꽃을 피우는 동백나무가 자라났고, 새로 변해 하늘로 날아갔던 두 아들은 아비의 혼이 깃든 동백나무에 둥지를 틀었는데 이 새가 바로 동박새다.

옛날 욕심 많고 잔인무도한 임금이 있었다. 그런데 그에게는 임금의 자리를 물려줄 아들이 없었다. 아들이 없으니 자연히 임금 자리는 동생 아들인 조카가 이어받게 될 것이었다. 그게 싫었던 임금은 두 명의 조카들을 죽일 궁리를 하였다.

임금의 동생은 형의 뜻을 눈치 채고 사랑하는 두 아들을 멀리 떠나보낸 뒤, 두 아들을 닮은 소년을 데리고 살았다. 그러나 임금은 동생이 몰래 숨겨둔 두 아들을 찾아내고 말았다. 그리고 임금을 속이려 했다는 죄로 동생에게 두 아들을 직접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다.

자기 자식을 죽일 수 있는 부모가 누가 있겠는가? 임금의 동생은 자기 자식을 제 손으로 죽이느니 차라리 자신의 목숨을 버리겠다고 생각하였다. 그는 임금이 준 칼로 아들이 아니라 자신의 가슴을 지르고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두 아들은 붉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죽어가는 아버지를 바라보다 돌연 새로 변하여 하늘로 날아갔다. 그리고 이어 하늘에서는 천둥 번개가 치며 동생의 가족을 무참히 짓밟으려 했던 임금이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다. 천벌을 받은 것이었다.

임금의 동생이[11] 붉은 피를 흘리며 죽어간 자리에서는 붉은 꽃을 피우는 동백나무가 자라났다. 그 나무가 크게 자라자, 새로 변해 하늘로 날아갔던 두 아들은 아비의 혼이 깃들어 있는 동백나무에 둥지를 틀었다. 이 새가 바로 동박새다.

동백꽃 속에는 꿀이 가득한 꿀주머니가 있다. 동백꽃이 피는 때는 이른 봄이라 벌과 나비가 나오지 않는다. 동백꽃의 꽃가루는 동박새가 옮겨주는데, 동박새는 꿀을 빨아 먹고 꽃가루를 이 꽃 저 꽃에 옮겨 준다. 이와 같이 새가 꽃가루를 옮겨주는 꽃을 '조매화'라 한다.

동박새는 장산이나 동백섬을 비롯하여 해안이나 도서지방의 활엽수림에 많이 산다. 동백꽃이 필 무렵이면 동백섬을 찾아와서 꿀을 먹고 암술머리에 꽃가루를 옮겨줌으로써 일종의 공생을 하는 셈이다.

동박새는 참새보다 조금 작고 머리와 등은 황록색이며, 턱과 목 아래는 연한 황색이고 배는 흐린 백색이다. 눈가는 부드러운 털이 안경을 쓴 것처럼 선명한 테두리 모양으로 나있고, 생김새가 귀엽고 예쁠 뿐만 아니라 고운 소리로 잘 운다.

우리 조상들은 동백나무로 망치를 만들어 마루에 걸어 놓으면 귀신이 집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믿었다. 이것은 동백나무의 신령함을 상징하는 풍속이었다.

동백꽃은 청렴, 절개, 길상, 정열을 상징하며 오래 살고, 푸름이 변하지 않으며 영화롭기를 바라는 뜻도 가지고 있다.

*주영택, 『부산, 전승 설화를 찾아서』, BNK부산은행, 2015, 213~214쪽.

[해운대구 설화 9]

석대마을의 느티나무

석대마을에는 그늘을 짙게 드리운 채 위용을 자랑하고 있는 수령 500여 년의 느티나무가 있다. 높이는 20m, 밑둥치는 네 아름이 넘는 석대마을의 당산목으로, 옛날 어느 관찰사가 한양으로 가던 중 이곳에 들러 쉬어간 것을 기념하기 위해 이 나무를 심었다고 전해진다.

11) 원문에는 '임금은 동생이'라고 되어 있다. '임금의 동생이'라고 해야 문맥상 맞는 표현이다(편자 주).

석대마을(부산시 해운대구 반송1동 136) 뒤 언덕배기 양지바른 곳에는 그늘을 짙게 드리운 채 위용을 자랑하고 있는 수령 500여 년의 느티나무가 있다. 높이는 20m이고, 밑둥치는 네 아름(대략 6.4m)이 넘는 이 나무가 이 마을의 당산목이다.

이 나무에는 잎이 한꺼번에 피면 풍년이 들고, 띄엄띄엄 피면 흉년이 든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나뭇잎이 피는 모습을 보고, 그 해의 살림 규모를 미리 조절해 늘 풍요로운 마을로 가꾸어 왔다. 이 나무에는 신령이 있어 마을의 안녕을 지켜준다고 믿고 사람들의 접근을 철저히 금하고 있다.

이곳에 살고 있는 주민의 말에 의하면, 옛날 어느 관찰사가 한양으로 가던 중 길목이었던 이곳에 들러 쉬어간 것을 기념하기 위해 나무를 심은 것이 지금의 느티나무라고 한다.

주민들이 음력 섣달 그믐날 당산나무에 제사를 지낼 때, 제주는 집안에 임신부가 없고 상을 당하지 않은 정결한 사람으로 삼았다.

제주가 제물을 보러 갈 때는 반드시 삿갓을 썼으며,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여 다른 주민 모두는 당일 제사가 끝날 때까지 소등하고 마음속으로 함께 치성을 드렸다. 몇 년 전까지만 하여도 사람들은 송아지를 잡아 포를 떠서 제수를 마련했으나 지금은 푸줏간에서 고기를 사온다. 이 같은 정성 때문인지 이 마을은 큰 재앙 없이 지내오고 있다고 한다.

주민들은 당산나무가 몇 차례 죽을 위기를 맞았으나, 주민들의 정성으로 고비를 넘겼다고 말한다.

일제 때에 일본인 관리가 가구를 만들기 위해 이 느티나무를 베려고 할 적에 전 주민이 이 나무에는 목신이 있으니 두렵지 않은 사람만 베어 보라고 하면서 대들자, 일본인 관리와 벌목인부들은 슬그머니 뺑소니를 치고 말았다고 한다.

그런데, 이 나무도 최근 들어 고령으로 수세가 쇠약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느티나무는 느릅나무과의 낙엽, 활엽교목으로 수피가 두껍고 수명이 길어 당산목 도는 정자목으로 많이 가꿔오고 있다. 연한 느티잎은 느티떡을 해먹는데 사용되며 열매는 10월에 익는다.

*주영택, 『부산, 전승 설화를 찾아서』, BNK부산은행, 2015, 215~217쪽.

[해운대구 설화 10]

고시네의 유래

> 도선은 들판 한복판 정자나무 옆에 어머니의 백골을 묻었다. 그 후 농부들이 무덤에 밥 한 술씩을 던져주고 벌초를 했더니 농사가 더 잘 되었다. 그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들에 가서 밥 한술을 떠놓고 '고시네'하고 불렀는데, 도선 어머니의 성이 '고씨'였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는 부산시 해운대구 반송동의 어느 마을에서 전래된 이야기다. 이곳에는 도선이라

는 이름의 아이가 있었다.

도선이 열 살 남짓 되면서부터 고개를 넘어 공부를 하러 다녔다. 그런데 고개를 넘을 때마다 예쁜 처녀가 나와 입을 맞추고는 사라지고 하는 것이었다. 입을 맞추면 여자의 입에서 구슬 같은 것이 굴러 나와 도선의 입에 굴러 들어왔다가 나가곤 했다.

그러기를 일 년쯤 하자 도선의 안색이 눈에 띄게 나빠졌다. 스승이 그 까닭을 묻자 도선이 고개의 처녀에 대해 말을 했다. 스승은 도선에게 다음번에는 그 구슬을 삼키고 하늘을 쳐다보라고 했다. 다음날에도 처녀가 찾아와 구슬을 굴려 넣으려 할 때 도선은 스승이 시킨 대로 구슬을 삼켰으나 하늘을 못 보고 땅을 쳐다보았다. 그 후로 도선은 지리(地理)에 훤하게 되었다.

한편, 스승의 부탁으로 명당자리를 찾다가 한계를 느낀 도선은 그 길로 중국에 가서 공부를 더 하고 중이 되었다.

도선에게는 홀어머니가 있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묏자리를 구하게 되었다. 중이 된 도선은 제사를 계속 모실 수 없었기 때문에 제삿밥을 굶지 않을 자리를 찾아다녔다. 어머니의 백골을 지고 조선 천지를 다니던 도선은 어느 집에 묵다가 그 집 부엌이 명당임을 눈치를 챘다. 그래서 집주인 몰래 백골을 묻으려 했지만 주인에게 발각되고 말았다. 집주인은 도선에게 집이라는 것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거라며 제삿밥을 굶기지 않으려면 저 들판 한복판에 어머니를 모시라고 하였다. 도선은 이에 들판 한복판 정자나무 옆에 어머니를 묻어 드렸다.

그 후 농부들이 들에서 밥을 먹을 때 그 무덤에 밥 한 술씩 던져 주고 벌초를 해주었더니 농사가 더 잘 되었다. 다른 지역에서도 그 소문을 듣고 들에 가서 밥을 먹을 때마다 먼저 밥 한술을 떠 놓고 "고시네"하고 불렀다. 그것은 도선의 어머니의 성이 '고씨'이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주영택, 『부산, 전승 설화를 찾아서』, BNK부산은행, 2015, 219~220쪽.

[해운대구 설화 11]

몰리못의 너럭바위와 애기장수

한 정승의 며느리가 너럭바위에서 아이를 낳았는데 머리와 엉덩이 모양대로 움푹하게 바위 위에 새겨졌다. 그녀는 칡넝쿨로 탯줄을 끊어 아이를 버리고 집으로 왔다. 후에 나라 관리가 발견한 아이의 몸은 비늘로 가득했고 양 어깨에 날개가 나 있었는데, 하루 전날 발견되어 장수가 되지 못하고 평범한 아이가 되어 버렸다.

해운대 장지(長旨)마을의 동쪽 수영세무소 위쪽 몰리못(부산시 해운대구 좌3동) 부근에 너럭바위가 있었다. 이 바위에는 어린이 머리 모양과 엉덩이 모양이 새겨져 있다.

옛날 이 부근에 한 정승이 살고 있었다. 그런데 정승의 며느리가 임신을 하였다. 어느 날 바람결을 타고 들려오는 말이

"아이를 집안에서 낳으면 나라 관리가 들이닥쳐 아이를 죽일 것이니, 멀리 가서 낳고는 버리

고 오라.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고 날개가 달린 장수로 나라에서 잡아 죽이려 하니 버리면, 아이가 홀로 자라서 나라를 구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정승 며느리는 순산 날에 멀리 떨어진 너럭바위(지금의 해운대 신시가지 대창아파트)에서 아이를 낳았다. 그런데 아이가 얼마나 힘이 셌던지 머리와 엉덩이 모양대로 파져서 바위 위에 새겨졌다. 탯줄을 끊으려고 하니 아무것도 없어 어미가 칡넝쿨로 탯줄을 끊어 아이를 버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 소식을 들은 나라 관리가 며느리를 찾아와 목에다가 칼을 겨누며 물었다.

"아이를 어떻게 했느냐? 바른대로 말하라!"

"아이를 바위 위에 놓아두고 집으로 왔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 대답했다.

그러자 나라 관리가

"탯줄은 무엇으로 끊었느냐?"

하고 물어,

"옆에 있는 칡넝쿨로 끊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나라 관리가 바위 옆의 칡넝쿨을 글어 올리니 아이가 그 줄에 딸려 나왔다. 아이는 온 몸이 비늘로 감싸여 있었고, 양 어깨에는 날개가 나 있었다.

하루만 더 있었으면 날개가 완전히 나와 하늘로 날아 나라를 바꿀 수 있었는데, 그 전날에 관리에게 발각되어 결국 장수가 되지 못하고 평범한 아이가 되어 버렸다.

너럭바위는 장지마을 사람들이 나물을 캐거나 땔감을 구하러 갈 때, 그리고 논밭을 경작하고 올 때 쉬었던 곳으로, 서로 이야깃거리로 피로를 푸는 보금자리 역할을 했던 곳이다. 머리와 엉덩이 모양이 나 있는 너럭바위는 1992년 해운대 신시가지 조성 때 아파트 단지 부지로 지정되어 장자벌의 역사 속에서 영원히 사라져 흔적조차 없어지고 말았다.

*주영택, 『부산, 전승 설화를 찾아서』, BNK부산은행, 2015, 221~222쪽.

[해운대구 설화 12]

솔리방과 도채비 영감

운촌마을 입구의 솔리방은 소나무와 바위가 있어 솔리방이라 불렸다. 솔리방은 운촌포 모래해안과 모래불땅 허리불, 소운대를 연결한 해안산의 중요한 지점이었으며, 상여도구를 보관한 상엿집이 있어 일반 사람들의 접근이 금지된 신성한 구역이었다. 옛날의 바다와 바위는 없어졌지만 소나무 80여 그루가 남아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센텀시티 올림픽교차로에서 해운대로 들어가면, 운촌교차로가 나온다. 수영만이 매립되기

전 오른쪽 길섶에는 소나무 80여 그루(200년생)가 있었으며 바위해안 절벽에 연결된 몇 개의 바위섬을 이룬 이곳은 솔리방(해운대구 우1동 759번지)이라 불렀다.

솔리방은 솔잎바위 → 솔리바우 → 솔리방으로 변화된 것으로, 소나무와 바위가 어울린 솔리방이라 민간 어원으로 전해진다.

솔리방 왼쪽에는 동백섬이, 오른쪽에는 오륙도가 떠 있어 운촌포 솔리방에서 본 풍정을 오륙귀범(五六歸帆, 해운대8경 중 1경)이라 하였다. 노을 진 솔리방에서 흰 돛을 단 만선이 오륙도를 뒤로 하고 운촌포구로 귀항하는 아름다운 광경은 천하제일의 작품이었다.

운촌마을의 진산인 해운봉의 지맥으로 뻗은 솔리방은 별당(철종의 사위 박영효의 별장) 앞의 운촌포 모래해안과 모래불땅 허리불 그리고 그 넘어 소운대를 연결한 해안선의 중요한 지점이었다.

오륙도에서의 갯바람과 함께 파도소리가 울리는 솔리방 소나무 사이에는 죽음이라는 멀고 긴 이별을 하기 위해 상여도구를 보관한 운촌마을 상엿집이 있었는데, 일반 사람들은 접근도 출입도 금지된 신성한 구역이었다고 한다.

1998년 4월 3일 부산일보에 '해운대 입구 노송을 어찌하오리까?'란 보도기사를 읽은 필자는 숨 가쁘게 솔리방 소나무 50여 그루는 무조건 그대로 보존해야 한다는 역사·지명적 의미와 관련된 내용을 부산일보 독자란에 투고했다. 그 결과 그 옛날 바다와 바위는 없어졌지만 소나무 80여 그루가 그대로 남아 솔리방의 명맥을 유지하게 되었다.

솔리방에 관하여 전해지는 이야기 한 편이 있다. 옛날 해운대 온천마을과 미포마을 중간 지점에 섬밭마을이 있었다. 이 마을에 건장한 도채비 영감이 살았다. 어느 날 도채비 영감이 부산진장에 가서 고기와 술로 배를 채우고는 집으로 돌아가다 남천동 두운고개에서 잠에 들고 말았다. 그때 난데없이 도깨비들이 나타났고, 이내 도깨비대장이

"도채비 영감을 호강시켜 주자."

고 말을 했다. 그러자 대뜸 도깨비들이 그를 어깨에 짊어지고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직선으로 바다를 걸어 동백섬 쪽 솔리방에 도채비 영감을 내려놓고는 사라졌다. 도채비 영감이 깨어보니 솔리방이었다. 운촌마을을 지나 집에 도착하고 보니 미투리(삼이나 노 따위로 삼은 신발의 일종) 한 짝이 없었다.

도채비 영감은 아들에게

"내일 새벽 두운고개로 가 내 미투리 한 짝을 찾아오너라."

고 말했다. 아들은 새벽 일찍 두운고개로 가, 미투리 한 짝을 찾아 집에 와서 아버지께 돌려드렸다는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다.

*주영택, 『부산, 전승 설화를 찾아서』, BNK부산은행, 2015, 225~226쪽.

[해운대구 설화 13]

후장골의 호랑이

100여 년 전만 해도 전국의 살골짜기를 비롯한 마을 곳곳에서 호랑이가 쉽게 출몰하곤 했다. 조선실록에만 635회의 호랑이가 있었던 기록이 전해진다. 이런 호랑이에 대한 일화가 재송마을 후장골에서도 전해지고 있다.

옛날 재송마을의 서쪽에 세 곳의 계곡이 있었다. 첫 번째 계곡인 뒷골(後谷)은 현재 해운대경찰서 일대이고, 두 번째 계곡인 서당골은 현재 재송재(재송2동 215번지)가 있는 곳인데 서당이 있었던 자리라 하여 서당골이라 불렀다. 세 번째 계곡인 안골은 현재 재송삼익아파트가 있는 지역이다. 이 세 계곡을 통칭하여 뒷골이라 부르기도 했다.

한 농부가 뒷골에 살면서 등 넘어 농사를 짓고 살았다. 평소 하던 대로 논에서 암소와 송아지로 해가 지기까지 일을 하던 어느 날이었다. 농부는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밝은 달빛 아래 늦게까지 일을 하였다. 정신을 차려보니 대단히 늦어서 주섬주섬 정리하여 집으로 오던 중이었다.

암소는 많은 일을 하여 대단히 피곤하지만 따라오는 송아지를 보면서 걸어갔다. 산모퉁이를 돌아 후장골로 오는데 갑자기 검은 짐승이 나타났다. 즉각 암소는 방어 태세를 하고 당의 흙을 앞발로 파기 시작하였다. 자세히 보니 황소만한 큰 동물인, 말로만 듣던 호랑이였다.

호랑이는 뒤 따르는 송아지를 공격하려 하고, 어미는 소는 발로 가로막으면서 송아지를 구하려고 애를 쓰다가, 마침내 눈에서 푸른빛을 내면서 호랑이 향해 달려들며 육박전을 벌였다. 막상막하였다.

주인은 자신의 소가 불리할 것이라 예견하고 소를 그냥 두고 집으로 달려 도망쳤다. 어미 소는 새벽까지 싸워 호랑이를 죽이고 어슬렁어슬렁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온 소는 먹이를 주려고 하는 주인을 사정없이 뿔로 공격해 이리 저리 마구 굴러 떨어뜨렸다. 생명이 위독할 정도가 되어서야, 멈추고는 하늘을 쳐다보면서 무엇인가 알리는 큰 소리로 '음메'라 부르짖었다.

동네 어른들이 소 주인에게

"이 사람아. 암소와 송아지가 주인을 구하려고 생명을 걸고 싸우고 있으면, 거기서 응원을 하여야지, 자네만 살겠다고 그냥 도망 오면 되나."

하고 꾸짖었다.

그 다음부터 가끔 나타나는 호랑이의 행패가 없어져 뒷골 사람들은 무사히 다녔다고 한다.

마지막 호랑이에 대한 이야기

100여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호랑이 천국이었다. 전국의 산골짜기는 물론 도성, 궁궐, 마을까지 출몰할 정도였다. 《조선실록》에만 총 635회의 호랑이 출몰 기록이 전해진다. 이렇게 흔했던 호랑이가 일제강점기를 맞아 급속히 사라져 버렸다.

총독부는 해로운 짐승을 제거한다는 해수구제(害獸驅除)를 명분으로 1910년부터 대대적인 맹수 사냥 사업을 펼쳤는데, 이 기간 공식 기록으로 141마리의 호랑이를 사냥하였다.

일제는 1915년 한 해에만 경찰, 헌병, 포수 등 9만여 명을 동원해 호랑이 11마리를 비롯해 표범, 곰 등 435마리의 맹수를 포획하였다. 이듬해에도 호랑이 13마리를 잡았고, 1919~1924년 사이에는 65마리의 호랑이를 잡았다. 게다가 야마모토정호군이란 대규모 원정대가 일본에서 한반도로 넘어와 전국을 돌아다니며 호랑이 사냥을 즐기기도 하였다.

'적설심협(積雪深峽)에서 대호사중(大虎射中)'. 1924년 2월 1일자 매일신보에 실린 기사 제목이다. 내용은 1월 21일 강원도 횡성 산중에서 송선정이라는 사람이 8척 짜리 호랑이를 포획했다는 것으로 사진도 게재되었다. 이것이 지금까지 확인된 기록상 마지막 한국 호랑이의 모습이다.

일제의 남획과 서식처 파괴로 현재 이 땅에서 호랑이는 전멸된 상태다. 지금 북한에서는 백두산 일대에 10마리 정도 생존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영택, 『부산, 전승 설화를 찾아서』, BNK부산은행, 2015, 227~228쪽.

[해운대구 설화 14]

조세이 고개와 새색시

해운대에서 동래로 이어지는 조세이 고개에는 예부터 도적들의 행패가 잦았다. 어느 날, 이곳을 홀로 지나야 했던 새색시는 도적들이 무서워 한 가지를 꾀를 냈다. 울고 웃기를 반복하며 미친 사람 행세를 한 새색시는 결국 조세이 고개를 무사히 지나갈 수 있었다.

동래에서 해운대로 가는 행길(사람이 많이 다니는 큰 길)은 원동교를 건너 재송마을을 지나는 길로 아주 높고 험한 조세이 고개를 넘어야 해운대 입구인 승당마을로 향할 수 있었다.

이 행길은 동래·기장장 장꾼들, 해운대 명승지로 사대부, 빈객들 그리고 공사무 여행자가 왕래한 군사적, 관광적 생활권의 애환이 담긴 산길이었다. 지금은 1960년대의 도로 확장으로 고개를 깎아 평지 도로로 변하면서 양쪽에 학교를 비롯해 아파트, 주택 등이 자리 잡게 됐고, 더 이상 고개라고 느낄 수 없게 되었다.

조세이 고개는 옛날부터 도적들이 통행인을 잡아 묶어 놓고 돈과 물건을 빼앗는 장소로 유명했다. 이곳은 도적들을 만나면 당할 수밖에 없는 무인지대였다.

어느 날, 해운대에 사는 새색시가 친정을 갔다가 해가 저물고 나서야 시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새색시는 이 조세이 고개를 넘어야 시집으로 갈 수 있었기에 위험을 무릅쓰고 넘고 있었다. 그때 고개에서 갑자기 도적들이 나타났다. 혼자였던 새색시는 겁이 나고 당할 일을 생각하니 앞이 캄캄하였다.

새색시는 살기 위해 치마를 찢어 머리에 덮어 쓰고 머리를 풀어 헤친 후 흙을 얼굴에 바른 모습으로 하늘을 쳐다보면서 울다가, 웃다가 하며 미친 짓을 하기 시작했다.

"도적들아 나타나거라. 어떤 놈이라도 한 놈을 잡아 죽여야 내가 살 것이 아니냐."

하며 히히히 웃다가, 또 엉엉엉 슬피 웃다가를 반복했다. 그러자 도적들이 이 광경을 보고는 슬그머니 피하기 시작했다. 결국, 새색시는 도적들에게 당할 위험을 모면하고 시집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었다고 한다. 이처럼 해운대에서 동래로 오고 가는 조세이 고개는 도적들의 소굴로 보행자가 피할 수 없는 무서운 고개였다. 이 고개를 넘으면, 승당 주막에 들러 쉬다가 해운대·동래로 방향으로 다시 길을 떠났다고 전해지고 있다.

*주영택, 『부산, 전승 설화를 찾아서』, BNK부산은행, 2015, 233쪽.

[해운대구 설화 15]

시신을 세워서 묻은 명당

돌아가신 아버지가 고향 땅을 보다 잘 보실 수 있도록 그 시신을 세워 묻은 아들이 있었다. 아들이 아버지의 묘를 만든 곳은 명당이라 일컬어지는 자리였다. 훗날, 아들이 결혼을 해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삼천석 이판서를 지냈다. 이 이야기가 해운대 운봉마을에서 전해지고 있다.

옛날 해운대구 운봉마을에 한 아버지와 아들이 살고 있었다. 그런데 그 마을에서는 도무지 먹고 살 궁리가 나질 않자, 아들은 마을을 떠날 결심을 했다. 그러자 아버지가 아들에게 자신은 죽고 나면 고향 당에 묻히고 싶다고 말했다. 아들은 돈을 많이 벌어서 꼭 고향 당에 묻어 드리겠다고 아버지를 설득했고, 부자는 마을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 아들은 산기슭에 담집을 하나 지어 놓고 아버지를 모시고, 자신은 마을로 내려가 남의 집 일을 봐주면서 겨우 연명하며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덜컥 돌아가셨다. 가난한 아들은 아버지를 고향 당에 묻어 드릴 수가 없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고향이 내려다보이는 산으로 올라갔다. 그런데 산 아래에 있는 고향 당은 서서보면 보이지만 앉거나 누워서는 보이지 않았다.

아들은 고향을 그리워하던 아버지를 위해 기둥을 세우고 아버지의 시신을 세워서 묘를 썼다. 아들이 묘를 다 쓰고 쉬고 있는데 인적이 느껴졌다. 겁이 난 아들은 나무 뒤로 몸을 숨겼다. 묘 앞으로 다가온 한 사람이 아버지의 묘를 보고는 이 자리가 명당이었는데 누가 먼저 묘를 썼다며 아쉬워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세워서 묻었으면 삼천석 이판서가 날 자리지만 눕혀 묻었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며 산을 내려가는 것이었다.

그날 밤 한 처녀가 아들이 혼자 있는 담집으로 몰래 들어왔다. 아들은 처녀를 돌려보내려고 했지만, 처녀는 말을 듣지 않았다. 그날 밤의 인연으로 자식이 생긴 두 사람은 부부가 되었다.

어느 날 부인이 보따리 하나를 이고 와서 그 안에 있는 돌덩이를 시장에 가서 팔아오라고 했다.

남편은 부인이 시키는 대로 시장에 가서 돌을 내다 놓고 팔았다. 그를 보는 사람들이 모두 돌

덩이를 판다며 비웃었는데, 한 노인이 와서 그 돌덩이를 오천 냥에 사갔다. 돌덩이가 아니라 금덩이였던 것이다.

남편은 금덩이를 판 돈으로 집도 사고, 논도 사서 부자가 되었다. 부부는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후에 풍수의 말대로 삼천석 이판서를 하고 잘 살았다고 한다.

*주영택, 『부산, 전승 설화를 찾아서』, BNK부산은행, 2015, 235~236쪽.

[해운대구 설화 16]

무지개산의 연못

해운대구 반송동 개좌산 중턱에 위치한 개운사의 본래 자리에는 연못이 하나 있었다. 사람들은 연못 부근에 우물을 만들어 약수로 사용했다. 이곳 우물에서는 나라 혹은 반송동의 크고 작은 경사가 있을 때마다 무지개가 아침저녁으로 하루 두 번씩은 꼭 떴다고 전해진다.

개좌산 중턱(부산시 해운대구 반송2동 419번지)에 자리 잡고 있는 개운사(1972년 창건) 터 주변에는 절이 창건되기 전 연못이 있었다. 지금은 연못 대신 가장자리에 우물을 형성하여 약수로 사용하고 있는데, 반송 동민은 물론이고 인근 동래 주민을 비롯한 부산 시내 일원에서도 약수를 마시러 오고 있다.

개운사가 위치한 이 골짜기를 주민들은 '찹은골'이라고 통칭하였으며, 이곳 개좌산을 무지개산(무지산)이라고 불러왔다.

구전에 의하면 '찹은골'이라 함은 다 같은 반송지역에서도 이 골짜기만큼은 유독 기온이 낮아 차갑기 때문에 '찹은골'인데 지금도 골자기는 타 지역보다 이른 봄의 개나리, 목련화, 진달래꽃 등이 20일에서 한 달 가량 늦게 피고 있다. 그래서인지 개운사 약수는 다른 우물에 비해 5도에서 10도 가량 낮아 '냉장고의 생수'라고도 불린다. 또 특이한 것은 땅 속의 바위 반석에 있는 구멍에서 물이 솟고 있다는 점이다.

이 우물과 무지개산의 연못에 얽힌 이야기를 소개한다.

지금은 빌라, 아파트 등이 개운사 앞에 지어져 있어 그런 환경을 보아 꿈같은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으나, 반송동의 옛 노인네들의 말에 의하면, 나라에 크고 작은 경사나 반송동의 크고 작은 경사가 있을 때마다 이곳 연못에서 무지개가 아침저녁으로 하루 두 번씩은 꼭 떴다고 전해진다.

하늘의 옥황상제에게는 일곱 딸이 있었는데, 한 번에 3~4명씩 인간 세상에 내려왔다고 한다. 아침에는 용의 무지개를 의지하여 내려오며, 용의 등에는 옥황상제의 딸인 선녀들이 3~4명씩 타고 내려와 이 연못에서 목욕을 하고 등성이 하나를 넘어 운봉마을까지 가서 놀았다고 한다.

운봉마을은 지금도 산수가 수려하여 비단결을 연상케 한다. 이곳에서 선녀들이 하루 종일

춤도 추고, 노래도 하며 놀았다고 전해진다. 그리고 이들이 내려와서 놀 대는 세속의 눈을 가리고자 구름이 항시 끼어 있었다고 하여, 구름 운(雲)자와 산봉우리 봉(峯)자를 합쳐 운봉(雲峰)이라 불리게 되었다. 선녀들은 종일 놀다 연못으로 다시 돌아가 용을 타고 무지개를 따라 등천하였다고 한다.

1945년 8월 15일 광복이 되기 전에도 무지개가 아침저녁으로 두 번 떴으며, 선녀들이 이때 목욕을 하고 놀다 갔다고 전해진다. 또한 이승만 초대대통령 취임식이 있었던 1948년 8월 15일, 부산시가 직할시로 승격된 1963년 1월 1일의 2~3일 전에도 무지개가 떴다고 전해지고 있다.

*주영택, 『부산, 전승 설화를 찾아서』, BNK부산은행, 2015, 237~240쪽.

[해운대구 설화 17]

송정천의 천석바위

송정천의 중간 지점에 큰 바위가 있었다. 옛날 천석의 소금을 가득 싣고 장사꾼들을 태운 큰 배가 풍랑을 만나 바위 근처에서 뒤집혔는데, 바위에 걸려 많은 이들이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그 이후부터 바위는 천석의 소금배를 구출하였다 하여 천석바위라고 불리고 있다.

송정천은 장산 산록에서 발원하여 북동쪽으로 흐르다가 기장군 내리마을에 이르러 유로를 남쪽으로 바꿔 죽도의 왼쪽 하구로 흘러드는 하천이다. 겨울, 봄에는 쇠백로가 날아와 월동을 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송정천은 옛날 하천 폭이 넓고 수심이 깊어 큰 배가 오르내리는 하천이었다. 죽도 앞바다에서 소금배가 하구에서 상류가지 짐을 싣고 갈 때에는 하천 중간 지점에 있는 천석바위로 불리는 아주 큰 바위를 비껴가야 했다.

어느 날, 천석의 소금을 가득 싣고 장사꾼들을 태운 큰 배가 풍랑을 만나 바다에서 이곳 하천으로 대피하였다. 그러나 사나운 태풍과 폭우로 끝내 천석바위 근처에서 뒤집히고 장사꾼들은 하천에 빠지고 말았다. 그들은 심한 물살에 더내려가던 중 하천가에 있는 이 바위에 걸려 근근히 살아남을 수 있었다. 보잘 것 없던 큰 바위였지만 많은 생명을 구했던 것이다. 그 이후부터 천석의 소금배를 구출하였다 하여 이 바위를 '천석바위'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주영택, 『부산, 전승 설화를 찾아서』, BNK부산은행, 2015, 241쪽.

[해운대구 설화 18]

범골 호랑이와 바구니

> 못안마을 약수암에 호랑이가 입을 버린 형상을 한 굴이 있다. 이 굴에 호랑이가 살았다 하여 이 골짜기를 범골이라 불렀다. 옛날 아낙들은 봄나물을 뜯으러 갔다가 새끼 호랑이들이 귀여워 구경하던 중, 어미 호랑이가 좋아서 낸 '으르렁' 소리에 놀라 바구니를 버리고 도망쳤다. 다음날, 대문마다 바구니가 놓여 있었는데 이는 어미 호랑이가 놓고 간 것이었다.

해운대 못안마을 뒷산, 장산 유격장 입구를 지나 약수암에 오르면 바위가 마친 호랑이가 입을 벌린 형상처럼 보이는 굴이 서쪽으로 100m쯤 길게 뻗어 있다. 이 굴에 호랑이가 살았다고 하여, 범바위 도는 범굴이라 하고, 이 골자기를 범골이라 불렀다.

마을 할머니들은 '정가아네(정씨 집안 아낙네) 요강 들고 간다'라는 말을 하곤 했는데, 이 말은 '호랑이를 피해 저녁 일찍 방안에 들어간다'는 뜻이다. 뒷산 범골에 호랑이가 살았기에 여인들이 늦은 밤 소변을 볼 때 바깥 변소로 가기가 무서워 요강을 방안으로 가지고 들어갔기 때문이었다.

어느 날, 마을 아낙네 다섯 명이 봄나물을 뜯으러 범골에 갔다. 나물을 뜯다가 한 아낙네가

"보이소, 여기 와 보이소. 강아지 같은 것이 여섯 마리나 있소."

라고 큰 소리로 말했다.

말을 듣자마자 아낙네들이 그 곳으로 모였다. 가서 보니 동물 새끼가 있는데 매우 귀엽고 사랑스러워 쓰다듬고, 안으며 즐거워했다. 그 동물 새끼는 틀림없는 호랑이 새끼였지만, 아낙네들은 호랑이라는 말만 들었지 실제로 호랑이를 본 적은 없어 몰랐던 것이다.

멀리서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어미 호랑이가 자기 새끼들을 좋아하는 것이 즐거워 '으르렁'하고는 산이 진동하는 소리를 질렀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들은 아낙네들은 기절할 정도로 놀라서 '다리야, 날 살려라'하면서 나물바구니를 그냥 버리고 도망을 쳤다. 하지만 그들이 무사히 집에 도착하자, 이내 버리고 온 바구니 생각이 절절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대문 앞에 나가보니 각자의 바구니가 집집마다 대문 앞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닌가! 이는 사람들이 자기 새끼를 좋아하는 것을 보고 고맙다는 회답으로 어미 호랑이가 가져다 놓은 것이었다.

못안마을 뒷산 범골에는 범바위가 아직까지도 남아 있다.

*주영택, 『부산, 전승 설화를 찾아서』, BNK부산은행, 2015, 245~248쪽.

[해운대구 설화 19]

정승의 사위가 된 두꺼비

해운대구의 반송마을에는 사람으로 변신한 두꺼비에 관한 이야기가 전해진다. 자신을 데려가 길러 준 노부부에게 부를 안겨준 두꺼비 이야기는 하늘에서 죄를 짓고 인간의 세상으로 내려온 선관에 관한 이야기로 지금까지도 구비되어 온다.

옛날 해운대구 반송마을에 고기 잡는 일을 주업으로 하는 노부부가 살았다. 하루는 할아버지가 고기를 잡지 못해 빈속으로 집으로 돌아오는데 언덕 위에서 두꺼비가 나타나 자기와 함께 집에 가자고 말하였다. 신기하게 생각한 할아버지가 두꺼비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마침 집에서는 할머니가 쌀이 없어서 밥을 못하고 있었는데, 두꺼비가 그 모습을 보더니 쌀 단지에 가면 쌀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할머니가 쌀 단지에 가니 과연 세 명 분의 쌀이 있었다. 함께 밥을 먹고 난 후 두꺼비는 노부부에게 자신을 아들처럼 여겨 달라고 했고, 노부부는 이에 동의했다.

어느 날 두꺼비가 할아버지에게 서울의 정승 집에 가서 자신을 사위로 삼으라는 마을 전하라 했다. 할아버지가 두꺼비의 말대로 하자, 화가 난 정승이 할아버지의 목을 작두에 넣고 내리쳤다. 그러나 작두로 잘린 머리가 다시 붙고, 또 잘라도 다시 붙었다. 이에 겁이 난 정승이 결국 두꺼비를 사위로 맞이하게 되었다.

사람들은 정승이 두꺼비를 사위로 들였다면서 놀려댔다. 그런데 사람들이 아무도 없고, 신부와 단둘이 있을 때면 두꺼비는 멋진 남자로 변신하곤 했다.

하루는 이웃 정승 집에 혼례가 있었는데, 두꺼비가 찾아가서는 다른 사람들이 말리는 것도 듣지 않고 억지로 신방문을 열어 버렸다. 그러자 방안에 있던 새신랑이 두꺼비를 보고

"선생님 오셨습니까?"

라고 하였다. 두꺼비는 이 새신랑을 수채 구멍으로 내쳤는데, 알고 보니 그가 구미호였기 때문이다.

또 며칠 후 정승의 환갑이 다가오자 처남들이 사냥을 나섰다. 이들이 허탕을 치고 돌아오자 두꺼비가 가마를 내놓으라 하며 자신이 사냥을 다녀오겠다고 했다. 깊은 산중에 다다른 두꺼비가 발 빠른 사람에게 쪽지를 하나 써 주며,

"저쪽 물을 따라가면 중이 옷을 벗어 이를 잡고 있다. 쪽지를 던져 주고 빨리 뛰어오지 않으면 죽는다."

고 했다. 이 중은 지네였는데, 두꺼비에게

"선생님 오셨습니까?"

하고 인사를 하며 도술로 산짐승을 잡아 주었다.

정승의 환갑잔치 이후 두꺼비는 집안사람들을 불러 모으고는 사람의 모습으로 변신하더니

"나는 하늘에서 죄를 짓고 내려왔다. 곧 돌아갈 것이다."

라 하며 원래의 노부부에게 돌아갔다.

두꺼비는 노부부에게

"입에 엽전을 물려 달라."

고 했다. 노부부가 그 말대로 하니 두꺼비의 입에서 엽전이 쏼 나오듯 쏟아져 나와 노부부는 부자가 되었다. 그리고 나서 두꺼비는 노부부에게 하직하고 하늘로 올라갔다.

*주영택, 『부산, 전승 설화를 찾아서』, BNK부산은행, 2015, 249~250쪽.

[해운대구 설화 20]

석대마을의 장사

힘이 센 장사는 역모를 꾸밀 수도 있다는 생각에 조정에서는 죄 없는 장사들을 잡아 죽였다고 한다. 석대마을의 어느 장사 역시 관가에 끌려가 고문을 당해야만 했다. 하지만 고문 끝에 집으로 돌아온 그 장사의 겨드랑이에서는 날개가 돋아나고 있었다.

옛날 석대마을에 홍수가 나서 석대천 둑이 무너져 주변 농토가 휩쓸린 일이 있었다.

하천 주변에 농토를 가진 어느 농가에서는 아들을 시켜 일꾼들을 모집하여 제방을 막기로 하였다. 아들은 그렇게 하겠다고 했고, 제방공사를 하는 날이 되자 부모가 일꾼이 몇 명이냐고 물었다. 아들은 여나흔 명(열여 명)이라고 대답하고 일을 하러 나갔다.

참 대가 되어 아들의 어머니는 열 명분의 참을 이고 제방공사를 하는 현장으로 갔다. 그런데 일꾼은 한 명도 보이지 않고 아들놈은 자고 있었다. 어머니가

"일꾼들은 다 어디 갔느냐."

고 묻자, 아들은

"제방을 메우기 위하여 돌과 흙을 지러 갔습니다."

라고 했다. 그러면서 참은 거기 두고 가시라고 했다. 그래서 어머니는 참을 내려놓고 집으로 돌아왔다. 점심시간이 되어 다시 가보니 아직도 일꾼은 한 사람도 보이지 않고, 참을 가져온 술통은 깨끗하게 비워져 있었다. 아들은 다시

"점심은 거기 두고 가십시오."

라고 하며 여전히 누워 있었다. 어머니는 돌아오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괴이하여 마을 가까이 오다 뒤를 돌아봤다. 그런데 흙먼지가 자욱하여 아무리 보려고 해도 잘 보이지 않았다.

저녁때가 되어 가보니 둑은 이미 다 메워져 있고, 일꾼은 역시 한 사람도 보이지 않았다. 아들 말이

"일꾼은 일을 다 하고 씻으러 갔으니, 씻고 다들 제 집에 돌아갈 것입니다. 걱정 마십시오."

라고 했다.

그날 밤에 아들 몰래 남편에게 오늘의 일을 말했다. 그러자 남편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고 하며 조용히 지켜보자고 했다.

그러나, 세월이 가면서 이 아이가 장사라는 소문이 점점 퍼지게 되니 부모심정이 죽을 지경이었다. 당시 조정에서는 '장사'가 나면 역모할까 두려워 죄 없이 죽였다고 한다.

드디어 관가에서 알고 아들을 잡으러 와서는 말꼬리에 머리카락을 매고 달리니 그대로 끌려서 한양까지 갔다나.

그래도 한 번도 반항하지 않고 끌려왔다는 보고를 받고 관가에서 목숨만은 살려 돌려보냈다. 아들은 이미 병신이 다 된 몸이었으나, 그의 겨드랑이에서는 날개가 돋고 있었다고 전해진다.

*주영택, 『부산, 전승 설화를 찾아서』, BNK부산은행, 2015, 253~255쪽.

2. 서부산 문화권 설화

1) 강서구 설화

[강서구 설화 1]

김수로왕과 허왕후의 만남

- 하늘이 점지한 왕후, 돌배(石舟) 타고 가야에 오다

- 장소 : 부산시 강서구 녹산동

서기 42년 3월 3일 하늘에서 구지봉으로 금상자가 내려와 그 상자 안의 6개 알 중 1개의 알에서 어린 애가 나왔는데 세상에 처음 태어났다고 하여 이름을 수로(首露)라 하였다. 수로는 9척의 큰 키로 자라 그달 보름날에 왕위에 올라 금관가야의 임금이 되었다.

48년 나라를 세운 지 7년이 지나도 왕비가 없자 신하들이 왕비를 들일 것을 청하자 수로왕은 "짐이 여기에 내려온 것은 하늘의 뜻이고, 짐의 배필이 될 왕후도 역시 하늘의 뜻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하 유천간(留天干)에게 망산도에 가서 왕비가 될 인도 아유타국 공주 허황옥을 맞이하라고 명했다. 실제로 허황옥 일행이 탄 배(石舟)가 적황색 깃발을 휘날리며 용원 앞바다에 모습을 드러내자 유천간이 봉홧불을 들고 일행을 맞았다.

망산도에서 서남쪽으로 300m쯤 떨어진 유주각(維舟閣)의 유주비에는 '대가락국태조왕비보주태후 허씨가 배를 맨 곳'이라 새겨져 있다. 유주비는 김해 김씨 후손들이 허황옥의 금관가야 방문을 기리며 세운 것이다.

허황옥이 오던 날 수로왕은 왕궁에서 서남쪽으로 60걸음쯤 되는 산기슭에 장막으로 궁실처럼 꾸며놓고 기다렸다. 허황옥은 가까운 산 언덕에서 잠시 쉰 후, 입고 왔던 비단바지를 벗어 폐백으로 삼아 산신께 제를 올렸다. 그리고는 여러 신하들을 물리치고 수로왕과 단 둘이 산으로 향했다.

황옥은 침전에서 수로왕에게 "저는 아유타국의 공주로 성은 허요, 이름은 황옥이며, 나이는 열여섯입니다."라고 말한 후 "내가 바다 저편 아득한 남쪽에서 건너와 추한 용모로 존귀한 분을 모시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수로왕은 "나는 천생이 비범하여 공주가 멀리서 오시리라는 것을 알고 신하들에게 왕비를 맞아들이라고 청했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이제 현숙한 분이 스스로 찾아왔으니 나로서는 다행한 일입니다"라고 답했다.

이틀 밤과 반나절을 함께 보낸 수로왕과 허왕후는 타고 온 배의 사공 15명에게 각각 쌀 열 섬과 피륙 서른 필을 주어 본국으로 보냈다.

수로왕과 허왕후는 8월 초하룻날 정오쯤 왕국으로 돌아왔다. 허왕후가 입었던 비단바지를

벗어 산신령에게 폐백 예물로 바치는 것을 본 수로왕은 그 신령함에 감동을 받아 그 명덕을 기르고 허씨의 아름다움을 달에 비유하며 이 산 이름을 '명월산(明月山)'이라 명명했다. 명월산의 암자 또한 명월사(明月寺)라 불렀다. 현재 명월산의 공식 명칭은 보배산이다.

이후 수로왕은 명월사를 크게 중축하게 하고 많은 토지를 사전(寺田)으로 하사했다. 이 덕분에 절이 크게 번창했고, 신도 또한 300명이 넘었다. 명월사에 속한 암자 또한 여러 개가 생겨났다.

수로왕은 명월산에 세 절을 세워 신(新)·진(鎭)·흥(興) 등 세 글자를 '나라 국(國)' 자 앞에 조합해 나라를 위해 축원하는 장소로 활용했다. 신국사(新國寺)는 세자를 위하여 산 서쪽 벼랑에 지었고, 진국사(鎭國寺)는 허왕후를 위해 산 동쪽 골짜기에 세웠고, 왕 자신을 위해 중축한 흥국사(興國寺)는 산 가운데 위치해 있었다. 이를 삼원당(三願堂)이라 불렀는데 흥국사를 제외한 두 절은 지금은 기록에만 남아 있고 옛터는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다. 명월사는 지금의 명동마을 계곡 깊은 곳에 위치한 흥국사로 전해진다. 흥국사(부산 강서구 지사동 478)에는 명월사사적비(명월사 창건과 중창 내력)와 극락전의 사왕석(蛇王石, 높이 60cm, 너비 80cm, 수로왕과 허황옥 공주의 만남, 좌불 양각과 코브라 뱀 조각 등 불교 남방 유래설) 그리고 가락국태조왕영후유허비(허황후 유허비)가 있다.

허황옥은 본래 물을 다스리는 물의 화신이었다. 하지만 가락국에 불교 신앙이 크게 확산되면서 바다 멀리서 교역선에 실려 전해져온 남방불교와 관련된 인물로 추정할 수 있다.

*주영택, 『부산의 전설 보따리』, 가마골향토역사연구원, 2013, 179~182쪽.

[강서구 설화 2]

성산마을의 사자바위

- 바위로 변한 숫이무기가 "부인아! 진작 자네 말을 들을걸…"

- 장소 : 부산시 강서구 녹산동

강서지역 녹산 앞 수문 가에 암수 이무기(강철이)가 살았는데, 숫이무기가 어찌나 사나웠던지 근처를 지나가는 배나 행인을 해치는 일이 많았다.

그래서 암이무기가 숫이무기를 보고 "여보, 당신 너무 그렇게 사납게 놀면 누가 좋아하겠소? 신이 안 좋아하는데, 이 지방에 사는 사람이면 당신을 좋아하겠소? 그러니 부디 마음 좀 고치고 점잖아지시오."하고 타일렀다.

그러나 숫이무기는 말을 듣지 않고 제 멋대로 놀았다. 하루는 숫이무기가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 압실의 잔뫼등에 가서 사나운 장난을 하였다.

그곳에 사는 산신이 내려와 "너 이놈! 여기는 너 살 곳이 아니고 내가 사는 곳인데, 네가 여기

함부로 와서 사람과 짐승을 해치니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어찌할 것이냐? 나와 싸울 것이냐?"

이 말을 들은 숫이무기는 다소곳이 "예, 물러나가겠습니다."라고 답은 해놓고 물러가지 않았다.

그러자 산신이 노해 숫이무기를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욕을 많이 보였더니, 숫이무기가 "다시 한번 보자."하고 돌아갔다.

그 뒤 며칠이 지나자, 하늘에 먹구름이 일더니 천둥과 함께 번개가 치고, 바닷물이 치솟아 들끓고 하여 수문 근처에 난리가 난 것 같았다. 조금 지나니 비가 멎고 해일도 잠잠해졌는데, 숫이무기가 자취를 감추어버렸다.

암이무기가 남편의 자취를 살펴보니, 그 옆에 이때까지 없었던 자리에 큰 바위가 하나 생겨, 바위가 하는 말이 "부인아! 내가 여기에 있다. 내가 진작 자네 말을 듣고 점잖아졌더라면 이런 꼴이 안 되었을 것인데, 참 후회스럽구나!" 하고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숫이무기가 곧 바위로 변한 것이다.

이 사자바위는 녹산동 성산마을에서 장락으로 가는 길의 동북쪽 300m 지점 길옆에 있다. 1년에 한 번씩 당산제(음력 4월 7일 오전 10시)를 지내고 있다.

*주영택, 『부산의 전설 보따리』, 가마골향토역사연구원, 2013, 221~222쪽.

[강서구 설화 3]

신호마을과 명당 게구멍(蟹穴)

- 아버지 시체를 버린 게펄 게구멍이 명당자리

- 장소 : 부산시 강서구 녹산동

옛날 신호마을에 마음씨 착한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는 마음씨가 착하지만 가난하게 살았는데 병명도 알 수 없는 병에 걸려 아프기 시작하였다.

그는 아픔을 참지 못해 아들을 시켜 녹산에 가서 약을 좀 지어오라 했다.

아들은 빚을 내어 남의 배를 빌어 타고 녹산으로 가 한약국을 찾아 아비의 병 증세를 말하고 약을 지어 달라 했더니, 바짝 여위고 병색이 짙은 의사가 약값을 턱 없이 비싸게 달라 하기에 약을 사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 왔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약을 짓지 못한 사연을 말하고, 다시 빚을 내어 녹산에 가서 저번에 갔던 한약국의 의사가 자기 병도 못 고치는 그 한약국에서 약을 지으면 효험이 없다고 생각하고 다른 한약국을 찾았으나 없어서 되돌아 왔다. 그리고 얼마 뒤에 아버지는 죽고 말았다.

이번에는 죽은 아버지를 명당에 써서 가난을 면해보자고 녹산에 사는 이름 난 풍수를 찾았

다. 이름 난 풍수 집안을 찾아가보니 참으로 형편없이 살고 있었다.

그래서 아들은 '사람이 복지 복대로 사는 것이지, 묘를 잘 쓴다고 잘사는 것이 아니다.'라 생각하고 도로 집으로 돌아왔다.

아들은 아버지의 시체를 가마니에 둘둘 말아 바닷가 둑에서 건너편 진우도 쪽의 바다를 향해 시체 싼 가마니를 굴러 내렸다.

아버지의 시체는 둘둘 굴러 내려가더니 바닷물이 나간 개펄에 멎었다. 아들은 그것도 타고난 복대로라면서 아버지의 장례를 그렇게 치르고 말았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가? 고기를 잡아도 만선이고, 보리를 심어도 대풍이었다.

아들은 참 이상한 일도 있다고 생각하면서 어느 날 아버지 시체를 버린 바닷가로 나와 보았다. 그랬더니 시체를 쌌던 가마니가 게구멍(蟹穴, 해혈)위에 놓여 있었다. 게구멍이 바로 명당자리였던 것이다. 게는 열 개의 다리로 긁어모으는 버릇이 있어 바로 그 부지런함이 아들에게 전해지고 아들은 그래서 잘 살게 되었던 것이다.

이런 일이 있고 난 뒤부터 이 동네 사람들을 정월 보름과 같은 명절이면 게를 먹으면서 게 발로 재산을 긁어 쌓아 올리듯 부자가 되도록 해 달라고 빌게 된 것이라 한다.

*주영택, 『부산의 전설 보따리』, 가마골향토역사연구원, 2013, 223~224쪽.

[강서구 설화 4]

소금밭에 출현한 도깨비

- 도깨비가 왜놈한테 재앙을 주고 상여노래에 떨고…

- 장소 : 부산시 강서구 녹산동

옛날 신호마을은 소금밭으로 유명했다. 이 소금밭은 원래 우리의 것인데 왜놈이 들어와서 자기네 것으로 만들어버렸다.

갑신년(1944년)에 해일이 밀어닥쳐 소금밭에서 일하던 조선 사람이 여러 명 물에 빠져 죽었다. 그러나 왜놈들은 위문은커녕 보상도 하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이 귀신이 되어 왜놈한테 재앙(災殃)을 주거나 도깨비가 되어 나와서 왜놈들이 가는 길을 막고 멱살을 잡아 땅바닥에 처박을 것이라고 말들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달빛이 어슴프레한데 소금밭 옆을 술에 취한 채 혼자 지나던 왜놈에게 생면부지의 조선 사람이 나타나 친절하게 담배를 건너 주며 이야기를 거는 것이었다. 왜놈은 마음 놓고 둔덕에 앉아 같이 담배를 피우며 이야기를 나누다가 조선 사람이 씨름을 하자고 했다. 왜놈이 쾌히 응하여 씨름을 여러 차례 했으나 한 번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소금밭에 곤두박히고 말았다.

이튿날 날이 새었을 때 가보니 왜놈은 소금밭의 흙탕에 쓰러져 자고 있었고, 그 옆에는 소금을 쓸어낼 때 쓰는 몽당대빗자루 하나가 손잡이까지 흙투성이가 되어 있었다.

또 그해 어느 날 달밤에 해일 때문에 쓰지 못하게 된 소금밭에 느닷없이 도깨비들이 상여를 메고 나타난 것이었다. 도깨비들은 상여노래를 부르면서 못쓰게 된 소금밭을 왔다 갔다 했다. 왜놈들은 놀라서 잠시 소금밭 주변에서 물러나 떨고 있었다.

조선 사람들이 팥죽을 끓여 소금밭 여기저기에 흩었더니 상여도 사라지고 상여소리도 멎었다고 한다.

그 뒤 마을 사람들은 해일에 휩쓸려 죽은 사람들의 원혼을 달래는 제사를 지내주고 나니, 마을도 조용해졌고 왜놈들도 조선 사람을 함부로 다루지 못했다고 한다.

*주영택, 『부산의 전설 보따리』, 가마골향토역사연구원, 2013, 249~250쪽.

[강서구 설화 5]

명지도와 공민왕 어필

홍건적의 난이 일어났을 당시 고려 공민왕은 복주(福州 : 안동)의 영호루에서 적적한 마음을 달랬는데, 반란이 끝나고 개경으로 환궁한 후 친필로 영호루(暎湖樓) 석 자가 쓰인 금자현판을 누각에 달게 했다. 1605년 대홍수로 영호루의 현판이 떠내려갔는데, 훗날 하늘에서 서광이 비치면서 명지도에서 영호루의 금자현판을 회수하여 복주로 보냈다.

낙동강 하구 삼각주의 최남단에 위치한 섬, 명지도(鳴旨島)는 육지와 연결된 후 강서구 명지동이 되었다. 《신증동국여지승람》(1530년) 김해도호부 산천조에는 '명지도는 김해부 남쪽 바다 가운데 40리 물길에 있다. 동쪽으로는 취도와 200보 정도 떨어져 있다. 섬의 둘레가 17리'라고 되어 있다.

명지라는 이름의 유래는 '장차 큰 비나 큰 바람이 있을 것 같으면 반드시 울음소리가 나는데, 그 소리가 우레와 같기도 하고 북소리 같기도 하고 종소리 같기도 하다. 그러나 그 소리를 섬에서 들으면 멀리서 나는 소리가 되어서 어디서 나는 소린지를 알 수가 없다고 하였다. 그 울음소리에서 '울 명(鳴)', '아름다울 지(旨)'를 써서 명지로 부르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명지도는 농지로 사용되기 전에는 온 섬이 갈대밭이라 바람이 불면 갈대의 마찰로 울리는 소리로 표현한 지명이라 볼 수 있다. 명지도에 가장 먼저 살았던 사람은 김해 김씨 15대 후손이라 하니, 약 500년 전부터 사람이 정착하여 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곳은 바다를 끼고 있는 지리·환경적 특성으로 특산물은 소금이었다. 이곳의 소금은 한 때 영남 일대의 주민들이 명지 소금을 먹고 살았다고 할 정도로 유명하였다.

관방요해처(關防要害處)에도 《김해지》의 취량 명지는 육지와 서로 떨어지기를 수로(水路) 30리인데, 본시 농장이 없다.'는 대목이 적혀 있다. 조선 지리지에도 1469년(예종 1) '왜선

(倭船)이 와서 정박하는 요해지(要害地)'라고 나와 있어 이것이 명지도의 옛 모습이다.

명지도에 고려 공민왕의 어필(御筆 : 글씨)에 얽힌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1361년 홍건적의 난이 일어나서 고려 공민왕이 복주(福州 : 안동)로 피난하였다고 한다. 왕은 피난 중의 적적한 마음을 달래기 위하여 자주 남문 밖에 우뚝 서 있는 누각을 찾았고, 때로는 누각 밑 강물에 배를 띄우기도 하였으며, 사장에서 활쏘기 경기도 하였다고 한다.

반란이 끝난 후 개경으로 환궁한 왕은 복주를 대도호부(大都護府)로 승격시키고, 영호루를 잊지 못하여 1366(공민왕 15) 겨울, 친히 붓을 들어 '영호루(暎湖樓)' 석 자를 쓴 금지현판(金字懸板)을 판전교시사(判典校寺事) 권사복(權思復)을 보내 누각에 달게하였다,

1367년 안동판관 신자전(申子展)이 영호루의 규모가 작아 공민왕이 내린 현판을 걸기에 어울리지 않으므로 영호루의 위치를 더욱 물에 가깝게 하고 규모를 크게 확장하여 중수하였다. 그 후 1650년(선조 38) 대홍수로 인하여 영호루까지 강물이 올라와서 유실(流失)되고 현판도 떠내려갔다.

뒤에 낙동강 하류지역 명지도의 한 곳에서 서광(瑞光)이 하늘에 쭉 비치므로 명지도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겨 땅을 파보니, 복주에서 떠내려온 영호루 금자현판이 파묻혀 있었다. 현판을 회수하여 복주로 보내 영호루에 걸었다고 전해온다.

현재 영호루에 걸려 있는 공민왕이 썼다는 현판은 홍수로 영호루가 유실될 때마다 그 운명을 함께하였다. 유실되었던 현판은 한두 해 또는 십여 년 뒤에 가까이는 안동시 풍산에서, 멀리는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서 그때마다 수습되었다. 따라서 영호루의 복원은 현판의 회수와 늘 함께 이루어졌으며, 현재의 현판은 1934년의 홍수 때 유실되었다가 그해 가을 경북 구미 부근의 강물에서 회수한 것이다.

현재 영호루(대지 1,085평)는 철근 콘크리트로 정면 5칸, 측면 4칸 규모의 팔작지붕으로 된 한식 누각이다. 안동시가지 남쪽 강 언덕인 정하동(亭下洞)에 위치하고 있으며, 1970년에 중건하였다.

영호루의 북쪽 면에는 공민왕의 친필 현판을 걸고, 남쪽 면에는 박정희 대통령의 친필인 '영호루'를 걸어두었다.

*주영택, 『부산, 전승설화를 찾아서』, BNK부산은행, 2015, 97~99쪽.

[강서구 설화 6]

아름다운 미음마을

효심이 지극한 어부가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갑자기 세찬 바람과 뇌성이 일어 집에 와 보니 노모는 간 곳이 없고 치맛자락만 휘날리고 있었다. 그런데 하늘에서 노모의 목소리와 풍악소리가 들려와 노모가 승천했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아름다운 풍약소리가 났다고 해서 '미음(美

音)'이라 하였고, 노모의 치마가 휘날렸던 산은 '풍상(風裳)'산이라 불리게 됐다.

미음(美音)마을은 녹산동 22통 지역으로 풍상산(風裳山)을, 앞으로는 대야(臺也)들을 앞에 둔, 동쪽 방향으로 자리 잡고 있는 마을이다. 900여 년쯤에는 지금의 미음동(美音洞) 앞의 들이 바다였으며 뒷산인 풍상산 기슭에 선창(船艙 : 부두)이 있어 선창걸이라고도 불렀다. 그 당시 이곳에 한 어부가 백세 노모와 두 남매를 데리고 살고 있었는데 그는 효성이 매우 지극하였다고 한다.

어느 날 어부는 바다로 고기 잡으러 나가고 노모는 산으로 나물을 캐러 올라갔는데, 갑자기 하늘에 먹구름이 덮이고 세찬 바람과 함께 뇌성(雷聲)이 천지를 진동하였다.

그때, 어부는 노모의 일이 걱정이 되어 집에 와서 허둥지둥 산으로 올라가서 목이 터지게 노모를 불렀으나, 노모는 간 곳이 없고 노모의 치맛자락만 가시덩쿨에 걸려 거센 바람에 휘날리고 있었다. 어부는 노모의 치마를 움켜쥐고 울음 섞인 목소리로 노모를 불렀다.

그때, 하늘에서 아름다운 풍악소리와 함께 노모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하느님의 명을 받아서 승천한 너의 어미이다. 내 아들아! 내 걱정은 하지 말고 네가 이곳에서 오랫동안 산다면 너의 자손들은 길이길이 행복을 누릴 것이다. 그리고 이 땅은 하늘의 축복을 받아서 아름다운 풍악소리가 그치지 않을 것이다."

고 하였다.

어부가 고개를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니 험악했던 날씨는 개이고, 맑은 하늘이 노모를 잃은 어부의 마음을 달래주었다.

그 뒤 백 년쯤 지나 이곳에 마을이 형성되니, 마을 이름을 천상(天上 : 하늘 위)위에서 아름다운 풍악소리가 났다고 해서 '아름다울 미(美)'자와 '소리 음(音)'자를 써서 미음마을이라 하였고, 노모의 치마가 바람에 날리며 펄럭이는 산을 '바람 풍(風)'자와 '치마 상(裳)'자를 써서 풍상산이라 이름 지었다고 한다.

*주영택, 『부산, 전승설화를 찾아서』, BNK부산은행, 2015, 101~102쪽.

[강서구 설화 7]

남의 자식을 효자로 둔 사람

강서구 범방도에 세 자매를 둔 아버지가 살았다. 아버지는 재산이 탐나서 효도하는 세 딸을 믿을 수가 없어 유람을 다니다 우연히 어떤 남자를 만나게 됐다. 양자가 된 남자는 아버지를 지극정성으로 모셨고, 아버지는 그 효성에 감탄해 딸들에게 주었던 재산을 돌려받아 아들에게 주었다.

옛날 강서구의 범방동이라는 마을에 세 자매를 둔 아버지가 살고 있었다. 그는 자신에게 잘하는 딸에게 재산을 많이 주겠다고 했다. 아버지는 큰딸 집에 머무르고 있었는데, 자기 집에서

모시겠다는 작은딸의 요청에 작은딸 집으로 갔다. 작은딸은 아버지를 지극하게 봉양했고, 아버지는 작은딸에게 논 다섯 마지기를 주었다. 얼마 후 막내딸 집을 가니 막내딸도 아버지를 극진히 모셨다. 그래서 막내딸에게는 논 여섯 마지기를 주었다. 이렇게 세 딸이 돌아가면서 아버지를 잘 모셨고, 아버지는 자신의 재산을 계속 나누어 주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모두 진심이 아니라 재산을 노리고 한 행동이었다.

딸들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한 아버지는 유람이나 다닐 요량(料量 : 앞일에 대해 잘 생각하며 헤아림)으로 집을 나왔다.

어느 마을에 도착한 아버지는 장승 앞에 앉아서 담배를 피우며 '내가 늙어서 왜 이렇게 됐을까?' 하고 한탄을 하고 있었다. 이것을 들은 어떤 사람이 지게를 내려놓으면서

"아버지, 저 따라갑시다."

라고 했다. 아버지는 생선 처음 보는 사람에게 무슨 일이냐고 했지만, 그 사람은 오늘부터 아버지로 모시겠다며 집으로 모셨다. 집에 가니 그 사람의 아내가 웬 손님을 모시고 오느냐고 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아내를 데리고 부엌으로 들어가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남편의 말을 다 듣고 난 아내는 밖으로 나와

"아이고, 아버님 오셨습니까?"

라고 하며 세 자매의 아버지를 자기 시아버지처럼 지극정성으로 모셨다. 그렇게 며칠이 지난 뒤, 아들과 며느리는 동네 사람들에게 아버지를 인사시켜 드려야겠다며 잔치를 벌였다.

그리고 또 하루가 지난 뒤, 아들과 며느리는 아기를 맡기고 일을 하러 나갔다. 아들과 며느리는 혹시라도 아버지가 귀찮으실까봐 아기는 젖을 많이 먹이고,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술을 한 주전자 받아 놓고 갔다. 그런데 세 자매의 아버지가 그만 술에 취해서 아기를 깔고 눕는 바람에 아기가 죽었다. 세 자매의 아버지가 구석에 앉아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일을 다녀온 아들과 며느리가 아기가 죽은 것을 보고는 오히려 아버지에게

"아버님, 괜찮습니다. 자식은 또 낳으면 되니까 너무 근심하지 마십시오."

라고 했다.

세 딸의 아버지는 너무 고맙고 감사하여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아버지는 세 딸한테 가서 더 좋은 논을 준다고 꾀어 원래 주었던 문서 세 장을 전부 받아가지고 돌아왔다. 그리고는 아들한테 자신의 전 재산을 주었다. 딸들이 울며 따라와서 보니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자신들의 아버지를 모시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본 딸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그만 돌아갔다. 그리하여 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 잘 살게 되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세 자매들에게도 조금 나누어 주었다고 한다.

*주영택, 『부산, 전승설화를 찾아서』, BNK부산은행, 2015, 103~104쪽.

[강서구 설화 8]

산신령이 도운 효자

문둥병에 걸린 어머니를 모시는 효심 깊은 나무꾼이 가덕도 동선동에 살고 있었다. 어느 날, 그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체를 알 수 없는 고깃덩어리를 발견하고는 가져다가 국을 끓여 어머니의 저녁상을 차려 드렸다. 그리고 그 후 어머니의 문둥병이 말끔히 낫게 된다. 그건 문둥병을 낫게 하기 위해 산신령이 선물로 내려준 지렁이 고기였다고 전해진다.

현재 가덕도의 동선동은 옛날에는 산골이었다. 이곳에는 문둥병에 걸린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나무꾼이 있었다. 하루는 나무꾼이 장에 나무를 팔러 갔는데, 그날따라 나무가 잘 팔리지 않았다. 날이 저물 무렵에야 겨우 다 팔고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때는 이미 다른 장사치들은 모두 돌아가고 없던 때였다. 나무꾼은 어쩔 수 없이 다른 반찬은 사지 못하고 쌀만 겨우 사서 집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날이 이미 어둑어둑해져 앞이 잘 보이지 않았다.

깊은 산속에 이르렀을 때, 길가에 붉은색의 어떤 물체가 가로놓여 있는 것이 보였다. 그는 무서운 생각이 들어 지니고 있던 낫으로 그것을 반으로 갈라 버렸다. 그리고는 두 동강이 난 것 중 하나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다. 집으로 돌아온 나무꾼이 가지고 온 것을 살펴보니 어떤 동물의 것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붉은색 고깃덩어리였다. 나무꾼은 그 고깃덩어리로 국을 끓여 어머니의 저녁상을 차려 드렸다. 어머니는 그 국을 맛있게 드신 후 잠이 들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어머니가 누웠던 자리에 구더기가 가득했다. 나무꾼은 구더기를 치우고 어머니를 씻겨 드렸다. 그런데, 어머니를 씻기고 나니 어머니의 문둥병이 싹 나아 있었다. 나무꾼이 저녁에 어머니께 끓여 드린 고기가 바로 산신령이 나무꾼의 효심에 감복해서 문둥병을 낫게 하려고 내려준 지렁이 고기였던 것이다.

얼마 후 나무꾼의 어머니가 문둥병에 걸렸다가 나았다는 소문을 듣고, 그 고을의 정승이 나무꾼을 찾아왔다. 자신의 아들이 문둥병에 걸렸는데 어떻게 하면 낫게 할 수 있냐고 묻기 위해서였다. 나무꾼은 그간의 사정을 정승에게 말하며 남아 있던 지렁이 고기를 내어 주었다.

정승은 나무꾼에게 받은 지렁이 고기로 국을 끓여 아들의 문둥병을 고칠 수 있었고, 그 보답으로 그의 재산의 반을 떼어 주었다. 나무꾼은 정승에게 받은 재산으로 장가도 가고, 어머니를 모시며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한다.

*주영택, 『부산, 전승설화를 찾아서』, BNK부산은행』, 2015, 107~108쪽.

[강서구 설화 9]

순아도와 처녀골

남대포(南大浦)라는 갈대가 무성한 곳에 '순아'라는 처녀가 살고 있었는데 임진왜란 때 외적이 순아를 발견하고는 음욕을 품게 된다. 이에 아버지는 딸을 배에 싣고 피신한다. 아버지와 순아는 골짜기 위 산으로 도망치지만 따라온 왜적과 함께 골짜기로 떨어져 죽고 만다. 이후 순아가 살던 갈대의 섬은 순아도, 순아가 죽은 골짜기는 처녀골이라 불리게 되었다.

김해군 가락면 제도리(濟島里) 남쪽에 위치한 포구라 해서 남대포(南大浦)라 불리는 이곳에 순아도 마을이 있다. 이곳은 진목리(眞木里) 서북쪽에 위치하고 있어 행정상으로는 명지동에 속한다.

옛날 이 일대는 갈대가 무성한 곳으로 몇 곳의 집이 있었다. 그 중 어부의 집에는 '순아'라는 이름의 과년(瓜年 : 결혼하기에 적당한 여자의 나이)한 예쁜 처녀가 부모와 살고 있었다. 순아에게는 결혼할 날짜를 잡아 놓은 총각이 있었다. 그런데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왜적 몇 명이 이곳을 수색하다 순아를 발견하고는 음욕을 품게 되었다.

이를 눈치 챈 아버지는 밤이 되자 딸을 피신시키기 위해 작은 배에 딸을 싣고 녹산 쪽을 향해 노를 저어 가기 시작했다. 음욕을 품었던 왜적은 저녁에 순아의 집에 들이닥쳤다가 배를 타고 도망가는 것을 보고는 헤엄을 치며 따라갔다.

이를 본 부녀는 급히 녹산의 북쪽 3~400m 위의 절벽이 있는 골짜기 위의 산으로 도망쳤는데, 계속 왜적에 따라 기어 올라오자 산봉우리에서 아비는 큰 돌을 굴려 왜적을 죽이려고 하였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돌은 빗나갔고, 왜적을 맞추지 못했다.

산봉우리까지 따라온 왜적이 칼을 뽑아 아비를 내려칠 때, 순아는 왜적의 손가락을 잡고 당겼으나 아비와 왜적은 산 위의 절벽에서 함께 떨어지고 말았다. 그리고 왜적이 떨어지며 던진 칼에 순아 역시 맞으며 셋은 함께 골짜기로 떨어져 죽고 말았다.

뒷날, 순아가 살던 갈대의 섬은 '순아도(順牙島)'라 불리게 되었고, 처녀가 죽은 골짜기는 '처녀골'이라 불리게 되었다.

그리고, 결혼을 약속한 총각 편에서는 뒤늦게 순아가 죽은 사연을 듣고 처녀골에 제단을 차려 처녀의 명복을 비는 제사를 올렸다고 전해진다.

*주영택, 『부산, 전승설화를 찾아서』, BNK부산은행, 2015, 109~110쪽.

[강서구 설화 10]

사암마을의 여바위

사암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네 개의 바위, 너바위가 있다. 임진왜란 때 옥포해전에서 참패를 한 왜수군이 전열을 가다듬을 계획을 하던 중, 육지 쪽에 네 명의 장군이 엎드려 있는 것이 보였다. 이에 놀라 다시 바다로 되돌아 나갔고, 또 참패했다. 후에 그것이 바위라는 사실을 안 왜군은 "너가 바위였구나."하여 너바위라 불리게 되었다.

사암마을은 낙동강 하구로 흐르는 강물이 마을 앞에서 진해만과 남해로 물길이 나뉘는 해안에 퇴적토 유사로 형성된 갈발을 끼고 있는 곳이다.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국수봉(國守峰) 잔등성이가 남서로 눌러 앉은 아래에는 네 개의 바위, 즉 선바위, 탕건바위, 입천바위(立川岩), 등잔바위가 있어 사암(四岩)이라는 이름이 생겼다. 또한 이들 네 바위를 넙덕바위(廣岩), 강도바위(强盜岩), 입천바위(立川岩), 석사바위(石沙岩)라 하고, 네 개의 바위를 사암(四岩) 넷바위, 여암(汝岩, 넷바위-네바위-너바위 또는 여바위(汝바위)로 음운변이를 하였다.) 너바위라 하기도 한다.

이 너바위에 대한 이야기는 임진왜란(1592년)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옥포해전에서 참패한 왜수군이 가덕도 뒤 어느 적당한 곳에 숨어 있다가 가덕수로(加德水路)로 빠져나오면서 다시 전열을 가다듬을 계획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바다에서 어둑어둑한 육지 쪽을 바라보니 네 명의 억센 장군들이 엎디어 있는 것 같았다. 이들은 놀라며 다시 바다로 되돌아 나갔고 우리 수군에서 또 다시 크게 패하고 말았다. 후에 장군들인 줄 알았던 것이 바위라는 사실을 확인한 왜군은 이 바위들을 보고

"너가 바위였구나."

*주영택, 『부산, 전승설화를 찾아서』, BNK부산은행, 2015, 115쪽.

[강서구 설화 11]

장님과 앉은뱅이 형제

강서구 지사동 신명마을의 어느 부부가 산신령에게 기도한 끝에 앉은뱅이와 장님 아들 두 명을 얻게 되었다. 이들은 장성한 후 방방곡곡에서 동냥을 하며 먹고 살았다. 우연히 우물에서 발견하게 된 금덩이 앞에서도 서로 가지라며 양보하던 우애 좋은 형제는 결국 쪼개진 금덩이를 절을 짓는 데에 사주하고는 돌아간다. 훗날 이들은 일어설 수 있게 되고, 눈 뜨게 되어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전해진다.

옛날 강서구 지사동의 신명마을에 마흔이 넘도록 자식이 없는 부부가 있었다. 이 부부는 산신령에게 병신이라도 좋으니 혈육 하나를 달라고 빌었다. 그 후로 태기가 있었는데 앉은뱅이 아들

을 낳게 되었다. 부부는 나중에 자신들이 죽고 난 뒤 앉은뱅이 아들의 앞날이 걱정스러웠다.

그래서 또 한 번 빌기를, 장남이라도 좋으니 아들이 외롭지 않도록 아이 하나를 더 낳게 해 달라고 빌었다. 그랬더니 정말로 눈 먼 장님 아들이 태어났다.

세월이 흘러 부부는 죽고 앉은뱅이와 장님 형제만 남았다. 형제는 앞으로 살길이 막막했다. 그때 꾀가 많은 아우가 형에게 자신은 다리가 있으니 형을 업고, 형은 눈이 밝으니 자신에게 길을 일러주면, 방방곡곡에 다니면서 얻어먹고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아우의 말처럼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동냥을 하면서 먹고 살았다.

어느 날 고개를 넘는데 형이 목이 마르다고 하여 개울가를 찾아갔다. 형제가 물소리를 쫓아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서 샘을 찾고 보니, 샘 위에 금덩이가 붙어 있는 것이었다. 두 사람은 금덩이를 보고 서로 가지라며 다투다가 끝내 아무것도 갖지 않고 물만 마시고 그 자리를 벗어나 버렸다.

그렇게 한참을 가는데 노루 한 마리를 쫓는 사냥꾼을 만났다. 사냥꾼이 노루가 간 곳을 형제에게 묻자 형제는 사냥꾼에게 노루를 잡을 것이 아니라 샘으로 가서 거기에 있는 금덩이를 찾으라고 알려주었다.

사냥꾼은 그 말을 의심하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샘을 찾아갔다. 그랬더니 샘 위에 커다란 구렁이가 입을 벌리고 사냥꾼을 잡아먹으려고 달려드는 것이었다. 사냥꾼은 놀란 나머지 구렁이를 총으로 쏘아 죽였다. 그리고 다시 형제를 찾아 자신을 속였다며 화를 냈다.

사냥꾼이 돌아간 뒤 장님인 아우가 형에게 잘못 본 것이 아니냐며 물었는데, 분명히 금덩이를 봤던 형이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아우에게 다시 샘이 있는 곳으로 가보자고 했다.

샘이 있는 곳에 이르러 사냥꾼이 죽였다던 구렁이를 찾아봤지만 그 자리에는 총에 맞아 둘로 갈라진 금덩이가 놓여 있었다. 형제는 나눠진 금덩이를 하나씩 가지고 산을 내려왔다.

형제가 산에서 내려오는 길에 스님 한 분이 절을 짓기 위해 시주를 받고 있었다. 형제는 스님에게 금덩이 하나를 시주했다. 스님은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며 사는 곳과 이름을 물었다. 그리고는 형제에게 시주받은 금덩이로 절을 짓고 그들을 위해 불공을 드렸다.

세월이 흘러 형제가 어느 마을을 지날 때였다. 마침 사람들이 절에 불공을 드리러 간다며 몰려가고 있었다. 형제도 불공 소리라도 듣고자 절을 찾았는데, 그 절이 바로 형제가 시주한 금덩이로 지은 절이었다. 절이 있던 스님은 형제를 극진이 맞이했고, 두 사람을 위해 불공을 드렸다.

훗날 앉은뱅이 형은 일어설 수 있게 되었고, 장님 동생은 눈을 뜨게 되었다. 그리고 두 형제는 잘 살았다고 한다.

*주영택, 『부산, 전승설화를 찾아서』, BNK부산은행, 2015, 119~120쪽.

[강서구 설화 12]

내 복에 산다

부모가 "너는 누구 덕에 먹고 사느냐?"는 질문에 "내 복에 먹고 산다"고 대답한 막내딸과 관련된 이야기가 강서구 송정동 일대에 두 가지 형태로 전해지고 있다.

'내 복에 산다'라는 형태의 두 가지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다.

옛날 강서구 송정동에 살던 어떤 부자가 딸들을 불러 놓고

"너는 누구 덕에 먹고 사느냐?"

라고 물었다.

그랬더니 다른 딸들은

"아버지 덕에 먹고 삽니다."

라고 대답하는데, 막내딸만이

"내 복에 먹고 삽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 말을 들은 아버지는 화가 나서 막내딸을 쫓아냈다.

쫓겨난 막내딸은 길에서 숯 굽는 총각을 만났는데, 날이 어두워져 그 총각을 따라가 하룻밤을 보내고 부부가 되었다. 아침에 밥을 가지고 숯 굽는 가마로 갔더니, 가마가 전부 금덩이였다. 그것을 본 막내딸은 총각에게 숯을 팔지 말고 금덩이만 갖다 팔라고 했다. 금을 팔아 논을 사서 부부는 부자가 되었다. 반면에 막내딸을 내쫓은 부잣집은 차차 살림이 기울었다. 막내딸은 친정집 논을 다 사서 친정집 부모를 먹여 살렸다. 그래서 결국에는

"내 복에 먹고 산다."

라고 한 막내딸의 말대로 되었다고 한다.

두 번째 이야기도 비슷한 유형이다. 어떤 부자가 세 딸이 있었는데, 하루는 딸들을 불러서

"누구 덕으로 먹고 사느냐?"

라고 묻자 큰딸과 둘째 딸은

"다 아버지 덕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반면에 막내딸은

"내 덕으로 먹고 삽니다."

라고 했다.

화가 난 아버지는 막내딸을 집에서 쫓아냈다. 그 막내딸의 이름이 복남이었다.

복남이는 집을 나가서 산 속으로 들어갔는데, 금세 밤이 깊었다. 산 속에서 불빛을 따라가 보니 조그마한 움막이 하나 있었다. 그 움막 안에는 숯 굽는 총각과 그의 노모가 살고 있었는데, 복남이는 그 집에서 며칠을 머물렀다.

그러던 어느 날, 복남이는 총각을 따라 숯 굽는 가마를 구경하러 갔다. 복남이가 보니 가마 위

를 덮은 구들장이 전부 금덩이였다. 복남이는 총각에게 내일부터는 구들장을 한짐씩 지고 시장에 가서 팔아 오라고 했다. 금덩이를 다 팔고 난 복남이와 총각은 청기와 집을 몇 채나 지었다. 복남이는 청기와 집을 지으면서 열 두 대문을 달았는데, 대문을 열고 닫을 때 '복남아' 하는 소리가 나도록 만들었다.

한편, 딸을 쫓아낸 그 집안은 하루하루 쇠락하여 망하고 말았다. 딸을 쫓아낸 아버지와 어머니는 전국 방방곡곡으로 먹을 것을 얻으러 다녔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떤 마을에 가니 좋은 청기와 집이 줄줄이 수십 채가 있기에 밥이라도 한 술 얻어먹으려고 주인이 있는 제일 큰 집을 찾아가서 대문을 잡아당기니 "복남아" 하는 소리가 들렸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쫓아낸 딸 생각에 감정이 솟구쳐 대문을 부둥켜안고 아침 내내 그 열 두 대문을 열었다 닫았다 했다. 복남이가 하인에게 대문 밖이 왜 이리 시끄럽냐고 묻자 하인은 어떤 노파가 와서 아침 내내 대문을 열었다 닫았다 한다고 했다. 복남이가 하인에게 그 노파를 데리고 오라 하여 노파에게

"왜 남의 집 대문을 잡고 이렇게 통곡하는가?"

하고 묻자, 그 노파는

"우리가 밥을 얻어먹으려고 왔는데 자꾸 대문이 우리 막내딸 이름을 불러서 막내딸 생각이 나서 울었습니다."

라고 했다. 그 말을 들은 복남이가 노파를 자세히 보니 자기의 부모였다. 그리하여 부녀가 상봉하게 되었다고 한다.

*주영택, 『부산, 전승설화를 찾아서』, BNK부산은행, 2015, 121~123쪽.

2) 북구 설화

[북구 설화 1]

부락내혼의 마을[12)]

또 어떤 게으름뱅이는 손가락 하나 놀리기가 귀찮아서 밥도 그 아내가 숟가락으로 퍼서 입에 넣어 주었다. 어느 날 아내가 급한 일이 있어서 며칠 동안 집을 비우게 되었다. 아내는 흰떡을 길게 만들어서 그 한쪽 끝을 남편의 입에다 물려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것을 먹고 계십시오."라고 말한 뒤 떠났다. 그런데 돌아와서 보니까 그는 입 속에 넣어준 부분만 먹고 밑의 떡은 먹지 않아, 그것을 매단 채 굶어 죽어 있었다고 한다.

1930년 12월 경상남도 동래군 구포읍 이필남 씨 이야기

*최광식 엮음, 『남창손진태선생유고집: 우리나라의 역사와 민속』, 지식산업사, 2012, 565쪽.

[북구 설화 2]

熊川 天子바위

옛날, 함경도(咸鏡道) 어느 곳에 이(李)씨라고 하는 풍수(風水) 잘 보는 한 풍수장이가 있었는데, 그는 자기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자 좋은 묏자리가 없음을 한탄하여 어데든지 명당이 보이기만 하면 묻을 양으로 자기 아버지의 해골을 몸에 지니고 팔도강산을 두루 돌아다니다가 경상도(慶尙道) 웅천(熊川) 바닷가를 거닐고 있을 즈음, 문득 그 중에 한 산맥이 바다 속으로 들어갔는데, 보니까 용호(龍虎)가 날고뛰고 하는 형국이었다.

이리 하여 그 풍수장이는 그제야 한 숨을 내쉬이며 "저 곳이야 말로 내가 오랫동안 찾고 있던 명당이 아닌가"하고 매우 기뻐하였다. 그리 하여 그 곳으로 가보니, 명당은 그 산 맞은편 바다 가운데 있는 바위 밑에 가 있었다. 그래서 그는 실망한 끝에 망설이고 서서 있으려니까, 그 바위 위에서 놀고 있던 한 아이가 자기 앞으로 헤엄을 치고 와서는 "왜? 그곳에서 무얼 보고 서 계십니까"하고 물으므로 그는 "저 바위 밑에는 분명코 명당이 있어, 왼쪽 구멍에는 천자가 날 구멍이 있고, 오른쪽 구멍에는 왕후가 날 구멍이 있으련만, 내가 들어가 볼 수가 없구나"하고 탄식을 하자, 그 아이는 이 말을 듣고, "그러면 내가 헤엄을 잘 치니 들어가 보고 오지요."하고는 헤엄을 쳐 그 바위 밑으로 들어가 보고 와서는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오른쪽과 왼쪽에 각각 구멍이 있습니다." 하므로 그는 자세한 이야기를 그 아이에게 해주고 또 그 아이가 아버지의 해골도

12) 97쪽까지의 원고가 없어 어떤 제목의 설화 중 세 번째 부분인지 확인할 수 없다. 다만 유고에 포함되어 있어 있는 일문 원고에 비슷한 이야기가 실려 있는데, 그 제목은 "大怠け者話三則"으로 되어 있다.

파서 가져오게 한 뒤, 나무함에 담은 자기 아버지의 해골을 그 아이에게 내어 주면서 그것을 왼쪽 구멍에 넣고, 그 아이의 아버지 해골은 오른쪽 구멍에 넣고 오라고 잘 일러 주었다. 그랬으나 그 아이는 물속으로 들어가서는 그 풍수장이의 아버지 해골은 오른쪽 구멍에 넣고, 자기 아버지 해골은 왼쪽 구멍에 넣고 나왔었다.

이렇게 한 뒷날, 그 풍수장이는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이씨 조선의 왕인 이태조(李太祖) 이성계(李成桂)라고 하며 헤엄치던 그 아이는 장성하자, 중원(中原)으로 들어가서 병술을 닦아 많은 무리를 거느리고 있다가 명나라를 이르켜 왕이 되었는데, 그가 명태조(明太祖) 주원장(朱元璋)이라고 한다.

檀紀 4266年 10月 나의 先親 談

*최상수, 『한국민간전설집』, 통문관, 1958, 199~200쪽.

[북구 설화 3]

萬德고개와 빼빼영감

동래 南門밖에 동래와 구포장을 번갈아 다니면서 삿자리 장사를 하며 생계를 이어가던 홀아비가 살았다.

성도 이름도 없이 빼빼영감으로 통하는 이 삿자리 장사는 어떻게 여위고 皮骨이 상접 하였던지 성내 사람들도 이렇게 불렀다.

이 영감이 하루는 구포장에 갔다가 여러 장꾼들과 함께 험한 만덕고개를 넘게 되었다.

이 고개는 동래에서 구포로 넘어가는 험한 산길이다. 그리고 이곳은 옛날부터 동래부 관하에선 최대의 도적들의 소굴이었으니, 지금 楊亭洞의 馬飛峴(모너머고개) 화적떼도 이 무리에 비하면 문제가 되질 않았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이 만덕 고개를 「만등고개」로도 불렀는데 萬사람이 무리를 지어 올라가야 도적을 피할 수 있다는 뜻에서 나온 말이라고 한다.

얘기가 벗어났지만 어떤 날 장꾼들이 구포장을 보고 동래로 돌아오는 길에 만덕고개에 있는 주막에서 잠시 쉬게 되었다.

이때 별안간 10여명의 도적의 무리가 뛰어들면서,

「꼼짝 말라! 움직이면 죽인다.」라고 사나운 얼굴을 지으며 장꾼들을 한 사람씩 묶었다. 그리고 괴수되는 자가 물건을 판돈과 가진 것들을 모조리 내어 놓으라고 위협했다.

이때 빼빼영감이 감연히 앞으로 나서서 도적을 향하여,

「여기 있는 장꾼들은 이 험한 고개를 나들어 다니면서 겨우 끼니를 이어가는 불쌍한 사람들이옵니다. 아무리 도둑질을 하고 산다고 하지만 사람을 보고 물건을 털어야 될 것이 아니옵니까?」라고 哀乞하는 어조로 말했다.

그러나 도적들은 이 빼빼영감에게 달려들면서,

「이놈! 묶인 녀석이 무슨 잔소리냐.」 하면서 뭇매를 때리고 발길로 차는 등 땅바닥 위에 쓰러뜨렸다. 영감은 주저하듯 한참동안 침묵을 지키고 있더니 벌떡 일어서자,

「이놈들! 이 끈을 풀어주지 못하겠느냐.」 고 외치는 그의 눈에는 殺氣가 등등하였다.

도둑들의 시선이 빼빼영감에게 모일 땐 벌써 몸뚱이에 묶인 밧줄은 모두 끊어진 뒤였다. 이놈을 때리고 저놈을 밀어 넘어뜨리는 그 솜씨는 비호같이 날쌨다. 이 비상한 완력에 감당할 수 없었던 도적들은 모두 도망쳐 달아났다. 그리곤 그는 묶인 장꾼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풀어주었다.

이때 힘을 얻은 장꾼들은 다쳐서 못 달아난 도둑들을 잡아 동래로 가자고 했으나 그는

「우리들에게 소득이 없는 일이라면 그만 두는 것이 좋겠소. 그 자들은 이젠 도둑질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술이나 한잔 합시다」 라고 술과 안주를 있는 대로 가져오라고 酒母에게 청했다.

그리곤,

「여러분! 이 술은 모두 제가 사겠습니다. 마음껏 잡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마을에 내려가거든 오늘 일어난 이야기만은 하지 말도록 거듭 부탁드립니다.」 라고 당부했다.

술대접까지 잘 받은 장꾼들은 흐뭇한 마음으로 고개를 내려와서 각각 제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사흘 후 장꾼의 한사람이 빼빼영감의 집을 찾았더니 그 집은 텅텅 빈집이 되어 있었다. 이 소문이 밖으로 새어 나오자 나라에서 빼빼영감이 비상한 힘을 가진 장사인 것을 알고 찾았으나 그 행적을 알 길이 없었다고 한다.

*박원표, 『향토부산』, 태화출판사, 1967, 166~169쪽.

[북구 설화 4]

석불사 관세음보살상

– 불상 아닌 마음속의 여인 새긴 석공

– 장소 : 부산시 북구 만덕동

배판수라는 석공이 있었다.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이웃집에서 꼴머슴으로 지내다가 우연히 한 석공을 만나 돌 쪼는 일을 배웠다.

처음에 그는 망두석(望頭石=望柱石)처럼 쉬운 것을 쪼았지만 차츰 실력이 늘면서 마침내 불상 조각에서 꽤 알아주는 경지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배판수는 처음 석공 일을 가르쳐주던 스승의 딸을 사랑했다. 스승의 딸 역시 성실한 그를 사

랑했다. 그러나 스승은 고아에 빈털터리인 그를 사위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실의에 빠진 그는 사랑하는 이를 향해 타오르는 열정을 불상 새기는 일에 쏟았다.

그 사이 스승의 딸은 부모의 강압에 못 이겨 딴 곳으로 시집을 갔다. 이 절 저 절로 옮겨 다니며 불상을 조각하는 일을 하는 그의 마음속에는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 초례청(혼인을 지내는 예식장)으로 걸어가던 처녀의 마지막 모습이 새겨져 있었다.

그러던 중 동래에서 큰 불사(佛事)가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금정산 석불사 병풍암 암벽에 마애불군(磨崖佛群)을 조성한다는 것이었다. 그는 부랴부랴 병풍암을 찾았다. 도착해 보니 전국의 내로라하는 명인 석공들이 각지에서 찾아와 모여 있었고, 석벽에는 거대한 사천왕상이 새겨지고 있었다. 주불인 석가여래도 희미하게 형상을 드러내는 중이었다.

초청 받지 못한 뜨내기 석공 배판수는 달빛이 쏟아지는 빈 공사장에 홀로 돌을 베고 누워 얼핏 잠이 들었다. 꿈속에선 오랫동안 잊을 수 없었던 처녀가 나타나 "나를 저 돌에다가 새겨주세요"라고 호소했다.

배판수는 꿈을 깨고 벌떡 일어나 막 형상을 드러내기 시작한 부처상을 두 팔로 끌어안고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다. "부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저 석벽에 부처님이 아닌 마음속에 품은 여인을 새기고 싶습니다."

그는 석벽을 이리저리 살펴보다가 빈자리를 하나 찾아내어 뚫어져라 응시하고는 여인을 새겼다. 그러자 감로병을 들고 천의(天衣)를 걸친 아름다운 여인이 나타났다. 눈을 반쯤 내리뜨고 빙그레 웃는 모습은 끝없는 고뇌와 삼독(三毒), 즉 탐(貪·욕심) 진(瞋·성냄) 치(癡·어리석음)에 물든 중생의 마음을 씻어주는 자비로운 얼굴이었다. 마애불군이 완전한 모습을 드러냈을 때 가장 빼어난 작품은 배판수의 관세음보살상이었다.

이 보살상은 석벽을 떠나 걸어갈 듯한 생동감과 여체가 지닌 고혹적인 아름다움과 관세음보살의 자비를 고루 갖춘 보기 드문 걸작품이었다.

모든 일이 끝나는 날 배판수는 관세음보살상을 어루만지며 '이제는 죽어도 아무 여한이 없다'면서 자신의 사랑이 비로소 완성되었음을 깨달았다.

1950년에 조성된 석불사 만다라 마애불군에는 한 석공과 여인의 사랑을 승화시킨 진수로 관세음보살상을 새긴 석공의 간절한 마음이 이야기로 전해오고 있다.

*주영택, 『부산의 전설 보따리』, 가마골향토역사연구원, 2013, 68~69쪽.

[북구 설화 5]

용당 학사대의 윤씨 묘

- 더 잘되려 조상묘 옮기니 승승장구 멈춰

- 장소 : 부산시 북구 화명동

지금으로부터 200여 년 전 자연부락인 용당(龍塘·옛날 청룡과 황룡이 싸웠다는 전설의 호수가 있어 유래됨)마을의 파평 윤씨 가문에 이웃 평택 임씨 가문의 며느리가 들어왔다. 어느 날 부엌에서 일하던 며느리는 사랑방에서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를 우연히 엿듣게 되었다.

용당의 학사대(學士臺·학성산의 정상 바위로 조선시대 선비들이 모여 시회(詩會)를 가졌던 곳)에 조상의 묘를 쓰면 자손이 잘되고 신분이 귀하게 된다는 이야기였다. 이 소문은 금세 이웃 임씨 마을에도 알려지게 되었다.

친정 편을 들 것인가, 아니면 시집 편을 들 것인가. 하지만 '딸은 출가외인'이라 하니 며느리는 자기의 후손이 태어날 시집 편을 들기로 마음먹고 날마다 한밤중에 몰래 일어나 이 명당자리에 물을 붓기 시작했다.

이 명당자리는 결국 물이 고인 웅덩이로 변해 어느새 명당이 아닌 흉당으로 소문이 나고 말았다. 그렇지 않아도 호시탐탐 이 자리를 탐내던 사람들은 이 소문 탓에 이곳을 아예 포기하고 다른 곳에 조상의 묘를 썼다.

이후 시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며느리는 모든 집안사람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곳에 시아버지를 묻었다. 그러자 자손들이 불꽃같이 일어나 가문이 흥했다.

그런데 이곳에 묘를 쓴 후 이상한 현상이 나타났다. 구포 쪽에서 말을 타고 학사대 윤씨 묘 앞을 지날 때마다 타고 가던 말의 발굽이 땅에 붙어 떨어지지 않는 것이었다. 사람들이 아무리 말을 당기고 밀어도 말굽이 떨어지지 않았다. 윤씨 묘 앞을 걸어야만 말이 움직이는 거였다. 지나가는 사람이나 보는 사람이나 불편하기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윤씨의 조상 묘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믿게 된 인근 마을사람 사이에는 묘의 위치를 한 자만 위로 올리면 윤씨의 자손들이 더 잘된다는 소문이 나돌기 시작했다.

처음 윤 씨 가족들은 조상의 묘에 함부로 손을 대는 것이 아니라며 주저했다. 하지만 이 소문에 결국 현혹돼 조상의 묘를 파기 시작했다. 일순간 괴이한 일이 벌어졌다. 묘를 마지막 파는 순간 땅 깊은 곳에서 '퍽!'하는 소리와 함께 한 줄기 하얀 기운이 솟아오름과 동시에 커다란 학 한 마리가 땅속에서 나와 하늘로 높이 날아가더니 가까이에 있는 '율등덕'(지금의 부산어촌민속관 자리)이라는 언덕 대밭으로 사라졌다.

이 일이 일어난 이후부터 윤씨 후손들의 상승세는 멈춰버렸다고 한다. 동시에 묘 이전 때 명당의 기운이 다른 데로 날아가 버렸기 때문이라는 소문이 나돌았다.

용당마을의 배산인 학성산 정상에 있던 학사대 바위는 화명 2지구 택지개발로 인해 2001년 1월 제3호 근린공원(북구 화명동 2304)에 원형대로 복원됐다. 자연석 가운데 '學士臺'(학사대)라 음각하고 왼편에 '일심추월(一心秋月·한마음에 가을 달이 있고) 사면춘풍(四面春風·사방에 봄바람이 불어온다)'이란 4언시가 새겨져 있다. '예조좌랑 김재진'이라는 직위와 이름이 함께 음각돼 있어 조선시대에 새긴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주영택, 『부산의 전설 보따리』, 가마골향토역사연구원, 2013, 90~92쪽.

[북구 설화 6]

만덕고개와 빼빼영감

- 피골상접한 삿자리 장수, 알고보니 장사

- 장소 : 부산시 북구 만덕동

옛날 동래읍성 남문 밖 동래와 구포장을 번갈아 다니면서 삿자리 장사를 하며 생계를 이어가던 홀아비가 살았다. 체구는 컸지만 여위어 피골(皮骨)이 상접한 이 삿자리 장수를 성 안 사람들은 빼빼영감이라 불렀다.

이 영감이 하루는 구포장에 갔다가 여러 장꾼들과 함께 험한 만덕고개를 넘게 되었다. 동래에서 구포로 넘어가는 아주 험한 산길이었던 이 고개는 옛날부터 동래부 관하(管下)의 최대의 도적 소굴로 악명이 높았다. 해서, 1만명이 무리를 지어 올라가야 도적을 피할 수 있다는 뜻에서 만덕고개라 이름이 붙여졌다는 것이다.

이 만덕고개를 빼빼영감과 장꾼들이 구포장을 보고 동래로 넘어오면서 고갯마루에 위치한 주막에 앉아 잠시 쉬게 되었다. 이때 별안간 10여 명의 도적떼가 나타나 "꼼짝 마라! 움직이면 죽인다"고 하면서 장꾼들을 한 사람씩 묶어놓고는 두목되는 놈이 나서 물건을 판 돈과 가진 것들을 모두 내어놓으라고 위협했다.

절체절명의 순간 빼빼영감이 용감하게 앞으로 나서 도적들을 향해 "여기 있는 장꾼들은 이 험한 고개를 넘나들며 끼니를 이어가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도적질을 하고 산다고 하지만 사람을 보고 물건을 털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라고 애걸하는 어조로 말했다.

그러나 도적들은 빼빼영감에게 "이놈! 묶인 녀석이 무슨 잔소리냐?"고 하면서 매로 때리고 발길을 차더니 땅바닥으로 쓰러뜨렸다. 영감은 봉변을 당하고도 한참 동안 침묵을 지키고 있다가 벌떡 일어서서 "이놈들! 이 끈을 풀지 못할까!" 하고 외쳤다. 빼빼영감의 눈에 살기가 등등했다.

도적들의 시선이 빼빼영감에게 쏠리었을 땐 벌써 몸을 묶은 밧줄은 모두 끊어진 뒤였다. 영감은 일순간 비호같이 날쌔게 도적들을 때리고 넘어뜨렸다. 이 비상한 완력에 감당할 수 없었던 도적들은 도망쳐 달아났다. 이때 영감은 묶인 장꾼들을 모두 풀어주었다.

힘을 얻은 장꾼들은 다쳐서 달아나지 못한 도적들을 잡아 동래부 관아로 끌고 가자고 했다. 그러나 영감은 "우리에게 소득이 없는 일은 그만두는 것이 좋겠소. 그 자들은 앞으로 도둑질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술이나 한잔 합시다"라고 하면서 술과 안주를 있는 대로 가져오라고 주모(酒母)에게 청했다.

"여러분! 이 술은 모두 제가 사겠습니다. 마음껏 잡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마을에 내려가거든 오늘 일어난 이야기만은 절대 하지 말도록 부탁드립니다"고 장꾼들에게 부탁하였다.

술대접까지 잘 받은 장꾼들은 흐뭇한 마음으로 만덕고개를 내려와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사흘 후 한 장꾼이 빼빼영감의 집을 찾아갔더니 그 집은 텅 빈집이 되어 있었다.

이 소문이 퍼지자 동래부 관아에서는 빼빼영감이 비상한 힘을 가진 장사(壯士)인 것을 알고 찾았으나, 그의 행적은 찾을 수 없었다고 한다.

*주영택, 『부산의 전설 보따리』, 가마골향토역사연구원, 2013, 97~99쪽.

[북구 설화 7]

금정산 대천 애기소와 선녀

- 소(沼) 주변서 아들 사라지자 '애기소'라 불려

- 장소 : 부산시 북구 대천리

금정산 대천 애기소의 본래 이름은 이시미(이무기)소였다. 예부터 이 폭포는 아주 깊어 사람이 헤엄치러 들어가면 헤어 나오기 어려웠다. 폭포 밑 암벽 속에 이시미가 굴을 뚫고 살았다고 하여 마을 사람들은 '이시미소'라고 불렀다. 이시미소 주변에는 숲이 울울창창하여 우수기에는 주변 바위나 수목에 이끼가 많아 '이끼소'라고 불리다가 훗날 '애기소'로 와전되었다고 한다.

옛날 대천리의 산속 외딴집에 젊은 부부가 살았다. 남편은 낙동강에 배를 띄워 고기를 잡고, 아내는 집 주변에 텃밭을 일궈 채소를 가꾸며 행복하게 살았다.

부부는 금실이 무척 좋았지만 자식이 없었다. 이 때문에 아내가 차츰 수심이 깊어지자 부부는 의논 끝에 천지신명에게 백일기도를 올리기로 했다. 아내는 남편의 승낙을 얻어 폭포수가 내리는 소(沼) 옆 너럭바위 위에 촛불을 켜고 몸을 단정히 한 후 아들을 점지해 달라고 기도를 드렸다.

백일째 되는 날 저녁쯤에 한 선녀가 나타나 "하늘의 법도에 의해 너희 부부 사이에는 아기가 없지만 너의 정성이 지극하여 아기를 점지해 주지만 3년 후엔 도로 하늘로 데려가야 한다"고 말한 후 이내 사라져 버렸다.

어찌 됐던 부인은 아기를 점지해 준다는 사실에 한없이 기뻤다. 그럭저럭 해가 바뀌어 이듬해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았다.

하지만 아내는 3년 후 선녀가 아기를 데려가면 어쩌나 하고 애간장을 태우며 아기를 길렀다. 만 3년이 되는 날 부부는 여태까지 아무 일이 없자 선녀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기 위해 폭포수 밑 소 옆 너럭바위에 아기를 내려놓고 제물을 진설한 후 촛불을 켜고 선녀에게 고맙다고 절을 삼배했다. 기분이 한결 좋아진 부부는 소 주변의 풍광을 완상하다 일순간 아이가 사라진 사실을 뒤늦게 발견했다.

아기를 찾아 헤매다가 부부는 문득 선녀의 말이 생각나서 하늘을 우러러보며 선녀에게 아기

를 돌려 달라고 애걸했다. 이때 선녀가 나타나 "하늘의 법도를 어길 수 없는 일이니 그리 알고 그만 돌아가거라. 만약 아기를 보고 싶다면 밤마다 이곳으로 오면 매일 아기와 선녀가 목욕하는 것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부부는 몇 차례 소를 찾았지만 결국 부질없는 일임을 깨닫고 발걸음을 끊었다.

이후 마을사람들은 이 소에 아기가 빠져 죽은 줄 알고 '애기소'라 불렀다고 한다. 산성마을에서 화명동 방향으로 산성길을 따라 1km쯤 가다 우측으로 숲이 우거진 대천 계곡으로 발걸음을 옮기면 너럭바위가 말없이 전설처럼 누워있는 애기소가 있다.

그 옛날 한없이 넓기만 했던 애기소는 1959년 사라호 태풍 때 호우로 인해 산사태가 발생해 여인의 치마폭 몇 장을 깔아 놓은 것만큼 좁아졌지만 주위의 경치는 여전히 아름답기만 하다.

달 뜨는 밤, 금실 좋은 부부의 전설을 떠올리며 이곳을 한번 찾아보자. 최근 찾은 애기소는 여전히 전국의 내로라하는 계곡 풍광만큼 아름다웠다.

*주영택, 『부산의 전설 보따리』, 가마골향토역사연구원, 2013, 119~121쪽.

[북구 설화 8]

용동골마을의 천국부와 장터걸

- 가짜 엽전으로 국부된 천 씨, 아들 때문에 망해

- 장소 : 부산시 북구 화명2동

금정산성길 입구 용동교를 지나면 우측에 용이 살던 곳이라는 용동골(龍洞谷)이 금정산 기슭에 자리잡고 있다. 옛날 용동골마을에 배를 가지고 소금장사를 해서 큰 부자가 되었던 천국부(千國富)의 집이 있었다. 이 용동골마을 인근에 장터걸(대천장, 大川場·지금의 북구보건소, 화신중, 롯데마트 일대)이 있는데, 천국부 한 사람의 재력으로 장(場)이 섰다는 이야기가 전해 온다.

이 마을에는 또 못(마을 뒷산 기슭)이 하나 있었는데, 천국부의 돈(엽전)을 씻던 못이었다고 한다. 이렇듯 용동골마을은 천국부의 집과 그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한 마을을 형성했다고 할 만큼, 천 씨가 부자였던 모양이다. 그래서 국부(國富·한 나라의 부자)라는 이름이 전해오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어떤 연유로 천국부가 큰 부자가 됐을까? 입에서 입을 통해 전해오는 말에 의하면 천국부는 소금배를 타고 낙동강 상류로 장사를 다니면서 가짜 엽전을 싸게 사들여 그것을 배 밑에 깔아 가마니를 덮어놓고 소금물을 퍼부었다고 한다. 그러면 이내 엽전에 녹이 쓸어 진짜와 구분하지 못할 정도가 돼 큰 부자가 되었다고 한다. 옛날 민간인이 가짜로 만든 엽전을 사전(私錢)이라고 했는데 배에서 그것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천국부는 원래 양산 화제 출신으로 마흔이 넘도록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하며 살았다. 아무리

머슴살이를 해도 끝이 보이지 않아 가난을 면치 못했다. 버선을 한 켤레 신으면 바닥이 닳아버리고 버선목만 달고 다녔을 정도라고 한다.

천국부는 어느 날 세상 살맛이 나지 않아 신개버들(새로 개울 둑을 만들어 버드나무를 심었던 둑)에 벌렁 누워 있었다. 이때 지나가던 한 과객이 천 씨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고는 "부자될 놈이 왜 이렇게 자탄하느냐?"고 하자 천 씨는 "부자될 놈이란 저를 보고 하는 것 같은데 도대체 왜 그런 말을 하는 것이오?"라고 물었다. 과객은 "너가 지금은 거지처럼 이렇게 맥이 빠져 길가에 누워 있지만 너는 반드시 큰 부자가 될 거다."라고 답했다.

천 씨는 하도 기가 차서 "왜 그런 소리를 하오?"라고 했더니 과객은 딴 말은 하지 않고 "너는 부자가 될 것이 틀림없으니 그리 알아라."고 말한 후 발걸음을 옮겼다. 이후 늘 그렇듯 천 씨는 머슴살이를 하면서 고되게 살았다.

달포가 지난 어느 날 천 씨는 양산 화제 갯벌에 나가 보니 광선(廣船) 한 척이 정박해 있었다. 아무도 없는 듯해서 천 씨는 호기심이 발동해 배 안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배 안에는 엽전이 가득 들어 있었다.

급히 집으로 달려가 아내에게 자초지종을 고하고 엽전을 가져오자고 해 밤새도록 이고지고 집으로 엽전을 가져왔다. 천 씨는 이 돈으로 논밭을 사서 큰 부자가 되었고, 이후 소금배를 사 용동골에 와서 살게 되었다.

이후 천국부는 집 짓는 것을 아들에게 맡겼다. 하지만 아들은 99칸밖에 지을 수 없는 나라의 법도를 어기고 100칸짜리를 짓는 것이었다. 금정산의 아름드리나무들을 베어 불메를 차려 놓고, 연장을 제작하여 큰일을 벌이자 천국부는 아들에게 집을 너무 크게 짓지 말라고 타일렀다.

하루는 천국부가 용당포로 가다가 말랑걸(어촌민속관 입구 고개)에 마차를 세워놓고 바로 건너 보이는 용동골의 자기 집 짓는 광경을 보게 되었다. 이때 마부가 너무 거창하게 일을 시작해 집을 미처 짓지 못할 것이라고 하면서 집터에서 찌끼미(구렁이)가 나가더라고 일러 주는 것이었다.

천국부는 결국 망했다. 대원군때 경복궁을 지으면서 상놈이 너무 돈을 많이 가지고 집 100칸짜리를 짓는다 하여 나라에서 전 재산을 빼앗아 버렸기 때문이다. 망해 버린 천국부 집의 기와는 범어사로 가고, 목재는 명지 소금밭의 땔감으로 가져가 쓰였다고 한다.

*주영택, 『부산의 전설 보따리』, 가마골향토역사연구원, 2013, 134~136쪽.

[북구 설화 9]

허 진사와 대장골의 산적

- 나눔문화 실천한 수정마을 큰 부자

- 장소 : 부산시 북구 화명1동

옛날 화명에서 동래로 가는 길인 대장골(大莊谷·대적골 대정골로도 불렸음)의 뒷산은 산적의 본거지였다. 산적들은 해마다 대장골 아랫동네인 수정(水亭)마을에 나타나 집집마다 곡식을 약탈해 갔다.

당시 수정마을에는 큰 부자였던 허섭(許攝·1862년 출생)이라는 진사가 살고 있었다. 어느 날 그는 마을사람들을 대표해 산적들에게 "앞으로 내가 충분한 곡식을 줄 테니 약탈하지 말라."고 말하며 협약을 맺었다. 해서, 산적들은 해마다 한 번씩 정례적으로 허 진사댁에 와서 양식을 받아갔다.

산적 두목의 연락책을 맡은 부하가 허 진사댁을 찾아 "며칠 후에 우리가 올 것이니 곡식을 찧어 놓고 준비해 달라"고 통보를 하는 식이었다.

지정한 날이 되면 산적들은 무리를 지어 나타났다. 이때 마을사람들은 집집마다 대문을 잠그고 부녀자를 숨겨 놓고 바깥출입을 모두 하지 않았다.

산적들은 앞산에 와서 징과 꽹과리를 치면서 법석을 떨었고, 허 진사댁에서는 마당에 멍석을 깔아 음식을 준비해 놓고 하인을 시켜 산적들을 인도했다. 산적 졸개들이 마당에서 대접을 받는 동안 두목과 허 진사는 사랑채에서 대작을 하며 갖고 갈 곡식 등을 흥정했다. 흥정이 끝나고 나면 산적들은 곡식 등을 받아 유유히 사라졌다. 산적의 본거지와 가까운 수정마을은 부자인 허 진사 한 사람의 공덕으로 피해를 줄여 평화롭게 살 수 있었다.

수정마을에서 태어난 허 진사는 고향에서 마을을 지키며 살다 1894년(고종 31) 진사가 되어 함께 살아가는 나눔문화를 온몸으로 실천한 선각자였다.

그는 나라를 잃은 일제강점기 땐 마을의 안녕을 위해 적지 않은 기부를 하였다. 1914년 구포장터에 큰불이 나자 장터를 복원하기 위한 성금을 모을 때 당시 구포은행이 낸 150원보다 더 많은 160원을 선뜻 내어 애향심을 보여주기도 했다.

1920년 나라를 찾기 위한 독립운동의 1번지 상해임시정부에서 독립자금을 모으러 연락원이 수정마을을 찾았을 때도 허 진사는 엄청난 독립자금을 선뜻 내주었다고 한다.

큰 부자로 소문났던 허 진사댁은 수정마을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다. 대궐만 했던 그 집은 다섯 대문을 지나야 들어 갈 수 있을 정도로 큰 한옥이었다. 구조 양식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문 앞에선 말이나 가마를 타고 내리면 연자방아와 하인들이 기거하는 방이 있었다. 남쪽으로 허 씨 집안의 독서당이 있었다. 위채는 3칸 집으로 서당 훈장댁이고 아래채는 3칸 접집으로 서당이었다.

첫째 대문을 들어서면 양쪽으로 가는 길이 나오는데, 왼쪽 큰 마당은 타작마당이었다. 이곳으로 들어가면 둘째 대문이 나온다. 안쪽은 사랑채로 5칸 접집이 있었다.

오른쪽 셋째 대문으로 들어서면 왼쪽으로 5칸짜리 창고가 있었고 오른쪽에는 4칸짜리 디딜방앗간과 쇠마구간이 있었다. 넷째 대문을 들어서면 본채 5칸 접집이 있었다. 지붕은 새나리(억새)로 얹었으며 위채와 사랑채는 서향집이었다.

다섯째 대문 맞은편 남쪽으로는 5칸 안채가 있었다. 그 뒤편으로 북쪽과 동쪽이 대밭으로 빙 둘러싸여 있었다. 그야말로 엄청난 규모였다.

*주영택, 『부산의 전설 보따리』, 가마골향토역사연구원, 2013, 137~140쪽.

[북구 설화 10]

천승호 부부의 효열(孝烈)

- 천성으로 타고난 효심, 산적들도 탄복

- 장소 : 부산시 북구 금곡동

금곡동 율리마을에서 태어난 천승호(千乘昊·1817~1866·천만리의 9세손)는 조선 후기 지역 효자의 대표적 표상이다. 그는 어머니가 일찍이 풍담(風淡)으로 여러 달 병석에 누워 있지만 입은 옷의 띠를 풀지 않고 병문안을 오는 지인들에게 약을 물었다. 한 의원이 풍담에는 능구렁이[花蛇]가 좋다고 일렀지만 때는 겨울이었다. 하지만 천승호는 하늘을 부르며 묻고 또 물어 결국 눈 쌓인 산속에서 능구렁이를 얻어 어머니 병을 낫게 했다.

한 번은 어머니가 학질을 앓아 좋은 약과 음식을 구할 길이 없자 송아지를 장에 팔아 10꿰미를 받았다. 하지만 집으로 오는 도중 산골에서 산적을 만나 그만 돈을 빼앗겼다. 천승호는 산적에게 "이 돈은 병든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한 것"이라며 눈물로 간청했다.

산적들은 가만히 천승호를 보더니 "당신이 효자 천승호인가"라고 물었다. 천승호는 "이름은 맞으나 효자는 아니다."라고 답하자 산적들은 "당신의 이름은 일찍이 귀가 따갑게 많이 들었소. 비록 흉년으로 모두들 어렵지만 어찌 효자의 돈을 뺏어 모친의 봉양을 못 하게 하리까?"라고 말하며 백배사과하고 그냥 가버렸다. 승호의 지극한 효심이 능구렁이가 스스로 굴에서 나오게 하고, 산적들을 감동시켜 교화를 시킨 것이었다.

하늘도 그의 효심에 감탄을 했는지 천승호에게 효심이 지극한 배필을 안겨 주었다. 그는 23세 때 경주 이씨와 결혼했다. 부인은 전통 가문의 딸로 천성이 순수하고 바탕과 행실이 정숙해 온갖 정성을 다해 시어머니를 봉양했다.

새벽같이 일어나 물을 긷고 방아 찧고 길쌈하기를 30여 년. 꽃다운 나이에 시집와 혈기가 이미 쇠약해도 며느리는 하루도 빠짐없이 남편 천승호와 함께 아침저녁으로 방이 차고 더운가를 살피며 문안 여쭙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이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온 마을사람들이 감화돼 시모를 섬기는 이야기에는 반드시 천승호 부부를 빠뜨리지 않았다. 만일 천성으로 타고난 효심이 없었다면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깊이가 어찌 이와 같겠는가.

인명은 재천이라 했던가. 남편 천승호가 갑자기 병에 걸려 위독해졌다. 부인은 백방으로 약을 구했지만 성과가 없자 목욕재계 후 매일 밤하늘을 바라보며 천지신명께 기도를 올렸다. 하지만 끝내 남편은 운명했다. 주위의 우려와 달리 부인은 "죽고 사는 것은 운명에 달려있는 것이니 애통해한다고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며 되레 슬픔을 절제하며 시어머니를 위로했다. 그는 장례 절차를 모두 친척들에게 맡기고 애오라지 시모 공양에 몰입했다.

장례 이튿날 며느리 이씨는 자식들을 불러 이렇게 말했다. "너희들 아버지가 세상을 버리는

날, 이미 나는 즉시 하늘나라로 따라가기를 결정했다. 다만 너희들 할머니가 계셔 거듭 마음의 상처를 드릴 수 없어 고민해왔다. 지금 나는 네 아버지 상복을 입었고, 할머니의 마음도 너그러워진데다 할머니를 봉양할 또 다른 며느리인 아랫동서가 있으니 하늘나라로 갈 결단을 내려야겠구나. 내가 죽더라도 좋은 음식은 차리지 말거라. 너희들은 섬겨야 할 할머니가 계시고, 나는 하늘나라에 남편이 있으니 지금부터 길이 따르리라. 사람의 모든 행실 중 어버이 섬김이 으뜸이다. 또 가정 다스리기에 힘쓰고 집안의 명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애써 노력하라. 이것이 나의 마지막 소원이다."

이후 그는 곡기를 끊은 지 7일 만에 남편을 따라 하늘나라로 떠났다.

부인이 남편을 따라 죽자 남편은 어질고도 효성스럽고, 그 아내는 효도와 정렬(貞烈)을 겸비한 사실이 널리 알려지면서 고종 9년인 1872년 4월 조정에선 효자 천승호에게 통훈대부사헌부 감찰, 그 처에게는 숙인이라는 벼슬의 교지가 내려졌다. 이후 그 해 11월 16일 효자열려정려비를 금곡동 율리마을 입구 도로변에 세워 후세에 귀감으로 삼게 하고, 그 자손에게는 세금과 부역 등을 면제해 주었다.

정려비는 1990년 도로 확장으로 인해 지금의 금곡중학교 앞으로 옮겼다가 이후 금곡청소년수련관 정원으로 옮겨져 찾는 이로 하여금 효자와 열녀의 산 표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주영택, 『부산의 전설 보따리』, 가마골향토역사연구원, 2013, 154~157쪽.

[북구 설화 11]

운수사의 두꺼비바위

- 수호신인 두꺼비바위 턱을 떼어내니 운수사가 쇠퇴

- 장소 : 부산시 북구 모라동

옛날 백양산 운수사(사상구 모라로 219번길 173)가 한창 번창할 당시 신도들의 발길이 끊어짐이 없어 절의 경내는 사람들로 연일 붐볐다고 한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절에 신도가 많으면 좋아해야할 스님들이 오히려 귀찮아하고 또한 신도가 많은 것을 불평했다는 것이다.

하루는 초립동이 절에 들렀는데, 주지스님을 찾아 뵙고 며칠간 절에 머물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자, 주지스님 역시 귀찮아하는 것이다. 그러자 초립동은 부아를 내며 "아니 도대체 절에 신도가 많으면 고마워하며 중생제도에 앞장서야 할 스님이 신도가 오는 것을 귀찮아해서 되겠습니까?"라 하니, 스님은 "신도가 많은 것은 어느 정도이지 너무 많으니까 귀찮다."며 제발 신도들이 많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덧붙였다고 한다.

이 말을 들은 초립동이 "정 그렇게 원한다면 내가 비방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절의 이 능선

을 쭉 내려가면 두꺼비 형상을 한 바위가 있으니 그 바위의 턱을 쳐버리면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주지스님은 반신반의하면서 행자승을 보내 그 두꺼비바위의 턱을 떼어내었다. 그 후부터 이상스럽게도 절에 신도들이 줄어들게 되었다. 그러자 스님들은 편안히 지낼 수 있어서 매우 좋아하였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계속 신도들이 줄어들자 그 때부터 스님들은 당황하기 시작하였다.

절은 점점 쇠퇴해져 가는데, 당황한 전체 스님들은 그 이유를 따져보니 두꺼비의 턱이 없어졌으므로 먹지를 못하게 되니, 절에 신도들이 줄어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두꺼비바위가 바라보는 쪽은 김해군 상동면에 있는 어느 암자로서 두꺼비가 거기에서 모이를 주워 먹은 후 변은 운수사에 보내기 때문에 상동면의 암자는 크지 못하고 운수사는 자꾸만 번성했는데 두꺼비의 턱을 부수어 없앴으니 자연 먹지를 못하게 되고 배설 또한 할 수 없으므로 운수사는 쇠퇴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운수사 아래 두꺼비바위의 또 한가지 이야기는 이렇다. 조선조 중엽에 운수사에 한 걸인이 배가 고파 밥을 얻어먹기 위해 들렀는데, 주지가 문전박대를 하였다. 그러자 걸인은 아무말도 없이 절의 헛간에 들어가 곡괭이를 가지고 내려와서 운수사의 수호신인 두꺼비바위를 내리찍었다.

이렇게 해서 두꺼비바위가 돌로 쪼개진 뒤 운수사에는 사람의 발길이 뜸해지고 결국 절의 규모가 쇠퇴하고 말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절의 이름을 운수사라 한 것은 절의 경내에 있는 약수터에서 오색 안개가 피어올라 구름이 되는 것을 보고 절을 지어 운수사(雲水寺)라 하였다고 한다.

*주영택, 『부산의 전설 보따리』, 가마골향토역사연구원, 2013, 236~237쪽.

[북구 설화 12]

황룡장군과 의성

- 황룡장군의 훈령에 싸워 되돌아간 왜군

- 장소 : 부산시 북구 덕천동

옛날 신라의 영토였던 구포지역은 김해 쪽 가야나라와 경계를 두고 있어 국경을 수비하고 관찰하는 성을 쌓았다고 한다.

신라시대 왜구의 침략은 대부분 소규모로 강가의 마을들을 습격하여 노략질을 해 갔는데, 한번씩 대량의 군사를 동원하여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와 낙동강 하류지역을 공격해 오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곳에 있는 성부터 함락해야 내륙으로 통하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성(城)은 왜구들의 집중 공격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왜군의 침략을 막기 위해 신라가 고구려에 원병을 청할 그 때, 성을 지키고 있는 군사는 500여 명, 성주(城主)는 황룡장군이었다.

수천 명에 이르는 왜군들이 몰려와 성을 에워싸고 쳐들어오자 황룡장군은 군사들을 독려하여 나라를 위하여 의로운 죽음을 남기라는 훈령을 내렸다. 이에 용기를 얻은 군사들이 성을 타고 올라오는 왜군들과 죽음을 무릅쓰고 싸웠으나 적의 수효가 많은 수효를 대적하지 못해 결국 성이 함락되었다.

성에 들어온 왜군의 대장은 황룡장군과 더불어 500여 명의 신라 군사들이 무너져 망할 때까지 도망가지 않고 싸우다 죽은 시체를 보고, 더 이상 침략을 해보아도 승리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왜군의 대장은 전쟁에서 이겼지만 그 이상의 큰 충격을 받게 된 첫 싸움에서 기(氣)가 꺾여 바다를 건너 되돌아갔다고 한다.

조정에서는 나라를 위하여 의(義)로운 죽음을 택한 황룡장군과 500여명의 군사들의 넋을 추모하는 뜻으로 이 성을 의성(義城)이라 명명(命名)하였다고 한다.

이처럼 성으로서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의성이 고려시대에는 그냥 방치되어 있다가 임진왜란 때 왜군이 옛 성터에 왜성을 축성하여 그들의 전략기지로 삼았던 것이다.

구포왜성(부산시지정 기념물 제6호)은 서쪽으로 낙동강을 끼고 그 밑에 선박이 정박하고 김해 죽도왜성과 서로 마주보고 있는 전략상의 요충지에 해당하는 곳이다.

*주영택, 『부산의 전설 보따리』, 가마골향토역사연구원, 2013, 238~239쪽.

[북구 설화 13]

신선이 데려간 아이

- 신선이 출산 시 데리고 간 아이, 글자 21자를 남겼다.

- 장소 : 부산시 북구 화명동

지금으로부터 160여 년 전 화명동 대천마을에 윤기홍이라는 선비가 살았는데, 어느 날 밤에 그 부친의 꿈에 신선이 현몽하기를 "천상의 선동(仙童)을 그대에게 점지할 것이니 이 꽃을 먹어라."하고 흰 꽃을 주거늘 그 꽃을 먹은 후 부인에게 태기가 있어 열달만에 아들을 낳았는데, 아기를 낳는 날 밤에 비바람이 크게 일고, 뇌성이 진동하여 지척을 분별하지 못하였다.

시아버지 되는 선비는 출타하였고 시어머니는 큰 방에서 자고 있었는데, 건넌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서 남편이 잠을 깨고 건너가 보았다. 가서 보니 방문은 열려 있고 등불은 꺼져 있는데, 안개가 자욱하여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분간할 수 없었다.

그래서 등불을 켜서 들고 들어가 보니, 산모는 기절해 있고 흔적을 보니 아기를 낳았음은 분

명한데 아기가 없는지라, 산모가 깨어나기를 기다려서 아기의 행방을 물었다.

산모가 대답하기를 흰 옷을 입은 사람 셋이 와서 아기를 데려가면서 이렛날 자시(子時, 밤 11시부터 오전 1시까지의 사이)에 오겠다 하면서 방문 안쪽 벽에 종이 한 장을 붙여놓고 갔다고 하였다. 이에 벽을 살펴보니 붉은 물감으로 일곱 자를 쓴 글씨 한 장이 붙어 있으나 도무지 알 수 없는 글자이었다.

집안에서는 아기를 낳았으나 아기가 없어졌으니 이웃과 친척들에게 죽은 아기를 낳았다고 속였다.

그 뒤 이렛날에 신선이 현몽하기를 삼년 뒤에 올 것이라는 말을 하고 사라졌다. 그날 밤 산모가 몸이 가려워 이를 잡으려고 저고리를 벗으니, 왼쪽 팔에 일곱 글자가 씌어 있었다. 그 글자 역시 알아볼 수 없는 글자였다.

그 뒤 삼 년째 되는 날 밤 삼경(三更, 밤 11시부터 오전 1시까지의 사이)에 신선 셋이 와서 아무 말 없이 문 위에 알아보지 못할 일곱 자를 붙여놓고 이제는 8년 뒤에 다시 오겠다 하며 가버렸다.

그 뒤 8년째 되는 정월에 신선 셋이 전과 같은 복장을 하고 와서 "그 아이는 범인이 기를 아이가 아니어서 우리가 기르고 있으니 이 말을 누설치 말라. 만일 누설하면 집안에 화가 있으리라." 하였다. 그리고 "그 아이는 바다 섬 가운데서 기르고 있으니 안심하라. 때가 되면 알게 될 날이 있으리라." 하면서 그 아이가 썼다는 일곱 자 글이 쓰인 종이 한 장을 주고 갔으나 그 역시 알아볼 수 없었다.

그 뒤로 소식이 끊겨버렸는데, 신선과 아이가 준 석 장 종이에 썼던 글자 21자만을 윤씨 집안에서 지금까지 보관하고 있다고 한다.

*주영택, 『부산의 전설 보따리』, 가마골향토역사연구원, 2013, 240~241쪽.

3) 사상구 설화

[사상구 설화 1]

운수사와 우운대사

- 한밤중 서쪽으로 물 뿌리는 팔푼 스님

- 장소 : 부산시 사상구 모라동

옛날 백양산(642m·옛 산명 운수산) 기슭에 터 잡은 운수사(雲水寺)에 항렬이 꽤 높은 팔푼 스님이라 불리는 분이 있었다. 부산진구 당감동에서 백양터널을 지나면 우측 도로변에 지금도 운수사라는 안내판이 보인다. 바로 그 절이다. 주소는 사상구 모라로 218번길 173.

이 절에서 항렬이 낮은 스님들은 궂은일이라면 은근슬쩍 놀려가며 이 팔푼 스님에게 미루곤 했다. 그래도 이 스님은 싫은 내색 한 번 없이 일을 순식간에 처리했다.

한 번은 젊은 스님이 심심하던 차에 마침 팔푼 스님이 오수에 잠긴 것을 보고 놀릴 셈으로 "대사님 오뉴월 대낮에 극락 구경이 어떻습니까?"하고 물었다. 팔푼 스님이 깨어나 말하기를 "세상 중생이 농사일로 바쁜데 내가 어찌 한가하겠는가? 내 잠시 농부들 일손이 어떠한지 살피고 왔지"라고 답했다. 이에 다시 젊은 스님이 "극락에도 농사를 짓는 모양지요"라고 비아냥거리자 팔푼 스님은 "그렇고 말고. 농사일이 즐거우면 그곳이 바로 극락이 아닌가? 나는 다시 극락 구경을 가야겠으니 자네도 가려면 이리 오게나"라고 말한 후 다시 눈을 감았다. 이처럼 스님들은 팔푼 스님을 놀리면서 무료한 시간을 보내곤 했다.

한 번은 행자승이 자다가 일어나 뒷간에 다녀오기 위해 한밤중에 밖을 나가 보니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이 밤중에 무슨 소리인가 싶어 행자승이 소리 나는 곳으로 살금살금 다가가 보았더니 놀랍게도 법당 뒤에서 팔푼 스님이 땀을 뻘뻘 흘리며 바가지에 물을 퍼들고 솔잎에 묻혀 서쪽을 향해 물을 뿌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 광경을 본 동자승은 다른 스님에게도 보여주려고 여러 스님들을 깨워 불러냈다.

스님들이 웬일인가 싶어 동자승을 따라가 보니 팔푼 스님이 정신 나간 사람처럼 물을 서쪽으로 뿌리고 있는 게 아닌가. 스님들이 한목소리로 비아냥거리면서 "대사님 도대체 이 한밤중에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하고 물으니 팔푼 스님은 "어, 자네들 왔는가. 지금 해인사에 화재가 발생해 불을 끄고 있네. 여기 와서 이것 좀 도와주게. 너무 힘이 드네."라고 하지 않는가. 그러자 스님들은 '팔푼 스님이 드디어 미쳤다.'라는 어이없는 표정을 짓고 다시 돌아가 잠을 잤다.

팔푼 스님의 엉뚱한 행동이 있은 뒤, 보름쯤 흘렀을까. 경내에 모월 모일 한밤중에 해인사에 원인 모를 불이 났다는 소문이 들려왔다. 그런데 해인사에 난 불이 워낙 거세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끌 수 없을 정도로 큰 불이었는데, 갑자기 동쪽 하늘에서 구름이 몰려들더니 굵은 소낙비가 퍼부어 순식간에 불을 꺼버렸다는 것이다.

그 소문을 들은 스님들이 가만히 셈을 해보니 해인사에 진짜 불이 난 날이 팔푼 스님이 한밤중에 해인사의 불을 끈다고 혼자서 땀을 뻘뻘 흘린 그날이 아닌가.

이후부터 운수사의 다른 스님들은 팔푼 스님을 보면 감히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존경을 표했다.

그 어느 스님들도 팔푼 스님의 법명을 알지 못했다. 팔푼 스님이 한 번도 자기 법명을 밝힌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예전처럼 그를 팔푼 스님이라 부를 수 없어 스님들은 해인사에 비를 내린 것에 착안하여 우운대사(雨雲大師)라고 불렀다고 한다.

*주영택, 『부산의 전설 보따리』, 가마골향토역사연구원, 2013, 125~127쪽.

4) 사하구 설화

[사하구 설화 1]

괴정동의 회화나무

- 벼슬아치 학정 성토하다 8명 희생된 곳

- 장소 : 부산시 사하구 괴정동

부산 사하구 괴정동의 회화나무는 높이 20m, 둘레가 6.2m로 수령은 600년 이상으로 추정된다. 가슴 높이 부분의 둥치에서 두 갈래로 갈려 있는 이 나무는 팔정자(八亭子)라는 멋진 닉네임을 갖고 있다. 지금의 사하구 괴정동(槐亭洞)이란 이름도 이 팔정자나무가 회화나무 즉, 괴목(槐木)이어서 붙여진 이름으로 추정된다. 정확한 위치는 도시철도 1호선 괴정역 1번 출구로 나오면 만나는 화목아이츠빌 앞(괴정1동 1247-24)에 이 회화나무는 오래된 만큼 거기에 얽힌 사연도 적지 않다.

옛날 다대포진에 포악한 첨사가 내려온 뒤로 주민들은 가렴주구(苛斂誅求)에 시달려 마음 편한 날이 없었다. 첨사의 학정을 견디다 못한 주민들은 마을 앞 정자나무 아래에 모여 성토대회를 열었다.

뒤늦게 이러한 사실을 안 첨사는 누각을 보수한다는 명목으로 여덟 사람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이 정자나무를 밑동째 싹둑 잘라버렸다. 그 뒤 정자나무가 서 있던 자리에 8개의 가지를 가진 회화나무가 자라기 시작했다. 이후 마을사람들은 이 나무를 '팔정자'라고 불렀다.

또 다른 이야기도 전해온다. 팔정자나무의 아비뻘 되는 거대한 회화나무가 수난을 당했던 것은 조선 어느 임금 때인가는 확실하지 않으나 동래부사가 이곳을 지나다 우연히 이 나무를 발견하고 다대포진첨사에게 동래부 동헌의 기둥으로 쓰게끔 베라는 지시를 내렸다.

동래부사의 벌목령이 내려졌지만 신주로 모시는 이 나무에 선뜻 도끼질을 하려는 목수는 아무도 없었다. 그러자 다대포진첨사가 이 나무 앞에 사형수에게 내리는 고배상을 차리고 둥치에는 '어명(御命)'이라고 쓰인 종이를 붙인 뒤 큰절을 하고 직접 도끼를 들어 왼쪽으로 세 번 도끼질을 했다.

그제야 목수들이 달려들어 이 나무를 쓰러뜨렸다. 그리고 이 나무의 밑둥치에 흙으로 덮어 마치 사람의 무덤처럼 만들어 주었다. 이후 신기하게도 이 무덤에서 새순이 돋아났는데, 그 중 8가지만 마을사람들이 정성들여 키워 오늘의 팔정자가 되었다는 것이다.

팔정자나무는 아쉽게도 이후 태풍 때 가지를 하나 잃어 현재 7개뿐이다. 지금도 팔정자나무 아래에서 마을의 무사 평안을 비는 동제가 매년 5월 7일이면 열린다.

지금의 괴정 땅은 선사시대부터 취락이 형성된 역사가 오랜 땅이다. 낙동강에서 내려온 곡물 등 농산물이 하단포에 부려지면 이것을 소달구지나 사람이 지고 괴정을 거쳐 대티고개를

넘어갔다. 괴정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 팔정자나무 아래에서 담배 한 대쯤 피고 쉬어 갔다. 그래서 명지동 위쪽 사람들은 괴정이라고 하면 잘 몰라도 팔정자라고 하면 훤히 알았다고 한다.

괴정동에 마을의 안녕을 지켜준다는 또 한 그루의 회화나무가 있다. 도시철도 괴정역 2번 출구로 나와 괴정병원 장례식장 쪽으로 좌회전하면 만나는 가마솥순두부식당 앞(괴정1동 1244-1)에 위치해 있다.

높이 20m, 둘레 6.5m, 수령이 600년인 이 회화나무 아래에는 괴정통샘이 있다. 이곳에는 옛날 어느 부부가 당산을 짓고 백일 동안 기도를 드려 아들을 얻었다고 전해온다. 또 나환자의 이야기도 들려온다. 나환자가 이 나무 밑에서 백일간 기도를 드렸다.

하루는 이 나환자의 꿈에 흰 도복을 입은 도사(목신)가 나타나 "그대의 정성이 하도 극진해 그대에게 샘물(약수)을 줄 것이니 그 물을 먹고 목욕을 해보아라."고 말한 후 사라져버렸다. 잠을 깬 이 나환자는 과연 나무 밑의 뿌리부분에 물이 고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둘레를 파보니 샘물이 솟아올라 그 물을 먹고 목욕을 하니 나병이 완치되었다고 한다. 이 샘물이 지금의 괴정통샘이다. 오래된 우물로 예부터 물맛이 좋아 주민들이 단물샘이라 불렀다고 한다.

*주영택, 『부산의 전설 보따리』, 가마골향토역사연구원, 2013, 82~85쪽.

[사하구 설화 2]

윤공단의 순란사민비와 윤백련

- 격파 당한 왜선서 일본 복장의 조선 소녀가…

- 장소 : 부산시 사하구 다대동

조선 선조 25년, 1592년 음력 4월 13일 부산에 상륙한 왜군은 다음 날인 14일 부산진성을 함락시킨 후 다대포성을 공격했다. 15일 우리의 민·관·군은 힘을 합쳐 왜군과 싸웠으나 끝내 다대포성도 함락되었다.

다대포성 싸움에서 전사한 첨사 윤흥신공의 충절을 기리기 위해 세운 윤공단(사하구 다대동 산 24, 부산시기념물 제9호)에는 첨사순절비가 서있고, 그 왼쪽에는 순란사만비(珣亂士民碑)가, 오른쪽에는 의사윤흥제비가 있다.

이 순란사민비는 다대포성이 왜군에 의해 함락될 때 성과 운명을 같이한 다대포 백성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1834년 8월에 세워진 것이지만 그동안 비문이 없어 다대포 싸움의 상황을 알 길이 없었지만 그 답은 '이충무공전서'에 나와 있다.

이 비석의 주인공은 윤백련(尹百連)의 아버지 윤곤절(尹昆節)과 어머니 모론(毛論)이다.

1592년 4월 15일 다대포성을 점령해 경상도 남해안의 제해권을 장악한 왜군은 이후 도적떼

로 변해 먼저 김해에서 이틀 동안 분탕질을 했고, 이후 거제도로 건너가 5월 7일 옥포에서 또다시 노략질과 분탕질을 일삼았다. 이즈음 왜군의 상황을 척후장 김완으로부터 보고받은 이순신 장군의 연합함대는 옥호 해안에 기습적으로 들이닥쳐 선창에 정박해 있던 왜선을 향해 포격을 가해 26척의 왜선을 단숨에 격파했다. 이른바 옥포해전에서 첫 승전을 거뒀다.

이순신 장군은 우리 사람들이 잡혀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왜선을 샅샅이 수색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옥포해전에 우부장으로 참가한 보성군수 김득광은 그가 격파한 왜선의 선창에서 일본 옷을 걸치고 단발하여 마치 일본사람처럼 보이는 처녀 아이를 찾아내 이순신 장군에게 조사 보고서를 올렸다. 이름은 윤백련, 나이는 14살, 주소는 동래부 사천면 다대리, 고향은 동래부 동래읍 오장리, 아버지는 다대포진 수군 윤곤절이고 전쟁 중 행방불명되었고, 상민인 어머니 모론은 다대포성에서 죽었다.

윤백련은 다대포전에 난리가 있기 전날 첨사로부터 피난 명령이 내려와 윤씨내(다대포의 옛 지명)를 따라 앞산 안골샘 숲속에 숨어 있었다가 이튿날 잠잠해지자 오빠 복룡과 성안 집으로 돌아왔다. 군인들의 뒷바라지를 위해 성에 남았던 엄마는 불탄 집 안에서 죽어 있었고 출전한 아버지는 찾을 길이 없었다.

어머니 시신을 수습한 후 남매는 동래에 있는 할아버지 집을 향해 길을 나섰다가 부산포 근처에서 왜군을 만나 오빠는 겨우 도망을 쳤고, 윤백련은 왜군에게 잡혔다. 이후 왜군에게 매일 같이 배에서 수도 없이 몹쓸 짓을 당하던 중 조선 수군의 공격으로 결국 구출되었다.

보고서를 읽고 난 이순신 장군은 먼 하늘을 바라보며 장탄식을 한 후 부하들에게 "이 아이를 순천이나 보성으로 보내 관리들에게 특별히 보살피게 했다가 온전히 고향으로 보내주라."고 지시를 내렸다.

하지만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었던 다대포 처녀 윤백련은 '임진왜란 정신대'의 아픔을 가슴에 묻고 그곳 보성 땅에서 갈 수 없는 고향을 그리며 한 많은 인생을 마감하였다.

윤공단은 영조 41년, 1765년 다대첨사 이해문이 윤흥신공이 순절했다고 전해지는 다대포객관의 동쪽에 설치했으며, 1970년 아미산 기슭 지금의 자리로 옮겨졌다. 현재 제향은 다대동 동민들이 매년 음력 4월 14일 지내고 있다.

*주영택, 『부산의 전설 보따리』, 가마골향토역사연구원, 2013, 113~115쪽.

3. 중부산 문화권 설화

1) 금정구 설화

[금정구 설화 1]

金井山의 梵魚寺

지금으로부터 약 1천 1백 20년 전, 신라(新羅) 제 10대 흥덕왕(興德王) 때의 일이였다. 흥덕왕께서는 어느 날 밤 꿈에 백발 신인(神人)이 구름 위에서 나타나 "왕이여, 나라 남쪽에 신령한 영산(靈山)이 있는 것을 아느뇨? 그 꼭대기에는 금빛 물이 꽉 차 있고, 가운데에는 금빛 고기가 헤염을 쳐서 다섯 가지 채색의 향기 있는 구름이 항상 그 위를 떠돈다." 하고 말하였다.

왕은 얼핏 꿈에서 깨어나 이를 이상히 여기고 곧 명승 원효(元曉)를 불러들이시어 해몽하게 하였다. 원효는 무릎을 올리어 경탄하여 말하기를,

"그것은 참으로 좋은 꿈이로소이다. 그 금빛 고기야말로 범천(梵天)의 고기입니다……." 하였다.

그래서 왕도 크게 기뻐하시어 곧 남쪽에 있는 동래(東萊) 금정산(金井山)을 찾아서 원효에게 분부하여 세운 절이 곧 이 "범어사(梵魚寺)"라고 한다.

檀紀 4262年 8月 東萊郡 東萊面 나의 先親 談

*최상수, 『한국민간전설집』, 통문관, 1958, 183~184쪽.

[금정구 설화 2]

梵魚寺의 매학童子

壬辰亂 때 梵魚寺에 매학이란 중이 있었다. 이 중은 욕심이 많아 신도들의 재물을 탐내어 수단을 가리지 아니하고 축재에만 눈이 어두웠다고 한다.

하루는 매학이 지금의 華亭, 그 당시 우리병사들이 진을 치고 있던 蘇山 앞을 지나가다가 조그마한 집에 瑞氣가 돌고 있음을 보았다.

매학은 옷깃을 바루고 그 집에 들어서니 웅장한 소리를 내며 옥동자가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얼마동안 기다리던 매학은 산모에게 「이 아이는 佛家에 인연이 깊은 동자로 보입니다. 잘 길러 주시면 몇 년 후 내가 찾아와서 데리고 가겠습니다.」라고 말했더니 산모는 순순히 응했다.

그 후 10년이 지나 매학은 이 아이를 절에 데리고 와서 상좌로 삼았다.

어떤 날 매학은 상좌를 나무하러 산으로 보냈더니 빈손으로 돌아왔다.

「하루 종일 어디에서 놀다 오는 거냐? 왜 염치없이 빈손으로 돌아왔느냐」고 노기를 띠고 나무랐다.

「스님! 놀다온 게 아니옵니다. 제가 풀을 헤치고 나뭇가지를 낫으로 베었더니 그 나뭇가지에서 생생한 피가 흘러나오기에 무서워서 도저히 나무를 할 수 없었습니다.」라고 대답했다.

이 말을 들은 매학은 노발대발하며「고약한 놈같이 어디서 그런 거짓말을 배웠느냐? 나뭇가지에서 피가 나올 리가 있는가? 내 앞에서 당장 물러서 나가라.」고 호통을 쳤다.

상좌는 그길로 절을 떠나 金剛山에 들어가서 修道하는데 여념이 없었다.

상좌가 금강산으로 떠난 二년 뒤에 매학은 梵魚寺 절간에서 병으로 죽었는데 이때부터 이 절 고방에 큰 구렁이가 도사리고 앉았으니 절간 스님네들은 불안하였다.

그런데 이 구렁이는 이상하게도 팥죽을 잘 먹었기에 절에서도 구렁이에 대한 대접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

金剛山에서 매학의 죽음을 들은 상좌는 범어사로 돌아왔다. 그는 여장을 풀기가 바쁘게 즉시 고방 쪽으로 가서 문을 열고 구렁이를 향해 정중한 절을 올렸다. 그리곤 한참동안 讀經하다가「스님! 이 일이 웬 말씀이옵니까? 어서 허물을 벗어 승천하옵소서.」이렇게 말하며 서서히 밖으로 나오니 구렁이도 순순히 꿈틀거리며 상좌를 따라 나왔다.

구렁이가 냇가에 이르렀을 때도 讀經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구렁이는 바위에다 머리를 한참동안 처박곤 하더니 길게 뻗으며 숨졌다. 이때 구렁이의 몸에서 한 마리의 새가 나오더니 상좌의 품에 안겼다.

다음날 상좌는 새를 안고 다시 金剛山으로 향하는 길에 올랐다. 도중 이 새는 짐승들이 교미하는 곳마다 날아가려고 몸부림쳤으므로 상좌는 이를 막느라고 애를 태우곤 했다.

어느 날 해 저문 뒤 상좌는 인가를 찾다가 젊은 부부가 살고 있는 집에 쉬게 되었다. 상좌는 새를 주인에게 맡기면서「열 달 후에 당신들 내외가 아들을 낳을 테니 잘 키워 주옵기 바랍니다. 이 아이는 佛家에 인연이 있는 동자이오니 10년 후에 내가 다시 찾지요.」라고 말하고 혼자 떠났다

그 후 상좌는 다시 이집을 찾아와 동자를 업어갔다. 상좌는 이 아이에게 열심히 佛道를 닦게 했으니 차츰 高僧의 풍모를 갖추게 되었다. 하루는 상좌가 이 스님 앞에 무릎을 꿇고

「스님! 저를 모르시겠습니까?」하고 안타깝게 물었더니「그게 무슨 말씀이옵니까?」라고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했다.

「스님! 스님은 매학 스님의 化身이옵니다. 정신을 차려 저를 보시옵소서. 원래 저는 스님의 제자였습니다.」라고 목 메인 소리로 말했다. 이렇게 하여 상좌는 다시 제자가 되고 매학동자는 스승이 되었다고 한다.

*박원표,『향토부산』, 태화출판사, 1967, 153~155쪽.

[금정구 설화 3]

해월사 노스님과 이무기

- 처녀 잡아먹는 이무기에 맞서 '살신성인'

- 장소 : 부산시 금정구 금성동

금정산 깊숙한 곳에 지금은 부산학생교육원(금정구 북문로 178)이 자리잡고 있으나, 옛날 사시골에는 금정산성을 지키는 방어 사찰인 해월사(海月寺)가 있었다. 한때는 향불이 피워지고 부처님께 올리는 기도와 목탁, 염불소리가 어우러지고 많은 보살들이 드나들던 사찰이었다.

특히 이곳은 금정산성 내성(북문~서문)을 승군 100명으로 방어한 승영사찰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이름조차 전하지 못하고 풀숲에 묻힌 절터로만 남아 있다.

금정산 사시골의 아름다운 계곡 중간 지점, 파란 물 위에 떠 있는 피둥피둥 살진 너럭바위의 중앙에는 어린 아이들이 드나들 수 있을 만큼 큰 바위 구멍이 있다. 일명 '이무기 동굴'이다. 이 동굴 앞을 사람이 지나가면 더운 바람을 내는 이무기가 나타나곤 했다는 것이다.

어느 날 갑자기 천둥과 우레가 치고 안개가 자욱이 깔리더니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렸다. "잘 들어라. 나는 천년 묵은 이무기인데, 처녀 백 명만 잡아먹으면 용이 되어 하늘로 올라간다. 일년에 처녀 한 명을 달 밝은 보름날 사시골 너럭바위로 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마을에 큰 재앙이 있을 것이다." 말이 끝나자마자 천둥과 우레가 그치고 햇볕이 쨍쨍 났다.

이 말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마을에 큰 재앙이 없도록 하기 위해 회의를 갖고 매년 처녀를 한 명씩 바치기로 결정했다. 마을에서는 매년 처녀 한 명씩을 이무기에게 바치는 일이 가장 큰 행사였다. 그러다 보니, 마을 처녀란 처녀는 바닥이 나서 바칠 처녀가 없어 마을 이장이 큰 고민에 빠져 있었다. 그러던 중 해월사의 노스님이 이 사실을 알고 마을 처녀를 몰살하는 이무기를 잡아 없애야겠다며 굳은 결심을 하고 나섰다.

이무기는 사시골의 좌청룡 우백호의 명당에 살면서 아흔아홉 명의 처녀를 잡아먹고 이제 한 명만 먹으면 용이 되어 하늘로 올라가기로 돼있었다. 해월사의 노스님은 '이제 죽을 나이도 다 되었으니 이 몸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보시를 해야겠다.' 생각하고, 이무기를 죽일 궁리를 하였다.

노스님은 달 밝은 밤에 독약을 칠한 실을 절 당간지주에 묶고 손에 독실을 가지고 너럭바위 위에 알몸으로 앉아 있었다. 자정께 드디어 동굴에서 커다란 이무기가 만면에 미소를 피우고 기어 나와 처녀 한 명만 더 잡아먹으면 승천한다는 생각으로 처녀인지 스님인지 모르고 노스님을 덥석 삼켜버렸다. 그 순간을 학수고대하던 이무기는 용이 되어 하늘로 올라간다고 여겼으나 이게 웬 일인가.

삼켜버린 몸에 독실이 매어있는 줄도 모르고, 이무기는 독실을 삼키다가 몸속에 독이 퍼져

계곡물에 떨어져 허우적거리다가 죽고 말았다.

지금도 사시골에는 옥수가 흘러내리고, 용이 못 돼 한을 품은 이무기 동굴 위에 너럭바위만 천년의 세월 동안 묵묵히 앉아 있다.

*주영택, 『부산의 전설 보따리』, 가마골향토역사연구원, 2013, 11~12쪽.

[금정구 설화 4]

범어사를 지키는 느티나무

- 우연한 만남서 돋아나, 천년의 역사 되다

- 장소 : 부산시 금정구 청룡동

범어사 조계문에서 서쪽 금정산성 북문으로 가는 길을 따라 가면, 범어천 옆에 대성암이 나온다. 대성암 입구에는 왼쪽 지장전 뒤에 수령이 천년으로 추정되는 느티나무가 고목으로 늠름하게 서 있다.

이 나무의 높이는 18m에 이르며, 밑둥치의 둘레가 7.5m, 둥치의 둘레가 5m인 거목이다. 밑둥치에는 가로 1m, 세로 2.1m, 크기의 구멍이 아치형으로 맞뚫려 있어 엄청난 상처를 안고 있다.

이 느티나무는 호국 사찰 범어사를 수호해 주는 신목(神木)으로, 오랫동안 범어사의 안녕과 소원 성취를 빌어 온 역사를 간직한 노거수이다.

옛날 어느 하루 범어사 아래의 팔송진에서 구포로 가는 스님과 구포에서 팔송진으로 가는 도인(道人)이 범어천이 흐르는 대성암 앞을 지나다가 우연히 마주치게 되었다.

스님이 도인에게 물었다. “가시는 길입니까?” “아닙니다.” “ 오시는 길입니까?” “아닙니다.” “그럼 쉬려는 것이군요.” “저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을 나누더니 두 사람은 아주 반갑게 손을 잡고는 범어천가길목에 나란히 앉아 땀을 닦는 것이었다.

이번에는 도인이 스님에게 물었다. “길이 멉니까?” “아닙니다.” “가깝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가깝지도 멀지도 않군요.”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

두 사람이 마주 보며 껄껄 웃더니 스님이 봇짐에서 나뭇가지 한 개를 꺼냈고, 도인도 봇짐에서 나뭇가지를 꺼내 서로 맞춰보고는, 스님이 머리를 갸웃하며 말했다.

“이상합니다. 이 나뭇가지 한 개가 남는군요.” 도인도 이상하다는 표정을 짓더니 이렇게 말했다.

“그 가지는 우리가 만난 이 자리에 기념으로 꽂아놓고 가는 게 어떨까요?”

두 사람은 또 한바탕 웃더니 그 자리에 나뭇가지를 꽂아놓은 뒤 스님은 구포로, 도인은 팔송진으로 각각 길을 떠났다.

그들이 꽂아놓고 간 나뭇가지는 뿌리가 내리고 잎이 돋아나 점점 자라서 어느덧 커다란 대성암의 느티나무가 되었다.

역사는 사람과 사람의 만남으로 보람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때 그 삶이 값진 것이 된다.

범어사 느티나무에 전해 내려오는 말에 의하면 임진왜란(1592~1598) 당시 왜적들이 범어사에 불을 질러 범어사가 불에 탄 직후에 이 느티나무를 베어 배를 만들려고 노거수 신목에 톱질을 하려다가 천둥과 번개, 벼락이 떨어져 나무 주위에 있던 왜병 20여 명이 죽었다고 한다.

상처를 입은 이 나무는 그 후에 둥치가 썩어가다가 1945년 8월 15일 광복과 함께 수간(樹幹)에 새로운 움이 돋아나 오늘에 이르고 있다.

사나운 풍설, 많은 사연들을 안으로만 사려 담아서 가슴이 저리도 썩었을까! 몸이 저리 썩었어도 저렇듯 싱싱한 잎을 피울 수가 있는가? 대성암에서는 신목인 이 느티나무에 매년 퇴비와 약을 치면서 정성껏 관리하고 있다.

"천년의 풍설/ 수다한 사연/ 새움의 역사/ 다시 만년 있도록/ 여러님 아낌에 기댑니다." 이 느티나무의 변(辯)이 깊은 역사를 느끼게 한다.

*주영택, 『부산의 전설 보따리』, 가마골향토역사연구원, 2013, 25~27쪽.

[금정구 설화 5]

효성에 감동한 산신령

- 모래고개 꼭대기에 만병통치 약초가 …

- 장소 : 부산시 금정구 금성동

금정산에 있는 죽전마을에서 1km쯤 대천을 따라 산성길을 내려가면 모래고개가 나온다. 이 고개는 산성마을과 구포를 연결하는 유일한 통로로 구포장을 다녀오는 사람들의 왕래가 잦았다. 모래고개는 마사(磨砂)로 이루어졌으며, 숲이 우거져 호랑이가 살았다고 한다.

사람들이 구포장에 갔다가 오면 호랑이가 모래를 펄펄 날려, 이 모래고개에서는 사람들이 겁이 나서 빠른 걸음으로 지나다녔다고 한다.

이 고개 바로 동쪽에는 20여 호의 죽전마을이 있다. 마을 아래에는 금정산성 서문이 있고, 대천에 세 개의 아치를 이룬 홍예수문이 자리한다. 크고 묵직한 돌을 쌓아 조성한 홍예수문은 말없이 낙동강을 지켜보고 있다.

바로 그 죽전마을에 홀어미와 효성이 지극한 아들이 살았다. 아들이 스무 살 되던 겨울에 어미가 병이 났다. 집안이 너무 가난하다 보니 변변한 약 한 첩도 쓸 수 없는 처지지만, 아들은 어미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정성껏 했다. 그러나 어미의 병은 차도가 없었다.

마침내 아들은 추운 겨울인데도 새벽마다 정화수를 마당가에 차려놓고 백일기도를 시작하

였다.

이렇게 하기를 백여 일이 되던 날, 눈이 펑펑 쏟아지는 마당가에 정화수를 차리고 전처럼 기도하다가 깜박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 백발노인이 백호를 타고 앉아서 청년을 내려다보고 말했다. "나는 이 고을의 산신령이다. 너의 효성이 지극하여 특별히 너에게 어미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약초를 알려 주겠으니 똑똑히 들어라. 이 마을 아래 모래고개 위의 산꼭대기에는 무슨 병이라도 고칠 수 있는 약초가 있을 것이니, 그걸 캐서 네 어미에게 달여 먹이면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이다." 그러고는 홀연히 사라졌다.

아들이 놀라 눈을 번쩍 떠보니 자기가 정화수를 떠놓은 소반에 엎드려 잠이 깜박 든 것이었다. 아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 꿈이 신기하여 이튿날 아침 날이 새자마자 눈 덮인 모래고개 위의 산꼭대기를 오르기 시작하였으나, 눈이 많이 쌓여 엎어지고 넘어지면서 한 나절이 넘어서야 겨우 산 중턱까지 도달하였다. 그때 갑자기 큰 호랑이가 나타나 앞을 가로막고 서서 꼬리를 흔들며 자기의 등을 타라는 시늉을 했다. 아들이 자세히 보니 어젯밤 꿈에 본 그 호랑이였다. 산신령이 보내준 것이라 믿고 호랑이 등에 올라타니, 호랑이가 커다란 바위 아래까지 데려다 주었다.

호랑이의 등에서 내려 보니 겨울인데, 눈 속에 파란 약초가 나 있어 그것을 캐어 품으니 이번에는 또 호랑이가 자기가 태워줬던 곳까지 와서 그를 내려 주었다.

아들이 집으로 내려와 약초를 달여 드리니 어미가 먹고 병이 나았다. 그 뒤 아들은 좋은 배필을 만나 결혼도 하고 마을 이장(里長)이 되어 어미와 더불어 행복하게 살았다고 한다.

*주영택, 『부산의 전설 보따리』, 가마골향토역사연구원, 2013, 31~32쪽.

[금정구 설화 6]

허장자와 소머리바위

- 과객들 막으려 바윗부리 뽑은 부잣집 망해

- 장소 : 부산시 금정구 회동동

고려 중엽 때 회천마을(현 부산 금정구 회동동 일대)에 김해 허씨가 크게 번성하여 큰 부자였던 허장자가 살고 있었다. 이 일대에 큰 감나무 뿌리가 있었고 기왓장 조각들이 많이 나왔다고 한다.

허장자 집터는 명당자리로 서쪽으로 앉혀져서 오륜대 쪽에서 냇물이 집 앞으로 흘러 들어오는데, 나가는 물길은 집에서 보이지 않았다. 당시 동대(東臺·부산 8대 중 1대) 아래에는 '애기소'가 있었고 물길이 깊어 휘돌아 나갔다.

허장자는 화기산을 중심으로 꽃밭등과 석빙고등에 얼음을 저장 관리하며, 부잣집 대가로 당

당하게 잘 살았다. 그런데 그 마을 앞에 쇠뿔같이 생긴 두 개의 바윗부리인 선돌이 솟아 있었고, 마을 사람들이 소머리바위(지금 회동동 버스 종점자리)라 불렀다.

허장자 집 사랑채에는 과객이 그칠 날이 없었다. 하인들도 과객 치다꺼리에는 손이 모자랄 지경이었다. 어느 날 어른들이 출타 중에 그 집 며느리가 시주받으러 온 스님에게 시주를 하면서 "과객이 너무 많이 찾아와 감당할 수 없으니, 어떻게 하면 우리 집에 과객의 출입을 끊을 수 있을지요"라고 물었다.

이에 스님은 "방법이 없는 건 아니나 후회할 것인데……."하고 입맛을 다셨다. 그러자 며느리는 안채에 들어가서 동전 꾸러미를 들고 나와서 시주를 하였다. 하는 수 없이 스님이 "그럼 내가 시키는 대로 하겠느냐?"하고 재차 다짐하고는 "저 앞산에 이 집을 보고 있는 소머리바위의 쇠뿔 두 개, 즉 선돌을 모두 뽑아 버리면 된다."고 하였다.

허장자 며느리는 이 말을 듣고 어른들 몰래 하인을 시켜 소머리바위의 바윗부리인 선돌을 모두 부수어 흔적을 없애버렸다. 그 후부터 허장자 집으로 들어오던 물길이 변해 집 안에서 보면 들어오는 물은 없고 나가는 물길만 보였다. 이때부터 그 후로 허장자 집은 해마다 가세가 기울어지니, 재산은 빠지고 집안사람이 자꾸 병이 들어 허장자는 망하고 말았고, 과객들도 더 찾아오지 않았다.

비슷한 얘기로, 금정구 선두구동 공덕산 기슭의 수내마을 장자 부잣집 이야기가 있다. 이 집에도 과객이 너무 많이 와서 골칫거리가 되었다. 마님은 어떻게 하면 과객이 줄어들까 고민하고 있었다. 어느 날 지나가는 도사가 장자 부잣집에 들르게 되었다.

마님은 도사에게 "과객이 너무 많이 와서 식량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일을 어찌하면 되겠습니까?"라고 묻자, 도사는 "좋은 방도가 있지요. 집 앞에 못을 파면 과객도 적게 오고 편안하실 것입니다"라고 일러 주었다.

이에 마님은 하인들과 소작인을 시켜 못을 파게 하였다. 집 앞 골짜기에 있는 논 한 마지기만큼의 큰 못을 파니 하얀 새 한 마리가 날아갔다. 이 일이 있은 후 과객은 끊어지고 3년 만에 장자 부잣집도 망해버렸다고 한다. 이곳의 하얀 새가 날아간 자리를 '새청못', 수내마을 뒤편 골짜기를 '새청골'이라 부르고 있다.

집에 오는 손님을 막으면 액이 따른다는 것을 가르치는 이야기이다.

*주영택, 『부산의 전설 보따리』, 가마골향토역사연구원, 2013, 33~35쪽.

[금정구 설화 7]

얼음골의 열녀

- 호랑이로부터 남편 구한 김해 김씨 열녀

- 장소 : 부산시 금정구 부곡3동

기찰(機察)마을은 동래의 진산 윤산(輪山·옛 구월산) 기슭, 지금의 금정보건소(부곡3동 78) 일대에 있던 마을이다. 십휴정(十休亭)기찰은 지금의 금정 농협 기찰지점 자리에 검문소가 있었다는 연유로 마을 이름이 기찰로 불리고 있다.

조선 정조(재위 : 1777~1800) 때 기찰마을에 김효문이라는 선비가 김해 김씨 처와 살고 있었다. 젊은 김씨 부부는 한여름 밤에 더위를 식히려고 마당에 멍석을 펴고 모깃불을 피워 놓고 그 옆에서 나란히 잠을 자고 있었다.

한밤중에 난데없이 큰 호랑이가 나타나 남편을 물고 가려는 찰나 잠결에 놀라 깨어난 부인이 호랑이의 꼬리를 잡았다. 남편을 문 호랑이는 그 부인이 꼬리를 잡자 산을 향해 뛰기 시작했다. 마을을 벗어난 논밭을 지나 바위와 나무 투성인 산속으로 호랑이는 그녀의 남편을 물고 뛰었지만 그 부인은 '사람 살려주세요.'라고 큰 소리를 지르며 호랑이의 꼬리를 결코 놓아주지 않았다.

호랑이는 윤산 업은골 중턱에서 그의 꼬리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부인에게 질려버려 그녀의 남편을 그대로 두고 도망쳐 버렸다.

부인은 업은골에서 남편을 구출해 업고 집까지 힘겹게 내려왔으나 결국 남편은 소생하지 못하고 곧바로 죽고 말았다. 부인도 이로 인해 충격을 받아 이내 남편을 따라 절명하고 말았다.

날이 샌 후 마을사람들에 의해 발견된 김씨 부인은 열녀로 추앙받아 열녀 비각에 모셔졌고, 동시에 마을사람들은 호랑이로부터 남편을 구해 업고 내려온 골짜기를 '업은골'(현재 가톨릭대 계곡 일대)이라 부르고 있다.

열녀 비각은 황산도로에서 북면사무소로 통하는 길 옆 주재소 앞에 있었지만 1959년 발생한 사라호 태풍 때 무너져 방치돼 있었다. 이후 1970년 경부고속도로 진입로 확장공사 때 철거되어 도로변에 방치된 것을 김종암 전 부산시의원의 주선으로 경로당(부곡3동 26-11) 담벼락으로 옮겨 철장 안에 열녀비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다.

2003년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위원인 김종오 씨는 금석문 보호 차원 및 효친사상 고취를 위해 열녀비를 원위치로 복원하자는 건의를 받아들였지만 이듬해 금정구청 광장에 '금샘뜰'이 조성되면서 우여곡절 끝에 파고라 왼쪽 화단으로 다시 이전 설치를 하였다. 비의 몸통 전면 중앙에는 '열녀학생김효문처김해김씨지려(烈女學生金孝文妻金海金氏之閭)'라고 음각돼 있고 옆면에는 '건륭54년기유10월 일 입(乾隆五十四年己酉十月 日 立)'이라 새겨져 있다. 김효문의 처 김해 김씨 열녀비는 1789년(정조 13) 세워졌다.

열녀비의 규모는 2단 기단으로 가로 70cm, 세로 45cm, 너비 55cm인 기단 중앙에 비의 몸통 높이가 78cm, 폭 33cm, 두께 18cm의 크기로 세워져 있다.

*주영택, 『부산의 전설 보따리』, 가마골향토역사연구원, 2013, 60~61쪽.

[금정구 설화 8]

낭백 스님과 조엄

-무주상보시 실천한 스님, 관찰사로 환생

- 장소 : 부산시 금정구 청룡동

조선 중기 동래 범어사에 법호가 낙안(樂安)인 낭백(浪白)이라는 스님이 있었다.

낭백 스님은 일찍이 범어사에 입산해 신심을 갖고 부지런히 학문을 닦고 수행하였으며 특히 보시행을 발원해 자기가 가진 것을 모두 타인을 위해 바쳤다. 무엇보다 스님은 커다란 원력을 세워 생을 거듭하면서까지 그 염원을 결국 이뤄냈다.

조선시대 배불숭유정책에 의한 불교의 폐해는 이루 다 형언할 수 없다. 특히 조선 중기에 이르러 불교에 대한 박해는 극에 달해 승려들을 핍박하기 위해 일개 사찰에 부여된 부역의 수가 무려 40여 종에 이르렀다고 전해온다.

낭백 스님은 이러한 당시의 사정을 뼈아프게 개탄하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 부역만은 면하고 살아야겠다고 결심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낭백 스님은 남몰래 부처님 앞에 나아가 "하루라도 속히 금생을 마치고 내생에는 큰 벼슬에 올라 도 닦는 스님들이 관권 구속과 혹사 없이 도를 닦을 수 있도록 제가 보살피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올렸다. 스님은 설사 금생에 안 되면 내생에라도 부역을 면하고 마음껏 공부할 수 있게 하리라 마음먹고 원력을 세웠다.

낭백 스님은 보시정신을 갖고 자기가 가진 재물을 모두 가난하고 병든 사람에게 나눠주었으며, 빈 몸으로 나아가서 힘이 닿는 대로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의 큰 원행을 스스로 실천했다.

스님은 지금의 금정구 부곡3동인 옛날 기찰마을 부근에서 동래로 들어가고 나가는 황산도 길목 큰 소나무 밑에 샘을 파서 행인들에게 식수를 제공했고 너른 밭을 개간해 참외 오이 수박 등을 수확해 행인에게 무한정 보시했다. 또 기장으로 넘어가는 칼치재에 초막을 지어 거기서 짚신을 삼아 고개를 넘나드는 행인들에게 신을 시주하는 등 온갖 일로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줬다.

스님은 늙은 몸뚱이까지도 보시하기 위해 범어사로 올라가 한 행자를 만나 이렇게 말했다. "이제 나는 주린 호랑이에게 보시를 하고 가기로 작정했다. 금정산 밀림에서 3일 동안 헤매다가 굶주린 호랑이의 먹이가 되겠다."

스님은 또 죽기 전에 세 가지의 증명할 일을 유서로 남겨놓았다. '만일 다시 태어나 나라의 고급관리가 돼 범어사로 올 때 모든 관리가 조계문(일주문) 앞에 말에서 내렸지만 자신은 이보다 아래인 어산교 앞에서 내리겠으며, 자신이 쓰던 방을 봉해 두었다가 이 문을 닫는 자가 이 문을 열 것이며(開門者是閉門人), 사찰의 어려움을 물어 해결할 것을 약속하리라.'

세월이 흘러 경상도 관찰사로 조엄(1719~1777)이 새로 부임, 각 군을 순찰하고 범어사를 찾

았다. 조엄은 다른 관리와 달리 어산교 앞에 말에서 내렸다. 사찰을 돌다가 낭백 스님 방 앞에서 기어이 문을 열라 하여 봉함을 뜯고 열어 보니 낭백 스님의 친필 유묵이 얼룩져 있었다.

조엄은 스님에게 그간 절의 사정을 물었다. 스님들은 하나같이 "36종의 잡역으로 고생한다."고 답하니 단번에 잡역을 면제해 주고 그 자리에서 불사를 약속했다. 스님이 "오늘이 낭백 스님이 돌아가신 지 24년이 되는 날"이라고 하니 조엄 관찰사는 그제서야 자신의 전생이 낭백 스님이었음을 깨닫고, 그 후부턴 평생을 통해 많은 불사를 하였다고 한다.

이 전설은 조엄 관찰사가 낭백 스님이 살아 생전 맹세한 다짐을 실현하였다는 인과응보의 좋은 본보기이며, 범어사 옛길 비석골 한쪽 귀퉁이에 위치한 '순상국조공엄혁거사폐영세불망단'비가 환생 전설을 입증해주고 있다.

*주영택, 『부산의 전설 보따리』, 가마골향토역사연구원, 2013, 106~109쪽.

[금정구 설화 9]

원효대사의 장군기와 호로병

- 호로병 5개로 왜적 5만 명 물리친 대사

- 장소 : 부산시 금정구 금성동

원효대사(617~686)가 금정산 미륵암에 주석하고 있을 때다. 어느 날 동해를 바라보던 원효는 5만 명의 왜적이 수십 척의 배에 나눠 타고 수영만으로 들어오는 것을 목격했다. 살생계율을 중히 여기는 원효는 왜적을 모두 죽일 수 없다고 생각하고 원효굴로 들어가 어린 사미승을 불러 "빨리 마을로 내려가 조롱박 모양의 호로병 5개를 구해오라"고 시켰다. 그리고는 독성각 우측의 미륵바위에 신라 장군기를 꽂고, 사미승에게 마을로 다시 내려가 수상한 자가 있거든 데려오라 지시했다.

왜적의 대장은 신라 군사의 움직임이 전혀 보이지 않아 우선 두 명의 정탐군을 뽑아 신라 뱃사람으로 변장시켜 적정(敵情)을 살펴보고 오라고 시켰다. 왜군의 첩자로 의심되는 두 사람을 발견한 사미승은 미륵암으로 유인하려고 하자 첩자는 이미 신라 군대의 방어태세가 전혀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사실을 알고 뒤돌아가려고 했다. 그 순간 장군기가 세워진 미륵바위 쪽에서 우렁찬 목소리가 들려왔다.

"잠깐, 두 분 길손을 멈추시오. 어려운 걸음을 하셨는데 어찌 바로 가시려 하오." 미륵바위에서 우뚝 서 첩자의 갈 길을 제지시킨 이는 다름아닌 원효였다.

첩자가 도착하자 원효는 "그대들은 뱃사람으로 위장한 왜적이 아닌가."라고 호통을 치니 그 중 한 명이 잽싸게 칼을 빼들고 원효를 겨누었다.

순간 "네 이놈! 고이 있지 못할까."라고 큰 소리로 꾸짖자 칼을 휘두르던 첩자는 맥없이 쓰러

지고 말았다. 결국 첩자들은 무릎 꿇고 엎드려 목숨만 살려달라고 애걸했다.

원효는 사미승에게 호로병 5개를 가져오라고 해 나란히 세웠다. "똑똑히 보아라,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일찍 물러나면 목숨은 보존될 것이나, 만일 어기면 너희 둘은 물론이고 5만 명 대군의 목숨이 모두 없어질 것이로다."

원효가 호로병의 잘록한 목 부위에 붓으로 동그랗게 선을 긋자 첩자 두 사람의 목이 조여들었다. 그리고는 호로병처럼 목에 선이 그어지면서 벌어지기 시작했다. 순간 첩자 두 명은 약속이라도 한 듯 서로의 목과 호로병을 번갈아 쳐다보면서 어쩔 줄을 몰라 했다.

"보았느냐. 너희들이 내 말을 따르지 않을 때면 이 호로병의 목을 깨뜨릴 것이고, 그러면 너희들은 피를 토하고 죽고 말리라." 첩자들은 애걸복걸하며 목숨을 빌었다. "정 그렇다면 살려주마, 한데 내 말을 듣거라."

원효는 5개의 호로병에 붓으로 동그라미를 그어 그중 3개를 첩자들에게 주면서 "이것을 줄 터이니 갖고 가서 너희 대장에게 여기서 본 것을 잘 설명하도록 하라. 밤새 회군하지 않으면 전멸을 면치 못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첩자들은 원효 앞에서 엉금엉금 기어 나와 곧장 대장에게 달려가 자기들이 당한 일을 사실대로 고하며 호로병을 바쳤다. "장군님, 미륵암에는 신술을 부리는 도사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겨우 목숨만 건져 나왔습니다. 그 대사는 저희 작전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이 호로병을 가지고 우리 군사 5만 명을 전멸시킬 수 있을 겁니다."

대장은 크게 화를 내며 "맹랑한 소리로구나! 이따위 호로병으로 나를 속일 셈이란 말인가" 하고 장검을 빼 단칼에 호로병을 내리쳤다. 호로병의 목이 대장의 칼을 맞고 깨지는 순간 대장은 피를 토하며 쓰러져 죽었다. 몹시 놀라 어쩔 줄 모르는 왜적들은 대장이 죽는 광경을 보고, 그 길로 뱃머리를 돌려 뺑소니쳐 돌아갔다.

원효가 장군기를 꽂아 왜적 5만 명을 물리친 미륵바위를 필자가 1990년 발견했다. 독성각 앞 미륵바위에 움푹 패인 구멍(깊이 60cm)은 호국 사찰의 전설이 서려 있는 표상이다.

*주영택, 『부산의 전설 보따리』, 가마골향토역사연구원, 2013, 158~160쪽.

[금정구 설화 10]

금정산성 동·서문 재건 때 벌어진 얘기

- 사제간 석공, 동·서문 복원 각각 맡아 경쟁

- 장소 : 부산시 금정구 금성동

국내 최대 산성인 금정산성(사적 제215호)의 성문은 지형의 고저(300~600m)와 계곡 및 하천을 절묘하게 활용해 외부로의 교통이 가능한 요지를 선정해 조성했다.

금정산성 동문(해발 415m·금정동 산 41-2)은 산성 동쪽 고갯마루에 위치한 조선시대의 성문이다. 1703년(숙종 29) 금정산성을 축조하면서 함께 조성했다. 이후 1824년(순조 24) 동래부사 오한원이 수리 축조했다. 동문은 동래 방면에서 산성으로 출입하는 성문으로서 관문의 역할을 겸했다. 비교적 큰 돌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축조돼 있다. 개구부의 높이는 낮은 편이어서 사람이 말을 타고 통과하기가 어렵게 하였다. 이는 방어력을 높이기 위해 일부러 낮춘 것이다. 진입로의 입구는 경사져 있어 성문보다 낮고 앞쪽에서 휘어져 들어오게 되는 지형지세를 이용했다. 이 또한 성문이 직접 눈에 띄지 않게 하여 적의 공격을 곧바로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다.

성문의 형식은 앞면과 뒷면이 홍예식(虹霓式·문의 윗부분을 무지개 모양으로 반쯤 둥글게 만든 방식)으로 조성돼 있다. 성문의 좌우측은 만곡(彎曲)되게 내어 쌓아 나팔 모양을 이루고 있어 적대(敵臺)의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다. 성문 위에 성가퀴(몸을 숨기기 위해 성위에 낮게 쌓은 담)는 설치돼 있으나 총안(銃眼·성가퀴나 포사(砲舍) 안에서 적을 내다보고 총이나 활을 쏠 수 있게 한 구멍)은 설치돼 있지 않다.

금정산성 서문(해발 230m·금정구 금성동 133)은 금정산성 서쪽에 있는 조선시대의 성문이다. 4대 성문 중 유일하게 계곡에 세워져 있다. 이 문을 통해 백성들은 낙동강과 구포, 김해 방면으로 왕래했다. 1824년(순조 24) 동래부사 오한원이 서문의 문루를 만들었다. 그 이전에는 육축(陸築·성문을 축조하기 위해 무사석 등 큰 돌로 축조한 성벽)과 성문만 축조되고 문루(門樓)가 없었다. 성문 위에 지은 초루(譙樓)와 'ㄷ'자 모양으로 조성된 성곽은 그 모습이 견고하고 아름답다.

성문의 형식은 앞면과 뒷면이 역시 홍예식으로 조성돼 있다. 서문은 구릉지에 자리 잡고 있어 적군의 침입을 효율적으로 방어하기 위해 좌우에 적대를 설치했다. 수문은 대천에 교량식의 홍예형으로 세 개의 수구(水口)를 마련했다. 그 모습은 아치 형태를 이루고 있다.

동문과 서문 재건 때 벌어진 널리 알려지지 않은 에피소드가 하나 전해온다. 정현덕(재임 : 1867~1874)이 동래부사로 재임할 때다.

그는 두 성문을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 전국의 내로라하는 석공을 두루 수소문한 결과 결국 사제지간인 두 석공에게 성문 재건을 의뢰했다.

스승과 제자에게 각각 동문과 서문을 맡겨 서로 경쟁을 시켰다. 스승은 원래 야욕이 많아 웅대하게만 지으려했던 반면 제자는 기술을 앞세워 정교함과 아름다움을 강조했다. 이런 연유로 동문과 서문에는 사제의 특성이 담겨질 수밖에 없었다.

제자가 먼저 서문을 완공한 뒤 스승을 찾아뵈었지만 스승은 규모를 중시하다 보니 여태 성문을 달지 않았다. 동문은 서문에 비해 규모는 웅대하지만 견고하지 못해 결국 사제대결에서 제자가 이겼다. 지금도 서문은 당시 바른 틈새의 흙이 시멘트와 같이 단단하게 붙어 있을 정도다.

당시 스승은 제자의 뛰어난 기술을 시기하고 질투해 살해할 음모까지 꾸민 일도 있었다고 한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그 스승을 미워했다 한다. 하지만 이들 사제는 각각 동·서문을 완공한 뒤 서로 힘을 합쳐 밀양 영남루 공사를 하였다고 전해지고 있다.

금정산성 동·서문은 일제강점기에 훼손되었으나 현재 복원되어 조선시대 산성의 성문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주영택, 『부산의 전설 보따리』, 가마골향토역사연구원, 2013, 172~174쪽.

[금정구 설화 11]

금빛 물고기가 노닐던 금샘

- 부처님의 전령, 왜구 물리치고 절을 세우다

- 장소 : 부산시 금정구 청룡동

부산의 진산 금정산(金井山·801.5m)은 호국의 얼이 서린 전설을 간직한 신령스러운 산이다. 금정산의 금샘(금정구 향토문화재 제1호)은 범어사(梵魚寺)에 비전(秘傳)돼 온 생명의 원천 우물이다.

'세종실록지리지'(1454년)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금정산은 동래현의 북쪽 20리에 있다. 산정에 바위가 있어 높이가 3장 가량이다. 그 위에 우물이 있는데 둘레가 10여 척이며 깊이는 7촌쯤 된다. 물이 항상 가득 차 있어 가뭄에도 마르지 않고 빛은 황금색이다. 세상에 전하는 말로는 한 마리의 금빛 물고기가 오색구름을 타고 범천(梵天)에서 내려와 그 우물에서 놀았다고 하여 금빛우물(金井)이라는 산 이름 '金井山'과 범천의 고기라고 하는 절 이름 '梵魚寺'를 지었다'.

이 문헌은 한결같이 이 산의 이름 '금정'이 '금어가 사는 금샘'이라는 금정암 위의 우물 암상금정(범어 3기중 1기)에서 유래된 영암(靈岩)이라고 이야기 한다.

금샘은 고당봉 동쪽 해발 650m쯤에 위치한 암군의 동남단에 솟은 높이 10m, 둘레 7m 화강암 꼭대기에 절묘하게 위치한 우물이다. 포획암이 약한 틈을 따라 빠져나가 생긴 홈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빗물의 작용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둘레 3m, 남북으로 1m50cm, 동서로 1m30cm, 깊이가 20cm 규모의 하트 모양이다.

금샘 물은 알려진 대로 샘솟는 것이 아니라 빗물이 고여 우물을 이룬 것이다. 금샘 주위에는 낙동강에서 올라온 안개가 한낮에 햇빛의 열기로 데워지고, 그 열기로 데워진 바위가 밤이면 주변 수분을 빨아들이는 작용으로 물이 차게 된다.

예부터 범어사에서는 금샘에 물이 마르면 흉년이 들어 백성이 기근을 면치 못한다고 전해온다. 가뭄이 닥치면 백성은 우선 금샘이 마르지 않았는지 먼저 살펴보고, 금샘 아래에서 기우제를 지냈다.

사방이 확 트인 풍광명미한 곳, 둘레의 곡선미, 물결의 금빛 파장은 불심의 오묘한 영험 끝에 빚어진 조물주의 또 하나의 예술품이다.

금샘은 범어사 대웅전과 대각선으로 연결돼 있어 하늘과 통하는 지심(地心)의 혈맥이며, 생

명의 정화수로 불심을 받들고 호국의 정기가 서린 자연 에너지를 응축한 성지(聖地)이다.

하늘에서 오색구름을 타고 금샘에 내려와 놀았다는 금빛 물고기는 바로 우주 만물의 창조신으로서 사바세계를 주재하고, 불교의 수호신으로 보살의 존경을 받고 있는 범천왕이 계신 세계에서 내려온 물고기이다. 이 금빛 물고기는 신성어족의 계열로 이 물고기가 내려와 논 장소는 성역이라 생명의 원천 혹은 창조의 모태인 풍요와 다산을 기원하는 성소(聖所)였다.

여기 한 마리의 금빛 물고기는 부처님이 베푸는 그 자양으로 지상에 내려와 영원한 자유와 평등을 건설하고자 하는 자비의 전령이니, 범어사도 그 진리를 수호하는 사찰로 해석해도 크게 잘못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범어사창건사적기'(1746년)에 따르면 금샘은 신라 때 불력으로 왜병을 막는 호국의 성소 현장이었다. 신라 문무왕(재위 : 661~680)은 꿈에 신인이 나타나 '금샘에서 의상 대사와 함께 화엄신중을 독송하면 왜병을 격퇴할 것이다'라고 하고 사라졌다 한다. 아침이 되자 왕은 의상 대사와 함께 금샘에 가서 7일 밤낮 동안 화엄경을 독송하니 부처님 원력으로 10만 왜병이 물러갔다 전해온다.

금샘은 신비하고도 불가사의한 모습으로 억겁의 세월을 담아왔다. 금샘으로 인해 범어사가 세워진 것만으로도 이 우물은 전설이 아닌 실존이다.

*주영택, 『부산의 전설 보따리』, 가마골향토역사연구원, 2013, 191~193쪽.

[금정구 설화 12]

김유신의 땅딸보 소나무

- 장군의 소변 천연비료되어 독야청청 뽐내

- 장소 : 부산시 금정구 청룡동

지금까지 알려진 김유신(595~673)과 관련된 전설이나 흔적은 지리적으로 경주와 울산 울주 지역에 주로 분포한다. 김유신 장군이 병사들과 휴식을 취했다는 경주 오봉산 마당바위, 김유신 장군이 단칼에 쪼갰다는 단석(斷石)이 정상석 바로 옆에 위치한 경주 단석산 등이 단적인 예.

하지만 부산의 진산 금정산에도 김유신과 관련된 전설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몇 명이나 알고 있을까.

김유신은 15세 때 화랑이 되어 낭도를 이끌고 거지화현(울주군 상북면)의 고헌산과 그 산자락 만당벌에서 수련했다. 이후 그는 남쪽으로 내려와 거칠산군(동래군)의 서북쪽 낙동강이 보이는 가마골 진산인 금정산에서 산맹강서(山盟江誓)했다.

유신은 삼국통일이라는 대업을 품고 금정산 고당봉에서 오랫동안 수련을 했다. 금샘에서 통일을 기원하며 "적국이 자주 침범하여 죄없는 백성이 피를 흘리게 되오니 저는 소동이오나, 적

을 소탕할 뜻을 품었사오니 천지신명이시어 굽어 살피셔서 저에게 힘을 주소서.”라고 성심껏 기도로 다짐을 했다고 전해온다. 실제로 유신은 금정산에서 낙동강을 굽어보며 낭도 청소년들의 호연지기와 무예를 연마시켜 삼국통일의 초석을 다졌다.

어느 날 유신은 고당봉에서 동남쪽으로 내려와 원효봉 인근에서 수련을 했다. 이곳에서 동남쪽으로 뻗은 산등성이에는 아주 높은 너럭바위가 있다. 이 바위 틈서리에는 어른 키만한 땅딸보 소나무가 박혀 있다. 이곳 바위 틈서리에 뿌리내린 땅딸보 소나무는 빗물과 이슬 그리고 이끼에 낀 물기를 먹고 근근이 살아가고 있다. 생명력이 강한 이 소나무는 김유신과 연관이 있다고 전해온다.

유신은 원효봉 인근의 너럭바위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 휴식도 이곳에서 했고, 훈련도 주로 여기서 시켰다. 어느 날 유신은 낭도들과 이곳 너럭바위에서 훈련을 함께했다. 그날 훈련은 부동자세로 누가 오래 서 있냐 하는 것이었다. 유신과 낭도들은 너럭바위에서 오랫동안 부동자세로 견디며 경쟁을 했다. 그러기를 수십 시간. 결국 유신은 부동자세를 흩트리지 않기 위해 그만 선 채로 소변을 봤다. 그런 낌새를 알아차린 한 익살꾸러기 낭도가 그 자리에 아기 소나무 한 그루를 심어놓았다.

이 소나무는 1000년의 유구한 세월을 거치며 비바람을 이겨내고 자라 독야청청(獨也靑靑) 그 푸르름을 뽐내고 있다. 이후 금정산성 내 주민들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 듣고 이 소나무를 ‘김유신 땅딸보 소나무’라 부르고 있다 한다.

김유신은 고구려를 공격할 때 당나라 군산들과 힘을 합했다. 평양을 포위하고 있는 당군으로부터 군량이 떨어져 위급하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그는 적진을 뚫고 급히 군량미를 당군에 수송하는 어려운 일을 자진해서 맡았다.

당시는 무척 추운 겨울이었다. 겹겹이 고구려군이 지키고 있는 큰 길을 피해 험한 산길로 돌아가야 하는 고생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힘들었다. 천신만고 끝에 평양성 인근 장새(獐塞)라는 지점에 이르렀을 때 인마(人馬)는 이미 지칠 대로 지쳤다. 살을 에는 듯한 추위와 눈보라는 시야를 막아 전군이 동사할 위험에 직면했다. 67세의 백발의 김유신은 몸소 웃옷을 벗고 어깨로 수레를 밀었다. 그 광경은 장병들에게 기적과 같은 힘을 샘솟게 하여 무사히 군량을 전할 수 있었다.

평생을 걸쳐 한결같았던 그의 불퇴전의 기상은 젊은 시절 금정산에서 낙동강을 굽어보며 무예를 연마한 덕택이 아니었을까? 호국의 얼이 서려 있는 금정산에서 훈련한 김유신은 큰 회전이 있을 때마다 탁월한 통솔력과 전술을 발휘하여 마침내 삼국통일(668년)의 위업을 낳는 지렛대 역할을 하였다.

*주영택, 『부산의 전설 보따리』, 가마골향토역사연구원, 2013, 201~203쪽.

[금정구 설화 13]

범어사의 창건

- 금샘 설법으로 왜적 10만 명을 물리치고 범어사 창건

- 장소 : 부산시 금정구 청룡동

부산의 역사는 동래에서 시작되었고 그 동래는 금정산(801.5m) 자락에서 비롯되었다.

금정산은 태백산맥 줄기가 남쪽으로 뻗다가 동남단 해안에서 멈춰 선, 부산의 진호산이다.

범어사는 부산을 수호한 사찰로 대왜 방비라는 군사적 목적이 항상 우선시 되었다. 불력의 힘으로 왜구를 막고자 하는 염원에서 신라시대 의상대사(625~702)가 창건한 호국사찰이다.

삼국통일(668년)을 이룬 신라 문무왕(재위 : 661~680)때 통일 과업 수행을 위한 야심에 차 있던 왕에게 바다 저쪽 수시로 국가의 통치체제를 마비시킬 정도로 심각한 왜적 침입은 어찌해 볼 수 없는 골칫거리였다. 왜적은 10만 병선을 거느리고 동쪽에 이르러 신라를 침략하고자 하였다. 당시 근심으로 나날을 보내던 문무왕은 꿈에 신인이 나타나 한 인물을 천거하는 계시를 받았다.

문득 꿈속에 신인이 나타나 말하기를 "왕이시여, 근심하지 마소서, 태백산에 의상 스님이 계시는데 진실로 금산보개여래의 제7후신입니다. 항상 성중(聖衆)1천 범중(梵衆)1천 귀중(鬼衆)1천의 모두 3천명 대중을 거느리고 화엄의지법문을 설법합니다. 이에 화엄신중과 40법체, 제신 및 천왕이 곁을 떠나지 않고 따라 다닙니다.

또 동쪽 해변에 금정산이 있고 그 산정에는 높이 10m 되는 바위가 우뚝 솟아 있는데, 그 바위 위에 우물이 있어 항상 금색으로 사시사철 물이 가득 차고 마르지 않습니다. 그곳에는 범천에서 오색구름을 타고 온 금빛 고기가 헤엄치며 놀고 있습니다. 대왕께서는 의상 스님을 맞이하여 함께 그 산의 금정암 아래로 가셔서 칠일 밤낮으로 화엄신중을 독송하면 그 정성에 따라 미륵여래가 금색신으로 화현하고 사방의 천왕이 각각 병기를 가지고 색신으로 화현할 것이며, 또 비로자나여래가 금색신으로 화현할 것입니다. 보현, 문수, 향화동자 등 40법체와 제신과 천왕을 거느리고 동래를 위압하게 되어 왜적이 자연히 물러갈 것입니다. 만약 후대에 훌륭한 법사가 출현하여 계속 이어가지 않는다면 왜적들이 다시 침입하게 되어 사방에서 병란이 끊어지지 아니합니다. 그러니 금정암 밑에서 화엄정진이 계속 이어지도록 한다면 자손이 끊어지지 않고 전쟁이 영원히 없을 것입니다"하고 말을 마친 신인은 곧 사라졌다. 왕이 놀라 깨어나 새벽을 지새고 아침이 되자 여러 신하들을 불러 모아 좋은 조짐의 꿈 이야기를 하고서는 즉시 사신을 보내 의상을 맞아 오게 했다.

왕은 의상과 함께 친히 금정산 금정암에 가서 칠일 밤낮을 일심으로 독경을 했다.

이에 땅이 크게 진동하면서 홀연히 제불, 천왕, 신중 그리고 문수동자 등이 각각 현신하여 모두 병기를 가지고서 동해에 임하여 왜적을 토벌하였다.

활을 쏘고 창을 휘두르며 혹은 칼을 비처럼 뿌리며, 모래와 돌이 비처럼 휘날렸다. 또한 바람을 주관하는 신은 부채로 흑풍을 일으키니 병화(兵火)가 하늘에 넘치고 파도가 땅을 흔들었다.

이에 왜선은 서로 공격하여 모든 병사가 빠져 죽으니 살아남은 자가 없었다. 왕이 매우 기뻐하여 드디어 의상을 봉해서 예공대사(銳公大師)로 삼으니, 이것이 곧 꿈의 영험이었다.

왕은 또 금샘 아래에 2층의 미륵전을 세우니 그 때가 678년(문무왕 18)으로 오늘날 범어사(梵魚寺)가 된 내력이다.

이처럼 범어사는 불력으로 나라를 지키려는 신앙적 기원(祈願)과 사찰의 무력적 기반을 적극 이용하고자 했던 국가의 의도가 관철되어 이루어진 호국사찰이다. 이 같은 범어사의 호국적 성격은 임진왜란(1592년) 당시에도 그대로 이어져 서산대사가 범어사를 사령부로 정하고 승병을 지휘하여 왜병과 치열한 격전을 벌였다. 그러나 이때 왜병의 철저한 파괴와 방화로 창건 당시의 범어사 원형을 찾아 볼 수 없게 된 것이 큰 아픔이다.

*주영택, 『부산의 전설 보따리』, 가마골향토역사연구원, 2013, 207~209쪽.

[금정구 설화 14]

영원조사와 명학동지

- 문구멍에 황소 보고 대오한 상좌

- 장소 : 부산시 금정구 청룡동

조선시대 중기 무렵, 범어사에는 명학동지(明學同知, 재산이 조금 많은 스님을 가리켜 동지라고 부름)라는 스님이 살았다.

어느 하루 명학동지가 꿈을 꾸었다. 청룡이 물속에서 나와 범어사 보제루(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펴서 중생을 제도한다는 뜻, 여기서 예불과 설법을 위한 불사가 행해지는 곳)의 기둥을 타고 올라가는 꿈이었다.

"그 참 이상한 꿈도 있구나."하고 생각하면서 보제루에 가보니, 웬 거지 아이가 거적때기를 덮고 기둥 밑에서 자고 있었다.

스님은 자는 아이를 한참 동안 들여다보다가 깨워서 절로 데리고 왔다. 그런데 누추하기가 이를 데 없던 거지 아이는 막상 씻겨 놓고 보니, 생긴 모습이 범상치 않았다. 그리하여 스님은 아이를 상좌로 삼았다.

하루는 스님이 아이에게 상추를 뜯어 오라고 시켰다. 얼마 후 그 아이는 한 손가락을 세우고 징징 울면서 들어왔다.

"왜 우느냐?" "손가락을 베었습니다." "손가락을 조금 베었다고 우느냐?" "제가 아파서 우는 것이 아니라 상추 몸통에서 하얀 피가 나오니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근기(根機)가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낀 명학동지는 아이의 법명을 영원(靈源)이라 지어주고 《초발심자경문》(남자가 출가하여 중이 된 후에 처음 배우는 책)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영원은 자경문(自警文, 스스로의 마음이나 행동을 경계하기 위한 글)의 마지막 게송(부처님의 공덕을 찬미한 노래)에 이르러 말했습니다.

"스님, '금생에 이 말대로 하지 않으면 후세에 반드시 크게 한탄하리라'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글대로 도를 닦으러 가야 할 것이 아닙니까?"

"안 된다. 가려거든 너를 키워 준 만큼 떼어놓고 가거라."

이처럼 명학동지가 못 가게 하자 영원스님은 몰래 도망을 쳐서 금강산으로 들어갔다. 영원스님은 열심히 수도생활을 한 끝에 마침내 도를 깨치게 되었다.

영원스님이 금강산으로 들어 간 지 3년 되던 해에 명학동지가 돌아가셨는데 이때부터 절 고방에는 큰 구렁이가 도사리고 앉았으니 절간 스님들은 불안하였다. 이 구렁이는 팥죽을 잘 먹었기에 절에서도 구렁이에 대한 대접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

금강산에서 명학동지의 죽음을 들은 상좌 영원스님은 범어사로 돌아왔다.

그는 여장을 풀기가 바쁘게 즉시 고방으로 가서 구렁이를 향해 정중히 절을 올렸다. 그리고 한참 동안 독경을 하다가 "스님 이 일이 웬 일이옵니까? 어서 허물을 벗고 극락왕생 하옵소서." 말하며 밖으로 나오니 구렁이도 순순히 꿈틀거리며 상좌를 따라 나왔다.

구렁이가 냇가에 이르렀을 때도 독경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구렁이는 스스로 머리를 돌바닥에 쳐 받고는 마침내 죽어 버렸다. 이때 구렁이의 몸에서 한 마리의 새가 나오더니 상좌의 품에 안겼다.

다음날 상좌는 새를 안고 다시 금강산으로 향하는 길에 올랐다. 어느 날 해가 저문 뒤 상좌는 인가를 찾다가 젊은 부부가 살고 있는 집에 머물게 되었다.

상좌는 새를 주인에게 맡기면서 "열달 후에 당신들 내외가 아들을 낳을 테니 잘 키워 주옵기 바랍니다. 이 아이는 불가에 인연이 있는 동자이오니 10년 후 내가 찾지요"라고 말하고 혼자 떠났다.

그 후 상좌는 다시 이 집을 찾아와 이 아이를 데리고 금강산으로 왔다. 방 안에 들어가게 한 뒤 문을 잠그고, 바늘로 구멍을 뚫어놓고는 말하였다.

"이 구멍을 오직 한 마음, 일심(一心)으로 들여다보아라. 그러면 황소가 나타날 것이다. 그런데 황소가 들어오는 것을 그냥 놓아두었다가는 뿔에 받쳐죽을 터이니, 뿔을 두 손으로 꽉 잡고 나를 부르거라." 그 날부터 그 아이는 내 영원스님이 시키는 대로 밥 먹을 때 외에는 그 구멍만 들여다보았다.

그런데 여러 날이 지나가자 스님이 말한 대로 황소 한 마리가 그 작은 구멍으로 들어오는 것이었다. 아이는 황소의 뿔을 꽉 붙잡고 소리를 질렀다. "스님!"

바로 그 순간, 그 아이는 대오(大悟, 번뇌가 없어지고 진리를 깨달음) 하였다.

'아하, 알고 보니 스님이 바로 내 상좌였구나.'

우리 속담 「바늘 구멍에 황소바람 들어온다」 고 하는 말은 바로 여기서 생겨난 것이다.

이렇게 스승을 제도한 영원조사는 다시 금강산으로 돌아가 수도생활을 계속 하다가 만년에는 지리산으로 옮겨 영원사(靈源寺, 부용, 청허, 청매 스님 등 선지식 스님이 주석)라고 하는 절을 짓고 살았다고 한다.

*주영택, 『부산의 전설 보따리』, 가마골향토역사연구원, 2013, 210~213쪽.

[금정구 설화 15]

범어사의 은행나무

- 묘전대사께 보살의 보시바라밀로 이식한 은행나무

- 장소 : 부산시 금정구 청룡동

범어사 조계문에서 오른쪽 길로 청련암으로 올라가는 어귀에 은행나무 한 그루가 하늘을 찌를 듯 대단한 위용을 뽐내면서 천년 고찰을 지키고 있다.

추정 나이는 500년이 넘고 높이는 38m, 가슴 높이 둘레가 9m이다. 밑둥치에는 몇 사람이 들어갈 만한 큰 구멍이 나 있다.

은행나무는 빙하기를 거치면서 살아남은 전세기 유물식물의 하나로 세계에 1과1속1종뿐인 일가친척이 없는 외로운 나무로 종자는 은(銀)처럼 희고 열매는 살구 모양 같다 해서 은행(銀杏)이라 하였다. 잎이 오리발 같이 생겼다고 해서 압각수(鴨脚樹), 열매가 손자 때나 열린다고 해 공손수(公孫樹) 등으로 쓴다.

은행나무는 생명력이 강하고 가을 나뭇잎(책갈피)이 아름답고 병충해가 거의 없어서 도심의 가로수로 적절하다. 목재는 결이 곱고 치밀하여 탄력성이 좋아서 바둑판, 현판, 가구재, 밥상, 소반, 다식판 등의 재료로 애용되고 있다.

은행알은 해수·천식 등을 치료하는 약재료로 쓴다. 잎은 심장병 치료약의 성분을 품고 있기도 하다. 흔히 하는 말로, 은행나무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인 것이다.

은행나무는 불교의 '보시'와 맥이 통하는 나무이다. 불가에서 말하는 깨달음의 세계에 이르는 여섯 가지의 길, 즉 6바라밀(보살이 열반에 이르기 위해 실천해야 할 여섯 가지 덕목 : 보시, 정진, 인욕, 지계, 선정, 지혜) 중에서 보시바라밀을 떠올리게 하는 나무가 바로 은행나무다.

범어사의 은행나무는, 묘전대사가 임진왜란 때 불타버린 범어사를 중창할 때, 어느 갑부 보살이 보시바라밀로 자기 집에 있는 은행나무를 보시하매 이식한 보시 나무이다.

이 은행나무는 잘 자랐으나 은행이 열지 않아 3백 년 전에 맞은편에 숫나무 한 그루를 심어줘 그 후부터 한해 약 30여 가마의 은행을 따내 오고 있다고 한다.

1990년에 모 스님께서 서식하고 있는 땅벌을 없애고 파내기 위해 연기를 피운다는 것이 그만

이 은행나무에 불이 붙어 크게 타버렸다고 한다. 나무의 밑둥치엔 불에 타 높이 5m, 직경 70cm의 구멍이 크게 뚫려 있다. 20여 성상이 흘렀지만 아직까지도 불에 탄 자국이 역력하다. 이 나무의 식물성과 역사성을 알고 10여 년 전부터는 잎과 열매가 차츰 줄어들고 있으니, 사랑과 보시의 수호목으로 길이 보존되도록 노력해야 하겠다.

옛날부터 은행 열매는 경사스러운 날에는 선물로, 제삿날에는 제수용으로, 또 귀한 구황식량으로 쓰이었다. 날것으로 먹으면 중독으로 죽고, 익혀서 먹으면 보약이 된다고 하였다.

세모난 은행 열매를 숫은행이라 했고 두모난 것을 암은행이라 했는데, 경칩날 여자에게는 숫은행을, 남자에게는 암은행을 선물로 보내 구애하는 프로포즈의 풍속도 생겼다.

은행나무는 범어사를 찾아온 많은 사람들이 치성을 들여 절을 하며 소원성취를 비는 수호목인데, 보시의 미덕으로 조건 없이, 보답을 바라지 않고 한없이 베풀기만 하는 나무다.

범어사 역사를 말없이 알려주고 있는 장수목으로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보호해야 할 것이다.

*주영택, 『부산의 전설 보따리』, 가마골향토역사연구원, 2013, 214~216쪽.

[금정구 설화 16]

원효스님과 미륵암의 쌀바위

- 독성각 아래 바위 구멍에서 쌀 대신 물이 펑펑…

- 장소 : 부산시 금정구 금성동

옛날 금정산 고당봉(801.5m) 남쪽 양지바른 미륵봉(712m) 아래 자리 잡은 미륵암(금정구 금성동 산 114번지)은 금샘의 기운을 받은 명당지다.

미륵암 염화전을 불사하기 전에는 그곳이 연못이었고 그 뒤 동굴에는 이무기가 살고 있었다. 동굴에 사는 이무기는 몸체에서 발광한 빛으로 그 주위를 밝게 하였다.

세월이 지나 자기 에너지를 충당한 어느 날 천둥, 번개, 비바람과 함께 세상을 밝게 비춘 불덩어리가 용으로 화신하여 하늘로 승천하여 버렸다.

이무기가 용으로 승천한 용굴이 있는 미륵봉 아래에 원효대사(617~686)가 통일신라 때 678년(문무왕 18)에 창건한 절이 미륵암이다. 이무기가 승천한 곳이라 미륵암을 미리암(미리는 우리말로 용을 뜻함)이라 불렸다고 한다. 염화전 오른쪽 산신각으로 오르는 왼쪽에 신비스러운 용굴이 아직 남아 있어 기도처로 촛불을 켜 두고 있다.

미륵암은 미륵봉 암봉을 병풍처럼 두르고 있어 산문이 없는 대신 노적가리 바위가 염화전 좌우쪽에 자리 잡고 있어 '양식 걱정이 없어 절대 굶어죽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전해오는 곳이다.

독성각으로 오르는 돌계단 중간 지점에 암봉에서 나오는 석간수 샘이 있다.

옛날 이 바위 구멍에서 쌀이 나왔다고 하는 살바위다. 아침에 일어나 이곳에 가보면 작은 바

위 구멍에서 한 톨 한 톨 쌀이 떨어져 하루에 한 사람이 먹을 양만큼의 쌀이 나왔다. 스님이 이 쌀로 끼니를 이어갔다고 한다. 그런데 사미승이 쌀이 나오는 양이 적다고 쌀이 많이 나오라고 막대기로 구멍을 쑤셨더니 그 뒤부터는 쌀이 아닌 물이 펑펑 나오게 되었다는 것이다.

쌀바위 전설은 전국적으로 40여개 소에서 전해 내려오고 있다. 이 이야기가 있는 곳은 오지인 아주 외진 곳이다.

미륵암도 금정산에서 오지인 곳이라 양식이 떨어질까 봐 절약하고 아끼자는 가르침이 담겨 있다.

원효대사의 가르침처럼 '모든 것에 거리낌이 없는 사람이 생사의 번뇌에서 벗어난다.'고 한 말씀을 되새기면서 과욕을 버려 마음을 비우고 한 톨의 쌀도 아끼자는 교화적 의미가 들어있다.

쌀바위에서 쌀 대신 물이 나왔다는 석간수의 수맥을 찾아 염화전 오른쪽에 우물을 만들어 지금도 미륵암을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쌀맛 나는 약수를 보시하고 있다.

동래부사 정현덕(재임:1867~1874)은 산사의 쌀맛 나는 약수를 7년간 매일같이 마시고 병이 나았다고 한다. 그 보답으로 노적가리 바위 한 가운데 「정현덕」 이름이 새겨져 있다.

미륵암의 절약정신을 이야기하면 그 하나로 짜기로 이름난 삼동(三冬)김치를 들 수 있다. 그것은 적은 규모의 김장으로 많은 선객들이 반찬이 되기 때문에 짜게 담가서 조금씩 먹게 하기 위한 방편이 전통화된 것이다. 그래서 「미륵암 김치 먹고 일 년을 맨밥 먹는다」는 절 속담이 생겨나기도 했다.

원효대사의 '자루 없는 도끼' 사랑 이야기를 소개하겠다.

원효대사가 하루는 서라벌 거리를 다니면서 외치기를 "누가 나에게 자루 없는 도끼를 주겠는가. 내가 하늘을 떠받칠 기둥을 찍어보련다."고 하였다. 태종무열왕을 제외하곤 이 노래의 깊은 의미를 아는 사람이 없었다. 대사가 아마도 귀한 부인을 얻어 총명한 아들을 낳고 싶어하는 것 같구나. 나라에 위대한 현인이 있으면 그 이익이 막대할 것이다. 딸에 대한 지극한 사랑은 동서고금, 시대를 초월해 변함없는 것. 태종무열왕은 어린 나이에 청상과부가 되어 가슴 아프게 바라보던 딸 요석공주와 원효를 짝지어주고 싶었다. 그래서 관리를 시켜 원효를 데려오라 명한다. 때는 이때다 싶었던 원효 역시 월정교를 건너다 짐짓 물에 빠져 옷을 말린다는 이유로 요석궁으로 인도되어 묵게 되었다.

요석공주와 불같은 사랑을 나눈 원효. 두 사람 사이에서 신라 10현이자 이두문자를 집대성한 설총이 태어났다. 이때부터 원효는 스스로를 소성거사(小性居士)라 일컫고 속인의 옷을 입고 민중 속으로 돌아다녔다.

그는 광대가 쓰고 노는 큰 바가지를 보고는 서민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방편이라 여겨, 탈바가지로 여러 가지 모양의 불교 포교를 위한 형상을 만들어, 화엄경 속에 있는 '일체 거릴낄 것 없는 사람은 한결같이 죽고 사는 관념에서 벗어난다.'라는 말을 따다가 '무애(無碍)'라고 이름짓고, 탈 쓰고 춤추며 노래 불렀는데, 그게 바로 염불이었으니 마을마다 골마다 부처님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한다.

정처 없이 돌아다니다 보니 원효는 일정한 장소에 오랫동안 머물지도 않았다. 성과 속을 뛰

어넘는 해탈의 경지를 보여준 것이다.

그가 태어난 곳은 부처의 땅인 불지(佛地)요, 그가 살던 집을 헐어 절로 만들었는데 이름은 처음 연다는 초개사(初開寺)요, 자칭 원효(元曉, 첫새벽)라 부른 것은 부처님 광명이 처음으로 번뜩인다는 것이다.

*주영택, 『부산의 전설 보따리』, 가마골향토역사연구원, 2013, 217~220쪽.

[금정구 설화 17]

범어사 미륵전의 목조미륵여래좌상

- 왜국을 등지고 앉게 모신 목조미륵여래불

- 장소 : 부산시 금정구 청룡동

미륵전은 미래의 부처님인 미륵이 그분의 불국토인 용화세계에서 중생을 교화하는 것을 상징화한 법당이다. 즉 미륵신앙의 근본 도량을 사찰 속에 응축시킨 것이 미륵전이요 먼 미래의 새로운 부처님 세계에서 함께 성불하자는 것을 다짐하는 참회와 발원의 장소인 것이다.

도솔천의 미륵보살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열반에 든 뒤 56억 7천만년이 지나면 이 사바세계에 출현하여 부처가 된다. 그 부처가 미륵불이다. 그때의 이 세계는 이상적인 불국토로 변하여 땅은 유리와 같이 평평하고 깨끗하다. 꽃과 향이 뒤덮여 있다고 한다. 또한 인간의 수명은 8만 4천세나 되며, 지혜와 위덕이 갖추어져 있고 안온한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미륵전은 창사 당시에 2층 건물로 범어사 주불전으로 가장 중요한 불전이었다.

미륵전에는 동서남북 네 미륵불이 봉안되어 있었다. 서남북쪽은 석조미륵불이고 동쪽만 목조미륵불이였다.

임진왜란 때 절이 불타고 석조미륵불은 없어졌고 목조미륵불만 10여년 풍상에도 땅속에 보존되어 있었던 것이다.

어느 날 묘전대사(임진왜란 후 주지 12년간 재임)께서 꿈을 꾸었다. 꿈이 하도 생생하여 일어나 앉았다.

미륵전에 계셨던 목조미륵불이 꿈에 나타나 대사님 미륵전 터 땅속에 있었는데, 왜놈들이 도굴하여 나를 업고 가다가 바다에 팽개쳐 버렸으니 운반하여 미륵전에 앉혀 달라는 것이었다.

대사는 정신을 차려 곧 바로 미륵불이 빠져있는 바닷가로 찾아가서 보니, 미륵불은 조개껍데기가 다닥다닥 붙은채 얼굴 반쪽만 보이고 물에 잠겨 있었다.

대사는 목조미륵불을 모셔와 동해를 내려다 볼 수 있는 곳에 바로 모셔야 한다는 것이 원칙을 가지고 있었다.

1613년(광해군 5)에 묘전대사가 지금의 자리에 미륵전을 중창하여 방왜(防倭)의 상징으로

왜국을 등지고 앉게 모신 목조미륵여래좌상이시다. 목조미륵여래좌상은 왜놈들을 보기가 싫어 일본을 등지고 돌아 앉아 서쪽으로 향하고 있다고 한다.

미륵전 우측에 서쪽으로 보고 있는 이 불상은 8각석조연화좌대 위에 앉아 아미타 수인을 취하고 있는 목조미륵여래좌상이다.

대좌는 마루에 아랫부분은 복련석 위에 배가 약간 불러 있는 중대석이 놓여 있고 앙련은 나무로 만들어졌음을 볼 수 있다.

이 불상은 허리를 약간 구부린 듯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 목이 짧으며 네모난 얼굴에는 콧등이 납작한 큰 코가 붙어 있고 굳게 다문 입가에는 엷은 미소가 번져 있다.

《미륵조상중수기》 에서는 1706년(숙종 32)에 명학스님이 미륵전과 그 불상을 중수하는 등 큰 공덕을 쌓았으며 그 재물을 모두 청안(淸眼)에게 맡겨 이런 큰 불사를 이룩하게 하였다고 전한다.

"아 산가(山家)의 요부(饒富)한 이로 누가 선사(善事)만 하겠으며, 부자이면서 보시하기를 즐기는 이로 누가 선사만 하겠는가." 라고 명학스님이 부자이면서 보시를 잘 하였다고 극찬하고 있다.

명학스님의 전해오는 이야기는 황구렁이 업보를 받을 만큼 탐욕스럽고 인색하지 않았다. 오히려 부자로 그 재물 보시로 범어사는 본격적인 중창이 가능했으리라는 역설이 성립된다.

*주영택, 『부산의 전설 보따리』, 가마골향토역사연구원, 2013, 225~227쪽.

[금정구 설화 18]

고모당의 고모제

- 고모당의 고모영신께 제사를 올리니 범어사 사세 확장

- 장소 : 부산시 금정구 청룡동

금빛 물고기가 범천에서 오색구름을 타고 내려와 놀았다는 금샘이 있는 금정산 고당봉(高幢峰)에는 평생을 불심으로 살다 간 범어사 화주보살 (밀양 박씨)의 이야기가 서려 있다.

고당봉 정상에는 마고(麻姑) 할미가 높은 곳에 앉은 당집이 있다. 한 평 정도 크기의 도리집은 지붕 높이의 돌담장이 둘러싸고, 빗장을 걸지 않는 문이 있는 고모당(姑母堂)이다.

지금부터 4백여 년 전 밀양 박씨가 결혼에 실패하고 불가에 귀의하였다. 임진왜란(1592년) 때 범어사가 잿더미가 되자 망연자실해 있는 스님들을 위해 박씨는 마을로 내려 가 동분서주하였다. 주민의 병을 낫게 하여 시주를 받은 쌀과 잡곡 등으로 스님들의 연명을 이어 가 사부대중 사이에 칭송이 대단하였다.

죽기 전에, 우람했던 범어사의 제 모습으로 중건하기 위해 전력을 기울였다. 몸을 아끼지 않

고 하루도 빠짐없이 시주를 받아 오고, 절의 살림을 도맡은 화주보살로서의 중책을 맡아 살림을 꾸려 나갔다.

가난하기만 한 범어사 살림을 도맡아 꾸려가던 화주보살은 어느덧 나이가 많아 삶을 종언할 날을 기다리고 있었다.

어느 날 보살은 주지 스님께 유언을 드렸다.

"내가 죽으면 화장을 하고 저 높은 고당봉 아래 고모영신(姑母靈神)을 모시는 당집을 지어 고모제(姑母祭)를 지내주면 높은 곳에서 범어사의 수호신으로 절을 돕고 지키겠습니다."하는 말을 남기고 돌아가셨다.

평생을 범어사 사세의 확장을 위해 몸 바쳐 살던 화주보살은 죽어서도 범어사를 수호하기를 소원하였다.

주지 스님은 화주보살의 고귀한 뜻을 받들어 고당봉에 고모당을 불사하고 1년에 2번(음력 1.15, 5.5)씩 고모제(姑母祭)를 지내게 하였다.

그 후 화주보살의 유언처럼 사세가 아주 번창해진 범어사는 화엄 비보사찰로 자리 잡았다.

지금도 박씨 할미의 높은 덕행을 기리기 위해 범어사 모든 스님이 참석하여 고모당에서 고모영신이 된 할머님께 범어사의 번창을 기원하는 고당제를 올린다.

범어사를 출발점으로 하여 두 패로 나뉘어 한 패는 비구니로 범어사 → 원효암 → 사기표석 → 북문 → 고모당으로 올라간다. 또 한패는 비구로 범어사 → 내원암 → 사기표석 → 고당봉을 지나 고모당에 도착한다. 이것은 범어사 경계선인 표석을 확인하고 지신을 밟고 산신에게 고하는 과정의 절차를 밟는다.

고모당 안에는 고모영신(박씨 할미) 산왕대신(산신령, 호랑이)의 위패를 모셨다.

고모영신은 그 품에 생산과 풍요를 안겨주는 그 영원한 어미로서의 여성 산신이다. 박씨 할미의 높은 덕행을 기리기 위해 인격신이 되어 금정산을 담당하는 진호신으로 모셨다.

고모제는 일년 중 가장 양기가 양성한 5월 단오날 오시(五時)에 올리는데, 제물앞에 백성의 한재(旱災), 수재, 병재 등 삼재를 없애는 산치(山茝)·신장(神將)·발인(發靷) 축문을 읽고 염불을 독송한다. 마치면 미륵사로 내려가 석간수를 마시고 북문을 지나 범어사로 내려간다.

고모당은 토속신앙에 따른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아 민중의 아픔을 치유해 주며 고통을 어루만져주는 신성한 성역의 공간이었다.

무속신앙의 무당들은 머리를 조아리며 밤낮 기도를 올린다. 공양으로 바친 각종 과일이며, 떡, 밥이 놓여 있고 가운데는 촛불과 향을 피우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수리수리 마하 수리 수수리 사바하 하늘에 계신 신령님 저는 ○○시 ○○동에 사는 ○○○이고 고당봉 산신님께 드립니다. 금정산 고모영신님 산왕대신님……' 하며 소원을 빌면 자식을 얻게 되고 병도 낫게 된단다.

'병원에서 못 고치는 마음의 병도 이 고모당에 와서 빌면 씻은 듯이 낫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하는 일이 잘 풀린다.'고 찾아온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한다.

고모제 선신 봉행 때 《범어사서기궤유전》(1902년)의 제문으로 고모제를 엄숙하게 거행하며, 지금도 범어사에서는 고모당에 매일 관리자를 파견하여 철저히 관리 보존하고 있다.

*주영택, 『부산의 전설 보따리』, 가마골향토역사연구원, 2013, 228~230쪽.

[금정구 설화 19]

원효대사와 마애미륵존여래좌상

- 원효대사 점지한 명당에 용화세계 미륵불 조성

- 장소 : 부산시 금정구 청룡동

우리 조상들은 불교가 들어오기 이전부터 자연을 숭배해 왔다. 그 때문에 우리의 종합예술은 자연과의 조화에 그 생명의 뿌리를 두고 있다. 자연을 섬기는 우리 토속신앙이 불교와 하나로 어우러져 나라를 지키려는 정열과 꿈으로 묶어져, 신비로운 금정산 계곡마다의 바위면에 마애불을 유적으로 남긴 것이 60여 체나 된다.

진리를 깨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바위 속에 머물러 계시는 미륵존여래불을 조성하게 되었고 6바라밀(지혜, 보시, 인욕, 지계, 정진, 선정)중 지혜바라밀을 수행하는 용화세계 실현의 미륵도량인 도솔 만다라를 답사로 친견할 수 있는 기쁨은 필자로서는 잊지 못할 추억이 되어 있다.

범어사에서 순환도로로 내려오면 상마 마을 입구 표석을 만난다. 여기서 길 따라 들어가면 사자암을 지나 만성암 앞에서 오른쪽 오솔길로 10여분을 올라가면, 오른쪽에 「마애미륵여래좌상」이 큰 바위 남쪽면에 근엄하게 앉아 계신다.

원효대사는 금정산에서 수행 정진하시면서 《미륵상생경종요》를 쓰시며 사랑하는 중생에게 미타신앙과 미륵의식을 고취시킬 용화세계를 실현할 명당자리를 찾으라고 수제자에게 말하셨다 한다.

이곳은 중생의 고통을 어루만져주는 미륵불의 용화세계를 염원한 기도도량이다.

수제자는 이 말씀을 듣자 마자 금정산을 헤매면서 명당지를 찾으려고 노력 하였으나, 어딘지 알 수가 없었다.

그러던 차에 원효봉 능선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니 빛이 번쩍하여 눈을 크게 떠 본 것이 큰 바위가 구름위에 떠 있는 곳이 있었다. 수제자는 '저기다'하고 허겁지겁 뛰어가서 스승에게 말씀드렸다.

여기 지형은 큰 바위가 떠받쳐 있는 자하문을 지나면 남쪽으로 또 큰 바위가 있다. 그 옆에 모든 소원을 이루어 줄 수 있는 여의주(如意珠)를 머금고 있는 청룡같이 생긴 바위가 번뇌와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공덕과 신통력을 가진 것으로 보였다.

수제자는 단번에 스승 원효대사의 뜻을 받들어 마애미륵존여래좌상을 음각으로 조성하고 그 옆 바위에 여래불을 모시는 내력을 기록하였다.

1300여년이 지난 오늘날, 비바람에 씻기어 마멸되어 흔적만 남아 있는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다.

마애미륵존여래좌상은 남향으로 앞에 용호봉(의상봉)을 보고 우뚝솟아 있는 엄지바위를 향하고 있었다. 원효암 뒤 「원효석대」에서 500m 떨어진 곳, 오른쪽에는 「의상대」가 있고 병풍처럼 휘어 감고 있어 미륵정토를 실현할 수 있는 미륵불과 중생들의 연연 명당지를 이루었다.

지금 석우스님이 조성한 마애미륵존여래좌상은 정남으로 향하고 있으며, 길이 6m, 높이 4m 50cm인 잘생긴 화강암 바위에 1924년 11월에 높이 3m 30cm, 너비 2m 20cm인 장엄한 마애미륵존여래좌상을 조성하였다.

미륵존여래좌상 오른쪽 하단에는 「당래교주미륵존불(當來敎主彌勒尊佛) 佛化 2951년 甲子 11월 조성 石牛」라고 음각되어 있다.

미륵존여래좌상의 상용(像容)은 아무런 장식이 없는 반월형의 두광(頭光)과 신광(身光)은 있고 광배(光背, 부처의 초인성(超人性)을 형용하여 불신(佛身)의 배면(背面)에 광명을 표현한 원광, 圓光)의 끝부분이 둥글어 전체 모양이 마치 배와 같은 주형(舟形)이다.

육계(肉髻, 부처의 정수리에 상투처럼 돌기한 살의 혹)는 작아지고 나발(螺髮, 소라 모양으로 된 부처의 머리털)은 많다. 눈은 실눈이고 삼도(三道)는 없고 자애롭고 편안한 얼굴을 하고 있다. 법의는 양쪽 어깨에서 양 팔에 걸치는 통견(通肩)양식이고 가슴과 배를 내고 있다.

수인은 오른손 바닥을 밑으로 하고 왼손은 배꼽에서 손바닥을 위로 달걀 하나의 간격을 두고 맞대고 있는 모양이다.

대좌 위에 상대는 앙련(仰蓮) 무늬가 있고 다리는 결과부좌한 위쪽의 다리를 넓적다리 밑으로 넣고 오른쪽 또는 왼쪽의 한 발만을 다리 위에 얹은 반가부좌 자세이다.

미륵존불을 조성한 스님의 당호(堂號)가 석우(石牛)이고 법명은 영규(永奎)이며 존위는 대선사(大禪師)이시며, 존영은 범어사에 모셔져 있다.

또한 그는 범어사 주지시대의 1대 주지이신 성월선사의 종손이다.

미륵존여래좌상을 조성할 당시 범어사는 선찰대본산(禪刹大本山)으로 선사상의 진작을 통해서 사상적 신앙적으로 피폐된 불교계의 현실을 바로 잡고자 한 때였다.

또한 일제강점기의 압박으로 인하여 불교가 사회적 의미를 잃고 있었을 때, 불교에 대한 귀의 감정이 세속화 내지 형식화되어 마애미륵존여래좌상의 조성은 불심을 따르려는 자력적 의미도 있었다.

원효대사님께서 점지한 명당자리에는 청룡이 여의주를 머금고 있는 청룡머리바위가 동쪽에 있어, 범어사를 지나 청룡초등학교까지 감싸 청룡동이라 이름지어졌다고 한다.

이 동네 사는 사람들은 청룡머리바위 때문에 이 지역은 절대로 굶어죽지 않을 곳이라며 청룡머리바위가 안식처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

*주영택, 『부산의 전설 보따리』, 가마골향토역사연구원, 2013, 233~235쪽.

[금정구 설화 20]

늑대에게 물려 변을 당한 숫구뎅이 딸

옛날에 와 여름 되면 동네 여자들이 모여가 밤에 저게 마을 거랑에 목욕하러 간다. 가면은 재밌다. 목욕 가자하면 집집마다 나온다. 우- 몰리가 거랑에 가서, 그 가면 목욕하는 자리 있다. 바위 우에 옷 벗어 놓고 목욕하면 장난친다고 옷도 감추고 놀리고 그라고 놀고 했는데. 요 마을에 숯구데기 딸이 있었는데. 저거 아버지가 숯 굽는다고 마 숯구데기 딸이라 불렀는데 이름은 모르것다. 동네사람들이 숯구데기 딸, 숯구데기 딸 이라고 불렀지 뭐. 옛날에 그라데 숯꾸데기 딸이 밤에 거랑에 목욕갔다가 늑대한테 물리가 얼마 못살고 죽었다더라. 지는 마 개한테 물린 줄 알고 이래 있었는데 마 그 길로 시름시름 앓다가 못 고치고 죽었다 캐. 늑대한테 물린 기라. 그래가 얼메 못살고 마 죽었다. 늑대한테 물리면 얼마 못사는 갚대.

<박기순(여), 81세, 중리마을>

*황경숙·문재원, 『오래된 마을 미래공동체 –산성마을 사람들』, 부산발전연구원 부산학연구센터, 2014, 64~65쪽.

[금정구 설화 21]

동문 옹달샘

동문 할머니가 살고 있고 밑에 샘이가 있었는데 옹달샘. 그 물로 장군들이 자시고 말과 사람들도 다 샘이 물을 먹었습니다. 그기 물이 약숩니다. 옛날에 산성의 장군들이 물이 좋아 그 샘물을 먹었답니다. 여름 되면 아주 찹고 겨울 되면 김이 날 정도로 뜨시고. 우리 아버님 병사를 낫게 할라고 물 좋고 공기 좋고 해서 병을 낫게 하기 위해 산성 마을로 왔습니다. 옹달샘이 약수라는 말을 듣고 내 욕심에 우리 아버지 병사로 그 옆에 집을 지어 물을 자시게 하면 안 낫겠나 싶어서 올라가서 살았는데 그 물 때문인지 우리 아버님 병이 나아지기도 했습니다. 이전에 누룩 이고 내려 갈 때나 누룩 팔고 올라올 때 동문에 짐을 내라 놓고 그물을 마시고 내려가고 했는데, 지금은 그 옹달샘 자리에 놀이터가 들어서면서 그 샘은 메왔습니다. 샘이 있던 자리를 나는 알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옹달샘 위치를 잘 모릅니다.

<차병옥(남), 86세, 중리마을>

*황경숙·문재원, 『오래된 마을 미래공동체 –산성마을 사람들』, 부산발전연구원 부산학연구센터, 2014, 92쪽.

[금정구 설화 22]

갈가지를 타고 다닌 고을 원님

고을원이라는 사람이, 억수로 힘이 좋다. 그 사람이 밤중에 올라와 한바퀴 돌면 갈가지 안있나? 갈가지. 그 놈들이 놀라 달아난단다. 한번은 한 사람이 밤이 뭣이 얼렁거려 나가보이 고을원님이라는 사람이 옛날에 별장이지. 그 사람이 앞에 얼렁거리면서 짐승을 잡아 욕을 비우고 있더란다. 그라고 아침에 새벽에 거름 쥐고 논에 간다고 올라가니까네, 저 위에서 고을원님이 마 갈가지를 잡고 타고 내려오더란다. 옆에 와서 보니까네 우째 밤새도록 몰고 다녔는가 고을원님이 호랑이 귀를 잡고 요래 요래 땡기면서 타고 노더란다. 갈가지는 밤새도록 욕봤제. 사람 한테로 몰고 내려오는 기라 고월 원님이. 그래서 "고을원님, 갈가지를 타고 내려옵니까?" 하이, 원님이 놀래 가지고 돌아보면서 "어"하더래. 그라고 갈가지한테서 내려오는데 보니까네 갈가지 귀가 이래 떨어졌더란다. 얼마나 갈가지를 타고 동네를 다녔는지. 옛날 동네 어르신들이 그런 이야기도 해주데.

<전성조(남), 82세, 중리마을>

*황경숙·문재원, 『오래된 마을 미래공동체 –산성마을 사람들』, 부산발전연구원 부산학연구센터, 2014, 95~96쪽.

[금정구 설화 23]

기우제를 지낸 파리봉

옛날에 기우제는 파리봉에서 많이 지냈지요. 비 안 오면 온 주민이 파리봉 꼭대기에 올라가 꽹과리 치고 물 퍼붓고 이랬어요. 여자들도 남자들도 다 올라가고. 음식 차려놓고 절도 하고. 이고 지고 올라가서 제를 지냈다 아인교. 물 뿌리고 우짜든지 비 오게 해달라고 빌고 했어요. 그라만 우짜다가 비가 오기도 하고 그랬어요.

묘 저거, 누가 파리봉에 묘를 쓰면 우리 마을에서 계속 파냈는데 지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묘가 거기 있으면 마을에 풍파가 있어서 안됩니다. 마을 주민들이 파냅니디. 나도 파내봤는데 올라가 보면은 저기는 뼈만 갖다가 묻는 기라요. 그래서 인자 가서 파보고, 있으면 마북구 쪽으로 던져 버립니다. 옛날에는 수시로 마을사람들이 올라가서 파보고 있으면 파냈습니다. 요새는 시대 따라 별 관심을 안가지고 해서 안 올라갑니다. 옛날에는 수시로 올라가 있는가 확인하고, 있으면 어른들한테 이야기하면 나이 많은 분들이 의논해서 그때는 나이 많은 분들이 지금 마을 운영위원회나 마찬가지라. 그래 노인들이 의논해서 파내기로 결정 보면 우리 같이 젊은 사람들한테 "어 이 사람들아 젊은 너그가 파내버리고 온나."하면 우리가 올라가서 파내고 그랬습니다.

<김영국(남), 62세, 공해마을>

*황경숙·문재원, 『오래된 마을 미래공동체 –산성마을 사람들』, 부산발전연구원 부산학연구센터, 2014, 101~102쪽.

[금정구 설화 24]

묘를 파낸 파리봉

파리봉에 묘를 쓰면 마을에 안 좋다 해서 묘를 팠습니다. 나도 알고 있습니다. 가보지는 안해도 우리보다 나이가 조금 많은 청년들이 그걸 파버렸어요. 우리 토속정신으로 묘자리가 좋으면 자손들이 좋다해서 뼈만 가지고 와서 살짝 묻는 수가 있습니다. 그라면 동네가 안좋다 해서 우리가 그걸 파내버렸습니다. 뒤에는 얼음골 근처에 그 일대가 기도원의 집성지가 되버렸는데, 그 사람들이 그기다 십자를 묻어 났어요 그것도 파 내버렸어요. 저거는 그기를 성지를 만들려고 해서 그랬는데 동네에서는 그것이 싫다 해서 파버리고 못하게 했습니다.

<최성우(남), 63세, 공해마을>

*황경숙·문재원, 『오래된 마을 미래공동체 –산성마을 사람들』, 부산발전연구원 부산학연구센터, 2014, 102쪽.

[금정구 설화 25]

기우제를 지낸 무제바위

가물면 무제 지내는 데가 있지. 지금 동문에서 성을 따라 한 300미터 올라가면 무제바우라고 있십니다. 그기는 돌이 높으게 서서 동래 쪽을 향하는데 그기서는 부산이 환하게 다 보입니다. 무제 지낼 때에는 소나무 가지를 가지고 가야 연기가 많이 나거든. 금성동 세 동네가 함께 밤에 올라가 그기서 큰 불을 놓는 기라 무제라고 지냅니다. 세 마을 공동으로 지내는데 그때는 가물면 자주 그렇게 했지.

<김두천(남), 92세, 공해마을>

*황경숙·문재원, 『오래된 마을 미래공동체 –산성마을 사람들』, 부산발전연구원 부산학연구센터, 2014, 105쪽.

[금정구 설화 26]

기우제를 지낸 무제바위

무제는, 가물면 무제바위라 있어요. 손가락이 이래 있는 것처럼 솟은 바위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 그걸 대포바위라 했어 생긴 게 꼭 대포처럼 생겼다고. 무제바위에서 제를 지낼 때는 우짜는고 하면 마을마다 마을 구장들이 그게 반장들을 데리고 열 명 스무 명 제관이 있고. 축문 읽고 그서 집례하는 사람은 절하라하고 그래 되면 인원이 열 대여섯은 된다. 낮에 12시나 되어서 제를 지냈다.

<이춘지(남), 86세, 죽전마을>

*황경숙·문재원, 『오래된 마을 미래공동체 –산성마을 사람들』, 부산발전연구원 부산학연구센터, 2014, 106쪽.

[금정구 설화 27]

도깨비불

옛날에 6,70년 전에는 전체가 캄캄했다. 비가오고 불이 지나가면 도깨비라고 본다. 그여 근방에 성이 안 있는고 비가 오고하면 이런 불이가 크기가 굉장하다 나타나가 그 길 건너에 와서 동네에 내려와서는 조그만 해지고 동네 도랑을 건널 때에는 옛날에는 돌을 놔두고 건너는데 동네 옆에 올 때는 살 꺼졌다가 돌을 건널 때에는 조금만하게 해서 건너가 동네에 들어오는 기라. 그때는 도깨비가하면 겁이 나서 근방에도 안 간다. 우리 동네가 밤만 되면 캄캄한데 그런 걸 본 예가 있다.

<김두천(남), 92세, 공해마을>

*황경숙·문재원, 『오래된 마을 미래공동체 –산성마을 사람들』, 부산발전연구원 부산학연구센터, 2014, 123쪽.

[금정구 설화 28]

도깨비에 해코지를 당한 사람

옛날 우리 어릴 때 어른들이 동문으로 온천장으로 내려가 누룩도 팔고 나무도 팔고 그랬다아이요. 그라면 식구들이 횃불을 들고 동문꺼정 마중을 나갑니다. 근처에 공묘묘지가 있으니께네 도깨비가 자주 나타나서 겁이 나서러. 그래서 식구들이 불을 키가 마중을 나가는데 그때는 말로 하면 안되요. 여기서 "어-"하고 소리치면 그기 지 식구 소린갑다 알아듣고 "야-"하고 소리

만 치서 서로 만나는 기라 말로 하자면. 만약에 사람말로 하면 도채비가 나타나 헤꾸지한다고 그래 안 하는데, 한번은 어떤 사람이 마 사람말로 해서 도채비가 나타나 그 사람을 던졌는데 그 사람이 서문에 떨어졌다 하대요. 서문에 떨어진 사람이 일랄라하자 마 고대로 도깨비가 가시동문으로 던지가 그 사람이 큰 변을 당했더랍니다.

<정성조(남), 82세, 중리마을>

*황경숙·문재원, 『오래된 마을 미래공동체 –산성마을 사람들』, 부산발전연구원 부산학연구센터, 2014, 123~124쪽.

[금정구 설화 29]

도깨비와 씨름한 사람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장사라. 힘이 아주 센 장사. 집에 아버지는 큰 나무 도구통을 산에서 만들어 짊어지고 올 정도의 어른인데, 살았던 이야기를 해준다. 동문에 저게 가면 이 밑에 꺼정 가면, 그전에는 나무를 해서 장에 가 팔아 밤중에 집으로 온다. 고별대 우에 올라가면 묘가 하나있는데 그게만 올라오면 도채비가 나타난다 하더라. 언제든지 그 앉아가지고 지나가는 사람 잡아가지고 씨름한번 하자하고 한다대. 집에 아버지가 한번은 나무 팔고 밤늦게 고별대로 올라오는데 어떤 사람이 앞을 가로막고 자꾸 씨름하자 해서 할 수 없어 씨름을 했다대. 옛날에 베로 만든 허리띠 서너발석 되는 거 이놈을 풀어가 다리에 묶고 씨름을 했는데 이겼어. 못 일어나더라 해. 그래가 허리띠로 풀어가 이놈을 짜맸다 해. 그라고 집에 올라왔는데 집에 와서 생각해 보이 걱정이 되더라 해. 그 허리띠로 전대로 쓴다고 이름을 허리띠 가세에 써 놨는데, 이놈이 죽으면 경찰들이 와서 보고 사람 죽였다 할 것 같아서 잠도 안 오더라해. 그래 새벽에 걱정이 돼서 내려가 보이 사람은 없고 비석이 묶이가 있더란다. 밤에 씨름한 게 마 비석을 잡아 넘가가 짱짱 감아 놨던 기라.

<정성조(남), 82세, 중리마을>

*황경숙·문재원, 『오래된 마을 미래공동체 –산성마을 사람들』, 부산발전연구원 부산학연구센터, 2014, 124쪽.

[금정구 설화 30]

도깨비와 씨름한 사람

허채비불은 반사가 안 됩니다. 허채비가 어찌되냐 하면, 허채비가 가시밭길에 여기 천기또이에 우물, 샘이 하나 있었는데, 옛날에 말이 있더라요. 우리 할아버지가 술로 자시고 그 길로

건너 올라하니까네. 커다란 사람이 하나 나와가지고 달라들더랍니다. 그래가 우리 할아버지가 술로 먹어 났으니까네 겁도 안나고 그래가 마 그 사람캉 한참을 씨랐답니다. 그라고나이 그 사람이 마 뻗어뿠어. 집에 와가 할머니한테 그 이야기를 했답니다. 할머니가 영감 말을 듣고 간밤에 영감이 무신 사고 쳤는가 싶어가 아침에 일찍 샘이에 가보니 빗자루 몽디가 그 있더랍니다 사람은 없고. 할아버지가 밤새 빗자루 몽디하고 싸웠는 기라. 허채비하고 싸운 기지. 여자들은 빗자루를 깔고 안으면 안된다 안 하는교? 여자가 빗자루 몽뎅이 깔고 앉으면 그기 허채비가 된다고. 허채비는 술 취한 사람에게만 달라드는 기라. 옛날에 말이 있습니다. 허채비가 달라들면 왼 쪽으로 자빠쳐야 허채비가 넘어지지 오른쪽으로 자빠치면 안 넘어간 답니다. 허채비를 만나면 마 왼쪽으로 잡아가 자빠치면 허채비한테 안 당하는 기라. 오른쪽으로 자빠치면 당하고. 그런 말이 있어요.

<전봉조(남), 80세, 죽전마을>

*황경숙·문재원, 『오래된 마을 미래공동체 –산성마을 사람들』, 부산발전연구원 부산학연구센터, 2014, 125쪽.

2) 동래구 설화

[동래구 설화 1]

東萊溫泉

지금으로부터 1천 수백년 전, 신라(新羅) 때, 경상남도(慶尙南道) 동래(東萊) 고을에 한 노파가 있어, 그는 다리를 쓰지 못하는 절름바리였다.

어느 날, 그 노파의 집 근처 논에 학 한 마리가 날러와 절룩하면서 그 근처를 돌다가 움직이지 않고 그 곳에 있더니, 사흘째 되는 날 학은 절지 않고 그 근처를 돌다가는 기쁜 듯이 원기 있게 날아가 버렸다.

이것을 본 그 노파는 이상하게 생각하고서 학이 있던 곳으로 가 보니까 뜨끈뜨끈한 샘이 있었다. 그리하여 시험 삼아 그 절으는 다리를 샘물에 잠그고 있어 보니까, 신기하게도 효험이 있어, 수일 후에는 그 절던 다리가 부자유함이 없이 나와 버렸다고 한다.

이것을 본 마을 사람들은 모두 놀랐었다. 이리 하여 그 샘을 온천(溫泉)이라 하였다는데, 이것이 "동래 온천(東萊 溫泉)"의 내력이라고 한다.

檀紀 4262年 11月 慶南 東萊郡 東萊面 나의 先親 談

[附 記]

1. 충청남도(忠淸南道) 아산군(牙山郡) "온양온천(溫陽溫泉)"-檀紀 4262年 2月 牙山郡 溫陽面 溫泉里 金錢可 老人 談- 과
2. 황해도(黃海道) 옹진군(甕津郡) "용천 약수(龍泉藥水)"-檀紀 4270年 8月 甕津郡 龍泉面 朴龍珠氏 談-에 대한 전설도 꼭 이와 같다.

*최상수, 『한국민간전설집』, 통문관, 1958, 185~186쪽.

[동래구 설화 2]

東萊 關羽廟

경상남도(慶尙南道) 동래(東萊)면 교동(校洞)에 운장(雲長) 관우(關羽)를 모신 관우묘(關羽廟)가 있으니, 이 고을에서는 그곳을 모두 영당(影堂)이라 부른다.

이조(李朝) 때, 이 묘를 지었을 때의 일이었다. 여러 인부들이 기왓장을 지게에다 제각기 지고 사닥다리를 밟고 그 묘 지붕으로 올라가 내려 놓고 하는데, 그 중에 여(呂)가 성을 가진 사람이 그 지붕 위에 막 발을 들여 놓으려고 하자, 갑자기 눈이 캄캄해지고 정신을 잃어 그만 떨어져 죽고 말았다고 한다.

—이것은 옛날, 중국 삼국 시대의 촉(蜀)나라 장주 관우(關羽)가 여몽(呂蒙)에게 죽었으므로 관우는 그 원한으로 "여"라고 하는 성을 가진 사람을, 자기의 영이 있는 근처에 오기만 하면 죽

이는 것으로서 죽은 그 인부도 그래서 죽인 것이라고 한다.—

그 뒤에도 이것을 모르고 여가 성을 가진 사람이 이 묘 안으로 들어오다가 갑자기 눈에서 피를 흘리며 기절하였다고 하며 이래서 지금은 여가 성을 가진 사람은 이 묘 안에는 들어가지 않는다고 한다.

檀紀 4258年 6月 東萊郡 東萊面 校洞 나의 恩師 故 徐先生 談

*최상수, 『한국민간전설집』, 통문관, 1958, 192~193쪽.

[동래구 설화 3]

바늘에 찔린 구렁이

옛날, 경상남도(慶尙南道) 동래(東萊) 고을에 큰 부자 하나가 있었는데, 그 집에는 외딸 하나가 있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이 딸의 자는 방에 어디로 해서 오는지 곱게 생긴 한 소년이 소리도 없이 방으로 들어와서는 새벽 닭이 울기 전에 없어지고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더욱 이상한 것은 그 소년의 몸은 늘 차디 찼었다.

하루는 밤중에 그의 아버지가 뒷간에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딸의 자는 방을 둘러 보니, 그 영창에 왼 이상한 남자의 그림자가 비치어 있음을 보고 그 이튿날 딸을 사랑에 불러들이어 엄하게 문초하니, 그 처녀는 지나 온 이야기를 순순히 말하였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는 이상하게 생각한 나머지, 한 뭉치의 명주실 끝에 큰 돗바늘을 꿰어 그 딸에게 주면서 "오늘 밤에도 그 남자가 올 것이니, 그 남자의 소매에 이것을 찔러두어라" 하고 가르쳐 주었다.

그날 밤 그 소년은 전날과 다름없이 그 처녀의 방으로 들어 왔으므로, 그 처녀는 아버지가 말한 대로 그 남자의 소매에 바늘을 찔으자 그 남자는 대경실색을 하며 달아나 버렸다.

그 이튿날 아침, 그 처녀의 아버지가 실을 따라 가 보니까, 뒷동산 숲 속 큰 굴 속에 커다란 흰 구렁이 한 마리가 바늘에 찔리어 죽어 있었다. 그래서 그는 하인을 시켜 그 구렁이를 불에 태워 없애버렸는데, 그 뒤로는 그 처녀의 자는 방에 오는 일이 없었다고 한다.

檀紀 4262年 10月 慶南 東萊郡 東萊面 校洞 金永祚君 談

*최상수, 『한국민간전설집』, 통문관, 1958, 200~201쪽.

[동래구 설화 4]

朴勸農의 아들

壬辰亂이 일어나기 직전 朴권농이란 사람이 東萊에 살았다.

그는 아무 집을 가리지 아니하고 일을 거들어 주고 살아가는 하루살이의 비천한 몸이었다.

내일을 위한 꿈이라곤 손톱만치도 없는 권농에겐 술만이 藥이 될 수 있는 벗이었다.

어느 날 만취한 그는 집으로 돌아가는 도중 美南洞(溫泉二동) 앞을 지나 지금의 西川橋에 다다랐을 땐 술에 이기지 못할 정도로 의식이 없었다.

그는 드디어 강변의 모래밭에 쓰러져 깊은 잠이 들었다. 얼마 뒤 권농은 깊은 잠속에서 자기를 흔들어 깨우는 사람이 있어 눈을 떠보니 검정 옷을 입은 사나이가 자기의 옷을 벗기고 있는 것이었다. 도둑은 남루한 권농의 바지저고리까지 모두 벗겨갈 작정이었다.

이때 역마차를 타고 이곳을 순찰하던 순라군이 이 광경을 보고,

「그 곳에 있는 자는 누구냐? 박권농이 아니냐? 이 밤중에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소리쳤다.

「이 분은 우리 마을에 사는 사람이옵니다. 소인이 술에 취했기에 저를 집까지 업고가려고 하는 것입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순라군은,

「응, 그래 조심해서 가거라.」라고 말하고 지나갔다.

이때 도둑은 感激한 어조로,

「감사하오. 당신이 만약에 나를 도둑이라고 말했으면 내손에 맞아 죽었을 것이오.」라고 말하면서 쥐고 있던 돌을 던졌다.

그리곤,

「제 등에 업히시오. 제가 집까지 모셔드리죠.」하며 권농을 업었다. 집에 도착한 권농은 도둑을 방으로 안내하고 식사라도 같이 할 것을 권했으나 그는 응하지 아니하였다. 권농은,

「내 슬하엔 어린것이 하나뿐이니 내 아들이 되어줄 수 없을까?」하고 묻자 도둑은 무엇인가를 생각하다가

「아버지로 모시겠사옵니다.」라고 말하고 사라졌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밤늦게 권농을 찾아온 양아들은

「아버지 그간 별고 없으셨습니까? 제가 돈 二百兩을 龜浦 만덕고개에 묻어 두었으니 오늘 밤중으로 집에 옮겨 가용에 쓰십시오.」라고 말했다.

권농은 처음에 사양했으나 간곡한 양아들의 말에 못 이겨 돈을 가져온 후부터 생계가 유복하게 되었다고 한다.

임진란이 일어나자 권농의 외아들은 俗離山으로 피난 갔다가 전쟁 후 東萊로 돌아왔다.

이때 동래 名門의 書洞 金氏댁에는 출생 시부터 얼굴에 보자기를 쓴 듯 껍질로 덮여 입만 내어 놓고 숨을 쉬던 괴물 같은 딸 하나가 있었다.

사람의 형용을 갖추지 못한 딸 때문에 그 부모들의 근심은 말할 수 없었다. 그런데 이 혼기를 노친 老處女에게 박권농의 아들이 청혼을 했으니 그녀는 물론 부모님네들도 반가운 마음으로 허혼을 했다. 결혼식 날 신랑은 대(竹)를 칼 모양으로 銳利하게 장만해서 그것으로 신부의 전신을 덮고 있던 껍질을 베끼니 놀랍게도 천하절색의 미인이 탄생했다고 한다.

그 후 이 부부사이의 금슬도 좋았거니와 書洞 金氏의 세력으로 朴氏의 後孫들은 모두 잘 살았다고 한다.

*박원표, 『향토부산』, 태화출판사, 1967, 155~158쪽.

[동래구 설화 5]

前生母子

지금 동래구 西門通 옛날 관문대로 이르는 좁은 골목길에 들어서면 둘째집 뜰에 동래부사 柳心의 비가 서 있다. 길가에서도 잘 볼 수 있는 이 비의 주인공 유심이 前生 모친을 만난 이야기를 여기에 소개해 두겠다.

옛날 이집에 일찍 남편을 여의고 아들 하나에 마음을 의지하며 살던 과수가 살았다. 이 아들은 인물도 잘생겼을 뿐 아니라 네 살짜리라곤 믿을 수 없을 만큼 여간 영리하지 않았다.

당시 동래에는 부사가 바뀌고 새 부사가 부임할 때엔 그 도임하는 행사가 여간 성대하지 아니하였다.

새로 부임하는 부사가 八仙女를 청하면 동래의 명기를 뽑아 팔선녀의 행렬을 하고 대군복을 차려라고 하면 군졸에게 갑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내세우기도 했다.

이렇게 성대한 행사가 있을 때에는 성내 주민들은 물론 이웃 사람들까지 모두 집을 비우고 한길에 나와 구경했으니 이 과수도 어린 아들을 업고 길옆에 섰다.

장관을 이룬 부사 행렬을 눈 담아 보고 있던 아들이 갑자기

「엄마. 나도 어른이 되면 저렇게 할 수 있나요?」 라고 물었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우울한 표정을 지었다.

「엄마 왜 말이 없어. 난 커서 어른이 되면 저렇게 할 테야.」 라고 엄마 등을 동동 치고 있었다.

「얘야 너는 어른이 되어도 저렇게 할 수 없단다. 우리들은 상놈이라서 저런 벼슬은 꿈에도 못할 거야.」 라고 말했다.

이 말을 들은 아들은 그날부터 밥을 먹지 않고 말도 잘 하질 않더니 며칠 뒤 이름 모를 병으로 죽게 되었다. 과수의 슬픔은 말할 나위 없었다.

그녀는 밤과 낮을 이어 울음으로 세월을 보내고 있던 차에 어느 날 꿈속에서 죽은 아들을 만났다.

「어머니 울지 마셔요. 저는 서울에서 재상을 지내는 유씨 가문에 태어나서 잘 살고 있습니

다. 어머님 저는 이젠 상놈이란 소릴 듣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벼슬도 할 수 있게 됐어요. 어머님 걱정 마셔요.」라고 똑똑히 말하고 사라졌다.

그 후 세월은 가고 세상도 바뀌어져 과수의 눈물도 말랐다. 숨 가쁜 하루살이에 피로한 그녀는 모든 것을 잊을 수 있었으나 아들에 대한 푸념은 잊을 수 없었기에 아들이 죽은 날에는 제상을 차려놓고 울기도 했다. 그런데 유심은 매년 생일날이면 꼭 꿈속에서 동래에 가서 제사음식을 먹고 돌아오곤 했다. 달이 바뀌고 해가 바뀌어 장성한 유심은 동래부사로 부임하게 되었는데 난생 처음으로 행차하는 동래길이 이상하게도 꿈속에서 오가던 길과 흡사함을 느꼈다.

어느 날 밤중에 제삿밥을 먹던 집을 찾기 위해 通人과 함께 나섰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꿈속에서 찾아간 집과 똑같은 집이 있었다. 유 부사는 조심하여 마당에 들어서니 백발노파가 제상을 차려놓고 울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부사는 정중한 인사를 올리고,

「노인은 어이하여 제상 앞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요?」라고 물었다.

「이 몸은 가장 없이 아들하나를 의지하여 살았사오나 어린것이 단명하여 저승으로 갔사온데 오늘이 바로 그 입제일 이옵니다」라고 말하고 소매를 적셨다.

아들이 죽은 날을 듣고 보니 이상하게도 그날이 유 부사의 생일과 같은 날이었다. 과수는 덧붙여

「그런데 그 아이가 죽은 뒤 꿈속에 나타나서 서울 유씨 가문에 태어났다고 하던군요.」라고 말했을 때 유 부사는 마음속으로 어머님이라고 불렀다. 이 노파가 바로 전생의 어머니임을 알았다 부사는 그의 직권으로 前生母에게 정곡을 내려 보내고 여러모로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였다. 그리곤 부사가 타처로 전출 되었을 때는 향사도구와 농토를 마련하여 주었으므로 이 노파는 노후에도 어렵지 않게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박원표, 『향토부산』, 태화출판사, 1967, 158~161쪽.

[동래구 설화 6]

韓府使의 젓가락

영남지방에 심한 가뭄이 계속될 때 韓配夏가 동래부사로 부임했다.

논바닥이 갈라져 하늘을 쳐다보고 한숨만 짓던 백성의 우울한 얼굴을 보고 있던 부사는 무엇을 결심했는지 그의 객사에 장작을 쌓게 하고는 「내가 牧民의 관장으로 이곳에 와서 이 참상을 보게 되는 것은 나의 부덕에서 오는 까닭이니 스스로 죽을 것을 각오했소. 내 죽은 뒤 부디 백성들은 편안하게 살아가길 빌 뿐이오.」라고 말하며 장작더미에 불을 붙이라고 명했다.

그러나 하인 중엔 감히 여기에 불을 지필 사람이 없었다. 부사가 다시 엄한 어조로 하인들을 꾸짖으니 한 하인이 눈물을 머금고 장작에 불을 지폈다.

장작더미 위에 태연히 앉은 부사의 옷깃에 불이 붙을까 말까할 때 별안간 하늘에 검은 구름

이 몰려들더니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여 연 이틀 동안이나 흠뻑 내려 도랑에는 콸콸 물이 넘치고 백성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었다.

韓부사가 동래에 재임시엔 언제나 백성을 위하는 名府使로서 그 이름이 높았고 나중에는 재상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다.

그 당시 조정에서는 국민들에게 술을 금하게 하던 때였다. 또 당쟁도 심한 때였다.

하루는 朝會에 들어오는 韓재상의 얼굴이 홍당무 같고 술에 취한 모습이 완연히 들어남을 본 반대파는 이 기회를 놓칠세라,

「상감마마, 만백성의 귀감이 되어야 할 재상이 나라에서 금한 술에 취해 이 엄숙한 朝會에 나오니 이를 그냥 둘 수 없사옵니다. 마땅히 응분의 조처가 있어야할 것으로 아옵니다.」라고 상소했다.

이때 재상은,

「말씀 올리기 황공하오나 소신은 매년 九월 九일에는 꿈속에서 옛 부사로 지나던 동래에 가서 술과 음식의 대접을 받습니다. 간밤에도 꿈속에 동래에서 마신 술의 취기가 아직 덜 가신 듯하옵니다.」라고 말했다.

그 당시 나라에서는 제향에만 술을 쓰게 했으므로 반대파들은 제향을 핑계하는 비겁자라고 반박했다. 재상은 다시 입을 열었다.

「그러하온데 또 한 가지 신기한 일이 있사옵니다. 그것은 어젯밤 제향에 갔더니 하필 소신 앞에 놓인 음식에 젓가락이 없어 소신은 옷에 찼던 첨저(尖箸)를 뽑아 먹었사오니 돌아올 때 그 첨저를 잊어버리고 그냥 두고 왔습니다. 그런데 꿈에서 깨어보니 기이하게도 그 첨저가 없어졌으니 동래 부사에 官差(관청에서 보내는 아전을 말함)를 보내 확인하심이 어떠하오리까?」라고 덧붙였다.

이리하여 임금은 동래에 관차를 내려 보냈다.

이때 마침 동래에서는 향사에 차렸던 제물을 치우다 보니 한 부사 자리에는 젓가락을 놓지 않았는데 이상하게도 첨저가 하나 있어 모두들 법석거렸다.

이 첨저라는 것은 양반이 옷에 차고 다니던 작은 칼집 안에 함께 꽂아두는 조그마한 젓가락을 말하는 것이다.

동래 관헌들은 이 신기한 일을 그대로 둘 수 없어서 서울에 계시는 한계상에게 알리기 위해 通引 한 사람을 막 보내려고 하던 차에 서울에서 내려온 官差가 들어섰다. 관차는 향사 지내던 곡절에서부터 제상의 첨저에 이르기 까지 이모저모를 묻게 되었다. 관헌들은,

「그렇지 않아도 일이 하도 이상하여 서울로 사람을 올리려던 차였습니다.」라고 답하며 그 첨저를 내놓았다.

관차는 서울로 돌아가서 임금님께 첨저를 올리고 그 사실을 고했다.

임금님의 얼굴엔 희색이 가득 찼었다.

본래 韓配夏가 청렴결백한 사람인 줄로 믿고 있던 임금님은 이 보고를 듣자 더욱 그를 신임하여 정승의 자리까지 주었다고 한다.

*박원표, 『향토부산』, 태화출판사, 1967, 161~164쪽.

[동래구 설화 7]

玉書契의 亡靈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의 일이다. 동래에 玉書契란 고을 관속이 있었다. 書契라는 벼슬은 관리의 징계를 맡아보는 官職으로 東萊府使도 파면 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직책이었다.

그런데 이 옥서계가 병들어 누워 보지도 못하고 하루아침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이 옥서계의 急死에 놀란 고인의 친구들이 저녁 때 상가에 찾아가느라고 지금의 동래군청 뒷길을 지나가니 죽었다는 옥서계가 별안간 친구들 앞에 나타났다. 놀라기도 하고 이상하게 여긴 친구들은 「영감님이 돌아가셨다는 것은 헛소문이었군요. 저희들은 정말 놀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홀로 어디로 가시는 길이 옵니까?」 하고 물어보자,

「친구들 고맙소. 나는 분명히 죽은 몸이오. 그러나 내 小室로 삼고 있던 계집이 나의 삼오도 지내기 전에 오늘 저녁 다른 남자의 품으로 살러간다고 하니 분통이 아니 터지겠소. 나는 그런 계집을 그냥 두고 저승길을 택할 수 없어 그년을 죽이러 가는 길이오.」 라고 답했다.

이 말을 듣고 다시 한 번 놀란 문상객들은 그런 생각을 버리고 저희들과 자리를 같이 하여 술이나 한잔 나누시는 것이 좋을까 합니다.」 라고 권하니 옥서계는 아무 말 없이 뒤따라오더라는 것이었다.

그리곤 그들은 근처 술집에 들어가서 술상을 청하여 잔을 권하니 옥서계는 분명히 마시긴 하는데 그릇의 음식은 그대로 남아 줄어들지를 않았다.

問喪客들은

「영감님! 담배나 태우시며 서서히 小室 이야기나 들어 봅시다.」 라고 하니 나는 지금 몹시 바쁜 몸입니다. 이만 실례하겠소.」 라고 한마디 남겨두곤 일어서기가 바빴다.

그의 행동을 이상하게 여긴 문상객들은 그의 뒤를 밟고 따랐다. 玉書契는 福泉洞에 있는 조그만 집에 들어섰다. 정말 그곳엔 한 젊은 여인이 음식을 장만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얼마 뒤 이 여인이 부엌에 들어서며 食刀를 손에 잡자마자 갑자기 배를 두 손으로 부둥켜안고 부엌 바닥에 쓰러졌다.

이 여인의 急死를 본 문상객들이 그 집으로 다가 섰을 땐 이미 옥서계는 어디인가 간곳이 없었다.

*박원표, 『향토부산』, 태화출판사, 1967, 173~174쪽.

[동래구 설화 8]

白鹿의 東萊溫泉

우리나라 수많은 온천 중에서도 東萊溫泉의 역사는 가장 깊다고 한다. 대충 우리나라의 온천에 관한 전설을 간추려 보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白鶴, 白鹿이 온천을 발견했다는 얘기들이다.

동래온천 역시 이 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白鹿이 와서 잠자고 가는 곳을 파보니 따뜻한 샘이 솟아올랐다고 한다.

지금 東萊溫泉場서도 역사가 긴 여관인 「白鹿館」이라는 이름도 이에 유래된다고 한다.

× ×

여기에 동래온천에 관한 다른 전설 하나를 소개해 보자.

지금으로부터 一천 수백 년 전 新羅 때 동래 고을에 다리를 쓰지 못하는 절름발이 노파가 살고 있었다.

어느 날 노파는 집 근처에 있는 논에 白鶴 한 마리가 날아와 절룩거리면서 주변을 돌아다니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이 불구의 노파는 같은 처지에 놓인 학에 크게 동정하며 한참동안 시선을 鶴에서 떼지를 않았다. 학은 다음날도 역시 그곳에 와서 서 있었다. 그리곤 사흘째 되는 날 鶴은 이상하게도 다리를 절지 아니하고 그 근처를 몇 바퀴나 돌다가 기쁜 듯 힘차게 날아가 버렸다.

이것을 본 노파는, 「이상한 일이다. 학의 다리가 낫다니. 정말 신기한 일이다.」

이렇게 獨白을 하면서 학이 있던 곳으로 가보니 따끈따끈한 샘이 솟고 있었다.

「나도 이 물에 다리를 담가 보아야 하겠다. 아마 이것이 다리를 고쳐주는 藥泉이구나.」

노파는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절룸거리는 다리에 몇 번이고 몇 십번이고 藥水를 찍어 발랐다. 이 약수는 신기하게도 효험이 있어 수일 후에는 그 다리가 부자유함이 없이 마음대로 움직이게 되었으니 노파의 기쁨은 더 말할 나위 없었다.

이것을 본 마을 사람들은 모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곤 사람들은 이 샘을 溫泉 이라고 불렀다.

역사의 기록 위에서 東萊溫泉을 보면 新羅王들은 慶州에서 蔚山, 梁山을 거쳐 東萊에서 목욕을 했다는 기록이 있다. 그리고 이조시대 세종임금 二〇년 一四三八년에 上京하던 日本人들이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곳에서 목욕했다는 사실도 남아 있다.

이조 말엽 우리 국세가 날로 쇠퇴해 가던 때의 일이다. 釜山倭館에 거주지를 제한하고 있던 일본인들은 동래부사 金善根에게 동래온천의 사용을 강력히 요구해온 바 있었다. 이 힘에 못 이긴 府使는 동래온천, 지금 대성관 女湯 자리의 목욕탕 한 칸을 빌려주고 사용료 조로 월 四〇원을 받게 하였다.

이때 일본인들은 浴室 밖의 도배를 해달라고 조르기에 부사는 무심코 묵은 東萊府民들의 戶籍簿를 꺼내주었다.

이 소문이 밖으로 퍼져 나오자 府民들은 노발대발하여 소규모였지만 民亂을 일으켰다. 군민이 충돌

하여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을 때 安東府使 趙秉鎬가 내려와서 민란을 진압시켰다고 한다.

*박원표, 『향토부산』, 태화출판사, 1967, 175~177쪽.

[동래구 설화 9]

東萊의 關皇廟

지금 東來區 校洞의 關皇廟가 있는 자리는 金장군이라는 아기장수가 태어난 집터이다.

이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일어서고 천정에도 닿아 붙기도 하는 신동이었다. 이 얘기를 전해 들은 金海의 宋장군은 이곳에 찾아와서 어린이의 골상을 보니 장래 비범한 사람이 될 것으로 보이기에 다가올 앞날을 두려워하여 즉석에서 이 아이를 죽였다.

이때부터 이 자리에는 저녁만 되면 千兵萬馬가 달리는 말굽 소리와 함께 군신들의 다투는 함성이 소란하여 견딜 수 없어 부득이 空地로 방치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중 府使 朴濟寬이 동래에 부임하여 關皇廟를 세웠는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사연이 있다고 한다.

즉 박기체라고 부르는 동래 사람이 부산의 김모씨 집에 놀러 갔더니 關皇의 影정에 關羽신장의 위패를 세워놓고 무엇인가 빌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박씨는 이상히 여겨,

「老兄은 어찌하여 관황의 영정에 관우의 위패를 세워놓고 무엇을 그렇게도 공손히 빌고 있는 거요?」라고 물으니 「이 神將은 관우장이온데 무엇이든 빌기만 하면 효험이 나타나기에 제가 이렇게 모시는 거요」라고 답했다. 이 말을 들은 박씨는 「老兄! 이 영정을 내게 주신다면 노형의 은혜를 잊지 않을 것은 물론이요 제가 성의껏 神將을 모시겠소.」라고 애걸한 끝에 關皇의 초상화를 얻게 되었다.

이 무렵 동래부사 朴濟寬은 이 말을 전해 듣고 이상하게 여기고 있는 차에 하룻밤 꿈속에서 관우장을 만났는데 관우가,

「府使! 나는 지금 고독하게 묻혀 있으니 넓은 자리로 옮기게 해주오.」라고 청하는 말을 들었다.

꿈에서 깨어난 府使는 너무나 신기했기 때문에 해몽 끝에 김장군이 죽은 집터에 관황묘를 세웠다고 한다.

그리고 몇 해 후 동래부사로 있던 黃正淵이 논 열 마지기와 齋室 다섯 間을 지어 永年 유지책을 강구해 주었으니 지금도 관황묘 아래 옛적 집터에는 「김장군 신위」라는 글이 씌어져 있다.

이밖에 동래 關皇廟에 대하여는 한두 가지 다른 전설이 있으니 아울러 적어 두겠다.

즉, 하나는 중국시대 蜀나라 장수 關羽가 呂蒙에게 죽었으므로 그 원한을 呂라는 성을 가진 사람은 자기 營이 있는 근처에 오기만 하면 죽였다는 전설에 따라서 지금도 呂라는 성을 가진 사람은 이 묘안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壬辰亂 때 明나라에 원병을 청하여 우리나라를 돕기 위해서 명의 군사들이 와서 왜병과 싸울 때, 關皇長이 神兵을 거느리고 와서 우리의 국난을 도와주었다는데 연유하여 그 당시 명나라의 조정은 銀 四천량을 내어 우리나라 여러 곳에 관황묘를 세우게 했다고도 한다.

그리하여 우리 조정과 의논해서 서울의 南關皇廟는 명나라 장수였던 양호와 만세덕이 지었고 청주에는 명나라 장수 모국기 그리고 명의 都督 유정은 남한 각지에 많은 關皇廟를 세웠다고 한다.

그러나 동래에 세워진 이 관황묘는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은 사연이 있고 명나라 장수 손에 의하여 세워진 것이 아니란 것을 지금의 古老들은 말하고 있다.

*박원표, 『향토부산』, 태화출판사, 1967, 177~179쪽.

[동래구 설화 10]

義賊 鄭鳳瑞와 마누라

옛날 동래부에 구차한 집안에서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던 鄭鳳瑞란 사람은 효성이 지극한 힘센 사나이였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병석에 눕게 되어 의원에게 물었더니 개 천 마리를 잡아 먹여야 낫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가난한 집안에서 개를 천 마리나 구할 길이 없었던 정봉서는 갖은 힘을 다하여 어머니의 병 고치기를 마음속에 다짐했다. 그리하여 길을 걸어가다가도 살찐 개가 눈에 보이기만 하면 냉큼 뒷다리를 잡아 집에 들고 와서 병던[13] 어머니에게 고아드리곤 했다. 이것이 남의 물건을 훔치는 버릇이 되었으니 어머니가 죽고 난 뒤에도 도적으로 생계를 이어오다가 바늘 도적이 소도적 된다는 격으로 나중에는 대적이 되었다.

어느 날 동래 성내의 사람들이 機張의 쌍다리 험한 고개에서 험상궂게 생긴 八, 九명의 도적패들을 만났다.

「이놈들아 꼼짝 말고 제자리에 섯거라.」 사납게 호령을 하곤 아무 소리 말고 따라오라고 말했다

혼 나간 행인들은 공포에 떨면서 도둑의 무리를 따라 깊은 산중으로 10여리나 되는 먼 길을 끌려 들어갔다.

얼마 후 산중턱에 자리 잡은 그들의 소굴까지 끌려온 행인들은 괴수 앞에 꿇어앉았다. 두목은

「너희들은 어디서 왔느냐?」 고 매서운 눈초리로 물으며 한 사람 한 사람씩 돌아보았다. 이때 이리에 쫓긴 어린양 마냥 떨고 있던 행인 중의 한 사람이,

13) '병든'의 오자(편자 주).

「저희들은 모두 동래 성내에 살고 있사옵니다.」라고 답했다.

이 말을 들은 괴수는 무엇을 생각했는지 갑자기 안색이 달라지며 조금 너그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부하들을 시켜 깨끗한 방으로 안내시키고 맛난 음식을 차려 이들을 후하게 대접했다

이튿날 행인들이 떠날 때는 노자까지 빠짐없이 주었다. 이 도적의 괴수가 바로 정봉서였다.

이미 골수에 배인 도적질을 하기 쉬워서 그 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고향을 떠나 많은 부하를 거느린 그는 깊은 산중에 본거를 두고 도적질을 하여 생계를 세웠으나 義賊의 이름을 들을 만큼 부잣집에서 빼어다가 남의 구차한 집을 도와주곤 하였다.

하루는 정봉서가 가난한 어느 집 앞을 지나갔는데 집안에서 방금 해산하는 소리가 들렸다. 인기척이 없는 그 집 부엌을 들여다보니 밥을 지을 쌀은 물론 국을 끓일 아무 준비가 없었다. 남편 되는 주인은 속수무책으로 산모 구호를 해줄 길이 없어 얼굴만 쳐다보고 한숨만 쉬고 있는 딱한 형편임을 알았다.

그래서 그는 쌀과 쇠고기를 집주인 몰래 사가지고 부엌에 두고 안을 향하여

「이 댁 바깥주인 계십니까?」하고 소리쳤다. 그 소리에 놀라 주인이 쫓아 나오니 정봉서는,

「부엌에 들어가 보시오.」라고 말하고는 그 집에서 사라져 버렸다.

주인은 의아하면서 부엌으로 나가보니 쌀과 고기와 산모에게 끓여 먹일 미역 등이 준비되어 있더라고 한다.

이와 같이 義賊으로 백성들의 입에 오르내리던 정봉서도 말년에 동네 포고에게 잡히고 말았다.

옥에 가두어 둔 정봉서에게 옥리는 먹을 것이라곤 아무것도 주지 않아서 二五일째 되는 날 굶어 죽었다. 정봉서의 마누라도 기운이 장사였는데 이 소식을 듣고 東軒으로 쫓아가 그 앞에 있던 下馬石을 번쩍 들고,

「이놈들, 너희들이 아무리 관헌이라고 하지만 너무 심한 처사가 아니냐. 내 가장이 도둑은 도둑이지만 의적이란 것을 천하가 다 아는 일인데, 그렇게 죽이는 법이 어디 있느냐.」고 고함을 치며 동헌 三大門을 때려 쳐서 판자가 날아갔다.

지금 금강공원 입구에는 그때 정봉서 마누라가 부순 대문 기둥으로 지은 건물이 남아 있다고 동래의 고노들은 말하고 있다.

*박원표, 『향토부산』, 태화출판사, 1967, 180~182쪽.

[동래구 설화 11]

기왓장으로 왜적 친 의녀

- 지붕서 기와 던지며 왜군에 맞선 아낙네

- 장소 : 부산시 동래구 수안동

1592년(선조 25) 부산포 앞바다에 난데없이 100여 척의 왜적 병선단이 까마귀 떼처럼 밀어닥쳤다. 피비린내 나는 임진왜란 7년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왜적이 몰려들자 병사들은 물론 수많은 민중들이 창과 칼, 돌멩이와 기왓장 등으로 사력을 다해 왜적에 맞서 싸우기 시작했다. 그러나 조총으로 무장한 엄청난 왜적을 막아낼 재간이 없었다. 부산진성이 무너지고 동래성이 함락되기까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처절하게 죽어갔다. 그들 중에는 연약한 아낙네가 적지 않았다.

임진왜란 때 순절한 선열들을 모신 충렬사(부산시 지정 유형문화재 제7호·동래구 안락동)에는 여자 신위 네 분을 별사인 의열각(義烈閣)에 모셔 놓았다. 그 가운데 두 분은 습와격적의녀신위(拾瓦擊賊義女神位)로 돼 있다. 기와를 주워 적을 친 의녀의 신위란 뜻이다.

송공단(부산시 지정 기념물 제11호·동래구 복천동) 남단에도 왜적에 맞서 싸우다 순국혼이 됐던 두 무명 아낙네의 넋을 기려 세운 '의녀위(義女位)' 2기가 서 있다. 이 두 아낙네는 1592년 4월 15일(음력) 시골에서 동래성 안으로 볼일이 있어 왔다. 동래성 안은 왜적이 쳐들어 와서 동래의 병사와 민중들이 함께 왜적에 맞서 싸우고 있었다.

싸움은 치열했다. 총알과 화살이 날아들고 창끝과 칼날이 번쩍였다. 몽둥이질이 난무했다. 백병전이었다.

시골에서 온 두 아낙네도 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 "내가 태어나고 자란, 내 선조의 피가 흐르고 있는 내 고장 동래만큼은 왜적에게 빼앗겨서는 안 된다." 아낙네들의 결의는 비장했다.

돌팔매질로 항전하는 남정네를 도와 열심히 돌을 날라다 주었다. 그러나 금방 힘이 부쳤다. 급기야는 왜적에게 쫓겨 동헌(수령이 직접 공무를 처리하던 곳·부산시 지정 유형문화재 제 1호·동래구 수안동) 기와지붕으로 간신히 기어 올라갔다. 그 아래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왜적들이 개미떼처럼 몰려들고 있었다. 이들은 기왓장을 뜯어내 밀려드는 왜적을 향해 혼신의 힘으로 그 기왓장을 김상(金祥)과 함께 집어 던졌다.

왜적 수십 명이 그 기왓장을 맞고 고꾸라졌다. 그러나 던져도 왜적들은 끝 간 데 없이 몰려들었다. 젖 먹은 힘까지 다해 기왓장을 집어 던지던 그 아낙네는 마침내 지붕 위에 털썩 주저앉았고, 바로 그때 왜적의 사정없는 칼날이 날아들었다. 그들은 칼을 맞고도 숨이 끊어질 때까지 눈을 부라린 채 분을 삼키지 못하고 왜적을 향해 침을 뱉고 꺼져가는 목소리로나마 호통을 쳐댔다. 숨이 끊어졌다고는 하나 어찌 차마 눈인들 제대로 감을 수 있었겠는가.

전쟁이 끝난 뒤 김상의 어머니가 아들을 찾아 나섰는데, 아들 김상은 아낙네와 함께 지붕 위에서 죽어 있었다. 그 얼마나 장한 아낙네였던가. 송공단에 보잘 것 없이 보이는 자그마한 빗돌 2기지만 그 속내만큼은 길이길이 남아 전해져야 할 우리네 산 역사 이야기가 아닐까.

*주영택, 『부산의 전설 보따리』, 가마골향토역사연구원, 2013, 22~24쪽.

[동래구 설화 12]

산저 노인과 차밭골의 차(茶) 나무

- 작설나무 대신 자기 행랑채 땔감으로 내줘

- 장소 : 부산시 동래구 온천1동

옛날 성내에 '산저'라 불리는 노부부가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었다. 어느 해 겨울, 눈이 많이 내려 성내 사람들이 땔감을 구할 방도가 없어 서로 의논한 끝에 가까이 있는 차밭골(현 부산 동래구 온천1동)의 작설나무를 베어 땔감으로 하기로 결정했다.

이 소식을 들은 산저 노인은 마을에 사는 사람들의 차약(茶藥)을 위해 가꾸어 온 작설나무를 베면 안 된다고 극구 만류했으나 마을 청년들은 모두 얼어 죽게 된다면서 강행할 태세였다. 산저 노인은 부인과 의논한 끝에 마을 청년들에게 자기 집 행랑채를 헐어 땔감으로 쓰고 차밭골의 작설 나무를 베지 말라고 호소하였다. 청년들은 산저 노인의 호소에 따라 노인의 행랑채를 헐어 땔감으로 쓰고 작설나무를 베지 않았다.

다음 해 봄, 농사철이 닥쳤고 산저 노인이 머슴을 구하려고 했으나 행랑채가 없다 보니 아무도 머슴살이를 하지 않으려고 했다. "큰일이군. 빨리 못자리를 만들어야 농사를 지을 수 있는데……." 산저 노인이 애가 타서 차밭골에 올라가니 웬 젊은 청년이 나타나 머슴살이를 자청하는 것이었다. 산저 노인은 그 청년을 머슴으로 삼았고, 청년은 다른 머슴보다 일을 부지런히 잘 했다.

못자리를 할 시기가 되어 산저 노인이 청년에게 못자리를 하도록 시켰다. 그때 청년은 "올해는 찬물이 나는 찬샘 가까운 논에 못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여 그의 의견을 따랐다.

그런데 그해 봄은 가뭄이 계속되어 다른 사람의 못자리가 물이 없어 모두 말라 죽었으나, 유독 산저 노인의 못자리만은 남보다 모가 잘 자랐다. 찬샘 가까운 곳이라 그런 것 같았다. 일찍 모심기를 마친 산저 노인은 남은 모를 이웃에 나눠주기도 했다.

또 그해에는 원인 모를 유행병이 번져 산저 노인 댁뿐만 아니라 성내 마을과 인근 마을까지 환자가 많이 생겨 다급한 지경에 이르렀다. 이때 청년 머슴이 작설나무 잎으로 만든 차약을 찬샘물에 타서 먹게 하니 산저 노부부의 병세가 치료되고 마을에 도는 유행병이 잡혔다. 그해 산저 노인은 청년의 노력으로 풍년을 맞아 행랑채를 새로 지을 수 있었다.

연말에 산저 노인이 청년 머슴을 불러 새경(사래)을 주려 하자 청년이 산저 노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큰절을 하고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저는 할아버지가 행랑채를 마을 사람의 땔감으로 내어주기까지 하면서 차밭골 작설나무를 베지 못하게 하여 살아난 작설나무의 신(神)입니다. 저는 새경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은혜를 갚으러 1년간 할아버지 댁에서 일을 해드렸으며, 원인 모를 유행병도 고쳐주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한 청년은 홀연히 사라져 버렸다.

이 이야기는 순식간에 퍼져 동래부 관가까지 알려지게 되었고, 차밭골 작설나무의 신령스러움에 놀란 성내 사람들은 이 나무를 보호하는 데 온 힘을 다했다고 한다.

이 계곡 주변에 작설나무가 자생한다 하여 지금도 '차밭골'이라 불리고 있다.

*주영택, 『부산의 전설 보따리』, 가마골향토역사연구원, 2013, 28~30쪽.

[동래구 설화 13]

박권농과 그 아들

- 구해준 도둑 양아들 삼자 가세 날로 번창

- 장소 : 부산시 동래구 명륜동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직전 박권농(朴勸農)이란 사람이 동래에 살았다.

그는 아무 일이나 가리지 않고 해주고 품삯을 받아 살아가는 비천한 사람이었다. 내일을 위한 꿈이라고는 없는 권농에겐 술만이 약이 될 수밖에 없었다. 어느 날 만취한 그는 집으로 돌아오는 도중 미남동 앞을 지나 서천교(西川橋·지금의 동래교)에 이르렀을 때 술에 너무 취해 의식을 잃고 냇가의 모래밭에 쓰러져 잤다. 얼마나 지났을까, 잠결에 자기를 흔들어 깨우는 사람이 있었다.

눈을 떠보니 검정 옷을 입은 사나이가 옷을 벗기고 있는 것이었다. 도둑은 권농의 남루한 옷을 모두 벗겨갈 작정이었다. 이때 이곳을 순찰하던 순라군(밤에 도둑과 화재를 감시하고 통행인을 보살피던 군졸)이 이 광경을 보고 "그곳에 있는 자가 누구냐. 박권농이 아니냐. 이 밤중에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권농이 "이분은 우리 마을에 사는 사람입니다. 소인이 술에 취했기에 저를 집까지 업고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순라군은 "그래, 조심해서 집으로 가거라."고 말하고 자리를 떴다. 고비를 넘긴 도둑은 감격한 어조로 고개를 숙이고 "감사하오, 당신이 만약에 나를 도둑이라 말했으면 내 손에 맞아 죽었을 것이오."라고 말하면서 손에 쥐고 있던 돌을 던져 버렸다. 그리고는 "제 등에 업히시오. 제가 집까지 모셔드리죠."라고 말한 후 권농을 업어다가 집까지 왔다.

권농은 도둑을 방으로 안내하고 식사라도 같이 할 것을 권했으나 그는 응하지 않았다. 권농은 "내 슬하에는 어린 것이 하나뿐이니 내 아들이 되어 줄 수 없을까"라고 묻자, 도둑은 무엇인가를 골똘히 생각한 뒤 "아버지로 모시겠습니다."라고 말한 후 그 자리를 떠났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밤늦게 권농을 찾아온 양아들은 "아버지, 그간 별고 없었습니까. 제가 돈 200냥을 구포 만덕고개의 아무 지점에 묻어 두었으니 오늘 밤중으로 집으로 옮겨 가용에 쓰십시오."라고 말했다. 권농은 처음엔 사양했으나 하도 간곡하게 말하는 양아들의 말에 못 이겨

돈을 가지고 온 후로 생계가 유복하게 되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권농의 외아들은 속리산으로 피란 갔다가 전쟁 후 동래로 돌아왔다. 이때 동래 서동(書洞)의 명문 김씨 댁에는 출생 때부터 얼굴뿐 아니라 온몸을 보자기로 덮어 쓴 듯 어떤 껍질로 덥혀 입과 밑구멍만 내어 놓고 밥을 먹고 숨만 쉬던 괴물 같은 딸아이가 있었다.

사람의 형상을 갖추지 못한 딸 때문에 그 부모의 근심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다. 그런데 이 혼기를 놓친 노처녀에게 권농의 아들이 청혼을 했으니, 그녀는 물론 부모들도 반가운 마음으로 결혼을 허락했다.

결혼식 후 첫날밤에 신랑은 대(竹)를 칼 모양으로 예리하게 장만해 그것으로 신부의 전신을 덮고 있던 껍질을 벗기니 놀랍게도 천하절색의 미인이었다고 한다. 그 후 이 부부 사이의 금실은 말할 수 없이 좋았거니와 서동 김 씨의 세력으로 박 씨의 후손들도 모두 번창했다고 한다.

*주영택, 『부산의 전설 보따리』, 가마골향토역사연구원, 2013, 39~40쪽.

[동래구 설화 14]

삼성대 주산당에 모신 어린 김장군

- 신출귀몰한 유복자, 역도 몰려 억울한 죽음

- 장소 : 부산시 동래구 명륜동

조선 선조 9년인 1576년 동래읍 객달리(명륜동)에 한 노부부가 살았다. 슬하에 자식이 없었던 부부는 어느 날 밤 부인이 용꿈을 꾼 뒤 태기가 있었다.

하지만 뜻밖에 남편이 죽고 유복자를 순산했는데 사내였다. 용모나 골격이 준수해 첫눈에 범상치 않은 아이임을 느끼게 했다.

태어난 지 3, 4년이 지났을까 아이는 한밤중만 되면 몰래 집을 빠져나가 집 서쪽 나지막한 봉우리(삼성대)에 올라 주문을 외워 신병(神兵)을 불러 모았다. 한 시간쯤 신병을 훈련시킨 뒤 아이는 집으로 돌아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모친 곁에 누워 잠을 잤다.

하루는 모친이 잠에서 깨어나 옆을 보니 자고 있어야 할 아이가 없는게 아닌가. 깜짝 놀라 찾아 나서려는데 마침 자식이 방 안으로 들어오기에 어디 갔다 오냐고 물었다. 그랬더니 "뒷간에 다녀옵니다."며 태연히 잠자리에 들었다.

모친은 어느 날 밤 자는 척하며 아이의 행동거지를 유심히 살폈다. 한밤중이 되니 아이는 슬며시 일어나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이었다. 모친이 따라가 보니 아들이 삼성대에서 신병을 모아 놓고 훈련을 시켰다. 그 모습을 지켜본 모친은 놀라움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모친은 급히 돌아온 아들에게 영문을 따져 물었다. 아들은 아무 걱정 말라며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 것을 신신당부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모친의 입에서 그 사실이 새어

나가 동래에 장군이 났다고 소문이 퍼지고 말았다.

아이의 나이가 일곱 살이 되던 해였다. 그해 동래부 관아 건물을 짓는 역사가 벌어졌다. 금정산 사시골 안에 대들보에 쓸 재목을 베어 두었는데 얼마나 컸던지 옮기지를 못해 걱정만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비가 갠 이튿날 아침, 공사장에 나갔던 동네 사람들은 깜짝 놀랐다. 걱정하던 대들보 재목이 마당에 놓여있는 것이었다. 현장에 6, 7세쯤 되는 아이의 나막신 발자국의 흔적이 발견돼 마을사람들은 이 아이가 한 짓임을 알아차렸다.

관가에서도 대들보를 옮긴 장본인이 그 모친의 아들임을 밝혀내고 나라에 상소를 올렸다. 이 아이의 신출귀몰한 재주에 대해 소상히 들은 조정에서는 장차 역모를 꾀할 아이라 하며 죽이기로 결정했다.

한양으로 잡혀간 아이는 매일 밤마다 동래 모친 곁에 와서 놀다가 새벽녘엔 다시 감옥으로 돌아갔다.

"어머님, 내일 조정에서 죄없는 저를 처형할 것이온데 어머님께서 죽지 말라 하시면 죽지 않겠습니다." "얘야, 네가 죽지 않으면 역적으로 몰려 우리 삼족이 멸문지화를 당할 것이니 이 일을 어찌했으면 좋겠느냐?" 모자는 눈물로 마지막 밤을 보내고 작별을 했다.

이튿날 아이를 처형하라는 어명이 떨어졌다. 그런데 아무리 칼로 내려쳐도 죽지 않았다. 형리가 "너는 어찌해서 죽지 않느냐?"고 물으니, 아이는 "나에게 '김장군'이란 칭호를 내려 현판을 만들어 주면 죽겠다."고 말했다.

'김장군' 칭호를 하사하였더니 아이가 통곡하며 "소인이 죽은 지 10년뒤면 상감께서 소인을 생각하시리다(임진왜란을 예언)."고 말한 뒤 양 겨드랑이에 난 날개를 걸고 매를 세 차례 치라고 일러주었다.

아이가 죽자 중신들은 어린 아이에게 장군 칭호는 부당하다 하여 현판을 치웠더니 시신이 움직이지 않았다. 다시 현판을 걸고 시신을 옮긴 뒤 그 현판은 끝내 없애버리고 말았다.

그 위 동래 사람들은 김장군의 넋을 위로하여 객달리 생가에다가 소각(小閣)을 짓고 위패를 모셔 제사를 지내왔다. 지금도 명륜동 주산당에서는 김장군에 대한 제사를 주산당 신과 함께 모시고 있다.

*주영택, 『부산의 전설 보따리』, 가마골향토역사연구원, 2013, 53~56쪽.

[동래구 설화 15]

동래의 관황묘

- 여씨 성 사람은 영(靈) 근처에만 가면 실신

- 장소 : 부산시 동래구 명륜동

지금의 동래구 명륜동 477번지의 관황묘(關皇廟·관우가 죽은 뒤 그를 높여 관왕 또는 관황이라고 함)가 있던 자리는 김 장군이라는 아기장수가 태어난 집터이다. 이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일어서고 천장에 달라붙기도 하는 신동이었다. 이 얘기를 들은 김해의 송 장군은 이곳에 찾아와 아이의 골상을 보니 장래 비범한 사람이 될 것으로 판단, 다가올 앞날이 두려워 즉석에서 이 아이를 죽였다. 이때부터 이 자리에는 저녁만 되면 천병만마가 달리는 말굽소리와 군신들의 다투는 함성이 들려 부득이 공지로 방치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중 1874년 2월 동래부사로 부임한 박제관이 관황묘를 세웠는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사연이 있다고 한다. 즉 박기체라는 동래사람이 부산의 김모 씨 집에 놀러 갔더니 관황의 영정에 관우 신장의 위패를 세워놓고 무엇인가를 빌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박 씨는 이상히 여겨 "노형은 어찌하여 관황의 영정에 관우의 신위를 세워놓고 공손히 빌고 있는 거요?"라고 물었다. 돌아온 답은 "이 신장은 관운장이온데 무엇이던 빌기만 하면 효험이 나타나기에 제가 이렇게 모시는 거요."라고 하였다. 그러자 박 씨는 "노형, 이 영정을 내게 주신다면 노형의 은혜를 잊지 않고 제가 성의껏 모시겠소."라고 애걸한 끝에 관황의 초상화를 얻게 되었다.

이 무렵 동래부사 박제관은 이 말을 전해 듣고 이상하게 여기고 있는 차에 어느 날 꿈속에서 관운장을 만났다. 관운장은 "부사, 나는 지금 고독하게 묻혀 있으니 넓은 자리로 옮겨주시오."라고 하지 않는가. 꿈에서 깨어난 부사는 정말 신기해 해몽 끝에 김장군이 죽은 집터에 관황묘를 세웠다고 한다.

한편 1878년 동래부사 황정연이 사당을 짓고 논 열 마지기를 주어 관황묘의 제사를 지내도록 했다. 지금도 관황묘 아래 옛 집터에는 '김장군 신위'라는 글이 씌어 있다.

동래 관황묘에 관한 전설은 또 있다. 임진왜란 때 명나라 군사들이 왜병과 싸울 때 관운장이 신병을 거느리고 와서 우리의 국난을 도와주었다. 당시 명나라의 조정은 관운장의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해 은 4000냥을 들여 조선 땅 여러 곳에 관황묘를 세우게 했다. 해서, 서울의 남관황묘는 명나라 장수였던 양호와 만세덕이, 청주에는 명나라 장수 모국기가 세웠고, 명나라 도독 유정은 남한 각지에 많은 관황묘를 세웠다. 그러나 동래의 관황묘는 명나라 장수에 의해 세워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관황묘 회원인 박진희, 신동섭이 증언하고 있으나 정확한 것은 아직 알 수 없다.

또 한 가지 설은 동래에 옛날 관운장의 영정과 김장군의 위패를 모시던 관우묘가 있었는데, 당시 사람들은 이 묘(廟)를 영당이라 부르며 1년에 2회(탄일 5월 12일, 기일 10월 19일) 제사를 지냈다.

조선시대 이 묘를 지을 때의 일이다. 여러 인부들이 기왓장을 지게에다 지고 사다리를 밟고 그 묘의 지붕에 올라가 내려놓았다. 그런데 그 인부 중 여(呂)씨 성을 가진 사람이 그 지붕 위에 발을 올리려고 하자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정신을 잃어 그만 떨어져 죽고 말았다.

이는 옛날 중국 삼국시대의 촉나라 장수 관우가 여몽(呂蒙)에게 죽었으므로 관우는 그 원한으로 여씨 성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영(靈) 근처에만 오면 죽게 했다. 죽은 그 인부도 그래서 죽은 것이라 한다.

그 뒤로는 이것을 모르고 여씨 성을 가진 사람이 이 영당 안에 들어오다가 갑자기 눈에서 피를 흘리며 기절하였다고 한다. 그래서 지금은 여씨 성을 가진 사람은 이 영당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한다.

*주영택, 『부산의 전설 보따리』, 가마골향토역사연구원, 2013, 57~59쪽.

[동래구 설화 16]

대기근에 대비한 민 부사

- 대흉년에 고을민 목숨 구한 동래부사

- 장소 : 부산시 동래구 수안동

장남인 민영훈은 동래부사로 부임할 때 어머니 최 씨를 모시고 왔다. 부임 첫날 초저녁에 어머니는 아들을 불러 "돌아갈 행차를 준비하라"고 하였으나 새벽에 또 아들을 불러 "행차를 중지하라"고 말했다.

날이 새고 문안 인사를 여쭙는 아들에게 어머니가 "초저녁에 돌아갈 준비를 하란 말과 새벽에 행차를 중지하란 말뜻을 알겠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아들은 "알지 못하겠나이다."라고 답했다. 어리둥절한 아들에게 어머니는 말했다. "그래, 어제 저녁 천기를 보니 이 고을은 대살년(大殺年·대흉년)이라 이 고을 주민들이 죽는 꼴을 어찌 볼까하여 돌아가자 했다. 그러나 새벽에 천기를 보니 전라도 지방에 대풍년이 들 기운이라 힘만 쓰면 주민을 구할 수 있기에 그렇게 한 것이다. 그러니 천기누설을 하지 말고 육방 관속을 점고(點考)한 후 이 고을이 변방인데 군량미가 얼마나 있느냐고 묻고 이 고을에서 거래되는 곡식을 다 사 모으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민 부사는 어머니의 충고대로 곡식을 비축했다. 이듬해(1836년) 과연 어머니의 예언대로 이 고을은 물론 영남 일대에 흉년이 찾아 들었다. 이같은 조짐은 그해 초부터 있었다. 모심기 철에 찬바람이 불어 솜옷을 입고 모를 심었고 논을 멜 때도 샛바람이 불어 두꺼운 옷을 입었다. 결국 곡식은 자라지 않아 동래 고을 사정은 말은 아니었으나 전라도에서만은 그렇지 않다는 풍문이 돌았다.

민 부사의 어머니는 "너는 서울로 가서 돈을 모아 전라도에 가서 아직 논에서 자라고 있는 벼를 미리 사 놓으라."고 분부했다. 이에 민 부사는 서울로 올라가 친구, 친척 등 여러 경로를 통해 닥치는 대로 돈을 구해 전라도에 가서 논떼기로 수만 석을 입도선매해 두었고 추수철에 그 곡식을 운반했다. 보리가 떨어질 무렵인 8월부터 객사(현재 동래시장)에 가마솥을 걸고 죽을 끓여 굶주린 주민들에게 나누어 먹이고 가난한 주민들에게 식량을 보급했다. 그러나 남산, 노포, 두구동 주민들은 그 보급미로 지은 밥조차 먹기가 힘들었다. 양산 동면의 사송, 여락마을 주민들은 고을이 달라 식량 보급이 없자 야밤을 틈타 지경고개를 넘어와 지어놓은 밥을, 때로는 솥

째로 훔쳐갔다. 그러자 당시 좌수 백달경이 동래부사에게 간곡한 소지를 올려 벼 수십 석을 얻어 사송, 여락마을 주민들에게 나눠줘 기근을 면케 했다.

이후 양산의 사송, 여락마을 주민들은 민 부사의 은혜를 잊지 못해 사송마을 앞 큰 바위에 만인의 목숨을 구했다(萬人救命)는 글자를 새겼다.

동래지방의 마을 주민들은 동래부와 양산군의 경계지점인 지경고개에 민 부사의 거사단비를 1838년에 세워 제단에 해마다 제사를 지냈다. 1993년 공수물 소공원(부곡 2동)에 원형 거사단비를 옮기고 옆에 신형 거사비를 건립했다.

거사비문에는 '심한 흉년으로 부민이 굶어죽어 가는데, 곡식을 풀어 진휼하고 세금을 탕감하여 병폐를 제거하고 만인의 생명을 살린 그 은혜를 칭송한다.'는 위민 공적이 기록돼 있다.

민 부사가 임기를 마치고 돌아갈 때, 동래 고을 백성들은 매우 그 은혜가 컸기에 동헌에서 온천교차로까지 모두 적삼(상의)을 벗어서 행차의 대낫들이(큰 나들이) 길에 깔아 민 부사는 그들의 적삼을 밟고 걸어서 올라갔다고 한다. 당시 부민들이 얼마나 감복했는지를 미뤄 짐작할 수 있다.

*주영택, 『부산의 전설 보따리』, 가마골향토역사연구원, 2013, 73~75쪽.

[동래구 설화 17]

한 부사의 젓가락

- 꿈에 동래 내려와 대접받은 청백리 재상

- 장소 : 부산시 동래구 복천동

조선 숙종 때인 1706년 영남지방에 심한 가뭄이 계속될 때 한배하(韓配夏)가 동래부사(재임 : 1706~1709)로 부임했다.

하늘을 쳐다보고 한숨만 짓던 백성의 우울한 얼굴을 보고 있던 부사는 무엇을 결심했는지 객사 앞에 장작을 쌓게 하고는 "내가 목민(牧民)의 관장으로 이곳에 와서 이 참상을 보는 것은 나의 부덕의 소치이니 스스로 죽을 것을 각오했소. 백성은 부디 편안하게 살아가길 빌 뿐이오"라고 말하며 장작더미에 불을 붙일 것을 명했다. 하인 중엔 불을 지필 사람이 나타나지 않자 재차 엄하게 꾸짖으니 한 하인이 눈물을 머금고 불을 지폈다.

장작더미 위에 태연히 앉은 부사의 옷깃에 불이 붙을까 말까 할 때쯤 갑자기 하늘에 먹구름이 몰려들더니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해 이틀 동안 내려 백성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었다.

한배하는 동래부사로 재임하는 동안 늘 백성을 위해 선정을 베풀어 그 이름이 자자했고, 이후 재상의 자리까지 올랐다. 그가 떠난 후 백성은 생사단을 지어 제향을 올렸다. 지금 동래유치원 내에는 '부사한공배하거사단'비가 이를 입증한다.

한배하가 재상으로 있을 당시엔 당쟁이 심했고, 백성에겐 금주령이 내려져 있었다.

하루는 조정 조회(朝會) 때 한 재상이 홍당무 같이 붉어 술에 취한 얼굴로 나타났다. 이를 본 반대파는 이 기회를 놓칠세라 "상감마마, 만백성의 귀감이 되어야 할 재상이 나라에서 금한 술에 취해 국사를 논의하는 조회가 나오니 이를 묵과할 수 없사옵니다. 마땅히 응분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아뢰옵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한 재상은 "말씀 올리기 황공하오나 소신은 매년 9월 9일 꿈속에서 오래전 부사로 지내던 동래에 가서 술과 음식의 대접을 받습니다. 간밤에도 동래에서 마신 술의 취기가 아직 덜 가신 듯 하옵나이다."라고 말했다.

당시 금주령이 내려져 있었지만 예외적으로 제향 때는 술을 쓸 수 있었기 때문에 반대파들은 한 재상을 두고 제향을 핑계 삼는 비겁자라고 반박했다.

한 재상도 물러서지 않았다. "한 가지 신기한 일이 있사옵니다. 어젯밤 제향에 갔더니 하필 소신 앞에 젓가락이 없어 옷에 찼던 첨저(尖箸·양반이 갖고 다니던 작은 칼집 안의 젓가락)를 뽑아 먹었사오나 돌아올 때 그 첨저를 두고 왔습니다. 그런데 꿈에서 깨어보니 기이하게도 그 첨저가 없으니 동래부사에 관차(官差·관아에서 파견하는 아전)를 보내 확인하심이 어떠하오리까?"라고 말했다. 해서, 숙종은 즉시 동래에 관차를 내려보냈다.

비슷한 시각, 동래에서도 향사에 차렸던 제물을 치우다 보니 한 부사자리에는 젓가락을 놓지 않았는데 이상하게도 첨저가 하나 있어 모두들 법석거리고 있었다.

동래 관헌들은 이 신기한 일을 그대로 둘 수 없어 한양의 한 재상에게 알리기 위해 통인(通引) 한 사람을 막 보내려고 하던 차에 한양의 관차가 도착했다. 마을사람들로부터 향사를 지내고 있는 곡절에서부터 재상의 첨저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실을 들은 관차는 한 재상의 것으로 추정되는 첨저까지 받아 숙종께 바치고 모든 사실을 고했다.

본래 한배하가 청렴결백한 사람인 줄 믿고 있던 숙종은 이 보고를 듣고는 그를 더욱 신임해 정승의 자리까지 승차(陞差)시켰다고 한다.

*주영택, 『부산의 전설 보따리』, 가마골향토역사연구원, 2013, 144~146쪽.

[동래구 설화 18]

전생의 어머니를 만난 부사 류심

- 아들 제삿날에 태어난 동래부사가 찾아와…

- 장소 : 부산시 동래구 복천동

옛날 동래읍 서문통에 남편을 일찍 여의고 아들에 의지하며 살던 홀어머니가 있었다. 이 아들은 인물이 잘생겼을 뿐만 아니라 네 살짜리라곤 믿을 수 없을 만큼 영리했다.

당시 동래부에는 새 부사가 부임할 때 행차(行次)가 아주 성대했다. 이 행차에는 동래 명기 중 가장 아름다운 팔선녀가 등장하고 대군의 위장병과 군졸, 갑옷을 입고 말을 탄 기병들이 부사를 호위했다. 부민들은 이날만은 대낮에도 모두 집을 비우고 거리에 나와 부사를 환영했다.

홀어머니와 그 아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부사 행렬을 눈여겨보고 있던 등에 업힌 아들이 갑자기 "엄마, 나도 어른이 되면 저렇게 할 수 있나요"라고 물었다. 어머니는 아무 대꾸를 하지 않고 우울한 표정을 지을 뿐이었다.

"엄마, 왜 말이 없어. 난 커서 어른이 되면 저렇게 될 테야"라며 힘주어 재차 말하는 것이 아닌가. 이에 어머니는 한숨을 내쉰 후 "얘야, 너는 어른이 되어도 저렇게 할 수 없단다, 우리 같은 상놈들에게 저런 벼슬은 꿈에도 할 수 없는 거야"라고 힘없이 말했다.

이 말을 들은 아들은 그날부터 밥을 먹지 않고 말도 잘 하질 않더니, 며칠 뒤 이름 모를 병으로 그만 죽고 말았다. 어머니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밤과 낮을 이어 울음으로 세월을 보낼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꿈속에서 죽은 아들을 만났다. 꿈속에서 아들은 "어머니 울지 마세요. 저는 한양에서 재상을 지낸 류씨 가문에 태어나 잘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상놈이란 소릴 듣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벼슬도 할 수 있게 됐어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라고 말한 후 사라졌다. 세월이 흘러 노파의 눈물도 차츰 말랐다. 숨 가쁜 하루살이에 지친 그녀는 모든 것을 잊을 수 있었으나 아들에 대한 생각은 여전히 지워지지 않았다.

재상가의 가문에 다시 태어난 아들의 이름은 류심(1608~1667). 그는 해마다 생일이 되면 꼭 꿈속에서 전생의 집이 있던 동래를 찾아 제사 음식을 얻어먹고 돌아왔다. 달이 가고 해가 바뀌면서 어느덧 어른이 되어 벼슬길에 오르게 된 류심은 마침 동래부사로 부임(재임 : 1649~ 1651)하게 되었다.

난생 처음으로 행차하는 황산도(밀양~동래) 길이건만 이상하게도 생일 꿈속에서 오가던 길과 흡사함을 느꼈다. 부임한 지 얼마 안 돼 류심은 한밤중에 제삿밥을 얻어먹던 집을 찾기 위해 통인(通引·동헌의 부사에 딸린 잔심부름을 하던 사람) 과 함께 나섰다. 좁은 골목길을 걸어가다가 그는 해마다 한 차례씩 꿈속에서 찾아갔던 집과 똑같은 집을 발견하고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가자 마당에서는 백발의 노파가 제사상을 차려놓고 울고 있었다. 부사는 정중하게 인사를 올리고 노파에게 물었다. "어찌하여 제사상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요?" 노파는 계속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으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 몸은 남편 없이 아들에 의지하며 살았사오나 그 어린 것이 단명하여 저승으로 갔사온데 오늘이 바로 그 입제일(入祭日)이옵니다."

아들이 죽은 날을 듣고 보니 이상하게도 그날이 류 부사의 생일과 같은 날이었다. 잠시 후 노파는 다시 말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죽은 뒤 꿈속에 나타나 한양의 류씨 가문에 태어났다고 하더군요." 류 부사는 마음속으로 가만히 "어머님…." 하고 불렀다. 이 노파가 바로 전생의 어머니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후 류심은 경상도 관찰사로 승진하게 되자 곡식, 제기와 함께 농

토를 마련해 줌으로써 전생의 어머니에게 은혜의 보답으로 배려했다고 한다.

*주영택, 『부산의 전설 보따리』, 가마골향토역사연구원, 2013, 147~149쪽.

[동래구 설화 19]

동래온천의 유래

- 백학, 눈처럼 내려앉아 다리 고친 웅덩이

- 장소 :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

지금으로부터 천수백 년 전, 동래 지역의 한 마을에 노파가 홀로 살고 있었다. 그는 오래전부터 악성 관절염으로 오른쪽 다리를 쓰지 못하는 절름발이였다. 해서, 그는 비탈에 일궈 놓은 밭에서 채소를 가꾸거나 마을 사람들의 잔심부름을 하며 겨우 끼니를 해결했다.

이른 봄 노파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지치고 쇠잔한 몸을 이끌고 들판으로 나갔다. 마을에서 제법 떨어진 금천마을 인근의 늪지대 부근에서 나물을 캐기 위해서였다. 배가 고파오고 다리와 허리도 쑤셔 노파는 잠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쉬고 있었다. 그때였다. 백학(白鶴) 한 마리가 몹시 지친 듯한 날갯짓으로 눈앞의 빤히 보이는 늪지대에 내려앉았다. 무심히 백학을 보던 노파는 새삼 눈을 크게 떴다. 백학이 다리 하나를 절며 곧장 쓰러질 듯 절룩거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쯧쯧, 어쩌다 저렇게 다쳤을꼬. 불쌍도 하여라. 꼭 다리 하나를 못 쓰는 내 신세와 같구나. 저러니 다른 무리들과 함께 제대로 날아다니지도 못하고 저렇게 혼자 떨어진 게지." 노파는 백학이 측은하고 불쌍해 자기 몸 아픈 것도 잊고 지켜보다가 다시 나물을 캐기 시작했다. 백학은 노파가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그 늪지대에 마냥 머물고 있었다.

사흘째 되는 날에도 백학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얼마나 심하게 다쳤으면 저렇게 오도가도 못하고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일까?"라고 생각하며 그 노파는 백학 가까이 다가가 보았다. 그 백학은 거짓말처럼 다리를 절지 않았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분명코 사흘 전에는 다리를 절고 있었는데."

노파는 다시 한 번 백학의 다리를 지켜보았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 이 백학은 땅을 걷어차며 힘차게 하늘로 솟아올라 날아가버렸다. 백학이 사라진 하늘을 한참이나 바라보던 노파는 백학이 머물렀던 곳으로 한 발 더 다가가 보았다. 그곳에는 움푹 팬 작은 웅덩이 하나가 있었다. 뜨거운 김이 솟아올라 노파는 물속으로 가만히 손을 넣어보았다. 뜨끈뜨끈한 것이 참을 만했고 미끌미끌하고 무척 부드러웠다. 약물이었던 것이다.

백학은 이 더운 약물에 다리를 고치기 위해 온 것이 분명했다. 노파는 계시처럼 떠오르는 생각에 얼른 옷을 걷어 두 다리를 더운 물에 담갔다. 아니나 다를까. 금세 따뜻한 온기가 온몸에 퍼지면서 땀이 나며 그때까지 쑤시던 통증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듯한 상쾌함을 느꼈다.

이후 노파는 매일 그 웅덩이를 찾아 다리를 담그고 편히 쉬었다. 효과가 나타나 오른쪽 다리가 거짓말처럼 풀리며 움직여지는 것이 아닌가. "용왕님 감사합니다. 이 늙은이의 다리를 이렇게 고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노파의 다리가 고쳐진 것을 확인한 금천마을 사람들은 너도나도 그 웅덩이를 찾기 시작했다. 피부병으로 고생하던 사람들도 그 약물의 천원(泉源)에 깔끔하게 회복됐다. 이 웅덩이가 바로 동래온천의 천원이며, 이후 이 온천의 효험이 나라 전체로 퍼지자 한양의 대궐 어르신들까지도 이곳 동래온천으로 행사하게 되었다.

《삼국유사》「탑상편」영취사조에 동래온천과 관련한 이야기가 하나 더 있다. 동래온천에서 목욕한 재상 충원공은 성으로 돌아오는 길에 굴정역 동지야에 머물게 되었는데 매가 꿩을 잡는 광경을 보았다. 꿩은 필사적으로 새끼를 데리고 우물로 들어갔다. 방울 달린 매는 하늘에서 꿩을 내려다만 보고 차마 덮치지 못한다. 호기심에 재상도 따라가 보았는데 가슴 뭉클한 감동을 받았다. 꿩은 양쪽 날개를 펴서 새끼 두 마리를 얼마나 피눈물 나는 정성으로 품었는지 우물은 온통 핏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꿩은 처절한 새끼 사랑에 매도 감히 덮치지 못한 것이었다. 뜨거운 감동을 받은 재상은 신문왕(재위 : 681~692)에게 사실을 말하고 현의 관청을 다른 곳으로 옮기게 하고 그곳에다 절을 세워 영취사(울산 문수산 문수사로 가는 길가에 있는 절)라 했다.

*주영택, 『부산의 전설 보따리』, 가마골향토역사연구원, 2013, 161~164쪽.

[동래구 설화 20]

의적(義賊) 정봉서와 그의 아내

- 효심 깊고 의리 있었던 부산판 임꺽정

- 장소 : 부산시 동래구 수안동

임진왜란(1592~1598)이 끝나자 7년 전쟁을 치른 백성들은 굶주림에 지쳐 이리저리 밥을 얻어먹고 살았다. 당시 기장현은 주민 대부분이 떠나 거의 텅 비다시피 돼 고을이 그만 동래부에 합속됐다.

이 시절 동래에선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던 정봉서란 효심 가득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아무도 당해낼 수 없는 힘센 사나이였지만 어느 날 어머니가 병석에 눕게 되자 백방으로 뛰어다녀 개 천 마리로 보신탕을 만들어 드시게 하면 나을 수 있다는 처방을 받았다.

결국 정봉서는 산 너머 마을의 부잣집에서 몰래 개 몇 마리를 훔쳐 어머니께 끓어드렸다. 하지만 얼마 후 이 사실이 발각돼 정봉서는 노모와 부인을 두고 그만 쫓기는 신세가 돼 산속으로 피신할 수밖에 없었다. 마침 산속에는 도둑질을 일삼으며 살아가던 수십 명의 도적 떼들이 숨

어 있었다. 정봉서는 이들과 함께 살게 됐고 이후 자연스럽게 그들의 두령(頭領)이 되었다. 그들의 아지트는 지금으로 치자면 기장현 쌍다리고개(안평리 쌍교) 마을에서 안평저수지를 지나 기장읍 서부리로 넘어가는 고개) 깊은 산 속이었다.

정봉서는 평소 부하들에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도적질하고 있지만 인색하고 악질 같은 부잣집만 골라서 털고, 어려운 사람과 굶어 죽는 사람들에게는 먹을 것을 몰래 가져다주는 의리를 지켜야 한다."고 신신당부했다.

하루는 정봉서가 어느 집 앞을 지나가는데 아기 낳는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웃음소리는커녕 인기척이 없어 그 집 부엌을 들여다보니 쌀 한 톨 없었다. 산모를 간호해줄 길이 없는 남편의 한숨 소리만 들렸을 뿐이었다.

정봉서는 쌀과 미역, 쇠고기를 사서 몰래 그 집 부엌에 두고서는 "바깥주인 계시오?"라고 소리쳤다. 그 소리에 놀란 주인이 의아해하며 고개를 내밀자 정봉서는 "부엌에 들어가 보시오."라고 말하고는 사라져버렸다.

어느 날 동래부에서 봉물(封物·시골에서 서울 관원에게 선물하던 물건) 꾸러미를 싣고 가는 것을 부하 도둑들이 보고 그 봉물 꾸러미와 함께 관원들을 끌고 왔다.

그런데 정봉서는 잡혀 온 관원들을 풀어주고 상좌에 앉게 했다. 그리고 다시 큰절을 올리면서 죄를 뉘우치고 자수하겠으니 제발 병든 노모에게 효도하고 부인을 볼 수 있게 살려만 달라고 애원했다.

하지만 약속과 달리 동래부 관원들은 자수한 정봉서를 끌고 가서 뼈가 부스러지도록 매질을 한 후 옥에 가둬 버렸다. 이후 관원들은 정봉서에게 음식은커녕 물 한 모금 주지 않았다. 그러자 힘센 장사 정봉서도 한 달이 못 돼 그만 굶어 죽고 말았다.

남편이 굶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정봉서의 아내는 치를 떨면서 분개했다. 화를 주체할 수 없었던 아내는 동래부로 달려가서 관원들을 향해 "이놈들! 네 놈들이 산도적에 잡혀 죽게 된 것을 내 남편이 구해주었고, 또 내 남편은 도적질을 하더라도 함부로 하지 않았으며, 굶어 죽어가는 백성들을 구제해준 의적이었다. 네놈들은 의리도, 인정도, 피도 눈물도 없는 짐승보다 못한 놈이다"고 외쳤다. 그러고는 동헌 앞에 있는 망미루(望美樓·동래읍성 여섯 개의 문의 개폐를 알리는 큰 북을 걸어둔 누각)를 내리쳐 모두 부숴버렸다.

지금 금강공원 입구의 망미루는 그때 정봉서의 아내가 부숴버려 새로 만든 것이라고 전해온다.

*주영택, 『부산의 전설 보따리』, 가마골향토역사연구원, 2013, 175~178쪽.

3) 부산진구 설화

[부산진구 설화 1]

華池山과 鄭氏墓

지금 楊亭洞에 있는 東萊 鄭氏 墓는 약 九백년전에 시조 鄭文道공이 묻힌 곳인데 풍수설에 의하면 이 묘지를 잘 뒀기 때문에 그 후손들 중에 많은 정승이 났고 그밖에도 출세한 자손들이 많아 종중이 번영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고려조 때 東萊府使 高益鎬가 부산 쪽을 순시하고 돌아가는 길에 지금 鄭氏 墓가 있는 華地山 기슭에 이르자,

「좋기는 하나…….」 라고 입속말을 하면서 무엇인가 쓴 표정을 짓는 것을 수행하던 鄭公의 큰아들인 戶長이 들었다. 그 후도 여러 차례 부사가 이곳을 지날 때마다 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것을 戶長은 귀담아 들었다.

몇 해가 지난 후 高府使는 경상도백으로 승진하고 鄭公도 유명을 달리하게 되었다.

이때 戶長은 어버이의 묘지 때문에 걱정하다가 문득 高府使의 말이 생각나서 선산을 華地山으로 정했다. 다음 날 戶長은 동생과 함께 무덤에 가보니 누구의 소행인지 묘지가 파헤쳐져 棺이 땅위에 보일 지경이었다. 두 상주는 다시 묘를 봉하고 그날 밤은 묘 옆에 숨어 지키기로 했다.

밤이 깊어 삼경에 이르자 어디서 나타났는지 도깨비 같은 괴물이 모여들더니 「여기가 어디라고 누가 이따위 나무관을 묻었어! 적어도 金棺을 묻어야지…….」

하면서 묘를 파헤쳐놓고 사라졌다. 가난한 두 형제는 金棺이란 말에 어이가 없어 마주보고 울기만 했다. 그때 한 백발노인이 나타나,

「이 밤중에 웬 사람들인고?」 라고 사연을 묻기에 상주는 사실대로 이야기했다. 노인은 「그것은 도깨비들의 장난임에 틀림없네. 도깨비 눈에는 보릿짚이 금빛으로 보인다고 하니 보릿짚으로 관을 잘 싸두게.」 라는 말을 남기고 떠났다.

날이 새자 두 형제는 보릿짚으로 알뜰히 관을 싸서 다시 묻고 밤을 기다렸다. 아니나 다를까 밤중에 도깨비가 또 나타나서 무덤을 파헤쳤으나 마침 달 밝은 밤이라 보릿짚이 황금빛으로 찬란하게 떠올랐다. 도깨비들은 「금관이야, 이젠 됐어 어서 가자.」 하며 그 행적을 감추었다.

그 후부터 생계가 유복해진 戶長은 대감이 된 高府使를 찾아 상경하였다. 오래간만에 인사를 받은 대감은 아버지의 안부를 묻기에 작고한 사연부터 선산을 華地山에 모실 때 범이 나타나서 울더라는 말까지 했다.

갑자기 안색이 돌변한 高大監은 크게 노하면서 불문곡절 그를 밖으로 내쫓았다. 영문도 모르고 쫓겨난 戶長은 어리둥절하고 있을 때 대감은 하인을 시켜 그를 다시 집안으로 불러 들였다.

「그 당시 아무런 이상이 없었느냐?」 캐어묻는 대감의 물음에 戶長은 기억을 더듬다가 그 해 여름에 일어난 일을 이야기했다.

「어느 날 뇌성 벼락이 천지를 진동하더니 華地山 건너편 산중턱에 있는 怪視岩이란 큰 바위가 조각조각으로 부서졌습니다.」라고 말했다.

미소를 띤 고대감은 비로소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내가 동래에 있을 때 그 산세가 뛰어나 先山 자리로선 명당이라고 보았지만 자손에 逆賊이 나올 우려가 있어 지나기만 했지. 그런데 자네가 그곳에 선산을 썼다니 나와 자리를 같이 할 수 없는 인연이라 축출한 것이니 양해하게. 그리고 天變으로 怪視岩이 깨어졌으니 이제 화근은 없어졌네.」라고 말했다.

다음날 고대감은 자기 딸을 정문도의 큰아들 대신 과거에 응시케 하여 及第의 영광을 입히더니 이어서 큰 벼슬자리까지 주었다. 이리하여 정씨문중에 인물들이 속출하고 후손들이 번성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지금도 눈이 내리면 이 墓자리만은 눈이 쌓이지 않는다는 얘기도 있다.

*박원표, 『향토부산』, 태화출판사, 1967, 164~166쪽.

[부산진구 설화 2]

仙岩寺의 꿈

지금 堂甘洞의 북쪽 산기슭에 아담하게 자리 잡고 있는 仙岩寺는 新羅 때의 古利이다.

三國史記에 의하면 四세기초 부산지방엔 거칠산국이 있었는데 이 나라는 북에서 남으로 뻗어 나온 新羅의 세력에 의하여 신라 제四대 脫解王 때 정복된 것으로 추측된다.

신라는 五〇五년에 지금의 부산시 堂甘洞에 東平縣을 두었으니 東萊邑誌에 仙岩寺가 동평현에 소속되어 있다.

지금의 선암사는 산기슭에 있지만 먼 옛날 10세기 전에는 절 가까이까지 파도가 치밀려 온 바닷가에 있었던 모양이다.

그 당시 불교의 독실한 신자였던 한 관리가 동평현의 縣令으로 부임해 왔는데 어느 날 그는 일본배가 그곳으로 표류해온 것을 보고 갖은 힘을 다하여 그네들은 구출해 주었다. 그리곤 그들을 안내하여 잘 대접도 해주었더니 며칠 뒤 선장이 찾아와서,

「영감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영감님께서 도와 주셨던 덕분으로 내일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영감님께 보답할 아무것도 없사옵니다마는 배에 약간의 약주가 있으니 한 잔이라도 올리고 싶습니다.」라고 간곡히 청했다.

縣令은 그들의 청을 받아들이기로 약속했다.

이때 선장은,

「저희들은 여러분을 모시고 싶사오나 배가 작아 부득이 현령 영감님 한 분만을 모시게 되었사오니 혼자 오셔서 놀다 가시옵기를 바랍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마음씨가 고운 현령은 그들을 따라 배까지 갔더니 뱃사람들은 갑자기 「이제 됐어. 인질로 납치해가자.」 고 하면서 그만 현령을 가두곤 닻줄을 올려 일본으로 향했다.

현령은 이 어처구니없는 왜구들의 처사에 어쩔 수 없이 반항도 못하고 일본까지 끌려가서 포로의 몸이 되었다. 이래서 현령은 너무나 의외의 참변을 당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붙잡혀간 지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수심과 피로 끝에 잠든 현령은 꿈속에서 그리웠던 고국의 仙岩寺 주지를 만났다.

「스님, 이 일이 웬 일이 옵니까? 저는 일본 뱃사람을 구출해준 덕분에 영어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스님, 제발 저를 구해주옵소서.」 라고 두 손 모아 빌었다.

「가히 염려 마오. 죄짓지 않았으니 돌아갈 길도 있겠지요.」 라고 정좌를 하면서,

「옷을 바로 입고 바닷가로 나갑시다.」 하면서 길 앞에 섰다.

바닷가엔 조그마한 배 한 척이 있었다. 스님은 「빨리 배에 오르시오.」 라고 손짓을 했다.

현령은 같이 가길 원했으나 스님은 고개를 흔들며,

「혼자 가오.」 라고 하면서 배를 왈칵 밀었다.

현령이 깜짝 놀라 깨어보니 우리나라 동평현 자기 집에 돌아와 있었다는 것이다.

*박원표, 『향토부산』, 태화출판사, 1967, 169~171쪽.

[부산진구 설화 3]

새미山 전설

聖知谷 水源池 東便이 即 새미山인데 이 山을 社稷洞人들은 돌작골 또는 돌작등이라고 하며 山腹에 寺刹이 有한데 此亦世美寺라 한다.

1. 山腹에 「배를굴」 이라는 洞窟이 現存한 데 크기는 大人이 兩팔을 펴고 들어가도 거침없으며 깊이는 얼마나 되는지 끝까지 가본 사람이 없다. 過去 平和時에 壯丁 數10人이 燭火로서 入窟하여 보았는데 처음에는 조금 斜下面으로 數時間 繼續하다가 다음에는 좀 더 傾斜가 되며 깊이 내려가기로 또 數時間 繼續하다가 危險하기로 退窟하였다 한다. 窟壁은 全部 岩石으로 되어 있고 人造는 아니요, 天然作은 틀림없다. 壬亂 時 近住民이 倭軍이 올 때마다 避身한 곳이며, 窟口에는 恒常 거미줄을 쳐두었기 때문에 倭軍들도 속았다고 한다. 그 後로부터 此山을 生命山이라 하여 오늘날 새미산이란 說도 있음.
2. 此山에 옛날 鐵物(쇠물)이 많이 나왔기에 金湧山이라 하며 쇠뫼라고 했다는 說도 있음.
3. 世美寺 앞에는 將軍바위가 있는데 이 바위에는 將軍들이 놀던 자취가 있고 바둑판도 있다 한다.

*김의환, 『부산의 고적과 유물』, 아성출판사, 1969, 139~140쪽.

[부산진구 설화 4]

草邑洞의 移動說

前述과 같이 草邑은 過去 도문골(돌못골)에 蓮花洞으로 有하기로 其時敎育機關인 書堂도 蓮花蓮池고대 (釜岩) 3洞 中心인 서제골에 있었든 것이 確實하며 名門大家들이 居住한 模樣인데 東平縣이 生긴 後 壬亂前 邑地를 物索하는 名士들이 現 草邑洞을 찾아들려 본바 山勢가 좋고 地理가 陰陽에 맞다 하여 이곳을 于先 邑地로 抄(點처) 해놓고 또 이보다 더 좋은 곳이 있나 物索하였고 또 一方 名士들은 北面 杜邱洞을 보고 地勢는 좋으나 두고 보자 하여 現 東萊邑에 들어 본바 東으로 鶴首臺와 南으로 大島抱卵形이 서울 長安 山勢와 相比할 만한 大地임으로 東萊로 安邑하고 두고 온 곳은 杜邱洞으로 命名하고 抄邑은 初, 草邑으로 되어 過去 40年 前까지도 西下面, 西面 面事務所로 執務하고 있었으며 此로 因하여 他 地方보다 앞서 開明하고 人材와 文賢이 많이 났으며 아직도 그 餘波가 남아 있다.

*김의환, 『부산의 고적과 유물』, 아성출판사, 1969, 141쪽.

4) 서구 설화

[서구 설화 1]

새뛰기의 由來

天馬山下에 있는 南富民洞은 지금도 「새뛰」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이 마을은 壬辰倭亂 때부터 생겼다고 하는데 當時에는 不過 집이 한 채밖에 없었다고 한다. 그래서 倭人들의 記錄에는 一家(一쓰야)라고 傳해 있었으며, 合併 後에도 불리고 있었다고 한다. 「새뛰」라는 말을 漢字로서 草梁이라고 傳記되어 왔는데 그 뜻은 「草」 即 새(갈대), 梁(뛸다리 량) 即 뛰를 뜻한다고 한다. 結局 釜山浦에는 두 草梁이 있었는데 「새뛰」가 먼저 되었다고 舊草梁, 지금의 草梁은 新草梁으로 부르고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百年 前 東萊府使로 있던 鄭顯德이라는 사람이 「같은 고을에서 두 이름 當時어서 (처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不便하니 새뛰는 富民洞이라 하고 後부터 富者가 많았는 모양) 新草梁만으로 草梁이라고 하라」고 한 以부터 富民洞으로 부르고 있으며 府制實施 後 너무 地域이 廣範했으므로, 지금의 富民洞과 南富民洞으로 갈랐다고 한다.

*김의환, 『부산의 고적과 유물』, 아성출판사, 1969, 113쪽.

5) 연제구 설화

[연제구 설화 1]

摩訶寺의 一六羅漢

金蓮山 摩訶寺의 건립은 신라 때보다 三〇〇여 년을 거슬러 올라가서 고구려 시대에 창건된 것으로 추측되므로 그 오랜 역사는 전국적으로도 희소한 古利의 하나로서 마하사의 一六羅漢의 전설은 너무나 유명하다.

지금으로부터 五00여 년 전 어느 해 동짓날 밤에 마침 절간에 있던 불이라고 이름 붙은 것은 모두 꺼져버렸다. 당시는 지금과 같이 성냥불이 없었던 때였으므로 화덕에다가 불쇠를 꽂아 불을 부쳐 써 왔던 까닭에 할 수 없이 그날 밤을 어둠속에서 세우고 아침에 住持가 부엌에 나가 보니 뜻밖에 화덕에 불이 부쳐져 있었으므로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때 남산에서 烽火를 지키는 사람이 절을 찾아와서 말하기를 어저께 밤처럼 눈보라가 심하던 험한 산길에 상좌 아이를 불을 얻으러 보내왔기에 불을 주고 그 모습이 너무나 애처로워 죽을 끓여 먹여 보냈다는 말이었다. 그러나 절에서는 그런 동자를 보낸 일이 없었기에 이상한 일이라 생각하고 동지 팥죽을 쑤어 羅漢殿에 올리려고 갔더니 一六 나한 중 오른쪽에서 세 번째의 나한 입술에 팥죽이 묻어 있었으므로 그제야 중은 이 나한님이 불 없는 것을 보시고 童子로 화신하여 불을 얻어다 죽을 쑤게 한 것인 줄 깨달았다고 한다.

이렇게 하여 一六 나한님의 신통력을 알게 된 스님들은 모두들 놀래기만 했고 그 뒤 소문이 檀家에 퍼져서 찾아오는 신도가 많았다고 한다.

*박원표, 『향토부산』, 태화출판사, 1967, 182~184쪽.

[연제구 설화 2]

鄭廟寺傳記

傳說로서 本寺 內 神佛의 靈함을 傳하는 다음과 같은 일이 있다. 法堂 內에 鄭氏 門中人들이 많이 모여 놀 제 酒肴로 滿醉되고 喫煙으로 堂內가 자못 紊亂한지라 그런 중 갑자기 堂內 사람 全部가 頭痛이 나고 全身이 아플 제, 뭇 醫師를 불러 治療하였으나 靈驗이 없으며 其中 數人이 佛前에서 不遜했으니 精誠을 들여 佛供하자고 議論되어 實行했더니 全員 一時에 快癒하였다 한다.

*김의환, 『부산의 고적과 유물』, 아성출판사, 1969, 148쪽.

[연제구 설화 3]

羅漢臺의 靈驗

距今 80餘 年 前 참새라는 鳥群이 亂集하여 淸淨道場을 不深케 하여 當時 穀物에 被害가 甚多하므로 羅漢臺 앞에 鳥群을 물리쳐 달라는 祈願을 하였던 바 어느 날 庭中에 죽은 참새 한 마리가 있는 뒤로는 現今까지 참새라는 鳥群은 影絶이 있다는 靈驗이 있어 堂中에서는 古來로부터 冬至에는 팥죽으로써 佛前에 夜中供養을 올리는 例가 있다. 距今 百年前 冬至날 밤에 不幸히 寺中에 絶火되여 표죽[14] 供養을 올리지 못하고 大衆이 걱정中이든 바 南山烽火守直家에서 來한 童子가 불을 가져 줌으로 此火로써 죽을 지어 佛前에 올렸든 바 平明에 烽火守直人이 來日 過夜中에 寺中 童子神님이 불을 빌리려 왔음으로써 불을 보내고 죽 供養을 시켜 보내었다는 말이 大衆은 羅漢님의 神通을 驚祝하였다는 傳說이 있다.

*김의환, 『부산의 고적과 유물』, 아성출판사, 1969, 151쪽.

14) '팥죽'의 오식으로 보임(편자 주).

6) 영도구 설화

[영도구 설화 1]

太宗台 앞 주전자 섬

影島의 절경인 太宗台 앞바다에 바위로된 無人島가 우뚝 솟아있다.

이 작은 돌섬을 鍮盆島라고 부르기도 하고 주전자 섬이라고도 부른다. 이 섬엔 신기한 이야기가 한두 가지 전해 내려오고 있으니 소개해 두겠다.

이 섬에서 고기를 낚다가 대변을 하면 그날은 종일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고 漁具를 전부 잃어버린다고 한다.

그리고 만일 남녀가 이 섬에서 雲雨의 정을 일으키면 며칠 동안 큰 병을 앓게 된다고 한다. 또 이 섬엔 불을 놓지 못한다는 얘기도 전해 내려오고 있으니 다음과 같은 유래에 인한 것이다.

옛적에 東三洞에 살던 한 어부가 매섭게 추운 겨울날 고기잡이를 하다가 추위를 이기지 못하여 이 섬에서 불을 놓았다. 이때 동행한 어부가 책망하길 「이 섬엔 옛날부터 불을 놓지 못한다고 하는데 오늘 자네가 불을 놓았으니 우리들에게 불길한 일이 생길는지 모르니 조심하게.」라고 말했으나 이 어부는 한갓 미신이라고 말하고 개의치 않고 고기를 낚았으나 이상하게도 온종일 한 마리의 잡어도 잡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왔다.

그날 밤 그 어부는 꿈속에서 주전자섬의 전체가 불덩어리로 변하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 후부턴 뜻하는 일마다 모두 실패만 거듭하다가 원인모를 병으로 사망하고 말았다고 한다.

*박원표, 『향토부산』, 태화출판사, 1967, 171~173쪽.

7) 중구 설화

[중구 설화 1]

鄭公의 遺事

忠壯公 鄭撥將軍의 字는 子固요 本來 慶州人으로서 公의 先人은 高麗朝의 忠臣이었으며 李朝에 이르러서는 의 父는 公諱를 明善이라고 하였고 杆城郡守로 계셨으며 公의 母夫人은 觀察使 南宮淑의 女로서 嘉靖 癸丑年에 生公하셨으며 公은 幼時부터 讀書를 좋아하시고 言笑가 적었다 하며 書中에서 얻은 것을 반듯이 窮行하셨고 또한 奧文僻書라도 물으면 서슴지 않고 答하는 才操가 있었다 한다. 公은 25歲에 武科에 登第하고 海南縣監으로 계시며 善政하였으며 鐘城에 赴任하여 北路를 平征하시고 其後 巨濟縣監 渭原郡守等 職을 經하여 訓練院副正으로 계셨으며 이때 倭寇의 動態가 異常하므로 朝廷에서는 將軍을 國南關門의 鎭守의 重職에 除授하시었다. 當時의 國家實情과 時局의 動向을 洞察하신 將軍은 그 責任의 重하심을 알고 赴任 初부터 決死的 精神을 굳게 하셨다 하며 그 一例를 들면 公의 一子 昕이 芳年 14歲로서 公을 모시고 왔다가 時局의 急迫해진 壬辰 4月 初3日 設宴하여 昕을 불러 말씀 하시기를 今日은 吾父子永訣之日이라 하시고 父子同死는 無益하니 너는 急히 돌아가서 吾母와 汝母를 奉養하라 하시고 혼자 가기를 싫어하시는 昕을 꾸지져서[15] 從者를 시켜 馬上에 앉히고 急히 가게 하였다 한다. 또 公은 일찍부터 倭寇의 亂을 豫想하시고 幕賓으로 있는 李可猛 庭憲公과 守城할 計策을 相議할제 때가 이미 時急하매 兵艦을 建造할 수는 없으니 不得己 應急策으로 4月 9日을 期하여 開市하여 市場에 모인 사람으로써 兵士 代로 禦寇하려는 計策을 세웠다 하며 이 後로부터 釜山에는 4, 9日에 開市하게 되었다 한다.

宣祖 24年 壬辰 4月 13日, 드디어 倭寇은 小西行長을 先鋒으로 하여 大兵이 釜山에 侵入하게 되었다. 이 急報를 들은 將軍은 即時로 威甲을 가추고 軍士들을 動員하여 埠頭에 나가 보니 안개가 자욱한데 數百隻의 敵艦이 이미 바다를 덮었고 銃丸이 비 오듯이 하는 지라 即時로 兵艦 3隻으로써 邀擊하였으니 賊은 西洋傳來의 火繩銃과 大軍이며, 이쪽은 활을 쏘는 小數의 軍士로 數에 있어서도 衆寡不敵이라 나아가서 싸움에 利 없음을 알고 公은 籠城할 決心을 하고 士卒에 命하여 埠頭에 떤 배를 破船沈沒케 하고 域外 人家를 燒火시키고 軍士를 거두어 城 안으로 들어와 城門을 굳게 닫고 禦城할 기구를 가추게[16] 하고 한편 使者를 隣近 各處에 보내어서 求援兵을 請하였다.

이날 밤 달이 낮과 같이 밝았는데 倭寇가 城의 四面을 鐵踊같이 包圍한지 公은 城樓에 올라가서 칼을 잡고 서서 瞽者를 시켜 퉁소를 불게 하였으며 城內 兵民을 平日처럼 安眠시켰다 한다. 翌朝에 敵이 攻擊을 始作하매 鎗劒이 수풀 같고 砲聲이 天地를 震動하는 지라 새벽에서 日

15) '꾸짖어서'의 오류(편자 주).
16) '갖추게'의 오류(편자 주).

中까지 싸우매 敵의 死體가 山積한 곳이 三處라 하였다. 城中에서는 弓矢가 없어지매 一 牌將이 暫時 避城하기를 請하였으나 公은 不應하여 말씀하시기를 내 이 城의 鬼가 되련다. 다시 避城을 말하는者 있으면 斬首하리라 하고 다시 軍中에 下命하여 가고 싶은者 任意로 가라 하니 士卒이 서로 울며 一人도 公의 身邊을 떠나는 者 없었다 한다. 弓矢가 다한 뒤에 公은 다시 門樓에 나아가 蓋瓦를 걷어서 數 10名의 敵을 죽였으며 血戰 끝에 公은 銃丸에 傷處를 입고 壯烈한 戰死를 하시니 公의 時年이 40이었다 한다. 의 때 公의 侍妾愛香은 18歲로서 公의 戰死함을 보고 屍體 옆에서 自剄하고 또 이를 모시고 있던 侍女 龍月이는 덤비는 倭寇과 싸와 數名을 죽이고 또 勇敢히도 戰死하였으며, 幕賓 李司猛庭憲公도 東門에서 勇戰하다가 弓矢이 다하여 戰死하니 時年이 24歲라 하며 鄭公壇에는 이때의 李庭憲公과 忠僕龍月이 烈女愛香도 合祀하여 忠節을 追慕하고 있다. 亂後에 倭將 平調信은 公의 忠勇과 愛香의 節을 讚嘆하였으며 倭兵이 渡海 初에 오직 釜山에서 크게 挫折되었을 뿐 其餘는 無人地境을 가는 것 같더라고 하였으며 即後日에 倭人으로서 來朝者는 모두다 釜山의 黑衣 將軍이 可畏라 하였다 한다. 亂이 平征되자 朝廷에서는 公의 戰功을 致賞하고 資憲大夫兵曹判書를 追贈하였다가 後에 崇政大夫議政府左贊成 兼判義禁府事 五衛都摠府 都摠管으로 加贈하였으며 諡號를 忠壯公이라 하였다. ※ 黑衣將軍이란 血戰 時의 戰袍가 黑色이던 까닭이라고 한다.

*김의환, 『부산의 고적과 유물』, 아성출판사, 1969, 130~131쪽.

[중구 설화 2]

李庭憲公과 釜山城

前後 7年間이나 繼續되면 壬辰의 倭亂도 平定이 되자 朝廷에서는 各地 守令을 配置하여 亂中에 흩어진 政事를 整理하게 하니 鄭撥將軍 以下 釜山鎭의 守護神으로 化한 자리에도 새로운 僉使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런데 어쩐 일일지 釜山僉使만이 赴任한지 數日만에 急死의 變을 當케 되었다. 朝廷에서는 再次 入選하여 釜山僉使로 내려 보내나 또 赴任한지 數日만에 急死하고 말았다. 이러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 數次로 繼續되니 다음부터는 釜山僉使되기를 모두자 꺼을리는[17] 形便이라 朝廷에서도 하는 수 없어 舊城을 整城하여 子城台로 本城을 옮기게 하고 舊城地를 投使할 때 東門못(池) 속에서 數많은 骸骨이 나왔다 한다. 그래서 이 骸骨을 모아서 子城臺 밑에다 묻었더니 하루 저녁에 이 마을 한 老人의 꿈에 威甲을 갖춘 將帥가 무서운 形勢로 나타나 하는 말이 「나는 李庭憲이다. 壬辰年亂時 釜山鎭城에서 鄭公과 같이 釜山鎭을 지키다가 戰死하였으나 朝廷에서는 나의 이 功勞를 아는 者 아무도 없어 마음속 섭섭하기 짝이 없다. 그래서 이 서러운 事情을 呼訴하려고 歷代 釜山僉使의 夢中에 나타났더니 모두 다 少人

17) '모두 다 꺼리는'의 오류로 보임(편자 주).

이라 마처[18] 말도 하기 前에 죽어버리기에 哀痛한 感을 참지 못하는 바다」라고 말하더니 사라지고 말았다 한다. 그런 일이 있고 난 그 뒷날부터 그 고을에 갑작이 病이 流行되어 急死者가 하루 날로 40餘人이나 生겼다 한다. 이에 꿈을 꾼 老人이 異常케 여겨서 事實 緣由를 東萊府使에게 告하였더

當時의 府使 朴明漢公은 即時 李庭憲의 功勞를 上疏하여 追贈을 내리게 하고 몸소 이곳에 가서 旗幟를 갖추고 軍皷를 울리고 祭事를 크게 지내어 魂靈을 慰勞했더니 其後로부터는 無事하였더라고 한다.

*김의환, 『부산의 고적과 유물』, 아성출판사, 1969, 132~133쪽.

[중구 설화 3]

七塚의 傳說

亦是 壬辰後 釜山의 舊城址를 整理하기 爲하여 役事를 하며 지금의 社稷洞 近處를 팠더니 亂時 戰亡한 人事의 骸骨이 無數히 나왔다 한다. 이것을 차례대로 크게 굴을 파고 묻었더니 無慮 커다란 墓가 일곱이나 되었다고 하며 이 일곱墓를 七塚이라 傳하여 온다.

*김의환, 『부산의 고적과 유물』, 아성출판사, 1969, 133쪽.

18) '미처'의 오식으로 보임(편자 주).

4. 지역 미상 설화

[부산광역시 설화 1]

계모(繼母)의 학대

옛날에 마음씨가 아주 나쁜 계모(繼母)가 있었습니다.

계모한테는 두 딸이 있었는데, 하나는 전실(前室) 자식이고, 하나는 자기가 낳은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겨울이었습니다.

이미 며칠째 눈이 내려서 산천이 온통 흰 눈으로 덮인 데다가 그 날은 바람마저 살을 에는 듯이 몹시 차갑게 불어대는 날씨였습니다.

계모는 전실 딸을 불렀습니다.

"아이구, 얘야, 네 가서 상추불똥나물[19]을 캐 가지고 오너라. 내가 먹고 싶어서 못 살겠다."

그러면서 떠밀 듯이 밖으로 내쫓는 것이었습니다.

사방 천지가 흰 눈으로 덮인 엄동설한에 상추불똥나물을 어디 가서 캔단 말인가. 전실 딸은 집에서 쫓겨 나와 갈 곳이 없었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 전실 딸은 죽은 어머니 무덤에나 한 번 가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뒷산 골짜기에 있는 어머니 무덤을 찾았습니다. 어머니 무덤을 보는 순간, 딸은 쏟아지는 눈물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딸은 한없이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리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꿈에서 어머니가 나타나 딸의 손을 잡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얘야, 여기서 얼마를 가면 돌방석 문이 있을 테니, 거기 가서 '층층버들 밑에 전복새야 문 열어라. 이복새야 내 들어간다.' 이렇게 하면 총각이 문을 열어 줄게다. 그리로 들어가면 상추불똥나물을 캘 수 있을 게다."

딸은 꿈을 깨고 눈을 떴습니다.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무덤에서 얼마를 더 걸어가니 정말 커다란 돌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층층버들 밑에 전복새야 문 열어라. 이복새야 내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잠시 기다렸더니 낯선 총각이 나와서 돌문을 드르륵 열어 주는 것이었습니다. 딸이 안으로 들어가자, 다시 총각이 물었습니다.

"내 올 줄 알았다. 무슨 이유로 왔는가?"

"우리 계모가 동지섣달 상추불똥나물이 먹고 싶어서 나보고 캐오라 해서, 그래 갈 데 올 데가 없어 우리 엄마 무덤엘 가서 울고, 그러다가 잠이 들었는데, 우리 엄마가 현몽(現夢)[20]을 하기

19) 상추잎 가운데서 끄트머리에 나 있는 아주 작은 잎으로 빛이 옅고 산뜻하며 부드럽다.
20) 꿈에 죽은 사람이나 신령이 나타남.

로 이리로 가서 총각 이름을 부르면 상추불똥나물을 캘 수 있을 거라고 해서 왔다."

그러자 총각은

"알겠다."

하고는, 쌀독에서 쌀을 조금 꺼내 물로 씻더니 무슨 말인지 중얼중얼 하면서 쌀뜨물을 온 마당에 사방으로 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어느 틈에 상추불똥나물이 쫑긋쫑긋 올라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딸은 총각한테서 상추불똥나물을 한 바가지 얻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상추불똥나물을 못 캘 줄로 알았던 계모는,

"아이구, 얘야, 네가 어디서 그걸 캤니? 재주도 좋다."

하고, 전실 딸이 구해 온 상추불똥나물을 걸신(乞神)[21]들린 것처럼 먹어치웠습니다. 그러나 계모는 이 엄동설한에 전실 딸이 상추불똥나물을 캐 온 것이 너무도 이상했습니다.

그럭저럭 또 며칠이 지났습니다.

계모는 또 전실 딸을 불렀습니다.

"아이구, 얘야, 죽순(竹筍)이 먹고 싶구나."

계모는 자기 딸로 하여금 몰래 뒤를 밟아서 전실 딸이 가는 곳을 알아보도록 할 생각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전실 딸은 어쩔 수가 없어서 다시 총각을 찾아갔습니다.

"층층버들 밑에 전복새야 문 열어라. 이복새야 내 들어간다."

이 말을 들은 총각은 문을 열면서,

"올 줄 알았다. 또 무엇 때문에 왔느냐?"

"우리 계모가 상추불똥나물을 먹고 나서, 또 죽순나물이 먹고 싶어 못 살겠다 하니, 갈 데는 없고 해서 한 번 신세 진 곳에 또 왔다."

"잘 왔다."

이번에도 총각은 쌀을 가지고 와서 쌀뜨물을 받아서 온 마당에 뿌리면서 뭐라 뭐라고 중얼거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죽순이 삐죽삐죽 솟아올랐습니다. 총각은 죽순을 한 바가지 가득 담아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녀를 뒷마당으로 데려갔습니다.

"이 흰 꽃은 사람이 죽으면 살이 생기게 하는 것이고, 붉은 꽃은 피가 생기게 하는 것이고, 푸른 꽃은 힘줄이 생기게 하는 것이고, 그 옆에 옹달샘의 물은 입에 넣으면 숨이 터지고 사람을 살게 하는 약물이다."

하고 일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계모의 딸은 전실 딸이 돌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을 보고는 집으로 돌아와서 자기 어머니한테 이야기했습니다. 계모는 전실 딸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아이구, 얘야, 네가 어디서 이걸 캤니? 재주도 좋다."

21) 음식을 몹시 탐내는 욕심.

하고, 다시 자기 딸에게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네가 죽순나물 좀 캐어 오너라."

계모의 딸은 이미 몰래 보아 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곧바로 총각을 찾아갔습니다.

"층층버들 밑에 전복새야 문 열어라. 이복새야 내 들어간다."

그러자 안에서 총각이 말했습니다.

"듣던 소리 아닐러라. 보던 얼굴 아닐러라."

그리고는 아무리 기다려도 돌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에 그만 계모의 딸은 화가 났습니다. 억지로 돌문 안으로 겨우 기어들어 간 그녀는 총각을 보는 순간 칼로 총각의 목을 찌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전실 딸은 죽순나물을 못 캐고 돌아온 계모의 딸을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계모 몰래 총각을 찾아갔습니다.

"층층버들 밑에 전복새야 문 열어라. 이복새야 내 들어간다."

아무리 불러도 안에서는 기척도 없었습니다. 틈을 비집고 돌문 안으로 들어가 보니, 총각은 목에 칼이 꽂힌 채 죽어 있었습니다.

처녀는 총각의 목에서 칼을 뽑고, 그 자리에 흰 꽃을 가져다 문질렀습니다. 그리고 다시 붉은 꽃과 푸른 꽃을 갖다가 자꾸 비볐습니다. 마지막으로 옹달샘에서 물을 길어다 총각의 입에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어허, 한잠 잘 잤다."

하고, 총각이 깨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총각과 처녀는 백년가약(百年佳約)[22]을 맺고 다시는 이 세상에 나오지 않은 채로 평생을 잘 살았다고 합니다.

*곽정식, 『이야기에 비친 선인들의 삶 -우리 고장 부산의 전래 설화』, 경성대학교 출판부, 2000, 13~18쪽.

[부산광역시 설화 2]

가난한 효부(孝婦)

옛날에 집이 아주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형편은 점점 더 어려워졌고, 끼니조차 굶어야 할 때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러 가지로 궁리한 끝에 돈벌이를 찾아서 집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일찍이 홀로 된 어머니와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눈이 멀어서 앞을 보지 못하는 데다가 가난한 살림에 제대로 먹지도 못해서 기운을 차릴 수가 없었습

22) 결혼하여 평생을 같이 지낼 것을 약속함.

니다.

눈먼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보고 매일같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야야, 이러다간 내가 죽을 것 같구나. 고기 좀 먹게 해다오."

그러나 며느리는 끼니도 제대로 잇지 못하는 형편에 시어머니의 청을 들어 줄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고기를 해 드리지 못하는 하루하루가 너무도 힘들고 지루하였습니다. 며느리는 그러나 무슨 수를 써서라도 시어머니에게 고기를 대접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런 궁리, 저런 궁리를 하던 끝에 며느리는 들로 나갔습니다. 밭가에 앉아서 흙을 파고 지렁이를 잡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렁이를 고아서 시어머니에게 드리자 시어머니는 맛있게 먹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기를 먹어 본 지가 너무도 아득해서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야야, 내가 먹은 이 고기가 무슨 고기냐?"

그러나 며느리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얼버무려 넘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지렁이 삶은 것을 매일같이 먹어서 마치 부은 듯이 살이 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먹는 고기가 무슨 고기인지 도대체 며느리는 알려 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지만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고깃국을 먹을 때마다 고기 건더기를 하나씩 건져 삿자리[23] 밑에다 넣어놓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돈벌이를 하기 위해서 집을 나갔던 아들이 아무리 돌아다녀도 돈벌이는 되지 않고 죽도록 고생만 하다가 할 수 없이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집에 돌아와 보니깐 어머니는 토실토실 부은 듯이 살이 쪄서 딴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너무도 놀랍고 반가워서 물었습니다.

"아이구 어머니요. 웬 일로 이렇게 살이 찌고 얼굴이 좋습니까? 나는 돈 벌러 갔다가 돈도 못 벌고 왔습니다."

"야야, 네가 집을 나가고부터 며느리가 날마다 고기를 고아 줘서 그걸 먹고 내가 이렇게 살이 쪘다."

"무슨 고기를 잡수셨어요?"

"야야, 안 그래도 네가 오면 보여주려고 이 삿자리에 밑에다가 고기 건더기를 모아놨는데 한번 봐라."

아들은 어머니가 앉아 계신 삿자리를 걷어 올렸습니다. 그러자 방바닥에는 지렁이 껍데기가 수북히 쌓여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구 어머니, 지렁이입니다."

"뭐! 지렁이가?"

어머니는 너무나 놀란 나머지 감겼던 눈을 퍼뜩 뜨게 되었습니다.

23) 갈대로 결어 만든 자리.

착한 며느리 덕분에 어머니는 밝은 세상을 볼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곽정식, 『이야기에 비친 선인들의 삶 -우리 고장 부산의 전래 설화』, 경성대학교 출판부, 2000, 51~53쪽.

[부산광역시 설화 3]

천벌(天罰) 받은 며느리

옛날에 어느 나무꾼이 몹시 가난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나무를 하기 위해 산을 오르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하루에 나무 한 짐을 해다가 장에 나가 팔면 그것으로 겨우 하루를 먹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로서는 아무리 부지런하게 일을 한다고 해도 호랑이보다도 더 무서운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아내가 어디서 듣고 왔는지 나무꾼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어머님을 없애야만 우리가 부자로 잘 살 수 있답니다."

"쓸데없는 소리. 어느 놈이 그러더냐?"

"보소, 우리가 어머님을 없애야 우리가 매일 나무를 안 해도 부자가 되겠답니다."

"그래도 그렇지, 어째 우리가 어머니를 없앨 수가 있나?"

그러나 옛말에 열 번 찍어 안 넘어 가는 나무가 없다고 했듯이, 남편은 아내가 자꾸 졸라대는 바람에 그만,

"그러면 네가 알아서 그래 봐라."

하고 승낙을 하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멀리 장을 보아 가지고는 반찬을 잘 장만해서 시어머니에게 드리고, 또 깨끗이 씻은 옷을 입혀서 아들이 등에 업고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에는 백 년이 넘게 묵은 아름드리 고목나무 두 그루가 나란히 서 있었는데, 마침 사람 하나 들어앉을 정도의 구멍이 나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한 고목나무 구멍에다 자기 어머니를 내려놓고는 이리저리 검불[24]을 주워 나무 밑으로 끌어 모았습니다.

어느덧 해가 저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아들과 며느리는 검불 더미에다 불을 놓고는 급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불은 훨훨 검불 더미를 태우더니 얼마 안 가서 고목나무를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탁! 탁!

나무가 타들어 가는 소리가 들려 왔습니다. 겁에 질린 어머니는 꼼짝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한 떼의 도둑들이 불을 보고 나타났습니다. 불이 훤하게 타고 있는 고목나

24) 마른 풀이나 나뭇잎.

무 밑에서 그들은 제각기 훔쳐온 엽전들을 숱하게 쏟아 놓고 열심히 헤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어머니는 갑자기 기침이 나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기침을 해도 죽을 것 같고, 안 해도 죽을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도저히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죽으나 사나 딱 한 번만 기침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콜록!"

어머니는 더욱 겁에 질려서 나무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적떼가 기침 소리에 놀라서 혼비백산(魂飛魄散) 사방으로 흩어져 달아났습니다. 그러나 불은 여전히 훨훨 타올라 왔습니다. 엉덩이가 뜨끈뜨끈할 정도로 가까이 다가온 것입니다.

이때 난데없이 큰 학이 한 마리 푸드덕 날아와서는 어머니를 덜렁 물어서 불이 안 붙은 고목나무에다 내려놓았습니다.

이럭저럭 밤이 가고 새벽이 밝았습니다. 어머니는 고목나무에서 내려와 어젯밤 도둑떼들이 돈을 헤아리던 곳으로 가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엽전이 수두룩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돈을 치마 가득히 담아 뒷산을 내려왔습니다.

어머니가 가져온 돈으로 아들과 며느리는 논도 사고 밭도 사고 해서 부자로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며느리는 욕심이 났습니다.

"보소, 보소. 어머님처럼 나를 한 번만 업어다 고목나무에 놓아 주시오."

하고 남편을 졸라댔습니다.

"우리가 이것만 해도 잘 살겠는데, 뭐 하려고 그다지도 욕심 많은 짓을 하려나?"

남편은 욕심 많은 아내를 나무라면서 몇 번이나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기어코, 꼭 한 번만 데려다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할 수 없이 남편은 아내를 깨끗이 빨래한 옷으로 갈아 입혀서 업고는 뒷산으로 올라가 안 탄 고목나무 구멍에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검불 더미를 끌어 모아 불을 붙여 놓고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었는데도 아내가 나타나지 않자 남편은 궁금해서 뒷산으로 올라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생겼습니다. 아내는 고스란히 나무와 함께 불에 타 죽어 있었던 것입니다.

*곽정식, 『이야기에 비친 선인들의 삶 -우리 고장 부산의 전래 설화』, 경성대학교 출판부, 2000, 54~57쪽.

[부산광역시 설화 4]

좀시래기 이야기

옛날에 좀시래기, 요새 같으면 구두쇠라 할까요. 그렇게 아주 인근에 소문난 좀시래기 집안

이 있었답니다.

그런 집안에 한 여자가 시집을 오게 되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이제 갓 시집 온 며느리에게 이렇게 당부하는 것이었습니다.

"밖에서 손님이 오거든 안주를 내놓을 때, 만일 김치를 썰어서 내놓을 때는 아주 잘게 썰어서 내놓도록 하여라."

그렇게 해아 손님이 주워 먹다, 주워 먹다, 그만 재채기가 나서 많이 못 먹고 간다고. 그래서 잘게 썰어 내놓아라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집안에 다시 둘째 며느리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시아버지가 큰며느리한테는 그렇게 교육을 잘 시켜놓았지만 둘째 며느리한테는 그만 잊어버리고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했더랍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침 손님이 갑가지 찾아오게 되었고, 둘째 며느리가 부엌에 있다가 안주를 내오는데, 김치를 썰지도 않고 온포기를 쟁반에 담아 내오더란 말입니다. 이것을 본 순간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그만 간이 뚝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손님이 있는 앞에서는 아무리 좀시래기라 할지라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손님이 가고 나자 대뜸 시아버지는 둘째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야야, 이래 가지고 네가 살림을 어째 살 것이냐? 네 형님 하는 걸 본도 못 봤나?"

"아버님, 형님 하는 게 잘하는 겁니까? 제가 하는 게 잘 하는 거지요. 제 말씀 한 번 들어보이소."

둘째 며느리는 시아버지한테 따지듯이 말했습니다.

"형님이 김치를 잘게 썰어 놓은 것은 손님이 먹고 가지만, 온포기를 내다 놓은 것은 이리 뒤집고 저리 뒤집고 하다가 젓가락만 대고는 하나도 못 먹고 갔습니다."

"그래 맞다. 네가 살림을 아주 여물게 산다. 너라야 이 집안 살림이 되겠구나."

그래서 그만 온 살림을 작은며느리한테 맡겼습니다.

하루는 작은며느리가 이른 아침 새벽녘에 방안에 누워 있는데, 새우젓 장수가 집 앞에서,

"새우젓 사이소. 새우젓 사이소."

하고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리나케 작은며느리는 부엌에서 함지박을 가지고 나가서 새우젓 장수를 보고,

"한 그릇에 얼마요?"

하고 물었더니, 새우젓 장수가 얼마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알았다는 듯이 작은며느리는,

"그럼, 여기 몇 그릇 부어보소."

그러자 새우젓 장수가 기분 좋은 얼굴로 몇 그릇을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작은며느리는 다시 새우젓 장수에게 물었습니다.

"이거 얼만데요?"

"그래 얼마요."

"이거 너무 비싸다. 이러면 나 못 사겠소."

작은며느리는 함지박에 담긴 새우젓을 다시 새우젓 장수다 지고 온 큰 통에다 부어놓고는,

"돈도 없고 너무 비싸서 나 못 사니 다음에 또 오소."

작은며느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 안으로 돌아와서 그날 아침에는 함지박에 묻은 새우젓을 씻어 넣고 국을 끓였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부엌에 나와서 국맛을 보니까 그날따라 국맛이 좀 다른 것 같았습니다.

'이거 분명 간장만 넣고 끓인 것이 아닌 거여. 뭣이 비린내가 나고 조금은 색다른 맛이 나더란 말이지?'

이렇게 혼자 생각한 시어머니는 그래서 작은며느리한테,

"야야, 오늘 아침에 국맛은 좀 이상하구나. 국을 어째서 이렇게 끓였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작은며느리는,

"예. 새우젓 장사가 지내가길래 제가 꾀를 내서 함지박에다가 '몇 되 부어 봐라' 해 가지고는 다시 부어 주고 그걸 씻어 넣고 국을 끓였습니다."

하고, 자랑스러운 듯이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속으로

'저년 저거, 사람 안되겠구나.'

하는 걱정을 하면서,

"그걸 야야, 하루 아침에 우째 다 끓이노? 그 놈을 씻어가지고 장독에다가 부었으면 우리가 일 년은 먹을 거 아니가? 그 아까운 것을 하루 아침에 다 먹어 버리나?"

꾸중을 들은 작은며느리는 부엌에서 쫓겨나다시피 밖으로 나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너무도 섭섭했습니다. 어쨌거나 시아버지에게 하소연이나 한 번 해보자고 생각하였습니다.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그래도 시아버지는

'참, 네 꾀가 용하다. 참 잘했다.'

이렇게 빈말이나마 해 주실 것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얼마간 삽짝 밖에 서 있으려니까 바깥에 잠시 볼 일이 있어 나갔던 시아버지가 들어오다가 작은며느리를 보고,

"야야, 여기서 뭘 하노?"

하고 물으셨습니다.

"아버님, 오늘 아침 국을 제가 이런저런 꾀를 내가지고 끓였더니만 어머님이 저를 살림 잘못 산다고 쫓아냅니다."

하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러자 시아버지는 정색을 하고,

"아, 쫓아내기만 해? 그 놈을 씻어 가지고 우물에다 부었으면 몇 년을 두고 먹을 건데."

하며, 아쉬운 표정을 짓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작은며느리는 그만 더 이상 할 말을 잃고 말았답니다.

*곽정식, 『이야기에 비친 선인들의 삶 – 우리 고장 부산의 전래 설화』, 경성대학교 출판부, 2000, 125~129쪽.

[부산광역시 설화 5]

조 한 이삭

옛날 어느 산골에 아버지 없이 홀어머니랑 단 둘이 가난하게 살아가는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하겠기에 산비탈에다 팔밭[25]을 일구어 조를 심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웃에 부탁해서 씨앗을 구해다가 팔밭에 뿌렸는데, 다 죽고 겨우 씨앗 하나에서 싹이 텄습니다. 그는 이것을 정성을 다 해서 잘 길렀더니, 가을이 되어 수확할 때는 이삭의 길이가 한 자 [尺] 는 족히 되는 그래서 조 이삭을 끊어 가지고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것을 가지고 가서 잘 되면 출세해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제 걱정을 하지 마시고 제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세요."

아들은 어머니에게 하직(下直) 인사를 하고는 조 이삭을 잘 싸서 등에 지고 가다가 해가 질 무렵이 되어서 어느 큰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어느 한 집에 주인을 정해 가지고 하룻밤 묵고 갈 것을 허락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집 주인을 보고,

"내가 오늘밤 자고 나면 떠날텐데, 이 조 이삭, 이걸 단단히 잘 간수해 주십시오. 이걸 잃으면 큰일입니다. 나는 이걸 가지고 앞으로 큰 성공을 할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하고는 조 이삭을 맡겼습니다.

이튿날 그가 아침밥을 먹고 서둘러 떠날려고 하면서, 집주인에게 어젯밤에 맡겨둔 조 이삭을 내놓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 일입니까? 주인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조 이삭은 낱낱이 쥐가 다 까먹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손님, 쥐가 다 까먹고 없습니다."

그러자 그는 주인에게 부득부득 조 이삭을 물어내라고 우겼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으로서는 없어진 조 이삭을 갑자기 어디서 구해 올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조 이삭을 까먹은 쥐라도 잡아내라고 억지 소리를 하였습니다. 그래 참 어쩔 수가 없어서 쥐를 한 마리 잡아 주었습니다. 주인이 쥐를 잡아 주니 그는 그 놈을 짊어지고 또 길을 떠났습니다.

이번에도 어느 한 마을로 들어섰습니다. 해가 지고 컴컴한 밤에 한 집을 찾았습니다. 저녁을 먹고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이 쥐를 단단히 간수해 주십시오. 간수를 해 놓으면 내가 내일 날 새면 데리고 떠날 겁니다."

25) 산비탈에 나무를 베어내고 일구어 놓은 밭.

그러자 주인은 이상하다는 듯이 손님에게 물었습니다.

"쥐를 어디 놔두면 좋겠소?"

"단단히 주인이 알아서 간수를 해 놓으시오."

주인은 알아서 하라는 말에 할 수 없이 헌 통에다 넣에 마루 구석에다 놓아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아침이 되어 나가 보니, 고양이가 잡아먹었는지 쥐가 없어졌습니다.

"아이구, 이를 어쩌나, 손님, 내가 통에 넣에 마루 구석에 놓아 두었는데, 고양이가 잡아 먹었는지 쥐가 없어져버렸소."

그러자 그는 주인에게 쥐가 없으면 고양이라도 잡아내라고 생떼를 쓰고 억지를 부리는 것이었습니다. 주인은 하도 기가 막혀서 할 말을 잊고 있다가 결국은 어찌어찌해서 고양이를 잡아주었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고양이를 또 짊어지고 해가 저물도록 길을 걸었습니다.

어느 한 고을에 당도한 그는 또다시 주인을 정해서 저녁을 얻어먹고 나자 고양이를 주인 앞에 턱 내놓으면서,

"주인 어른, 이 고양이를 조금 요기(療飢)를 시켜 가지고 어디 잘 좀 간수해 주시오. 내가 내일 날 새면 데리고 떠날 겁니다."

"고양이를 어디 놔 둘까?"

"아무 데나 잘 놔 두시오."

주인은 고양이를 소 마구간 옆에다 놓아두고 잠을 자러 갔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나와 보니, 밤에 소가 자면서 그만 고양이를 밟아 죽여 버리고 말았습니다. 날이 새자 손님이 주인한테 말했습니다.

"나 이제 그만 가 볼래요. 맡겨 놓은 고양이 돌려 주시오."

주인은 할 수 없이 간밤에 소가 밟아서 소가 밟아서 소가 밟아서 죽여버렸다고 실토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는 주인에게,

"고양이 밟아 죽인 소를 내놓으시오."

이번에도 생떼를 쓰고 억지를 부렸습니다. 주인이 아무리 알아 듣도록 사정 이야기를 해도 막무가내로 소를 내놓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주인은 할 수 없이 소를 내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소를 몰고 날이 저물도록 걸었습니다. 어느 고을로 들어선 그는 한 집에 주인을 정하고 저녁을 먹은 후에,

"이 소가 하루 종일 걸어 왔으니 소죽을 단단히 끓여서 주면 그 값을 내가 드리겠습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침 그 집 처녀가 바느질을 하다가 말고 캄캄한 밤에 소죽을 끓여 소에게 먹였습니다.

이튿날 아침 손님이 떠날 차비를 하면서 소를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마구간에 가 보니 소는 죽어 자빠져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젯밤 딸이 소죽을 끓이려고 나오면서 바느질하던 바늘을 앞섶에다 꽂아두었는데, 소죽에 바늘이 빠졌던지 소죽을 먹고 소가 바늘에 걸려서 죽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하고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소를 내 놓으라고 처음엔 억지를 부리던 손님이,

"그럼 소죽 끓인 처녀를 내놓으시오."

하고 주인을 못살게 졸라대는 것이었습니다. 주인은 한참을 버텼지만 결국 딸을 빼앗기다시피 주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처녀를 빼앗은 손님은 얼마동안 이 구석 저 구석 집안을 살피더니 묵은 궤짝 하나를 찾아내고는 그것을 달라고 조르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주인은 할 수 없이 궤짝을 주고 말았습니다.

그는 처녀를 궤짝에 넣어 짊어지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기로 하였습니다. 처녀를 하나 얻어서 집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무척 좋았습니다.

마침 때는 꽃 피고 새 우는 봄철이라, 도처에 사람들이 모여 술도 마시고 춤도 추면서 놀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잠시 술 생각이 났습니다. 길가에다 지게를 받쳐 놓고 처녀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여기 있거라. 나는 저기 가서 네 말하고 네 몫 얻고, 내 말하고 내 몫 얻어서 빨리 올 테니."

그러나 그는 놀이판에 휩쓸려 한 잔 먹고 두 잔 먹고 하다가 해가 저물도록 일어설 줄을 몰랐습니다.

그때 마침 처녀의 오라버니가 두부장수를 한다고 집을 떠나 사방으로 돌아다니다가 길가에 세워둔 지게에 눈에 익은 궤짝 하나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상하다. 우리 집 궤짝이 여기에 올 리가 없는데....."

하고는 다시 궤짝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 참, 이상하다. 우리 집 궤짝이 틀림없는데."

그러자 궤짝 안의 동생이 금방 오라버니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아이구 오빠! 날 좀 살려 주오."

하는 것이었습니다.

"야, 너 어째서 이렇게 됐어?"

동생이 그간 사정을 대충 이야기하는 사이에 오라버니는 궤짝 문을 열고 동생을 끌어냈고, 대신에 두부 짐을 가져다 넣어놓은 채 동생을 데리고 서둘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놀이판에 휩쓸린 아들은 술에 취해 내 몫, 네 몫도 온데간데없이 그만 곤드레만드레가 되고 말았습니다.

겨우 정신을 차려 처녀를 메고 간다면서 지게를 지고 가는데 궤짝에서는 물이 줄줄 흘러내리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그래도 기분이 좋아서

"오줌을 싸도 좋고, 똥을 싸도 좋고"

하면서 흥얼거리는 것이었습니다. 두부 짐에서 흘러내리는 물은 어느새 그의 옷을 다 적셨습니다.

그러자 그는 다시 노래조가 되어,

"오줌을 쌀 테면 잘금잘금 싸거라. 오줌을 쌀 테면 잘금잘금 싸거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자기 집이 빤히 보이는 마을 어귀에 다다랐습니다. 마음이 급해진 아들은 큰 소리로 어머니를 부르면서,

"어머니, 어머니, 앞집에 가서 병풍 얻고 뒷집에 가서 초석(草席) 얻고 그렇게 준비해 주세요."

딴에는 신부를 데리고 간다고 하는 큰소리였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아들이 성공해서 돌아왔다고 자랑을 늘어놓으면서 앞집에서 병풍 얻고 뒷집에서 초석을 얻어다 마당 가운데 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 일입니까?

아들이 집 안으로 들어가서 지게를 내려놓고 궤짝을 열어보는 순간, 처녀는 온데간데없고 난데없는 두부 짐이 들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아들은 임기응변(臨機應變)이 있었던지,

"아따, 어머니는 내가 두부 한 짐 지고 간다고 앞집에 가서 도마 얻고, 뒷집에 가서 칼 얻어라 했더니, 웬 병풍하고 초석은 뭘 할려고 얻어 왔습니까?"

하면서 엉뚱한 소리로 시치미를 떼더라고 합니다.

*곽정식, 『이야기에 비친 선인들의 삶 –우리 고장 부산의 전래 설화』, 경성대학교 출판부, 2000, 130~137쪽.

Ⅲ

기존 현장조사 민요

1. 황경숙의 현장조사 민요

1. 황경숙의 현장조사 민요

1) 서부산 문화권 민요 : 강서구 가덕도동 민요

[강서구 민요 1]

잠자리 잡는 소리

정복경(여, 1953년생) 가창
2020년 11월 6일 채록
[가덕도동(눌차동) 정거마을]

잠자리 꽁꽁
앵긴자리 앵겨라
잠자리 꽁꽁
앵긴자리 앵겨라

[내나 그런 소리잖아. 붙은 자리 붙으면 잡는다. 이 말이지 내나.]

*김승유 외, 『가덕도의 민속문화1 –눌차동』, 국립민속박물관, 2021, 218쪽.

[강서구 민요 2]

두껍아 두껍아

정복경(여, 1953년생) 가창
2020년 11월 6일 채록
[가덕도동(눌차동) 정거마을]

[내나 흙을 손 위에다가 올려놓고 뚜디리면서.]

두껍아 두껍아
헌집 줄게 새집 다오

[그 소리라 내나.]

*김승유 외, 『가덕도의 민속문화1 –눌차동』, 국립민속박물관, 2021, 218~219쪽.

[강서구 민요 3]

발치 노래

정복경(여, 1953년생) 가창
2020년 11월 6일 채록
[가덕도동(눌차동) 정거마을]

까치야 까치야
헌니 줄게
새이 내달라

[그라지. 옛날에 빠진 이를 지붕에다 던지면서 그런 거는 그 소리밲에 없어. 그 소리는 그기 끝이야.]

*김승유 외, 『가덕도의 민속문화1 –눌차동』, 국립민속박물관, 2021, 219쪽.

[강서구 민요 4]

다리세기 노래 [이거리 저거리 갓거리]

차춘선(여, 1947년생) 가창
2020년 11월 6일 채록
[가덕도동(눌차동) 정거마을]

이거리 저거리 갓거리
민사 망사 주머니
똘똘 말아 장독간

[다리 쭉 펴놓고 했다. 마주 보고 서로 다리 사이 끼와놓고.[1] 우리 어릴 때 했다 아니가. 그 뒤에도 뭐 있는데 모르겠다.]

*김승유 외, 『가덕도의 민속문화1 –눌차동』, 국립민속박물관, 2021, 217쪽.

1) 끼워놓고.

[강서구 민요 5]

풍뎅이 놀리는 노래

차춘선(여, 1947년생) 가창
2020년 11월 6일 채록
[가덕도동(눌차동) 정거마을]

뱅뱅 돌아라
뱅뱅 돌아라

[이란다. 그라면 요놈이 날개를 치고 도망갈라꼬 뱅뱅 돈다 아이가? 그라면.]

뱅뱅 돌아라
뱅뱅 돌아라
마당 쓸게
뱅뱅 돌아라

[이 소리밖에 몰라.]

*김승유 외, 『가덕도의 민속문화1 –눌차동』, 국립민속박물관, 2021, 218쪽.

[강서구 민요 6]

잠자리 잡는 소리

차춘선(여, 1947년생) 가창
2020년 11월 6일 채록
[가덕도동(눌차동) 정거마을]

잠자리 꽁꽁
앉일자리 앉아라
잠자리 꽁꽁
앉을자리 앉아라

[잠자리 잡을 때는 매미채로 잡는다. 잡을 때,]

잠자리 꽁꽁
앉을자리 앉아라

[그때는 이렇게 매미채로 잡았어.]

*김승유 외, 『가덕도의 민속문화1 –눌차동』, 국립민속박물관, 2021, 218쪽.

[강서구 민요 7]

달뜨는 항월

김갑년(여, 1940년생) 가창
2020년 11월 6일 채록
[가덕도동(눌차동) 항월마을]

[요게는 달뜨는 항월부락이라.]

달뜨는 항월부락 달뜨는 항월부락
안자야 숙자야 안자야 숙자야
재미(삿대)로 가이고(가지고) 쑤시니
눈을쑤시니 니죽나 목을찌르니 니죽나

[그런께 달뜨는 항월부락. 이래가지고 한바탕 웃었다.]

달뜨는 항월부락 안자야 숙자야
재미로가이고 쑤시니 니죽나
재미로가이고 눈을쑤시니 니죽나
달뜨는 항월부락 안자야 숙자야

*김승유 외, 『가덕도의 민속문화1 –눌차동』, 국립민속박물관, 2021, 216쪽.

[강서구 민요 8]

구멍타령

김갑년(여, 1940년생) 가창
2020년 11월 6일 채록
[가덕도동(눌차동) 항월마을]

저건니 딱따구리는 참나무도 잘뚫는데
우리집의 저문디는 뚫린구녕도 못뚫는다

[그래, 그런 소리는 하더라.]

*김승유 외,『가덕도의 민속문화1 –눌차동』, 국립민속박물관, 2021, 217쪽.

[강서구 민요 9]

방귀타령

김갑년(여, 1940년생) 가창
2020년 11월 6일 채록
[가덕도동(눌차동) 항월마을]

시누부방구는 새침방구
신랑방구는 단방구
시아바이방구는 호랑방구
시어머이방구는 앙살방구

*김승유 외,『가덕도의 민속문화1 –눌차동』, 국립민속박물관, 2021, 217쪽.

[강서구 민요 10]

아기 어르는 소리

김갑년(여, 1940년생) 가창
2020년 11월 6일 채록
[가덕도동(눌차동) 항월마을]

둥게둥게 둥게야
이둥게가 누둥게냐
경산도 대불매
하늘에서 떨어지냐
땅에서 벌떡솟았나

[그런 긴데 인제는 안 하니까 다 모르겠다.]

*김승유 외, 『가덕도의 민속문화1 –눌차동』, 국립민속박물관, 2021, 217쪽.

[강서구 민요 11]

발치 노래

김갑년(여, 1940년생) 가창
2020년 11월 6일 채록
[가덕도동(눌차동) 항월마을]

까치야 까치야
내헌니 가가고(가져가고)
새이빨 도고(다오)

*김승유 외, 『가덕도의 민속문화1 –눌차동』, 국립민속박물관, 2021, 219쪽.

[강서구 민요 12]

사발가

김복의(여, 1936년생) 가창
2021년 3월 1일 채록
[가덕도동(대항동) 대항마을]

석탄백탄 타는데 연기만 퐁퐁나고요
우리가슴 타는데는 아무것도 안나온다

*김승유 외, 『가덕도의 민속문화2 –대항동』, 국립민속박물관, 2021, 261쪽.

[강서구 민요 13]

백발가

김복의(여, 1936년생) 가창
2021년 3월 1일 채록
[가덕도동(대항동) 대항마을]

이팔청춘 소년들아 백발보고 웃지마라
우리도 늙어지면 백발이 잠시로다

*김승유 외, 『가덕도의 민속문화2 –대항동』, 국립민속박물관, 2021, 261쪽.

[강서구 민요 14]

가덕도 명물 노래

김복의(여, 1936년생) 가창
2021년 3월 1일 채록
[가덕도동(대항동) 대항마을]

가덕도는 작아도 우리힘은 크구나
에헤야 데헤야 우리가덕 자랑에
가덕도의 명산물은 대구와 미역
가덕도는 우리에게 커다란 자랑일세

[여게는 옛날에 대구하고 미역하고 맹물인데(명물인데), 지금은 대구는 귀하고 숭어하고 미역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가덕도가 저희들한테는 큰 보물입니다. 숭어들이는, 대구 후에는 숭어가 났거든예. 숭어가 대항부락 공동사업입니다. 그라이께네 숭어들이를 한 사개월 하고 나면 종합적으로 이래가지고 대개 가정마장 배당금을 주는 거라요. 그러니까 노인들한테는 한정없이 효자노릇을 하는 기라.]
[조사자: 지금도예?] [지금도 배당금 해예. 옛날에 대구 마이 날 적에는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연필 한자리 공책 하나들면 학교 공부했어예. 전부 부락에서 다 해줘가지고 지원을 해주가지고.] [조사자: 그러니까 자랑이다. 그지예?] [예. 자랑이지예.]

*김승유 외, 『가덕도의 민속문화2 –대항동』, 국립민속박물관, 2021, 262쪽.

[강서구 민요 15]

잠자리 잡는 노래

김복의(여, 1936년생) 가창
2021년 3월 1일 채록
[가덕도동(대항동) 대항마을]

자리자리 꽁꽁
붙은자리 붙어라
멀리가면 니죽는다.

*김승유 외, 『가덕도의 민속문화2 –대항동』, 국립민속박물관, 2021, 263쪽.

[강서구 민요 16]

너냥 나냥 [제주도 타령]

김분선(여, 1936년생) 가창
2020년 10월 28일 채록
[가덕도동(대항동) 대항마을]

나냥너냥 두리둥실 놀고요
낮이낮이나 밤이밤이나 참사랑이로구나
아침에 우는새는 배가고파 울고요
저녁에 우는새는 님이그려서 운다

나냥너냥 두리둥실 놀고요
낮이낮이나 밤이밤이나 참사랑이로구나
[청중: 아이구 좋다!]

*김승유 외, 『가덕도의 민속문화2 –대항동』, 국립민속박물관, 2021, 261쪽.

[강서구 민요 17]

숭어잡이 때 그물 조이는 소리

김안배(남, 1964년생) 가창
2020년 10월 28일 채록
[가덕도동(대항동) 대항마을]

[고기가 요래 그물 패나 놓으면 그 안에 딱 들어오거든예. 그럼 그기 어구라예. 앞이 문턱이, 뒤에 어구는 쪼아야(조여야) 고기가 못 나갈 꺼 아닙니까? 그래 '어구 바라!'이라거든예. 그러면,]

으쌰 으쌰 으쌰
땡기라 땡기라 땡기라
조지라 조지라 조지라

[무조건 '땡기라' 이기라예. 땡기갖고(당겨서) 빨리 떠야 될 꺼 아닙니까? 그래 가다갖고(가두어서) 숭어 잡는 기라예. 다른 소리는 없어예.]

*김승유 외, 『가덕도의 민속문화2 –대항동』, 국립민속박물관, 2021, 252~253쪽.

[강서구 민요 18]

바리데기[2)]

이정렬(여, 1917년생) 가창
1991년 7월 12일 채록
[가덕도동(대항동) 대항마을]

[조사자: 할머니는 이 노래 어떻게 알게 됐는데예?] [내가 이거를 어디서 들었노? 하면은 복선이 딸 굿할 때 내가 입을 딱 쳐다보고. 저 부산서 와가지고 굿을 하대. 굿을 하는데 배리데기이 굿을 하는 기라. 하는데 가만히 입을 쳐다보고 다 배아가(배워서). 집에 와 배아가. 사흘로 다 배아가, 내~ 굿을 한다. 저 테레비에 나오는 거는 몬 해도 옛날 꺼는 할 수 있다. 마이(많이) 해 줬다.]

2) 바리데기를 유희요로 분류한 이유는 가창자가 무당이 아닐 뿐만 아니라 유희를 목적으로 가창했기 때문이다.

칠공주부친이 뱅이(병이)들어 칠공주모친이 칠공주를 불러놓고
첫째공주보고 하는말이 서천국서에 고래 약물뜨러가라

[저거 아부지 살릴라꼬.]

어머니요 몬가겠소 나는나는 안갈라요
둘째공주 불러놓고 니가가라
어머니요 큰딸로 나여두고 날로가라 하십니까
나도나도 몬가겠소 배리대기 니가가라
허리끈을 철씩짤라매고 짝지하나 짚어쥐고
서천국서에 고래 약물뜨러 내가가니
대왕님이 한단말이
아가아가 니뭣하러 여게왔노
울아버지 뱅이들어 약물길러 왔습니다
약물은 준다마는 삼녀살림 갈고가라
삼년살림 살다보니 아들서이 나여놓고
내갈때가 되었으니 약물은 어데있소
저건네소나 저건네바우틈에 소나물이 약물이다
약물길어 뱅에옇고
흰꽃한손 끊어들고 붉은꽃한손 끊어들고
아들서이 불러놓고 나는간다 하여가니
아들서이 어머니요 어데가요 통곡허고
울아버지 뱅이들어 약물가주 내가간다
허버허버 올라와서 첩곡을 올라서고
계곡을 올라서서 삼시세등 올라서니 곡소리가 진동하다

[저거 아버지가 죽었어.]

저게가는 상두꾼아 그게잠깐 쉬어주소

[인자 그 내랐다(내렸다).]

부정부정 내리가서 천각을 띄어놓고
힌꽃을 시신허이 흰생이 돌아오고
붉은꽃을 시신허니 화색이 돌아오고

약물을 믹이노니 숨소리가 터지나고
울아버지는 살렸는데 죄를짓고 왔습니다.

[대왕님하고 자가지고 아 서이를 낳았다 아이가(아니가)?]

무슨죄를 지었더노
아버지 살릴라꼬 서천국서에 고래약물 길러가니
대왕님이 한단말이 약물은 준다마는
삼년살림 살고가라 삼년을 살다보니
아들서이 나여놓고 죽을죄를 내지었다

[그래 인자 죽을, 그래 아버지를 살렸는데.]

죽을죄도 맨해가고 살죄도 면해가고

[그래 죄를 다 면해주고. 그래 저거 아버지. 그거를 옛날에 배리데기가 아들딸로 마이 낳아서 여섯이로 낳아놓고 인자 칠공주 아이가? 낳아놓고, 하나는 끈티(끝에) 배리데기를 갖다 내뻤는(갖다 내버리는) 기라. 마 너무 많애가(많아서) 내뻤는데, 이기 물에서 댕기다가 가로 밀치가지고 그래 그 아를 주어다 키았어. 그 아를 키았는데 그래 칠공주가 됐는 기라. 그래 요 배리데기가 효자 노릇을 했는데, 아버지를 살렸어. 효자노릇을 했네. 그래 그런 이야기도 있다.]

*김승유 외, 『가덕도의 민속문화2 –대항동』, 국립민속박물관, 2021, 257~259쪽.

[강서구 민요 19]

다리세기 노래

주영하(여, 1934년생) 가창
2020년 2월 28일 채록
[가덕도동(대항동) 대항마을]

한놈 두놈 삼십놈
방구 뀠다
뽕

['뽕' 캤는 놈은 잽히가(잡혀가). 다리 이래 서로 끼아가(끼워서) 치면서로 또,]

까때 꾸렁내난다
누가 낐노
집에와서 생각하니
내가 낐다
뽕

['까대' 그기 옛날 일본말이란다. 무슨 말인지 모르지. 우리는 그냥 배왔다. 까대가 뭣이고 물어보니 까네 모른다 하대. 여게 일본 사람들이 마이 있어가지고 옛날 우리 친정엄마는 일본 노래도 부르고 했다.]

*김승유 외, 『가덕도의 민속문화2 –대항동』, 국립민속박물관, 2021, 263쪽.

[강서구 민요 20]

지신밟기요

황삼복(남, 1922년생) 가창
1991년 7월 14일 채록
[가덕도동(대항동) 대항마을]

오날이 며칠이냐 정월이라 대보름날
이집성주를 모시러가자
은하수 저바당에 배가삼척 떠두른다
첫째배를 바라보니 오방지신이 실린배요
둘째배를 바라보니 성주조왕이 실린배라
셋째배를 바라보니 육각의대신이 타신배
첫째배를 불러다가 천광복신에 줄을매고
그지신 불러다가 입회에 지신밟아
둘째배를 불러다가 성주님을 모셔올제
이집이라 김씨대주 성주임 왕림하신다.

[인제 요랄찍에(이렇게 할 때에) 성주풀이하면 큰상을 내. '성주님 왕림 하신다.' 카면,]

셋째배를 불러다가 육각의사신에게 검사핸후에
이집성주 좌정하고

[어데 갔다오요? 이게 노래로 하고 불러야, 뒷소리를 받고 이래야. 혼차(혼자) 이래 육담 씨부리는[3] 것보다 그래야 머리에서 설렁설렁 말이 나오지. 이 육담을 할라카이께 잘 안 나오네. 노래 그것도 뒷소리를 많이 받아주야 하지. 뒷소리 쫌 받으소.]

어~이 여어 어야로 성주님아
이어흐 어야루 조왕님아
성주근본을 모시러가자
성주근본이 어느메냐 아이여흐
경상도 안동땅에 아이여흐
제비원이라 솔씨를 받아 아이여흐
이산저산에 흩쳤더니 아이여흐
그솔이 점점 자라라 아이여흐
소장목이 되었구나 아이여흐
소장목이 자라나서 아이여흐
중장목이 되었구나 아이여흐
중장목이 자라나서 아이여흐
대장목이 되었구나 아이여흐
앞집에 김대목아 아이여흐
뒷집에 박대목아 아이여흐
서른세가지 연장갖춰 아이여흐
남산황률로 올라가자 아이여흐

[금방 뭘로 올라가자 했는교?] [조사자: 남산황률.]

남산황해로 올라가자 아이여흐

[서른 세 가지 연장을 갖고 가가지고, 나무 비러(베러) 남산으로 올라가자 이 말이야.]

남산황률 올라갈 때 아이여흐
은하수 물을길러 아이여흐

3) 씨불대는, 쓸데없는 말을 주책없이 함부로 지껄인다는 뜻의 상스러운 말.

고양미로 메를지어 아이여흐
산신님께 제만을하고 아이여흐
첫째나무 바라보니 아이여흐
까막까치가 집을지어 아이여흐
어!그나무 부정하다 아이여흐
둘째나무 바라보니 아이여흐
온갖잡새가 집을지어 아이여흐
어!그나무도 못쓰것다 아이여흐
김대목 박대목 들어보소 아이여흐
굽은나무는 굽다듬고 아이여흐
곧은나무 곧다듬아 아이여흐
좌우산으로 나려와서 아이여흐
용의등에다 터를 닦아 아이여흐
외가삼칸을 지었구나 아이여흐
이집지은 삼년만에 아이여흐
아들다섯 놓거들랑 아이여흐
검사판사로 매련하고 아이여흐
딸다섯을 놓거덜랑 아이여흐
견우직녀로 매련하소 아이여흐
오날이 며칠이냐 아이여흐
정월이라 대보름날 아이여흐
모시러가자 모시러가자 아이여흐
성주님을 모시러가자 아이여흐
성주님을 모시러가자 아이여흐
은하수 저바당에 아이여흐
배가세척 떠두른다 아이여흐
첫째배를 바라보니 아이여흐
오방귀신이 실린배요 아이여흐
둘째배를 바라보니 아이여흐
성주조왕이 타신배라 아이여흐
셋째배를 바라보니 아이여흐
육각의사신이 타신배라 아이여흐
첫째배를 불러다가 아이여흐
시내방천에 딱줄을메고 아이여흐
이집도량을 들런후에 아이여흐

들어온다 들어온다 아이여흐
이집성주님이 들어오신다 아이여흐
셋째배를 불러다가 아이여흐
검사판사 다한후에 아이여흐
이집이라 대주양반 아이여흐
조선십삼도 다댕기도 아이여흐
남의눈에 꽃이되고 아이여흐
남의눈에 잎이되어 아이여흐
발끝마나 향내내소 아이여흐

[매구 한참 치고 놀다가 마당에서, 죠(저) 집 같으면 요 마당에서 뱅뱅 돌고 춤추고 놀다가 인자 한참 뚜드리고 지신이 인자 얼추 먹은상 싶으면, 그래 인자 사대부가 마리 끄티(마루 끝에) 쌀하고 촛불 켜고 찬물 떠놓고 술도 부놓고(부어놓고) 이래갖고 큰 고기 한 마리 놓고 상돈 만원이면 만원 이래 딱 놓고 정석대로. 그래가 인자 사대부가 앞에 서서 성주풀이 앞소리를 부르는 거지. 금방 내맨키로(나처럼). 요래 불러주면 뒷사람은 북소리 쭉 울리주고 대원들은 요래 서가지고 뒷소리만 받아주는 기라. 악기 다 치고, 뒷소리보다 악기 그거를 웅장하게 뚜디리(두드려) 줘야 되는 기라. 그거 하고나면 요 성주풀이는 인자 끝이고. 요게 장독에 장독지신 밟고, 거 정지에(부엌에) 조왕지신 밟고 그거 뿐이지. 성주풀이 하고나면 이제 쪼께(조금) 뚜디리다가, 뚜드리다가 이제 또 지신도 없고 하면 그 땐 인자 주인집에서 술독으로 그냥 갖다 내놓는 기라. 옛날에는 막걸리 독 갖다가 바가치(바가지) 띄아놓으면, 안주하고 채리놓으면(차려놓으면), 명절 때가 되니까 뭐 좋은 음식 같은 기 쌔빌리꺼든(흔하거든). 그러니까 그 한 잔씩 묵고 그래가 하직하고 인자 나가고 딴 집에 가고 그라는 기지.]
[조사자: 장독지신 할 때 그 노래 함 해보이소.] [장독지신 할 때 뭐 별 끼 있어야제.]

일년에 담은장이 맛변하지말고 맛좋으라

[카고,]

다다다다 장달다

[장이 달다. 이 말이다. '다다 다다' 하는 기.]

고추장게장 다달고
기름장꼬장 다달고

[조사자: 조왕지신은요?] [지금은 전부다 솥이 잔(작은) 솥이고 그렇지만은 옛날 집들은, 옛날에는

보면 전부 큰 솥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일 년 열두 달 삼백육십 날 변함없이 이 솥에 식량을 넣어서 밥을 해 지줄라꼬(지어달라고), 그래 부르는 기야.]

부르자 부르자 조왕솥을 부르자

[이라고, 그리 뚜디리(두드려) 쌌고.] [조사자: 우물풀이도 한 번 해주이소.] [우물에는 저저 우물에 가서 뭐 우짜던지 그 우물에 물만 많이 놔달라고 하지. 노래는 무신(무슨) 노래. 씨부리는 거는 한 가지지.]

*김승유 외, 『가덕도의 민속문화2 –대항동』, 국립민속박물관, 2021, 245~248쪽.

[강서구 민요 21]

회심곡[상여앞소리]

황삼복(남, 1922년생) 가창
1991년 7월 14일 채록
[가덕도동(대항동) 대항마을]

시주님네 이내말쌈 들어보소
이세상에 나완사람 누덕으로 나왔는고
석가여래 공덕으로
아버님전 뼈를타고 어머님전 살을빌려
칠성님전 명을타고 제석님전 복을타고
이내일신 탄생하니
한두살에 철을몰라 부모은공 모르다가
이삼십에 당도하야
어제오늘 성턴몸이 저녁나절 병이들어
찾나니 냉수로다 부르나이 어머니요
인삼녹용 약을쓴들 약덕인들 입을쏜가
태사불러 경읽은들 경덕이나 입을쏜가
무당불러 굿을한들 굿덕이나 입을쏜가
명산대천 찾아가서 상탕에 메를짓고
중탕에 머리감고 하탕에 수족씻고
촛대한상 벌이놓고 향로향터 불가주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산신님전 비나이다

[소지일당, 그건 또 잊아뿠다(잊어버렸다). 잊자삐싸서 안 된다. 응. 또 하나 잊자뻤다. 가만 있거라. 까묵었다(잊어버렸다는 의미).]

비나이다 비나이다 산신님전 비나이다

[암만 빌어도 안 되겠다. 잡아가야 되지 인자 죽게 된다. 인자 죽게되서 잡으러 가는 판이다. 인자 그것도 다 잊자뻤다. 그래 인자 그래 이 사람이 명이 다해서 염라대왕이 불러가 온나(불러오너라). 오만 짓을 다해도 몬(못) 사는 기라. 인자 몬 살고 죽게 됐는데, 그래 되니까 인자,]

일즉사자 월즉사자 일즉사자 월즉사자
쇠사슬을 비긋타고
한손에 몽치(망치)들고 한손에 철봉들고
일즉사자 앞을서고 월즉사자 뒤를서고
활대같이 굽은길로 화살같이 달려와서
대성같이 소라고 성명삼자 불러낸다
닫은문을 펄쩍열며 어서가자 바삐가자
누명이라 거역하며 누명이라 그칠쏘냐
처자자슥 손을잡고 만담설을 다못하고
혼백불러 초혼하고 적삼내어 얹어놓고
방문밖을 썩나서서 정신차려 살펴보니
약탕간을 걸어놓고 지성공이 난잡하다
지성공이 난잡하니 죽을목심 살아오나
사자님아 사자님아 시장한데
점슴[점심]하고 신발이가 곤쳐신고 쉬어가자
애걸한들 들은치도 아니하고
덩치를 울리면서 어서가자 바삐가자

[또 잊아뻤다. 가만 있거라.]

대문밖을 썩나서서.

[아! 가만, 또 잊아뻤다.]

일가친척 많다한들 대신갈이 누있으며
친구벗이 많다한들 대신할이 누있던고
대문밖을 썩나서서 생각하니 늙은이 말들으니
저승길이 멀다더니 오날날에 내에게 당했구나
명사십리 해당화야 꽃진다고 설움마라
꽃진다고 설움마라
명년삼월 봄이오면 너는다시 피련마는
초록같은 우리인생 한번가면 못오시오

[가만 있거라이.]

일즉사자 앞을끌고 월즉사자 등을지고
허방지방 몰아갈 때
높은데는 낮아지고 낮은데는 높아지니
숨이차고 답답하다
담배끊고 모안재물 안정한푼 써놔볼까
인정달라 하는소리 의복벗어 인정지고
그렁저렁 여러날에 열두대왕 들어서니
열두대왕 들어서니
무섭기가 짝이없고 두렵기가 측량없다
문지기는 몸키작고 대왕님은 대개하고
재판관은 문서잡고 좌우양편 벌어져서
여자죄인 잡아들여 흉벌하고 묻는말이
무슨선심 하고왔노 바른대로 알리어라
목마른이 물을주어 거수공덕 해였더나
배고픈이 밥을주어 기식공덕 해였더나
헐벗은이 옷을주어 일신공덕 해였더나
높은밭에 원두놔여 해인해갈 해였더나
깊은물에 다리놔여 일천공덕 해였더나

[이 사람은 오만 공덕을 다 했는 기라. 그러니까,]

니소원을 들어주마 어서바삐 아뢰어라

[공을 엄청 마이(많이) 해놓이 인자 이승으로 내보는데, 지 원대로 인제 해주는 기라.]

대왕님이 묻기로 니소원을 들어주마
어서바삐 알리어라
이승으로 갈라느냐 극락세계 갈라느냐

[이승을 갈라하거든. 갈라하이 재판관이 자꾸 인자 대왕님 앞에다 인자 받아 올리는 거라.]

남자되어 갈라느냐 여자되어 갈라느냐

[그라니까 여자 되어 갈라 카는 기라. 여자 되어서 다시 이승을 한 번 더 올라꼬.]

여자되어 갈라느냐 니소원을 들어주마
어서바삐 알리어라
옥황부인 될라느냐 대개부인 될라느냐

[그 한 가지는 또 잊아뿠어. 무슨 부인 그 될라카는 기라, 될라카니께, 지 소원대로 해서 보내는데, 아주 크게 상을 채맀어(차렸어). 참, 한 상 채리갖고 대접을 해가 몹씰(몹쓸) 놈들 착한 부인 구경하라 그래놓고, 인제 그래가 인제 이 사람은 이승을 나가서 아주 좋은 부인이 돼갖고, 또 다시 더 인자 좋은 공덕을 많이 해갖고, 좋은 일로 많이 하고. 그래,]

이승으로 가거들랑 좋은선심 많이하라
선심을 아니하면 구렁뱀을 몬면한다.

[구렁이, 뱀, 기어 댕기는 구렁이한테 대인다고[4]. 좋은 선심 많이 하라. 구렁뱀 못 면한다. 이래놓고 남자 죄인 인제 불러들이거든.]

남자죄인 잡아들여 흉벌하고 묻는말이
무슨선심 하고왔노 바른대로 알리어라

[이 사람이 너무 없어서 아무 공덕도 못 했는 기라. 아무 공덕도 못 해놓니까네, "아무 공덕도 못 했다." 꼬 올리니까네,]

저놈잡아다가 저놈잡아다가 풍독에 가두어라

4) 구렁이를 만나 해를 입게 된다는 의미.

[거기 인자 바람 풍風자, 바람이 되게 밤낮없이 부는 그다 가다노면(가두어두면) 글면(그러면) 안 죽아? 그래, 그런데 갖다 가두라 카더라 이기야. 너무 없어가지고 선심을 못하고, 선심 하는 것도 내가 있어야 선심을 하지 없으면 못하는 기라. 풍독 아이라 똥구데기(똥구더기)를 박아도, 박아도 마 내가 없는데 어찌 할 끼고? 내 물(먹을) 것도 없는데, 그래 그래하고. 인자 가만, 인자 옛날이야기 인자 한 마디 할께. 인자 그거는 끝났고. 인자 마 그거는 마 끝났소. 인자 다 몬 하요.]

*김승유 외, 『가덕도의 민속문화2 –대항동』, 국립민속박물관, 2021, 249~252쪽.

[강서구 민요 22]

뱃노래

황혜자(여, 1951년생) 가창
2020년 10월 28일 채록
[가덕도동(대항동) 대항마을]

이어나 산아 이어나 산아
우리네 고향은 제주도고

[그래갖고 무슨 고향은 뭐라더나? 이란다. 마이(많이) 있는데 안 하니까 모리겠다(모르겠다).]

*김승유 외, 『가덕도의 민속문화2 –대항동』, 국립민속박물관, 2021, 253쪽.

[강서구 민요 23]

본조 아리랑

황혜자(여, 1951년생) 가창
2020년 10월 28일 채록
[가덕도동(대항동) 대항마을]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님은
십리도 못가서 발병난다

*김승유 외,『가덕도의 민속문화2 –대항동』, 국립민속박물관, 2021, 259쪽.

[강서구 민요 24]

파랑새요

황혜자(여, 1951년생) 가창
2020년 10월 28일 채록
[가덕도동(대항동) 대항마을]

새야새야 파랑새야 녹디밭에 앉지마라
녹두꽃이 떨어지면 청포장수 울고간다

*김승유 외,『가덕도의 민속문화2 –대항동』, 국립민속박물관, 2021, 260쪽.

[강서구 민요 25]

사발가

김광자(여, 1940년생) 가창
2021년 2월 4일 채록
[가덕도동(대항동) 외양포마을]

석탄백탄 타는데는 연기가 퐁퐁나고요
이내가슴 타는데는 연기도짐[김]도 안나네

*김승유 외,『가덕도의 민속문화2 –대항동』, 국립민속박물관, 2021, 261쪽.

[강서구 민요 26]

백발가

김광자(여, 1940년생) 가창
2021년 2월 4일 채록
[가덕도동(대항동) 외양포마을]

이팔청춘 소년들아 백발보고 웃지마라
우리도어저께 소년이더니 오늘백발되기가 잠시로다

*김승유 외, 『가덕도의 민속문화2 –대항동』, 국립민속박물관, 2021, 261쪽.

[강서구 민요 27]

밭 매는 소리

김선이(여, 1914년생) 가창
2021년 2월 4일 채록
[가덕도동(대항동) 외양포마을]

남산에 볕이있는데 서산에 해가지고
남산에 비친 달아

[해가 지면 지거든. 해가 지고 저거 집을 갔다고.]

저서산에 지는해야 지고싶어 지가지나
사시가 부동이라 정해지니 가야되지

[딱 정해낸 때민에(때문에) 가야 되거든. 햇님도. 일로 마이(많이) 하는 아지마가(아주머니가) 햇님을 보고. 정해진 거니까 가야 되거든. 일도 많고, 할 일도 많아도 정해진 때민에 안 가도 안 되거든. 그러께네 '사시가 부동이라 정해지니 가야되지.' 이란다.]

*김승유 외, 『가덕도의 민속문화2 –대항동』, 국립민속박물관, 2021, 253쪽.

[강서구 민요 28]

아리랑

김선이(여, 1914년생) 가창
2021년 2월 4일 채록
[가덕도동(대항동) 외양포마을]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가났네
얼씨구 좋구나

[노래할 때는 먼저 아리랑부터 찾는다.]

아리랑 아리랑 아리랑고개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자
놀다가자 쉬고가자 얼씨구
놀다가자 얼씨구 좋다!

*김승유 외, 『가덕도의 민속문화2 –대항동』, 국립민속박물관, 2021, 259쪽.

[강서구 민요 29]

방귀타령

김선이(여, 1914년생) 가창
2021년 2월 4일 채록
[가덕도동(대항동) 외양포마을]

시아버지방구는 호랑방구

[맞제?] [청중: 그래 한다.]

시어마이방구는 앙살방구
시누방구는 암치기방구
신랑방구는 사랑방구

*김승유 외, 『가덕도의 민속문화2 –대항동』, 국립민속박물관, 2021, 259쪽.

[강서구 민요 30]

파랑새요

김선이(여, 1914년생) 가창

2021년 2월 4일 채록
[가덕도동(대항동) 외양포마을]

새야새야 파랑새야 녹디낭개 앉지마라
녹디꽃이 떨어지면 청포장사 울고간다
얼씨구 좋다

*김승유 외, 『가덕도의 민속문화2 –대항동』, 국립민속박물관, 2021, 260쪽.

[강서구 민요 31]

백발가

김선이(여, 1914년생) 가창
2021년 2월 4일 채록
[가덕도동(대항동) 외양포마을]

이팔청춘 소년들아 백발보고 웃지마라
우리도엊그제 소년이더니 백발되기가 잠시더라
얼씨구 좋다

*김승유 외, 『가덕도의 민속문화2 –대항동』, 국립민속박물관, 2021, 262쪽.

[강서구 민요 32]

다리세기 노래

김순자(여, 1946년생) 가창
2021년 2월 4일 채록
[가덕도동(대항동) 외양포마을]

이거리 저거리 갓거리
동서남북 때만도
오래줌치 장독간

*김승유 외, 『가덕도의 민속문화2 –대항동』, 국립민속박물관, 2021, 262쪽.

[강서구 민요 33]

모심기 소리

허순옥(여, 1942년생) 가창
2021년 2월 4일 채록
[가덕도동(대항동) 외양포마을]

모야모야 노란모야 니언제커서 시집갈래
이달크고 저달크고

[그 다음은 모르겠다. 그거 모심기 할 때 부르는 노래거든. 모심기 할 때 이 노래가 많애.]

*김승유 외, 『가덕도의 민속문화2 –대항동』, 국립민속박물관, 2021, 253쪽.

[강서구 민요 34]

화투 노래

허순옥(여, 1942년생) 가창
2021년 2월 4일 채록
[가덕도동(대항동) 외양포마을]

정월솔가지 속속한마음
이월매주에 맺어놓고
삼월사꾸라 산란한마음
사월흑싸리 흩여놓고
오월난초 나는나비
유월목단에 춤잘춘다
칠월홍돼지 홀로누워
팔월공산 달밝은데
오동추야 달밝은데
비삿갓 씨고서(쓰고)유람가자

*김승유 외, 『가덕도의 민속문화2 –대항동』, 국립민속박물관, 2021, 260쪽.

[강서구 민요 35]

파랑새요

허순옥(여, 1942년생) 가창
2021년 2월 4일 채록
[가덕도동(대항동) 외양포마을]

새야새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마라
녹두꽃이 떨어지면 청포장사 울고간다

*김승유 외, 『가덕도의 민속문화2 –대항동』, 국립민속박물관, 2021, 260쪽.

[강서구 민요 36]

밀양아리랑

허순옥(여, 1942년생) 가창
2021년 2월 4일 채록
[가덕도동(대항동) 외양포마을]

날좀보소 날좀보소 날좀보소
동지섣달 꽃본듯이 날좀보소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리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날넘겨주소

정든님이 오신다고 인사를못해
행주치마 입에물고 입만빵긋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리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날넘겨주소

*김승유 외, 『가덕도의 민속문화2 –대항동』, 국립민속박물관, 2021, 260쪽.

[강서구 민요 37]

너냥 나냥 [제주도 타령]

허순옥(여, 1942년생) 가창
2021년 2월 4일 채록
[가덕도동(대항동) 외양포마을]

너냥나냥 두리둥실 놀구요
낮이낮이나 밤이밤이나 참사랑이로구나
아침에 우는새는 배가고파 울고요
저녁에 우는새는 임이그리워 운다

너냥나낭 두리둥실 놀고요.
낮이낮이나 밤이밤이나 참사랑이로구나
우리집 서방님은 명태잡이를 갔는데
바람아 강풍아 석달여흘 불어라

[그리고 뭐 뻐국이도 있는데, 그거는 모리겠다(모르겠다).]

*김승유 외, 『가덕도의 민속문화2 –대항동』, 국립민속박물관, 2021, 261쪽.

[강서구 민요 38]

보리타작 소리

김권옥(여, 1936년생) 가창
2020년 12월 4일 채록
[가덕도동(성북동) 성북마을]

이기도 쳐라　　웅해야
저기도 쳐라　　웅해야
이기도 때리라　　웅해야
저기도 때리라　　웅해야
앞집에 형수씨도　웅해야
내손만 바래고　　웅해야

뒷집에 제수씨도　　옹해야
내손만 바래고　　옹해야

*김승유 외, 『가덕도의 민속문화4 –성북동』, 국립민속박물관, 2021, 205~206쪽.

[강서구 민요 39]

밀양아리랑

김권옥(여, 1936년생) 가창
2020년 12월 4일 채록
[가덕도동(성북동) 성북마을]

날좀보소 날좀보소 날좀보소
동지섣달 꽃본듯이 날좀보소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났네
 아리랑 고개로 내가넘어간다

정든님이 오신다고 인사를못해
행주치마 입에물고 입만빵긋
 아리아리랑 씨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내가넘어간다

열두살 먹은것도 기생이라고
행주치마 입에물고 입만빵긋
 아리아리랑 씨리쓰리랑 아라리가났네
 아리랑 고개로 내가넘어간다

*김승유 외, 『가덕도의 민속문화4 –성북동』, 국립민속박물관, 2021, 209쪽.

[강서구 민요 40]

권주가

김권옥(여, 1936년생) 가창

2020년 12월 4일 채록
[가덕도동(성북동) 성북마을]

잡으세요 잡으나세요 이술한잔을 잡으세요
이술은 술이아니고 묵고놀자는 술이란다

*김승유 외, 『가덕도의 민속문화4 –성북동』, 국립민속박물관, 2021, 209쪽.

[강서구 민요 41]

너냥 나냥

김권옥(여, 1936년생) 가창
2020년 12월 4일 채록
[가덕도동(성북동) 성북마을]

니요나요 니가둥실 너여~
밤이밤이나 낮이낮이나 참사랑이로구나

니요나요 니가둥실 너~여
밤이밤이나 낮이낮이나 참사랑이로구나
아침에 우는새는 배가고파 울고요
저녁에 우는새는 님이그리워 운다

*김승유 외, 『가덕도의 민속문화4 –성북동』, 국립민속박물관, 2021, 209~210쪽.

[강서구 민요 42]

백발가

김권옥(여, 1936년생) 가창
2020년 12월 4일 채록
[가덕도동(성북동) 성북마을]

이팔청춘 소년들아 백발보고 웃지마라
나도어제 같이소년이더니 백발되기 잠깐이더라

*김승유 외, 『가덕도의 민속문화4 –성북동』, 국립민속박물관, 2021, 210쪽.

[강서구 민요 43]

사발가

김권옥(여, 1936년생) 가창
2020년 12월 4일 채록
[가덕도동(성북동) 성북마을]

석탄백탄 타는데에 연기만 퐁퐁나고요
이내가슴 타는데는 연기도짐도 아니나네
어랑어랑 어어야 어야

*김승유 외, 『가덕도의 민속문화4 –성북동』, 국립민속박물관, 2021, 210쪽.

[강서구 민요 44]

탕건요

김정순(여, 1916년생) 가창
1992년 8월 1일 채록
[가덕도동(성북동) 성북마을]

[우리 동네는 우리 클 적에는 탕건을 했거든. 이 어른들 쓰는 탕건. 이 갓 밑에 쓰는 탕건. 탕건을 쓰는데, 그 탕건을 하면서 우리가 노래라고 하는 기,]

섬아섬아 가덕섬아 열끼없이 잠긴섬아
언제언제 육지될꼬.

[이래 쌌더만, 인자 육지가 될라 하니까 육지도 못 보고 우린 죽겠네. 이렇고. 다 잊어뿌고 인자 모르것다.]

*김승유 외, 『가덕도의 민속문화4 –성북동』, 국립민속박물관, 2021, 206쪽.

[강서구 민요 45]

달구소리

김정순(여, 1916년생) 가창
1992년 8월 1일 채록
[가덕도동(성북동) 성북마을]

어~여 딸구야
이딸구가 누딸군가
어개로 딸구야
우리장에 저수지파는
딸구로다 어~여

[그래 뒤로 받고 그래가 인자 저수지 파는 데서 딸구(달구)하는 거 봤는데, 면장이 왔거든.]

이딸구가 누딸구냐
우리면장님 딸구로세

[그래 내가 돈 그때 돈도 마이 얻어갖고 뭐 사묵고 그랬다. "우리 면장님 덕택으로 안 하던 딸구 얻는다." 카고. 그때는 잘 씨불이고 그하이 좋다고 박수를 치고 그라더만. 돈을 좀 주고 가는 거라. 그래 우리 얻어가 갈라 묵고, 그래 술도 받아 묵고 그랬거든.]

*김승유 외, 『가덕도의 민속문화4 –성북동』, 국립민속박물관, 2021, 207쪽.

[강서구 민요 46]

뱃노래

손종희(남, 1936년생) 가창
2020년 12월 4일 채록
[가덕도동(성북동) 성북마을]

어야디야 어야디야
노를저어라 어야디야
어서저어라 어야디야

왜놈이온다 어야디야

어야디야. 어야디야
노를저어라 어야디야
어서저어라 어야디야
데리저어라. 어야디야

[조사자: 데리 저어라는 무슨 뜻인가예?] [‘어서는 밀어서 저어라. 데리는 앞으로 당겨서 저어라.’고. 그러니까 밀어냈다 당겼다가 그러는 거지. 여기는 왜놈들에게 많이 시달린 곳이라. 그라니까 노 저을 때 ‘왜놈이 온다’고 하고 우리도 그랬다.]

*김승유 외, 『가덕도의 민속문화4 –성북동』, 국립민속박물관, 2021, 204쪽.

[강서구 민요 47]

노랫가락[그네 노래]

손종희(남, 1936년생) 가창
2020년 12월 4일 채록
[가덕도동(성북동) 성북마을]

수천당 세모진남개 오색당상실로 그네를매어
님이뛰면 내가뛰고 내가뛰면 님이뛰고
임아임아 줄살살밀어라 줄떨어지면 정떨어진다

*김승유 외, 『가덕도의 민속문화4 –성북동』, 국립민속박물관, 2021, 210쪽.

[강서구 민요 48]

양산도

손종희(남, 1936년생) 가창
2020년 12월 4일 채록
[가덕도동(성북동) 성북마을]

함양산천 물레방아 물을안고 돌고
저집에 아가씨는 나를안고 돈다
에헤헤야

*김승유 외, 『가덕도의 민속문화4 –성북동』, 국립민속박물관, 2021, 210쪽.

[강서구 민요 49]

모심기 소리

이정렬(여, 1917년생) 가창
1990년 8월 3일 채록
[가덕도동(성북동) 성북마을]

물고야청청 열어놓고 주인양반 어데갔노
등넘에다 첩을두고 첩의방에 놀러갔네
무슨열의 첩인관데 밤에가고 낮에가노
밤에는 자러가요 낮에는 놀러가요

[그래 인자 영감 부인이가 작은 할멈을 얻어놓고 물을 다 열어놓고 첩 집 가서 오도 안 하더란다. 그거고. 이제 옛날에 딸이가 수제비를 낄았다(끓였다) 말이지. 떡국 수제비를 낄았는데, 저거 아버지는 노랑 감태로 쑥이 씨고 물국만 주고 지 남편은 수제비만 줬던 기라. 그래가 저거 인자 아바씨가(아버지가),]

떰북떰북 물수제비 사우상에 다올랐네
노랑감태 쑥이씨고 물국시기 더부섧다

[하더란다. 그래 지 딸이 직일년이제 아부지하고 갈라주지 우째 그런 짓을 할꼬. 그렇고. 논에 모꾼들이가 인자 그 밥을 내려주지 말고 저 노래로 한 번 시키고. 등지를 한번 시키고 밥을 내려주라 카더란다. 이라니께,]

동네아는 초면이요 이내날은 첫날이요

[동네 아는 초면이고 지는 첫날이고, 인자 지는 인자 밥 해가 왔다고 그렇게 인사를 하더란다.]

*김승유 외, 『가덕도의 민속문화4 –성북동』, 국립민속박물관, 2021, 204~205쪽.

[강서구 민요 50]

상사요

이정렬(여, 1917년생) 가창
1990년 8월 3일 채록
[가덕도동(성북동) 성북마을]

삼월이라 삼짇날에 사월이라 초파일날
놀자하니 놀기싫고 자자하니 자기싫고
서울서내려온 오리나무 한반탱이 자마이고
적은내 살림물에 빨래하러 내러가니
어연처자 질팡갈팡 내려오면서
물떠주오 물떠주오 처녀손에 물떠주오
함박없어 못뜨것네 쪽박없이 못뜨것네
그릇이없어 못떠주것다 빨래를갔으니
아래우물 다치삐고 나쁜물고랑물 디치삐소

[연수국에 물을 떴다 카는 거는 내 손을 가 떠서 총각이, 처녀니께 어깨너머로 넘가줐다 말이다.]

어깨문을 넘가주니 어깨문을 받아묵고
성명이나 알고가자
처녀댁은 누댁이요 김선달네 막내딸이요
총각댁은 무댁이요 이선달네 막내아들이요

[그래가 인자 둘이서 그거 돼가지고, 그 사람이 과거 보러 가던 길이던 갑대. 그래가 그 사람이 가면서 그 고랑가에 수양버들이 늘늘 이래가 있으니께,]

저기있는 저버들이
휘여휘영 하거들랑 나살은줄 알아시고
후영후영 하거들랑 나죽은줄 알아시고

[날 죽은 줄 알라 카더란다. 그리고,]

삼일만에 떠둘오네(들어오네) 떠둘오네
김선달네 대문밖에 상고[5]하나 떠둘오네

[그래 아버지가 인자 딸로 서인데 불렀어. 불러가,]

첫째딸로 부르니께 변소길도 모르는데
연수길을 내안갔소

[연수길을, 빨래 씻으러 안 갔대요. 둘째 딸도 물어보니 안 갔다 카고, 셋째 딸로 불러놔놓이 사실대로 말로 카거든. 그래 머리를 풀라 카더란다. 머리 풀고 그 속적삼을 벗어서 상고에 걸치두고 곡소리를 내라 카더란다. 그 인자 물 떠준 그기 인자 인연이던 모양이지. 그래가지고 상주놀이 하더란다. 그런 전설이 있고.]

*김승유 외, 『가덕도의 민속문화4 –성북동』, 국립민속박물관, 2021, 207~208쪽.

[강서구 민요 51]

신세한탄요

이정렬(여, 1917년생) 가창
1990년 8월 3일 채록
[가덕도동(성북동) 성북마을]

[인자 한 사람이 어머이 아바이 없어가이고 사촌오빠한테 컸거든. 사촌오빠한테 커가이고(커서) 시집을 가가 사촌오빠집에 댕기로 갔는데, 사촌오빠가, 저 올키가 밥을, 점슴밥을 한 그릇 안 해주더라네, 그래서 인자 그 색시가 노래를 짓기로,]

성아성아 올키성아 니도묵고 나도묵고
니가 꾸중물을 니소주지 내소주나
누른밥을 묵는거는 니개주지 내개주나
니도묵고 나도묵고

[슬퍼서, 눈물이 나서 울고. 고개 넘어 일로[여기로] 오면서 노래 짓더란다. 그런 노래가 있고.]

*김승유 외, 『가덕도의 민속문화4 –성북동』, 국립민속박물관, 2021, 208쪽.

5) 상여를 말함.

[강서구 민요 52]

모심기 소리

최정숙(여, 1937년생) 가창
2020년 12월 4일 채록
[가덕도동(성북동) 성북마을]

오봉세제 물좋다고 오봉세제 물좋다고
내딸을 시집보냈디만은 목말라 죽었다네

낭창낭창 벼리끝에 무정하다 울오랍아
나도죽어 남자되어 내가족 생길라네

물고야철철 헐어놓고 주인네양반은 어데간고
등넘에다 첩을두고 첩으야집으로 놀러갔네

모야모야 노랑모야 언제커서로 시접[시집]갈래
이달크고 저달가몬[저 달이 가면] 구시월에는 영화볼래

[옛날에는 등지도 마이(많이) 했는데, 인자는(이제는) 모르겠다.]

*김승유 외, 『가덕도의 민속문화4 –성북동』, 국립민속박물관, 2021, 205쪽.

[강서구 민요 53]

양산도

하정복(여, 1948년생) 가창
2021년 2월 3일 채록
[가덕도동(천성동) 남중마을]

양산읍내 물레방아는 물을안고 돌고
우리집 저문디이[문둥이]는 나를안고 돌고

[신랑이라 안 카고, 문디이라 하더라.]

*김승유 외,『가덕도의 민속문화5 –천성동』, 국립민속박물관, 2021, 224~225쪽.

[강서구 민요 54]

화투타령(화투뒤풀이)

하정복(여, 1948년생) 가창
2021년 2월 3일 채록
[가덕도동(천성동) 남중마을]

정월솔가지 속속한마음
이월매조에 맺아놓고
삼월사쿠라 산란한마음
사월흑싸리 헛사로다
오월난초 나비가날되
유월목단에 춤잘추고
칠월홍돼지 홀로누워
팔월공산에 달밝았네
구월국화 굳은마음
시월단풍에 다떨어지네
오동동추야 달밝은밤에

[뭐 님 찾으러 간다 카든가? 뭐 어짜든가 그거는 모르겠다.]

*김승유 외,『가덕도의 민속문화5 –천성동』, 국립민속박물관, 2021, 225쪽.

[강서구 민요 55]

아기 재우는 노래

하정복(여, 1948년생) 가창
2021년 2월 3일 채록
[가덕도동(천성동) 남중마을]

자장자장 우리아기
우리아기 잘도자네
뒷집개야 짓지마라
앞집개도 짓지 마라

[무슨 애가 깬다고 그래 하대.]

*김승유 외, 『가덕도의 민속문화5 –천성동』, 국립민속박물관, 2021, 226~227쪽.

[강서구 민요 56]

새야 새야 파랑새야

하정복(여, 1948년생) 가창
2021년 2월 3일 채록
[가덕도동(천성동) 남중마을]

새야새야 파랑새야 녹두꽃에 앉지마라
녹두꽃이 떨어지면 청포장사 울고간다

*김승유 외, 『가덕도의 민속문화5 –천성동』, 국립민속박물관, 2021, 226쪽.

[강서구 민요 57]

너냥나냥

허영숙(여, 1949년생) 가창
2021년 2월 3일 채록
[가덕도동(천성동) 남중마을]

너냥 나냥 두리둥실 놀고요
낮이낮이나 밤이밤이나 참사랑이로구나
아침에 우는새는 배가고파 울고요
저녁에 우는새는 님이그리워 운다

너냥 나냥 두리둥실 놀고요
낮이낮이나 밤이밤이나 참사랑이로구나
우리집 서방님은 명태잡이를 갔는데
바람아 강풍아 석달열흘만 불어라

*김승유 외, 『가덕도의 민속문화5 –천성동』, 국립민속박물관, 2021, 225쪽.

[강서구 민요 58]

다리세기 노래

허영숙(여, 1949년생) 가창
2021년 2월 3일 채록
[가덕도동(천성동) 남중마을]

한오레이 두오레이
삼세끼 사오레이
육년 강아지
칠월 달
팔월 달
장구 꼬들밥

한오레이 두오레이
삼세끼 사오레이
육년 강아지
칠월 때
팔월 때
장구 꼬더래
마누래 삐있나
콩

*김승유 외, 『가덕도의 민속문화5 –천성동』, 국립민속박물관, 2021, 227~228쪽.

[강서구 민요 59]

두껍이집 노래

두껍아 두껍아
헌집줄게 새집내다오

[손에 흙 올리놓고(올려놓고) 노래하고 나서 손을 살~ 뺀다.]

*김승유 외, 『가덕도의 민속문화5 –천성동』, 국립민속박물관, 2021, 228쪽.

[강서구 민요 60]

이어나 산아

김상연(여, 1935년생) 가창
2021년 2월 5일 채록
[가덕도동(천성동) 서중마을]

이어나산아 이어사
이어나산아 이어사
해다지고 저문날에
집집마장 연기나는데
울엄마는 어디가고
연기낼줄 모르노
이어나산아 이어사

[청중: 아이고! 잘한다.] [말을 할라 카면 많다.]

*김승유 외, 『가덕도의 민속문화5 –천성동』, 국립민속박물관, 2021, 222쪽.

[강서구 민요 61]

모심기 소리

김상연(여, 1935년생) 가창
2021년 2월 5일 채록
[가덕도동(천성동) 서중마을]

떰붕떰붕 밀수제비 사우야상에 다올랐네
[조사자와 함께 가창하며] 애미년은 어데가고 딸에동자를 시킸던고

포롱포롱 봄배차는(봄배추는) 봄비오도록 기다리고
[조사자와 함께 가창하며] 옥에갇힌 춘향이는 이도령오기만 기다린다

[조사자와 함께 가창하며] 물고야청청 헐어놓고 주인네양반 어데갔노
문어야대전복 손에들고 첩의야집에 놀러갔다.

모야모야 노란모야 니언제커서 시집갈라노
[조사자와 함께 가창하며] 이달크고 저달크고 맹년칠월에 열매열래

*김승유 외, 『가덕도의 민속문화5 –천성동』, 국립민속박물관, 2021, 223쪽.

[강서구 민요 62]

시집살이 노래

김상연(여, 1935년생) 가창
2021년 2월 5일 채록
[가덕도동(천성동) 서중마을]

성아성아 올키성아
시집살이 어떻더노
시집살기 좋더마는
도래도래 도래판에
수저놓기 어렵더라
중우벗은 시아지비
말하기도 어렵더라

[쪼깨난(어린) 시아지비(시아주버니)는 말하기 힘들다 아이가?]

*김승유 외, 『가덕도의 민속문화5 –천성동』, 국립민속박물관, 2021, 224쪽.

[강서구 민요 63]

진주난봉가

김상연(여, 1935년생) 가창
2021년 2월 5일 채록
[가덕도동(천성동) 서중마을]

울도잠도 없는집에 시접살이에 삼년만에
진주남강에 빨래를하니 돌도좋고 물도좋고
진주남강에 빨래를하니 구름같은 갓을씌고
낭군님이

[그것도 안 해싸이께네 인자는 다 모르것다.]

*김승유 외, 『가덕도의 민속문화5 –천성동』, 국립민속박물관, 2021, 224쪽.

[강서구 민요 64]

진주 기생 얼순이

김상연(여, 1935년생) 가창
2021년 2월 5일 채록
[가덕도동(천성동) 서중마을]

진주기생 얼순이는 꽃을따가 입에물고
엄마엄마 꽃이좋소 내가좋소
꽃이암만 좋다캐도 니한테 당할것가

[그거는 또 다 알것다.]

*김승유 외, 『가덕도의 민속문화5 –천성동』, 국립민속박물관, 2021, 224쪽.

[강서구 민요 65]

밀양아리랑

김상연(여, 1935년생) 가창
2021년 2월 5일 채록
[가덕도동(천성동) 서중마을]

날좀보소 날좀보소
동지섣달 꽃본듯이 날좀보소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났네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정든님이 오시는데 인사를 못해
행주치마 입에물고 입만 빵긋

*김승유 외,『가덕도의 민속문화5 –천성동』, 국립민속박물관, 2021, 225~226쪽.

[강서구 민요 66]

본조아리랑

김상연(여, 1935년생) 가창
2021년 2월 5일 채록
[가덕도동(천성동) 서중마을]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날넘겨주소
나를 버리고 가신님은
십리도 못가서 발병난다

*김승유 외,『가덕도의 민속문화5 –천성동』, 국립민속박물관, 2021, 226쪽.

[강서구 민요 67]

사발가

김상연(여, 1935년생) 가창
2021년 2월 5일 채록
[가덕도동(천성동) 서중마을]

석탄백탄 타는데는 연기만풍풍 나는데
요내심정 타는데는 연기도안나고 잘도탄다

*김승유 외, 『가덕도의 민속문화5 –천성동』, 국립민속박물관, 2021, 226쪽.

[강서구 민요 68]

백발가

김상연(여, 1935년생) 가창
2021년 2월 5일 채록
[가덕도동(천성동) 서중마을]

이팔청춘 소년들아 백발보고 웃지마라
어제아래우리도 소년이됐더니 백발되기가 잠시로다
새끼백발은 씰곳이(쓸곳이)있는데 인간백발은 씰곳이없다

[하면 천진데(많은데) 모르것다.]

*김승유 외, 『가덕도의 민속문화5 –천성동』, 국립민속박물관, 2021, 226쪽.

[강서구 민요 69]

아기 재우는 노래

김상연(여, 1935년생) 가창
2021년 2월 5일 채록
[가덕도동(천성동) 서중마을]

자장자장 자장자장
우리현중이 잘도잔다
멍멍개도 짖지말고
꼬꼬닭아 우지마라
천금을준듯 니를살것까
만금을준듯 니를살것까
꽃은꽃은 피었다가
시들어지면 안좋은데

[꽃은 아무리 좋아도 시들면은 안 좋다 아이가.]

요건무슨 무슨꽃인고
일년열두달에 삼백육십날에
하루만안봐도 보고싶고
자장자장 자장자장
우리현중이 잘도잔다

*김승유 외, 『가덕도의 민속문화5 –천성동』, 국립민속박물관, 2021, 227쪽.

[강서구 민요 70]

아기 어르는 소리[불매요]

김상연(여, 1935년생) 가창
2021년 2월 5일 채록
[가덕도동(천성동) 서중마을]

[조사자와 함께 가창하며]
불매불매 불매야
이불매가 누굴맨고
경상도 대불매

*김승유 외, 『가덕도의 민속문화5 –천성동』, 국립민속박물관, 2021, 227쪽.

[강서구 민요 71]

이어도 산아

김천대(여, 1938년생) 가창
2021년 2월 5일 채록
[가덕도동(천성동) 서중마을]

이어도산아
이어도산아
우리배는 잘도간다

[청중: 그랬나?] [이래 안 하나?]

저어라 저어라
저어라 저어라
이어사 이어사

[이래 우리 노 저을 때 그랬지 뭐.]

*김승유 외, 『가덕도의 민속문화5 –천성동』, 국립민속박물관, 2021, 222~223쪽.

[강서구 민요 72]

모심기 소리

김천대(여, 1938년생) 가창
2021년 2월 5일 채록
[가덕도동(천성동) 서중마을]

[조사자와 함께 가창하며]
물꼬야청청 헐어놓고 주인네양반 어디갔노
문넘에다 첩을두고 첩에야집에 놀러갔네

*김승유 외, 『가덕도의 민속문화5 –천성동』, 국립민속박물관, 2021, 223쪽.

[강서구 민요 73]

상사풀이요

박임이(여, 1915년생) 가창
1991년 1월 15일 채록
[가덕도동(천성동) 천성마을]

[정승이가(정승집) 며느린데 시아바이가 며느리를 보고 며느리를 겁탈했거든. 고 노랜데 단디(단단히) 들어봐라. 배암이 됐던데, 짐승노래로 하라 카이 그걸로 해주꾸마. 어짜든지 들어보소.]

시아버지 거동보소 며느리로 저처매를(저 치마를) 땡깁니다.
저며느리 한단말이 아버지요 들어보소
정성아 집안에서 이런행사 되십니까
시어버지 거동으로 무어라캤더니 그날로 밥상을 들고가니
시아버지 거동보소

[저(자기) 자지를 찧어삐서 그 죽었단 말이데이.]

이며느리 거동보소 이티저티 없어시고 거의부분을 벗기놓고
저의복을 입히놓고 하야종들을 불러낼 때
시아버지가 오날밤에 세상을 떠났구나

[그래, 그 초상을 다치아놓고(다 치루고)]

그해봄이 되어오니

[논이 한 사십 마지기 되는데, 사십 마지기 되었는데 모꾼들을 40명 덱고(데리고) 가죠.]

야들아 들어봐라 옛날에 울아버지 있을때는
그들로 손을봤는데 나도오늘 들가운데 한번가자
저종들이 한단말이 심이엄서(힘이 없어) 어찌갈랍니까
야들아 그렇지만은 오늘은 들띠동도 내가하고 가보꾸마 카였으니
저샌님들 거느리고 저모꾼사심명을 거느리고

[옛날에는 염장하러 생복('초분'을 말함)을 해놓고 가는 도중에 며느리가 가 있으니까 짐승이 되어

서 나오는데 시아버자 나온 줄로 알았어. 그래 며느리가 “몸으로 응감 하이소.” 하고,]

내가집으로 돌아가며 아버님을 모셔가여
점슴밥을 먹으시고 앉은야들아 누룽바굼지 하나하고
너거가 밥속은 하나하고 나여주고 가시거라
어째들고 올랍니까 이내몸에 심도올리고
안죽고 내갈꺼니 그리알아 짐작해라

[여자가 점슴밥(점심밥)을 다 먹고 저 종들은 가져갈 것 가지고 가면서 바굼질(바구니) 하나하고 저 수건 한 개 내려놓고 가는데, 모꾼 사십 명을 잡이들이.]

해는검어 날이지니 퍽나오거든 아버지여 들어보소
아버님요 내가나무를 지을줄 알았는데
우짜이든가 내가 옛날부터 겁을내는 네모랭이 골짜기로 금시가야되지
가다가도 꿈쩍한다하면은 내가뭔가를 그리그리 안다고 생각하고
꿈쩍꿈쩍 아니하고 지글지글 들어와서 도장에다 옇어놓고
여보세요 아버님요 해가져야 내방에 안들어가겠소

[그래놓고,]

머심을 시키기를 야들아 물을갖다 낋이거라
낋이가주(끓여서) 들어가서 그짐승을 가지다가 고물에(그 물에) 푹고아가지고

[어짜든지 빼만 남구로 푹~ 고와가지고 그거를 퍼내면 또 상사가 태이난 생에. 인간 사십 명을 국을 낋이가 그 국을 낋이가지고 상사뿌리로 자뿌리는(끊어버리는) 기라. 상사뿌리로 자뿌리는 기지. 인간이 묵어야 산다고.]

Ⅳ

문헌 소재 민요

1. 동부산 문화권 민요
2. 서부산 문화권 민요
3. 중부산 문화권 민요
4. 지역 미상 민요

1. 동부산 문화권 민요

1) 기장군 민요

[기장군 민요 1]

엄마 노래

엄마하고 따라 가니
골은 짚고 산은 높고
날 마다고 가는 엄마
낸들사 어째하노.

그 말 하고 돌아 서니
옥과 같은 내 깃대기
순청 같은 눈물이
월영당못 비 오듯 하네.

하룻밤을 울고 나이
소이 젖네 소이 젖네
비개 머리 소이 젖네.

그걸사 소이라고
오리 한쌍 기우 한쌍
쌍쌍이도 떠들 오네.

이 기우야 이 오리야
그 어디라 놀 대 없어
눈물소에 놀고 가노.

우리들도 소년 적에
놀기 좋은 수상강포
가는 길로 놀고 가네.

(1936年 8月 東萊郡 機張面 李琴玉 口誦)

*경상남도지편찬위원회, 『경상남도지(하)』, 경상남도 공보실, 1963, 207~208쪽.

*김사엽·최상수·방종현 공편, 『조선민요집성』, 정음사, 1948. 124쪽. '동래지방'으로 표시.
*임동권 편, 『한국민요집Ⅴ』, 집문당, 1980, 290쪽(895번). 제목은 '개가한 어머니요'(동래).
*동래지편찬위원회, 『우리 고장 동래(동래지)』, 부산직할시 동래구, 1982, 16쪽. 출처, 채록 정보 없음.
*강서향토지발간추진위원회, 『강서향토지』, 동 발간위원회, 1988, 273쪽. 출처, 채록 정보 없음.
*부산직할시 동래구청 문화공보실, 『동래의 역사』, 부산직할시 동래구청, 1990, 209~209쪽. 출처, 채록 정보 없음.
*장관진, 「동래지방의 민요」, 『한국문화연구』 4집, 부산대 한국문화연구소, 1991, 230쪽. 출처, 채록 정보 없음.
*금정구청, 『금정구지』, 소문출판인쇄사, 1991, 671쪽. 출처, 채록 정보 없음.
*김승찬·박경수·황경숙 편, 『부산민요집성』, 세종출판사, 2002, 336쪽. 『조선민요집성』 출처 표시, 채록 정보 없음.

[기장군 민요 2]

시집 살이

성님 성님 사촌 성님
시집살이 어떱띠까.
아고 애야 말도 마라
고초장도 맵다지만
시집 같이 맵을소냐.

성님 성님 사촌 성님
시집 살이 어떱띠까.
아고 애야 말도 마라
맹지 치마 분홍 치마
눈물 싯기 일일네라.

성님 성님 사촌 성님
시집 살이 어떱띠까.
아고 애야 말도 마라
조고마는 도리판에
수저 놓기 어렵더라.

(1934年 8月 東萊郡 機張面 金充玉 口誦)

*경상남도지편찬위원회, 『경상남도지』 하(1963.12), 208~9쪽.
*방종현·김사엽·최상수, 『조선민요집성』, 정음사, 1948, 19쪽. '동래지방'으로 표시.
*임동권, 『한국민요집Ⅱ』, 집문당, 1974, 369쪽(1040번). '동래지방'으로 표시.
*박원표, 『향토부산』, 태화출판사, 1967, 194~195쪽. 『경상남도지(하)』 문헌 재수록 표시, 채록 정보 없이 2음보

와 4음보를 섞어 표기함.
*부산직할시 동래구청 문화공보실, 『동래의 역사』, 부산직할시 동래구청, 1990, 204쪽. 채록 정보 없음.
*장관진, 「동래지방의 민요」, 『한국문화연구』 4집, 부산대 한국문화연구소, 1991, 201쪽. 채록 정보 없음.
*동래지편찬위원회, 『우리 고장 동래(동래지)』, 부산직할시 동래구, 1982, 16쪽. 출처, 채록 정보 없음.
*강서향토지발간추진위원회, 『강서향토지』, 동 발간위원회, 1988, 271쪽. 출처, 채록 정보 없음.
*금정구청, 『금정구지』, 소문출판인쇄사, 1991, 670쪽. 출처, 채록 정보 없음.
*김승찬·박경수·황경숙, 『부산민요집성』, 세종출판사, 2002, 365~366쪽. 『조선민요집성』 출처 표시 재수록. 제목은 '시집살이요'.

[기장군 민요 3]

노루 노래

포수 포수 박 포수야
날 잡아다 그 머할래
모동 모동 사리 모동
덤불 덤불 칠기 덤불
글로 먹고 사는 짐생
사람에게 해롭더나
짐승에게 해롭더나.

아홉 새끼 나아 놓고
해산 때가 좋지 못해
동래 온정 물 먹으러
나는 갔네 나는 갔네.

날 잡아다 그 머할네
이내 뿔을 빼었으면
무당에 정성하고
이내 털을 빼었으면
선보님네 붓대하고
이내 껍지 뺏깃시면
늙으신네 샛대끈에
애기신네 골미집네.

이내 눈을 빼었으면
사또 상에 장 종지요
이내 고기 노났시면
사또 상에 상 오르지.

(1936年 8月 東萊郡 機張面 金化鳳 報)

*경상남도지편찬위원회, 『경상남도지(하)』, 경상남도 공보실, 1963, 209쪽.
*방종현·김사엽·최상수, 『조선민요집성』, 정음사, 1948, 156쪽. '동래지방'으로 표시.
*고정옥, 『조선민요연구』, 수선사, 1948, 153~154쪽(81번, 경북 선산). 제목은 <獐타령>.
*임동권, 『한국민요집 Ⅰ』, 집문당, 1961, 203쪽(708번). 제목은 <노루타령>, '선산 지방'으로 표시.
*박원표, 『향토부산』, 태화출판사, 1967, 195쪽. 『경상남도지(하)』 출처 표시, 채록 정보 없이 4음보로 표기함.
*부산직할시 동래구청 문화공보실, 『동래의 역사』, 부산직할시 동래구청, 1990, 205쪽. 출처, 채록 정보 없음.
*장관진, 「동래지방의 민요」, 『한국문화연구』 4집, 부산대 한국문화연구소, 1991, 240쪽. 제목은 '포수 노래'. 출처, 채록 정보 없음.
*김승찬·박경수·황경숙, 『부산민요집성』, 세종출판사, 2002, 340~341쪽. 『조선민요집성』 출처 표시.

2) 수영구 민요

[수영구 민요 1]

백구타령

---'수영 야류[1] 제1 양반과장'에 나오는 타령.
(앞소리) 백구야훨훨 나지를마라. 내 너잡으러 아니왔다.
(뒷소리) 남문을열고 바라를치니, 계명산천이 밝아온다.
(앞소리) 세월아 봄철아 오고 가지를 마라. 사업에 청년이 다 늙어낸다.
(뒷소리) 아사라 아사라 죽고 경주를 가니, 계명산천이 밝아온다.

*김승찬·박경수·황경숙 공편, 『부산민요집성』, 세종출판사, 2002, 410쪽.

[수영구 민요 2]

오독도기타령

---'수영 야류 제1 양반과장'에 나오는 타령.
(앞소리) 오독독 오독도기 춘향추추 월워월이 달도밝고 명랑하다. 풍구다당실 풍구다당실
(수양반) 달이 밝다니?
(차양반) 보름달이던가봐.
(수양반) 너 몰랐다. 월명성희[2]에 오작이 남비[3]로다.
(뒷소리) 용타 용타 용타. 지랄로 헐신 연자바리고, 마-아 어허허허허 헐레로구나.
(앞소리) 저놈에 양반 거동보소. 저놈에 양반 거동보소. 갓을 벗어 등짐하고, 이리로 비틀 저리로 비틀비틀.
(수양반) 비틀비틀이라니?
(차양반) 술로 묵었던가봐.
(수양반) 너 몰랐다. 취야와공산[4]타가 갱문행화촌[5]이라.
(뒷소리)

1) 중요무형문화제 제43호, 1971. 2. 26지정.
2) 月明星稀.
3) 南飛.
4) 醉也臥空山.
5) 更問杏花村.

(앞소리) 수양산 깊은골로 가만히 술술 들어가니, 버드나무 잎사귀를 한옴큼 주루룩 훑어다가, 깊고 깊은 물에 여기도 풍덩 저기도 풍덩.
(수양반) 풍덩풍덩이라니?
(차양반) 웅덩이에 돌을 던지던가봐.
(수양반) 너 몰랐다 너 몰랐다. 양류청청 도수인[6]이로구나.
(뒷소리)

*김승찬·박경수·황경숙 공편, 『부산민요집성』, 세종출판사, 2002, 410~411쪽.

[수영구 민요 3]

해산타령

---'수영 야류 제1 양반과장'에 나오는 타령.
(앞소리) 망했구나 망했구나. 양반의 집이 망했구나.
(뒷소리) 얼쓰고 절쓰고 지하자 졸쓰고[7]
(앞소리) 앞산위에 흑운이걷고, 청청백일이 밝아온다. (뒷소리)
(앞소리) 참깨들깨 노는데는, 아주까리도 못놀소냐. (뒷소리)

*김승찬·박경수·황경숙 공편, 『부산민요집성』, 세종출판사, 2002, 411~412쪽.

[수영구 민요 4]

갈가부다타령

---'수영 야류 제1 양반과장'에 나오는 타령.
(앞소리) 가-아리 갈가나부우다. 가-아리 갈가나부우다.
(뒷소리) 님홀로 따라와서, 님과둘이서 나도 갈가나부우다.
(앞소리) 노비 권식을 다아 영이별하아고, (뒷소리)
(앞소리) 문전 옥답을 다아 영방매하아여. (뒷소리)

*김승찬·박경수·황경숙 공편, 『부산민요집성』, 세종출판사, 2002, 412쪽.

---

6) 楊柳靑靑導水人.
7) '얼씨고 절씨고 지화자 좋을시고.'를 '孽쓰고 僧쓰고 至下者 卒쓰고'로 해석함.

[수영구 민요 5]

염불가

---'수영 야류 제3 할미 영감과장'에 나오는 노래.
(앞소리) 저건너저것이 북망산이냐? 어서가자 바삐가자.
(뒷소리) 니난실 난뇨 니난실 난뇨 나무아미타불
(앞소리) 이제갔다 못오는길을 속히가면 무엇하랴. (뒷소리)
(앞소리) 황령추존[8] 북망산에 만고영웅 토[9]일부라. (뒷소리)
(앞소리) 고적무의[10]한 이영혼을 극락세계로 모셔보자. (뒷소리)

*김승찬·박경수·황경숙 공편, 『부산민요집성』, 세종출판사, 2002, 412쪽.

8) 荒凉醜拙.
9) 土.
10) 孤寂無依.

2. 서부산 문화권 민요

1) 강서구 민요

[강서구 민요 1]

이양요(1)

섬아섬아 가덕섬아
폿닢같이 좁은섬아
나락껍질 배를타고
임계신데 찾아갈까

섬아섬아 가덕섬아
쇠통같이 잠긴섬아
칠월칠석 기다려서
오작교로 건너갈까

서울이라 죽설밭에
금비둘기 알을낳고
그알한쌍 주웠더면
금년과거 내할 것을

서울갔던 선비들아
우리님은 안오시나
오기사 온다마는
칠성판에 들여오네

서울선비님 연을띄워
거세야옥담에 연줄거네
아래윗방 시녀들아
연줄거는 구경가세

진주식당 안사랑에
장기두는 처남아가

여중일색 너누이를
남자호걸 나를다오

파란봇짐 반보따리
처가야집을 향해가니
각시님은 내다보고
칠보단장 고이하네

가덕도 연대봉은
섬안의 조종산이요
천성앞 천수대는
도중의 명승지요

삼신도 늘어져서
거제를 연하고라
갈머섬 해일에는
생복의 생산지라

새바지 겨울되면
해마다 풍년이요
동두멀 등대불은
뱃길을 가리키네

대두리 합포장은
남한에 유명하고
訥次의 석화맛은
세계의 명미로다

사또님도 안무섭고
나라님도 안무섭다
세상에 무서운 것
바람밖에 더있던가 (加德島地方)

*임동권, 『한국민요집Ⅱ』, 집문당, 1974, 17~18쪽(순서대로 66번~76번).
*김승찬·박경수·황경숙 편, 『부산민요집성』, 세종출판사, 2002, 379~380쪽 재수록. 4음보로 기록하되, 69~71번의 각편을 76번 각편 뒤에 붙여서 기록함.

2) 북구 민요

[북구 민요 1]

캐지나칭칭

놀자놀자 젊어놀자
늙고병들면 못논단다
카장아칭칭 난-데
어흐좋다 구-나
난해로 구-나
어흐좋다 흠마흠마
난해요 구-나

갱변돌 떡같으면
우리친고 대접하지
카장아칭칭 난-해

낙동강물이 술같으면
우리부모 접대하지
카장아칭칭 난-해
상어개기 개길른가
볼침자식 자식일른가
캐지랑칭칭 나-네

의부애비 애빌른가
다신애미 애밀른가
캐지나칭칭 나-네

헌두디기 이도많고
호래비살림에 탈도많다
캐지나칭칭 나-네

적으나크나 동무네야
오늘저녁에 놀아보세

캐지나칭칭 나-네

이겨주소 이겨주소
우리東쪽 이겨주소
캐지나칭칭 나-네

이겨주소 이겨주소
우리西쪽 이겨주소
캐지나칭칭 나-네 (東萊地方)

*임동권, 『한국민요집 Ⅰ』, 집문당, 1961, 253쪽(879번).
*김소운, 『언문조선구전민요집』, 동경: 제일서방, 1933, 265쪽(934번~940번). '東萊郡 龜浦 李庚得 報'로 제목은 '캐지랑이'임. 이 책에서 위의 "놀자놀자 젊어놀자 ...(중략)... 우리부모 접대하지 / 카장아칭칭 난-해"부분은 없으며, 대신 934번 각편으로 "하늘에는 별도만코 / 쾌지랑칭칭 나-내 / 시내강변에 자갈ㅅ도만타 / 쾌지랑칭칭 나-네"가 있음.
*김승찬·박경수·황경숙 편, 『부산민요집성』, 세종출판사, 2002, 394~395쪽. 앞소리와 뒷소리로 구분하여 표기함.

[북구 민요 2]

아리랑打令

문경새재 박달나무 쓸만한것
홍두깨 감으로 다 나간다 (釜山地方)

*임동권, 『한국민요집 Ⅰ』, 집문당, 1961, 281쪽(1042번).
*김승찬·박경수·황경숙, 『부산민요집성』, 세종출판사, 2002, 396쪽.
*김소운, 『언문조선구전민요집』, 동경: 제일서방, 1933, 259쪽(910번). '아리랑十一篇' 중 하나로 세 번째 각편임. 원문은 "聞慶새재 박달나무 / 홍독개방맹이로 다나간다 / 아리랑아리랑 아라리요 / 아리랑고개다 노다가세"로 되어 있음. '아리랑十一篇'은 '東萊郡 龜浦 李庚得 報'로 되어 있음.

3) 사하구 민요

[사하구 민요 1]

뱃노래

무궁화 고운동산
남쪽 관문에
산높고 물맑은
금수에 강산
돌돌네 푸른이끼
굳은 성터에
옛역사 말하는
다대포로다

섬지나 바다로다
바다지나 또섬인데
갈매기 춤을추고
물새는 노래하네
조는듯 흰돛두세개
오가는줄 몰라라

너는누며 나는누냐
상산땅에 조자룡이다
아으 이여차
되여차 배넘어간다
섬지나 물결지나
이배를 저어가면
어느개 어느말에
누구를 찾아가나
그린임 못만날바에야
다시돌아 안오리 (多大浦地方)

*임동권, 『한국민요집Ⅱ』, 집문당, 1974, 128~129쪽(657번~659번).
*김승찬·박경수·황경숙, 『부산민요집성』, 세종출판사, 2002, 381쪽. 제목을 '다대포 뱃노래'로 하고, 4음보로 표기함.

3. 중부산 문화권 민요

1) 금정구 민요

[금정구 민요 1]

모심기 노래

서울이라 왕대밭에 금비둘기가 알을놓아
그알하나만 주었으면 금년과게 내할낀데 이 후후후~~

해다지고 저문날에 우연행상 떠나가노
태백이 본처죽고 이별행상 떠나가네 이 후후후~~

울긋불긋 곱은독에 누룩을넣어서 금청주요
팔모로깎았다 유리잔에 너울한쌍이 권주하네 이 후후후~~

머리좋고 실헌처녀 울뽕남게 앉아우네
울뽕달뽕 내따주면 백년허락 내캉하자 이 후후후~~

퐁당퐁당 찰수지비 사우야판에 다올랐네
할멈은 어데가고 딸에동작을 시키는고 이 후후후~~

해다졌네 해다졌데 골짝골짝 해다졌다
우리할멈 어데가고 연기낼줄 모르는고 이 후후후~~

낭창낭창 벼락 끝에 무정하다 울오랍아
나도죽어 남자가되어 처자식구 살릴레라 이 후후후~~

물기야청청 헐어놓고 주인네양반 어데갔노
문어야쌈지 손에들고 첩의집에 놀러갔소 이 후후후~~

모야모야 노랑모야 니언제커서 열매열래
이달크고 저달크고 윤삼월에 열매열래 이 후후후~~

모시적삼 안섶안에 분통같은 저젖보소
많이야보면 병날끼고 조쌀알만큼 보고자소 이 후후후~~

오늘반찬 점심찬에 무슨고기 올랐던고
무슨 명태가 마리마리 올랐더라 이 후후후~~

<전봉조(남), 80세, 죽전>

*황경숙·문재원, 『오래된 마을 미래공동체 –산성마을 사람들』, 부산발전연구원 부산학연구센터, 2014, 76~77쪽.

[금정구 민요 2]

못 갈 장가 노래

장가장가 못갈장가 열아홉살에도 못갈장가
앞집이라 책력을보고 뒷집이라 궁합보고
궁합에도 못갈장가 책력에도 못갈장가
삼십살에도 못갈장가 사십이라 갈똥말똥
진시와서 가는장가를 어느야누구야 막을손가
구촌아재비 상각을가고 중선애비는 뒤따르고
부고와소 부고와소 밀량삼랑에 부고와소
한쪽손에다 받으나부고 두손으로 띠어보니
신부죽으는 부고로세
앞에가시는 상각님요 오던길로 돌아가오
뒤에오던 중신애비도 오던길로만 돌아가오
한모령을 돌아서니까 야시야짐승이 울며가고
두모령을 돌아서니 까막가치가 울며가고
세모령을 돌아서니 주인없는 신을신고서 지나가네
한대문을 열고서보니 대목양반이 널을잡고
두대문을 들고보니 꽃쟁이가 꽃만들고
세대문을 열고서보니 일꾼들이 줄을틀고
대문을 쑥들어서니 오생기가 왠말인가
다섯대문을 쑥들어서니 곡소리가 진동하네
여섯대문 쑥들어서니 쟁인장모 썩나서면서
사우사우 내사우야 내딸살릴라 너가왔냐
들어가세 들어가세 신부야방으로 들어가세

신부방문을 열고서보니 반달같은 저눈꼽에 저승꽃이 왠말인고
가오리라 가오리다 오던길로 가오리라
자형자형 우리자형 우리누님을 어찌하요
너그누님 할수있나 산에가서러 누워있지
흙이들랑 밥을삼고 흙잔디랑 옷을삼고
칡뿌릴랑 물을삼고 산에가서럴 주워있지
이제가시면 언제나오요
큰솥에 안혔는밥이 싹이트면 내올란가
동솥에 앉혔는닭이 홰치면은 내올란가
삼년묵은 소빼당구에 살이붙으면 내올란가
내줄라고 하였난술은 상각군이야 많이주고
날줄라고 하였넌떡은 봉투떡이나 잘지아주고
같이덮자 한이불 혼자덮고서 건너가고
둘이비자 비게를 혼자비고서 극락가소
가요가요 나는가요 우던길로 나는가요

<전봉조(남), 80세, 죽전>

*황경숙·문재원, 『오래된 마을 미래공동체 –산성마을 사람들』, 부산발전연구원 부산학연구센터, 2014, 77~78쪽.

[금정구 민요 3]

진주난봉가

울도담도 없는집에 시집삼년을 살고나니
시어마시 하신말씀이 야야아가 메늘아가
진주낭군을 볼랄들걸랑 진주남강에 빨래가라
진주남강 빨래가니 물도좋고 돌도좋아
철그럭철그럭 빨래를하니 난데없는 말자죽소리
옆눈을 헬키고보니 하늘같은 옷을입고
구름같은난 갓을시고 기생첩을 뒤태우고서 못본 듯이 지나가네
흰빨래는 희게 시고 검둥빨래는 검게씻거
집이라고 찾아서오니 시어머씨 하신말씀이
아가아가야 며늘아가 아랫방으로 내려가라
아랫방을 내려가니 열두가지 술을 놓고 열두가지야 안주놓고
기생첩을 옆에두고서 권주가소리가 요란하다

그며느리가 그꼴을 보고 웃방으로 뛰어와서
명지야석자 목에걸고 열둑지 약을먹고
못가겠소 소리를질렀더니 진주낭군 그소리듣고
버선발로 뛰어와서 본처야정은 백년이고 첩의야정은 일년인데
신통방통 왜죽었나

<전봉조(남), 80세, 죽전>

*황경숙·문재원, 『오래된 마을 미래공동체 –산성마을 사람들』, 부산발전연구원 부산학연구센터, 2014, 78~79쪽.

[금정구 민요 4]

창부타령

아니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화초동방 첫날밤에 부끄럼도 가이없서
버선발로 쫓아 나와서 서방님 손목을 덥썩 잡고
들 갑시다 들 갑시다 나 자는 별당을 들갑시다
한 이불이랑 들쳐놓고 긴 비개도 마주 비고
둘이 누워 두둥둥둥 생각을 하니 조선의 낙화가 여기던가
이히 리리릴리리릴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저 건너라 초가집 안에 큰 애기 둘이가 들락날락
물레라야 잣았드냐 고기라야 낚어 낼까
손짓을 하면 제모를 끼고 구름 자면은 넘 알끼고
얼렁덜덩 뒷 골을 보니 젊은 놈 간장만 다 녹인다
아니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오동낭게 궁걸 뚫버 개가죽으로 매워난 장기
남창은 빙빙 북창은 둥둥 기생 팔목은 난청난청
열두야 마디 사장귀 열채 사장귀 복판을 굴리는데
온 세상 황금들은 이팔에 청춘을 배우니라
아니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전봉조(남), 80세, 죽전>

*황경숙·문재원, 『오래된 마을 미래공동체 –산성마을 사람들』, 부산발전연구원 부산학연구센터, 2014, 112쪽.

[금정구 민요 5]

구멍타령

저 건너 딱따구리는 없는 구멍도 뚫는데
우리 집 저 문딩이는 있는 구멍도 몬 뚫는다

<전봉조(남), 80세, 죽전>

*황경숙·문재원, 『오래된 마을 미래공동체 –산성마을 사람들』, 부산발전연구원 부산학연구센터, 2014, 112쪽.

[금정구 민요 6]

양산도

에헤이요
양산 읍내 물레방아 물을 안고 돌고
뒷집의 큰 애기는 나를 안고 돈다
에헤이여
열 단장 넘을 적에 큰맘을 먹고
문고릴랑 붙잡고 바발발발 떤다

<전봉조(남), 80세, 죽전>

*황경숙·문재원, 『오래된 마을 미래공동체 –산성마을 사람들』, 부산발전연구원 부산학연구센터, 2014, 112쪽.

[금정구 민요 7]

노랫가락(1)

신구 명산 바람이 불어서 쓰러진 나무
눈 비가 운다고 일어나나
송죽같이 굳은 절개를 매 맞는다고 허락하리
요 내 몸이 기생일 망정 절개조차 없을손가
밥을 먹고 물 마시고 팔을 비고서 누웠으니
대장부 살림살이는 요만하면은 넉넉하지
얼씨구 좋네 지화자좋네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전봉조(남), 80세, 죽전>

*황경숙·문재원, 『오래된 마을 미래공동체 –산성마을 사람들』, 부산발전연구원 부산학연구센터, 2014, 112쪽.

[금정구 민요 8]

노랫가락(2)

이 청 저 청 대마루 청에 빙빙 도는 병모님요
빌립시다 빌립시다 막걸리 한 잔을 빌립시다
막걸리 한 잔에 웃음이 나면 손수건 하낱에 정이 드요
아니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밀양 읍내 팔도야 고개 김선네 딸이 맏딸인가
하 잘났다 소문을 듣고 한 번 가도 못 볼래라
삼 세 세 번을 가여도 못 볼래다
삼 세 번 거퍼서 가니 칭기 칭기야 돌려놓고
부을매라 당수야 처마 나무 주름을 잡아 입고
신던 버선을 볼 받아신고 입던적 삼은 등받아 입고
연지 찍고 분 바르고 자형 오도록 기다리요

<전봉조(남), 80세, 죽전>

*황경숙·문재원, 『오래된 마을 미래공동체 –산성마을 람들』, 부산발전연구원 부산학연구센터, 2014, 112~113쪽.

[금정구 민요 9]

밀양아리랑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쪼끔 보소
동지섣달 꽃본 듯이 날 좀 보소
아리 아리랑 쓰리 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주소
부산 삼빠시 매일 연락선 빨간 굴뚝 까만 연개
폴이 팡팡 고동 떼떼불고 오륙도 멀리 썩나서니 시모노세끼로다
아리 아리랑 쓰리 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주소

길가의 단장은 높아야 좋고
주막집 아줌마는 곱아야 좋다
아리 아리랑 쓰리 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주소
열두 단장 넘을 적에 큰 맘을 먹고
두 손을 꼭 잡고 바발발발가네
아리 아리랑 쓰리 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주소

<전봉조(남), 80세, 죽전>

*황경숙·문재원, 『오래된 마을 미래공동체 –산성마을 사람들』, 부산발전연구원 부산학연구센터, 2014, 113쪽.

[금정구 민요 10]

청춘가(1)

청춘은 하늘에 잔별도 많고요 요내야
가슴속엔 수심이 많구나
내님아 자는 방에 잔기침 소리도
가다가 들어봐도 우런 님 소리던가
술과 담배는 요내 심중 알건만은
한 품에 드는 님은 내 심정 왜 모르나
날다려 가거라 날다려 가거라
한양땅 서방님아 날다려 가거라
널 다려갈 맘은 야먀야먀 있건만은
부모님 허락없이 못 다려가는구나
못 사리로라 못 사리로다 내 못 사리로다
당신 없는 요세상을 내 못사리로다
못살면 가거라 너 하나뿐이던가
산넘어 산이로라 물건너 물이로다

<전봉조(남), 80세, 죽전>

*황경숙·문재원, 『오래된 마을 미래공동체 –산성마을 사람들』, 부산발전연구원 부산학연구센터, 2014, 113쪽.

[금정구 민요 11]

청춘가(2)

높은산 상봉 외롭다 저 소나무
날강같이도 오롯이 섰구나
방공에 뜬 나부야 꽃 보고 앉지마라
왕거무 줄쳐놓고 니 오도록 기다린다
너가 잘라서 일색이이더냐
내 눈이 어두워서 환장이 되느냐
삼팔선 경계선에 총각도 많고요
부산아 방직회사에 큰 아기도 많더라
낙동강 칠백리에 무쇠 공굴 놓고서
열두 칸 기차가 왕래를 하는구나
우연히 날 싫더라 누구말 들었더노
날만보면은 생짜징 내느냐

<전봉조(남), 80세, 죽전>

*황경숙·문재원, 『오래된 마을 미래공동체 –산성마을 사람들』, 부산발전연구원 부산학연구센터, 2014, 113쪽.

[금정구 민요 12]

각설이타령

일자나 들고 보니　　일선에 가신 우리 낭군 돌아오기 만문하고
이자나 한자 들고 보니　　이승만이가 대통령이요 장맹이는 부통령
삼자나 한자 들고나 보니　　삼천만의 동포들이 삼일운동을 기다린다
육자나 한자나 들고 보니　　육이오사변 동난 끝에 집딱가리 다태와 묵고 깡통 생활이 왠말인교
장자나 한자 들고 보니　　장가가는 첫날밤에 소집에 영장이 왠말이요

<전봉조(남), 80세, 죽전>

*황경숙·문재원, 『오래된 마을 미래공동체 –산성마을 사람들』, 부산발전연구원 부산학연구센터, 2014, 113~114쪽.

[금정구 민요 13]

지신밟기 노래

어허여루 지신아 성주지신 풀어보자
어허여루 지신아 성주지신 불리보자
세상천지 개백 후에 개법천지 돌아올 때
유유필천 하늘 천자 자박자신 열려있고
천지우엔 땅 지자 주박 정신 벌어 졌어
에고라 천황씨는 옥독으로 원한할 때
우리 인생 나타날 때 임박임시로 나타나고
우리 인생 집이 없어 바우틈을 집을 삼고
아무 열매 밥을 삼고 나뭇잎을 옷을 삼아
엄동설한 설한풍에 눈비 맞고 살으러할 때
신농씨가 나타나서 남산에다 밭을 갈고
농사짓는 법을 내어 농사짓게 힘을 쓰고
연화씨는 나타나서 길쌈질을 가르칠 때
좋은 덕록 많이 짜서 옷을 지어 짓게 하고
어느씨는 나타나서 억주창생 구제할 때
모진 병이 몸에 들여 주야육신 앓는 사람
대산육초 풀을 모아 색가지 풀을 맛을 보고
대산육조 약을 지어 모든 병도 낫게하네
성주님은 나타나서 하루나서 둘러보고
주야강산에 터를 닦아 초가삼칸 집을 지어
예측 없는 법을 내어 장가가고 시집가서
아들 놓고 딸을 낳아 모진눈비 아니 맞고
군자사천 좋은방에 아들딸이 장성하니
동서남북을 다다녀도 넘의눈에 꽃이되고
넘의 눈에 잎이되소
장하도다 장하도다 성주 공덕이 장하도다
억주창생 만님들아 성주님을 잘 모시소
성주님을 모실라하니 성주근본 알어야지
성주부친은 청룡대왕 성주모친 개화부인
삼십년간 지나가고 사십 연간이 돌아와도
부부간에 자식 없어 개화부인 탄식할 때

수미산 팔봉대에 도사님이 내리소서
개화부인 문전 앞에 목탁치며 동냥할 때
개화부인 바라보니 그중태가 범상하여
버선발로 뛰어내려 중아중아 들어 보소
우리부부 자식 없어 탄식 끝에 눈물이라
보살님 하신말씀 신곡 없는 자식 놓면
공든 탑이 무너질까 신전전 끊어질까
우리 절에 부처님은 효험이 많은구로
백일정성 기도하면 귀한태자 볼거이요
그 말씀을 하시더니 가고온데가 흔적 없네
개화부인 거동보소 수미산을 올라갈때
높은산에 천기빌고 낮은산에 기도하고
수와근본 탑을모아 월천강에 다리놓고
수미산을 올라가서 대법당을 점검하니
법당안에 아미타불 염불꽃이 만발하다
금불부처가 도금하고 백일청송 기도하니
온집안에 향기나고 그달부터 태기있어
오십년연간 잃은아들 그아들이름이 성주로다
와가성주 천하성주 성주근본 어더메요
경상도 안동땅 제비종천 본이던가
제비중천 본아니다 강남원이 본이로다
강남에서 날러온제비 솔씨한쌍을 물어다가
뒷동산 높이떠서 삼천리강산에 흩었더니
밤이되면 이슬맞고 낮이되면 태양받아
그솔점점 자라나서 타박솔이 되었고나
타박솔이 자라나서 행장목이 되였구나
행장목이 자라나서 도릿기둥이 되었소
버들유자 유대목아 받을박자 박대목아
서른세가지 연장망태 왼어깨 둘러메고
뒷동산 치칫달라 한등넘고 두등넘어
나무한줄 잡아보니 동쪽으로 뻗은가지
황새백새가 알을놓아 그나무 못쓰겠네
또한등을 넘어서서 나무한줄 잡아보니
서쪽으로 뻗은가지 까막까치가 집을지어
그나무도 못쓰겠네 삼십등 그등너머

나무를 잡아보니 이나무가 대들보나무다
버들유자 유대목아 받을박자 박대목아
갓은벗어 솔깽이걸고 윗옷은벗어서 뒤를치고
그나무에 톱을걸어 밀어라댕기라 톱질이야
그나무 넘는소리 하늘에서는 천동을하고
땅에서는 진동하네
화살같이 곧은먹줄 그나무에 겹겹이탱겨
옥도끼로 찍어내고 금도끼로 다듬어서
이골저골 사람들이 이집나무 후송할때
이집이라 대주양반 집터보러 떠납시다
서울앞산은 삼각산이요 서울뒷산은 졸각산
그산줄기 떨어져서 경상도태백산 생겼소
그산줄기 떨어져서 금정산이 생겼구나
그산줄기 떨어져서 이집터가 생겼구나
터를닦아 터를닦아 요광벌이 터을닦아
초가삼간 집을지어 성주님을 모십시다
모시자 모시자 성주님을 모십시다
일년하고 육십일을 오늘까지 정재하고
막아주소 막아주소 고무도둑 막아주고
막아주소 막아주소 발큰놈도 막아주고
장하도다 장하도다 성주공덕이 장하도다
잡구잡신 물알가고 만복을랑 이리오소 [성주풀이]

어허여루 지신아 조왕지신 물리주소
서말이라 서마지기 열두채가 걸렸소
오동나무 실겅에 도리야판도 걸렸소
장하도다 장하도다 성주공덕이 장하도다
막아주고 막아주소 고무도둑 막아주소
막아주소 막아주소 발큰놈도 막아주소
잡구잡신 물알가고 만복은 이리로 오소 [조왕풀이]

어허여루 지신아 장독지신을 물리보자
골치자 꿀치자 이장독에 꿀치자
꿀치자 꿀치자 간장에다 꿀치자

꿀치자 꿀치자 막장에도 꿀치고
꿀치자 꿀치자 고추장에도 꿀치고
꿀치자 꿀치자 된장에도 꿀치소
막아주소 막아주소 발큰놈도 막아주고
막아주소 막아주소 고무도둑 막아주고
잡구잡신은 물알가고 만복은 이리로오소 [장독풀이]

<전봉조(남), 80세, 죽전>

*황경숙·문재원, 『오래된 마을 미래공동체 –산성마을 사람들』, 부산발전연구원 부산학연구센터, 2014, 186~188쪽.

2) 동래구 민요

[동래구 민요 1]

戀慕謠

새는새는 낭구에자고
날가같은 아그들은
할매품에 잠을자고
고은고은 각씨들은
임의품에 잠을자고

새는새는 낭게자고
지는지는 궁게자고
각씨각씨 새각씨는
신랑품에 잠을자고
우리같은 아이들은
엄마품에 잠을자고
새는새는 낭게자고
지는지는 궁게자고
돌에붙은 따깹이야
낭게붙은 솔방울아
나는나는 어데자꼬
우리엄마 품에자지 (東萊地方)

*임동권, 『한국민요집Ⅰ』, 집문당, 1961, 371쪽(1548번).
*김사엽·최상수·방종현 공편, 『조선민요집성』, 정음사, 1948, 219쪽. 위에서 "새는새는 낭구에자고 ...(중략)... 임의품에 잠을자고" 부분이 없음. 제목은 '새는새는 낭게자고'임.
*경상남도지간행위원회, 『경상남도지(하)』, 경상남도 공보실, 1963, 201쪽. 위의 『조선민요집성』과 동일한 민요를 재수록하되, "1932年 8月 東萊郡 東萊邑 校洞 洪甲子 口誦"으로 채록 정보 표시.
*김승찬·박경수·황경숙, 『부산민요집성』, 세종출판사, 2002, 391쪽. 제목은 '연모요'. 위에서 "새는새는 낭구에자고 ...(중략)... 임의품에 잠을자고" 부분만 수록함.

[동래구 민요 2]

길놀이 노래

---'동래 야류[11] 길놀이 장'에서 부르는 노래.
(합창) 에헤헤 에에헤헹 에에헤헹 에에헤헹 해야아하아 에헤이 여루산이로다.
(앞소리) 산아산아 수려산아, 눈비맞구 뱓구산아.
(뒷소리-합창소리와 같음)
(앞소리) 산은첩첩 청산이요, 물은출렁 녹수로다.
(뒷소리-합창소리와 같음)
(앞소리) 일모서산에 해떨어지고, 월출동령에 달돋아온다.
(뒷소리-합창소리와 같음)
(앞소리) 장성일면 용용수요, 대야동두 점점산을.
(뒷소리-합창소리와 같음)
(앞소리) 팔도로돌아 유산객이요, 여덟도명산이 금강산을.
(뒷소리-합창소리와 같음)
(앞소리) 한량노릇을 마잤더니, 새장구장단에 발림춤 만난다.
(뒷소리-합창소리와 같음)
(앞소리) 저달아 보느냐? 님계신데 명기를 빌려라. 날좀보게.
(뒷소리-합창소리와 같음)
(앞소리) 말은가자고 굽을치고, 님은잡고서 낙루를한다.
(뒷소리-합창소리와 같음)
(앞소리) 경상도라 태백산은 낙동강이 둘러있네.
(뒷소리-합창소리와 같음)
(앞소리) 전라도라 지리산은 섬진강이 둘러있네.
(뒷소리-합창소리와 같음)

*김승찬·박경수·황경숙 공편, 『부산민요집성』, 세종출판사, 2002, 412~413쪽.

[동래구 민요 3]

난봉가

11) 중요무형문화재 제18호, 1967. 12. 21지정.

---‘동래 야류 길놀이 장’에서 부르는 노래.
(합창) 에 에헤헤 에헤헤야 에헤헤 야아하 어루후훔마 하아 두리둥 두리두홍 내 사랑아하 안 가노오라.
(앞소리) 슬슬동풍에 그즌비 주루룩 오고요, 시화야 연풍에 님생각이 나노라.
(뒷소리-합창소리와 같음)
(앞소리) 난봉이 났구나. 아하 난봉이 났구나하.
(뒷소리-합창소리와 같음)

*김승찬·박경수·황경숙 공편, 『부산민요집성』, 세종출판사, 2002, 413~414쪽.

[동래구 민요 4]

양산도

---‘동래 야류 길놀이 장’에서 부르는 노래.
(앞소리) 에헤 헤이야아- 차문주가 하처재요 요지 행화촌이라.
세월아 봄철아 오고 가지마라. 아까운 청춘이 다 늙어간다.
(뒷소리) 에에라 놓아라 아니 못놓겠네. 능지를 하여도 나는 못놓겠네.
(앞소리) 에헤 헤이야아- 월백설백 천지백하고, 산심수심 객수심이로다. 일락서산에 해떨어지고, 월출동령에 달돋아온다.
(뒷소리)
(앞소리) 에헤 헤이야아- 양덕맹산 흐르는물은 부벽루앞으로 곰돌아온다. 삼산은 반락청천외요, 이수는 중분능라도라.
(뒷소리)
(앞소리) 에헤 헤이야아- 무심한 저달이 구름밖에 나드니, 공연한 심사를 산란케 하나. 아서라 마러라, 네가 그리마러라. 사람의 괄세를 네가 그리마러라.
(뒷소리)

*김승찬·박경수·황경숙 공편, 『부산민요집성』, 세종출판사, 2002, 414쪽.

[동래구 민요 5]

상도소리

---‘동래 야류 할미장’에서 부르는 상두노래.

(앞소리) 이세상 울적에는 백년이나 살자더니, 먹고진건 못다먹고, 어린자손 사랑하며 천추만세 지낼려고 했더니, 무정세월 여류하여 인생을 늙히는구나.
(뒷소리) 아아 어어 어어 아아.
(앞소리) 북망산천이 먼줄 알았더니, 방문밖이 북망이로다.
(뒷소리) 너화홍 너화홍 너화넘차 너화홍.
(앞소리) 황천수가 멀다더니 앞냇물이 황천술세, 수야수야 이억수야 너와나화 너이롱.
(뒷소리) 너화홍 너화홍 너화넘차 너화홍.

*김승찬·박경수·황경숙 공편, 『부산민요집성』, 세종출판사, 2002, 415쪽.

[동래구 민요 6]

오독독이타령

---'동래 야류 여흥장'에서 부르는 타령.
(원양반) 수양산 깊은골로 가만히 슬슬 들어가서, 버들나무 한가지를 한오큼 주루루 훑어다가, 깊고 깊은 물에 여게도풍덩 저게도 풍덩 풍구덩 풍덩.
(차양반) 풍덩 풍덩이라니?
(일동) 옹달샘에 돌 던지는구나.
(원양반) 엿다 너 몰랐다! 양류청청 도수인이로다.
(양반들) 뒷소리 : 용타용타 용타용타 예후절사 더듬석 안고, 아해요것이 네로구나.
(원양반) 쉬- 저놈의양반 거동을보아라. 갓은 벗어서 등짐지고, 옷은 벗어서 짝지에매고, 이리로 비틀 저리로 비틀.
(차양반) 비틀 비틀이라니?
(양반들) 석양귀객이 장불한일세.
(원양반) 엇다 몰랐다. 취주강산에 다호걸이로구나.
(양반들) 뒷소리 : 위와 같음.
(원양반) 춘풍에 휘늘어진 버들가지는 이리저리 휘날려서 우줄 우줄 우줄.
(차양반) 우줄우줄이라니?
(양반들) 작작요요 난만중에 범나비쌍쌍 날아든다.
(원양반) 엿다 너몰랐다. 양류세지 사사록하니, 꾀꼬리쌍쌍 춤을 추노라
(일동) 뒷소리 : 위와 같음.

*김승찬·박경수·황경숙 공편, 『부산민요집성』, 세종출판사, 2002, 415~416쪽.

4. 지역 미상 민요

[부산광역시 민요 1]

繼母歌 (慶尙 東萊郡)

수싯대야 수만대야
오실동々 올아배야

前妻에- 子息두고
後室장가 가지마소

모시적삼 속적삼이
눈물싹기 다젖는다

*김지연, 「조선민요의 연구(1)」, 『조선』 제151호, 1930. 5, 41쪽.
*임동권, 『한국민요집Ⅰ』, 집문당, 1961, 396쪽(1628번). '(東萊地方) 朝鮮151號'로 출처 표시. 제목은 '繼母노래'. 연 구분 없이 연속해서 표기함.
*임동권, 『한국민요집Ⅳ』, 집문당, 1979, 367쪽(860번). '東萊地方'으로 출처 표시. 제목은 '再婚謠', 노래 가사의 한자는 한글로, '눈물싹기'는 '눈물닦어'로 표기함.
*김승찬·박경수·황경숙, 『부산민요집성』, 세종출판사, 2002, 391쪽. 제목은 '계모 노래', 위의 『한국민요집Ⅰ』과 『한국민요집Ⅳ』의 출처를 표시함.

[부산광역시 민요 2]

모시적삼

모시적삼 안섭안에 연꽃같은 저젖봐라
그 젖 한번 덤썩쥐면 영결종천 귀양간다.

*박원표, 『향토부산』, 태화출판사, 1967, 197쪽.
*김승찬·박경수·황경숙 편, 『부산민요집성』, 세종출판사, 2002, 372쪽. [부산광역시 민요 2]부터 [부산광역시 민요 8]까지 합쳐서 '모심기 노래'로 수록함.

[부산광역시 민요 3]

큰애기

동래야부산 큰애기들은 작으나크나 알백이
馬浦야선창 큰애기들은 청어엮이도 날새네.

*박원표, 『향토부산』, 태화출판사, 1967, 197쪽.
*김승찬·박경수·황경숙 편, 『부산민요집성』, 세종출판사, 2002, 372쪽. [부산광역시 민요 2]부터 [부산광역시 민요 8]까지 합쳐서 '모심기 노래'로 수록함.

[부산광역시 민요 4]

총각, 처자

유자야탱주는 의가좋와 한꼭지에 둘이여네.
처자총각은 의가좋와 한벼개에 잠이드네.

*박원표, 『향토부산』, 태화출판사, 1967, 198쪽.
*김승찬·박경수·황경숙 편, 『부산민요집성』, 세종출판사, 2002, 372쪽. [부산광역시 민요 2]부터 [부산광역시 민요 8]까지 합쳐서 '모심기 노래'로 수록함.

[부산광역시 민요 5]

부모, 형제

파랑부체 곱은도령 뛰띤것도 보기좋네.
우리생이 살았드면 지신아재 삼을그로.
사공아 배띄여라, 우리동생 보려갈레.
느그동생 무슨죄로 影島섬에 귀양갔노.

*박원표, 『향토부산』, 태화출판사, 1967, 198쪽.
*김승찬·박경수·황경숙 편, 『부산민요집성』, 세종출판사, 2002, 372쪽. [부산광역시 민요 2]부터 [부산광역시 민요 8]까지 합쳐서 '모심기 노래'로 수록함.

[부산광역시 민요 6]

첩

유월달이 돌아와서 첩을팔아 부체샀네
구시월이 닥쳐오니 첩생각이 절로난다

*박원표, 『향토부산』, 태화출판사, 1967, 198쪽.
*김승찬·박경수·황경숙 편, 『부산민요집성』, 세종출판사, 2002, 372쪽. [부산광역시 민요 2]부터 [부산광역시 민요 8]까지 합쳐서 '모심기 노래'로 수록함.

[부산광역시 민요 7]

하룻밤

왜왔드냐 왜왔드냐 울고갈것을 왜왔드냐.
이왕지사 왔거들랑 하룻밤이나 쉬고가소.

*박원표, 『향토부산』, 태화출판사, 1967, 198쪽.
*김승찬·박경수·황경숙 편, 『부산민요집성』, 세종출판사, 2002, 372~373쪽. [부산광역시 민요 2]부터 [부산광역시 민요 8]까지 합쳐서 '모심기 노래'로 수록함.

[부산광역시 민요 8]

님

은장도라 칼이되어 님의고름에 놀고지고.
은제놋제 수제되어 님의상에 놀고지고.

*박원표, 『향토부산』, 태화출판사, 1967, 199쪽.
*김승찬·박경수·황경숙 편, 『부산민요집성』, 세종출판사, 2002, 373쪽. [부산광역시 민요 2]부터 [부산광역시 민요 8]까지 합쳐서 '모심기 노래'로 수록함.

[부산광역시 민요 9]

별구경

별도닷네 별도닷네 전에없는 별도닷네.
앞집동무 뒷집동무 별구경 하러가면.
님이와서 기다릴걸 님이와서 기다릴면 그아니나 반가할가.
반가하는 그중에야 사랑인들 오직하리.

*박원표, 『향토부산』, 태화출판사, 1967, 199쪽.
*김승찬·박경수·황경숙 편, 『부산민요집성』, 세종출판사, 2002, 373쪽. 마침표 삭제하여 표기함.

[부산광역시 민요 10]

漁夫歌

어허디야 어허디야 어기여차 배띄여라.
만경청파 가잤고나.
오호뒤야 오호뒤야 어이여라 배띄여라.
우리인생 죽어지면 모든것이 허사로다.
호의호식 몬해보고 수중에서 생장하야.
수중으로 다니기는 육지같이 다니면서.
해중풍파 다겪다가 아차실수 가게되면.
고기밥을 면할소냐 수중고혼 면할소냐.
어떤놈은 팔자좋와 고대광실 높은집에
남녀노비 거느리고 호의호식 하는구나
우리팔자 기구해서 어부몸이 되였구나.
이놈팔자 기박하야 정처없이 다니다가.
아차실수 하고보면 부모형제 못보고서.
수중혼이 되나보다 고기밥이 되나보다.
어야디야 어허디야 이늠의 팔자보소.
부모처자 생이별로 이곳저곳 냇버리고
죽을곳을 알면서도 할수없이 가는구나.
어허디야 별수있나 우리생업 이것이니
이것저것 생각말게 천생직업 할수있나.
벌어먹는 골시고나.
어허디야 닻감아라 돛달아라 배띄여라.

*박원표, 『향토부산』, 태화출판사, 1967, 199~200쪽.

*부산직할시 동래구청 문화공보실, 『동래의 역사』, 부산직할시 동래구청, 1990, 207쪽.
*강서향토지발간추진위원회, 『강서향토지』, 동 발간위원회, 1988, 276쪽. 2음보로 표기함.
*금정구청, 『금정구지』, 소문출판인쇄사, 1991, 673쪽. 2음보로 표기함.
*김승찬·박경수·황경숙 편, 『부산민요집성』, 세종출판사, 2002, 373~374쪽 재수록. 한자는 한글로 하되, 쉼표와 마침표를 없애고 표기함.

[부산광역시 민요 11]

저승길[12)]

저성길이 길겉으면 내가가도 천번가리
무상터라 무상터라 저성길은 무상터라.
아가아가 가지마라 저성길에 가지마라.
저성길은 무상터라 한번가면 못오니라.

*박원표, 『향토부산』, 태화출판사, 1967, 200쪽.
*김승찬·박경수·황경숙 편, 『부산민요집성』, 세종출판사, 2002, 374쪽 재수록.

[부산광역시 민요 12]

닭 잡기

실-실 꼬-꼬 내닭 주소
자네닭 없네 실-실 꼬-꼬
내닭 주소 자네닭 없네

*박원표, 『부산변천기』, 태화출판사, 1970.
*김승찬·박경수·황경숙 편, 『부산민요집성』, 세종출판사, 2002, 375쪽 재수록.

[부산광역시 민요 13]

달팽이

12) 본문에는 '저성길'로 잘못 표기되어 바로 잡음.

할마할마 춤처라
영감영감 장구쳐라

*박원표, 『부산변천기』, 태화출판사, 1970.
*김승찬·박경수·황경숙 편, 『부산민요집성』, 세종출판사, 2002, 375쪽 재수록.

[부산광역시 민요 14]

고양이

아-나 살진-아 개기하고 밥줄께
많이묵고 살져라 많이묵고 쥐잡아라

*박원표, 『부산변천기』, 태화출판사, 1970.
*김승찬·박경수·황경숙 편, 『부산민요집성』, 세종출판사, 2002, 375쪽 재수록.

[부산광역시 민요 15]

오랑깨롱

오랑깨롱 간깨롱 정지문 앞 간깨롱
누른밥을 준깨롱 무근깨롱 꼬신깨롱
더달랑깨롱 안준깨롱 운-깨롱 더준깨롱
무근깨롱 꼬신깨롱

*박원표, 『부산변천기』, 태화출판사, 1970.
*김승찬·박경수·황경숙 편, 『부산민요집성』, 세종출판사, 2002, 375~376쪽 재수록.

[부산광역시 민요 16]

곰보

곰보야 쥐잡아라
샛찌샛찌 나온다

*박원표,『부산변천기』, 태화출판사, 1970.
*김승찬·박경수·황경숙 편,『부산민요집성』, 세종출판사, 2002, 376쪽 재수록.

[부산광역시 민요 17]

각시

동무깨미 세간에 아들놓고 딸놓고
시어미한테 빰맞고 아프다소리 못하고
입만딱딱 벌린다

*박원표,『부산변천기』, 태화출판사, 1970.
*김승찬·박경수·황경숙 편,『부산민요집성』, 세종출판사, 2002, 376쪽 재수록.

[부산광역시 민요 18]

서당 강아지

하늘천 따따지 가마솥에 누른밥
딸딸 끌거서 내한그릇 잡수고
너한그릇 쳐묵고

*박원표,『부산변천기』, 태화출판사, 1970.
*김승찬·박경수·황경숙 편,『부산민요집성』, 세종출판사, 2002, 376쪽 재수록.

[부산광역시 민요 19]

앞니 빠진 아이

앞니빠진 개오지 웃니빠진 소오지
아가리딱딱 벌려라 열무김치 들어간다

*박원표,『부산변천기』, 태화출판사, 1970.
*김승찬·박경수·황경숙 편,『부산민요집성』, 세종출판사, 2002, 376쪽 재수록.

[부산광역시 민요 20]

돼지

뭐묵-고 살았노? 돼지묵고 살았지
무슨저로 묵었노? 쇠-저로 묵었지
누캉누캉 묵었노? 나혼자 묵었지
꿀꿀 돼-지

*박원표, 『부산변천기』, 태화출판사, 1970.
*김승찬·박경수·황경숙 편, 『부산민요집성』, 세종출판사, 2002, 376~367쪽 재수록.

[부산광역시 민요 21]

나 죽거들랑

날랑날랑 죽거들랑 앞산에도 묻지말고
뒷산에도 묻지말고 연꽃밭에 묻어주소
연꽃하나 피거들랑 날만여겨 돌아보소

*박원표, 『부산변천기』, 태화출판사, 1970.
*김승찬·박경수·황경숙 편, 『부산민요집성』, 세종출판사, 2002, 377쪽 재수록.

[부산광역시 민요 22]

소꿉장난

야, 야 동두께미 살림하자
돌차다가 솥걸고 흙파다가 밥짓고
반두개미 살림에 박쪼가리 대문에
딱개비로 솥을하고 아들놓고 딸놓고
명지놓고 베놓고 문지방에 똥누고

*박원표, 『부산변천기』, 태화출판사, 1970.
*김승찬·박경수·황경숙 편, 『부산민요집성』, 세종출판사, 2002, 377쪽 재수록.

[부산광역시 민요 23]

초록제비

제비제비 초록제비 처마끝에 집을지어
그집짓던 삼년만에 울아버지 서울양반
우리엄마 진주띠끼[13] 우리오래비 훈련대장
우리올케 샛별각시 나하나는 옥단춘이

*박원표, 『부산변천기』, 태화출판사, 1970.
*김승찬·박경수·황경숙 편, 『부산민요집성』, 세종출판사, 2002, 377쪽 재수록.

[부산광역시 민요 24]

노리개요

울아버지 노리개는 담뱃대가 노리개며
우리엄마 노리개는 막내딸이 노리갤세
우리올케 노리개는 연지분통 노리갤세
우리머슴 노리개는 지개목발 노리갤세

*박원표, 『부산변천기』, 태화출판사, 1970.
*김승찬·박경수·황경숙 편, 『부산민요집성』, 세종출판사, 2002, 378쪽 재수록.

[부산광역시 민요 25]

여우놀이

한고개 넘어왔다 두고개 넘어왔다
세고개 넘어왔다
여우야 여우야 뭘하니? 잠잔다, 잠꾸러기
여우야 여우야 뭣하니? 세수한다, 멋쟁이
여우야 여우야 뭣하니 밥먹는다

13) 진주댁 (晉州宅).

무슨 반찬 먹니? 개구리반찬 먹는다
죽었니? 살았니?

*박원표, 『부산변천기』, 태화출판사, 1970.
*김승찬·박경수·황경숙 편, 『부산민요집성』, 세종출판사, 2002, 378쪽 재수록.

[부산광역시 민요 26]

우리 부모

눈이왔네 백옥산에
비가왔네 검검산에
백옥 끝에 솔을숨어
솔닢마중 학이올라
그학이사 점다마는
우리부모 다늙는다
늙은양은 설잖으나
희는양이 더욱설다.
— 동래(東萊)지방 —

*김사엽·최상수·방종현 공편, 『조선민요집성』, 정음사, 1948, 121쪽.
*임동권, 『한국민요집 Ⅰ』, 집문당, 1961, 392쪽(1611번). '安東地方' 민요로 제목은 '부모요'. 가사 중에서 '백옥산, 백옥, 학, 부모'는 한자로 표기함.

[부산광역시 민요 27]

배사공 소리

너는누며 나는누며
상산땅에 조자룡이라
아으이어야 되어차
배넘어간다

우리가살면 몇백면살며
아명살어도 단팔십이라

아으이어야 되어차

타고던기는것 칠성판이요
잉어덩기는 것 명정포로다
아으이어야 되어차
배넘어간다

어해야 무얼하리
어허하나님 모진광풍
부지마소
아으이어야 되어차
배넘어간다

아으배를타고 돈잘벌어
부모자식을 살리겠습니다
아으이어야 되어차
배넘어간다
　－ 부산(釜山)지방 －

*김사엽·최상수·방종현 공편, 『조선민요집성』, 정음사, 1948, 212쪽.
*임동권, 『한국민요집Ⅳ』, 집문당, 1979, 124쪽(360번). 제목은 '뱃노래'임.
*김승찬·박경수·황경숙 편, 『부산민요집성』, 세종출판사, 2002, 381~382쪽. 4음보로 기록하되, 앞소리와 뒷소리 (첫 부분만 기록)로 구분하여 표기함.

[부산광역시 민요 28]

이양요

이물기 저물기 흩어놓고
주인네 양반은 어데갔노
무내 전복 손에쥐고
첩에야 방에 놀러갔네

해다지고 저믄 날에
어떠나 행생이 떠나가노

이태백이 본처행생이 떠나간다

질래꽃은 생각하고
성노꽃은 시집간다
서마지기 논빼미
반달같이 남았구나
초생달이 반달이지
논뺌이 반달인가 (東萊地方)

*임동권, 『한국민요집 Ⅰ』, 집문당, 1961, 15쪽(132번~133번).
*김승찬·박경수·황경숙 편, 『부산민요집성』, 세종출판사, 2002, 380쪽. 4음보로 기록하되, 132번 중 첫째 각편 사설 생략.

[부산광역시 민요 29]

개지나칭칭

애칭칭나네
하늘에올라 항상금아
애칭칭나네
땅에내린 두상금이
애칭칭나네
하늘에는 잔별도많다
애칭칭나네
헌두디기 이도많다
애칭칭나네
시우주네 말도많다
애칭칭나네
대밭에는 오이[14]도많다
애칭칭나네
솔밭에는 괭이도많다
애칭칭나네
어떤사람은 팔자가좋아

14) '옹이'의 오자로 보임(편자 주).

애칭칭나네
고대광실높은집에 앉았다
애칭칭나네
어떤사람은 팔자가좋아
하이야[15]속에서 놀아나다
애칭칭나네
어떤사람은 팔자가드러워
헌두디기를 갖고
애칭칭나네 (東萊地方)

*임동권, 『한국민요집 Ⅰ』, 집문당, 1961, 252쪽(878번).
*김승찬·박경수·황경숙 편, 『부산민요집성』, 세종출판사, 2002, 395쪽. 앞소리와 뒷소리로 구분하여 표기함.

[부산광역시 민요 30]

山울림謠

백산아 백산아
너밥그릇하고
내밥그릇하고
바꾸-자
<山響을 듣고> (釜山地方)

*임동권, 『한국민요집 Ⅰ』, 집문당, 1961, 425쪽(1709번).
*김승찬·박경수·황경숙, 『부산민요집성』, 세종출판사, 2002, 409쪽. 가사 서두에 '—산울림 소리를 듣고'로 표시하고, 4행을 2행으로 표기하면서 띄어쓰기를 함.

[부산광역시 민요 31]

윷謠

홋방산이 산밑에 가고
석동운이 막 돌이간다[16]

15) 하이어(hire), 전세(傳貰) 승용차, 택시(TAXI)(『부산민요집성』, 395쪽 각주).

윷치야 샷치야
오금이 떡이냐
동- 자가사리
발실박실 한다 (東萊地方)

*임동권, 『한국민요집 Ⅰ』, 집문당, 1961, 476쪽(1990번).
*김승찬·박경수·황경숙 편, 『부산민요집성』, 세종출판사, 2002, 393~394쪽. 4음보 3행으로 표기함.

[부산광역시 민요 32]

성주풀이

하늘 생기고
갑자년 땅생기고
을축년 동서남북
생길적에
우리조선이 생기고
우리조선이 생길적에
제일먼저 경주요
두번째는 송도요
셋째는 서울이라
서울뒷산이 생길적에
그산이름이 돈암산
황해도 구월산
경상도 태백산
전라도 지리산
그산줄기를 받아서
양산통도사 생기고
동래범어사 생기고
동래정묘가 생겼네
강남에 나온제비
솔씨서말을 물어다가
금정산에 던졌네

16) '돌아간다'의 오자로 보임(편자 주).

그솔이 점점자라서
송장목이 생기고
황장목이 생기니
나무송장은 그만하고
집터한쌍을 찾어보세
뒷고을 이풍수
앞마을 박풍수
삼천리라 넓은땅
샅샅이 뒤져보고
동래에 다다르네
청룡의 자리에
홍룡이 띠를띠고
홍룡의 자리에
청룡이 띠를띠어
이리보아도 절시구
저리보아도 절시구
집터한쌍을 찾았으니
집터한쌍을 닦아보세
앞마을 역군들
뒷마을 역군들
금주개는 금줄매고
은주개는 은줄매고
나무주개는 새끼매고
높은데는 낮추고
낮은데는 들추어서
집터한쌍을 닦고보니
나무재단 하러가세
앞집에는 정대목
뒷집에는 이대목
첫닭울어 일어나고
두닭울어 해장하고
세닭울어 신발신고
서른세가지 연장망태
어깨넓적 둘러메고
뒷동산에 치치달아

나무한줄을 잡고보니
까막까치 집을지어
성주시주가 부정하고
또한줄을[17] 잡고보니
초록새가 집을지어
성주시주가 부정하고
금정산을 쳐다보니
그나무가지가 삼백가지
그나무길이 삼천길이
이리보아도 절시구
저리보아도 절시구
갓을벗어 걸어놓고
웃옷벗어 던져놓고
좀막같은 도끼들고
오리마치 물러서서
십리마치 다다르니
그나무뿌리를 걷어치니
온갖산천이 우르러
문대목 거동보소
좀막같은 톱을들고
실도설동
그나무도막 썩썩끊어
이집재목을
나무재단하였으니
집을한채 지어보세
서른데나 주춧돌
주춧돌위에 연지얹고
연지위에 산지얹고
산지위에 금기와은기와
아기자기 지어놓고
사모에 풍경달아
동남풍이 불면
풍경소리 처량하다

17) 또한 株(그루)를(『부산민요집성』, 401쪽 각주).

집을한채 지었으니
성주시주 모시오자
성주시주부친 그누구냐
옥황상제 분명하고
성주모친 누구냐
옥황선녀 분명하와
성주모친 거동보소
금정산에 내려와서
칠성탑을 모아놓고
석달열흘 백일불공
한달가고 두달가고
시월이 다다르니
옥동자 동하구나
그동자가 그누구였나
성주시주 분명하다
성주시주 거동보소
한살먹어 묘를모아
두살먹어 글을배워
십오세에 다다르니
부모에게 불효하여
나라님께 상소하여
삼년귀양을 받았다
뒷동산에 지치달아
나무배를 모아서
낙동강에 띄어놓고
삼년의복 배에싣고
삼년양식 배에싣고
선풍에 돛을달아
가자가자 어서가자
삼년기한 초일토록
집이있어 찾아갈까
절이있어 찾아갈까
말고비를 ……
…… …… (東萊地方)

*임동권, 『한국민요집Ⅱ』, 집문당, 1974, 246~248쪽(836번).
*김승찬·박경수·황경숙 편, 『부산민요집성』, 세종출판사, 2002, 400~402쪽. 4음보로 표기함.

[부산광역시 민요 33]

시집살이謠

위인지부 착한도덕
자제교육 분명하네
세살먹어 말배울제
속이난말 전혀없네
정숙한말 지도하고
욕한마디 하지않네
부정행실 볼가하여
가정에서 욕설없네
아애역시 뽄을받아
욕한마디 할줄몰라
정의로만 지도하니
착한자제 아니될까 (釜山地方)

*임동권, 『한국민요집Ⅱ』, 집문당, 1974, 389쪽(1080번).

[부산광역시 민요 34]

시집살이謠

위인교육 착한도덕
여자교육 엄수하다
질쌈방적 가르치니
재질점점 비상하네
삼종지도 배웠으니
칠거지악 범할소냐
밤낮으로 규중심처

남녀동석 엄금하네
형철효행 가르치니
열녀절에 안될소냐
시가문전 가게되면
부부칭찬 자자하네 (釜山地方)

*임동권, 『한국민요집Ⅱ』, 집문당, 1974, 389쪽(1081번).
*김승찬·박경수·황경숙 편, 『부산민요집성』, 세종출판사, 2002, 386쪽. 4음보로 표기함.

[부산광역시 민요 35]

시집살이謠

착한자부 행실보소
인사범절 비상하다
시집온지 삼일만에
진지반찬 박아놓고
시부모의 식성몰라
시눗님께 묻는말이
짜고심고 부모식성
자세히도 맛보인다
부족할까 염려하여
지성으로 봉양하네
시가문전 어른들께
화락하여 섬겨가네
친가에서 교육받아
백사에도 가감이다
형제자매 동락하고
일가친척 화락하니
일생지사 묵은마음
부모생각 뿐이로다
부처지간 효도하니
집안행복 무궁하다 (釜山地方)

*임동권, 『한국민요집Ⅱ』, 집문당, 1974, 389~390쪽(1082번).

*김승찬·박경수·황경숙 편, 『부산민요집성』, 세종출판사, 2002, 386쪽. 4음보로 표기함.

[부산광역시 민요 36]

시집살이謠

부혜생아 나를낳고
모혜국아 나를길러
진자리며 마른자리
밤낮으로 가려눕혀
이내몸을 길리내어
그공덕이 어떠한가
이은덕을 갚자하면
저하늘도 가이없네
첫닭울면 일어나서
세수하고 양칫하고
종용종용 걸음걸어
부모기신 문전가서
부모님이 기침하면
소자문전 왔습니다
온돌방이 덥지않소
침금이불 차지않소
그음성을 나직하여
조심하여 불러본다
조반절차 물어볼째
무산음식 잡수세요
전후지사 물은후에
종용종용 물러나와
양주간에 이른말이
아직때가 일렀으니
잠을자다 일찍일어
제반준비 하여보세
한잠자고 깨어나니
동천서색 밝아오네

남자를랑 일어나서
실당내외 청소하고
부인이랑 일어나서
조반준비 장만하세
부모님이 일어나면
식전문안 드린후에
쉬던이불 첵첵개서
살강위에 올려놓고
세수준비 하였다가
온호한물 떠다놓고
세수수건 준비하여
만수세수 마친후에
조반진지 드릴적에
절차있게 공손하여
상머리에 꿇어앉어
제반반찬 호명하네
이것저것 알려드려
부모마음 쾌락하리
좋은품성 자자하고
일가문종 화목하게
내외지사 여차하니
효자효부 안될소냐
일단지심 먹은마음
부모님께 은덕생각 (釜山地方)

*임동권, 『한국민요집Ⅱ』, 집문당, 1974, 391쪽(1084번).
*김승찬·박경수·황경숙 편, 『부산민요집성』, 세종출판사, 2002, 387~388쪽. 4음보로 표기함.

[부산광역시 민요 37]

시집살이謠

악한부친 되는사람
자제교육 하는법이
세살되어 말배울제

속일걸만 하는구나
울때마다 하는말이
엿사주마 떡사주마
그울움을 달랜후에
엿두떡두 아이주네
한번속고 두 번속아
아비말씀 신용할까
이러하고 교육하니
부친말씀 들을소냐 (釜山地方)

*임동권, 『한국민요집Ⅱ』, 집문당, 1974, 391~392쪽(1085번).
*김승찬·박경수·황경숙 편, 『부산민요집성』, 세종출판사, 2002, 388쪽. 4음보로 표기함.

[부산광역시 민요 38]

시집살이謠

악한자부 거동보소
완만하고 거만하다
시집온지 일년못돼
권리다툼 시작하네
언사마다 불순하고
빨래까지 할줄몰라
바느질도 끝몰라서
갈지자로 호아맨다
자기구복 채우려고
부모생각 전혀없고
시가문중 숨은말을
타인에게 일러주네
어머님이 준책하면
독사같이 독을품고
거짓말이 듣기좋아
친척간에 이간이요
일가문이 불화하니
왱금댕금 싸움난다

고부간에 말다툼이
자자하게 높아가면
천치같은 남편보게
처자에게 눈어디워
행실부족 생각않고
어머님을 비방한다
우리문전 싸움소리
어머님의 탓이로다
돈과쌀을 눈속이니
생활까지 곤란이라
문쇠조박 되었으니
망할일자 당도하다 (釜山地方)

*임동권, 『한국민요집Ⅱ』, 집문당, 1974, 392쪽(1086번).
*김승찬·박경수·황경숙 편, 『부산민요집성』, 세종출판사, 2002, 388~389쪽. 4음보로 표기함.

[부산광역시 민요 39]

시집살이謠

악한아들 되는자는
부모말씀 자심하다
부모말씀 거역하고
타인네말 신용한다
주색잡기 좋아하여
불고가사 하는구나
돈이없어 정적할제
가정에서 불화일켜
진진막대 집어들고
세간파쇄 일쑤로다
남의부모 공경하고
자기부모 원수같네
부모얼른 없어지면
저재산을 마음대로
쉬고먹고 놀고먹어

한세상을 잘지내지
술잘먹는 내벗이야
돈잘쓰는 내친구야
간대마다 칭찬소래
자기마음 기쁘어라
술잘먹고 쓰는금전
저희부모 벌인돈을
제가잘나 번것같이
용천여수 잘도쓴다
취군작당 모여서서
여차하면 쟁투하네
형법률에 걸려들면
어느친구 도와주리
이럭저럭 패산하니
문전걸식 당해오네
일못배와 글못배와
어찌하여 살아볼까
어린처자 앞세워고
정처없이 떠나가면
술사주던 친구들도
일푼금도 동정없네
부모괄세 그러하고
무슨복을 받을소냐 (釜山地方)

*임동권, 『한국민요집Ⅱ』, 집문당, 1974, 392~393쪽(1087번).
*김승찬·박경수·황경숙 편, 『부산민요집성』, 세종출판사, 2002, 389~390쪽. 4음보로 표기함.

[부산광역시 민요 40]

地神밟기謠

지신지신 내려온다
하늘이생겨서 갑자년지신
땅이생겨서 을축년지신
첫째한양은 동명성이생겼고

둘째한양은 김해가생겼고
셋째한양은 경주가생겼고
넷째한양은 공주가생겼고
다섯째한양은 송도가생겼고
여섯째한양은 서울이생겼네

곤륜산이 생겨가주
함경도 백두산이생겼네
백두산의 내룡으로
평안도 묘향산이생겼네
강원도 금강산이생겼네
금강산 줄기받아
황해도 구월산이생겼네
서울 삼각산이생겼네
서울이라 삼각산은
촉하기도 생겼네
경상도라 내려와서
안동땅 태백산이생겼네
태백산 줄기받아
충청도 계룡산이생겼네
전라도 지리산이생겼네
그산줄기가 뚝떨어져서
동래 금정산이생겼네
부산시가 생길라고
채송화산이 생겼네
그산줄기가 뚝떨어져서
이집터전이 생겼네

집짓세 집짓세
용머리에다 터를닦아
봉의머리다 주춧돌심어
주춧돌위에다 기둥세우고
기둥위에다 납장을얹고
납장위에다 서까래얹고
서까래위어다 흙을얹고

사모에 풍경달고
동남풍이 들여부니
풍경소리 요한하다 (풍악)

이집좋단 말을듣고
온갖사람이 구경왔네
왔던사람 영접하니
누구누구가 왔었던고 (풍악)

온갖치장이 좋을시고
큰방치장이 좋을시고
각지장판 소라반자
능화도벽이 좋을시고
팔각병풍 둘러치고
꿩새끼도 그린방
맹어새끼도 그린방
봉지봉지 꽃봉지
나비나비 범나비
쌍거쌍쌍 왕래하고
아들도 낳아서기른방
외손도 낳아서기른방
아들을낳으면 효자를낳고
딸을낳으면 열녀를낳고
소를낳으면 왁대를 낳고
말을낳으면 용마를낳고
닭을낳으면 봉황을낳네 (풍악)

누리자 누리자
천세만세 누리자
샛별같은 저요강
발치에다 놓였고
머리맡에도 놓였고
비단이불 양단요
아기자기 놓였네
잡귀귀신은 물알로

만복수복은 이방으로 (풍악)

작은방치장이 좋을시고
작은방치장이 좋을시고
한편을 둘러보니
온갖화초 만발하여
춘절이 완연하다
또한벽을 둘러보니
녹음방초 우겄으니
여름철이 완연하고
또한벽을 둘러보니
황국단풍 우겄으니
가을철이 분명하고
또한벽을 둘러보니
백설이 분분하여
겨울철이 분명하다
사시절을 다지도록
길리소 길리소
봉두각시를 길리소
아들이라 낳거들랑
정승판서를 매기고
딸아기를 낳거들랑
정열부인 마련하소
잡귀귀신은 물알로
만복수복은 이방으로 (풍악)

울리자 울리자
조앙지신을 울리자
큰솥은 닷말치
작은솥은 서말치
샛별같은 솥두나
덩그렇게 걸렸다
설강으로 둘러보니
은수저 놋수저
은식기 놋식기

아기자기 얹혀있고
부뚜막을 둘러보니
바위같은 저드무
위치좋게 놓였다
다리굽다 개다리판
광채좋다 자개판
여기저기 걸렸구나
잡귀귀신은 물알로
만복수복은 이조앙으로 (풍악)

울리자 울리자
도장지신을 울리자
천석만석을 개리자
좁쌀도 개리자
옥수수도 개리자
콩팥녹두도 개리자
온갖곡식을 개리거든
벌레병충도 먹지말고
새앙쥐도 먹지말고
천세만세토록 개리자
잡귀귀신은 물알로
만복수복은 이도장으로 (풍악)

여루여루 지신아
장독지신을 울리자
꿀치자 꿀치자
강원도벌이가 이장독에
꿀치자 꿀치자
꼬장은 매웠다
지렁장은 짜왔고나
된장은 떫었고나
막장은 달았고나
울리소 울리소 만
대유전을 울리소
잡귀귀신은 물알로

만복수복은 이곳으로 (풍악)

여루여루 지신아
우물지신을 울리자
동해바다 용왕님
서해바다 용왕님
칠년대천 가물음에
물이나 출렁주소
구년홍수 뱔물[18]에도
물이나청청 맑아주소
이물을 먹거들랑
동서남북 다다녀도
무병하게 하여주소
잡귀귀신은 물알로
만복수복은 이우물로 (풍악)

울리자 울리자
정낭지신을 울리자
막우자 막우자
설사병도 막우자
이질배도 막우자
뒷간주당도 막우자
눌리소 눌리소
잡귀잡신은 물알로
만복수복은 이정낭으로 (풍악)

여루여루 지신아
대문지신을 울리자
막우자 막우자
온갖도적을 막우자
좀도적도 막우자
강도적도 막우자
칼든놈도 막우자

18) 뻘물.

총든놈도 막우자
여도적도 막우자
남도적도 막우자
잡귀잡신은 물알로
만수만복은 이집으로 (풍악)

일년열두달 살푸세
치어다보느냐 천황살
내려다보느냐 지황살
나무에떨어져서 목살
물에빠져서 수살
타인에게 악살
재물에는 손재살
온갖살을 풀어보세 (풍악)

정월이라 십오일에망월날
이월이라 한식날
한식살을 풀고
삼월이라 삼짇날
연자살을 풀고
사월이라 초파일에
사등살을 풀고
오월이라 단오절에
추천살을 풀고
유월이라 유두날에
유두살을 풀고
칠월이라 칠석날에
오작에 살을풀고
팔월이라 가윗날에
추석살을 풀고
구월구일 제삿날에
문중살을 풀고
시월이라 시삿날에
조상살을 풀고
오동지섣달 추운날에

온갖살을 풀어주세 (풍악)

성주님의 본을받아
일년삼백 육십날에
비나이다 비나이다
성주님께 비나이다
춘하추동 사시절에
살살이 풀어주소
잡귀잡신은 물알로
만복수복은 이가정으로 (釜山地方)

*임동권, 『한국민요집Ⅲ』, 집문당, 1975, 191~194쪽(944번).
*김승찬·박경수·황경숙 편, 『부산민요집성』, 세종출판사, 2002, 403~407쪽. 제목은 '지신밟기'. 4음보로 표기함.

[부산광역시 민요 41]

逐鬼謠

(오방지신)
동방 청제지신
서방 백제지신
남방 적제지신
북방 흑제지신
중앙 황제지신
(오방장군)
동방 청제장군
서방 백제장군
남방 적제장군
북방 흑제장군
중앙 황제장군 (釜山地方)

*임동권, 『한국민요집Ⅲ』, 집문당, 1975, 195~196쪽(945번).
*김승찬·박경수·황경숙 편, 『부산민요집성』, 세종출판사, 2002, 407~408쪽. 4음보 위주로 표기함.

[부산광역시 민요 42]

성주풀이謠

성기는 자하고
기백은 축하고
땅은그시에 생긴법이요
인생은 묘하고
사람은인시에 생겼으니
그중에 성주부친이계셨고
성주모친이 계시어
성주부친은 누구시면
천공황제가 분명하고
성주모친은 누구시면
옥중부인이 분명하다
세월이 여류하야
영광이 반이넘도록
일점혈육이 없어
무주남산에 지치달아
칠성단을 모아놓고
불공심을 쓰시면서
백일산제 하시니
지성이면 감천이라
옥황상제 알으시고
자식주라 분부한다
어찌아니 좋을소냐

세월이 여류하야
십삭이 되었구나
일등귀공자 탄생하니
한살먹어 손님하고
두살먹어 홍진하고
세살먹어 걸음배우고
네살먹어 말배우고
다섯살에 학문하고

여섯살에 졸업하고
일곱살에 무불통재하는구나

세월이 여류하야
십오세가 되었으니
청혼허혼 달게받아
장가가든 삼일만에
부모에게 불효하고
일가에게 우애없어
대동동헌에 내어놓고
귀양삼년을 선고하니
아니갈수 있을손가
무주남산에 지치달아
남걸비어 배른모입
청해바다 띄워놓고
삼년먹을 양식
삼년입을 의복실고가자
어서가자 황포섬
귀양살이 어서가자
훈풍에 돛을달아
황토섬 당도하여
돌미륵을 집을삼고
새짐승을 벗을삼아
세월장차 보낼적에
하로가고이틀가고 삼년가니
먹을양식 다떨어지고
산채해채 먹었드니
원인짐승이 되었구나

날아든다 날아든다
청조새한마리 날아든다
새야새야 청조새야
편지일장 전해다고
붓이있어 글을쓸까
손가락을 깨물어서

만리장성 글을써서
청조새입에 물려놓니
청조새 거동보소
편지를 입에물고
천길만길 높이솟아
성주님집으로 당도한다

성주모친 거동보소
자식으로 인연하야
골수에 병이되어
백약이 무효로다
날아든다 날아든다
청조새한마리 날아든다
새야새야 청조새야
성주님편지를 전하드냐
그편지를 떼어보고
나라님께 상소하야
다시그배를 내어타고
인삼녹용을 많이싣고
춘풍에 돛을달아
황포섬엘 당도하니
성주일신은 간데없고
원인짐승이 앉았구나
그짐승을 배에싣고
인삼녹용을 먹였드니
온만신에 털이벗고
성주일신이 분명하다
황포섬아 잘있거라
새짐승도 잘있거라
돌미륵도 잘있거라
가자가자 어서가자
우리고향으로 나는간다

춘풍에 돛을달아
응맹깽깽 하온소리

성주마음 위로하네
성주님을 모셔다가
이고을에 좌정하니
성주마음 흡족하였더라
성주님 돌아오니
부모에게 불효한것
일가에게 우애없어
주색에만 방탕하야
함부로 놀았던것
죄다마음 회개하야
옳은성주님이 되었구나

성주님 치정할제 나라님께 상소하야
솔서말서되를 받아와서
무주남산에 던져심어
치산치수를 하는구나

그솔나무 점점자라
황장목이 되었구나
황양불이 되었구나
재목을 내래하고
서른세명 역군내어
옥도끼를 울러미어
소산에서 소모내고
대산에서 대모내어
건설정치도 잘도하네
현명한농치도 잘도하네
현명한법치도 잘도하네 (釜山地方)

*임동권, 『한국민요집Ⅲ』, 집문당, 1975, 202~204쪽(958번).
*김승찬·박경수·황경숙 편, 『부산민요집성』, 세종출판사, 2002, 397~400쪽. 제목은 '성주풀이'. 4음보로 표기함.

[부산광역시 민요 43]

개지나칭칭

하늘에는 별도많고
 쾌지나칭칭나네
시내강변 자갈도많다
 쾌지나칭칭나네
헌누더기 이도많다
 쾌지나칭칭나네
남의집며느리 말도많고
 쾌지나칭칭나네
이내가슴엔 수심도많다
 쾌지나칭칭나네
좋고좋고 좀도좋다
 쾌지나칭칭나네
우는애기 다달래고
 쾌지나칭칭나네
한강물이 술같으면
 쾌지나칭칭나네
우리동무 대접하지
 쾌지나칭칭나네
노자노자 젊어노자
 쾌지나칭칭나네
이때춘향 못놀으면
 쾌지나칭칭나네
이팔청춘 소년들아
 쾌지나칭칭나네
백발보고 반절마라
 쾌지나칭칭나네
강변에는 돌도많다
 쾌지나칭칭나네
솔밭에는 송이도많다
 쾌지나칭칭나네
대밭에는 마디도많다
 쾌지나칭칭나네
머슴들의 노든자리
 쾌지나칭칭나네
짚신짝이 안빠졌든가

쾌지나칭칭나네
처자들의 노든자리
쾌지나칭칭나네
명주댕기 안빠졌든가
쾌지나칭칭나네 (釜山地方)

*임동권, 『한국민요집Ⅲ』, 집문당, 1975, 363쪽(1108번).
*김승찬·박경수·황경숙 편, 『부산민요집성』, 세종출판사, 2002, 394쪽. 제목은 '쾌지나칭칭'. 4음보로 표기함.

[부산광역시 민요 44]

玉丹春謠

춘아춘아 옥단춘아
네가락지 누가주데
주시더라 주시더라
좌수별감 주시더라
인물보고 주시더나
거래보고 주시더나
인물거래 다제치고
손금보고 주시더라
해를따서 겉을하고
달을따서 안을대며
도래도래 도래줌치
중별따서 중침놓고
상별따서 상침놓고
도래도래 도래병치
연단끈을 마주달아
서울이라 남대문에 걸어놓고
올라가는 신관사또
다른구경 다못해도
줌치구경 하고가오
그줌치가 그누가 집었는고
집었다네 집었다네
옥단춘이 집었다네 (釜山地方)

*임동권, 『한국민요집Ⅲ』, 집문당, 1975, 640쪽(1390번).
*김승찬·박경수·황경숙 편, 『부산민요집성』, 세종출판사, 2002, 384~385쪽. 4음보로 표기함.

[부산광역시 민요 45]

先達맏딸謠

김선달네 맏딸애기
한번가도 못볼래라
두번가도 못볼래라
삼세번 거듭가니
채복단장 꾸몄구나
머리치장 둘러보소
삼단같이 좋은머리
반달같은 용일게로
어리실실 빗어넘겨
궁초댕기 끝만물며
뒤로능청 던져놓고
머리치장 그만두고
저고리치장 둘러보소
쪽을심어 쪽저고리
맹사고름 슬피달아
맵시있게 잡아매고
치장치장 그만두고
발치장 둘러보소
감둥갓신 접버선에
담아신고
발치장 그만두고
방치장 둘러보소
능하대비 각기장판
소리반중 늘였는데
오동장롱 객게수는
자개한쌍 벌여두고
무자이불 잣벼개에

샛별같은 은요강은
발치마당 던쳐놓고
은등잔 불을켜서
천장만장 걸어두고
임도눕고 나도누워
등불은 누가끄나 (釜山地方)

*임동권,『한국민요집Ⅲ』, 집문당, 1975, 723~724쪽(1058번).
*김승찬·박경수·황경숙 편,『부산민요집성』, 세종출판사, 2002, 385~386쪽. 4음보로 표기함.

[부산광역시 민요 46]

詰難謠

우리집 가시내는
못된 가시내
돈만주면 좋다고
입만딱딱 벌리네

저놈의 가시내
저래도뱃가죽은 얇아서
콩죽한버지기 다먹는다네 (釜山地方)

*임동권,『한국민요집Ⅲ』, 집문당, 1975, 746쪽(1746번).
*김승찬·박경수·황경숙 편,『부산민요집성』, 세종출판사, 2002, 408쪽. 4음보로 표기함.

[부산광역시 민요 47]

시집살이謠

개자하니 살이지고
입자하니 목때뭇고
줄때끝에 걸어놓고
날면보고 줄면보고
눈쌀맞아 다떨어지네 (東萊地方)

*임동권, 『한국민요집IV』, 집문당, 1979, 312쪽(702번).
*김승찬·박경수·황경숙 편, 『부산민요집성』, 세종출판사, 2002, 390쪽. 4음보로 표기함.

[부산광역시 민요 48]

情謠

달은떠서 창에들고
임의생각 절로나네
우리님은 어데가고
밤새도록 운울음이
베개넘어 소이됐네
거걸사나 소이라서
겨우한쌍 오리한쌍
쌍쌍이도 뜨돌오네

*임동권, 『한국민요집IV』, 집문당, 1979, 376쪽.
*김승찬·박경수·황경숙 편, 『부산민요집성』, 세종출판사, 2002, 392쪽. 4음보로 표기함.

[부산광역시 민요 49]

情謠

원앙금침 잣물배개
샛별같은 놋요강을
발치밑에 던져놓고
다홍대든 한이불을
허리만치 걸치놋코
님도눕고 나도누워
저불끄리 뉘있는가
병상아래 지치파리
너도가서 저불끄지 (釜山地方)

*임동권, 『한국민요집IV』, 집문당, 1979, 388쪽(973번).

*김승찬·박경수·황경숙 편, 『부산민요집성』, 세종출판사, 2002, 392쪽. 4음보로 표기함.

[부산광역시 민요 50]

情謠

이실같은 저잘남개 청궁같은 저각시야
뉘에간장 만리라구 저리곱게 생겼는고
내가무슨 글이고아 천두복성 꽃일런가

*임동권, 『한국민요집Ⅳ』, 집문당, 1979, 389쪽.
*김승찬·박경수·황경숙 편, 『부산민요집성』, 세종출판사, 2002, 392쪽. 4음보로 표기함.

[부산광역시 민요 51]

情謠

하늘천자 따지지에
집웃자 집을짓고
날일자 영창문에
달월자로 밝혀놓고
우리들이 깊이든잠
하영폭포 들을소냐 (東萊地方)

*임동권, 『한국민요집Ⅳ』, 집문당, 1979, 395쪽(1008번).
*김승찬·박경수·황경숙 편, 『부산민요집성』, 세종출판사, 2002, 392~393쪽. 4음보로 표기함.

[부산광역시 민요 52]

각설이타령

허허 허리구나
허리구나 덜어간다

절시구나 덜어간다
이놈의각설이 이래도
하리장만 못봐도
계집에각씨 다굶긴다
일짜한장 들고보니
일월송송 하송송
밤중샛별이 완연하고
서당닭은 다운데
내돈천냥은 판난네
이짜한장 들고보니
진주야기생[19] 이애미
우리조선을 구할라고[20]
왜장청정[21] 목을안고
진주남강[22]에 떨어졌네
삼짜로한장 들고보니
삼층계밑에 노던한량
거처없이 떠나가다가
외나무다리에 만나니
이만딱딱 갈이네
사짜로한장 들고보니
사시능청 가는길에
점심참이 늦어오네
오짜로한장 들고보니
오관참장[23] 관우장
적토마를 집어타고
제갈공명을 찾아가네
육짜로한장을 들고보니
육관대사 성진이가[24]
팔선녀다리고 희롱하네

19) 晉州야妓生(『한국민요집 Ⅴ』, 178쪽) -편자 주.
20) 求할라고(『한국민요집 Ⅴ』, 178쪽) -편자 주.
21) 왜장淸正(『한국민요집 Ⅴ』, 178쪽) -편자 주.
22) 晉州남강(『한국민요집 Ⅴ』, 178쪽) -편자 주.
23) 五關참장(『한국민요집 Ⅴ』, 178쪽) -편자 주.
24) 性眞이가(『한국민요집 Ⅴ』, 178쪽) -편자 주.

칠자로한장 들고보니
칠월머리 딴머리는
각씨님의 노리개
팔짜로한장 들고보니
팔랑팔랑 녹두새야
녹두남개 앉지마라
녹두꽃이 떨어지면
청포장사 울고간다
구짜로한장을 들고보니
구십묵은 노인네가
구들묵캐서 똥싸네
그자저자 다버리고
열십짜로 들어보니
장안에광대 백광대[25]
광대중에도 모개비
하고나면 그뿐이고
시집시집 덴시집은
살고나면 끝이있고
시집살이 탈도많고
젓방살이에는 말도많다 (釜山地方)

*임동권, 『한국민요집Ⅳ』, 집문당, 1979, 448~449쪽(1108번).
*임동권, 『한국민요집Ⅴ』, 집문당, 1980, 178쪽(581번). 위의 "구십묵은 노인네가/ 구들묵캐서 똥싸네" 부분이 "구십묵은 노인네가 / 구들묵캐서 밥먹고 / 울묵캐서 똥싸네"로 되어 있음.
*김승찬·박경수·황경숙 편, 『부산민요집성』, 세종출판사, 2002, 396~397쪽. 4음보 위주로 표기함.

[부산광역시 민요 53]

玉丹春謠

춘아춘아 옥단춘아
내집구경 가자꾸나
우리집에 물이좋아

25) 장안에廣大 百廣大(『한국민요집Ⅴ』, 178쪽) -편자 주.

금붕어가 밤에놀고
원앙새가 낮에노네 (釜山地方)

*임동권, 『한국민요집Ⅳ』, 집문당, 1979, 636쪽(1526번).

[부산광역시 민요 54]

꼬댁각시謠

한살먹어 어멈죽고
두살먹어 아범죽고
삼세살에 나갈적에
아자바집 들어가니
아자바는 내아자밤
아지매는 내아지매
아자바는 들어차고
아지마는 내어차고
밥이라도 주는것이
접시국에 발라주고
국이라도 주는것이
종지국에 발라주고
그걸사나 만타라고
개뜨줘라 개뜨줘라
깨뜨주고 깨뜨주고
내먹을것 없어졌네
책역을랑 옆에끼고
홍패는 품에품고
어생원의 문앞에가니
저기가는 저도령은
양반인가 상인인가
꽃을보고 지나가네
여전년아 물러가라
악심먹고 배운글을
너에게나 입을소냐
앞집에라 최대목아

뒷집에라 김대목아
가진연장 질머지고
뒷동산에 올라가서
진낭글랑 짧게비고
울밑에라 수팔량꽃
어제핏나 오늘핏나
나를보고 반겨폈나
방긋방긋 웃는시늉
가지높아 못먹겠네
이름이나 짓고가세
무이라고 짓고가나
단자왜라 짓고가세
우리부모 영혼혼백
맹자공자 실린책에
책장마다 실렸는데
시왕전에 돌아들어
등장가세 등장가세
하나님께 등장가세
무선녀뇨 등장가나
늙은청년 죽지말고
젊은청년 늙지마라 (釜山地方)

*임동권, 『한국민요집Ⅴ』, 집문당, 1980, 133~134쪽(529번).
*김승찬·박경수·황경숙 편, 『부산민요집성』, 세종출판사, 2002, 390~391쪽. 4음보로 표기함.

[부산광역시 민요 55]

물래타령

불렁불렁 물래질에
깨오즘이 제작이요
팔랑팔랑 부채질에
새실랑이 노르갤래
파랑부채 청도포야
꽃을보고 지나가나

꽃이사 좋건마는
남의꽃에 손을대리 (釜山地方)

*임동권, 『한국민요집Ⅴ』, 집문당, 1980, 212쪽(628번).
*김승찬·박경수·황경숙 편, 『부산민요집성』, 세종출판사, 2002, 380~381쪽. 4음보로 표기함.

[부산광역시 민요 56]

비단타령

천문일사 황금박
번쩍들었다 일공단
자도충천 만고명산
하영자에 월공단
태백이 비상천하니
강남풍월 한단
동정명월 화창하니
장부절개 송금단
릉태산 소원하니
공부자에 대단
진시왕 어, 무섭다
입빠른 모초단
사해요란 분주하니
치고함쌍 영초단
뒤를모아 짜내니
불에시는 화한단
남향초당 좋은곳에
천하영웅 와룡단
삼십삼천 요진연에
옥경선관 금선단
풍지로 시로치니
태평건곤에 대원단
염불타령 진시면에
춤추기좋은 장단
팔진미 유밀관에

적구충장 한로단
인간이별 만산중에
독수공방 쌍사단
평지수토 하위공덕
구주소산에 공단
황국단풍 구경가자
소소금풍 출화단
화난춘성 만화방창
봉접분분 화초단
나는짐승 유단이요
기는짐승 모단이라
서황모 요진년에
진사하던 천도문
천하고주 산천초목
길러내던 지도문
취란취각 별초당에
번쩍들었다 장자문
큰방골방 골방가로다지
국화사복에 완자문
초당전 화경상에
멀구달에 포도문
꽃숲을 젓가지에
얼클어졌다 넌출문
토영칠판 제목판에
안성유기 대접문
화운다기 운문이요
이견대이 용문이라
용산축신 국화문
두리두리 대접문
뭉게뭉게 구름문
서부려섭적 새발문
살든사랑 정든님
날바리고 가겨주
페좋아 동방석
오래살던 백수주

옥동동화 만산중
행화춘풍 장원주
십이제국 발가구나
천고일월 애명주
백해가 상정되니
사해요란 분주타
온주 포주 아라주
반주 토주 생명주
억통주 연병주
철원주 금성주
노방주 삼동주
구규주 삼팔주
송죽찾아 굳은절개
절행높은 은주사
천간열을 셋치니
거동거사 갑사로다
남향초당 멀다마소
주먹쥐고 지우사
춘하추동 사시절에
매란국죽 생관사
여에사 길상사
생고사 숙고사
외사춘사 밀통사
모사국사 도로사
안주향나 다향나에
모수향나 목향나며
만물지 무궁하니
천지대덕 곱생초
성덕이 너루시사
백국동중 숙초라
가산식과 게군초
행실부정 과초라
만경창파 바람결에
변적변적 낭능이며
휘능감능 녹능이며

와중갑중 남광주에
삼풍구월 충장포
조성북포 안동포
조포 주란포
생제반제 젯초리며
청천에 옥편에
고향나니 새골목
당목 광목 오광목
본목 토목
평양목 중목
시목 홍당목
흑포 청목
양달양 양사명사
세양사 오색당사
명주실이 꾸역꾸역
다나오니 어찌아니 좋을소냐
※ 중중머리 장단으로 노래 부름. (東萊地方)

*임동권,『한국민요집Ⅴ』, 집문당, 1980, 212~213쪽(629번).
*김승찬·박경수·황경숙 편,『부산민요집성』, 세종출판사, 2002, 382~384쪽. 4음보로 표기함.

[부산광역시 민요 57]

꽃 노래

꽃아꽃아 곻은꽃아
높은산에 피지마라
허리안개 자주돌아
반만피다 을마진다 (釜山地方)

*임동권,『한국민요집Ⅴ』, 집문당, 1980, 281쪽(857번).
*김승찬·박경수·황경숙 편,『부산민요집성』, 세종출판사, 2002, 393쪽. 4음보로 표기함.

[부산광역시 민요 58]

꽃 노래

납닥납닥 피리꽃은
양지양지 자리잡고
키크다 연달래는
석상에 자리잡고
열없도다 할미꽃은
수절이라 하는듯이
남면이라 피어나네 (東萊地方)

*임동권, 『한국민요집Ⅴ』, 집문당, 1980, 281~282쪽(859번).
*김승찬·박경수·황경숙 편, 『부산민요집성』, 세종출판사, 2002, 393쪽. 4음보로 표기함.

[부산광역시 민요 59]

꽃 노래

삼가합천 너른들에
왼갖화초 중상하야
봉선화는 질을잡고
와꽃을랑 동을달고
가기꽃을 짓을달고
고초꽃을 동정달고
분꽃을랑 돌띠매어 (釜山地方)

*임동권, 『한국민요집Ⅴ』, 집문당, 1980, 282~283쪽(864번).
*김승찬·박경수·황경숙 편, 『부산민요집성』, 세종출판사, 2002, 393쪽. 4음보로 표기함.

[부산광역시 민요 60]

별謠

그늘은 그늘은

창선을 가아고
별아별아 오너라 (釜山地方)

*임동권,『한국민요집Ⅴ』, 집문당, 1980, 406쪽(1227번).
*김승찬·박경수·황경숙 편,『부산민요집성』, 세종출판사, 2002, 408쪽.

[부산광역시 민요 61]

영감요

저건너 고영감
어-이
무엇먹고 살었노
들깨창깨 오도독 (東萊地方)

*임동권,『한국민요집Ⅴ』, 집문당, 1980, 417쪽(1302번).
*김승찬·박경수·황경숙 편,『부산민요집성』, 세종출판사, 2002, 408~409쪽.

[부산광역시 민요 62]

聲戱謠

이-개 저-개
하늘에 번개
물밑에 요-개
못뚝에앉아 공공

※ 개라는 운자에 어린이들이 지어 부르던 노래인데, 그 뜻을(이개 저개 하늘에 번개 물 밑에 있는 요개들이 못 뚝에 앉아서 공공 짓는다)인 것같다. 이조 말엽에 성행하던 동요(東萊地方)

*임동권,『한국민요집Ⅴ』, 집문당, 1980, 458쪽(1470번).
*김승찬·박경수·황경숙 편,『부산민요집성』, 세종출판사, 2002, 409쪽. 4음보로 표기함.

참 고 문 헌

강서향토지발간추진위원회, 『강서향토지』, 동 발간위원회, 1988.
경상남도지편찬위원회, 『경상남도지(하)』, 경상남도 공보실, 1963. 12.
고정옥, 『조선민요연구』, 수선사, 1948.
곽정식, 『이야기에 비친 선인(先人)들의 삶 – 우리 고장 부산의 전래 설화』, 경성대학교 출판부, 2000.
금정구청, 『금정구지』, 소문출판인쇄사, 1991.
김사엽·최상수·방종현, 『조선민요집성』, 정음사, 1948.
김소운, 『언문조선구전민요집』, 동경: 제일서방, 1933.
김승유 외, 『가덕도의 민속문화1 -눌차동』, 국립민속박물관, 2021.
김승유 외, 『가덕도의 민속문화2 -대항동』, 국립민속박물관, 2021.
김승유 외, 『가덕도의 민속문화3 -동선동』, 국립민속박물관, 2021.
김승유 외, 『가덕도의 민속문화4 -성북동』, 국립민속박물관, 2021.
김승유 외, 『가덕도의 민속문화5 -천성동』, 국립민속박물관, 2021.
김승찬·박경수·황경숙 편, 『부산민요집성』, 세종출판사, 2002.
김의환, 『부산 지방의 지명의 유래』, 태화출판사, 1970.
동래지편찬위원회, 『우리 고장 동래(동래지)』, 부산직할시 동래구, 1982.
박원표, 『부산변천기』, 태화출판사, 1970.
박원표, 『향토부산』, 태화출판사, 1967.
부산직할시 동래구청 문화공보실, 『동래의 역사』, 부산직할시 동래구청, 1990.
서복균, 『우리 민요(民謠)』, 대판(大阪): 교문사(僑文社), 1987.
손진태 지음, 최인학 편역, 『조선설화집』, 민속원, 2009.
엄필진, 『조선동요선』, 창문사, 1924.
이재욱, 『영남전래민요집』(수고본), 1930.
임동권, 『한국민요집 Ⅰ』, 집문당, 1972.
임동권, 『한국민요집 Ⅱ』, 집문당, 1974.
임동권, 『한국민요집 Ⅲ』, 집문당, 1975.
임동권, 『한국민요집 Ⅳ』, 집문당, 1979.
임동권, 『한국민요집 Ⅴ』, 집문당, 1980.
임석재, 『한국구전설화 -경상남도 편 Ⅰ』, 평민사, 1993.
장관진, 「동래지방의 민요」, 『한국문화연구』 4집, 부산대 한국문화연구소, 1991.
정상박, 『전설의 사회사』, 민속원, 2000.
주영택, 『부산, 전승설화를 찾아서』, BNK부산은행, 2015.

주영택, 『부산의 전설 보따리』, 가마골향토역사연구원, 2013.
최광식 엮음, 『남창손진태선생유고집: 우리나라의 역사와 민속』, 지식산업사, 2012.
최상수, 『조선민간전설집』, 을유문화사, 1947.
최상수, 『한국민간전설집』, 통문관, 1958.
황경숙·문재원, 『오래된 마을 미래공동체 -산성마을 사람들』, 부산발전연구원 부산학연구센터, 2014.

제보자 색인

ㄱ

강말석 70
고삼손 69
곽화태 68
김갑년 105, 106, 107, 398, 399
김광자 135, 136, 415
김구길 140, 141
김권옥 421, 422, 423, 424
김두선 109
김명순 63
김문기 10
김복의 111, 400, 401, 402
김분선 112, 402
김사민 76
김상연 185, 186, 187, 188, 434, 435, 436, 437, 438, 439
김상자 113, 114, 116, 117, 118
김선의 416, 417, 418
김소순 62
김순덕 59
김순자 418
김안배 119, 120, 403
김용래 69
김용인 142
김은영 166
김재호 69
김재희 4
김정순 161, 424, 425
김천대 440
김태수 147, 148, 149, 150, 151, 152, 153, 154, 155
김태호 51

ㅂ

박경찬 12, 13, 14, 16, 17, 22, 27, 41, 43, 44, 45, 47, 48
박근오 6
박금수 66
박말봉 51
박연이 189
박영일 57
박우영 58, 65
박일영 74
박임이 441
박종순 12, 19, 20, 24, 26, 28, 32, 34, 36, 37, 38, 40, 43, 46, 49
백금순 9

ㅅ

서복줄 71
손종희 162, 163, 164, 425, 426
송상구 75
송중희 4

ㅇ

오기선 3
오상봉 8
윤달학 56
윤정옥 120, 121, 122, 124
이균수 11
이만수 63

이인호 53
이정렬 125, 403, 427, 428, 429
이정숙 68
이종찬 72
임승민 108
임종민 53, 55

ㅈ

장성기 56, 57, 58
전봉조 458, 459, 460, 461, 462, 463, 464, 465
전재웅 155, 156, 158, 159, 160
정도엽 73
정복경 79, 80, 81, 395
정봉율 6
정억수 68
정옥련 165
조일년 167
주길용 9
주영하 126, 127, 128, 405

ㅊ

차춘선 396, 397
차춘순 82, 83,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4, 105
최복수 66
최정숙 164, 430
최인식 7

ㅎ

하정복 168, 170, 171, 172, 174, 176, 177, 178, 179, 180, 181, 182, 183, 184, 185, 430, 431, 432
한부수 64
허금자 77, 78
허낙 129, 130
허순옥 137, 138, 419, 420, 421
허영숙 432, 433
허영순 142, 143, 144, 145, 146, 147
허원 131
황다연 131, 132
황삼복 406, 410
황월궁 61
황혜자 133, 134, 414, 415

제목 색인

ㄱ

가난한 효부 382
가덕고개에 귀신이 나타났던 이유 172
가덕도 명물 노래 401
가덕도에 산짐승이 없었던 이유 113, 119, 167
각설이타령 464, 513
각시 479
갈가부다타령 450
갈가지를 타고 다닌 고을 원님 340
감노사가 망한 이유 12
감사 메누리가 된 처녀와 불범에 잡혀먹힌 중 27
강피만 훑을 팔자의 부인 117, 135
개로 환생한 모친을 업고 세상 구경 시켜준 아들 179
개암나무가 된 주인 살리고 죽은 개 130
개와 고양이의 보은 38
개좌고개의 의로운 누렁이 209
개지나칭칭 484, 507
거제도 남자를 바람나게 했던 코바위 167
거제도 사람들을 바람나게 했던 코바위 120
게에게 밑을 물린 며느리와 시아버지 103
게의 꾀 74
계모가 473
계모의 학대 380
고갯길에서 만나는 귀신 186
고려장 이야기 147
고려장이 없어진 내력 97, 120, 128, 134, 155, 180
고모당의 고모제 335
고시네의 유래 266
고양이 478
곰보 478
공고지재에서 도깨비와 씨름한 사람 131
공당문답 43
곶감이 무서워 도망간 호랑이 183
과객이 사례로 준 금침 257
과부가 된 모녀와 장사꾼 104
괴정동 회화나무 310
교미하는 뱀을 죽여 우환을 당한 집 174
구렁덩덩 새선비 32
구멍타령 399, 461
권주가 421
귀신 이야기 146
귀신불과 낮귀신 144
귀신으로 변하는 몽당 빗자루 134
그것 없으면 소용있나 49
그것이 둘 있는 사람 47
글을 잘 지어서 죄를 면하다 55
금강산 구경 간 사람 4
금빛 물고기가 노닐던 금샘 325
금정산 대천 애기소와 선녀 299
금정산성 동·서문 재건 때 벌어진 얘기 323
금정산의 범어사 313
기가 억센 처녀 40
기구한 남매 70
기왓장으로 왜적 친 의녀 355
기우제를 지낸 무제바위 341, 342
기우제를 지낸 파리봉 340
길놀이 노래 470
길로 길로 가다가 68, 69
길을 인도했던 청성고개의 도깨비불 127
길흉사를 점지해준 여우 235
김수로왕과 허왕후의 만남 279
김유신의 땅딸보 소나무 326
깊이를 알 수 없었던 용심이골 168

까치 머리가 벗겨진 이유 100
꼬댁각시오 516
꼬부랑 할머니 58, 124, 184
꽁지 따기 69
꽃노래 521, 522
꿩과 메추리와 쥐 19

ㄴ

나 병 다 낫었다 48
나 죽거들랑 480
나락을 대신 찧어주는 도깨비 86
나무꾼과 선녀 102
나쁜 후처 66
나한대의 영험 375
난봉가 470
남의 자식을 효자로 둔 사람 285
낭백 스님과 조엄 321
내 복에 산다 291
내 복으로 산다 26
내 울음이 참 울음이요 46
너냥 나냥(제주도 타령) 402, 421, 423, 432
노랫가락(그네 노래) 426, 461, 462
노루 노래 447
노리개요 481
누에가 된 남자 3
늑대에게 물려 변을 당한 숫구뎅이 딸 339
님 475

ㄷ

다리세기 노래(이거리 저거리 갓거리) 396, 405, 418, 433
단칸방에서 나누는 사랑 112
단칸방에서 몰래 사랑을 나누는 부부80, 81, 92
달구소리 425
달뜨는 항월 398
달음산의 산삼 219
달음산의 용신 234
달팽이 477
닭 잡기 477
대기근에 대비한 민 부사 362
대항마을 입향조 김해 김씨 119
대항마을에 큰 인물이 없었던 이유 133
대항마을의 도깨비불 133
대홍수 때 물에 잠겼던 가덕도 137
덕시 진 놈 57
도깨비 떼는 이야기 87
도깨비 이야기 255
도깨비가 된 몽당 빗자루 85
도깨비로 변하는 몽당 빗자루 170, 171
도깨비로 변하는 몽당 빗자루와 도깨비불 105, 108
도깨비로 변하는 몽당 빗자루와 비를 부르는 귀신 166
도깨비로 변한 몽당 빗자루 127
도깨비불 342
도깨비불이 나는 참나무 86
도깨비에 해코지를 당한 사람 342
도깨비와 씨름한 사람 343
동래 관우묘 345
동래 정씨 묘 13
동래온천 345
동래온천의 유래 366
동래의 관황묘 353, 360
동뫼산의 아기장수 140, 142
동문 옹달샘 339
동백골 해병대 초소가 폐쇄된 진짜 이유 151
동백섬의 동박새 264
돼지 480
두껍아 두껍아 395
두껍이집 노래 434

딸의 지략 63

ㅁ

마하사의 일육나한 374
만나면 3년 안에 죽는다는 낯귀신 114
만덕고개와 빼빼영감 294, 298
망부송에 얽힌 부부사랑 261
매미가 된 각시 36
머리가 하루밤 사이에 하얘진 사람 41
며느리 밥풀꽃 유래 183
며느리들의 불평 44
며느리의 방귀 45
명당을 씨고 9
명당이었던 거북바위 165
명약 52
명점 63
명지도와 공민왕 어필 283
명판정 73
모시적삼 473
모심기 노래 457
모심기 소리 419, 427, 430, 434, 440
몰리못의 너럭바위와 애기장수 267
못 갈 장가 노래 428
묘를 파낸 파리봉 341
무 잎만 가져간 곰 66
무곡마을의 약물샘 237
무당 옷을 버려 망한 집 143
무지개산의 연못 273
무혼굿을 담은 이기대 242
물래타령 517
민락동의 장두바위 254
밀양아리랑 420, 422, 437, 462

ㅂ

바가지를 빌려달라는 터럭손이 82, 159
바늘에 찔린 구렁이 346
바다에 사는 터럭손이 131
바다에서 걸어 나온 귀신 77
바다에서 만난 유령섬 83
바리데기 403
박권농과 그 아들 358
박권농의 아들 347
박문수 어사 일화 16
박어사 일화 17
받침을 잘못 써 우습게 된 편지 81
발치 노래 396, 400
밤길을 밝혀 준 호랑이 98
밤으로 귀신이 놀았던 항월마을 귀신바위 82
방귀타령 399, 417
밭 내는 소리 416
배사공 소리 482
백구타령 449
백록의 동래온천 352
백발가 401, 415, 418, 423, 438
백석사와 선반위 그리고 거북바위의 인연 216
뱀 각시 37
뱀의 보은 62, 71
뱃노래 414, 425, 456
버리더기 28
범골 호랑이와 바구니 275
범어사 미륵전의 목조미륵여래좌상 334
범어사를 지키는 느티나무 316
범어사의 매학동자 313
범어사의 은행나무 331
범어사의 창건 328
별구경 475
별요 522
보리타작 소리 421
복숭아 동자 정도화 109
복을 타고난 사람 88

본조 아리랑 414, 437
부락내혼의 마을 293
부모, 형제 474
부산 밀면 245
부산 유엔묘지의 탄생 246
부작 방망이 22
불국사의 쌀바위 129
불매요 439
비가 오려면 나타났던 도깨비불 152
비단타령 518
비를 부르는 귀신 171

ㅅ

사람 혼이 변한 흰 생쥐 93
사발가 400, 415, 424, 438
사암마을의 여바위 289
산신령이 도운 효자 287
산울림요 485
산저 노인과 차밭골의 차나무 357
삼성대 주산당에 모신 어린 김장군 359
삼취고종 53
상도소리 471
상사요 428
상사풀이요 441
새뛰기의 유래 373
새미산 전설 371
새야 새야 파랑새야 432
서당 강아지 479
서울이 될 뻔한 동네 12
석대마을의 느티나무 265
석대마을의 장사 277
석불사 관세음보살상 295
선녀와 나무꾼 184
선달맏딸요 510
선암사의 꿈 370
선창마을에 집성촌을 일군 경산 전씨 옥산군파 155
선창마을에서 많이 났던 도깨비 불 140
성북동 부자가 망하게 된 이유 150, 158
성북마을 성주 이씨 가문의 아기장수 163
성산마을의 사자바위 280
성삼문이 시로 대국학자를 쫓아보내다 4
성주풀이 486
성주풀이요 504
성희요 523
세워 두면 도깨비로 변하는 몽당 빗자루 135
소금밭에 출현한 도깨비 282
소꿉장난 480
소를 먹였던 소왕대 113
소정마을의 매바위 196
손에 털이 난 터럭신 189
손자의 밑거름이 되는 할아버지 147
솔리방과 도채비 영감 268
송정마을의 송정자 232
송정천의 천석바위 274
솥뚜껑을 솥 안에 넣어 장난치는 도깨비 87
수숫대가 붉은 이유 182
수숫대가 빨간 이유 101
수영 무민사와 선서바위 249
순아도와 처녀골 288
숭어잡이 때 그물 조이는 소리 403
시신과 운우지정을 나누고 복 받은 사람 189
시신을 세워서 묻은 명당 272
시신이 선택하는 배 160
시집 살이 446
시집살이 노래 435
시집살이요 490, 491, 492, 493, 494, 495, 511
신선대와 뒷집 꼬맹이과부보살 243
신선이 데려간 아이 306
신세한탄요 429

신호마을과 명당 게구멍(蟹穴) 281

ㅇ

아기 어르는 소리 399, 439
아기 재우는 노래 431, 438
아기장수가 사라진 이유 164
아들을 삶어서 어머니병을 낫게한 효자 8
아름다운 미음마을 284
아리랑 416
아리랑타령 455
아버지를 잡아먹은 호랑이를 죽인 포수의 아들 20
아이 잡아먹으러 온 호랑이 132
아이를 넣어 만든 에밀레종 97, 122, 180
아홉 공주가 쌓은 왕릉 197
암행어사 이도재와 어사암 212, 226
앞니 빠진 아이 479
애기 장수가 휘갈긴 금수동 명필 229
애원 애기 136
애장터가 되었던 천성진성 168
애장터가 된 천성진성 142
앵림산 안적사의 창건 230
야시로 태어난 딸 136
양산도 426, 430, 461, 471
양포고개 귀신불 126
어느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대화 105
어민들을 해쳤던 바다 귀신 185
어부가 476
어부들을 바다 속으로 끌고 갔던 터럭손이 165
언젠가는 복이 온다 99
얼음골의 열녀 319
엄마 노래 445
여우놀이 481
여자 밑을 문 게를 떼어준 나발수 176
여자 밑을 조개로 착각한 까마귀 177
여자 밑이 무서워 도망간 호랑이 185
여자의 일념 69
연대봉 기우제 140
연대봉과 조개껍데기 148
연대산 기우제 149, 156, 162
연대산 산신 162
연모요 469
염불가 451
영감요 523
영원조사와 명학동지 329
옛날 옛적 57
오는 손님 못 오게 해 망한 집 96
오독도기타령 449
오독독이타령 472
오랑깨롱 478
옥녀와 선비의 사랑 207
옥단춘요 509, 515
옥서계의 망령 351
와우산 송아지에 얽힌 사랑 258
외양포마을의 도깨비불 139
외양포마을의 일본군 귀신 139
외양포와 양천 허씨 138
요술남용을 경계함 6
욕심이 많아 뱀으로 환생한 어머니 96
용당 학사대의 윤씨 묘 296
용동골마을의 천국부와 장터걸 300
용소바위와 장사 240
용이 승천했던 용심이골 111
용천강이 황룡이 등천한 돌용골 224
용천산과 사기점골 214
우뚝 솟은 쉰길바위 141
우렁각시 99
우리 부모 482
운봉산의 효녀 김씨 263
운수사와 우운대사 308
운수사의 두꺼비바위 304

울릉도를 수탐한 안용복 장군 250
웅천 천자바위 293
웅천마을의 범바위굴 203
원앙대의 용녀 194
원앙대의 용녀와 미랑스님 210
원효대사와 마애미륵존여래좌상 337
원효대사의 장군기와 호로병 322
원효스님과 미륵암의 쌀바위 332
월평의 반월성 228
유명했던 가덕 탕건 147
윤공단의 순란사민비와 윤백련 311
윷요 485
의적 정봉서와 그의 아내 367
의적 정봉서와 마누라 354
이박 저박 57
이상한 화로 65
이성규의 유시 68
이야기 56
이양요 452, 483
이어나 산아 434
이어도 산아 440
이정헌공과 부산성 378
이퇴계 14
인지암 257
일광산의 쌍바위(雙岩) 193, 211
일광의 보름새 223
잊음이 심한 사람 76

ス

자기 제사에 가는 귀신 79, 89, 90, 106, 179
자기 제사에 가는 귀신을 배에 태워준 사람 160
자식 훈육을 위해 나타난 귀신 145
잠자리 잡는 노래 402
잠자리 잡는 소리 395, 397
장군대와 진계등 198, 206
장님과 앉은뱅이 형제 289
장산국의 왕비릉 202
장안사와 청룡등의 독룡 222
장항과 율리를 잇는 산길에서 만난 도깨비 154
저승 갔다 온 사람 174, 187
저승길 477
저승에 다녀온 사람 114
저승의 젖나무 116
전생모자 348
전생의 어머니를 만난 부사 류심 364
젊어지는 샘물 43
정공의 유사 377
정묘사전기 374
정성 있는 효자 7
정성을 들여야 하는 제사92, 107, 118, 146, 178
정승의 사위가 된 두꺼비 276
정요 512, 513
제삿날 보이는 귀신의 흔적 79, 91
조 한 이삭 388
조세이 고개와 새색시 271
좀시래기 이야기 385
주인을 살린 개 94
주인을 살린 동물 94
죽어 뱀으로 환생한 사람 176
죽어 뱀이 된 어머니 95
죽어 용왕이 된 고상춘 125
중옥의 뜻 10
지게 끈을 도깨비로 착각한 사람 153
지략 있는 소년 51
지략있는 아이 72
지렁이국으로 부모를 봉양한 며느리 181
지렁이국을 끓여 시어머니를 봉양한 며느리 121
지신밟기 노래 465
지신밟기요 406, 496
지킴이가 떠난 뒤 망한 집 106

지킴이를 죽여 망한 집 187
진우도의 소리 내는 귀신 바가지 108
진우도의 애기 귀신 85
진주 기생 얼순이 436
진주난봉가 436, 459
집지킴이 143

ㅊ

착실한 하인의 정체 75
창부타령 460
처녀 총각바위 161
처녀의 지략 9
척판암에서 던진 판자 220
천벌 받은 며느리 384
천성고갯길에서 만난 도깨비 78, 153
천승호 부부의 효열 303
천자봉과 명나라 태조 주원장 128
철마산의 쇠말 218
첩 475
청어 사기 48
청춘가 463, 464
초록제비 480
초읍동의 이동설 372
총각, 처자 474
총각과 선녀 24
최치원의 혜지 56
축귀요 503
칠난시 11
칠암마을의 범난골 232
칠총의 전설 379

ㅋ

캐지나칭칭 454
코바위와 거제도 처녀 149, 164
큰애기 474

ㅌ

탕건요 424
태종대 앞 주전자 섬 376
통도사의 금개구리 51

ㅍ

파랑새요 415, 417, 420
판자를 던져 중국 스님 천 명을 구하다 201
풍뎅이 놀리는 노래 397

ㅎ

하룻밤 475
학리마을의 학송 225
한 부사의 젓가락 363
한목의 지명 유래 119
한부사의 젓가락 349
할미꽃 유래 182
해산타령 450
해와 달이 된 남매 59
해운대를 품었던 최치원 262
해월사 노스님과 이무기 315
허 진사와 대장골의 산적 301
허장자와 소머리바위 318
헛배와 속신 150
호랑이 잡는 아이 58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곶감 103, 124
호랑이와 토끼 19
호랑이의 보은과 최개동 장군 215
호매 34
호식 당한 아기 100
혹 떼러 갔다가 혹 부친 이야기 67
혹부리 영감과 도깨비 188

화지산과 정씨묘 369
화투 노래 419
화투타령(화투뒤풀이) 431
활달한 처자 64
황룡장군과 의성 305
황옥공주와 동백섬 인어상 259
회심곡(상여앞소리) 410
효성에 감동한 산신령 317
효암천의 오룡과 다섯마을 238
효자 며느리와 은혜 깊은 호랑이 252
효자 6
효자로 이어진 김씨 4효묘(四孝廟) 205
효자시험 61
후장골의 호랑이 270
힐난요 511

■ 편저자 소개

박경수_부산대학교 국어교육과,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문학석사), 부산대학교 대학원(문학박사) 졸업. 현 부산외국어대학교 한국어문화학부 교수, 한국문학회, 한국민요학회 회장 역임. 부산시문화상(2017) 수상. 부산광역시 시사편찬위원. 주요 저서로 『한국 근대문학의 정신사론』(1993), 『한국 근대 민요시 연구』(1998), 『한국 민요의 유형과 성격』(1998), 『한국 현대시의 정체성 탐구』(2000), 『아동문학의 도전과 지역 맥락』(2010), 『현대시의 고전텍스트 수용과 변용』(2011), 『현대시의 문화 읽기』(2020), 『아리랑의 문학 수용과 문화 창출』(2021) 외 여럿, 편저로 『부산민요집성』(2002), 『증편 한국구비문학대계 8-16~18 -경상남도 함양군 편』, 『증편 한국구비문학대계 8-20~22 -부산광역시 편』, 『증편 한국구비문학대계 8-24~26 -경상남도 남해군 편』, 『증편 한국구비문학대계 8-27~28 -경상남도 산청군 편』(2014~19) 외 여럿.

황경숙_서울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부산대학교 대학원(문학석사, 문학박사) 졸업. 현 문화재청 무형문화재위원. 부산광역시 문화재위원, 시사편찬위원. 플랜비 문화예술 협동조합 이사. 주요 저서로 『한국의 벽사의례와 연희문화』(2000), 『부산 기장군 장안읍 효암리 민속문화』(2002), 『부산의 민속문화』(2003), 『6.25 피란민의 자전기록 부산의 기억과 삶』(2017), 『낙동강 하구 재첩마을과 재첩잡이』(2020), 『가덕도의 민속문화 1~5』(2021), 『주민의 기억으로 담은 이야기 미포 청사포 구덕포 가을포』(2021) 등 여럿. 편저로 『부산민요집성』(2002), 『부산의 당제』(2005), 『오래된 마을 미래공동체 - 산성마을 사람들』(2014), 『증편 한국구비문학대계 8-16~18 -경상남도 함양군 편』(2014), 『부산의 마을신앙 2』(2020) 『피란수도 부산, 구술채록 및 구술자료집 피란, 그때 그 사람들』(2021), 『바다 사람들의 생애사4』(2021) 외 여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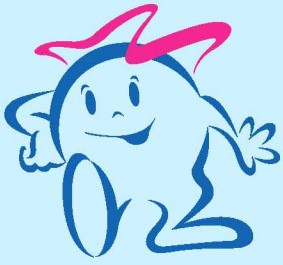
부산구술문화총서 15
부산의 설화와 민요 - 보유편

발 행	부산광역시
발 행 처	부산광역시 문화유산과(시사편찬실)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051-888-5058
기 획 · 편 집	부산광역시 문화유산과(시사편찬실)
발 행 일	2022년 5월 31일
인 쇄	효민디앤피
발간등록번호	52-6260000-000301-10
ISBN	979-11-85308-08-1 978-89-964675-9-5(세트)

(비매품)

자료검색
부산시 (www.busan.go.kr) 부산소개 > 부산의 역사 > 향토사도서관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www.bssisa.com)

※ 표지 사진 제공 및 출처 : 디지털부산역사문화대전(http://busan.grandculture.net)
※ 이 책의 저작권과 판권은 부산광역시 문화유산과(시사편찬실)에 있습니다.



비매품/무료
94380
9 791185 308081
ISBN 979-11-85308-08-1
ISBN 978-89-964675-9-5 (세트)